발간번호 71-4060000-000044-14

민선7기 전반기

시정백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PAJU
파주시

민선7기 전반기

시정백서

PAJU
파주시

목 차

발간사 006
시정비전 008
최초의 파주 018

Ⅰ. 주요 지표의 변화

1. 한반도 평화 선도도시로 거듭났습니다! 022
2. 자족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24
3. 구석구석 사통팔달, 편리하고 빨라졌습니다! 026
4. 지역 모두 잘사는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028
5.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030
6. 평화·생태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032
7.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드리고, 삶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034
8. 배려와 돌봄을 책임지고, 행복을 키웠습니다! 036
9. 명품 교육도시 조성으로 미래의 꿈을 가꿨습니다! 038
10.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였습니다! 040
11. 여성에서 도시까지, 안전한 파주를 만들었습니다! 042
12. 시민공감 혁신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044

Ⅱ. 분야별 시정운영 성과

1.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

1. 평화 전담조직 설치 050
2.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및 위원회 출범 052
3.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055
4. 기초지자체 최초 대북지원사업자 선정 058
5.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 추진 060
6. 평화도시 조성 063
7. 창작뮤지컬 '도보다리의 추억' 공연 추진 065
8.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067
9. 방호벽 정비 및 철거 추진 072

2. 통일경제도시 파주

1.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080
2.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082
3.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085
4.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087
5. DMZ 평화의 길 조성 090
6. 임진각 평화곤돌라 설치 093
7.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095
8. 오두산 전망대 철책길 구간 개방 097
9.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099

3. 서민경제도시 파주

1. 통일동산지구 CJ ENM 콘텐츠월드 유치 104
2. 파주희망프로젝트 차질없는 단계별 추진 107
3.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110
4.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추진 114
5. 안정적인 산업단지 조성 추진 116
6.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재개 120
7.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 123
8. 상생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129
9.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페이' 발행 131
10. 군 장병 평일외출 지원시책 추진 135
11.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 137
12.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추진 139
13.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및 지원 141
14.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 145
15. 기업애로 해소 148
16. 공영주차장 확충 153
17. 포스트코로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156

4. 생태문화도시 파주

1. 파주학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174
2.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추진 177
3. 지역 고유문화 콘텐츠 발굴 180
4.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복원 추진 183
5. 헤음원지 관광자원화 186
6. 문화역사 관광벨트 조성 189
7. 마장호수 주차장 개선 191
8. 출판문화 자원 연계 문화협력 사업 193
9. 헤이리 無장애 노을숲길 조성 197
10.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201
11. 공공도서관 확충 205
12. 중앙도서관 「휴먼 IN PAJU」 운영 210
13. 교하도서관 「마을, 그리고 도서관」 운영 213
14.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공릉천 친수공간 조성 217
15.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사업 추진 221
16.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224

5.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

1. 운정3지구 성공적 개발 230
2.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233
3.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236
4. 원도심 가치,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242
5. 마을살리기 사업 활성화 245
6.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 334
7. 우리 땅의 새 역사, '지적재조사' 336
8. 6차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연계로 특성화 340
9. 행복주택 공급 342
1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344
11. 종합적인 귀농 지원사업 추진 347
12. 파주시 농업인의 물부족 문제 항구적 해소 350
13. 과학 영농 실현의 시작, 농업용 드론 353
14. 경기북부 최초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356
15. 명품 농산물축제 추진 358
16. 파주 미래농업을 여는 '스마트 농업' 추진 363
17. 미생물 배양시설 확대 368
18. 브랜드 강화 추진 (한수위, 장단삼백) 372
19.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379
20. 파주 공공 와이파이 310개소 설치 383
21. 노후관로 교체 및 수도공급 시설 확장 385
2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389
23.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사업 추진 391



목 차

6.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

1.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396
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400
3.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402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406
5. 파주 온돌(온종일 돌봄)사업 추진 409
6. "두부사려 똑!똑!똑!" 414
7. DMZ 파주 희프 417
8. 노인, 장애인 일자리 확충 420
9. 노인, 장애인 복지관 확충 423
10. 지역주민 체감형 건강증진사업 확대 425
11. 치매 예방 인프라 구축 428
12. 전통시장 등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431
1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과 극복 435
14.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442
15. 미세먼지 대응 종합관리 대책 추진 452
16.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체계 운용 선도 457
17.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460
18.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추진 463
19. 폭염대비 그늘막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465
20.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467
21. 소규모 공동주택 설계기준 마련 470
22. 시민안전콜 확대 구축 473
23. 체육인프라 및 스포츠 문화조성 475

7. 대중교통 혁신도시 파주

1. GTX-A노선 착공 482
2.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추진 485
3. 문산역~도라산역 전철화사업 및 운천역 신설 488
4. 대곡소사선 운정연장 추진 491
5. 광역교통 노선 신설 추진 493
6.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496
7. 사통팔달 편리한 도로망 확충 501
8. 더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506
9.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509
10. 겨울철 버스정류장 내 한파저감시설 설치 512

8.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

1. (가칭)운정EBS파크 추진 516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19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522
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524
5.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 지원 527
6.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529
7. 공동주택 주변 어린이 안전승강장 조성 532
8. 아이가 더 편안한 공동주택 디자인 534
9. 파주시 최초 청소년수련관 건립 537
10.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540
11. 청소년 안전망팀 조직 신설 543
12.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추진 546
13.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548
14. 북부권역 대학수능시험장 유치 550
15.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552
16.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반 조성 554
17. 에어바운스 풀장 등 물놀이장 설치 운영 557
18.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559

9. 여성행복도시 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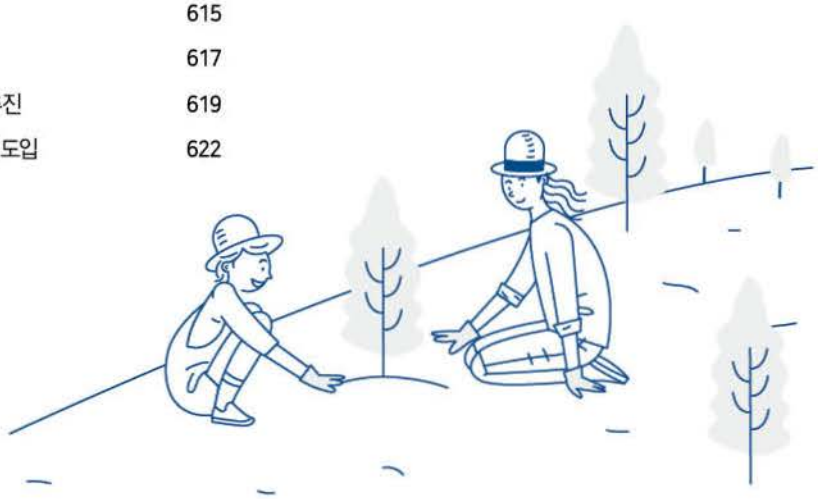
1. 여성정책전문위원 임용 564
2.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567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569
4. 문산보건지소 공공 외래산부인과 설치 572
5.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575
6.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추진 577
7.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운영 580
8. 안심귀가 마을버스 사업 시행 583
9. 성인지 예산의 양적·질적 확대 585

10. 행정혁신 분야

1. 재정집행평가 4관왕 달성 590
2. 공모사업 대응전략 강화 592
3. 시민만족 공공건축 개선 595
4. 드론 활용 스마트 행정 구현 599
5. 좋은 조례 추진 603
6.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605
7. 소송수행 업무의 전문성 강화 608
8. 공공 와이파이 확충 610
9. 경제활성화 체험교육 운영 612
10. 파주시 민관협치 추진 615
11. 파주시 갈등관리 추진 617
12. 맞춤형 체납실태조사 사업 추진 619
13.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선제적 도입 622

Ⅲ. 부록

1. 수상 및 공모현황 628
2. 공약이행 추진사항 642
3. 파주시 주요통계 654
4. 파주시의 발자취 660
5. 언론에 비친 파주 680




평화콘서트

시민여러분의 "파주"는 오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소외의 이미지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지향적인 평화도시 파주를 향해 힘 있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파주시 1,700여명의 공직자들은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파주, 성장과 도약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백서는 파주시의 지난 2년여간의 치열했던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수도 파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크고 작은 변화들,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극복, 고민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미래'를 향하는 다짐입니다.

본 백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정 전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는 더욱 바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전반기에 뿌린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이 되어 시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따뜻함을 드리는 시정,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파주시장 최 종 환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시정목표

평화 —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거점도시

상생 — 인간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

분권 — 시민과 함께하는 참좋은 지방정부

시정전략

평화
1.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
2. 통일경제도시 파주

상생
1. 서민경제도시 파주
2. 생태문화도시 파주
3.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

분권
1.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
2. 대중교통 혁신도시 파주
3.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
4. 여성 행복도시 파주

시정철학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한반도 평화의 새시대, 파주가 열어갑니다.



평화를 심는 통일 모내기



기초지자체 최초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DMZ 평화의 길 개방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DMZ 평화적 이용 학술회의



평화 토크쇼 평화를 여는길

통일 경제도시 파주

파주는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임진각 평화곤돌라 운행개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추진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서민 경제도시 파주

소상공인과 기업이 상생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파주페이 발행



파주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 개소



장단콩 웰빙마루 착공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준공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



기업애로 현장 방문

생태문화 도시 파주

역사와 문화, 생태적 자산으로 파주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운정호수 · 소리천 · 공릉천 친수공간 조성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길 조성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파주속으로 인문학 기행 '파파고(古)'



파주학 원년 선포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커가는 파주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도시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명품 농산물 축제



5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사업 추진



마을살리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마을공동체 발대식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

촘촘한 돌봄과 튼튼한 안전망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키웁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 추진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서비스「더 나은 돌봄」시행



희망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



치매극복 선포식 및 시민건강 걷기대회



치매안심센터 개소

대중교통 혁신도시 파주

교통혁신으로 사통팔달 파주를 만들어갑니다.



천원택시 운행 개시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GTX-A노선 착공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추진



직행좌석 3400번 개통



교통약자 맞춤형셔틀버스 운행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미래세대, 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키웁니다.



북부권역 대학수능시험장 유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유비파크 가족체험문화공간 조성



에어바운스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여성행복 도시 파주

여성이 행복하고 가족과 도시가 행복한 평화도시를 지향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문산보건지소 공공 외래산부인과 설치



여성안심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최초의 파주" 파주시가 최초로 해냈습니다!!



평화문화관광분야

- 한울도서관, 전국 도서관 최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최우수 인증 (2018.12.26.)
- 통일동산 관광특구, 경기도 접경지역 최초 관광특구 지정 (2019.4.30.)
- 경기도 최초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20.2.14.)
- 기초지자체 최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2020.3.19.)
- 경기도내 최초 한국문화가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2020.5.13.)
- 기초지자체 최초 관광안내 챗봇 도입 (2020.7.1.)
- 국내 최초 민통선 출입 평화곤돌라 개통 (2020.9.15.)



도시교통분야

- 경기도 최초 교통약자 맞춤형 셔틀버스 운행 (2019.8.5.)
- 경기도 최초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2019.8.20.)
- 경기 북부 최초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2019.10.11.)
- 전국 지자체 최초 포트홀 보수장비 도입 (2019.11. 7.)
- 전국 최초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2020.4.10.)
- 전국 최초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방지 노면표시 설치(2020.9.25.)
- 전국 최초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2020.10.17.)



경제분야

- 전국 최초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19.10.4.)
- 전국 최초 군부대 배달수수료 지역화폐 지원(2020.3.25.)
- 지자체 최초 전 시민 코로나19긴급생활지원금 선불카드 일괄 발급 (2020.4.6.)
- 경기도 최초 지역화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돌려 Dream) 시행 (2020.6.8.)



농업분야

- 경기북부 최초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운영(2019.9.16.)
- 경기북부 최초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설치(2019.10.15.)
- 경기도 최초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개발 선정(2020.2.25.)
- 전국 최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시행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전국 시행(2020.3.9.)
- 전국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서 발간(2020.7.1.)
- 경기북부 최초 노지스마트팜 단지 설치 (2020.10.30.)
- 전국 최초 통일영농형 태양광시설 하부 농작물 시험재배(2020.12.1.)



보건복지·안전분야

- 경기도 최초 공공산부인과 개설 (2019.5.27.)
- 전국 최초 초등학교 등하교 차량정차대 설치(2019.6.25.)
- 경기도 최초 보건소 내 음압텐트 설치 (2020.2.3.)
- 정부보다 빠른 공적마스크 53만매 특별공급 (2020.2.27.)
- 전국 최초 지자체·경찰서 협업 청소년경찰학교 설립 확정(2020.6.23.)
- 고강도 방역대책, 전국 최초 휴게음식점 집합제한 행정명령 실시 (2020.8.16.)
- 경기북부 최초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대응체계 구축(2020.9.25.)
- 지방자치단체 최초 방범CCTV시스템에 SDN*을 적용한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구축 (2020.12.16.)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행정분야

- 전국 최초 도서관 내 기록관리팀 신설 (2018.7.8.)
- 기초지자체 최초 평화협력과 신설 (2018.10.22.)
- 전국 최초 스마트농업과 신설 (2018.10.22.)
- 전국 최초 읍면 마을살리기팀 신설 (2019.7.8.)
- 전국 최초 청소년안전망팀 신설 (2020.1.8.)
- Smart & Speed 파주재정 All-In-One 프로세스 추진(2019.9.17.)

I

주요 지표의 변화

1. 한반도 평화 선도도시로 거듭났습니다!
2. 자족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 구석구석 사통팔달, 편리하고 빨라졌습니다!
4. 지역 모두 잘사는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5.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6. 평화·생태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7.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드리고, 삶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8. 배려와 돌봄을 책임지고, 행복을 키웠습니다!
9. 명품 교육도시 조성으로 미래의 꿈을 가꿨습니다!
10.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였습니다!
11. 여성에서 도시까지, 안전한 파주를 만들었습니다!
12. 시민공감 혁신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01 한반도 평화 선도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



해외입양인 대상 팸투어

추진 과제	2년 전	현재
기초지자체 최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독자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불가 	 ‘대북지원사업자’지정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 추진 가능
방호벽 철거	군사적 효용을 상실한 방호벽의 존재로 주민불편 	 방호벽 철거 (3개소) • 월롱면 도내리 • 월롱면 위전리 • 야동동 문산제일고 앞 평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교통정체 해소
DMZ 내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	한국전쟁으로 멸실된 지적공부 미등록으로 지적미복구토지 다량존재 	 파주시로 행정구역 편입 후 지적복구 완료 판문점 일원 135필지(592,328㎡) 미복구 토지

02 자족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식



CJ ENM 조감도

추진 과제	2년 전	현재
운정신도시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부계획 부재 및 산업단지 물량 미확보 	 운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 (산업단지 물량배정 확정으로 4차산업 핵심 거점 조성 본격화)
북부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산업단지 조성 부진 	 산업단지 조성 적극 지원 • 준공 : 적성산업단지(135,200㎡) • 진행 중 : 1,230,225㎡ – 법원2산업단지(330,258㎡) – 파평산업단지(593,325㎡) – 법원1산업단지(306,642㎡)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특성화된 복합문화관광 콘텐츠 부재 	 아시아 최대 규모 방송스튜디오 및 종합관광단지 유치 및 착공 • 위치 : 탄현면 법흥리 1778 • 규모 : 210,000㎡(6.4만평) • 시설 : 영화&드라마세트장, VFX-SFX, 특수촬영체험시설, k-pop스튜디오 등

03 구석구석 사통팔달, 편리하고 빨라졌습니다!



천원택시 운행식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식

추진 과제	2년 전	현재
철도교통망 확충	철도 교통망 부족 	GTX-A 착공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추진 운천역 건립 승인 및 추진 문산역~임진강역 전철개통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회(12회)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회 – 야당역 16회 신규정차 – 운정역 4회 증회 (총8회) 
7년만의 광역버스 노선 개통, 광역급행(M) 버스노선 확대	서울행 광역버스 8개노선 / 105대 	서울행 광역버스 확대 11개노선 / 137대 3100번 직행좌석 신설 운정~홍대입구역(12대) 3400번 직행좌석 신설 운정~공덕역(12대) 
교통불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 천원택시	미운행	46개마을 / 87,197명 이용 이용률 97.8% 
교통불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 맞춤형 버스	5개노선 / 14대 	6개 노선 / 16대 탄현면 추가 운행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노선증설	준공영제 미도입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 시민 : 배차 정시성 및 안전한 운행 제공 • 운수종사자 : 고용안정성 확보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노선증설	마을버스 39개노선 / 104대	42개 노선 / 130대 금촌~야당역 / 조리~운정 노선 신설
사통팔달 도로망 조기 개통	도로 교통망 부족 	2018 : 국지도 56호선(조리~법원) 13km 확포장 국지도 37호선(적성~전곡) 7.89km 확포장 2019 : 시도24호선(운정~능안리) 도로 준공 2020 :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개통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설치 완료

04 지역 모두 잘사는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업무협약식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사전 설명회

추진 과제	2년 전	현재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부진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박차** • **캠프하우즈** 평평한마을조성 예산 100억원 확보 •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 (현대엔지니어링) • **캠프스탠턴** 산업단지개발 협약체결(GS건설)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 활력 모색	도시재생관련 계획 부재 	 **도시재생관련 부서 및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사업추진** • 4개사업, 국도비 68억원 확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문화체험공간 조성	유비파크 건물 방치  하천 유휴부지 미활용	 **EBS연계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 • (가칭)운정EBS파크 **공릉천변 물놀이장 조성** • 물놀이장 2개소 / 기반시설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립사업 추진	공공기관 이탈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구)등기소 부지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국비 80억원 확보 **(구)경찰서 부지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수립** • 시설결정 용역 중

05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파주페이 발행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

추진 과제	2년 전	현재
공영주차장 확충 (상권과 대중교통 활성화)	77개소 6,743면 	 82개소 7,489면 (746면 추가조성) • 광탄경매시장 : 공영 36면 • 산내마을2 : 임시공영 251면 • 금촌통일시장 : 공영 136면 • 금촌역 선로하부 : 임시공영 56면 • 운정호수공원 : 임시공영 267면
지역화폐 발행 확대 (내수 실물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미발행 	 지역화폐 440% 증가 2019년 • 발행액 : 110억원 • 발행건수 : 22,798명 2020년 • 발행액 : 594억원 • 발행건수 : 110,658명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체(제조업) : 3,533개소 종사자 : 40,175명 	 사업체(제조업) 4,063개소 (530개소 증가) 종사자 : 44,104명 (3,929명 증가)

06 평화·생태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임진각 평화곤돌라



마장호수 출렁다리 200만명 방문기념 노을음악회 개최

추진 과제		2년 전	현재
임진각 평화곤돌라 설치 운행		임진각 관광지 관광시설 노후 	 임진각 평화곤돌라 운행 (L=850m, 26대) 탑승객 : 267,604명 매출액 : 1,946백만원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전구간 조성 완료 (파주출판단지 ~ 적성 두지리)		조성 구간 : 49.1km 	 전 구간 조성 완료 75.3km (26.2km 조성) 부대시설 공사 완료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감악산 힐링파크 (출렁다리)	편의시설부재 (주차장, 화장실, 먹거리등) 	 주차장, 화장실 등 설치 야간관광(조명) 명소 조성 식도락 먹거리촌 조성
	마장호수 출렁다리	기반시설부재 (주차시설, 즐길거리 등)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주차장 조성, 주차난 해소
파주 DMZ평화의길 조성·개방		DMZ 평화의길 파주구간 미개방 	 DMZ평화의길 파주구간 1단계 개방(21㎞) • 개방일 : 2019. 8. 10. • 임진각~통일대교~도라전망대 ~2통문~철거GP

07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드리고, 삶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파주시-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 협약식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추진 과제	2년 전	현재
대학병원 유치	종합병원 및 대형의료 시설 부재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 아주대학교 병원 유치 성공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유치 성공
출산여성 맞춤형 지원	예비 신혼부부 무료검사 지원 부재  산후 조리비 지원 부재	 수혜자 : 1,317명 • 2019년 : 958명 • 2020년 : 359명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원 수혜자 4,952명 • 2019년 : 3,052명 • 2020년 : 1,900명
치매안심센터 개소 및 문산지역 산부인과 개설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단기쉼터 전무  문산지역 산부인과 전무 	 치매안심센터 1개소 치매단기쉼터 1개소  문산보건지소 내 산부인과운영 5,090명 이용 • 임산부: 783명 • 부인과: 4,307명

08 배려와 돌봄을 책임지고, 행복을 키웠습니다!



시립 산내마을9단지 어린이집 개원식



교통약자 맞춤형 셔틀버스 시승식

추진 과제		2년 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개 소 : 17개소 이용자 : 866명 이용률 : 6%	개 소 : 26개소(9개소 신설) 이용자 : 1,250명(384명 증가) 이용률 : 9.79%(3.79% 증가)
노인·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1,603명	참여자 : 2,469명(866명 증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79명 배치기관 : 38개소	참여자 : 121명(42명 증가) 배치기관 : 35개소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 및 다양화		맞춤형 셔틀버스 미운행 바우처택시 미운행 임산부 전용차량 미운행 연간이용자 : 30,488명	맞춤형셔틀버스 : 1대(경기도 최초) 바우처택시 : 19대 임산부 전용차량 : 2대 이용인원 : 46,317명(15,829명 증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구축		노인복지관 주차공간 협소 북부권역노인복지관 부재 노인·장애인 복합 복지관 부재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조성 중 문산행복센터 내 노인복지관 조성 중 노인·장애인 복합복지관 조성 중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보훈명예수당 연 60만원	보훈명예수당 연 84만원(24만원 증액)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1개소 405가구 이용	2개소 577가구 이용 (172가구 증가)

09 명품 교육도시 조성으로 미래의 꿈을 가꿨습니다!



한울도서관 개관식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과제	2년 전	현재
지역별 도서관 건립 및 독서환경 조성	공공도서관 : 14개소 공립작은도서관: 6개소	 공공도서관: 18개소(4개소 증가) • 한울, 파평, 월롱, 파주도서관 등 공립작은도서관: 4개소
파주시 교육예산 획기적 증액	206억원 	 2019년 : 269억원(63억원 증가) 2020년 : 346억원(77억원 증가)
중·고등학교 교복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중·고교 교복비 미지원 고등학교 급식 미지원	2019년 : 4,612명(중학교) 2020년 : 9,543명(중·고교)  관내 18개 고교 전학년 지원 : 12,411명
어린이 눈높이 안심 통학로 조성	옐로카펫 : 17개교 옐로신호등 : 없음 횡단보도 경보장치 : 없음 초등학교 주변 차량정차대 : 없음	 옐로카펫 : 43개교(26개교 증가) 옐로신호등 : 47개교 횡단보도 경보장치 : 38개교 초등학교 주변 차량정차대 : 7개교(전국최초)
청소년 건전 육성 기반조성	청소년 수련관 부재 청소년 휴카페 부재 파주시 청소년재단 부재 청소년 문화거리 행사 부재	 청소년수련관 신축 진행 중 청소년 휴카페 1호점 개관 파주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 청소년문화거리 행사 최초 개최(2019년 / 3천명 참여)
문산지역 수능시험장 유치	남부권역 : 8개교 (운정5, 금촌2, 조리1) 북부권역 : 0개교	남부권역 : 8개교(운정5, 금촌2, 조리1) 북부권역 : 2개교(문산1, 파주1) • 북부권역에서 수능시험 최초 실시 

10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였습니다!



테스트베드 시설 하우스



장단콩웰빙마루 착공식

추진 과제	2년 전	현재
신기술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포장 조성	부지 확보 (22.8ha)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조성(14.9ha) – 파주장단콩 채종포 조성(12.5ha) – 허준약초 종묘생산(2.1ha) – 나라꽃 무궁화 전시포장 조성(0.1ha) – 벼 신품종 시범양식장 조성(0.2ha)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및 스마트농업 실증포장 운영(1.1ha) 콩 품종별 비교전시포 및 노지작물 시험재배(31품종) 소비자트렌드에 맞는 토종종자 선발 재배확대(15종) 영농형 태양광 작물생육 실증 시험(49.6kW)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배양시설 규모 확대	배양규모 400톤 / 4종	배양규모 900톤 / 6종 ※ 북부지소 확충 500톤
농업용 드론 도입 운영으로 과학영농·실현	농업용 방제 드론 미지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총 18대 NFL(비행금지선) 이북 드론 방제 (2018년 3개 사단과 운영협약 체결) –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 12대 – 벼재배 노동력 절감기술 보급 : 2대 – 논 타작물 관련 시설·장비 지원 : 4대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확대	유기질비료 일부공급 (15,469톤) 소규모 고령농업인 모판 지원 : 미지원	유기질비료 전량공급 23,501톤 소규모 고령농업인 모판지원 461ha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정상화	사업중단	재추진을 위한 공론화 통해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공사 진행 중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 지원	색채선별기 2대 지원	색채선별기 5대지원 

11 여성에서 도시까지, 안전한 파주를 만들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안전체험 및 기부활동 행사



도시정보센터

추진 과제	2년 전	현재
폭염 그늘막	미설치	 신호대기 교차로 그늘막 137개소 설치
한파 저감시설	미설치	버스 정류장 한파 바람막이 100개소 설치 발열의자 229개소 설치
여성 안심 귀갓길	부재 	안전시설물 : 331개소 설치 (로고라이트 27개소 / 솔라표지병: 13개소 / CS라이트 : 15개소 솔라안심등: 19개소 / 문열림센서: 115개소 / 안심거울: 110개소 스마트미러: 4개소 / 노면표시: 28개소)
안심 귀가 마을버스	부재	8개 노선 25대 운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도시 안전망)	미구축 	 스마트시티 1단계 추진완료 통합플랫폼 및 도시 안전망 구축 완료
시민안전보험	 미가입	시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및 가입완료 • 최대 보장금액 : 1천 5백만원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등 13종 • 대 상 : 파주시 주소지 시민 
대기환경 시스템 고도화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 대기오염 전광판 0개 미세먼지 신호등 0개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 설치 (1개소 증가) 대기오염전광판 2개 설치 (2개소 증가) 미세먼지신호등 35개 설치 (35개소 증가)

12 시민공감 혁신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First 대상 수상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First 대상 수상



2021년 경기도 종합 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민선 7기 추진 과제	2018. 7. ~ 2020. 12.
공모사업 121건 992억원 확보	102건 831억원 경기 FIRST 정책 공모 3년 연속 선정 : 220억원 확보 • 2018(대상) : 100억원 • 2019(장려상) : 20억원 • 2020(대상) : 100억원 • 2019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35억 • 2020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 20억 • 2020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 등) 25억 • 2020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7억 • 2020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5억 •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민군 복합커뮤니티건립) 80억 • 2021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120억 
대외평가 164건 수상	파주시 수상 • 2019년('18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2018~2019년 2년 연속 지방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상(전국1위) 3관왕(상, 중, 하반기) • 2019~2020년 4회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상 수상 • 2018~2020년 5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대통령상, 장관상) • 2018~2020년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 2019~2020년 2년 연속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수상(대상, 최우수상) 
파주시 최초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총 예산 : 130억원)	PAJU 2021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기대효과〉 경기도민 화합과 단결 경기도 균형발전 기여 갈등해소와 공정한 경기 실현 새롭게 도약하는 파주 파주시 위상제고 정주의식 함양 지역경제 활성화 등 

II

분야별 시정운영 성과

1.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
2. 통일경제도시 파주
3. 서민경제도시 파주
4. 생태문화도시 파주
5.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
6.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
7. 대중교통 혁신도시 파주
8.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
9. 여성행복도시 파주
10. 행정혁신 분야

1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

파주에서 싹 트는 평화

한반도 평화의 새시대를 파주가 열어갑니다.

분단과 아픔의 과거를 극복하고
평화도시 파주를 향한 힘찬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기초지자체 최초 '평화협력과' 신설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선도해 나갈 파주의 단단한
출발이자 의지입니다.

평화가 관념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 속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평화도시조성,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평화시대의 번영과 도약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1.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을 위한 평화 전담조직 설치
2.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및 위원회 출범
3.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4. 기초지자체 최초 대북지원사업자 선정
5.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 추진
6. 평화도시 조성
7. 창작뮤지컬 '도보다리의 추억' 공연 추진
8.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9. 방호벽 정비 및 철거 추진

1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을 위한 평화 전담조직 설치

기초지자체 최초 남북평화협력TF팀, 평화협력과, 평화기반국 신설

2018. 7. 3.
민선7기 제1호 결재로 남북평화협력TF팀 설치

2018. 10. 22.
기초지자체 최초로 남북 교류협력 전담부서인 평화협력과 신설

2020. 1. 8.
남북 간 평화조성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평화기반국 설치(평화협력과, 남북철도교통과, 통일기반조성과)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 평화 전담조직을 설치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평화경제특구 등 관련 사업의 체계 적인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의 중심 역할 수행



민선7기 제1호 결재로 남북평화협력TF팀 설치

평화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향한 항해 시작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조성된 한반도 평화협력 분위기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2018년 7월 1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시정비전 아래 민선 제7기가 출범하였다.

남북관계에서 지리적·상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 7월 3일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핵심 추진사업인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전담할 '남북평화협력TF팀'을 설치하며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화해시대 대비에 나섰다.

평화 전담조직 확대 및 체계화로 남북교류협력 선제적 대응

남북평화협력 TF팀이 신설된 후 같은 해 10월 좀 더 체계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세부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이자 유일한 남북 교류협력 전담조직인 평화협력과를 2018년 10월 22일 신설했다.

이후 남북 평화조성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화협력과, 남북철도교통과, 통일기반조성과를 합쳐 2020년 1월 8일 평화기반국을 신설해 조직을 확대했다.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파주시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 철도 및 물류교역의 중심지로서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의 설치를 통해 파주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각종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따라 신설된 평화기반국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신설·확대한 평화 전담조직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심역할 기대

파주시는 직접 북과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남북 도로(국도1호선), 철도(경의선) 연결의 중심에 있으며, 역사적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장소인 판문점을 품고 있다. 남북 간 왕래가 자유로워져 인적·물적 교류 나아가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그 중심에 바로 파주가 있게 될 것이다.

시는 신설·확대한 평화 전담조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평화경제특구 등 평화 관련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2020. 12. 31. 기준)



부서명 평화협력과 | 담당자 안재선(940-2972)

2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및 위원회 출범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전문가 집단 구성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제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 조성액 50억으로 확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을 위한 제4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제5기 평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2020. 10. 15.)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 및 분야별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파주시는 2004년 1월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1억에서 2억씩 기금을 적립해 왔으나 2014년부터 2018년은 남북 분위기 경색국면에 따라 사업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으로 급격히 시작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기를 맞아 민선7기 시정비전인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실현하고 평화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금조성목표액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남북교류정책 구상을 공유하는 등의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되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목표액 50억원 설정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남북교류를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남북교류협력사

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목표액을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출연금 15억원을 편성해 2022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8년 결산 기준 당시 11억 9천만원이었으나 두 차례의 출연금을 통해 2020년 12월 현재 35억 1천만원이 조성되었다. 파주시는 향후 세수 상황과 남북 화해분위기를 감안하여 필요시 출연금 확대 및 연장 등을 통해 기금 조성액을 확충할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2022년
출연금	0	15	15	15	목표대비 60% ⇧	15
조성계획액 (지출계획액 포함)	11.9	26.8	35.1	42.8		50.8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회의 출범

제3기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임기의 만료와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한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러 분야 전문 위원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4기 위원회를 2018년 10월 새롭게 구성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위원 수를 증원하였으며, 산림·농업·기업 등 분야별 대표와 남북관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임기 2년 동안 ▲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8년 10월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을 시작으로 하여, 2019년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상황, 평화경제특구, 평화·통일교육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및 토의 자문,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20년 2월 14일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면개정)으로 명칭이 평화도시조성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남북 민간교류, 농업·산림·환경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제5기 평화도시조성위원회가 출범했다.

파주시는 제5기 평화도시조성위원회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효성과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전문적 기반 마련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급진전하는 남북 화해분위기 속에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충하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으나 남북교류는 아직 대북제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국내·외적인 사정으로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주변국 역학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회복할 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향후 남북 간 평화모드가 진전될 것을 대비하여 시는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기금 편성·운용을 통해 파주시만의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평화도시조성위원회(舊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북교류협력 단체·기관 등의 육성 및 기금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서명 평화협력과 | 담당자 이유진(940-2973)

3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

- 시차원의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파주-개성'간 농업 협력사업
- '파주-해주'간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회
-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 공모
-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운영



파주시-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업무협약식 (2019. 5. 15.)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 사업의 지속적 추진

파주시는 지역적·역사적 특성이 있는 '파주-개성'간 농업 협력사업, '파주-해주'간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등 실현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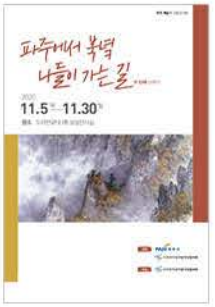
'파주-개성'간 농업 협력사업은 과거 독립된 군(郡)으로 존재했던 장단군을 공유하는 역사성을 토대로 개성인삼과 장단콩을 남북공동 재배하는 사업으로, 시는 종자, 농기계, 재배기술 등을 지원하고, 북측은 토지와 인력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먼저 3만㎡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재배규모 확대, 기술지원 등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파주와 해주 일대는 이이 관련 유적이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데, '파주-해주'간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추앙받는 조선의 대 성리학자인 이이선생 유적을 매개로 문화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파주-개성-해주'를 잇는 생태 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2019년 5월 15일 남북교류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실무협의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 까지 북측 민화협을 대상으로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사업의 협의대상이 북측 민화협이므로 남측 민화협과의 협약은 시 남북교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울러,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회 개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 공모,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평화통일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회 팸플릿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회

남북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파주시와 (사)민화협의 공동주최로 2002년 북쪽 민화협이 남쪽 민화협에 선물한 북한 인민·공훈화가 미술작품 중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10일까지 파주시민회관에서 '파주에서 북녘 나들이 가는 길' 이라는 주제로 28점을 전시했으며,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평화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도라전망대에서 '파주에서 북녘 나들이 가는 길 – 두 번째 이야기' 라는 주제로 15점을 전시했다.



평화통일 문화제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평화통일 퀴즈대회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또한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평화통일 문화제,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평화통일퀴즈대회 총 3개의 시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평화 공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는 다양한 남북교류 아이디어 발굴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결성한 학습조직으로 농업·산림, 문화·체육, 관광·환경, 보건·위생 총 4개 분야 29명으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 분야별 연구, 남북교류 전문가 초청교육, 현장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업무 관련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교류 협력을 선도하는 중심도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9년 7월 11일 개최된 통일부 '제4차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파주–개성'간 농업 협력사업, '파주–해주'간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2건의 파주시 사업 안건이 상정된 바 있으며, 특히 농업 협력사업은 북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해져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열었다.

시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통일부,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현가능한 남북교류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파주시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나가는데 앞장서 남북교류 협력을 선도하는 중심도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부서명 평화협력과 | 담당자 안재선(940–2972)

4 기초지자체 최초 대북지원사업자 선정

독자적인 대북사업 추진으로 남북 교류협력 기반 구축

2020. 1. 20.
통일부에 대북지원사업자 신청

2020. 3. 19.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기초지자체중 최초)



판문점 평화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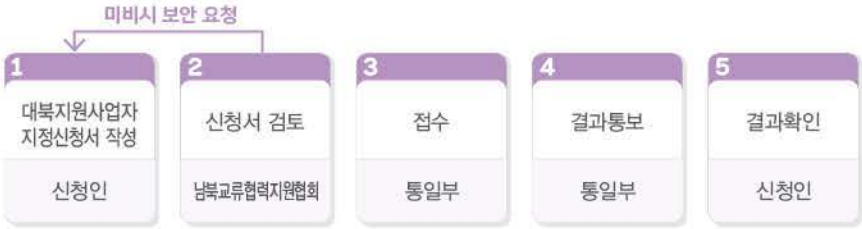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2년 전 파주 판문점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등으로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비록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남북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고, 남북교류 협력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더욱 지속시키고 키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

그동안 지자체는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어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22일 통일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면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독자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청절차



이에 따라 파주시는 시 차원의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분위기 지속 및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20년 1월 20일 통일부에 대북사업자 신청을 하게 되었다.

독자적인 대북사업 추진으로 남북 교류협력 기반구축

파주시는 통일부로부터 그동안 대북지원 사업성과 및 추진계획을 심사받고 2020년 3월 19일 기초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북사업자 지정으로 파주시가 안정적으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추진이 가능한 만큼 현재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대북제재 예외사항인 인도적 지원사업, 사회문화 교류사업 등을 우선 발굴하여 추진하고 추후 제재 완화를 대비하여 파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화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실현하고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다.

부서명 평화협력과 | 담당자 신동혁(940-2971)

5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 추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평화를 향한 시민 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

시민교육
시민공감 평화·통일 교육 3개 분야 추진
- 파주평화 아카데미, 명사 초청 평화·통일 시민 강연, 평화·통일 현장체험교육

학생교육
초·중·고등학교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 운영

공공부문
평화·통일 공무원 교육 추진 및 공공부문 확산



2018 DMZ 평화콘서트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평화·통일 시민 공감대 형성 필요

파주는 지리적으로 북측과 가장 근접하게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파주의 경제이고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야 파주는 접경지역, 안보지역의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화도시,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시민들에게 평화공존의 중요성과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 참여와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평화 공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평화·통일 교육 추진

파주시는 시민의 건전한 통일의식 확립을 위해 2019년부터 파주평화 아카데미를 10회 강좌로 운영하여 50여명의 수강생이 수료하였다. 또한 2019년 명사 초청 평화·통일 시민강연을 금촌·문산권역에서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접경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화·통일 현장체험교육을 추진했다.



파주평화 아카데미 리플렛



2020 파주평화 아카데미



2019 파주평화 아카데미

아울러, 미래세대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해교육, 통일토의·토론, 북한음식 만들기, 통일 노래교실, 통일교육 보드게임, 평화·통일 캠프 등 6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강사를 통해 맞춤형 평화·통일 학생 공감대 교육을 완료했다.





2020 찾아가는 평화 · 통일 교실

공공부문 평화·통일 인식 확산을 위해 공직자 평화·통일 역량강화 교육을 2019년 상·하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유관단체와 기관으로 확산하여 문화관광 해설사와 평생학습관 강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평생학습 매니저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무원 평화 · 통일 역량강화 교육


문화관광해설사 평화 · 통일 교육


평생학습관 강사 평화 · 통일 교육

평화를 향한 시민 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

파주시에서는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로 시민공감대 형성과 평화공존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화를 향한 시민 참여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통해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파주'를 기대한다.

부서명 평화협력과 | 담당자 김정은(940-5501)

6 평화도시 조성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2020. 2. 14.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

2020. 5. 15.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 및 추진체계 법제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실현



평화도시 조성을 통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2019년 9월 4일 파주시 주요정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정책추진의 안정성 확보 및 시민만족 행정을 위해 추진된 '파주시 좋은 조례 제정계획'에 따라 남북평화협력 자치법규 부분 제정대상에 선정, 기존 「파주시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면 개정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에 따라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사항을 담았으며,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중장기 전략 및 추진체계를 세부항목으로 나눠 법제화하였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

립 ▲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기능구성 ▲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기금의 설치 ▲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평화도시로서의 선언적 의미와 종합적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규정,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파주시가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평화도시 조성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14일 공포·시행되었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아울러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마련됐다.
이 시행규칙은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 기금의 지원대상 ▲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 지원금의 교부,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주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 시행규칙은 4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 됐으며, 5월 15일 공포·시행되었다.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 조성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는 ▲ 자유·평등·생명·협력의 가치 존중 ▲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평화시민 육성 ▲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 간 협력의 실현을 추구하는 평화도시를 조성한다.

이번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남북평화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정책을 내실화하고 구체화 할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서명 평화협력과 | 담당자 이유진(940-2973)

7 창작뮤지컬 '도보다리의 추억' 공연 추진

남북정상의 '도보다리 회담' 소재의 뮤지컬로 남북통일 분위기 확산

2018. 10. 20.
뮤지컬 '도보다리의 추억' 공연

문화예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콘텐츠 구현



'도보다리의 추억' 공연 현장 (2018년 파주개성인삼축제)

평화도시로서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

파주는 민선7기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비전 아래 남북의 평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파주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는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분위기 확산과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시도들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은 내용의 4.27 판문점선언을 위해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중 도보다리에서 친교를 겸한 산책을 한 뒤 30여 분간의 단독회담을 진행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두 정상의 도보다리 회담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을 제작하여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평화로운 남북통일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도보다리의 추억' 공연 현장 (2018년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개성인삼축제」 개막 공연, 창작뮤지컬 '도보다리의 추억'

파주는 도보다리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공연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한 끝에 파주개성인삼축제 때 하기로 결정했다.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인삼 요리 전시회, 인삼 캐기, 인삼 경매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곳으로,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개성과도 가까워 남북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창작뮤지컬 '도보다리의 추억'을 선보이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10월 20일에 파주개성인삼축제 개막 공연으로 창작뮤지컬 '도보다리의 추억'을 선보였다.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남북 평화와 통일 추구

2018년도부터 2019년도를 지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의 노력들이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 뮤지컬 '도보다리의 추억'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문화와 예술의 힘을 빌려 남북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평화도시로서 문화 예술만이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부서명 문화예술과 | 담당자 손봉남(940-8521)

8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 발굴 및 추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구성(위원장 : 시장)과 운영을 통한 파주시 자체 기념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

11개 사업부서의 협업으로, 기념비 건립, 기념·문화사업, 보훈문화 확산, 콘텐츠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총 18개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낸 파주 출신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고 보훈정신을 확산하는 계기 마련 및 3·1운동 100주년의 가치 재조명



3.1운동 기념사업추진단 회의 (2018. 12. 11.)

파주시 3·1운동 100주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기념사업 발굴 추진

파주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자체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2월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9년 시 전역에서 연중 다양한 기념사업과 공연, 탐방,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은 파주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의원,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화원장, 보훈단체장, 여성, 노인, 자원봉사 분야 등의 유관기관 단체장들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념사업의 추진 방향 및 사업결정, 행사계획의 검토와 기념사업의 홍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파주시의 100주년 기념사업은 '백년의 역사에서 천년의 미래로'를 주제로, 100주년에 걸맞은 기념식 및 재현행사, 기념 문화사업, 도서관 등 지역시설을 활용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총 18개 사업이 확정 추진되었다.

사업내용 : 총 18개 사업

연번	사 업 명	추진시기	사업비 (천원)	추진부서
1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영상촬영	'19. 2. ~ 3.	13,000	홍보담당관
2	한반도 100년의 봄, 그리고 도서관(콘서트)	'19. 2. 20.	5,000	중앙도서관
3	자유를 꿈꾸던 조선시인들	'19. 2. ~ 3.	1,750	교하도서관
4	100주년 3·1절 기념행사	'19. 3. 1.	24,000	자치행정과
5	3·1운동 거리대행진 재현행사	'19. 3. 1.	10,000	민원봉사과
6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실천 시범마을 조성	'19. 3. 11.	3,000	복지정책과
7	파주 교하 3·1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및 준공식	'19. 3. 11.	53,000	복지정책과
8	항일독립항쟁 애국선열 합동추모제	'19. 3. 28.	5,000	복지정책과
9	100주년 기념 경축음악회	'19. 3. 29. ~ 30.	20,000	문화예술과
10	파주에서, 제주4.3을 만나다 (전시)	'19. 4. 24. ~ 5. 7.	6,000	중앙도서관
11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19. 5. 7. ~ 5. 10.	18,000	복지정책과
12	100주년 기념 청소년 UCC 경진대회	'19. 2. ~ 5.	5,000	보육청소년과
13	파주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 학술심포지엄	'19. 6. 12.	4,000	복지정책과
14	파주독립운동사 재발간	'19. 8. 15.	27,000	복지정책과
15	조소앙 선생 학술강연 – 수요포럼	'19. 8. 21.	500	자치행정· 복지정책
16	독립운동, 책 속을 걷다	'19. 3. ~ 8.	3,000	교육지원과
17	파주 근현대사 역사 탐방	'19. 3. ~ 11.	20,000	평생학습과
18	'임명애 지사' 재조명 창작뮤지컬 '명예'	'19. 12. 20. ~ 21.	80,000	문화예술과

시민과 함께하는 연중 다양한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3·1운동 정신 확산

파주시의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영상촬영 지원 ▲ 한반도 100년의 봄, 그리고 도서관 ▲ 자유를 꿈꾸던 조선시인들 ▲ 3·1운동 거리대행진 재현행사 ▲ 100주년 3·1운동 기념식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실천 시범마을 조성 ▲ 파주 교하 3·1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및 준공식 ▲ 항일독립항쟁 순국선열 합동 추모제 ▲ 3·1운동 100주년 경축음악회 개최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 3·1운동 100주년 기념 청소년 UCC 전국경진대회 개최 ▲ 파주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 학술 심포지엄 ▲ 파주 독립운동사 재발간 ▲ 조소앙 선생 특별 포럼 ▲ 독립운동, 책 속을 걷다 ▲ 파주 근현대사 역사탐방 ▲ '임명애 지사' 재조명 창작뮤지컬 '명예' 등 18가지이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및 3·1 만세운동 재현행사



- 일　　시 : 2019. 3. 1(금) 09:00 ~ 11:50
- 장　　소 : 조리읍 ~ 시민회관 대공장
- 참여인원 : 1,200여명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광복회원), 사할린영주 귀국자
  - 유관기관 단체장, 학생, 군인, 시민 등
- 행사내용 : 헌화 · 분양*조리읍 기념비→거리행진*기념비→대공연장→기념식

『파주 교하 3·1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및 준공식 개최



- 일　　시 : 2019. 3. 11(월) 11:00
- 장　　소 : 교하초등학교 內
- 참여인원 : 200여명
- 사업내용 : 파주 최초 3 · 1운동 발생지에 기념비 건립 및 학생과 교사, 시민(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한 준공식(만세 재현행사 캠페인) 추진
  - 여성독립운동가 임명애지사 재조명 및 향후 역사 교육장소로 활용

파주시 항일독립항쟁 애국선열 합동 추모제



- 일　　시 : 2019. 3. 28(목) 11:00
- 장　　소 : 파주독립광탄공원
- 참여인원 : 200명 (국회의원, 도·시의원, 보훈단체협의회, 광복회원, 시민 등)
- 주요내용 : 추모사, 헌화 및 분향, 헌시, 기념공연 등

3·1운동 100주년 기념, 경축음악회



- 일　　시 : 3. 29(금) 15:00 국가유공자, 군인 등 / 3. 30(토) 17:00 일반시민
- 장　　소 : 운정행복센터
- 참여인원 : 800여명
- 사업내용 : 3 · 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 '창작칸타타 자유만세' 공연

파주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 학술심포지엄



- 일　　시 : 2019. 6. 12(수) 14:00
- 장　　소 : 보훈회관
- 참여인원 : 120여명 / 사업비 : 4백만원
- 사업내용 : 파주출신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정치가 및 역사전문가, 시민들이 함께하는 기념사업 방향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3·1운동 100주년 기념, 「파주독립운동사 재발간」 배포



- 발 간 일 : 2019. 8. 15
- 사 업 량 : 1,500부 / 27백만원
- 사업내용 : 2013년 발간 된 파주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보완을 통한 재편집 및 증보판 발행, 파주 독립운동사를 알리고 도서관, 학교 등에 교육 사료로 제공

파주의 유관순, 임명애 지사 창작뮤지컬 – 「명예」 공연



- 공연일시 : 2019. 12. 20(금) ~ 12. 21(토) / 총 4회
- 사업내용 : 임명애지사의 인생을 재조명하는 창작뮤지컬 제작하여 공연 및 문화 · 역사 · 교육 콘텐츠로 활용
- 제　　작 : 제이비(주) 혁뮤지컬 컴퍼니
- 출　　연 : 파주시립예술단

2월 20일 중앙도서관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한반도 100년의 봄 그리고 도서관' 이라는 주제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이질적인 북한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민과 함께 평화감수성을 높이는 대담과 음악공연 행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시작으로 연중 각종 기념행사가 추진됐다.

3·1운동 거리대행진 재현행사에서는 파주지역 최대 만세 시위를 모티브로 하여 독립선언서 낭독 및 만세운동 등 3·1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추진했으며, 교하초등학교 내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및 준공식은 파주 최초 독립만세 시위의 근원지를 파주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항쟁지로 재조명 받게 했다. 이와 더불어 파주의 여성 독립운동가 임명애지사 뮤지컬 제작 공연은 임명애 지사를 파주의 유관순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청소년의 시각으로 본 3.1운동 및 나라사랑'이란 주제로 개최된 「3·1운동 100주년 기념 청소년 UCC 전국경진대회」는 천년의 미래를 이어 갈 청소년들에게 백년 전 대한민국을 지켜 낸 애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고, 나라사랑에 대한 의미를 교육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파주 출신 독립운동가인 윤기섭 선생의 40여년 독립운동 역사를 되돌아보는 학술 심포지엄, 파주출생 조소앙 선생 특별 포럼 개최, 파주독립운동사 재 발간 사업 등을 통하여 파주지역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고 보훈정신을 확산시켰다.

3·1운동의 정신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구성 운영을 통해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11개부서의 협업으로 파주시 자체적인 기념·문화사업, 지역 시설을 활용한 보훈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보훈선양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낸 파주 출신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고 보훈 정신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등 지역시설 프로그램에 보훈문화 콘텐츠 편성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활용한 보훈문화,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들과 더불어 100주년을 기념하며 공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기념사업 추진을 계기로 3·1운동 정신이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3·1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훈문화 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부서명 복지정책과 | 담당자 정향숙(940-4397)

9 방호벽 정비 및 철거 추진

교통체증을 높이는 군 방호벽 정비 및 철거와 방호벽 홍보판 정비

2019. 10. 31.
월롱면 도내리 방호벽 정비공사 완료

2020. 6. 9. 착공.
2020. 10. 22. 준공
영태리 방호벽 정비공사 추진

2020. 6. 24. 착공.
2020. 12. 21. 준공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공사 추진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방호벽 철거로 군사도시 이미지 개선, 교통소통은 원활하게

한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파주는 북한과 마주한 접경도시로서 한국전쟁 휴전 이후부터 국토 방위의 최전선으로 각종 군사시설의 설치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의하여 시민들의 생존권에 제한을 받고 살아왔으며 군작전상의 이유로 1970년부터 파주시 곳곳에 설치된 군 방호벽은 소방도로 미확보, 교통사고 유발 등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많은 피해는 물론 파주시를 군사도시 이미지, 대립과 긴장의 이미지로 보이게 하는 데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LG디스플레이, 운정신도시,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인구 및 교통량은 급격히 증가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는 급증하는 반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군 방호벽은 여전히 답답한 파주로 남게 하였다.

이에 파주시는 군 방호벽이 국방부 시설이기는 하나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호벽 정비 및 철거에 발 벗고 나섰고, 방호벽 철거 및 도로 정비를 통해 시원하게 트인 파주를 시민에게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월롱 영태리 방호벽



월롱 도내리 방호벽

2020년 방호벽 3개소 철거와 도로정비 완료

파주시는 방호벽 철거를 위해 2018년부터 국방부 및 예하부대와 수차례에 걸친 군 협의를 진행하여 2019년 2월 14일 방호벽 철거 군 동의를 얻어 2019년 6월 27일 '위전리 방호벽 정비공사'로 첫 삽을 뜨고 같은 해 10월 31일 준공하였다.

마을간 연결도로에 설치되어, 차량 및 농기계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월롱면 영태리 방호벽은 2020년 6월 9일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22일 준공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이 실현되었다.

학생들의 통학로에 설치되어 도심지 경관저해는 물론, 도로확장 방해로 상습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은 2020년 6월 24일 철거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21일 준공하여 지역 간 단절의 장 벽을 허물고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방호벽 철거와 병행 추진된 도로 확·포장을 통한 좌·우회전차로 추가 확보로 출퇴근길 교차로 통과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되어 그간 상습정체로 빚어졌던 시민 통행불편이 말끔히 해소되었다.

또한, 이러한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방호벽 철거'의 모든 과정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기록화함으로써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역사적 산물로 보존해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방호벽 철거의 기틀 마련

'군사시설물 철거'라는 타이틀로 인하여 군(軍) 협의가 상당기간 소요되기는 하였지만 군 방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호벽 정비 및 철거로 인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감 향상 및 차량 소통 개선 효과는 앞으로 원활한 군(軍) 협의에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4차선 양쪽과 위를 가로 막고 있던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은 철거 공사를 통한 도로폭 추가 확보로 차량 소통 개선은 물론이려니와 가로막았던 사각구조물 제거로 도시의 시각적인 면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방호벽 철거로 인한 높은 시민만족도와 개선효과는 앞으로의 원활한 추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선이 시급한 군방호벽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정비 및 철거사업을 시행하여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탁 트인 파주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답답하게 느껴졌던 방호벽, 파주시의 긍정적인 이미지 홍보판으로 탈바꿈

2019년 11월, 육군 1군단과 통일로변 방호벽 7개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군사도시 이미지의 군 방호벽을 파주시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관광명소를 알리는 홍보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가 미흡했던 방호벽 홍보판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넝쿨 및 위험수목 제거 등 홍보판 정비를 완료하였다. 2019년 11월, 문산읍 마정리에 위치한 신100문에 파주의 비전을 알리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홍보판을 설치하였다. 신100문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임진각 입구에 위치한 100문부터 월롱면 영태리에 위치한 400문까지의 방호벽을 파주의 다양한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판으로 교체 완료하였다.

상업광고로 이용되거나 방치되어 관리가 미흡했던 방호벽이 공공의 효과적인 홍보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로변을 오가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파주의 비전과 다양한 관광지를 알리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효과를 얻었다.

신100문(문산읍 마정리)
2019.11.25. 교체완료









교체 전 교체 후

100문(문산읍 마정리)
2020.5.4. 교체완료









교체 전 교체 후

200문(파주읍 봉서리)
2020.5.24. 교체완료







교체 전 교체 후

300문(파주읍 봉서리)
2020.6.17. 교체완료







교체 전 교체 후

400문(월롱면 영태리)
2020.6.14. 교체완료









교체 전

교체 후

부서명 도로관리사업소 | 담당자 배잔국(940-4841)
홍보담당관 유정은(940-4131)

2
통일경제도시, 파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은 파주입니다

파주는 더 이상 제약과 소외의 도시가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파주는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파주는 평화가 곧 경제이고, 생존이고, 미래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파주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거점적 역할을 선도하는
평화의 안전지대이자 평화경제의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파주는 '평화'라는 파주만이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을 통해
끊임없이 비상하고 있습니다.

1.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2.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3.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4.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5. DMZ 평화의 길 조성
6. 임진각 평화곤돌라 설치
7.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8. 오두산 전망대 철책길 구간 개방
9.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1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남북교류의 중심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2018. 12. 21.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완료

2019. 7. 4.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 확정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홍보 활동 계속 추진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남북교류의 중심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국정과제이며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핵심 사업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하지 않으면 북한과 접하고 있는 파주는 한발자국도 더 전진하기 어려우며, 평화를 바탕으로 안정된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만 성장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공약사항 및 자체발전계획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파주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되어 한반도 신경제구상 거점적 역할의 기반이 될 평화의 완충지대, 경제의 안전판을 만들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지대 조성 방안 수립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평화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민선 7기 취임 이후 남북평화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선제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에는 평화기반국으로 기구를 확대하여 평화통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차별화된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2월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지대 조성'을 비전으로 첨단산업, 국제평화, 친환경 생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3개 클러스터 8개 단지의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중앙부처·국회 등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조성 방안을 현실성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주의 지리적 특수성, 높은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등 특구 지정의 당위성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 업무 추진을 통한 준비된 파주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 중심, 준비된 파주

지난 20대 국회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 관련 법률안이 6차례에 걸친 심사와 공청회 진행 및 중앙부처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조율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21대 국회에서의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률 제정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법률안 통과 이후 파주시에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의 중심, 준비된 파주의 단계적 전략 방안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교류협력의 장소이자 남북경제공동체의 중심지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으로서 파주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

부서명 평화협력과 | 담당자 김정은(940-5501)

2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한반도 평화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

2019. 4. 30
관광특구 지정 고시
(경기도지사)

2019. 11.~12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다국어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2020. 4. 10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4.
관광안내소 설치 (헤이리예술마을 갈대공원)



통일동산 관광특구 축하음악회 (2019. 5. 17.)

파주통일동산지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

통일동산 일원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 문화지구, 맛고을(프로방스) 그리고 파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으로 인해 연간 1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임진각관광지와 함께 파주를 대표하는 국제관광의 발전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임진각관광지에 많은 중국인이 방문하고 있으나 대부분 당일 방문객에 그치는 탓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임진각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지와 상품개발이 필요하고, 임진각 확대개발과 성동리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건립 등에 따라 점증하는 내·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탄현면 성동리 일원 등 통일동산 주변 지역은 수도권 내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및 광역철도망(GTX) 조성이 확정되었으며 서울과 가깝고 호텔 등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관광여건 집중 조성을 통해 파주의 평화관광을 선도할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 할 필요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파주시 내 산재한 유명 관광자원 및 역사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수도권 내 새로운 관광 클러스터(cluster)를 구성하여 경기도 내 주요관광 핵심지역으로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



통일동산 관광특구

2017년 7월에 신청한 통일동산관광특구지정 신청에 대해 2018년 10월 문체부 및 경기도 협의와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마침내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통일전망대, 헤이리예술마을, 맛고을 일원으로 2019년 4월 30일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지정 고시되었다. 이는 경기도 접경지역 최초의 관광특구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민족분단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의 의지를 새롭게 가다듬기 위해 마련된 통일동산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한반도 평화 관광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6월에 파주 헤이리 판 아트 페스티벌행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7월 관광특구 내 권역별 대표 30여 명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7차례 운영하였다. 또한 관광특구 상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아카데미를 실시했으며 헤이리예술마을과 맛고을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다국어 종합관광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헤이리마을 갈대공원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였으며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협력방안과 의견교환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관광특구라는 날개를 단 파주,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법령 적용이 일부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광특구 내에서는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또한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는 물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

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에는 예술인들의 거주·문화 공간인 헤이리마을, 대형 쇼핑공간인 파주프리미엄아울렛, 안보관광지인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예술과 쇼핑, 전쟁과 평화 등을 주제로 한 특별한 관광자원이 많아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파주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평화통일시대 맞는 특색 있는 축제·행사 및 홍보, 주변 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은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따라 통일동산 일대가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갈 방침이다.


헤이리예술마을


파주프리미엄아울렛


오두산통일전망대

부서명 관광과 | 담당자 강 수(5186)

3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개성공단 자생적 물류기능 확충 및 판로개척 거점 구축

2018. 6. 25.
물류단지실수요검증승인

2019. 7. 17.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계획 승인 신청

2019. 8. 23.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협약식 체결
※ 경기도 - 파주시 -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주)

'21년 하반기 물류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 후 '22년 물류단지 지정, '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남북 교류협력 홍보관 조성 등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를 실현



경기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업무 협약식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물류 리스크 해소의 방안으로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추진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2013년, 2016년)로 직격탄을 맞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손실액이 약 5,000억원에 달하여 기존의 개성공단의 물류, 상류, 제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전용 물류단지 조성을 요구하였고, 물류단지 관련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현 사업대상지인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원이 적합지로 선정되어 2018년 6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완료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는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원에 212,663㎡ 규모로 물류 및 상류 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경기도-파주시-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주) 3자간 협약 체결

2019년 8월 23일, 경기도-파주시-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주)는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파주시에서는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파주시에서는 물류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검단교, 자유로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 부서 및 관할 군부대 협의 등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사업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기업과 주민의 상생발전 도모



현장 위치도 및 교통처리계획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막대한 유동자산의 피해에 대한 대안책으로 추진하게 된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남한 내 물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제품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및 물류, 상류, 지원의 복합기능 단지조성을 통한 경영 안정 및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위기 극복 및 안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약 3만6천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남북 교류협력 홍보관 운영을 통한 평화공간 이미지 구축과 성동리 일원 교통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되고,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부서명 남북철도교통과 | 담당자 최상기(940-5771)

4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미군기지를 문화기지로 재생하여 치유·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2018. 12. 27.
경기 first 공모 대상 선정 (도비 100억확보)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하우즈에 미군이 사용했던 건물을 재활용해 예술, 문화, 교육, 숙박활동이가능한평화의공간으로조성

2019. 9. 18.
캠프하우즈 공원조성계획 및실시설계 용역착수

2020. 1. 7.
건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완료

2020. 4. 29.
캠프하우즈근린공원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경기 First 공모 대상 선정

캠프하우즈의 67년만에 개방, 평화와 평등의 문화기지로

캠프하우즈는 미군철수 이후 반환된 미군기지로, 반환이후 유휴공간으로 미활용,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미군기지로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시는 주민들에게 치유와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새로운 역사의 기억을 만들어 나가는 평화의 상징 공간, 그동안 받아왔던 아픔을 문화로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특성에 걸맞고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군기지내 방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캠프하우즈에서 평화와 평등을 대표하는 평화 문화기지로 만들고자한다.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평화상징의 공간으로 첫발을 내딛다

조리읍에 위치한 캠프하우즈는 1953년 미군에 공여되고, 2005년 부지 폐쇄, 2007년 반환되었으며, 2014년 사업시행(근린공원 결정) 승인 이후 파주시 자체적으로 공원조

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매입 97% 완료하였고, 2018년 12월 27일「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공모 대상을 수상하여 도비 10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205억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2월 21일 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2019년 9월 18일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진행 중이다.

캠프하우즈 평평한마을 조성 사업은 과거를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평화상징공간, 문화예술증진을 위한 시민 복합문화 플랫폼, 울창한 녹음 속 레포츠와 휴식을 즐기는 힐링숲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파주시 자체 수요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관광객까지 끌어 모으는 명실상부한 평화를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기북부권의 평화를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 날 캠프하우즈

민선 7기의 출범이후 캠프하우즈 토지 매입비 320억원 확보,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비 205억원 확보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



해외입양인 대상 팸투어(캠프하우즈 엄마품 동산)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의회 (2019. 11. 8.)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은 평화뮤지엄, 실내체육관, 엄마품 동산, 복합문화공간 등 문화체육휴양시설 등을 갖춘 공원 조성으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지도56호선 등 교통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어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전쟁의 아픈 역사로 주민들의 희생이 컸던 미군기지가 화해, 치유, 평화가 있는 문화기지로 재탄생되어 경기북부의 거점형 공원, 평화를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부서명 통일기반조성과 | 담당자 이찬규(940-5359)

5 DMZ 평화의 길 조성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첫걸음 DMZ 평화의 길 조성

2019. 4.
DMZ 평화의 길 조성 관련 부처 및 군협의 완료, 조성 시작

2019. 8. 10.
DMZ 평화의 길 1단계 구간(파주 철거 GP) 일반인 개방

2020. 7.
DMZ 평화의 길 2단계 구간 조성 중



DMZ 평화의 길(철거GP) 출입 통문

「4.27. 판문점선언」평화정착과 번영의 뜻을 담은 DMZ 평화의 길 조성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그해 9월 19일 상호 GP를 시범철수하기로 하였다. 이중 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파주, 철원, 고성 3개 지역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의 뜻을 담은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게 되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11개를 시범적으로 철거하기로 하고, 이중 1개는 보존하고 나머지 10개는 철거했다. 이때 철거된 GP 중 일반인에게 개방한 곳은 파주가 유일하다. 군사분계선과 불과 700m 거리에서 북한을 볼 수 있고 한국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등록문화재 76호 구 장단면사무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파주 DMZ 평화의 길'이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파주 DMZ 평화의 길 코스

길이 열린다. 평화를 걷는다. DMZ 평화의 길

파주 DMZ 평화의 길은 2019년 4월까지 평화의 길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 및 군과의 협의를 마치고 조성에 들어갔다. 화장실, 도보구간 보강, 조망대, 안내판, 안전난간 등의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2019년 8월 9일 통일부장관,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방행사를 갖고 다음날인 8월 10일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DMZ 평화의길 코스는 총 21㎞로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철책선을 따라 1.4㎞를 걸어서 통일대교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버스에 탑승하여 도라전망대, 철거 감시초소(GP)까지 이동하는 경로로 3시간이 소요된다.

철원과 고성구간이 철원평야와 동해안의 자연경관 위주의 구간이라면, 파주구간은 자연경관은 물론 분단의 흔적과 통일을 향한 남북한의 노력의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개방된 철거GP는 군사분계선과 불과 700m 거리로 다른 구간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북한을 바라 볼 수 있다.
1일 2회(오전10시, 오후2시) 회당 20명이 방문 가능하고 방문가능인원 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방문객이 결정된다.

파주 DMZ 평화의 길은 2019년 8월 10일 개방이후 2019년 9월 15일까지 운영하였고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행사

이후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다. 파주시에서는 운영재개를 위해 중단 직후부터 방역을 대폭강화하고 야생멧돼지를 집중 포획하였으며 멧돼지의 관광지 출입을 완전차단하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DMZ 평화의 길 중 유일하게 2020년 11월 28일 운영을 재개하였고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문인원을 1/2로 제한해 운영 중이다.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은 운영기간 중 총 6,136명이 방문을 신청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88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DMZ 평화의 길(2단계) 조성 다시 부는 평화의 바람

현재 파주시에서는 DMZ 평화의 길 2단계 구간을 조성 중에 있다. 2단계 구간은 판문점 인근 지역으로 실제 경계근무를 서던 GP 건물이 남아 있고 남과 북에서 각각 DMZ 내에 조성한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1단계 구간과는 또 다른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관광과 | 담당자 박원재(940-4361)

6 임진각 평화곤돌라 설치

임진강을 가로질러 국내최초의 DMZ 안보관광 평화곤돌라

2018. 10월 착공
임진각 하부정류장에서 캠프그리브스 상부정류장을 잇는 편도 850미터, 10인승 26대 캐빈 설치

2020. 1. 29.
임진 평화곤돌라 설치 준공

2020. 2. 24.
파주시-1사단 곤돌라 운영 MOU 체결

2020. 4. 20.
임진각 평화곤돌라 운행 개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부정류장 무정차 운행)

2020. 5. 7.
파주시-1사단 곤돌라 운영 실무협약 체결

2020. 9. 15.
정식개통



곤돌라 북측 탑승장

임진각 평화곤돌라 설치로 평화관광 선도

임진각관광지는 매년 약 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볼거리·즐길거리 등 관광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파주시는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곤돌라를 이용하여 민통선 지역에 들어가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다.

임진각 하부정류장에서 임진강을 가로질러 캠프그리브스 상부정류장을 잇는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는 편도 850미터, 10인승 26대의 캐빈으로 설치되었고 327억원이 투입된 민간투자 사업이다.

경계를 넘어 자유와 평화를 연결하는 곤돌라, 새로운 DMZ관광 패러다임 구축

임진각 평화곤돌라는 세계정상급 메이저 회사인 도펠마이어 캐빈을 채택하여 2018년 10월 착공, 2020년 1월 29일 준공하였다. 이후 시범운전 기간을 거쳐 3월 개장 예정

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해 민북 관광이 중단되어 4월 20일부터 상부정류장 무정차 방법으로 운행해오다, 9월 15일부터 정식개통하였다.

2020년 12월까지 임진각 평화곤돌라 누적 이용객은 28만명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평화관광의 획기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파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끌어 모으는 파주시의 대표 관광명소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장단면 노상리에 임진강 평화전망대를 조성하고, 도보다리 재현 및 정자(평화정)을 설치 완료 하였다.

민통선 지역에 더해지는 임진각 평화곤돌라 연계관광

임진각 평화곤돌라가 지닌 관광객 집객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 관광이 불가한 상황에서 상부정류장 무정차운행이지만 운행 개시 3개월 만에 이용객 10만 명이라는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곤돌라 캐빈



임진강 평화 등대

여기에 8월 민통선 지역 최초로 탐방로 및 전망대를 조성하여 9월30일 관광객에게 개방하였다. 임진각 평화곤돌라 이용객은 탐방로를 걸으며 민통선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고, 민통선에서 바라보는 자유의 다리, 독개다리, 장단반도, 임진각 등 새로운 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2전망대에 도보다리 재현과 등대 포토존은 관광객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부서명 관광과 | 담당자 엄주용(940-5196)

7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생태평화 종합관광을 위한 한반도 중심역할로 도약

2019. 06. 20.
파주시-한국관광공사 여행체험관 공동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2020. 06. 22.
2019년 전국지자체 관광경쟁력 평가 "최고" 관광지로 인정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조감도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대한민국 대표 평화관광지 육성

파주시는 시정비전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 정하고 '안보관광도시'에서 '평화관광도시'로의 이미지 변모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시는 임진각관광지 확대지정에 따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대표 DMZ 안보관광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상생하는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추진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문산읍 마정리 1360-50번지 일원(임진각관광지내)에 건축연면적 3,982㎡, 2층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총사업비 14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 02월 공사 착공하였고 2021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종합관광센터 내에는 파주시와 한국관광공사의 업무협약을 통해 최첨단 한반도 가상

현실 여행체험관을 설치하여 비무장지대(DMZ) 지역 생태체험, 한반도 평화, 북한 여행 등 3가지 관광 콘텐츠에 최첨단 5G 기술을 접목하여 한반도 여행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생태평화 종합관광을 위한 한반도 중심역할 기여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즐기며 체험하는 장이 되고, 비무장지대의 고급 정보 제공,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거점이 되어 DMZ 전체를 아우르는 10개 시·군의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부서명 관광과 | 담당자 김창구(940-4725)

8 오두산 전망대 철책길 구간 개방

65년만에 미지의 땅 민간에 개방으로 평화분위기 확산

2018. 10. 6.

정전 협정 이후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한 철책길 개방 추진

- 제5회 파주탄현 삼도품 축제 시 65년만에 민간에 최초 개방하는 민통선 철책길 걷는 행사 진행
- 9사단과 업무협약('19. 5. 2.) 체결을 통해 오두산 철책 평화탐방로 및 등대 조형물 조성 추진 중

오두산 전망대와 연계한 철책길 평화관광자원화 추진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방 협약 체결 (2019. 5. 2.)

오두산 전망대 철책길을 65년 만에 민간 개방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절경과 북한 황해도의 산천과 주거, 사람들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평화관광지로 1992년 개장 이후 2,0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파주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다. 파주시는 이 일대를 평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18년 10월 6일 제5회 파주 탄현 삼도품축제 때 정전 협정 이후 65년만에 임시개방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 응을 얻 었으며, 이를 계기로 2019년 5월 2일 파주시는 9사단과 개방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2019년 9월에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여 개방에 대한 노선을 협의하는 중 김포에서의 월북사고로 인해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철책탐방로의 조속한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데크 설치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

오두산 철책탐방로는 약 1.7㎞로 군 순찰로를 일부 이용하여 관광객들이 탐방할 수 있게

될 예정으로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데크를 설치하고 북한 황해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꼭짓점초소에는 평화등대,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한다.

통일동산 관광 특구와 연계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기여

지난 65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 되었던 오두산 전망대 철책길 구간 개방으로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통일동산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파주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방 협약 체결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 본 철책길 구간



탄현 삼도품 축제 철책길 구간 임시개방

부서명 관광과 | 담당자 정해오(940-5197)

9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최전방 도라전망대 새롭게 태어나다

2018. 10. 22.

DMZ 내 도라전망대 신축이전 개관
- 연간 8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최전방 전망대이나 1986년 건립된 노후 시설로 안전사고 우려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제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극복

이전 신축을 통한 현대적 체험관광시설 및 교육장을 갖춘 세계적 평화체험 관광지로 변화 추진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개관식 (2018. 10. 22.)

도라전망대 새롭게 태어나다

(구) 도라전망대는 1986년 개관이래 32년이 경과하여 대수선이 필요할 정도로 노후되어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관광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전 신축하는 도라전망대는 도라산 해발 167m 지점으로 이전 신축돼 지금보다 북쪽으로 11m 더 가깝고 고도는 현재보다 12m 더 높은 곳에 위치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개성외곽 정면, 제3땅굴 등 전망이 가능하며, 외국 관광객 중 80%가 중국인으로 북한의 돌발적 군사 행동 사전 방지가 가능하도록 설계와 시공을 하였다.

현대적 체험 관광시설 및 안보교육장으로의 면모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인 평화체험 관광지로 조성하여, 세계 유일 분단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성과 더불어 관람객의 다양한 체험요소를 도입, 건축적 형태미를 디자인에 반영하는 등 세계적 명품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전신축을 추진하였다.



(구) 도라전망대



(신) 도라전망대

평화관광지의 정체성을 담은 변화된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도라전망대는 2012년 7월 투융자사업 심의를 시작으로 2018년 9월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6년 1개월간의 기나긴 시간을 지나 국비와 지방비 등 총 92억원 사업비로 대지면적 4,999㎡에 연면적 2,143㎡(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기존 전망대에서 부족했던 휴게시설과 카페테리아 등 편익시설을 갖추어 관광객 편의는 물론 세계적인 평화관광지로 조성되었다.

첫째, 장소성을 강조하여,

- 도라전망대는 DMZ내 최북단 전망대로 남북 분단 및 대치 상황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장소성 부각을 위해 철책선이 보이도록 하였고, 시설의 차폐를 통해 분단 상황을 강조하며 전망공간으로 시선을 유도하였으며,
- 지상3층 옥외 전망대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망원경을 이용해 남쪽으로 북한산, N서울타워, 월롱LG디스플레이단지, 파주 문산 시내, 임진각 등을 볼수 있고 북쪽으로 송악산, 개성시가지, 개성공단, 김일성동상, 기정동, 판문점, 제3땅굴 관광지 등을 관람할수 있다.

둘째 건축적 형태미를 디자인에 반영하여 도라전망대만의 정체성 확보하였다.

- 자연의 색(주조색)과 군시설을 상징하는 색의 조화를 통해 군사안보시설물을 형상화하였으며, 기존 전망대에 없는 내부 전시관 조성과 전망대(편의시설), 봉수대조형물(교양시설), 파고라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였다.

다시 찾고 싶은 평화 관광지로 거듭나다

이전 신축 도라전망대는 분단의 아픔 및 전쟁의 실상을 알려주는 안보교육과 최전방

전망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 하였으며, 한-덴마크 수교 60주년을 맞아 덴마크 예술가 그룹 '슈퍼플렉스'의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작품(One Two Theree Swing)을 설치하여 입체적 체험 관광시설로써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형 공간을 창출하고, 관람객 수요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교육 공간과 옥상 전망을 통한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세계 유일의 전망대로 새롭게 태어났다.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전망대인 도라전망대는 '다시 찾고 싶은 안보와 평화의 관광지' 로 발전하여 훗날 도래할 평화와 통일시대에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관광사업소 | 담당자 송수복(940-8524)

3
서민경제도시 파주

튼튼한 서민경제를 위한 파주의 노력은 쉼이 없습니다

파주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인프라 개선,
파주시만의 일자리 특화사업을 추진합니다.

튼튼한 경제 체질 변화로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모두에게 든든함을 드리는 파주.

소상공인과 기업이 상생하고, 좋은 일자리가 더욱 많아지는
파주 경제를 만들어 갑니다.

1. 통일동산지구 CJ ENM 콘텐츠월드 유치
2. 파주희망프로젝트 차질없는 단계별 추진
3.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유제안 공모 추진
4.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추진
5. 안정적인 산업단지 조성 추진(파평·법원·적성)
6.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재개
7.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
8. 상생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9.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페이' 발행
10. 군 장병 평일외출 지원시책 추진
11.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
12.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추진
13.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및 지원
14.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
15. 기업애로 해소
16. 공영주차장 확충
17. 포스트코로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1 통일동산지구 CJ ENM 콘텐츠월드 유치

파주시 대표 문화관광지 및 새로운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 도약

2019. 6. 12.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2019. 7. 5.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2019. 11. 12. 진입도로 실시계획 인가 등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절차 지원을 통해 빠른 착공 실현

CJ ENM 콘텐츠 월드

아시아 최대규모 방송영상 콘텐츠 스튜디오 조성

글로벌 수준의 차별화된 콘텐츠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헤이리 문화지구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 도모

생산-소비-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지역경제 중심지 도약 및 통일동산 활성화에 기여



CJ 콘텐츠월드 스튜디오

파주 통일동산지구, 관광콘텐츠 유치로 돌파구 마련

파주 통일동산지구는 90년대 동서화합의 급속 진전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가시적 사업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평화시 건설구상'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5,553천㎡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대 평화 관광지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택지지구의 급속한 개발과 국가 정책변화에 따라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되었다.

이에 파주시는 헤이리 및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등 통일동산 내 기존 관광지의 연계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방송·관광 콘텐츠'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파주시의 대규모 관광시설 도입 의지와 국내 굴지의 방송콘텐츠 기업인 CJ ENM의 방송 스튜디오 조성 수요가 함께 맞물려 탄생한 구상안이 바로 CJ ENM 콘텐츠월드인 것이다.

파주시와 CJ ENM과의 협업으로 방송과 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단지 조성

파주시와 CJ ENM은 2019년 6월 12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5일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2019년 11월 12일 진입도로 실시계획 인가 등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절차를 통해 빠른 착공이 가능하였으며, 2020년 12월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스튜디오 등 주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이다.

CJ ENM 콘텐츠월드 사업계획에는 촬영 및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 뿐 아니라, 야외 오픈세트, 가상·증강현실을 느낄수 있는 체험공간 등 특별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내외 관광객들의 1번지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지 남쪽에 조성된 K-POP 스튜디오에는 글로벌 보이그룹 멤버 12명을 선발하는 신개념 관찰형 데뷔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I-LAND(아이랜드)를 전세계로 방영(2020년 6월 26일~9월 18일)함으로써 콘텐츠월드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시대의 관광콘텐츠 사업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



CJ ENM 콘텐츠월드 1단계 전경(위) / 2020 MAMA 무대전경(아래)

파주시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입지하게 되는 CJ ENM 콘텐츠 월드는 축구장 32개 크기인 210천㎡ 규모로 조성되며 1단계 2021년 1월, 2단계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하게 사업 추진 중이다. 2020년 11월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1600평, 800평 규모의 스튜디오 2개동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이곳에서 2020년 12월 6일 전세계 24개국 방영, 5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MAMA(엠넷아시아뮤직어워드)를 성공적으로 개최(비대면)하였다.

CJ ENM 콘텐츠월드는 인접한 헤이리마을,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하여 연간 12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2만 2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및 2조 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CJ ENM 콘텐츠월드는 파주시 지역경제에 상당하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 관광지가 아닌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자 한류의 '핵'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도시개발과 | 담당자 최현석(940-4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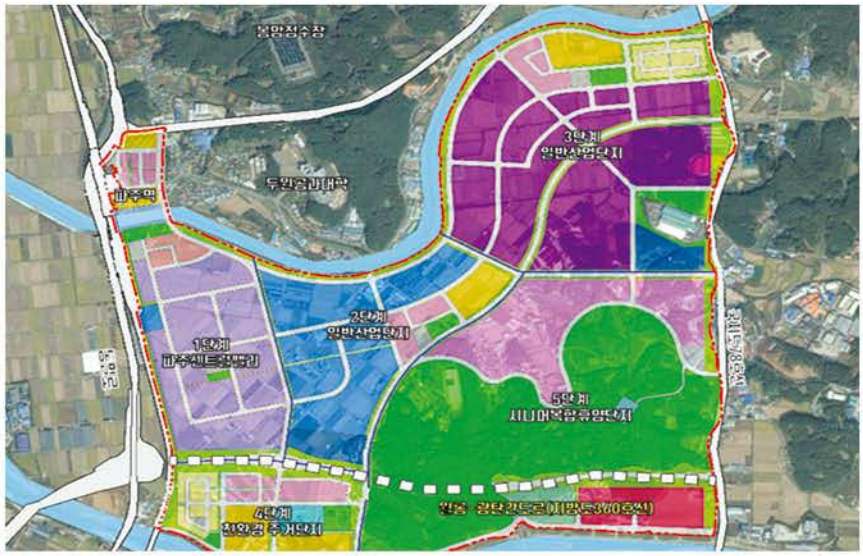
2 파주희망프로젝트 차질없는 단계별 추진

파주 북부지역 균형발전 기틀 마련

2018. 9. 4.
파주희망프로젝트 2·3단계 사업제안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선정

2019. 2. 15.
파주희망프로젝트 2·3단계 기본협약체결

2020. 5.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착공



파주희망프로젝트 토지이용계획도

통일경제의 중심도시 파주시 건설을 위한 '파주희망프로젝트'

파주시는 수도권규제, 군사규제 등 경제활동의 제약을 포함한 각종 규제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기업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북부 지역은 그 중심에서 그동안 개발이 정체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이에 파주시는 파주읍을 포함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통일시대 경제중심도시 조성으로 평화와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희망프로젝트의 단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조성 사업 첫발을 내딛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역인 파주역을 요충지로 운정신도시와 문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자족 도시권을 만들고자 2015년 주민 의견 청취, 사업 추진위원들의 의견수렴, 주민설명회를 통한 기본구상 확정을 시작으로 최초 1단계 사업인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2016년, 2017년 두 차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 승인 및 2018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등 꾸준한 행정절차 이행 결과 2020년 5월 드디어 착공을 개시하여 파주시의 신성장동력 산업기반의 구축을 위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파주희망프로젝트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사업추진에 이어 LG디스플레이 및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통일 중심도시의 산업거점 조성을 위하여 나머지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여 2018년 9월 파주희망프로젝트 2·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2월 사업실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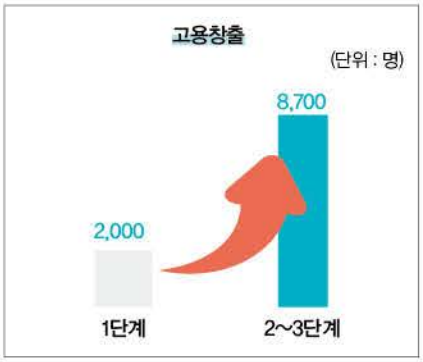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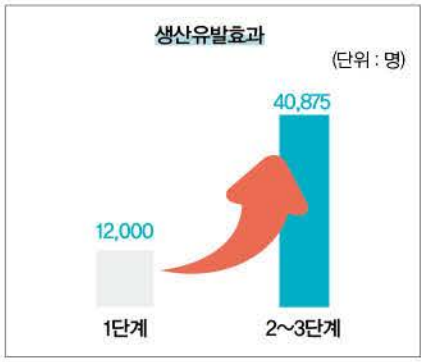
파주시 2 · 3단계 민간사업자간 기본협약 체결식

파주희망프로젝트 2단계 사업은 현대산업개발과 케이비즈파주산단이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51만㎡의 사업부지에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및 월롱 일반산업단지, 선유 일반산업단지등 첨단 산업단지의 협력단지 성격을 갖춘 신성장동력산업 및 R&D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3단계 사업은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의 사업자가 참여한 파주센트럴밸리2산단 컨소시엄이 103만㎡의 부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갈 파주희망프로젝트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의 고용창출 약 2,000여명, 생산유발효과 1조 2,000억원을 시작으로 2·3단계 사업의 단계적 개발이 완료되면 전체 고용창출 약 8,700여명, 생산유발효과 4조 875억원의 효과를 얻게되어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중심도시로서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파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산업단지 공급물량이 제한 관리되어 현재 2·3단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급물량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 제외대상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가 포함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두차례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제안자가 없었던 파주희망프로젝트 4·5단계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주변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단계적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주의 지리적 중심지이자 확충되는 교통망의 중심에 위치한 파주희망프로젝트의 단계적 사업이 완료되면 파주시는 통일시대 경제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파주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머지않은 통일시대의 중심에 우뚝 서기 위한 파주희망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부서명 통일기반조성과 | 담당자 심윤기(940-5353)

3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유제안 공모 추진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 캠프 에드워즈 도시개발 사업 추진

2020. 6. 10.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GS건설과 협약체결

2020. 11. 30.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약체결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본협약 체결식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민간 투자유치 진행

파주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시설 및 민간 투자가 부진하여 지역경제 침체와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 주한미군의 주둔 및 이전으로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파주시는 국비 확보와 법령 및 정책 개선 건의, 그리고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공모사업 등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공모를 시작하여, 캠프스탠턴은 2019년 6월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캠프에드워즈는 2019년 7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여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통해 2020년 6월 GS건설과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1월 현대엔지니어링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시공능력과 재원조달능력을 갖춘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1)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GS건설과 협약체결

광탄면 신산리에 위치한 캠프스탠턴은 1953년 미군에 공여되고, 2004년 미군부대가 철수하고 2007년 국방부에 반환 된 후, 대학 유치 등 개발사업이 시도되었으나 무산되면서 방치되어 왔던 곳이다.

2015년 5월 민간 공모를 진행하였음에도 사업제안자가 없었으나 2019년 3월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자유제안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제안한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0년 6월까지 약 11개월간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의 주요내용은 파주시는 산업단지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GS건설은 책임준공 및 재원조달과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파주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에 산업단지 용도를 추가하는 것과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산업단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GS건설은 행정절차의 승인 전에 책임준공확약서(조건부 포함) 및 재원조달확약서(조건부 포함) 등을 제출하여 시공능력과 재원조달능력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기존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사례를 볼 때, 사업시행자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사업을 추진할 건설사와 금융사를 확보하지 못해 주민과의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협의가 진행 되지 못하는 등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였기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시공능력과 재원조달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2)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이라는 제약을 뛰어넘을 방법을 찾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의

파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으로 관리가 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일간경기

2020년 06월 11일 목요일 002면 종합

캠프스탠턴 산단 개발 본격 추진

파주시-GS건설 기본협약
개발이익 환원계획 제시

파주시는 11일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를 체결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3월 민간사업자 자유제안 공모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7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GS건설 컨소시엄은 3422억원의 사업비로 제조·물류시설, 방송제작,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의 복합·공원주택형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개발이익의 공공환원계획을 제시했다.

파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과 협상을 진행해 캠프스탠턴 내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를 GS건설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은 파주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민간사업자의 지속적인 참여 및 수익도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을 적극 협조하고 민간사업자는 책임준공, 재원조달, 공공환원 등 사업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국비지원 등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는 "산업단지를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관내 미군공여지는 2007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반환된 후 사업에 정체이 없었고 LH 등만 민간전문사에서 사업제안이 없었지만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추진을 계기로 미군 공여지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성기홍 기자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그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을 받지 못한 파주희망프로젝트 2, 3단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약 체결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본협약 체결식

월롱면 영태리에 위치한 캠프에드워즈는 1954년 미군에 공여되고, 2005년 부지 폐쇄, 2007년 반환되었으며, 2006년 대학교 유치를 위해 이화학당(이화여자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7년 도시관리계획(교육연구시설) 결정되어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1년 이화학당에서 사업 취소로 개발이 무산되었다.

2015년 5월 민간 자유제안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제안자가 없었으며 2019년 3월 재공모를 진행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2020년 11월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상의 주요내용은 파주시는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책임준공 및 재원조달과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법령 및 정책개선 추진

민선7기 출범 이후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GS건설과 협약체결,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약체결,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및 행정소송 1심 승소와 사업자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등 5개의 반환공여지 중 3개소가 개발사업을 제안한 사업자와 협약 또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짧은 시간동안 반

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반환공여지의 높은 토지가격과 기반시설 지원 정책의 부재 등으로 캠프개리오언과 캠프자이언트는 2007년 반환 이후 13년간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 투자 등 미개발 반환공여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째, 공여구역이 반환되거나 반환공여구역의 처분이 결정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둘째, 부담금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지법 등 개별법의 개정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에 따라 미군반환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대상을 도로·공원·하천 조성사업과 더불어,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80%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통여건 등 개선에 따라 보다 탄력을 받게 될 반환공여지 개발

파주시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국지도 56호선 등 교통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어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문산역 주변에 있는 캠프자이언트와 캠프개리오언 등의 미군반환공여지의 가용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미개발 반환공여지의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자 공모 등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법령 및 정책개선을 통한 반환공여지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부서명 통일기반조성과 | 담당자 배진국(940-5351)

4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추진

道 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한 공업물량 배정

2020. 5. 28.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결과 산업단지 물량배정

- 수도권 북부지역의 첨단산업 거점 조성 도모,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경제기반 구축에 기여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송촌동 일원
- 면적 : 472,600㎡ (산업시설용지 : 297,915㎡)
-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운정테크노밸리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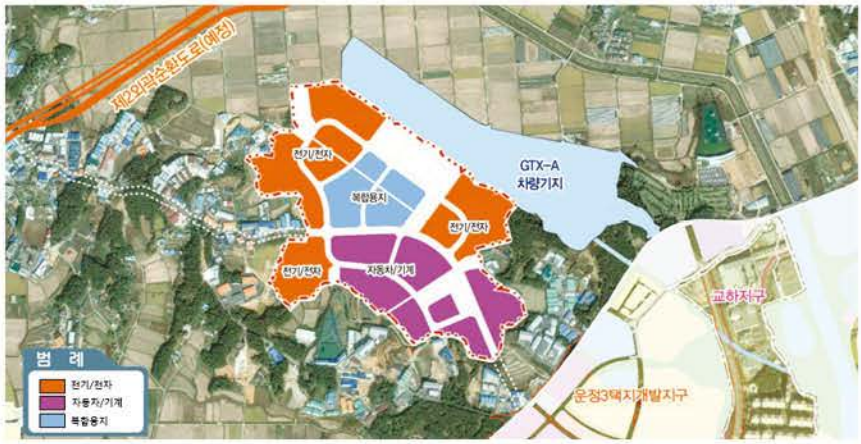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족도시 건설 필요 대두

지난 2019. 5월, 3기 신도시(고양 창릉)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현재 조성중인 운정 신도시는 3기 신도시의 배후도시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로 그 어느 때 보다 자족도시건설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시는 운정신도시 주변의 자유로, 국지도56, GTX-A,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최적의 기반시설과 파주국가산업단지, 문발산업단지, 신촌산업단지 등과 유기적인 연계 결합 및 미래의 산업구조 방향을 고려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기능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해 왔다.

선제적인 대응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

산업단지 조성은 수도권정비계획 3개년 계획에 따라 산단물량 배정 후 조성이 가능하나, 올해 2018 ~ 2020년까지 산단물량 소진으로 금년내 산업단지 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시는 수도권 3개년 물량변경(2021 ~ 2023년)시 최우선적으로 산단 물량 배정과 경기도내 산업단지 사업포기 등 잔여 물량 발생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2019년 10월 기본구상



유치업종계획도

및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 등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2020년 3월 경기도내 산단포기 물량이 발생하여 시는 그간 준비한 산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바탕으로 산단 물량 배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신속히 경기도에 제출, 2020년 5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위원회에서 입지의 적정성, 입주수요 분석 등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원안의결로 통과하여 산단 물량 47만2천㎡를 배정 받았다.
아울러, 시는 배정 받은 산단물량 확정을 위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지정계획 수립용역 예산을 반영하여 2020년 9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 11월 국토교통부 공업물량 배정 변경심의를 완료하고 12월 국토교통부 2020년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를 신청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자족도시 건설에 이바지하는 경제 인프라 구축에 탄력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능의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함으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으로 4차혁명을 주도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해 상생발전 및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첨단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정신도시 등 주변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족 도시건설로서의 경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더 할 것으로 기대되며,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하는 남북교류 전진기지로서의 파주시 도약이 한층 더 기대된다.

부서명 통일기반조성과 | 담당자 이민경(940-5343)

5 안정적인 산업단지 조성 추진(파평·법원·적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실현

2019. 9. 18.
적성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20. 2. 17. 준공인가공고

북부지역 산업 공간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기틀 마련 경제 선순환 구조 체계 구축

2019. 12. 26.
법원 1산단 경기도형 지역 균형개발 산단 선정 및 협약 경기도 : 파주 : 평택 : 경기도시공사

2020. 5. 15.
파평일반단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20. 5. 27.
법원2산업단지(변경) 산업 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지역불균형 해소와 통일시대 대비 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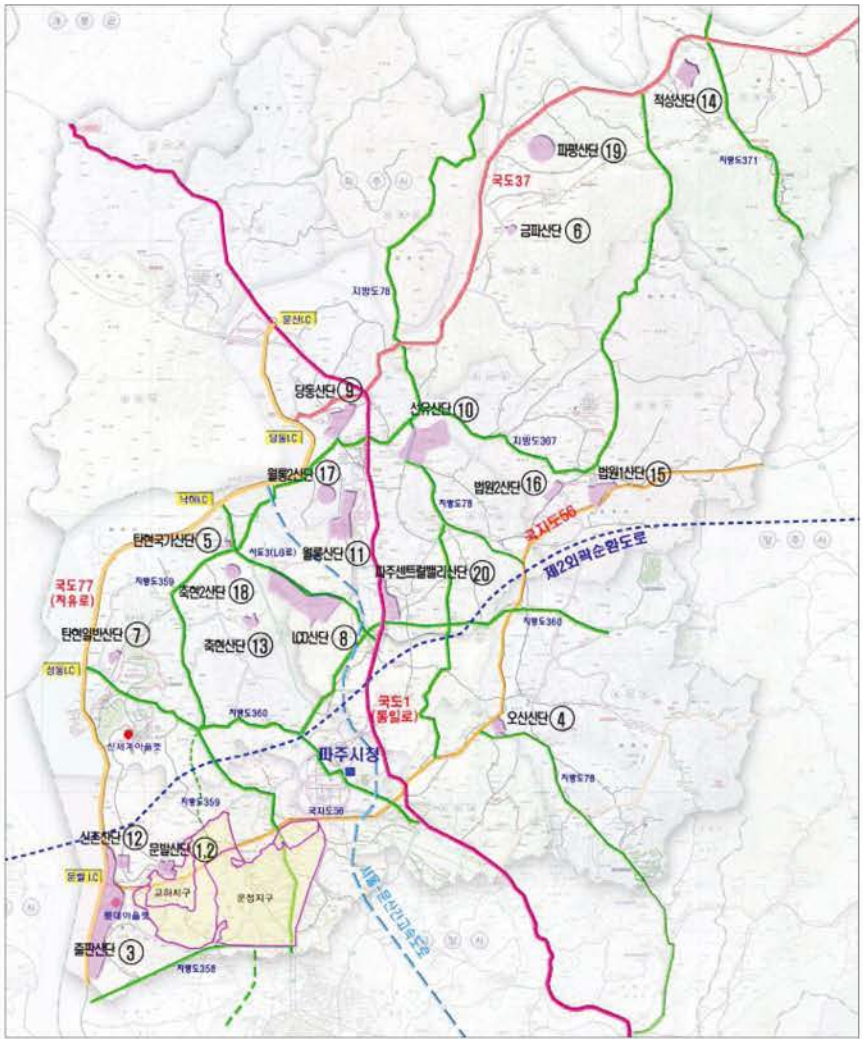
파주시가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은 과거 60년, 70년 미군부대 철수 이후 급격히 낙후되어 남부지역에 비해 기반시설 노후화 및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된 지역이면서 휴전선 최북단에 인접하고 있어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

또한, 파주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지역적, 공간적 편중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일시대 대비 미래 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 제시가 절실했다.

따라서 파주 남북부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했다.

단지명	시행자	사업규모		산단계획 최초승인일 (지정/실시)	착 공	분양가 (만원)		분양현황(필지)			개발현황	
		천㎡	천평		준 공	㎡	평	대상	분양	분양률	입주기업	종사자수
파 평	파평산업 단지개발(주)	593	181	–	– –	24	82	–	–	–	68	3,068
법 원1	파 주 시	345	104	'10.03.19.	– –	38	125	–	–	–	47	1,256
법 원2	법원산업 도시개발(주)	330	100	'10.03.19	– –	47	156	–	–	–	43	1,212
적 성 (확장)	㈜kbiz 파주산단	135	41	'18.04.13	'18.10. –	26	85	–	–	–	25	604

파주 산업단지 현황도



운정신도시 내 편입되어 이전이 필요한 공장 및 산재되어 있는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이전) 및 합리적 배치를 북부지역으로 유도하였고,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균등한 경제기반 확충은 물론 추후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개발 산단 추진 및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협약으로 산단 추진 동력 확보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식 (2019. 12. 26.)

민간개발 산단 추진을 유도하고 적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산단 진입도로 예산지원(국비)으로 분양가 인하와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안정적인 산단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파평, 법원 2산단은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현재 보상완료 및 공사 중에 있으며, 더불어 파평산단 진입도로의 경우 2020년 하반기에 125억원을 확보, 법원 1,2산단은 각각 64억원 210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중이다.

이어 법원 1산단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구역계 변경 등 2021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국지도 56호선 개선(2018년 12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2023년) 등 최적의 광역교통망 구축 및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추진으로 산단조성에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 산업단지 개발이 남서부지역에 편중 또는 집중되고 있으며 북동부지역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에 따른 개발이 저조하여 산업단지 결합개발을 통하여 사업성이 양호한 산업단지의 개발수익을 사업성이 저조한 산업단지 재투자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경기도 : 파주시 : 경기도시공사)

적성 일반산업단지는 200억을 확보하여 2015년 진입도로 완공을 시작으로 2단계 조성사업이 2020년 2월 17일 준공됨으로써 부지 분양 완료되고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460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340억원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들 산업단지 조성은 북부권 산업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발돋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단지가 생김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공간, 상업시설, 인프라 등 편의시설 필요로 개발 촉진과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파주 북부 지역 혁신 거점화를 통한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낙후된 도시의 새로운 경제적 원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나아가 통일경제 특구가 가시화되면 기존 개성공단과 북부지역 산업단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 파주시는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경제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서명 통일기반조성과 | 담당자 허권준(940-5341)

6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재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첫 삽을 뜨다! '21년 7월 준공 예정

2018. 7.
민선7기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시민 공론화」를 추진하여 시민소통 강화

2018. 10.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민자문단」의 의견 수렴하여 사업부지 변경

2020. 4. 공사착공
장단콩으로 1차 산업과 장류·가공품을 제조하는 2차 산업, 유통·판매하는 3차 산업 체험·관광 등 6차 산업이 한 데 어우러져 고부가가치 창출 기대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감도

수리부엉이 서식지 발견에 따른 사업 중단, 좌초 위기 극복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은 2015년에 파주 장단콩을 활용해 생산·가공·유동·판매와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경기도 주관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100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하면서 시작되었다.

탄현면 법흥리 일원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좌초 위기의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시는 시민 공론화 및 시민 자문단 구성을 통해 사업의 재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시민 공론화 간담회



시민자문단 정기회의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과 신뢰 회복

파주시는 사업의 재추진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시민 주도형 공론화를 통해 시민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신속한 사업재개는 물론 사업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시민 공론화를 통해 사업부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시민 참여형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 부지를 모색하고 적절한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신속한 사업재개를 위해 2018년 10월 지역주민, 환경단체, 시민, 농업단체, 외식업 대표,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형 협의체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당초 탄현면 법흥리에서 탄현면 성동리 678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시민자문단은 수리부엉이 서식지 확인 후 표류하던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을 사업지 이전과 대안부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시설조성, 장류, 로컬푸드, 요식업, 문화체험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파주장단콩 웰빙마루의 추진방향에 대한 대안과 사업성을 공유했다. 무엇보다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시민자문단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시민자문단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19년 1월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착공식(2020. 5. 13.)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드디어 첫 삽 뜨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2020년 3월 공사입찰을 완료 한 후, 4월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본격화 되었으며, 2021년 7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단순히 장단콩의 생산·가공·판매에만 국한되는 1·2차 농업산업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등 3차 산업과 체험·관광 등 6차 산업이 한데 어우러져 고부가가치를 창출, 농가의 소득 증대가 예상되며, 통일동산 지구 내 헤이리 예술마을,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 등과 함께 관광객 유입 등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농업진흥과 | 담당자 이아름(940-4805)

7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모든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
- (청년) 청년일자리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신설 위촉,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여성)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마련
-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
- (신중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출퇴근 버스 운영,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파주시 일자리정보박람회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노력,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파주시는 지역 기업의 96.7%가 중소기업이며, LCD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산업단지는 많고, 인구는 증가하나 기업체는 구직자 구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운 미스매칭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출퇴근 버스운영,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산업단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1기 신설 위촉,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신규 설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등을 마련하는 등 계층별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적극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파주 청년의 꿈을 지원

1) 청년일자리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취업성공프로그램 운영

파주시는 파주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행복도시 파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 중에 있다. 그중에서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구조가 고착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과 일자리의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청년일자리사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파주시 청년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청년 일자리지원센터는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전용 열린 복합공간으로 파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위치하며, 센터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해 취업상담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7개 기관과 협업해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상담과 문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지원센터는 2020년 12월 말 현재 청년취업성공 프로그램 6회, 현직자 직무수업 캠프 2회를 운영하여 80명이 수료했다. '청년취업성공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및 직무분석, 취업서류 컨설팅, 실전모의면접,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하였다. '현직자 직무수업 캠프'는 현직에 근무하는 실무자에게 현장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



청년취업성공프로그램 수료식



청년일자리 위원회 개최

그램으로 청년들에게 직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1,500여명의 구직자들이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찾아 면접스터디를 하고, 취·창업을 준비하는 등 취업동기를 부여하는 데 기여했다.

2) 청년일자리위원회·청년위원회 신설, 청년기본조례 제정으로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또한, 청년일자리정책에 관한 청년일자리위원회를 2019년 2월 26일 신설·위촉하였으며, 청년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2019년 5월 10일 「파주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월 22일 '파주시 청년위원회'를 신설·위촉하는 등, 청년의 취업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 및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청년에게 무료로 면접 정장 대여비를 지원하여 청년에게 무료로 면접 정장 대여비를 지원하여 210명의 청년이 취업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2021년 면접정장지원인원을 250명으로 늘려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사회진출을 응원하는 일자리 정책

파주시는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서 무료로 만 20세부터 54세까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세상과 여성리더십 △재취업 성공 요인 △입사서류 작성법 △이미지 메이킹 및 모의 면접 △기본소양 교육 등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2060 브랜드 숍매니저 과정을 운영하여 롯데 및 신세계 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와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2019년 45명, 2020년 30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되었으며, 이 외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2020년 2월 12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열정을 지닌 파주시 신중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고용노동부 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관내 10개 지역아



시대일보

2019년 04월 23일 화요일
008면 경기

파주시, 다시 일하자, 5060 신중년

파주시는 오는 5월부터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중년 지역아동센터 전문교육지원' 사업은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 5명을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10곳과 연계해 영어, 수학, 독서지도 등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상태의 신중년으로 1950.1.1.부터 1969.12.31. 사이에 출생한 만 50세~만69세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 희망자는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dhi1230@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태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퇴직이나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중년 경력자들에게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식기자 dskim@sidaeilbo.co.kr

신중년 경력활용 사업

동센터와 연계하여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아동 학습지도 등 2019년 222명, 2020년 1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파주건설기능인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철근, 캐드 등 전문건설기능 교육 지원으로 건설 회사 및 현장에 취업을 연계, 2020년 중장년층을 포함한 34명의 수료생들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이외에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아래 2020년에는 노인일자리 2,469명, 장애인 일자리 103명, 공공근로 977명 등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채용박람회의 새로운 시도 '2019. 파주 일자리 정보시장 박람회 개최'

2019년 파주시는 그 동안 현장채용 형태로 진행했던 기존의 채용박람회를 탈피하여 공공기관, 공사·공단,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총 78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모든 분야의 일자리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구직자와 채용자간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기존 채용박람회는 개최시기에 맞춰 채용이 있는 기업만이 참여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정보시장 박람회는 대규모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구인업체도 참여하여 구직자들에게 알찬 취업정보를 제공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방 활동에 공공근로 사업과 매칭하여 800여명



1:1 취업 컨설팅



실전모의면접



면접스터디 하는 청년들

고용률(15~64세) 및 실업률 추이



※ 2019년 파주시 고용률 66.3%, 취업자수 225,100명, 상용근로자수141,200명 공공부문 150개 사업 9,539명 일자리 창출

※ 2020년 4월 기준 파주시 고용률 65.4%(15~64세 고용률), 실업률 2.8%, 취업자 수 221,300명, 15~65세 고용률은 31개 시군 중 8위

을 채용, 위축된 고용시장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3,100여명을 채용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파주, 더 좋은 알바」를 추가로 진행하여 30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 말로 희망일자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에는 자체 시비를 투입하여 전 부서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 3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 성공 디딤돌 마련

파주시에서는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및 취업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매년 최신 트렌트에 맞는 취업 프로그램 발굴과 구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구직자를 양성하였다.

2019년에는 10개 분야 31회 1,476명이 2020년에는 12개 분야 59회 457명이 참여하였다.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의 어려움으로 2019년 보다 참여인원이 감소되었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 운영하여 구직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일자리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경제도시 파주 구현

파주시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기업이 편한 도시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인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영,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신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공정한 노사문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2019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주민들의 일자리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 여성, 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 도시 파주를 만들어 경기도 내 경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김진홍(940-4524)

8 상생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상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2019. 1. 10.
제3차 유통업상생발전 협약 체결
- 대규모점포와 지역상인들 간 만남·소통의 장 확대
-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대규모점포의 전통시장에 대한 상생발전자금 지원



대형마트

2019. 6. 19.
신세계사이먼 증축에 따른 지역협력계획 합의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골목 상권 위축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을 통해 대형마트, SSM 기업형 유통점의 급속한 성장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은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따라잡기 어려워지게 되고 영세 상인들의 생계불안 및 지역경제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중추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유통산업 관계자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과의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윈윈전략을 통한 유통상생 모범사례 발굴

2019년 1월 10일 파주시–대형마트–골목상권이 참여하는 제3차 유통업상생발전 협약을 통해 대규모점포와 지역상인들 간 만남·소통의 장 확대,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냈다.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 지원 협약식(2019. 1. 10.)

유통시장의 상생방안 마련으로 다함께 잘 사는 지역만들기 성과 이뤄내

유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내고자 상인–대규모점포–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다함께 잘사는 지역만들기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다.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골목상권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였으며, 7개 전통시장에 대한 상생발전자금 지원을 통해 열악한 시장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였다.

또한 신세계 사이먼 증축에 따른 지역협력계획 합의를 통해 소외계층 지원, 지역주민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시장 마케팅 지원, 시장축제 지원 등으로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였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관내 영세 사회적기업도 상생지원 물품 공급에 판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구입 촉진에 힘쓰는 등 전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에 힘쓸 예정이다.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김성은(940–4521)

9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페이' 발행

골목상권 ·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지역순환경제 구축

2019. 3.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지역화폐 조례공포 및 명칭 · 디자인 확정

2019. 4.
운영대행사 협약 및 정책발행 사용 개시

2019. 6.
지역화폐 일반발행 사용 개시

2020. 1.
오프라인 발급처 확대 (NH농협은행 7개소 → 단위 농 · 축협 등 48개소로 확대)
교통카드 기능 추가 카드 발행(선택형)

2020. 3.
지역화폐 확대 발행 (10% 특별할인기간 연장 : 1~2월 → 7월까지)

2020. 6.
가맹점 파주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페이" 탄생

파주시는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고자 추진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고자 지역화폐 파주페이 발행을 추진하였다.

2019년 3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2019. 3. 29 제정)를 공포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파주시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부르기 쉬운 화폐 이름 선정을 위해 시민대상 지역화폐 명칭을 공모하여, "파주 페이"로 최종 선정 하였다.

2019년 4월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대행 및 카드 신청 · 발급 등의 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3년 동안 지역화폐 플렛폼 운영을 대행하기로 했다.





• 골목상권 살리는 '파주페이'

파주시는 지역자금의 지역 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형 대안화폐인 '파주페이'를 발행하였다. 할인혜택이 추가된 파주페이의 이용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 카드발행액(누계), 카드발행건수(월계)
※ 파주지역화폐(파주페이)발해액은 누계, 카드발행건 수는 월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2019년 4월에는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 6월에는 지역화폐 일반발행을 시작하였다.

가계부담은 줄이고, 골목경제는 활성화 되고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2019년 4월 파주시 지역화폐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파주시의회 위원, 소상공인 지원 공공기관 대표, 소상공인 대표 등 총 9명으로 구성했으며 2년 동안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파주시 지역화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지역대표카페인 파주맘과 운정맘 대표와 육군제1군단 주임원사를 파주시 지역화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파주시 홍보대사는 온라인커뮤니티와 군장병 및 군인가족을 통해 지역화폐의 도입취지와 사용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불편사례 개선사항 등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파주시 지역화폐는 2019년도에 110억원, 2020년도 594억원을 발행하여 총 704억원이 발행되었으며, 발행액 중 파주페이로 결제한 633억원이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



서울일보

2019년 02월 15일 금요일 010면 지역

파주, 올해 지역화폐 86억원 발행 계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파주시가 올해 총 86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키로 하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 내의 소비 증대와 함께 대규모 점포 대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류(종이상품권), 카드, 모바일 등 3가지 종류 중 파주시는 카드식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카드단말기가 있으면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해 이용이 편리하고 전 연령층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수당 지급이 용이하고 관리·운영 비용이 낮다는 장점도 있다.

오는 4월 경년비담과 산후조리비의 지급을 위한 정책수당을 시작으로 9월 시 변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발행으로 확대된다. 경년비담은 약 5천700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산후조리비는 약 3천500명에게 50만원씩 연간 7차에 걸쳐 나눠 지급되며 일반시년 대상으로는 12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대형아트, 백화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및 매출 10억원 이상 정도에서는 사용을 제한해 도입 취지를 살릴 예정이다.

또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6%의 할인판매와 함께 파주시와 상인의 공동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파주시는 2월 중 시민 대상 공모를 거친 명칭을 선정하는 한편 디자인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3월에는 관련 조례도 제정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역화폐 도입으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좀 고매출액이 증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첫 발행인 만큼 이용자들과 상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기복기자



현대일보

2019년 09월 04일 화요일 013면 경제

파주시, 파주페이 지역화폐 홍보대사 위촉

이용자 혜택 많고 골목상권 매출 증가

파주시는 지난 3일 3층 준비실에서 파주페이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페이(PAY)와 관련해 이날 김기 시장, 홍보대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페이(PAY)와 관련해 이날 김기 시장, 홍보대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페이(PAY)와 관련해 이날 김기 시장, 홍보대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시장에서 사용되었으며, 업종별 사용현황은 일반한식(21.7%), 편의점(7.8%), 보습학원(7.3%), 서양음식(5.7%), 슈퍼마켓(4%), 기타(53.5%) 순이다.

지역화폐 활성화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을

2020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소상공인들과 함께 극복하고자 지역화폐발행목표액을 당초 121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하고 2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10%할인인센티브를 12말까지 연중 계속 추진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의 카드결제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점에서 파주페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돌려Dream)' 사업을 경기도 내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공모에 파주페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응모해 전국 3위를 차지하며 확보한 국비1억원에 시비 1억원을 합쳐 총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었으며,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연매출 5억 미만의 모든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 0.5%, 최대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다.

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은 국비를 확보해 새로운 시책을 적극 펼침으로써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을 드리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해 본다.



인천일보 2020년 05월 28일 목요일 009면 베트로

'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돕고 가맹점 사용 장려

파주시도내최초~내달시행
연매출5억미만·최대50만원

파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최초로 6월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공모에 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응모해 전국 3위를 차지하며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전체 공모금 8억원 중 1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시는 시비 1억원을 합쳐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의 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플러Dream)은 도 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카드결제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점에서 파주페이 사용을 장려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 연 매출 5억원 미만 파주시 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는 파주페이카드수수료 0.5%, 최대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타 지자체가 일부 할인가맹점에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시는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모든 지역화폐 가맹점에 지원한다.

최종환 시장은 "시에서는 국비를 확보해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의 1차 접수 기간은 6~7월이며, 2차 접수 기간은 11월(예산소진 시까지)까지다. 다만 신청일 현재 폐업, 타 시도 이전,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된다.

/파주=김은로 기자 kimes@incheonilbo.com

아울러, 2020년 9월부터 지역화폐 충전 할인인센티브 한도를 월40만원 연4백만원에서, 월50만원 연6백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시범사업을 2020년 12월에 개시하여 지역화폐와 연계한 배달앱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성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절감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타시군 으로의 소비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지역화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파주페이가 지역경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정소희(940-4522)

10 군 장병 평일외출 지원시책 추진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018. 12.
파주시장 국방부차관 면담

2019. 1. 31.
군 장병 설문조사(8개 부대, 534명)

2019. 2. 15.
군 부대 간담회 개최

2019. 2. ~ 12
군 장병 평일외출 지원 시책 추진

'19년 지역경제 효과 : 총 외출인원 27만여명, 약 82억원의 경제효과



군부대 배달수수료 지원

군부대 사병 평일 외출제도 실시에 따라 지역상권 살리는 지원시책 추진

군부대 사병 평일 외출제도 실시에 따라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경우 그 어느 도시보다 군인들이 많이 상주하는데 착안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최적의 기회라 판단. 군 장병들의 문화적인 욕구와 교통인프라 등 개선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군장병과 방문객을 위한 홍보활동 확대, 설문조사를 통한 서비스 향상, 전통시장 상인회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추진 등 민·관·군 협조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군 장병 평일외출에 따른 맞춤형 지원시책으로 지역상권에 활력 부여

2018년 12월 국방부 차관 면담을 시작으로 군 장병의 수요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군 장병 설문조사, 군 부대 간담회, 평일 외출 일일체험을 통해 맞춤형 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하였다.

첫 번째로 군 부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8개 부대 주변 노선 및 정류소 신설 등을 통하여 접근성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두 번째로 군 장병 할인업소를 기존 33개에서 182개로 확대하고 평일 외출시간을 고려하여 영화관 상영시간 조정 등의 지역소비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파주 전자지도를 통한 군 장병 할인업소, 전통시장 등 홍보, 평일 외출과 연계한 지역화폐 홍보, 파주시 14개 롯데리아 군인전용 세트메뉴 출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군 장병 평일 외출이 지역상권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왔다. 그 결과 2019년 한해 군 장병 27만여명이 평일외출을 통한 지역상권을 이용하였으며, 약 82억원의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군부대 배달수수료 지원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장병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0년 3월 25일 1군단에 파주페이 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1군단 예하 부대로 전달되어 장병이 일과시간 이후나 주말 등에 지역 내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할 경우 발생하는 배달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

군부대 배달수수료 지원은 평소 파주시와 시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군장병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군 장병 맞춤형 마케팅으로 민·관·군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탄생

파주시는 군 장병 평일 외출 확대 실시가 지역경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맞춤형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한 결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군 부대 주변 교통개선을 통해 접근성이 확보되고 할인업소 확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지역소비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지역상인들은 군 장병 맞춤형 마케팅으로 지역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등 민·관·군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김성은(940-4521)

11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

상생협약 및 운영자금 지원 확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운전자금 확대
- 업체당 한도를 일반 2천만원, 청년 2천 5백만원에서 일괄 5천만원으로 증액 지원
- 특례보증은 5억원에서 20억원 증액된 25억원을 예산편성. 민간기업 상생협약 출연금과 합해 총 280억원의 자금을 마련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 특례보증의 이자를 4년(1년거치, 3년 균등상환)간 일반 2%, 청년 2.5%를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협약식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영난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대폭 확대 필요성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로 매출이 감소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파주시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조속한 피해회복과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400% 확대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파주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운전자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증액하고 특례보증 예산을 400% 확대된 25억원을 편성. 민간기업 상생협약 출연금 3억원을 합해 총 280억원의 대출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금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취한 특단의 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7개 시중은행과 협약하여 특례보증의 이자를 4년간(1년거치, 3년 균등상환) 일반 2%, 청년 2.5%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상생협약 통해 소상공인 재기 기반 마련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상생협약을 통해 30억의 대출자금을 마련하는 등 총 28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다.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김종현(940-4523)

12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추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설립)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설립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현장밀착형 지역센터 설립 ('21. 1. 4. 개소 예정)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설립

2020. 12. 1.

파주시-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파주시 설립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수도일보 2020년 12월 03일 목요일 009면 경기

파주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설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파주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가 내년 1월 4일 설립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북서센터는 파주시 운정 법조타운 5층에 약 135평 규모로 관할지역은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지역이다.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 성장지원, 지역화폐의 지속적 확대 발행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북서센터 파주시 설립에 따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해 별도의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북서센터의 파주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파주시는 북서센터 사용 건물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서센터의 파주시 설립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서센터가 소상공인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센터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가 2021년 1월 4일 파주시에 설립될 예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원으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설립되는 북서센터는 파주시 운정 법조타운 5층에 약 135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관할지역은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지역이며, 골목상권 경

제공동체 육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 성장지원, 지역화폐의 지속적 확대 발생 등 각종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설립을 위해 파주시는 2020년 12월 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장밀착형 지역센터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현장밀착형 지역센터인 북서센터 설립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경영안정화 지원 등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전례없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김성은(940-4521)

13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및 지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장별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

2020. 4월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40억)' 공모 선정

2020. 5월
'문산자유시장 상권활성화 사업(8억)' 공모 선정

'적성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8.8억원)' 선정

'광탄전통시장 경매장터 특화' 자리매김



적성전통시장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제침체 및 상권 쇠퇴 급속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휴업인 사업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휴·폐업에 따른 빈점포 발생으로 상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급변하게 되었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침체와 쇠퇴현상을 극복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장별 특성화 사업 추진

1)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 공모 선정

금촌전통, 문화로, 명동로의 3개 시장이 통합된 금촌통일시장은 2020년 4월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환경개선 및 활성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구역경계도


경관조명(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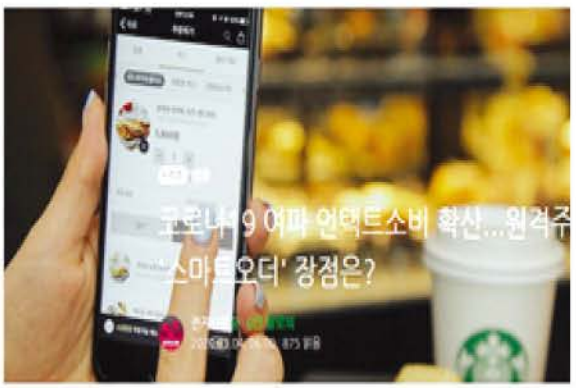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0억원이 투입되어 추진 되고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바닥정비 및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추억의 먹자길, 청춘 먹자길 등 특화골목길을 조성 할 예정이며, 경관조명 및 노천고객쉼터 등을 조성하여 고객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관광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MI 및 BI 개발 등 금촌통일시장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차 없는 거리, 문화공연, 체험사업 등 문화거리 운영과 더불어 시티투어 연계, 시장 특화상품(모랑떡, 모랑주 등) 개발, 스마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활성화사업에도 적극 투자하여 고객 유입을 통한 상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역경계도


디지털오더

2) '문산자유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문산자유시장은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8억원에 연내 사업을 완료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외부방문객 및 지역 이용객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방치된 빈점포를 활용하여 화장실로 리모델링하여 고객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를 도입하여 상품홍보 및 상품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한 새로운 온라인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3) '적성전통시장 2020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

적성전통시장은 지난 2017~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복합문화공간 조성, 한우마을 명칭통일, 레시피 개발 등 한우특화시장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2019년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2개년에 걸쳐 적성전통시장의 기 인프라와 특화된 관광요소를 최대한 살린 관광형 상품 개발과 재방문을 유도하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개발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조명을 이용한 특색 있는 거리 조성, 가을축제 및 버스킹 등 문화공연, 주변 관광지를 시장과 연계하는 힐링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이 즐거운 특성화시장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버스킹 등 문화공연

4) '광탄전통시장, 경매장터특화' 자리매김

광탄전통시장은 2016년도부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경매장터'로 특화하고자 경매무대, 음향시설, 경매참여 보드판 등 경매진행에 필요한 시



경매진행



문화공연

설과 장비를 마련하였다. 경매장터에서는 지역 기업에서 만든 공산품과 특산품, 개인의 소장품을 위탁받아 경매를 진행함으로써, 참여자가 원하는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받는 재미와 물건에 담긴 사연까지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8년에는 43회를 진행해 1,725품목 2,045종을 낙찰, 2019년에는 33회를 진행해 1,480품목 1,766종을 낙찰하는 등 총107회를 진행해 4,399품목 5,925종을 낙찰하였으며, 8,000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다양한 공연 및 야시장을 함께 운영하여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하였다. 향후에는 경매장터 이외에도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정과 흥에 관광 재미까지…

시장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상인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러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력과 함께 전통시장의 옛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하며,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시장상권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박광해(940-8467)

14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

빵을 팔기 위한 고용이 아닌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836백만원

인증사회적기업 2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6개소, 마을기업 9개소 협동조합 142개소 육성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5개 과정 운영, 총 304명 수료생 배출

(도내 최다 선정의 쾌거) 경기도 창업 오디션 참가 5개팀 선정, 각 7백만원 창업자금 확보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제도평가 최우수

이제는 사회적경제가 대세

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일자리창출,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함과 동시에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사업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의미있는 기업의 형태이며, 최근 심각한 일자리 문제도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파주시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복지서비스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파주시 사회적경제는 2011년 관련 조례제정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을 필두로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2020년 6월 기준으로 인증사회적기업 2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6개소를 발굴·육성하였고, 당초 사회적기업 위주로 초점이 맞춰졌던 전반적인 정

책방향 또한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아우르는 사회적경제로 확대됨에 따라 마을기업 9개소, 협동조합 142개소를 발굴·육성하여 경기도 최상위권의 양적성장을 거두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여타 대기업 및 일반기업에 비해 기업경영의 전문성 및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영 컨설팅과 법률 자문, 판로개척 등의 지속적인 지원 육성 정책 추진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파주시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총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소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188	37	21	16	142	124	18	9

파주시는 재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양질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하여 인건비 지원사업인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총 75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출향상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총 78백만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11% 증가된 총 925명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고 총 고용인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전년대비 9% 증가하였다.

취약계층 고용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계	인증	예비	계	인증	예비
취약계층 고용인원	815	764명	51명	925	859명	66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56.63%	68.96%		71%	71.5%

경기도 창업오디션 도내 최다 지원금 확보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분야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 농업인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기본개념부터 실무 창업과정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30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특히,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한 수료생들이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창업오디션에 출전하여 도내 최다인 5개 팀이 선정, 각각 7백만원의 창업자금을 확보하기도 하였으며, 파

주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공간을 제공하여 활발히 창업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파주시에서 배출된 수료생들이 더 많은 일자리창출과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회적경제기업가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신문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009면 지역

파주시, 사회적경제제도 도내 최우수상 수상

내달 고용부 전국평가 도대표 출전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지자체 사회적경제 제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사회적경제 분야 도내 최고 도시임을 입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기반 정비, 지원수준, 정책성과, 거버넌스 수준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적평가로 이뤄졌다.

그간 파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성장에 치중하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내실화와 사회적가치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지난해 SK사회공헌위원회와 '파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는 전국 최초로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도 담당 부서와 파주시 사회적경제 희망센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교육 및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 농업법인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등의 교육과정을 추진해 2012년부터 총 42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파주시는 이번 수상으로 12월 예정된 고용노동부 주관 제3회 전국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사회적경제 분야는 취약계층 일자리의 사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주=최연석기자 cys@

정책성과 보고회

사회적경제 분야 도내 최고도시, 파주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지자체 사회적경제 제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사회적경제 분야 도내 최고 도시임을 입증하였다. 그간 양적성장에 치중하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내실화를 다지고 책임성을 강조한데 따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가 더욱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주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찾아나가고 시민들의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사업모델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교육



사회적경제 창업공간 지원

부서명 도시재생과 | 담당자 이한용(940-5071)

15 기업애로 해소

기업애로 해결,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18년
엘지디스플레이, 파주 전기초자, ㈜넵스 현장 방문

2019년
㈜씨엘블루 외 7개 업체 현장방문

2020년
㈜삼영텍스텍 외 4개 업체 현장방문

찾아가는 공장밀집지역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총 178건 기업애로 처리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기업하기 좋은 파주 구현을 위한 기업애로 해소에 집중

파주시는 4,500여개의 기업, 20개의 산업단지(준공14개, 조성중 6개)가 있다.
파주시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지속된 내수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는 매년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하는 성장하는 도시이다.
기업 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애로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으로 기업애로 해결 노력

단체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단체장과 함께하는 기업애로 현장방문'을 시행하여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18년 8월 지역 대표 기업인 엘지디스플레이 방문을 시작으로 파주시와 대기업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 기업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당동산업단지 소재 첨단 디스플레이 생산 기업인 파주전기초자(PEG)를 방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과 상생 행보를 이어간데 이어 월롱면 소재 ㈜넵스 파주공장을 방문해 투자와 고용창출에 대한 애로사항 및 실질적 행정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워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지원 방안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적극 대처하였다.

2019년에도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기업 현장 방문에 나섰다.
전기초자코리아(EGKorea)와 사회공헌 활동 등 파주시와 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파주시 대표적 경제인 단체인 파주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발굴 및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한 건의사항을 검토하였다. ㈜씨엘블루, ㈜중원냉열, ㈜동해식품 등 관내 업체를 연속 방문하여 기업인 및 근로자와 생생한 소통으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처리하였다.
또한, 탄현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상하수도, 가로등 등 기반시설 인수를 추진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관내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군부대, 자원봉사자를 지원하였다.
추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례보증의 대상과 한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을 위해 시장개척단을 화상상담 방식 도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악화된 지역 경제 극복을 위해 한울생약(주), ㈜디포그, ㈜멕아이씨에스를 방문하여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6월 2차례에 걸쳐 남·북부권 찾아가는 산업단지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기업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단체장과 함께하는 기업애로 현장방문 추진 실적

일 시	업체명	소재지
2018.08.28	엘지디스플레이	월롱면
2018.09.04	파주전기초자(PEG)	문산읍
2018.10.18	㈜넵스	월롱면
2019.02.13	전기초자코리아(EGKorea)	문산읍
2019.04.24	파주상공회의소	파주시
2019.06.10	㈜씨엘블루	월롱면

일 시	업체명	소재지
2019.06.10	㈜중원냉열	광탄면
2019.06.24	㈜동해식품	법원읍
2019.06.24	마늘식품	법원읍
2019.06.24	㈜유니하이테크	문산읍
2019.08.28	탄현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탄현면
2019.12.12	용미공단기업인협의회	광탄면
2020.02.25	㈜삼영텍스텍	조리읍
2020.03.09	아텍스	광탄면
2020.06.09	선유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문산읍
2020.06.11	문발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문발동
2020.07.10	한울생약(주)	탄현면
2020.07.16	㈜디포그	문산읍
2020.07.16	㈜맥아이씨에스	상지석동



최종환 파주시장, 전기초자 코리아 방문 '기업 상생행보'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 노력하겠다"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전기초자(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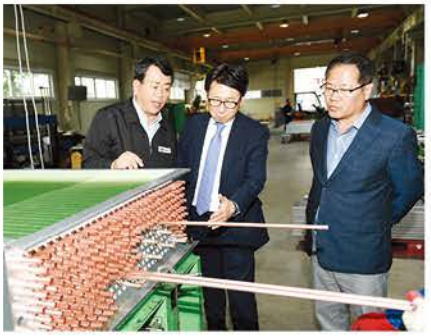
㈜넵스



전기초자코리아



㈜씨엘블루



㈜중원냉열



마늘식품



한울생약(주)



㈜디포그



㈜멕아이씨에스



산업단지 간담회(북부권)



산업단지 간담회(남부권)

찾아가는 공장밀집지역 이동민원실 처리 (2018~2020)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와 기업애로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공장밀집지역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178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처리하였다.

기업애로 접수사항으로는 주변 인프라, 노동·작업환경 개선 관련이 다수이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원스톱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사 등 인프라 개선과 기숙사, LED 조명 등 작업환경 개선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계	공장설립	주변 인프라	창업 벤처	자금 지원	판로 수출	기술 인증	인력 교육	기타
197	6	113	4	11	12	2	9	40

다양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파주

파주시는 단체장과 함께하는 기업애로 현장방문, 찾아가는 공장밀집지역 이동민원실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앞으로도 자금, 환경개선, 마케팅, 기술 지원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 사업 실시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부서명 기업지원과 | 담당자 김효선(940-4531)

16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수립

2019. 5.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착수

2020. 5.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완료

2022년까지 지역특성에 맞는 공영주차장 7개소 신규 조성, 주차 1,596면 확충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주차정책

파주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탄경매시장 공영주차장 36면과,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136면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였고, 앵골과선교 하부에 공영주차장 35면과 산내마을 및 운정호수공원, 금촌역, 심학산 등 주차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 임시공영주차장 598면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에도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에 따른 등록차량 증가 등 주차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파주시는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립 및 체계적인 주차 정책의 수립을 위해 2019년 5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착수하였다.

조사구역 총 168개 블록을 설정하고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주차수급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실시한 결과 주차수급률(주차공급 대비 주차수요)은 평균적으

로 주간 153.2%, 야간 170.5%로 조사되어 총량적으로 주차공간의 여유는 있으나, 일부 블록은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공급 부족 및 부설주차장 이용률 저조, 주차요금 저항 등에 따른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파주시는 중장기 계획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22개소 주차 2,698면, 노상주차장 29개소 1,380면 총 4,078면의 공공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수립 및 추진

2022년까지 공영주차장 7개소, 사업비 579억원 투자, 주차 1,596면 확충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공영주차장 207면 조성	임시공영주차장 598면 조성
• 광탄경매시장 공영 36면 ('18.7.) • 금촌통일시장 공영 136면('18.12.) • 앵골과선교 하부 공영 35면('20.8.)	• 산내마을2 임시공영 215면 ('18.10.) • 금촌역 선로하부 임시공영 56면 ('19.5.) • 운정호수공원 임시공영 186면 ('19.12.) • 심학산 배수지 입구 임시공영 97면 ('20.5.) • 문발초교 임시공영 44면 ('20.5.)

파주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2022년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장 직접적이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7개소, 579억원을 투자하여 총 1,596면의 주차공간을 확충 할 계획이다.

우선 경의선 이용객과 야당역 주변 상가 이용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당역 환승주차장을 건물식 5층6단, 주차 305면 규모로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1년 8월 준공 할 계획이다.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계획



도민일보

2020년 06월 26일 금요일 010면 경기

파주시, 주차난 해소 중장기 주차정책 마련 추진

5월말기준등록차량 21만대돌파
최근4년간 연평균 3.86% 증가 추세

파주시는 주차장 수급상태 조사 용역을 내주년까지 추진한 최소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2005년 5월 말 기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21만 1대를 넘어섰으며 지난 4년간 연평균 3.86%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주차난은 인구증가율 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용역에서 파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구역 총 102개 읍·면·동을 설정하고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 현황조사, 주차수급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실시한 결과 주차수급률 대비 파주시 주차수급률은 현재보다 151.2%, 이만큼은 170.5%로 조사됐다. 현재적으로 주차공간이 여유는 있으나 일부 분석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부족하고 부산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했으며 주차요금 지정에 따른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우선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인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주차 1,061면과 설계중인 노외주차장 3곳 총 239면 노외주차장 외 2곳(소규모) 200면, 노상주차장 29면(소규모) 1,360면 총 4,089면의 공공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최종관 파주시장은 "우선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인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에 주력하고 자투리 주차장 조성 및 위사동 영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운정3지구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 입주 시기에 맞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신도시 주차난을 대비해 선제적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기자 김진기 jkim@]

경인일보

2020년 06월 29일 월요일 009면 사회

파주 운정신도시 야당역 '환승주차장' 만든다

<30억대 수용규모>

7개 사업에 노상·노외 포함 4078면
市 '주차난 개선 중장기정책' 추진





파주 운정신도시 야당역 환승주차장(위)과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조감도.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을 해기해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21만 1대를 넘어섰고, 지난 4년간 연평균 3.86%의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증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파주시 전체를 102개 구역으로 나눠 노상·노외·부설주차장 현황조사, 주차수급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이달 중순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 주차장 공급 대비 주차 수요율은 추산 결과 151.2%, 이만 범위 170.5%로 나타나 충분하다고 주차공간에 여유는 있으나 일부 구역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부족하고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했으며, 또 주차요금 지정에 따른 불법주차가 상당히 증가하였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돼 현재 추진 중인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주차 1,061면과 건설중인 노외주차장 3곳 총 239면 노외주차장 외 2곳(소규모) 200면, 노상주차장 29면(소규모) 1,360면 등 총 4,089면의 공공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사진기자 김진기 jkim@]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지하2층, 주차 235면)은 11월 공사 착공하고, 2021년 11월 준공하여 가람마을 4단지 상가 및 밀집주거지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찾는 배회교통량 및 불법주차 감소 등 교통체증 완화가 기대된다.

그 외 와동동, 금촌동, 월롱면, 조리읍 지역에 총 5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설계용역이 이미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주차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불편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또한 도심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자투리 주차장 조성,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정보제공 서비스 도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정 3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신도시 주차난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 등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차불편 없는 안전 도시를 조성해갈 계획이다.

부서명 도시경관과 | 담당자 김길모(940-4784)

17 포스트코로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시민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정책 추진

시민경제 회생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선제적 추진
- (모두를 위한) 파주형긴급생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19 긴급복지제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경기 극저신용 대출지원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 운전자금, 소상공인 긴급대출,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 (근로자를 위한) 취약노동자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 (아동양육 가구를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 (기타)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아동양육 한시 지원, 농업소득사업 융자지원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다양한 할인·감면대책 시행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현장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파주시는 민생 경제 안정과 함께 경제 활력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경제 비상시국 이라는 인식하에 선제적 방역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업종, 분야별 지원대책이 추진되었다. 크게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파주형긴급생활지원금 및 경기도·정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고용충격 방지와 근로자를 위한 정책, ▲ 기타 지역사회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 및 할인·감면 혜택 등 지역경제 실핏줄을 살리기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전시민을 위한 지원 정책

1)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교부기간 : 2020년 4월 27일 ~2020년 7월 31일 * 사용 유효기간 : ~2020년 8월 31일 까지

• 교부장소 : 읍면동 및 별도 이동 창구(아파트, 마을회관 등)

• 교부대상 : (당초) 2020년 3월 31일 24시 이전부터 수령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국인

(확대) ❶ 2020년 5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파주시에 외국인 등록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❷ 2020년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민이면서 관외 전입자 중 전출지에서 시군 자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자

• 내 용 : 1인당 선불카드 10만원 지급

• 교부현황 :

교부기간	대상자 (3.31 기준)	지급 현황	사용금액	비율(%)
4월 27일~7월 31일	454,494명	439억원	435억원	96.8

* 관외 전입자 지급(7월 1일~7월 31일) : 109명

발급절차 간소화, 이동식 창구 운영 등을 통한 신속한 교부로 파주시 전 시민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시민들의 높은 호응 이끌어내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 진작과 활력 회복을 위하여 「파주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2020년 4월 6일 제정함으로써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3월 31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파주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카드를 만드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빠른 교부를 위해 파주시 모든 시민을 대신해 선불카드를 일괄 신청하고, 집중교부 기간(4월 27일 ~ 5월 3일)동안 교하·운정을 중심으로 아파트 및 공터 등 이동 창구 52개소를 포함 총 113개 창구를 운영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교부를 위해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민행정 전문 통계조사요원을 투입한 전담 콜센터를 개설하는 등 시민을 배려한 선제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 긴급생활지원금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은 7월 31일 기준 439억원이 지급되고 이중 435억원이 사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사용기간과 사용가능 지역이 명시된 선불형 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경제순환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었다.

확실히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함께 시중에 돈이 풀리고 시민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자 "이제 좀 살만해 진거 같다"고 말한 상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시민들의 의식도 빛났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곧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모두 함께 겪는 위기를 시민 모두의 힘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염원으로 함께 노력하였다.

2)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 대　　상 : 전 경기도민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 (1회 정액지급)
- 신청기간 : 2020년 4월 20일 ~ 7월 31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본·지점, 파주연천축협 본·지점, 김포파주인삼조합 지점 방문 신청 및 수령
- 교부현황 : 441,185명, 441억원 지급 (교부율 97.2%)



단 한명의 시민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밀착 홍보, 전 공무원이 휴일도 반납한 채 카드발급 업무에 매진

파주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최대한 접수율을 높이는 것이 향후 오프라인 창구의 혼잡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온라인 접수 홍보에 노력하였다.

파주시민 전체 세대에 신청안내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 257개를 게첨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1,107대의 광고를 통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긴급재난문자 발송,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밀착 홍보에 매진하였다. 이에 4월 9일부터 4월 30일간 진행된 온라인 신청기간 중 기준인원 454,059명 중 219,418명이 신청하여 49.7%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였다.

4월 20일부터 진행된 오프라인 접수 기간 중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 뿐만 아니라 인구밀집지역인 운정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솔, 한울, 한빛 도서관에 별도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5월 17일까지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접수창구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7월 21일 기준 기준인원 대비 97.2% 441,185명이 신청하여 441억원 이상이 지역 골목 상권에 사용되었다.

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대　　상 : 전 국민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1인가구 34만8천원, 2인가구 52만3천원, 3인가구 69만 7천원, 4인가구 이상 87만 1천원)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8일 ~ 8월 24일
-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충전(온라인, 오프라인) / 파주페이(온라인) / 선불카드(오프라인)
- 교부현황 : 8월 24일 기준 988억원 지급 교부율 96.9%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이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가구 348천원 ▷2인가구 523천원 ▷3인가구 697천원 ▷4인가구 871천원이며, 신용·체크카드, 파주페이, 선불카드의 형태로 2020년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하였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경우 마을 이·통장이나 전담 공무원에 요청 시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월 18일 부터 8월 24일까지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9월말 현재 988억원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간급 재난 지원금 지급 현장

위기계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추진

1) 코로나19 긴급복지제도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계층에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에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긴급지원을 시행하였다. 이에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무급휴직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위기에 처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기준 월 123만원의 긴급지원 생계비를 지급하였다.

확대 운영되는 위기사유와 기준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신문보도,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신청 안내를 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신청접수하여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결과 7월 말 현재 2,608건, 2,108백만원을 지원하여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위기가 해소되도록 추진하였다.

2)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파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을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3월말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1만1949가구이며, 이들 가구에게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분으로 △1인 가구 40만~52만원 △2인 가구 68만~88만원 △3인 가구 88만~114만원 △4인 가구 108만~140만원 등이 파주페이로 지원되었다.

4월 23일 지원 대상 가구에 안내문 발송 및 뉴스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일정을 홍보하였으며 4월 2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을 시작하였다. 현장접수 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였으며,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공휴일 및 휴일에도 근무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금이 배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2월 현재, 지원대상가구 1만1949가구(100%)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3)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파주시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의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한 경우와 구직급여 종료자 중 미취업하여 생계유지의 곤란을 겪는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한시적으로 1회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온라인 신청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였으며, 현장방문 신청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2차례 접수기간 연장을 하여 11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신청안내 및 접수를 받아 신청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파주시는 위기사유는 있으나 선정기준 일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위기가구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1,167가구에 811,400천원을 지원하였다.

4) 경기 극저신용 대출 지원

- 대　　상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 지원내용 : (긴급대출) 50만원, 무심사 대출
  (일반대출) 300만원, 재무상담·심사 후 대출
- 신청기간 : (1차) 2020년 4월 10일 ~ 4월 17일 (2차) 7월 15일~ 7월 24일
- 신청방법 : 경기복지플랫폼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만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무심사 긴급대출 50만원, 일반대출 300만원의 대출지원을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였다.

차수	대출명	대출금액(원)	신청인원(명)	대출인원(명)	대출총액(원)	비고
1차	긴급대출	50만원	1,557	1,282	641,000,000	접수 기간 4/7~4/17
	일반대출(전환대출)	50만원	300	217	108,500,000	
	일반대출	300만원		41	123,000,000	
	소계		1,857	1,540	872,500,000	
2차	무심사대출	50만원	496	496	248,000,000	접수기간 7/15~7/24
	심사대출(전환대출)	50만원	238	115	57,500,000	
	심사대출	100만원 ~ 300만원		120	238,000,000	차등대출
	불법사금융 피해대출	300만원	1	1	3,000,000	
	소계		735	732	546,500,000	
전체 합계			2,592	2,272	1,419,000,000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

1)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차료

및 인건비 지급 등 당면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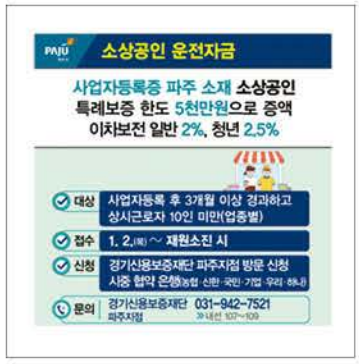


지원대상은 2019년 연간 매출액 총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10분의 1 이상 감소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파주시민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이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으로서 한 업소당 1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긴급 지원을 통해 9월말 현재까지 4,806명의 소상공인에게 4,806백만원이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2) 소상공인 새희망 지원금 지급

코로나19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였다.
추석 전 신속지급을 원칙에 따라 2020년 9월 24일 접수를 시작하고 2~3일 뒤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말부터는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대상자들이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확인지급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하여, 2019년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별피해업종은 노래연습장과 단락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 수도권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 자료를 취합·적용하다 보니 신속지급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각 부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과 사업자

번호를 일일이 조사하고 취합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지급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접수를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현장방문 접수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새희망자금 단기 인력을 채용하였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온라인 신청을 도와주고, 현장방문자의 서류신청을 접수받고 입력하여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11월 30일까지의 이의신청기간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파주시는 정부와 시민을 연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도왔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지원



1)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이차보전과 특례보증 지원

파주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이자 중 2% 보전하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기업체에 특례보증서(기업체당 3억원 이내)를 발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였다.



2)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영세사업자 인건비 지원)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건비 지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에

게 10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10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4만원 추가 지원) 하였다.

농어업인 지원

농어업소득사업 저금리 융자지원

관내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하여 최대 5천만원(농업법인은 1억원)을 연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였다.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아동수가 감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동감소 1인당 15~30만원을 정원별 차등지급 하였다.



근로자 지원

1) 취약 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해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한 취약노동자(단시간 근로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고용, 요양보호사 등)에게 1인당 1회 23만원을 파주페이로 지급 하였다.

2) 코로나19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으로 필요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였다.

3)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에 1인 월 5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추진

1) 제1차 아동돌봄쿠폰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위생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아동돌봄쿠폰 홍보 포스터

'아동돌봄쿠폰'은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경기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했고 사용기간은 2021년 3월 말까지로 제한하였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조기 회복과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상자 28,625명에 대한 사업비 11,450백만원을 긴급히 편성하였다.

시는 지원대상자의 97%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와 같은 정부



아동특별돌봄 · 비대면 학습 지원 포스터

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40만원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비대면 방식을 택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보호자가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2) 제2차 아동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아동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은 2020년 4월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시는 9월 22일 정부의 제4차 추경이 결정됨에 따라 총 55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미취학아동 27,294명에게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 별도 신청없이 기존의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20만원을 자동 입급했으며, 가정에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입금 전·후로 안내문자를 보내 지급사항과 문의처 등을 안내하였다.

한편, 재학 중인 아동은 아동 1인당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했고,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재학중이거나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상 연령('05년생~'13년생)의 아동은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별도로 지급하였다.

시는 지원대상자의 97%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와 같은 정부 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40만원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비대면 방식을 택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보호자가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감면 및 할인대책 추진

파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지쳐가는 시민의 삶과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추진된 각종 감면 및 할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시행

- 대 상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업, 음식업,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종사자 대상(사치성 유흥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내 용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 실시
  - 차량관련 과태료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유예(고액·고질 체납자를 제외)
  -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1년 내의 범위에서 공매 유예

2)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 대 상 :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등을 제외한 주정차 단속 구간
- 내 용
  - (매일) 17:30~익일 09시까지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
  -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실시
  - 기 간 : 2020년 3월 27일 ~코로나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3)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운영

- 대 상 : 파주시 관내 공영주차장 10개소

• 내 용 : 해당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운영
  – 대 상 : 금촌2(철탑), 금촌3(금릉 롯데마트 옆), 금촌2-8(세무서 맞은편), 금촌2-17(보훈회관 옆), 금촌역 선로하부, 금촌통일시장, 운정역 환승주차장, 문산1(시장 안), 문산자유시장, 광탄경매시장
  – 기 간 : 2020년 4월 1일~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해제시까지

4) 농기계 임대료 인하사업 재추진

• 대 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 내 용 :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농기계 전기종에 대하여 임대료 50%를 인하
  – 파주시는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인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인하 관련 법령 부재로 일시 중단
  – 파주시는 상위부서에 관련규정 개정을 요청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인 근거 지침 마련
  – 기 간 : 2020년 4월 1일~12월 31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연말까지 감면기간 연장)

5) 파주페이 특별 할인기간 연장

• 대 상 : 파주페이를 이용하는 파주시민
• 내 용 : 특별할인(10%) 운영기간을 기존 3월말 → 12월 말까지 연장
• 기 간 : 2020년 12월 말까지

6)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요금 50% 감면

• 대 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감면(일반용, 대중목욕탕용 사용 소상공인 누구나)
• 내 용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3개월간 상수도 요금 한시적 감면(50%) 시행
• 기 간 : 2020년 4월부터 3개월간

7) 착한 임대인 대상 세정지원 혜택

• 대 상 :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
• 내 용 : 2020년 2월 19일~12월 31일 기간 중 착한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인하기간에 따른 재산세(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감면혜택

– 인하기간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 30%이상일 때 : 재산세 100% 감면
– 인하기간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 30%이상일 때 : 재산세 50% 감면
– 인하기간 3개월 미만이고 인하율 30%미만일 때 : 재산세 25% 감면

• 기 간 : 2020년 2월 19일~12월 31일 (1년 한시적운영)

8)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 대 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내 용
– 공유재산 사용요율 한시적(2020년 상반기분) 인하
– 현행 5% → 최대 1%까지 할인(최대 80%)
• 기간 : 2020년 1월 20일 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및 상급기관 지침 하달시까지

9)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 연장

• 대 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유차 소유자)
• 내 용
– 2019년 하반기(7~12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
– 고지서 별도의 재발행 없이 납부기한이 3월 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6월 30일까지 납부 시 가산금 을 부과하지 않음
• 기 간 : 2020년 6월 30일 까지

4
생태문화도시 파주

생태문화도시
파주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파주만이 가진 고유의 색과 정체성에 대해 거듭 고민해왔습니다.
파주가 찾은 해답은 '생태', '역사' 그리고 '문화'에 있습니다.

파주는 곳곳에 유구한 역사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유적, 그리고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의 모습은
파주만이 지닌 훌륭한 자산입니다.

파주는 역사와 문화, 생태적 자산에
평화의 숨결을 더하여 수준 높은 생태문화도시로 나아갑니다.

1. 파주학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파주의 정체성 찾기
2.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추진
3. 지역 고유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4.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복원 추진
5. 혜음원지 관광자원화
6. 문화역사 관광벨트 조성
7. 마장호수 주차장 개선
8. 출판문화 자원 연계 문화협력 사업 추진
9. 헤이리 無장애 노을숲길 조성
10.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11. 공공도서관 확충
12. 중앙도서관「휴먼 IN PAJU」운영
13. 교하도서관「마을, 그리고 도서관」운영
14.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공릉천 친수공간 조성
15.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사업 추진
16.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1 파주학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파주의 정체성 찾기

파주학 원년 선포, 파주학 연구 기틀 본격 마련

파주학의 개념과 연구방향 정립, 지속적·체계적 연구를 위한 토대 마련

2020. 9.
'조선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임원경제지' 학술대회 개최

2020. 11.
교육프로그램 '임원경제지 학교' 운영

2020. 12.
제1회 파주학 포럼 '파주학 연구방향 및 발전방안 탐색' 개최



파주학 연구방향 및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2020. 06. 15.)

파주의 역사문화적 뿌리찾기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파주학 연구 본격 추진, 2020년 파주학 원년 선포

2020년 파주학 원년 선포, 파주학 연구 기틀 본격 마련

파주는 구봉 송익필, 우계 성혼, 율곡 이이 등을 배출한 파산학의 산실이자 기호학파의 종가이며 실학의 발상지이다. 지리·문화·군사적 요충지로서 늘 역사의 중심에 있었으며, 다양성과 개방성, 유연성과 국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접경지라는 지리적 여건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찬란했던 파주의 역사와 문화는 분단의 그림자에 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가 팽창됨에 따라 유입되는 수많은 이주민은 파주의 역사와 문화,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지역민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할 기회가 적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주 지역의 시·공간을 망라하여 연구하는 융합학문 '파주학'을 통해 유구한 역사문화적 뿌리를 찾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여 파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풍부한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져 보존방향을 수립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조명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나갈 필요성도 커졌다.

파주시는 그간 지역학에 대한 열망을 담아 2020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파주학 원년을 선포하고 파주학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틀 마련에 착수하였다.

파주학 연구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체계적 연구체계 확립, 파주학 진흥을 위한 다양한 학술행사 개최 추진

지역민의 정체성 및 문화적 특징을 정립할 지역학 진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학 연구를 시작으로 경기학, 수원학, 강원학, 춘천학 등 지역학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파주학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른 지역에서 선행된 지역학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 추진현황 및 연계사업,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여 파주시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경기학, 수원학, 춘천학, 세종학 등 여러 지역학 담당자들과 협의를 시도하였고 이는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파주학'의 탄생에 반가움을 표하며 응원해주었다.

2020 파주학 원년에 추진되는 사업은 파주학 연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파주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다양한 학술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6월 15일 탄현면 소재 문화재청 전통건축부재보전센터에서 열린 「파주학 연구방향 및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 회를 시작으로 파주학의 개념과 연구방향을 정립하고, 지속적 · 체계적 연구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파주학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12월 제1회 파주학 포럼 '파주학 연구방향 및 발전방안 탐색'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파주학 연구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파주학 연구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또한, 지역학의 큰 축을 형성하는 지역 인물 연구 및 홍보를 위해 장단 출신 대학자 서유구 선생과 저서 『임원경제지』를 재조명하고자 9월 '조선 최대의 백과사전 임원경제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1월 시민을 대상으로 '임원경제지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파주의 실학사상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게 되었다.

파주학 진흥으로 지역 가치 발견 및 재창조… 시민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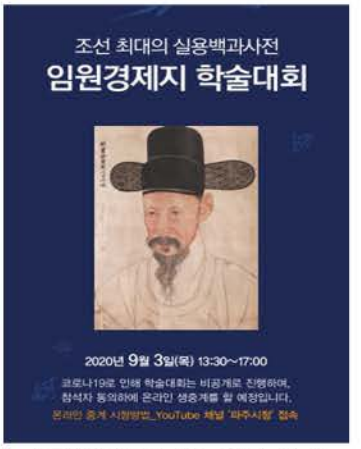
파주학은 파주만의 특이성과 고유성을 찾고 이를 재정립함으로써 파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해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주의 역사 · 인물 · 문화 · 사회 · 예술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파주학을 정립함으로써 파주의 인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학 연구사업의 성과는 전통에 기반을 둔 현대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 창출로 이어져 파주의 매력과 가치를 담아내는 지역브랜드를 창조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임원경제지 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1회 파주학 포럼 '파주학 연구방향 및 발전방안 탐색' 개최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임원경제지' 학술대회 개최

부서명 문화예술과 | 담당자 김아름(940-5831)

2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추진

문화의 달 행사로 파주의 문화예술 깊이를 한 단계 올리다

2019. 4.
문체부 주관 2020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 공모 선정

2020. 5.
'2020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및 본격 추진

2020. 6.
문화의 달 행사 사무국 구성 및 행사 기본계획수립

2020. 9.
전면 비대면 행사 전환 결정 및 세부계획수립

2020. 10. 16.~10. 18.
공연영상 및 기획영상 공개 기념식, 전달식 영상 실시간 송출



2020 문화의 달 파주

파주만의 다양한 문화예술자원, 2020 문화의 달 행사로 꽃피우다

파주에는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존재한다. 평화통일염원의 상징적 공간인 임진각을 비롯하여, 전통문화의 중심인 대선현 율곡이이 선생의 정신이 깃든 화석정, 자운 서원, 그리고 예술인들의 집합체인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문화의 핵심이 되는 파주 출판도시 등 역사문화예술을 아우르는 파주만의 특수한 문화환경이 있다.

그동안 파주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해왔는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 전역에 파주 문화예술자원을 알리고 그를 통해 지역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없을까 하는 고심이 늘 상존해있었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유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공동주최하는 '문화의 달 행사'는 1972년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제고를 위해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주 토요일)을 지정하고, 2003년부터 지역 문화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다. 2020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가 된 파주시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적었던 경기북부 지역에도 문화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0 문화의 달 파주 ONline STREET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된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2020년 10월 16일 부터 3일간 문화의 달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시민들과 만났다.

꽉 막힌 공연장을 벗어나 임진각, 자운서원 등 9곳의 파주문화명소가 행사의 무대가 되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갑작스럽게 결정된 비대면 행사이었기에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촬영과 편집 일정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지역예술 및 국내거리예술 16팀은 수백 번의 촬영에도 지친기색 없이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질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힘겨운 편집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완성도 있는 16개의 공연영상을 담아내었다.

기획영상으로 제작된 〈오늘, 파주 DMZ〉, 〈윤도현과 떠나는 파주여행〉을 통해 문화적, 역사적,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파주를 소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생방송으로 실시간 시민들과 소통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문화의 달 파주 아트쇼에서는 이광기 행사추진위원장의 진행으로 최종환 파주시장, 김달수 경기도 의원,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출연하여 코로나19시대에 바라보는 파주 문화예술을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펼쳐졌고, 이진명 간송 미술관 큐레이터, 김상윤 내용연구소 대표의 문화강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의 가치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그림전 〈평화로 가는 달팽이〉, 소망 메시지 이벤트 〈소망의 빛〉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운정호수공원 및 문산천변에 전시된 야외조각전, 소망등, 달 조형물은 문화의 달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파주에 뜬 문화의 달, 문화예술의 깊이를 한 단계 올리다

1972년 문화의 달 행사가 생긴 이래 최초로 비대면으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파주가 가진 우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국가단위 행사에서 홍보함으로서 파주 문화예술의 깊이를 한 단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행사기간 3일 동안 공개된 총 54개의 공연영상, 기획영상, 홍보 및 응원영상은 조회수 35,364회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총 7번 진행된 SNS이벤트에는 참여자가

천 명이 넘었다. 홈페이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조회수도 297,126회를 기록하는 등 기대이상의 호응을 이끌어 내면서 온라인 행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했다.

이를 계기로 파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행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0 문화의 달 공식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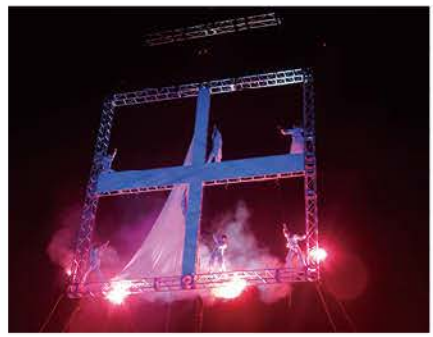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파주


생방송 파주아트쇼


소망의 빛 · 문화를 품은 달


대한이 살았다/합창극


평화의 빛/공중퍼포먼스

부서명 문화예술과 | 담당자 이지훈(940-4353)

3 지역 고유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특색 있는 지역과 마을 문화공동체 사업 운영

지역과 마을의 고유하고 특화된 지역문화콘텐츠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문화아카데미 7개 공동체, 총 지역 주민 1,067명 참여
- 주민 손으로 일군 문화의 숲 및 마을갤러리 조성
-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및 마을 아카이브 발간



벽화 갤러리

지역 및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특색 있는 지역문화콘텐츠로 발굴

마을문화 운영사업은 지역과 마을 주민들이 생활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 활동을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일상 문화 활동이 자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한 일상의 문화적 활동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일상적 문화를 나누고 소통해 나감으로서, 각 지역과 마을의 고유하고 특화된 지역문화콘텐츠를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문화공동체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여나가고자 한다.



마을놀이터 – 전통놀이



마을콘서트 – 우리동네 콘서트

일상의 문화적 활동을 통한 소통 및 지역과 마을의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조성

마을단위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주민 스스로 문화적 삶을 실현하고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이 문화공동체를 조직하여 사업을 추진·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마을 문화공동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마을 유휴지 및 담벽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그리고 꽃길과 꽃밭을 조성하여 마을콘텐츠를 제작하고, 잊혀져 가는 전래놀이 활성화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놀이문화를 전수하고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교육공동체 확립을 하는 '마을 문화놀이터' 사업 등을 통해 문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문화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업사이클링 및 프로그램인 '에코 문화 아카데미', 전통의 다도와 다양한 차문화를 체험하는 '차 문화 아카데미', 가장 가까운 공연장인 마을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생활 밀착형 예술체험 '우리동네 작은 음악회' 등 마을별 아카데미에 총 1,067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화 및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역과 마을에서 역사, 지리, 민속, 생활을 비롯해 살아 온 이야기, 사는 이야기, 살아 갈 이야기 등을 담아낸 주민들의 마을 아카이브를 발간하였다.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 중심의 마을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한 문화적 삶 실현

해당 사업을 통해 마을의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주민이 단순한 관객이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닌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 중심의 참여 활동을 통해 보다 주민들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여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전의 사업들이 포괄적이고 총괄적이고 거시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운영하였으나 미시적이고 시민과 직접적이면서 생활밀접형인 사업들을 계획·추진하여 마을과 공동체 단위의 문화를 활성화하여 마을,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하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콘텐츠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여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부서명 문화예술과 | 담당자 강석영(940-4356)

4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복원 추진

남북 교류 및 역사 교육 장으로 활용

2019. 3.
진서문지 1차 발굴조사 및 임진리 일대 지표조사

임진나루와 임진진터의 역사적 실체 확인, 임진나루의 관문인 '진서문'의 정확한 형태와 구조 파악

2020. 4.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유적 2차 시굴조사

2020. 10.
임진나루 임진진터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착수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발굴조사 착수보고회 (2019. 3. 27.)

역사적으로 지리적 요충지이자 군사적 관문이었던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역사성 회복을 위한 복원 필요성 꾸준히 제기

임진나루 일대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다.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도성인 한양–파주–장단–개성을 연결하는 길목이었으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도성을 지키는 주요 관문이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태종 때 임금이 거북선과 왜선이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기도 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등 유서가 깊은 곳이다. 특히 영조 31년(1755)에는 서울 중심의 중앙군 방어체제인 5군영의 하나인 총융청에 소속시키는 등 이곳이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유적은 가장 중요한 교통로 상의 요지이자 도성방어에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지만,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어 역사성 회복을 위한 복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2019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유적 단계적 발굴조사 통해 그 규모와 위상 상당했던 것으로 밝혀져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유적 복원에 앞서, 고증자료 확보를 위한 학술발굴조사가 선행되었다. 2019년 진서문지 1차 발굴 조사 및 임진리 일대 지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임진나루와 임진진의 규모와 위상이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임진나루의 관문인 '진서문'의 정확한 형태와 구조가 파악되었다. 진서문의 흔적과 이와 연결됐던 차단 성벽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진서문의 규모는 조선시대 성문 중 대형 규모에 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4월에는 지표조사 대상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려·조선시대 건물지와 기와조각, 청자조각 등이 확인되었다.

그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문헌과 고지도를 통해 전해져 오던 임진나루와 임진진터의 역사적 실체를 확인하고 고고학적 · 건축적 고증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복원방향 및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복원을 통한 역사성 회복과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로 지역문화 발전 기대

남과 북을 잇는 관문역할을 한 임진나루와 임진진터의 복원은 '한반도 평화수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파주의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남북 교류 및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서문지 조사 후 전경


학술자문회의 실시

나아가 그간 성과를 토대로 유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임진나루 일대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조화된 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흥미로운 역사문화콘텐츠 개발과 그 일대의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로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임진나루, 임진진터 복원에 힘을 더할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사업'으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공모에 선정, 20억원 확보

조선왕조실록 태종13년 "上過臨津渡, 觀龜船, 倭船相戰之狀."(임금이 임진도를 건너다 거북선과 왜선이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파주시에서는 조선 최초의 임진강 거북선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정책공모 경기First에 도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임진나루와 임진진터에 거북선을 띄우기 위한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선정

부서명 문화종무팀 | 담당자 김아름(940-5831)

5 혜음원지 관광자원화

혜음원지 방문자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역사문화자원 조명 및 관광자원 활성화

파주시를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혜음원지 관광자원화 본격 추진

2019. 5.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및 주변정비공사 기본설계 완료

2020. 6.
혜음원지 진입도로 신설공사 완공

2020. 7.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착공

2020. 9.
혜음원지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공사 착공, '혜음원지 불전영역의 의미와 가치 탐색' 학술세미나 개최

2020. 10.
혜음원지 활용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

2020. 12.
혜음원지 조경정비공사 착공



혜음원지 전경

국내 유일 고려시대 행궁유적 혜음원지, 국가 사적 위상 드높이고 지역문화 거점으로 삼기 위한 관광자원화 본격 추진

서울과 개성을 잇는 대로의 관문 역할을 한 고려시대의 혜음원은 사찰에서 운영한 국립숙박시설이자 국왕이 개성에서 남경(서울)으로 가는 도중에 머물던 행궁(임시 궁궐)이었다.

1999년 혜음원지에서 '혜음원(惠陰院)'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된 이후 파주시는 2001년부터 단계별 발굴조사와 학술연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혜음원이 12세기 전반에 조성된 사실과 고려시대 절터와 원(院), 행궁이 존재했다는 역사적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땅속에 있다 900여 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본 혜음원지는 건축적 · 고고학적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와 유적정비가 우선하여 실시되었기에 그간 문화재 활용이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에 사실상 발굴 및 정비가 완료된 후, 국가사적이라는 위상을 지닌 혜음원지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게 되었으며, 2019년부터 혜음원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 거점으로 삼기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문자센터, 주차장, 진입도로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유적안내 및 관람 편의 제공

파주시는 혜음원지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편의와 안내를 제공하고 쾌적한 관람한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방문자센터 건립과 주차장 조성, 진입도로 신설, 조경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방문자센터 건립 국비를 확보하였고 진입도로 신설에 대한 특교세 확보, 주차장 조성 및 조경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진입도로 신설은 2019년 12월 토지보상 완료에 따라 공사에 본격 착공, 2020년 6월에 완공하여 기존 마을 길을 이용해 협소하고 불편함이 컸던 진입로 문제를 해결, 관광객의 방문 시 원활한 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2019년 5월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과 주변정비를 위한 기본설계 완료, 10월 주차장 및 조경정비 실시설계 완료, 2020년 2월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이를 토대로 2020년 6월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착공, 9월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12월 조경정비공사에 착공하였다.



'파주 혜음원지 불전영역의 의미와 가치 탐색' 학술세미나 개최

아울러 혜음원지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적 의의 등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혜음원지 불전영역의 가치와 의미 탐색'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사찰로서 '혜음사'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였다. 10월에는 「혜음원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본격 활용과 그 중심시설로 이용될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혜음원지를 거점으로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아우르는 관광콘텐츠 개발, 파주시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파주시를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혜음원지를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은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찾고 시민의 역사적 자부심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혜음원지를 거점으로 지역자원을 아우르는 새로운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도 제고는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혜음원지는 국가사적으로서의 위상을 재조명받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이자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혜음원지는 파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의주대로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조감도

부서명 문화종무팀 | 담당자 김아름(940-5831)

6 문화역사 관광벨트 조성

파주관광 중장기발전계획「파주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2018. 11.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계획 수립

2019. 6.
파주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착수

2020. 5.
용역완료 및 관련사업 추진



마장호수 출렁다리

파주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관광벨트 조성 필요성 대두

파주시는 DMZ 평화관광을 비롯해 문화, 역사, 예술, 생태, 자연 등 다채롭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품고 있는 도시이다. 관광객 1천만시대를 대비하며 문화역사를 비롯한 주요관광자원들의 연계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과 미래 파주관광 발전의 방향제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관광자원의 종합분석을 통해서 분야별 권역과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파주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파주시 관광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 제시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2018년 11월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파주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6월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1년여의 기간 동안 10차에 거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관광 관계자 심

층인터뷰, 관광객 인터뷰,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 카드지출액 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해 파주관광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파주시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은 2020년 1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5월 최종보고회를 갖고 완료됐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상호 연계운영·발전 가능한 관광자원을 묶어 2벨트 3권역 2핵심거점으로 구성하고 9개의 중점사업과 11개의 연계 및 진흥사업을 도출했다.

파주시 관광발전 로드맵 추진

파주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자료는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추진시기를 조율하고 시 재정여건과 지역여건을 판단해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DMZ 평화관광이 중단되는 등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이다. 하지만 '파주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파주관광의 발전방향을 설정한 만큼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수도권 관광 1번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다.



- P벨트(기존 파주관광 핵심루트의 심화 확장 벨트)
  · 평화관광과 교육 + 생활관광 연계
- J벨트(자원 역량 대비 관광낙후지역 신규 벨트)
  ·지역관광과 교육 + 생활관광 연계
- 평화관광권역(파주시 관광 중심 권역)

한반도평화관광1번지, 파주 평화의 빛 프로젝트, DMZ기억의박물관 등 평화관광 사업 추진

- 지역+생태관광 권역(DMZ 접경지역)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광 사업 추진
  ·지역관광 공간 조성
- 교육+생활관광 권역(생활관광 교육관광 권역)
  ·교육 및 연수관광, 체험하는 생활관광사업 추진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계획

부서명 관광과 | 담당자 박원재(940-4361)

7

마장호수 주차장 개선

체계적인 주차시스템 도입으로 주차난 해소 및 방문객 만족도 향상

2018. 3. 29.
마장호수 개장 후 심각한 주차난 발생 및 유지관리 증가로 19년 상반기 마장호수 주차요금 부과와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및 부과계획 방안 마련

2019. 8.
주차장 9개소 중 2개소 제2, 3 주차장 단계적 부과 시행

2019. 10.
제5주차장, 버스회차로 주차요금 부과 징수(2단계)

2020. 6.
제4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징수(3단계)

주차난 해소 및 방문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



마장호수 주차장

마장호수의 관광객 증대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는 주차장 개선 추진

2018년 3월 29일 마장호수 개장 이후 일평균 10,000여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노후 주차시설 개선 등 유지관리비(2018년 유지관리비 1,514백만원)가 증가하고, 국지도 98호선의 심각한 정체현상 및 차량 사고 등의 주차난이 발생함에 따라 해결방안으로 시설이용료 부과가 요구되었다.

시는 시설이용료 부과 시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요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8년 12월 주차장 9개소 중 2개소, 즉 제2, 3주차장에 주차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9년 7월 행정예고를 거쳐 8월부터 주차요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아울러 10월부터 제 5주차장과 버스회차로에 2단계, 2020년 6월 제4주차장 유료화까지 3단계를 거쳐 주차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였다.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세입증대 효과

마장호수의 주차시설이용료 부과·징수를 위한 주차자동관리 시스템은 원격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즉각적인 민원처리와 교통·환경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국지도 98호선의 주차난과 차량사고 발생률을 절감시켜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였다.

2020년 3월 관광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관광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따라 마장호수 주차이용료를 기존 500원(30분/추가 30분당 200원)에서 1일 기준 2,000원으로 통합하였다.

마장호수는 2019년 67백만원, 2020년 12월말 현재 472백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다.

주차 편의성 증진을 통한 방문객 만족도 향상

마장호수는 개장이후 무료 주차장으로 개장되어 주차면수와 입차 대수가 상이하여 주차장 내부 통제 및 국지도 98호선 내 정체로 인하여 방문객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으나, 마장호수에서 구축한 주차자동관리시스템 도입 후 체계적인 주차질서로 인한 방문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부서명 관광사업소 | 담당자 이미애(940-4724)

8 출판문화 자원 연계 문화협력 사업 추진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로 시민 문화서비스 제공

- 어린이책잔치 및 북소리 축제 개최
-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출판도시 도서축제 등 운영을 위한 축제기반시설 조성



파주 출판도시

책 문화와 건축예술이 조화를 이룬 삶의 품격을 높이는 공간, 파주출판도시

파주출판도시는 한국 출판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판·영상·지식정보산업을 망라하는 문화클러스터를 형성한 국가산업단지이자 건축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건설을 국가가 아닌 민간조합 결성을 통해 조성된 계획도시이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1단계지역 개발을 통해 874천㎡에 400개의 출판·인쇄·유통 등의 회사가 입주하여 상시근로자 8천명, 연간매출 1조5천억을 달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지역을 개발하여 687천㎡에 130개의 출판·영상·소프트웨어 회사가 입주하여 상시근로자 1만 명, 연간매출1조원 매출을 달성하여 자급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출판도시는 단순한 산업도시에서 벗어나 국제출판포럼 및 파주북어워드 등 국제적인 출판문화산업의 교류의 장이며 어린이책잔치와 북소리축제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

표지식축제를 개최하는 등 독자와 출판인 그리고 작가 등 출판산업 종사자들이 함께 출판 문화 창달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해 오고 있다.

출판도시 내 건축물들은 국내외 대표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독창적인 스토리와 설계를 통해, 김수근 건축문화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독특하고 창의적인 조형미를 자랑하는 거대한 건축박물관이자 건축도시로도 유명하다.

책의 도시를 지향하는 파주, 출판도시와의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1) 도서축제 복합문화공간 기반조성으로 대한민국 대표 지식축제로 육성

출판도시내에서 개최되는 도서축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책방거리'를 조성하고, 김소월의 시를 상징하는 '문학데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글이 발하는 곳을 의미하는 '문발(文發)'의 의미를 담아내고 출판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려 세계 여러나라 문자의 기원을 표현한 문자조형물과 문자 벤치 설치, 출판도시를 알리는 문자 고보조명 등 다양한 형태로 '문자의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출판도시 곳곳에 원목벤치 등 방문객 편의시설과 야외 독서문고에 도서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독서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서휴게쉼터를 조성하였다.

2) 출판도시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책 추진

출판도시내 출판·영상·지식정보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을 통해, 연간 16만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거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방문객 및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판도시 곳곳에 CCTV 50대를 설치하였고,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출판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4억2천5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총 사업비 64억 규모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편의·복지 등 다양한 시설 유치가 가능한 복합문화센터를 출판도시 내 건립하여 입주민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3) 미래의 출판인 양성과정 진행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한 기획에서부터 작가들의 집필·편집·인쇄 등의 과정을 거쳐 독

제17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 기　간 : 2019. 5. 3.(금) ~ 5. 5.(일) / 3일간
- 장　소 : 출판도시 일원
- 주　최 : 출판도시 문화재단,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내　용 : 테마전시, 공연, 강연, 체험 프로그램







파주 출판도시

자에게 책이 유통되는 과정까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미래의 출판인 양성과정을 출판창업보육센터와 출판산업체험센터에서 출판인쇄체험프로그램과 출판체험교실, 출판도시 꿈의학교, 우리동네학교 등 파주출판도시만의 차별화된 고품격 교육을 매년 2만여명의 어린이와 학생,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4) 출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에는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책을 소재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여 책의 가치를 높이고 출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책잔치, 북소리축제 등 도서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독서 문화캠프, 인문학당, 국제출판포럼, 에디터스쿨, 파주북어워드, 북바캉스 등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통해 출판의 가치를 높이고, 어린이·청소년·성인 세대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등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지식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파주 출판도시

책과 활자, 그리고 영상문화가 함께 꽃피우는 열린 독서문화공간 지향

책을 읽는 민족은 번영하고, 책을 읽는 국민은 발전한다는 말처럼, 출판도시는 단순한 산업생산도시가 아닌 지식과 문화생산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조각,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의 입주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앞으로 파주시는 출판, 디자인, 인쇄, 유통, 영상, 예술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국내 유일의 세계적인 책의 도시이자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인 출판도시가 국가산업단지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험공간이 어우러져 도시 곳곳에서 책과 문화의 향기를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부서명 문화예술과 | 담당자 안광재(940-4721)

9 헤이리 無장애 노을숲길 조성

도심 속 휴식처, 노을이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숲을 만나다.

2019. 8.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길 준공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정상부까지 목재데크로 연결한 장애물이 없는 숲길 조성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길

누구나 함께 누리는 숲길! 숲속 데크로드를 열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평화와 생명의 땅!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꿈꾸는 곳.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길은 파주 관광특구의 중심에 누구에게나 열린 '쉼'의 '숲 길'을 만들어 보자는 비전 아래 시작되었다.

1998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 문화지구로, 2009년 국내 세 번째 문화지구로 지정된 헤이리 예술마을은 한국관광공사 '2017-2018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시를 대표하는 나들이 명소로 그 중심에 무장애 노을숲길이 자리 잡고 있다.

헤이리 노을숲길은 산림 휴양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보행약자(노약자, 장애인 등)와 불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휴양 체험의 열린 공간의 무장애(無障碍, Barrier Free) 숲길로 조성 하고자 하였다. 예술과 문화 감성이 넘치는 '헤이리 예술마을' 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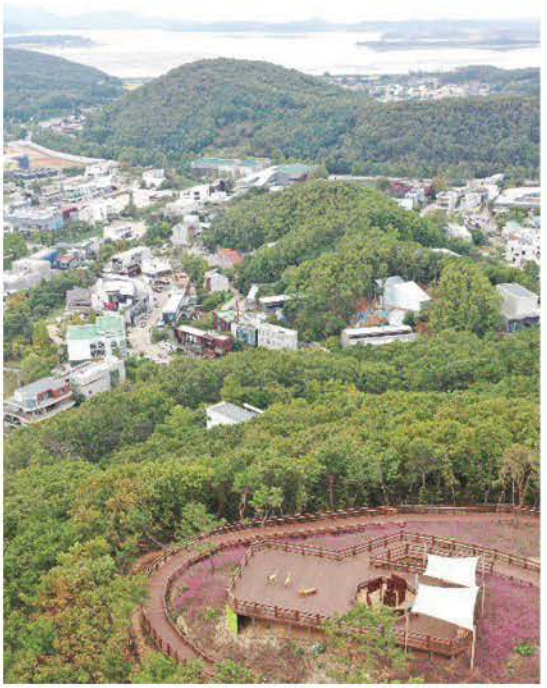
뚝 솟은 자연지형 그대로의 노을 동산 숲을 대상으로 자연과 인간, 역사와 예술의 감성 모티브를 녹여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유·무형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도심 속 휴식처, 노을이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숲을 만나다.

헤이리 예술마을 내 우뚝 솟은 노을 동산은 해발 76m 임야에 지형의 조건을 최대 반영하여 도로변 인도와 연결하여 정상부까지 연결되는 달팽이 선형의 폭2.1m, 길이 918m의 무장애 데크로드로서 왕복 40분 소요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하였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길 조성공사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85번지(지목:공)
- **사 업 명** :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길 조성공사
- **사업기간** : 2018. 11. ~ 2019. 7.(2개년)
- **주요공종** : 시설공 : 무장애 데크로드(L=918m), 전망데크 및 루프탑형 그늘막, 교행데크, 휴게데크, 편의시설(등의자, 평의자) 등
  식재공 : 핑크뮬리, 산수유, 진달래, 맥문동, 무늬비비추, 꽃무릇, 금낭화, 펑의 비름 등
  기　타 : 노면 논슬립 패드, 안내판 등
  조형물 : 기존 작품 조형물(임옥상 작가) 보존
- **소요예산** : 금1,320백만원(국600, 시720)



헤이리 노을숲길 정상



헤이리 노을숲길 정상



헤이리 노을숲길 "준공식" 숲길 누리기 행사



헤이리 노을숲길 전경



헤이리 노을숲길 데크로드



헤이리 노을숲길 전망데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헤이리 노을숲길'

2019년 여름, 석양이 아름다운 '헤이리 노을숲길'이 탄생하였다. 약 1㎞의 숲길을 따라 새소리, 나무소리를 느낄수 있는 노을 숲길은 역사와 자연의 중 심에서 예술과 평화의 메 시지를 담아 올 수 있는 진정한 쉼의 숲길이다.

정상에서 만나는 눈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자연이 헤이리 노을숲길의 특징으로, 대립과 반목, 전쟁의 상흔을 만나며 만난 정상에는 탁 트인 풍경 아래로 헤이리 예술마을,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오두산 통일전망대, 장단콩 웰빙마루, 맛고을,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 월드가 시선에 사로잡힌다.

특히 이곳의 정점은 바로, 한강과 임진강, 서해바다가 만나는 곳은 한 폭의 풍경화를 선사한다는 것으로, 자연이 선사하는 예술작품과 같은 풍경과 노을이 아름다운 헤이리 노을숲길은 찾는 시민 모두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부서명 공원녹지과 | 담당자 박명진(940-4621)

10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평화의 정원, 하나가 되는 정원으로

2018. 11.
경기북부 최초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개최지 선정

2019. 3.
시민추진단 구성

2019. 10.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민추진단 발대식 (2019. 05. 31.)

경기북부 최초의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 정원을 통한 브랜드가치 상승

파주시는, 2015년부터 "파주는 하나의 정원이다"라는 목표로 주민들이 협력하여 조성하는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매년 콘테스트를 개최하며 정원투어 관광코스를 만들어 정원문화를 확산해오고 있다.

파주시는 정원산업을 고도화하고 정원을 통한 파주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평화의 상징성, 접근성, 시민화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2018년 11월 경기북부 최초로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도비 포함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파주시 수풀누리에 모델정원, 참여정원, 정원작품 전시장, 화초문화체험공간, 정원용품판매장, 각종 문화행사장 등 모두 92,072㎡ 규모의 박람회장 조성 계획을 통해 파주시 정원산업을 좀 더 고도화하고 정원으로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 **위　　치** : 임진각 수풀누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 **기　　간** : 2019년 10월 11일 ~ 10월 13일 (3일간)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는 취소, 전시정원은 개방
- **사 업 명** : 2019년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 **주최/주관** : 경기도, 파주시
- **주　　제** : 평화의 정원(부제 : 하나가 되는, 정원으로)
- **추진실적**
  - 정원조성 : 정원작품 28개소 조성(작가, 참여, 시민, 단체, 청소년가드너, 시민추진단 기념정원)
  - 경관조성 : 꽃조형물 9개소, 국화15,000개 전시, 코스모스 꽃밭조성



2019년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작가정원



포토존



꽃조형물



메타세콰이어길



코스모스, 국화꽃길

평화의 정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다.



2019년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포스터

시는 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시민추진단을 모집하여 5개팀 240명으로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획과 실행에 참여하였고, 정원공모전에 총 83작품이 접수되어 6월 20일 파주시청 소공연장에서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디자이너, 시민추진단, 조경정원업계 관계자, 파주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작품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기존 정원공모전과 달리 다양한 교육(워크샵 및 심포지엄)을 실시하였고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 정원 공사 기간 동안 자문위원들이 수시로 방문해 참가자들이 정원조성에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질문에 대한 조언과 해결을 통해 함께하는 정원문화를 확산하였다.

2019년 가을, 비록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행사진행은 무산되었지만 전시정원은 개방되어 다양한 규모로 전문가, 사회단체 및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혼신을 다한 28개소의 정원 전시로 파주시 정원 문화의 질적 수준이 한층 높아졌고 평화의 길목 자유로에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백일홍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이루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민추진단

파주의 이야기와 문화를 정원에 담다.

"평화의 정원, 하나가 되는 정원으로"를 주제로 행사장에는 조경원예화훼 관련 전문가가 조성한 6개의 "작가정원"과 정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관련학과 전공 대학(원)생들이 만든 8개의 "참여정원"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조성한 14개의 "시민정원" 등 총 28개소 정원 작품들이 전시되어 더욱 더 풍성한 평화의 정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정원을 배경으로 꽃밭 조성과 꽃 조형물을 이용한 다양한 포토존 및 국화화분 꽃길 조성을 통해 시민들을 맞이하였으며 자연 그대로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메타세콰이어길 산책로 조성, 시민들을 위한 이색적인 휴게공간 마련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시민 편의를 위한 종합안내소 운영 및 정원 가이드북 제공을 통해 다채롭고 풍성한 박람회를 구성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보다 풍성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파주에서 처음 조성된 전시정원을 통해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힐링을 누리는 좋은 추억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부서명 공원녹지과 | 담당자 지은미 940-4633

11 공공도서관 확충

파주시 전 지역 격차 없는 균형적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 건립

2018. 12.
파평도서관, 한울도서관 개관

2019. 4.
월롱도서관 개관

2020. 5.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현상설계 공모작 선정, 설계 중

2020. 8.
(파주읍)술이홀도서관 개관

2020. 12. 현재.
(가칭)문산중앙도서관 현상설계공모 추진 중



한울도서관

읍면동별 도서관 건립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이뤄

파주시는 2016년 수립한 2차 독서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별 격차 없는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월롱면, 파평면, 파주읍, 광탄면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2018년 12월 파평도서관, 2019년 4월 월롱도서관, 2020년 8월 파주읍 술이홀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복합 공간 내 공공도서관 조성

지역별 편차 없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공공청사 신축계획이 수립된 파평면과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내 복합형태의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였다. 주민센터와 복합형 공공도서관 조성은 지역주민의 지역 내 활동을 지원하고 시설 이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으며, 주민의 삶에 가까운 공간에서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문화를 만들고 지역서비스 질을 향상시켰다.



술이홀도서관



월롱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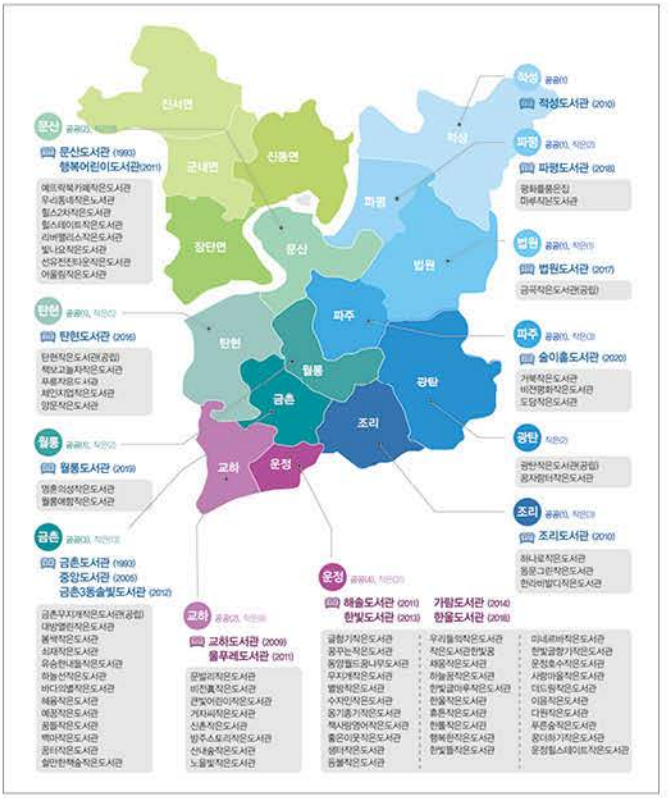


파평도서관

2) 공립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upgrade : 파주읍 술이홀 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 우수하지만 공립작은도서관 하나만으로는 지역적 도서관서비스 수요대응의 한계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이로 파주읍행정복지센터 증축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였다.

3) 광탄면 유일한 문화시설로 꼼꼼히 설계중인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파주시도서관현황도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은 독서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생활문화공간 기능이 융합된 생활SOC복합시설로 학교복합시설 협약을 통한 관학 협력의 모범적 모델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광탄지역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삶의 공간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2019년 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와 주민설문,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2020년 설계공모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회의를 거쳐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설계공모에는 72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친근한 이웃집처럼 가지런한 마당을 춤고 있는 일상적 삶의 공간'을 콘셉트화한 설계작인 '마당을 품은 도서관'이 당선되었다.

2020년 6월 설계공모 당선작의 기본설계에 착수하였고 건축전문가, 도서관공간·운영전문가, 도서관운영자와의 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

의 편리를 우선으로 건축적으로 특색을 가진 도서관으로 설계중이다.

파주시만의 특별함, 특화된 도서관으로 시민 삶의 질 높여

1) 장애인 특화, 전국 최초 BF 최우수 도서관 '한울도서관'

한울도서관은 파주시 인구 70만 시대를 대비하여 평소 도서관이용 및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더욱 편해진 이용환경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특화도서관'으로 방향성을 정하였고, 이에 맞추어 전국도서관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최우수를 취득하였다.

한울도서관은 장애인 특화도서관답게 도서관 전체 바닥에 턱이 없으며, 도서관 외부의 완만한 경사로와 내부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자동문을 두어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내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과 각층마다 장애인화장실을 두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점자책과 큰활자책,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2) 지역의 음악문화 창조공간으로써의 특화 '가람도서관' 그리고 '스페이스G'



중부일보

2020년 09월 22일 화요일 006면 사회

파주 북부 거점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국비 40억원 확보

총 194억 투입 2023년 개관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지원해 (가칭)문산중앙도서관 건립비로 총 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까지 연간 20억 원씩 2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문산중앙도서관의 2021년도 1년차 국비 20억 원은 지난 8월의 2차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반영됐고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 사업비 80억원은 편도 반영됐다.

문산중앙도서관은 연면적 5천㎡, 대지면적(면1천535㎡의 거점도서관으로 국비 40억 원, 시비 154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3년 개관될 예정이다. 북부지역 분관을 총괄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은 연면적 2천80㎡, 대지면적 1천530㎡의 분관으로 국비 27억 원 시비 48억 원,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개관 예정이다.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착공해 내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문산중앙도서관은 도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중이며 20일 건립 자문위원회를 열어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초 도서관리계획 변경 절차 완료 후 설계공모와 도서관 명칭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상돈기자



가람도서관 「스페이스G」

2014년 개관한 가람도서관은 그간 음악특화도서관으로 음악자료실 운영과 음악전문사서 배치를 통한 음악감상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음악전문 도서·음반·영상 큐레이션과 컬렉션으로 지역의 음악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 경기도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으로 기존 문화강연실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악기와 음악장르에 적절한 음향 조건을 갖춘 소규모 공연장 '스페이스G'를 조성하였다. 무대와 객석이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스페이스 G의 활용으로 전문연주자 뿐만 아니라 음악전공자, 아마추어 연주자, 음악동아리 등 음악을 좋아하는 지역주민들과의 밀도 높은 음악공연 기획이 가능해졌다.

3) 파주 북부지역 도서관을 총괄하고 평화와 통일을 특화할 (가칭)문산 중앙도서관

파주시 북부 넓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노후화된 소규모 분관(1,500㎡이하) 형태의 도서관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각각의 도서관 시책을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점도서관의 역할과 평화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문산중앙도서관 기본계획안 조감도

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국가적 과제를 유형화 특성화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문산중앙도서관은 '통일을 대비한 평화특화도서관'의 개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평화상징 전시공간과 공간 그리고 ICT기술과 제로에너지기술이 융·복합된 건축물로 지역주민과 총괄건축가, 전문가집단, 자문위원회 등 관계자와 밀접한 소통을 통해 도서관 건립 이념과 실천방안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지원해 총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연면적 5,000㎡, 대지면적11,535㎡의 거점도서관으로 국비 40억원, 시비 154억원, 총 19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3년 개관 예정으로 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열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이용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21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완료 후 설계공모와 도서관 명칭공모를 시행해 시민이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역 교육문화 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지역문화 창조

민선 7기 2년간 한울도서관, 파평도서관, 월롱도서관, 술이홀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이 준공되는 2021년도는 파주시 모든 읍·면·동에 공공도서관이 조

성되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읽는 도시 파주의 1단계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이 완료된다.

후반기에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래전 조성된 도서관의 리모델링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2단계 공공도서관 공간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지역문화 창조공간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풍부한 콘텐츠를 구현하는 일상의 공간으로 도서관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부서명 교육지원과 | 담당자 심승희(940-5041)

12 중앙도서관 「휴먼 IN PAJU」 운영

파주의 역사와 삶을 기록하는 시민들, 시민채록단

전국최초 도서관 내 기록관리팀 구성, 디지털 기록관 개관,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다양한 대회에서 사업의 우수성 인정받아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이어져

2018. 10.
전국도서관 대회사례 발표

2019. 05.
경기도 문화자원아카이브 심포지엄 운영사례발표

2019. 07.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 구술채록집 출판

2019. 07.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표 및 수상

2020. 9.
제1회 파주기록물 공모전

2020. 11.
"리비교와 장마루 사람들" 출판

2020. 12.
"DMZ, 희망의 길을 걷다" 출판



시민채록단 참여 회의 (파주 기록 시민 네트워크 회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서관의 새로운 도전, 마을 아카이브

도서관의 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도시와는 성격이 다른, 파주 북부권역(중앙도서관 권역)만의 특징적인 지역사회 요구에 대해 조사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고민하였다. 지역사회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커뮤니티 자료실을 열었으며 다양한 컬렉션과 전시를 운영하였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기획된 대표적인 전시가 바로 「휴먼 IN PAJU」다. 중앙도서관은 지리적·문화적으로 수많은 이야깃거리와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는 파주에 가장 적합한 마을 아카이브를 시민들과 함께 도전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사라져 가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다. 파주는 급격한 도시화로 유·무형 자산이 빠르게 소실되는 과정 중에 놓여있고, 보편적 역사에 가려진 평범한 시민의 삶과 기억이 개인의 세월과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마을 아카이브 기획 강좌 수료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채록단'은 격주마다 모여서 채록할 어르신을 발굴하고 몇 번의 문전박대를 극복하며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채록을 하고, 채록된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파주 기록화의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그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세월에 휩쓸려 빠르게 사라져가는 파주의 기록을 남기겠다는 의지로 모인 시민들과 도서관은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렇게 채록된 기록물은 중앙도서관 1층 커뮤니티 자료실에 전시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열람하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구술채록한 분들 중 10분의 기록은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전국 대표도서관에 배포되었다.

여기에 2018년 10월 파주인의 삶을 기록한 휴먼 IN PAJU 전시 관람 후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중앙도서관에서 아카이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총괄 계획을 수립하라는 파주시장의 정책적 의지가 더해져 '휴먼 IN PAJU'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전국 최초 도서관 내 기록관리팀 구성(2018년 7월 8일), 디지털기록관 개관(2010년 11월 21일),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2020년 2월 14일 공포) 등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휴먼 IN PAJU」 사례를 통해 매니페스토 등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파주시를 방문하고 있다.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기록사업

파주는 지극히 극적이고 역동적이었던 한국사의 시대적·지리적 무대였던 지역이자, 지금까지도 남북관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인 동시에 DMZ를 품은 생태의 보고다. 또한 파주삼현(율곡 이이,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 조선최초의 임진강 거북선 기록(조선왕조실록, 태종13)에서부터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단지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의 기억과 기록이 공존하는 기록의 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파주 상징을 기록하는 '주제별 기록화사업'과 마을의 기억을 기록하는 '마을공동체 기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카이빙의 첫 사례로 "DMZ"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특히 국외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파주 DMZ와 관련된 기록자료 약 700여점을 수집하였다. 또한 대성동, 장단, 교하·운정 택지개발지역,





「파주에살다, 기억하다」 구술채록집 출판기념회



파주 기록화 사업 보고회



제1회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심사

경기일보

2020년 07월 03일 금요일 014면 오피니언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기록사업

시정단상



최중환
파주시장

파주는 극적이고 역동적이었던 한국사의 시대적 지리적 무대였던 1000여년, 지금까지도 남북관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인 동시에 DMZ를 품은 생태의 보고(寶庫)이다. 또한 파주산현을과 이이,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 조선최초의 임진강 기록산 기록(조선왕조실록, 태종13에서부터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도시에 이르기까지, 파주와 연계한 기억과 기록의 공존하는 기록의 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속담 있다. 파주는 급속한 도시화로 유·무형 자산이 빠르게 소실되는 과정 중에 놓여있고, 브라질 역사에 가려진 평범한 시민의 삶과 기억이 개인의 세월과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었다. 하여 2018년 시장 취임과 동시에 중앙도서관으로 흩어질 파주시 기록사업의 지휘본부 역할을 부여하고, 전국 최초로 도서관에 기록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 최초로 민간기록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라져가는 파주시의 기억들을 기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파주시 기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관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도서관은 시민들 사이의 관계가 자연스레 형성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인 만큼, 시민의 기록 활용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중앙도서관은 배년 아카이브 강좌를 통해 시민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록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아 시민제독단 '휴먼in과주'를 꾸려, 급격한 도시화의 세월에 흘러려 소멸될 위기에 있던 파주사람들의 소중한 삶과 기억을 시민들과 함께 기록해왔다.

그렇게 파주에서 40년 이상 살아온 열 분의 기억을 교스란히 담아낸 단행본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가 세상과 빛을 보았다. 천천으로 얽혀지고 감다진 땅에서 생존해내기 위해 삶과의 정쟁을 치러내며 뛰던 새월, 그 속에서 함께했던 이웃·가족들과의 희로애락에 대한 기억으로 빛도 높게 구성된 이 책은 지난해 '진국에니페스코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현재도 중앙도서관은 다양한 삼정성을 기록하는 주제별 기록화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직동의 근대사를 주은 파주의 뜬단과 냉전의 유산을 평화와 희망의 유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DMZ 국외자료 수집 점광으로 시작된 도시의 기억을 디집어가는 장단마을 기록화사업, 대성동 자유의 마을 이야기 수집, 그리고 최근 20년간 가장 큰 변화를 귀은 교하·운정 신도시 기록화사업 등, 배년 파주의 삼징적 기억들을 발굴해내어 이를 종점적으로 기록해오고 있다.

파주시는 기록물 수집 과정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성장시키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기록네트워크, 시민래처널, 기록물관리위원회, 리비교 시민기록 추진단 등을 꾸림으로서, 시민이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과 주체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기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현재 수집된 기록물은 지난해 개관한 디지털기록관에서 전시 및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방송, 언론, 연구자 활용과 더 지자체 벤치마킹이 늘면서 시민들의 참정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기록'이 시민들에게 옛 추억을 되살리고 세대 간 교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옛 기록을 수집하는 것만이 끄치 있는 일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의 흔적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기록이 된다. 향후 파주시는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공유하는 복합문화기관 라키비움(Larchiveum) 건립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기록문화를 선도 할 계획이며, 이는 현재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들이 주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지원하고 생산된 모든 기록을 담아내는 풀뿌리 기록화의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올해안전부는 올해부터 9월9일 '기록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는 바야흐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예시 어려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의 사라져가는 기억들을 기록하고 소중한 간직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기록사업 기고문

판문점 등 파주의 각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러 책자들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시 기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도서관은 시민들 사이의 관계가 자연스레 형성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인 만큼, 시민의 기록 활용에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파주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제1회 파주 기록물 공모전을 추진하여 총 758점의 기록물을 수집하였고, 공모전 수상작 전시 "숨겨진 파주를 만나다" 개최하였다.

중앙도서관은 파주 기록화를 진행하면서 관 주도의 사업보다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성장시키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서관은 시민의 삶을 기록하는 동시에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삶터를 지원하고 생산된 모든 기록을 담아내는 풀뿌리 기록화를 진행하고 있다.

부서명 중앙도서관 | 담당자 조인애(940-5674)

13 교하도서관 「마을, 그리고 도서관」 운영

마을과 공동체 이해로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돕는 도서관

2019. 02.
'마을로 들어간 도서관' 시민추진단 위촉

2019. 03.
동패동 마을산책, 서패동 마을극장, 문발동 마을에세이 테마사업 운영

2020. 04.
시민추진단 확대 구성(6명→10명), '마을, 그리고 도서관' 사업계획수립

2020. 06.
마을인문학 강연(코로나19로 온라인 강연)

2020. 08.
마을의 공간 이해를 돕는 마을탐방

2020. 10.
열림포럼 '새로운 일상, 제3의장소의 재발견' 개최



서패동 마을극장(2019)

마을의 특색을 살린 소통과 문화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고민

파주시 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과 주민, 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하는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도서관에 집중되던 독서문화 사업을 마을로 확장하고,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마을 현장에서의 마을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사업 운영으로 마을사람과 도서관, 마을사람들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고민해 왔다.

도서관서비스 활용에 취약한 비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교하도서관은 직접 마을로 나가 비이용자를 만나고 더불어 마을과 상생하고자 '마을로 들어간 도서관'을 기획, 운영하였다.

'마을, 그리고 도서관'의 시작사업인 2019 '마을로 들어간 도서관'은 크게 3가지 테마사업을 위주로 운영되었다.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생태 산책인 동패동 마을산책, 한국영상자료원 협조 및 마을길 예술축제 협업으로 이루어진 서패동 마을극장, 예술인파



생태산책 프로그램 '동패동 마을산책' (2019)



문발동 마을에세이 이야기수집 방법 '책 먹는 포장마차'

견지원사업의 예술인과 함께한 기획으로 마을의 특색있는 장소를 찾아가 6가지 아트워크로 이야기를 수집하는 문발동 마을에세이(2019년 11월 발간완료)가 그것이다.

이에 이어 2020년에도 마을활동가 및 예술가, 마을사람 등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과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하고 도서관이 직접 마을로 찾아가 참여 시민, 예술인이 함께 마을의 다양한 공간과 활동, 다양한 이웃을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마을과 마을사람의 기록을 남기고 공유하는 작업을 기획, 실행하며 지역에서의 도서관역할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서로를 연결할 것인가

2019년 '마을로 들어간 도서관'에 이은 2020년 '마을, 그리고 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기 계획은 2019년 6인이었던 시민추진단을 10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민과 기관이 형식적이지 않은 보다 잦은 만남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소통으로 '마을, 그리고 도서관'사업의 틀을 논의하고자 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과 사



열린포럼 – 박소현 소장 발제



열린포럼 – 패널토의



열린포럼–현장+온라인 송출모습

회적 거리두기로 차질이 빚어졌다.
조심스럽게 만난 시민추진단과의 논의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고 비대면 시대에도 도서관 및 여타 기관에서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과 연결을 모색하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점점 희미해져가는 공동체성과 연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현재 코로나 상황이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 등의 이해를 도울 마을인문학 '도서관, 마을과 생각하다'를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게 된 도서관에서 온라인 강연으로 운영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거리두기를 권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연결을 고민하는 강연을 '접촉'이 아닌 '접속'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인문학강연 후 다행히 마을탐방 '도서관, 마을로 걷다'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조심스럽게 우리 마을의 다양한 공간을 방문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인 탐방단과 소규모로 마을의 다양한 작당이 벌어지는 공간을 방문하고 운영자와 대담을 통해 해당공간의 이야기와 활동 등을 들으며 우리 일상 삶터에서의 이웃과의 '함께'하기가 어렵고 특별한 일이 아님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더불어 몰랐던 마을의 공간 소개를 통해 해당 공간의 활성화도 기대해보는 기획이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의 공간과 사람,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라인 카드뉴스, 녹화 방송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각각의 특색이 있는 마을 공간을 탐방 후 최종적으로 '새로운 일상, 제3의 장소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교하도서관 열린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마을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어울림의 공간', '제3의 장소'의 가치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였다. 이 포럼을 통하여 사소해 보이는 마을의 공간이 가지는 가치에


시민추진단 위촉식 및 회의(2020)



마을인문학' 강연 – 오찬호 사회학자(2020)


마을탐방 첫 장소 문발동 '쩜오책방'(2020)

대해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마을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파트너, 도서관

도서관은 구체적인 행정력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문제라고 느끼고 질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 공간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공공 기관 중 하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부문이 멈추기도 하고 가려던 목적지를 바꾸거나,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교하도서관은 '마을, 그리고 도서관' 사업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확산의 주요 통로이면서도 맞설 무기인 '사회' 즉 공동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 위기를 통하여 얻은 깨달음과 바람직한 변화가 잊혀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를 매개로 이웃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부서명 정보봉사팀 | 담당자 김미선(940-5161)

14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공릉천 친수공간 조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휴식·여가 활동 공간 재조성

2019. 11.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0. 06.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퇴적물 제거 용역 착수

2020. 08
시민·전문가 자문단 회의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 완료

2020. 10.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대상" 수상, 사업비 100억원 확보

2020년 하반기 설계, 2021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운정호수 공원과 소리천, 공릉천을 파주시의 독창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 '생태문화도시 파주'를 실현



사업 대상지(운정호수공원 전경)

도심 속 수변공간의 활용대책, 친수공간 조성의 시작

파주시는 2000년대 초, 주택개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신도시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정비하여 운정신도시를 건설하였다. 자연친화적 환경도시를 표방한 운정신도시는 기존 용정저수지(현재 소치호수)주변을 운정호수와 소리천, 공릉천을 연결한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그러나,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은 도심 속 수변공간으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운동과 산책만하는, 아쉬움이 남는 공간이었다.

특히, 도심지 안에 위치한 인공호수의 특성상 유속정체로 인한 심각한 부영양화가 진행되어 수질 악화로 인한 악취 등이 발생하였고, 수질관리를 위한 막대한 유지관리비와 소리천에서 공릉천으로의 생태적 연결이 단절되는 문제점 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운정호수와 소리천을 시민들이 문화·휴식·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 공릉천과 연결하여 하천의 생태적 특성을 살리면서 원도심인 금촌택지와 연결될 수 있는 물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근 호수공원들과 다른 파주시만의 독창적인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민이 만족하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발걸음

파주시는 2019년 9월,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공릉천 일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친수공간추진TF팀을 신설, 2020년 1월에는 친수공간추진TF단으로 격상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201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와 함께 시민·전문가 자문단을 공개모집 구성하여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2월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자문단 회의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가장 많은 시민의 요구사항에 맞춰 기본추진방향을 설정하였고, 운정호수와 소리천 수질 개선을 위해 소리천 상류로 유입되던 외부 오염원을 조사하고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였으며, 오랜기간동안 호수와 하천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을 제거하는 용역을 2020년 6월 착수하여 11월 완료하였다.

또한, 2020년 8월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창출로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즉각 설계공모에 돌입, 11월말 당선작을 선정해 실시설계에



시민 자문단 1차회의(2019년 12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공모 '대상' 수상(2020년 10월)

착수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환경자원인 공릉천을 운정호수공원, 소리천과 연계해, 금촌–운정의 지역 간 연결성 강화와 공릉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 하였다. 2020년 7월 공릉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관계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결과, 공릉천 광장 둔치 주변에는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소리천 합류 지점(공릉천 좌안)으로 인해 단절된 구간에는 교량을 설치해 제방길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의시설이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반영되었다. 반면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 자체사업도 적극 발굴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2021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1년 내 착공해 2024년 사업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방치되고 특색 없는 교량하부 경관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발대식을 갖고 우선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같은 달 10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본 심사에서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공릉천 수변생태공간 재생사업으로 "대상"을 수상,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조기 착수 동력을 마련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생태·문화·예술이 복합된 시민 만남의 장 친수공간, 앞으로의 행보

운정호수공원·소리천 친수공간조성은 걷기 지루한 단조로운 공간을 "숨터(생태)·쉼터(문화)·삶터(예술)"를 주제로 특성에 맞는 테마와 콘텐츠를 배치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파주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하상여과수를 개발해 상시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생태공간이 되는 숨터를 만들고, 교량하부 경관개선, 선상카페, 발 물 놀이터 등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도슨트 아트투어 등 예술작가들의 창작과 전시, 판매를 통해 삶터가 되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운정호수공원에서 소리천으로, 소리천에서 공릉천으로 이어지는

우수한 수변공간에 아이와 가족들이 물과 함께 뛰어놀며 수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고, 물가를 산책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 품격있는 공간으로 '생태문화도시 파주'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더스테이션 및 그늘쉼터' 구상안

부서명 친수공간추진단(TF) | 담당자 강정수(940-5061)

15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사업 추진

주민과 함께 만드는「소공이음 공공미술관 조성」

소리천에서 공릉천으로 이어지는 산책구간에 공공미술 작품 설치

주민과 함께 만드는「소공이음 공공미술관」조성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발대식 (2020. 10. 20.)

미술인지원과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사업

2020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미술인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정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됨에 따라 파주는 미술인 지원과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적극 사업을 추진하였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원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사업 대상지 및 작가팀 선정

2020년 9월 소리천변 일원과 율곡수목원 일원, 두 곳의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작가팀을 공개 모집하고 작가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소리천변과 공릉천

변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공공미술관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라피스 단체를 최종 사업 수행 작가팀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사업 수행 작가팀 그라피스는 10월 20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사업은 소리천과 공릉천의 첫 글자를 따서 '소공이음 공공미술관'프로젝트명을 확정하고 소리천에서 공릉천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있는 가온교, 책향기교, 미리내교, 칠간다리 등을 중심으로 도조타일, 스테인드글라스 등을 사용한 미술작품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책향기교


가온교


칠간다리 옆 공중화장실

또한 작가팀은 주민들과 함께 '공공미술 발굴단'을 만들어 함께 발견하기/(강좌)공공미술의 이해, 함께 정의하기/파주 공공미술 설치물 가이드라인 정의, 함께 발전시키기/작가팀과 주민 간 서로 의견 경청하고 조율, 함께 적용하기/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탐방 등 워크숍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미술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공공미술발굴단 워크숍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운정호수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은 2021년 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그간 경험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되며 예술인들에게는 삶터를, 소리천에서 공릉천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자연과 예술이 만드는 소통 공간'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 내 공간 문화의 품격을 높여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부서명 문화예술과 | 담당자 손봉남(940-8521)

16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DMZ 접경지역 분단의 아픔을 평화로 승화시키는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개통

2020. 7.
파주시 평화누리길 자전거 도로 전 구간 개통



평화누리 자전거길 파주출판단지 구간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

파주시는 빠른 인구증가와 함께 레져문화 수요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자전거 인프라가 부족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여행트렌드인 자전거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로 자전거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전 구간 개통으로 수요를 맞추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파주시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전 구간 개통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은 인천 강화에서 파주를 거쳐 강원도 고성까지 연결하는 접경 지역지원 국가사업으로 파주시 구간은 파주출판단지에서 적성면 두지리까지 조성이 완료 되었다.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통일동산~내포리IC 구간에 도로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13.8㎞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임월교~반구정, 장파리~두지리 일부구간 조성을 완료하면서 2020년 7월파주시 전 구간 개통을 하였다.

파주시 자전거도로 조성 현황도



자전거도로	주요구간	거리	비 고
평화누리길	출판단지~성동사거리~반구정~화석정~두지리	56.5km	전구간 완료
공릉천	조리읍(고양시 경계)~금촌~송촌대교(4.2km미연결)	16km	23년 완료 (서울청)
소리천	고양시 경계~운정신도시~공릉천	4.6km	전구간 완료
문산천	파주읍(백석리)~임월교(임진강)	10km	전구간 완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파주시 평화누리 자전거도로의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파주시를 방문하는 자전거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위해 낙하IC 부근에 화장실을 확보하고 통일동산 쉼터에 식수대를

설치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쉬어갈수 있는 도로로 환경을 개선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다.

수요응답형 자전거 도로 구현, 관광지와 연계된 파주시 랜드마크로 발돋움

2020년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1년부터 사업이 구간별로 추진되면서 일부구간이 자전거 이용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전 구간의 보강 및 정비를 통해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가 출판단지, 헤이리마을, 임진각 등 관광지와 연계된 파주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서명 건설과 | 담당자 이상익(940-4677)

5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커가는 곳,
균형과 상생의 도시 파주입니다

공동체가 살아 약동하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연대하며
미래농업의 꿈이 자라는 곳,

파주시는 모두가 평화로운
지속가능한 균형발전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의 성공적 개발과
원도심의 활력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내실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한 스마트 첨단 영농 실현으로
모든 파주시민이 함께 풍요를 누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 운정3지구 성공적 개발
2. 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상』수상
3.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4. 원도심 가치,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5. 마을살리기 사업 활성화
6.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
7.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 땅의 새 역사, '지적재조사'
8. 6차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연계로 특성화
9. 행복주택 공급
1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11. 종합적인 귀농 지원사업 추진
12. 파주시 농업인의 물부족 문제 항구적 해소
13. 과학 영농 실현의 시작, 농업용 드론
14. 경기북부 최초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15. 명품 농산물축제 추진
16. 파주 미래농업을 여는 '스마트 농업' 추진
17.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배양시설 900톤 규모 확대
18. 파주쌀 품질 고급화 및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 추진
19.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20. 파주 공공 와이파이 310개소 설치
21. 노후관로 교체 및 수도공급 시설 확장
2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23.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사업 추진

1 운정3지구 성공적 개발

GTX운정역 역세권 시민광장, 청룡두천 수변광장 등 공공서비스 공간 확충

운정3지구 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8차) 변경 관련 GTX운정역 역세권 트리플(교통·문화·친수) 시민광장(16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공원 내 파크골프장, 녹지축 보행육교 연결 등 공공서비스 공간 반영 ('20.9월 국토교통부 승인완료)



운정신도시

파주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정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노력 지속

운정3지구는 2008년 개발계획이 최초 승인되어 2023년 12월 3단계 준공을 마지막으로 최종준공 예정인 택지개발사업으로 현재까지 8번의 개발계획 변경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 9월 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8차)이 승인완료 되었다.

운정3지구는 총면적 약 716만㎡, 계획인구 약 10만명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으로써 그 규모에 맞는 추가적인 시민공간 확보 및 GTX운정역이 계획됨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 등 운정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다. 또한, 준공 완료된 운정1·2지구 역시 계획되어있는 동사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관련한 시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이번 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8차) 변경을 진행하며 사업시행자인 LH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의견, 현안사항 등을 반영한 시민중심의 운정3지구 개발계획을 수

립하고자 하였으며, 운정1·2지구 공공시설 확충 등 운정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운정3지구 개발계획(10차) 변경, GTX운정역 역세권 시민광장 등 공공서비스 공간 확충

운정3지구 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8차) 변경과 관련하여 시는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GTX운정역 역세권에 트리플(교통·문화·친수) 시민광장(약 16만㎡)을 반영하였으며, 운정3지구 내 공공서비스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GTX운정역에 들어설 1500억원 규모의 환승시설과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상업·업무·문화 복합기능이 연계할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GTX 역세권에 대규모의 문화·전시·공연이 가능한 독립된 문화공원 광장을 조성하고, 기존 계획되어있는 청룡두천 수변공원을 확장하여 GTX역세권과 연계된 친수공간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GTX운정역 광장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져 운정3지구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며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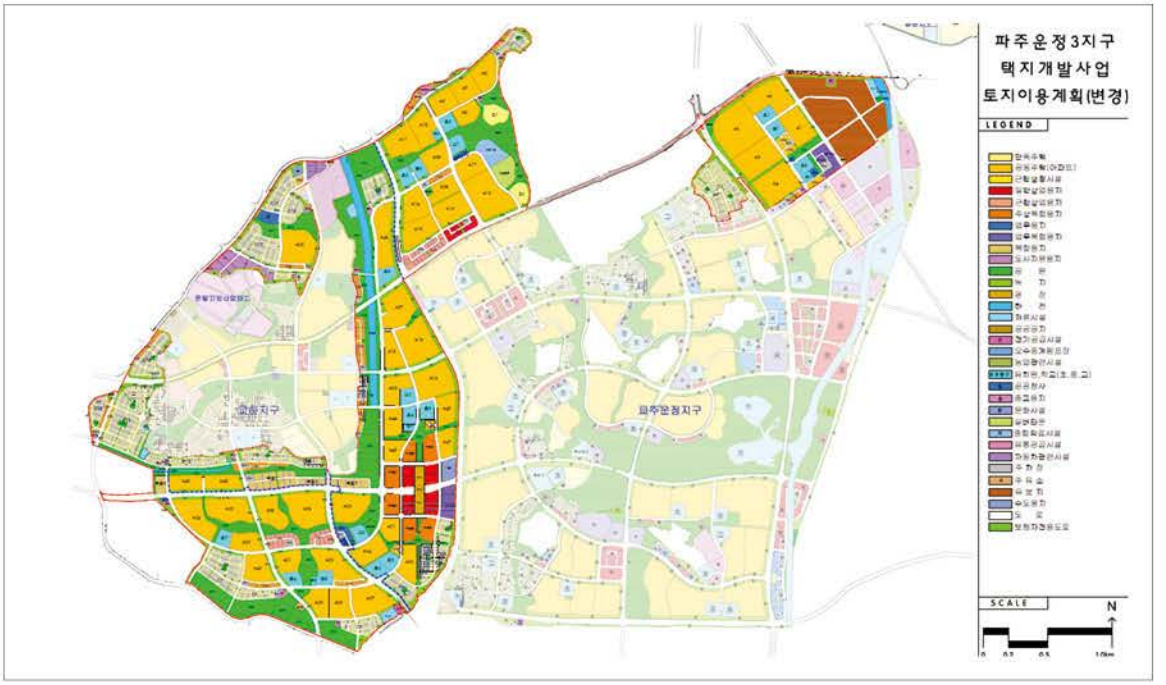
더불어, 이번 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8차) 변경을 진행하며 종합사회복지관, 문화공원 내 파크골프장, 국지도 56호선 보행육교 등 주요 녹지축 보행육교 연결 등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공간을 확충하였으며,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승인이 완료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생태교육 등 시민 편익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운정1·2지구 공공시설용지 토지매입으로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

2014년 12월 준공이 완료된 운정1, 2지구 내 부족한 공공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19년 12월 2,019억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용지 8개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다.

매입한 토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부지 3필지, 공공청사(주민센터)부지 3필지,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부지 1필지, 보건소부지 1필지이며, 이중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은 2020년 12월 현재 건립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외 공공청사(주민센터)부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부지 또한 시의 재정여건, 운정신도시 인구유입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건립이 추진 될 예정이며 운정1·2지구 준공 이후 부족했던 공공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정3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10차)

파주시 발전으로 이어지는 운정신도시 활성화

2020년 12월 현재 파주시는 인구 중 약 16만명의 인구가 운정1·2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진행 중인 운정3지구(계획인구 10만여명) 입주가 완료되면 운정신도시는 25만여명이 거주하는 매머드급 신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정신도시는 기존 신도시들 중에서도 높은 녹지비율, 광역버스 및 경의선을 통한 서울 접근성, 수서까지 이어지는 GTX-A노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운정3지구 공동주택공급 및 입주가 시작되며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간을 늘리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더욱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운정신도시의 활성화는 파주시 인구유입을 크게 증가시키고 접경지역으로 소외받았던 파주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며 파주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통일기반조성과 | 담당자 이창원(940-5324)

2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파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

2018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6~2020년, 5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 살고싶은 명품 도시 도시경쟁력 입증



2018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 주최로 국가 균형발전,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인프라 서비스 수요 증대,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도시개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최초로 도입하여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 등 학계, 연구기관, 실무단체 등에서 도시·환경·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도시대상 평가단을 구성하고,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4개부문 72개 지표에 대한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할 만큼, 지자체 도시행정의 질을 면밀히 측정하는 권위 있는 평가이다.

파주시는 2016, 2017년 국토교통부 장관상에 이어 2018년에 대통령상, 2019년에 장관상, 2020년에 특별상 수상으로 5년 연속 도시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경기일보

2018년 11월 01일 목요일 01면 종합

PAJU

파주시가 경기북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도시브랜드의 최고 명예인 '도시대상(大賞)'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인정받았다. 지난 1999년 7월7일 파주군에서 파주시로 승격된 지 22년만이다. 파주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원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도시의 날' 시상식에서 2018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시장부문)을 받았다. 지난 2016~2017년 도시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3회 연속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파주시 전체인구 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 도시 전경. 파주시 제공

군사·안보 이미지 벗고… 살기 좋은 도시 '대통령상'

시민 안전망 도입, 복화문 재난 서비스 제공
다문화 정착·초등생 맞춤후 활동 적극 지원
바공호수 IR 프로젝트·김소월의 시 다리 등
지역 특성 살린 정준사업 우수 사례로 꼽혀

도시의 날인 지난 2007년 도시에 대한 막연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도시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 근대 계획도시인 수원 화성의 성제를 대(大)(大)일로 제정해 지난 해 첫 시상을 갖는다.

국토부 손정식 1차관은 이날 "파주시가 접경지역에서 도시화를 추구하면서 희망 이주의 접촉성 장애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령화와 저성장을 당연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모하면서 도시 기능을 한층 구원했다"며 "특히 지속 가능한 혁신의 장이 되도록 기술이 집적과 함께 다양성이 인정되고 소통이 원활한 도시로 발바꿈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도시들에 인구절벽과 도시쇠퇴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파주시는 도시설계모델과 지역혁신 리더와 도시개발을 위도하는 늘 젊부대 복표에 가장 적합한 ESSD 도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된다"고 평가했다.

파주시는 도시사회부문 등 '남북한전지표'에서 재난특성·여성안심 지한확보 등 6대 서스템으로 다양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국 최초 시민안전망을 도입운영했다. 이색전략와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융합한 생태·녹색·내생 환경디자인 사업, 공주골 마을을 공육개선사업, CCTV 등통관제센터 24시간 운영, 재해년에 재해취약성 분석을 안성한 2030 파주 기본계획수립, 파주시 중수를 저감하기위해 제수립, 안전관리계획 재정부지계획수립, 재난안전센터 파주산 기반 3년 만속 성장으로 도시재생으소를 제소하고 파주시만의 특화된 새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이다.

지금복지지표'에서는 시민의 건강보건 뿐 아니라 주민 노인지원을 확대한 고령화 사회 대비, 고령자의 복병교통수단 및 자동서비스 추가확보, 지방고등학교 이동권의 증진계획 수립 등 지방 없는 고령화경을 조성했다. 특히 다문화 사회 정착 노력과 소등에고 병과 후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사교육비 경감실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교육격차를 해소한 점에서 더불어 사는 복지를 실현했다고 평가한다.

맞춤지표'에서는 접점부구역 도시 전체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 광안대부브로 브랜딩 코스 경관사업, 수변문화경관문화을 이용한 대중소수 휴식처 프로젝트 사업, 철학이 있는 상생형의 감소 설의 시 다리 등 파주 지역특성을 잘 살린 공간사업에 우수사례로 꼽했다. 관계에 특색해당을 일으킨 도서에이지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경제지표'에서는 투자유치실적로 보은 및 내일홈보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6개 산업단지 추성 추진, 기업지원을 전담할 디어인재발지원·소공인단인고라 자산·클러시장 개석단 파전 등 관내 중소기업 수등 경종 강화, 사회적 경제적발전에 대한 계소를 시작으로 파주지역 특화발전사업과 외국기업 유명 및 지원 등 이나크 파주시 등록업 17% 증가로 제조업체 0%를 개선, 로빈업 비즈니스 도시 에이지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원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1회 도시의 날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파주시 최종환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에의 관광새항이을 특성화를 위한 관람 이주프로 테마테마단 사업, 감정관을 목적으로 한 정보센터 감로델리지가 마을재생 아이디어 경을은 "도시혼경부문" 중 정주시로에서 성공 우수사례로 중했다. 아울러 금촌 원복지구 등 뉴스테이 인계에 적비사업, 주거복지사업의 업종인 임원협력주택 건립사업, 소외계층 노후 일반 주택 개보수 대출등 사업 등 저소득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도 호평을 받았다.

'환경지표'인 기후세출저감대 관련, 신재생에너지 지원, 태양인자금융사업을 관리, 대기오염 예경보제 및 상황실 운영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요청적 도시녹화사업수립 30.5% 목표달성, 친기사 농촌 3천리 보급 및 1만호소 설기 설치 촉진사업 구축사업, 전기자동차 주차비 50%감면 등 기후변화 적응 분야별 목표달성과 미래를 앞설한 노력을 보여 심사.

"교통지표"도 경기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협가 3표 연속 최우수 선정,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일환인 바람맞이 자전거 코스 인증제·자전거 안전교육· 예방 캠페인·자전거 부여 , 편화누리길 자전거 도로 조성, 지방의 도로 정비자산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문산역~ 문산행복한다 보행육교 개통,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반계획 수립, 원내접조성과 다양한 친기 행사로 보행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지방재계부문 중 도시이행관리지표'에서는 제1차 성장관리방안 분명 및 제2차 성장관리방안 주요으로 난개발 방지 실행, 파주시와 시흥의 경계, 마을단위계획, 농촌융합기사업의 기고 역할을 하는 다양한 중간조직재탕 강화, 다양한 비행을 통한 시정홍보로 주민의 참여 분위기고 주민자치 인단 경제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주민, 전문가 참여도를 향상 시킨 노력 등도 한모한다 지자체를 앞도했다.

파주=유재성기자

인터뷰 최종환 파주시장



"통일경제특구 반드시 유치… 한반도 평화수도 완성"

"지역민의 삶과 함께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받는 가장 권위 있는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파주의 도시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쁩니다"

취임 3개월만에 국내 도시분야에 최고 권위인 국토교통부 주최 '2018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종환 시장은 "남·북과주 교통체계를 도모하는 도시철북과 특별한 도시발전 전략이 심한 덕분"이라고 수상 배경을 짐작했다.

그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파주시 도시 철북을 '대륙교통이 다육 뻗은 파주' 등 8개 분야에 집중, 지금보다 더 도시경쟁력을 확기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현재 38도에 불과한 버스와 철도 수송분담률을 경기도 평균인 37%까지 끌어올리고 5%에 불과한 철도분담률을 확기적으로 높여 철도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연내에 GTX 연내 착공은 물론 SRT·KTX의 연계를 추진하고 KTX 서울기지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파주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부산으로 가고 목포로 가는 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과 조리금촌선 연장도 명격 시작하고 경의중앙선은 금릉역사를 증축시켜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아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부모의 양육부담은 줄이고 교육과 보육 공공성을 확대한다"며 "북한 노동시설을 국공립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2% 수준인 교육예산을 3%까지 높다고, 경기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중학교 교복지원과 고등학교까지 급식지원을 확대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에 편복생도록 편의하고 노인 등에게 복지관 추가 건립도 약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파주의자도 도로망 및 기반의 산업단지를 차 활발히 추진하면서 트램과 R&D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 IT·의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규제개혁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을 많은 새롭고 하면 일자리는 인접이 내비 청년상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원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본만에니라 문화공간과 관광지로으로 전통시장을 특성화하고 명소소배상과 대형마트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공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 시장은 "통일경제특구를 반드시 파주에 유치, 한반도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며 "관문공을 개발, 국제평화전략센터를 설치해 파주고 접근권과 DMZ 평화선지역의 자연생태 자원을 아이키기 있는 파주문화사업센터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유재성기자

접경지 군사 안보 이미지를 넘어,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탈바꿈

도시대상의 수상은 기존의 군사 안보 이미지를 벗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파주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장호수공원 휴 프로젝트 개장으로 수도권 관광명소 육성, 舊 집장촌을 재구성한 법원읍 빛의 도시, 9개 마을을 테마화한 광탄 아우트로시티, 적성 감악산 힐링 테마파크 등 주민참여형 마을 재생 프로젝트, 탄현 통일동산 재정비 및 관광특구 추진,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 유치, 전국 최초 광탄경매시장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파주시의 노력과 우수한 도시경쟁력이 입증 된 것이다.

또한 파주에서 강남까지 20분안에 도달하는 GTX-A노선 확정, 택지개발, 재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확한 인구 추계 반영, 시민 참여형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난개발을 방지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통해 정주하고 싶은 도시 만들기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 시민안전콜 도입으로 파주시만의 특화된 재난서비스 제공,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등 안전한 도시 조성과 독서바람열차, 별난독서캠핑장 등 문화,교육,복지,환경 등 모든 시정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인정받았다.

누구나 살고 싶은, 시민이 행복한 파주

2018년 대통령상을 포함하여 5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은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파주시와 시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과 고민위에 구현된 다양한 정책과 시민들의 참여가 도시를 만든다.
더 나은 도시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참여가 계속되기에 남북교류 협력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서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따뜻한 파주 만들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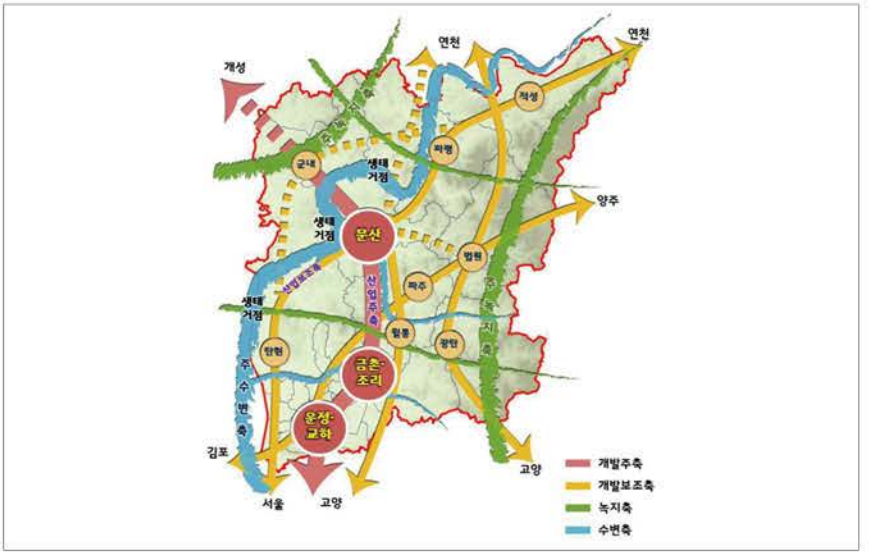
부서명 도시개발과 | 담당자 황지원(940-4701)

3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추진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개발수요가 많은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으로 기반시설이 확보 된 계획적인 개발 유도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구상도

성장하는 파주! 살고싶은 도시를 그리다

2018년 수립한 「2030 파주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 된 파주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했다.

도시개발 및 제반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도시계획 목적이 상실된 계획과 주민불편을 초래한 계획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에 집중했고, 2020년 7월 1일자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리방안 검토를 실시했다.

이는, 시민에게 어렵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을 도시계획을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였다.

또한, 개발압력이 높은 파주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관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방안 수립(2차)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재정비, 시민 공감 우선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19년 11월 주민 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용도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등 시장 권한사항을 변경결정 하였고 도지사 결정 권한사항인 용도지역과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경기도에 신청하였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검토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현황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계획내용으로 시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사항을 찾아내어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으로의 변경이었다.
우선,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검토하여 총 6개소(변경 2개소, 신설 4개소)의 자연취락지구를 변경결정하였다.

변경결정 된 2개소의 자연취락지구는 주민의 토지 편입 요구를 수용한 사항이며, 신설 4개소는 구역지정 기준에 충족 된 지역이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으로 대상지 거주민은 주거환경 보호와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 현황(2020. 6.)

연 번	지구명	위치	내용	면적(㎡)	비고
			–	669,871	
①	장파	파평면 장파리 368–2일원	변경	345,402	증 3,597㎡
②	두지	적성면 두지리 88–4 일원	변경	19,010	증 1,169㎡
③	연풍1	파주읍 연풍리 335–30 일원	신설	107,536	–
④	법원	법원읍 법원리 388–5 일원	신설	102,416	–
⑤	가야	법원읍 가야리 379–12 일원	신설	36,118	–
⑥	구읍	적성면 구읍리 129–2 일원	신설	59,386	–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은 파주시 도시지역 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검토하였다. 현재 토지이용 현황과 시설결정 사항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도로 67개 노선의 변경(변경 59개, 신설 5개, 폐지 3개)과 주차장 8개소와 공공청사 4개소 등 총 29개 시설을 변경 결정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사례

– 기 개설된 현황도로 및 지장물을 고려한 일부구간 연장 축소
–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한 선형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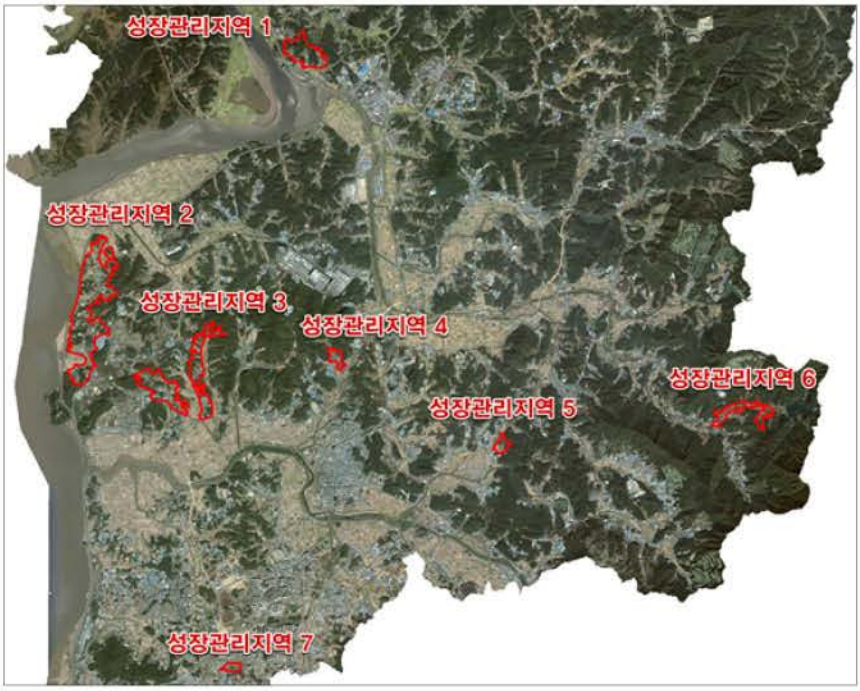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검토하여 문산읍 당동리를 비롯한 7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9. 6. 28.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시는 2016년 10월 1차로 운정신도시 주변인 야당동·신촌동 일원 6.98㎢를 성장관리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번 2차 대상 지역은 문산읍 당동리, 탄현면 대동리·성동리·갈현리 일원, 맥금동, 월롱면 덕은리, 조리읍 오산리, 광탄면 기산리, 동패동 일원 등 총 7곳 6.262㎢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기반시설 계획은 '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도로확보 및 개설의 방법을 정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기숙사 개발 시에는 진입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개발행



제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현황조사를 기초로 하여 구역(주거, 복합, 공업)을 구분하고 구역별 건축물의 용도계획과 완충공간 조성에 대한 환경관리계획도 수립했다.
또한, 기반시설 편입면적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완화와 구역별 권장 용도에 맞는 건축물 신축 시 건폐율 3% 완화 적용토록 하는 인센티브 계획도 마련했다.
성장관리방안은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기반시설이 확보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둔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2020년 9월 용도지역 별 개발밀도(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의원발의 되었다.
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관련법(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한 최대치로 완화하고, 상업지역은 현재 운용중인 건폐율에서 10% 완화, 용적률은 200% 완화하는 사항이다.

시 용도지역 전체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는 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

으로 용도별 수요 예측과 기반시설 용량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가 초래하게 될 다양한 도시문제(교통난, 주차난, 열악한 교육환경, 일조권 등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해서이다.
또한,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이니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과 별도로, 최근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인한 농지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시와 연접한 고양시 등에서 허가대상이 되는 농지성토 높이를 제한함에 따라 우리시로 불법 성토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여 2020년 11월 농지성토 높이를 제한(2m→1m)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의회 심사에서 용도지역 별 개발밀도 완화 건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농지성토 제한 건은 불법성토에 대한 단속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조례안을 보류하였다.

용도지역 별 적정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결과가 도출되면 시민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농지성토 관련해서는 농지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변화하는 도시에 맞춤형 계획 수립으로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로 일보 전진 기반 마련

시민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초래했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을 조정한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리라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또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은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수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시민을 보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되어야 함을 늘 상기하며 시민 의견을 듣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파주시는 성장과 변화의 도시다. 여건과 정책의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파주시의 특성화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재정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부서명 도시개발과 | 담당자 김혜영(940-4703)

4 원도심 가치,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따뜻하고 공정한 활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

2018. 10. 22.
도시재생과 신설

2019. 5. 2.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착수

2019. 10. 21.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2020. 7. 8.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조건부 의결



법원읍 문화창조빌리지

쇠퇴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도시재생 추진전략 필요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성 시가지의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규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업 후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들은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 방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 붕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로 원도심은 인구감소가 심각하고 기반시설부족, 노후주거 등 물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업, 독거노인, 보육, 건강, 교육, 범죄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등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 재건축, 재개발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파주시 원도심 및 일부 쇠퇴지역의 경우 노후된 주거지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고령화로 인한 지역경쟁력 감소, 접경지역에 따른 일부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체계 정립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였다.

이에 파주시는 민선7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담아, 도시재생사업 을 총괄하는 주체로 2018년 10월 22일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였으며, 2019년 10월 21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 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의 추진방향 및 비전·목표, 지원방향 등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선정하는 도시 차원의 중장기 전략계획이다.

파주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5월 2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19년 6월 14일 주민 200명에 대해 도시재생전략계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사전설명회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획 사전설명회 개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2020년 2월 17일 주민과 전문가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2020년 3월 16일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0년 4월 29일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2020년 7월 8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상정되어 조건부의결 처리되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파주시의 변천과정 및 현황, 주요제약사항을 검토하여 인구 감소 및 사업체수 감소, 20년이상 노후건축물이 50% 이상 차지하는 쇠퇴지역 8개소를 파악하여 이들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쇠퇴진단 및 정책·전략을 평가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한 5개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따뜻하고 공정한 활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

파주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원도심 내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활력을 회복함은 물론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 참여기반 조성 및 지역의 도시재생역량 강화, 도시재생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회복을 통해 파주시를 따뜻하고 공정한 활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 해나갈 계획이다.

부서명 도시재생과 | 담당자 이준희(940-5721)

5 마을살리기 사업 활성화

주민이 주도하는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으로 마을에 활기를

2019. 7.
읍면 지역 마을살리기 팀 신설

2019. 9.
동자역마을공동체팀 신설

2020. 2. 14.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2020. 3. 14.
파주시 마을살리기 위원 회구성

2020. 4. 6.
파주시 마을살리기 공모 사업 선정 (19개 사업)



적성면 마을살리기 (마지리 벽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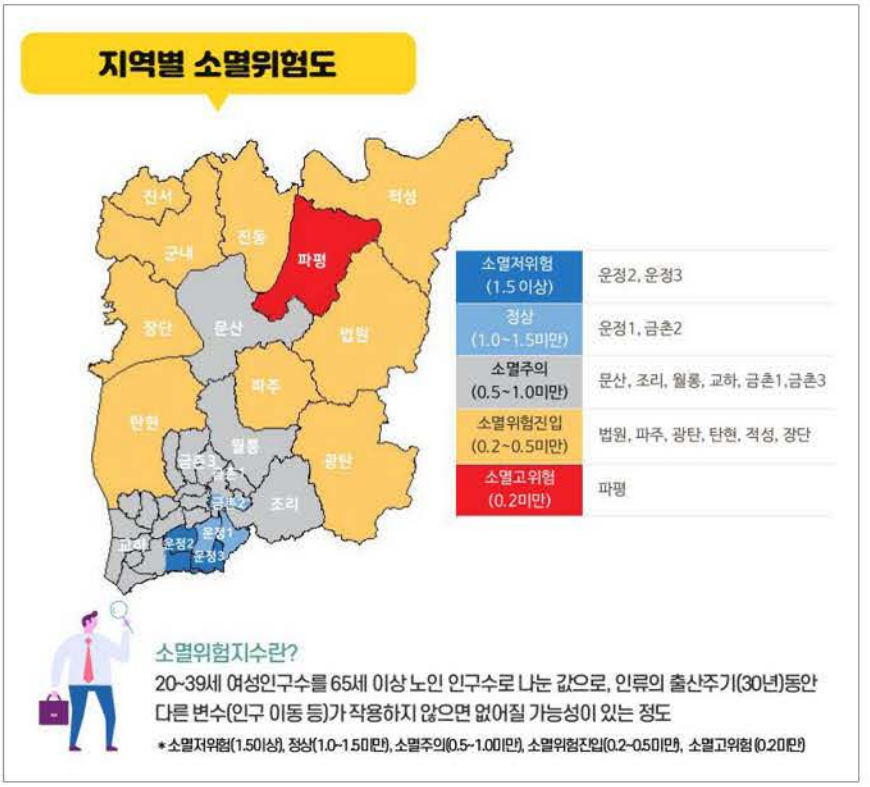
마을살리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동안 파주시는 교하 및 운정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사업에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면밀히 살펴보면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난 반면, 적성·파평·법원 등 농촌지역 중심으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파주시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읍면 지역에 경제활력과 인구유입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 마을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인구 속에서 약화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파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도시, 평화를 품은 생태도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파주시 '마을살리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더 이상 관(官)주도가 아닌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직접 마을을 계획하며, 여기에 파주시의 작은 도움이 더해져 지속가능한 마을, 젊은 일자리가 늘어나 다시 찾는 젊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파주시 마을살리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파주시 소멸위험지도



주민이 주도하는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시작

2019년 7월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읍면지역에 '마을살리기팀'을 그리고 같은 해 9월 동지역에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마을공동체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시작했다. 담당팀장과 직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우리 마을 상상더하기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했고, 도시재생의 전문가인 '천천히 재생'의 저자 정석 교수를 초청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2020년 1월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2월에는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3월에는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마을살리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살리기 사업에 깊이를 더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였다.

공모사업에는 25개의 사업이 접수되어 읍면지역은 파주5리 마을살리기 협의체가 신청한 '술이홀 마을에서 놀고 배우고 나누는 우리'라는 사업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동지역은 우리동네 친정엄마가 신청한 '우리동네 공공육아 함께 키움'이라는

토론회 강연



창의숭신 벤치마킹('19. 11. 27)



정석교수 초청강연('19. 12. 20)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파주5리 마을살리기 협의체 활동



교하동 우리동네친정엄마

사업에 3천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마을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마중물 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대해 2억 8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을이 살아야 파주의 미래가 있다.

1년간 마을사업에 파종하고 물을 주어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2021년이면 가시적인 성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시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외에도 정부 그리고 도에서 주도하는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 및 지원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신도시의 인구증가 외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역 마을이 살아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파주의 미래가 있다.

11월 말에는 제5회대한민국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최초로 읍면동 단위에 마을살리기팀을 신설하고 마을별 간담회,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주민 중심의 마을살리기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경기도 주관 행복마을관리소 평가에서 문산읍 선유4리 최우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0년 연말에는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의 추진과정과 경기마을공동체 우수활동사례 발표회에서 최고마을상을 수상한 사례 '놀,잇다' 등 다양한 활동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와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였다. 앞으로 일회성사업이 아니라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파주시 마을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서명 도시재생과 | 담당자 신민철(940-4647)

파주형 마을살리기의 시작과 도약

지역마다의 색깔과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살리기 추진성과

파주시는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고
인구소멸과 농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가 지닌 다양한 지역자원과 스토리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파주만의 공동체 마을, 자연환경과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지역마다의 색깔과 자생력을 꽃 피우기 시작한 파주형
마을살리기의 성장과 도약의 과정을 읍면별로 담아보았다.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문산읍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마을살리기

- 도시형 마을 살리기(복지·안전·환경) :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문산 노을길 꽃밭 조성
- 농촌형 마을 살리기(문화·관광특화·소득증대) : 마정2리 평화를 빚는 마을 조성

문산읍의 과거와 현재

문산읍은 임진강의 수운을 끼고 형성된 파주의 지리적 요충지이며 경제발전의 핵심 지역이고, 도시형태의 마을과 농촌마을이 서로 공존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의 마을이다.

인구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61년 20,198명의 인구가 1970년대 초반까지 소폭씩 증가하였고, 1973년에는 인구 3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해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월롱면 내포리를 편입하며 기존 임진면에서 문산읍으로 승격하였고, 1983년 2월 15일에는 파평면 이천리 일원을 문산읍에 추가 편입하여 소폭의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운천리와 임진리 등에 소규모 패키지 전원마을이 들어섰으며, 최근까지 그 외의 지역에도 소규모 전원주택 형태의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주거형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2005년 이후 문산읍 인구는 꾸준한 증가폭을 보였는데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및 당동, 선유첨단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이 크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문산리, 당동리, 선유리 등 3개리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다. 또한 소규모 택지들을 활용한 연립주택단지(원룸단지)가 상당수 조성되면서 기존주택들과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 소규모 연립주택들이 혼재된 도시화가 진행됐으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변화와 주변지역의 대규모 상권 형성 등으로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12월에는 문산읍 인구가 5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2020년 12월말 현재는 48,51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문산읍은 2020년 12월 현재 10개 법정리(43개 행정리)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주거 형태는 도시화된 문산리, 당동리, 선유리의 아파트 단지와 이 지역을 제외한 곳은 농촌 지역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산은 남북이 분단된 오늘날에도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중심지이며 미래 통일시대 평화도시로서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각종 정책 구상들이 문산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어 문산은 미래시대를 향한 무궁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살리기 사업 추진 계기



제막식


파주시장 축사

그 동안 문산 지역은 지속적인 아파트단지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 5만의 도시로 성장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쇠퇴, 폐가 발생 등으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는 지역도 발생했으며,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마을도 있어, 앞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문산읍에서는 도시형 마을살리기와 농촌형 마을살리기를 위해 집중 지원하여 일터 + 삶터 + 놀터가 있는 특화된 마을을 조성, 이를 토대로 다른 마을의 모범사례로 삼고,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문산을 가꾸어 나아갈 계획이다.

문산읍 도시재생과 마을살리기 추진 현황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프로젝트-도시형 마을살리기(복지·안전·환경)

선유4리는 과거 미군이 주둔하던 지역으로 미군기지 이전 후 마을이 슬럼화 되었으며 현재는 2,068세대(5,288명)에 취약계층이 900여 명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마을순찰 활동



아동 등 · 하교 안전지킴이 활동



마을환경정비 활동



야간 민원 해결



주민복지 상담



취약계층 집수리 활동



마을회의



전통사물놀이 두레패 활동



마을 환경정비



마을 효도잔치

이에 문산읍은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선유4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뜻깊은 결과를 이뤄냈으며, 2019년 12월 2일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첫 출발을 알리는 개소식을 가졌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서는 문산읍 선유4리가 최초로 마을회관 2층에 문을 열었으며, 경기도에서는 18번째다.

8명의 행복마을지킴이와 2명의 사무원이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2교대로 선유4리 주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개소 이후 지역순찰, 위험관리 등 안전확보 분야 2,125건, 환경정비 등 지역환경개선 1,997건, 독거노인 돌봄, 집수리 등 취약계층 도움활동 731건, 주민불편해소 283건 등 살기 좋은 선유4리를 만들고자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2020년 11월 20일 경기도 41개 행복마을관리소 중 최우수 행복마을관리소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낡고 오래된 빈집과 건물을 철거해 커뮤니티 정원을 만들고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꽃밭을 조성해 도시미관을 개선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여 실행하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마을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커뮤니티 마을정원 조성





선유4리 마을 가든 콘서트



선유4리 행복마을관리소 최우수 수상

마정2리 평화를 빚는 마을 프로젝트-농촌형 마을살리기(문화·관광특화·소득증대)

마정2리는 접경지역 최북단에 자리한 마을로 인구 279명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분단 이후 남북관계, 주변 안보관광자원의 개발 등 피해와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마을이다.

그러나 마정2리는 연간 6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임진각과 불과 1㎞, 자유IC와 0.6㎞ 등 외부에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한수위 파주쌀, 장단콩, 마을두레패 등 특화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마을로 농촌 관광특화마을을 조성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다.

또한 주민들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염원이 간절하며,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등이 연합하여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특성화 사업 1단계에 선정,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마을리더 발굴, 주민교육, 마을콘텐츠 개발 등 마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완료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의 높은 결속력과 참여도로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마정 꿈틀 프로젝트'를 통하여 침체된 마을의 소득증대 등 마을살리기를 이루고자 하는 준비된 마을이다.

마정2리 주민 협의체는 지난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특성화 사업 2단계 공모사업을 신청 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아 금년도에 새롭게 평화를 빚는 마을 프로젝트로 재도전 하였다. 2단계사업은 특산물판매장, 마을식당, 마을카페,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연간 600만명 이상 찾는 임진각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3단계 사업으로 마을체험장, 숙박시설 등 단계별 사업 확대로 「관광특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정2리 2단계 사업은 평화를 빚는 마을 프로젝트로 특산물판매장, 마을식당, 마을카페,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연간 600만명 이상 찾는 임진각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3단계 사업으로 마을체험장, 숙박시설 등 단계별 사업 확대로 「관광특화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위와 같은 계획으로 202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특성화 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도전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마을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작하였다.

"마정2리 평화충전소"

주민들은 평상시 이용하지 않는 마을 내 민방위대피시설을 마을 박물관으로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를 내었고, 지난 2020년 11월 17일 (사)아시아문화네트워크의 지원으로


평화충전소


개관행사


전시관내부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마정2리 평화충전소를 완성하였다.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과 노력의 결실로 탄생한 마정2리 평화충전소는 접경지역 최북단에 있는 마정2리라는 마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마정리 마을 살리기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문산뉴딜 일자리, 문산노을길 꽃밭 조성-도시형 마을살리기(복지·안전·환경)

문산읍에서는 2020. 문산뉴딜 희망일자리 157명을 선발하여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간 마을환경정비, 주요 통행로 제초작업,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 처리, 주


발대식


환경정비


위험수목 전지작업


도로변 제초작업


문산천 꽃심기


문산천 가꾸기


문산노을길 코스모스


문산노을길 파주시장 방문


문산노을길 야간경관

요 관광지 정비, 불법광고물 제거 등 마을 구석구석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 하였으며,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마을살리기를 추진하였다.

또한 문산노을길 공유지 약 1만평 이상의 부지에 국화, 코스모스를 심고, 주변 경관을 정비하여 문화여가 공간이 부족한 문산 주민들에게 새로운 쉼터가 되었으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문산노을길은 공동체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문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향후 문산읍 마을살리기가 나아가야할 방향

문산읍은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고, 도시마을과 농촌마을 각각의 고유한 장점을 융합하여 문산읍만의 마을살리기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도시마을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기존 주민과 이주민 등 주민 간 화합을 추진하고 이에 발맞춰 주민 자체적으로 폐가, 우범지대 등 마을의 취약지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몰락해가는 옛 시장과 상가거리를 소생시켜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한층 더 활기찬 도시마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농촌마을은 마을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특색 있는 농촌마을로의 발전과 변화를 꾀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객을 유치,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공모사업은 마을주민과 문산읍 마을살리기팀, 파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지역여건에 적합한 촌재생을 통해 마을 인구 유출 방지, 외부인 유입 등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문산읍 마을살리기는 도시미관·마을환경 정비가 기본이라는 생각아래 마을 구석구석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 하나하나를 기반으로 도시마을과 농촌마을 각각의 고유한 장점을 융합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루고 인근 마을로 차근차근 확산해 나아가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문산 살리기를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부서명 문산읍 | 담당자 최승덕 (940-8016)

조리읍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봉일천 숨길'과 주민주도적 마을살리기

- 봉일천 유·무형 근대문화자원 발굴(8곳) 및 홍보관련 소식지 발간(봉일천 story)
- 장곡1리 주민참여형 '텃골공릉호수정원' 조성
- '재봉라이프' 마을공동체 구성을 통한 재능기부 및 수익창출로 마을살리기 본격화 착수

조리읍의 역사

조선 광무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파주 관하 조리동면(條里洞面)으로 명칭. 1914년 4월 1일 군면폐합으로 교하군 아동면 등원리, 아동리 일부, 지석면 상지석리 일부, 고양군 사리대면 설문리, 지영리 일부를 병합하여 죽원·뇌조·오산·장곡·봉일천·등원 등 6개리로 개편 조리면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군조례 제1252호에 의거 교하면 상지석리 일부를 능안리로 개칭하여 조리면에 편입 관장하고 2002년 4월 1일 조리읍으로 승격되었다.

조리읍의 명칭은 공릉산 정상에서 사면으로 뻗은 가지모양의 산줄기를 따라 골짜기 마다 마을일대가 형성되었다하여 붙은 이름이다. 또한 파주의 관문이라 할 만큼 서울, 고양시와 인접해있는데 통일로를 따라 파주를 진입하면 파주삼릉, 하니랜드, 공릉호를 만날 수 있다.

한때 미군부대가 캠프하우즈에 주둔하여 봉일천 일대가 흥했으나, 2004년 미군부대가 철수 이후 주변 상권이 무너짐에 따라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조리읍 마을살리기 추진배경

캠프하우즈 일대 개발계획이 미뤄지고 지역 상권 쇠퇴, 노령인구의 증가, 타지역으로의 전출, 주민 연대감 상실 등 슬럼화 지역이 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주민들은 우리 스스로가 조리읍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016년도부터 도시재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소수의 주민들이 본인들의 자비를 들여 마을 곳곳을 조사하였고 경기도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리읍 마을살리기팀이 신설되면서 정식으로 조리읍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마을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리읍 마을살리기 추진 현황

조리읍은 현재 봉일천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봉일천 1, 6, 7리 일대를 근대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2020년 경기도형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천원을 확보하였다. 2020년 11월 조리읍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근대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마을소식지 발행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3월 봉일천 근대문화거리 축제 개최를 목표로 하고있다. 또한 주부들로 이루어진 재봉공동체 '배워서 남주자!!'를 결성하여 마스크, 장바구니 제작 등 재봉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소득창출 모델 연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마을공동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마을에서 마을살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별 특색있는 유·무형 자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마을살리기의 기본인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봉일천 역사의 '숨길'을 열다.

조리읍 마을공동체협의회는 지난 2019년 12월 봉일천 전통시장 구역을 중심으로 산재한 유·무형의 근대 문화 자원을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구성됐다. 봉일천 전통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 23일 봉일천의 중심가와 재래시장 일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등록 받았고 현재 130여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이런 결과에는 조리읍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로써 봉일천시장이 각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조리읍 마을공동체 협의회는 지난 2017년 마을살리기 최고지도자 과정에 참여해 조리읍의 역사·문화 자원을 찾게 됐고 이후에도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과 각종 공동체 교육을 스스로 찾아 공부하며 2018년 경기도 북부도시대학에서는 마을살리기 사업계획 발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조리읍의 마을 스토리를 토대로 하여 역사적 가치를 되살려 마을살리기에 나섰다.

조리읍의 '봉일천숨길'은 '역사에도 숨길을 불어넣어야 썩지 않는다'는 의미로 붙여진 프로젝트 명이다. '봉일천숨길' 대상지는 봉일천주재소, 민영달불망비, 3·1운동 기념비, 송암농장 터, 봉일천주막, 1사단CP(봉일천초등학교), 대원교회, 봉일천시장(공릉시장) 등 봉일천 시장을 중심으로 밀집된 역사 자원 총 8곳이다.

봉일천 근대문화자원 8곳



봉일천 "숨길" 역사 자원의 유래

봉일천 숨길에는 1894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민영달불망비'가 있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앞 오른쪽 자락에 자리한 불망비는 조선 말기 문신이자 명성황후의 종형제로 내무대신을 지낸 민영달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으며 지역 민원을 처리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고 있다. 민영달은 당대 정객인 이완용, 이윤옹을 조종할 정도로 수완이 있다고 전해지며, 1986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독립유공자로 지명됐다.

조리읍의 봉일천주재소는 공릉장터에서 3천 명이 만세 시위를 하던 중 일본 순사의 총탄에 6명이 순국한 역사적 장소다. 봉일천 장날의 만세사건은 심상각의 주도하에 김웅권, 권중환, 심의봉, 이근영, 이종구, 유영 등이 주도해 파주는 물론 고양시 일부까지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시위는 파주에서 전개됐던 3·1운동 중 가장



민영달 불망비



봉일천주재소(예상이미지)



3 · 1운동 기념비



송암농장 터



대원교회

대규모적이고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희생당한 분들을 기리는 3·1운동 기념비가 1978년 3월 1일 건립됐다.

광복 이전을 기준으로 조리읍 봉일천에 위치한 마지막 역사 명소는 '송암농장 터'이다. 봉일천4리에 위치한 송암농장은 1930년대 초 조병학 씨가 봉일천4리의 전답 약 13만 평의 땅에 설립한 곳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경지정리 작업을 시행한 곳이기도 하다. 그 당시 경지정리는 혁신적인 과학 영농이었는데 경지정리에 따른 소출증가로 재산도 많이 불어났다고 한다. 일제말기 일본의 탄압에 의해 어려움에 빠진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파주 땅과 양주, 충남 당진, 아산 등지의 농지와 대지 60만평을 기부하고자 했으나 병환을 얻어 작고했다. 이후 아들 조중환 씨가 선친의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산을 기부하여 '연세대학교백년사'와 '의학백년사'에 기록돼 있다. 봉일천4리는 조병학씨의 호 '송암'을 따서 송암동이라 불린다.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원교회는 1901년 설립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1949년 대원교회소속 주일학교 학생 36명이 봉일천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우상숭배라며 국기배례를 거부하다 퇴학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그



1사단CP(봉일천 초등학교)



봉일천주막(예상이미지)



마을소식지(봉일천 Story) 발행



봉일천 '숨길' 안내 표지판

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주재로 국기배례를 주목으로 바꾸는 국민의례가 재결정돼 학생들이 다시 복교되었다고 한다. 대원교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 방식을 신설하게 된 계기인 곳이다.

봉일천은 6·25 발발 직후 일선에서 밀려 내려오던 1사단이 1950년 6월 28일 봉일천 국민학교에 1사단CP를 차리고 마지막 저항한 곳으로 유명하다. 국군은 수일간 적과 맞서 끈질기게 싸웠지만 더 이상 항전이 불가함을 알고 후퇴를 결행, 경기시흥에서 합치거나 지리산에 들어가 게릴라가 되자며 철수한 곳이 바로 봉일천이다. 1사단 CP는 6·25전쟁 역사상 최초의 반격 작전을 짰던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봉일천주막은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작품 속에 등장한다. 조지훈의 '봉일천주막에서'란 시에는 '여기는 파주땅 봉일천리, 주막집 툇마루에 앉아 술을 마신다'라는 구절이 있다. 현재는 터만 남아있지만 조리읍 마을공동체협의회는 조지훈 시인 작품을 토대로 봉일천 주막을 복원해 마을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릉시장

마지막으로 봉일천 '숨길' 프로젝트의 주축이 될 봉일천시장(공릉시장)은 중부지방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곳이다. 19세기 초 간행된 '만기요람'에는 당시 8개도 327개 군에 개설된 1031개의 장시와 경기도의 장시 102개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최대 규모가 큰 15개 장시를 설명한다. 경기도는 광주의 사평장·송파

장, 안성의 읍내장, 파주의 공릉장(봉일천장)등이 전국 최대의 장으로 거론됐는데 파주의 봉일천시장은 조정의 주도하에 개설된 대장시다. '영조가 공릉·순릉·영릉 삼릉을 행행하면서 입구가 공허해 동구 밖에 장시를 개설해 능침의 공허한 곳을 방어하게 하고, 그 장세를 취해 장민의 민행을 지원했다(승정원일기, 고종32년 윤5월 을사)'고 기록돼 있다. 영조가 특별히 설치한 조리읍의 봉일천 시장은 2, 7일에 5일장이 열리고 있다.

파주를 대표할 근대문화마을 봉일천 '숨길' 추진 계획

조리읍 마을공동체협의회는 '숨길' 프로젝트를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로 나누어 마을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1단계 단기계획은 공동체 활동과 우리지역 근대문화유산을 홍보하는 것으로, 2020년 11월 근대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봉일천 '숨길' 안내표지판을 각 근대문화유산에 설치완료하였으며, 조리읍 청사기록화 사업을 통한 청사기록책자 발간,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마을소식지(봉일천 Story) 발행을 완료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을소식지 발간을 통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2단계 중기단계로 2020년 11월 근대문화거리축제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미뤄져 2021년 3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 축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거리축제를 기획하여 근대문화 유·무형의 역사 자료를 이용한 축제 콘텐츠로 개발할 예정이다.
3단계 장기계획으로 조지훈 시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봉일천 주막을 복원해 공릉장터국밥을 재현하고, 봉일천 주재소를 복원해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근대문화마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지로 위상을 높이며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침체된 조리읍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곡1리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텃골공릉호수정원'

조리읍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장소 중 하나인 공릉호는 시원한 전경과 푸른 산세가 어우러져 주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소이다. 또한 바로 옆에 하니랜드가 있어 가족들이 방문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장소로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뛰어나다.

장곡1리 마을회에서는 이곳에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마을회의를 통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파주시에서 개최한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공모사업에 신청, 20년 3월 2등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50,000천원을 확보하였다.






마을주민들이 협심하여 매일매일 정원을 조성하였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자체 분과(담당구역제)를 구성하여 매월 주기적인 정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정원이 자리를 잡게 되면 마을 축제를 통해 외부사람들을 초청하여 장곡1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마을정원은 이웃끼리 정원을 가꾸면서 얻는 즐거움, 치유, 이웃 간의 이야깃거리가 있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어 타 마을에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상수도를 끌어와 여름에는 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쿨링포그, 정자 등을 이용하여 무더위 해소에 이바지 하였다.

파주형 마을공동체 우수프로그램 선정(재봉공동체 '배워서 남주자!!')

재봉공동체 '배워서 남주자!!'는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마스크 제작과 재봉틀에 관심을 갖게 된 봉일천 주민들의 모임으로 홈패션도 배우고 만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만든 공동체이다. 재봉틀을 이용하여 홈패션 만들기를 수강하고 함께 만든 면마스크와 앞치마를 저소득층 가구, 장애우 가족 및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봉일천 1, 6, 7리 경로당을 이용하여 매주 목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수강 및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마스크를 제작하여 나눔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마스크를 나누어 드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차후에는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





풍부한 역사유적, 생태자원에 접근성까지 더해져… 성과가 기대되는 조리읍 마을살리기

조리읍은 풍부한 자연환경, 역사유적, 생태자원이 있고 조리를 관통 예정인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후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근대문화유산 및 공릉호 등 뛰어난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해 파주의 메인 거점으로 거듭나 소득, 일자리 및 인구유입의 삼위일체를 이루어 진정한 마을살리기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체 대표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파주시의 도시재생과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민 비대면 교육, 사업 컨설팅 등 지속될 코로나19여파에 대응할 계획이다.

부서명 조리읍 | 담당자 이현기(940-8137)

법원읍

천혜의 자연환경과 마을별 인문학적 특성을 활용한 마을살리기

- 초리골(법원4리) "파주의 알프스 마을을 가다" 눈내리는 초리골 겨울축제 행사
- 비학마을(직천2리) "산수화를 품은 비학마을" 고로쇠(마을공동) 판매
- 가야2리 "꽃보다 할매·할배" 농산물 수확 및 판매

법원읍의 과거와 현재

파주시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법원읍은 율곡 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자운서원과 윤관장군이 상서로 있을 때 여가를 틈타 시문과 휴양을 즐기던 상서대, 신석기유적기 등 역사유적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비학산, 사방산, 직천저수지, 애룡저수지의 생태자원과 2018년 12월 국지도56호선 완전 개통으로 서울, 고양 등 대도시와의 1시간내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법원읍은 한때 60년대 후반까지 미군부대가 주둔할 당시 3만 5천명의 주민이 거주했을 정도로 파주시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미군부대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상권이 쇠퇴하고 인구가 줄어들었으며 설상가상 법원읍 오현리, 적성면 무건리 일대에 대규모 군부대 훈련장까지 조성되어 현재는 인구수가 70%가 감소한 11,132명('19.12월)대로 줄어 들었다.
금촌, 문산, 운정신도시 지역 등으로 빠져나가는 등 주민 이탈속도가 가속화 되어 결국은 파주시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심한 지역이 되었다.

마을살리기 사업 추진 계기

인구감소와 주택 및 상가의 공실로 인한 슬럼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는 마을의 현실은 법원읍 주민들로 하여금 태어나고 자라온 삶의 터전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스스로 내 고향을 지켜가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기존 마을 내 고령자가 많아 마을을 바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귀농·귀촌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주민들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함께 서로의 장점을 활용, 융합하여 마을을 살려야겠다는 주민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를 '마을공동체'로 운영하면서 마을의 문제점 및 발전을 위해 주민스스로 조직하여 운영하고자 '영농조합,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법원읍 도시재생과 마을살리기 추진 현황

법원읍의 도시재생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
법원읍 시내에 위치한 가야4리, 대능4리, 대능5리, 법원6리 일원에 추진되는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사업은 마을과 마을, 주민과 문화의 연결을 통한 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로 주민공동체 정원마을, 빈집활용 예술가 레지던스, 문화창조빌리지, 벽화마을, 놀이마당 문화장터를 주민주도로 문화장터를 주민주도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이다.

또한 법원3리, 대능리를 대상으로 한 "새뜰마을 사업"은 23년까지 노후주택정비, 슬레이트지붕 철거 개량 및 공·폐가 철거, 주민커뮤니티를 조성하여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자존감 회복 및 건강하고 원활한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스스로가 마을별 특색있는 유·무형 인적, 물적 자원 및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의 화합과 소득창출을 만들어가고 있는 3개 마을이 있다.

초리골(법원4리) "파주의 알프스 마을을 가다"

초리골은 해발 300여m의 삼봉산과 장군봉이 휘감아 도는 골짜기 마을로 아름다운 계곡과 마을 내에 민속생활유물이 있는 두루뫼박물관, 청와대를 습격할 목적으로 침투했던 김신조가 넘어왔던 김신조 루트 및 숙영지, 펜션, 캠핑장, 음식점, 까페, 수영장 등이 있어 이전부터 등산객, 트래킹 족, 캠핑 족, 맛집 탐방객과 물놀이를 위해 가족단위 방문객이 자주 찾는 곳이다.
2018년 12월 국지도 56호선이 개통함에 따라 외부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아진 여건을 활용하여 마을주민들 스스로 '초리골 비즈니스클럽'(약칭 초비클럽)이라는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마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에서 초리골의 문제점으로 인식한 등산 후 한끼 식사를 하던 관광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방문객이 장시간 머물러 갈 수 있는 마을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을 공감하여 2019년 1월 타 지역을 견학하여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의 발전 방향을 구상하였다.

2018년 여름 초리골 내 '더 초리골' 이라는 수영장이 개장하여 여름철 가족단위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자 마을주민들도 스스로 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방문객 을 끌어 들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마을공동체에서 초리골 협동조합을 구성하였다. 2019년 9월부터는 매주, 필요시 매일의 분과별 모임을 통해 아름다운 초리골의 골짜기와 겨울철 기온이 낮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얼음썰매장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를 계획하게 되었다. '눈내리는 초리골'이라는 명칭을 정하고 마을주민



마을모임



겨울축제 개장식



겨울축제 얼음썰매장



겨울축제 눈썰매장



초리골 마스코트 '초리'



'초리'와 함께


초리골 마을정원


초리골 분수

들 이 스스로 비용을 모아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2020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제1회 눈내리는 초리골 겨울축제를 개최하였다.

'눈 내리는 초리골' 겨울축제는 약5천여명의 외부 방문객이 찾아와서 얼음썰매장, 눈썰매장, 얼음빙벽 및 야간조명과 먹거리를 체험과 마을에서 개발한 마을의 마스코트 '초리' 캐릭터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즐거운 놀이형 축제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얼음이 늦게 얼어 당초 2019년 12월 개최예정이었으나 2020년 1월로 개최가 늦춰지는 문제점이 있어 축제가 끝나고 마을총회 결과보고 및 자체 진단을 통해 제2회 축제에는 인공눈 눈썰매장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초리골 협동조합에서 준비하고 2020년 4월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공모사업에 '눈내리는 초리골 겨욱축제'를 신청하여 2020년 8월 선정되어 국비4억원과 시비1억원을 확보하여 겨울축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사계절 마을소득을 창출하고자 여름 분수축제로 2020년 2월 파주시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3위에 입상하여 분수대를 설치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여름분수 축제는 아쉽게 취소되었지만 곤충전시장, 전통 떡 만들기 등 체험마을과 제2회 '눈내리는 초리골 겨울축제' 준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마을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직천2리 "산수화를 품은 비학마을"

천혜의 자연환경인 비학산(마을 뒷산에 학이 날아가는 모양의 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의 깊은 산세와 너무나도 어우러져 소복이 담긴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놀고 갔다던 휴식공간을 그린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킨다. 법원읍 직천리에 위치한 마지(직천)저수지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열혈 캠핑족 및 등산객 사이에서는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한 명소이다.

법원읍 직천2리에서는 이와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방문객들이 힐링할 수 있



직천저수지 가을 전경



전망대

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마을 주민, 캠핑장 및 팬션 사업자로 이루어진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하여 마을주민 커뮤니티 및 마을소득 사업장으로 개발하고 마을길 및 마을공터에 꽃밭을 조성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20. 2월에는 청정지역인 비학산에서 나는 지역특산물인 고로쇠를 마을공동체에서 채취하여 판매하였고, 6월에는 마을내 위치한 유휴부지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비학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주변으로 꽃밭을 가꾸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시작단계 이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존 운영되고 있는 개별 사업장들을 연계하여 마을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가고자 마을의 공가를 마을커뮤니티로 변경하여 커뮤니티 내에 쓰고 있지 않은 수영장을 보수하여 물놀이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봄·가을철에는 야영장을 운영, 겨울철에는 저수지 얼음을 이용한 얼음축제로 늘려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가야2리 "꽃보다 할매·할배"

법원읍 가야2리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직접 농작물을 재배·판매해



가야2리 시래기 파종



가야2리 시래기 자연 건조

발생한 수익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도 함께 돕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시범적으로 가야2리 마을회에서 농지 약 2,000㎡를 무상으로 제공해 어르신들이 직접 유기농 시래기를 파종하고 이를 수확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처음 시작하여 어르신들의 생활보조 및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한 바가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했던 사진들을 전시하고 자녀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하여 가족들의 행복한 한때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는 마을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약 13,000㎡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규모와 의미를 확장해 주민과 군장병 등 60여 명이 함께 고구마 및 시래기를 파종·수확하고 2020년 3월 판매하여 마을소득 창출과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동일 장소에 마을공동체에서 고구마와 시래기를 파종하여 가꾸어 나가고 있다.
2020년에도 동일 장소에 마을공동체에서 고구마와 시래기를 파종하여 가꾸어 나가고 있다.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통해 화합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여유가 넘치고 풍요로운 가야2리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마을을 아름답게 마을정원가꾸기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객들의 방문을 촉진하여 마을의 소득증대와 마을주민이 다같이 모여서 꽃을 파종하고 가꾸어 주민간의 화합을 만들어 나가고자 가야4리, 금곡2리, 직천2리 주민들이 마을내 휴경농지, 도로변, 주택내 화단을 활용하여 마을정원가꾸기를 해나가고 있다.


가야4리 마을정원


가야4리 해바리기 그림

직천2리는 직천저수지라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진입로 및 유휴지를 활용하여 마을정원(꽃밭)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환경개선 효과와 나아가 마을정원을 커뮤니티 센터, 캠핑장, 팬션 등 부대시설과 연계 마을소득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야4리는 마을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정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3년 간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점차 정원 조성 활동에 애착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현재 가야4리는 정원 조성 부지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크고 작은 텃밭 정원이 만들어져 법원읍 대표 정원 마을로 탈바꿈하였다.

2020년 사업 참여를 통해 작년에 조성한 마을회관 화단의 정원 범위를 확대하고, 공원부지 산책로 정원 연장과 마을 옆 부지에 매년 주민들이 해바라기를 파종하여 10월경 '해바라기 갤러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앞 공용주차장에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 사계절 해바라기가 피어있는 마을로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읍 대표 정원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하고, 법원읍의 문화창조빌리지, 돌다리 문화사업, 법원읍 희망 및 빛 축제 와 법원읍 시내와 연계하여 읍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법원읍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금곡2리는 마을 주민 및 독서캠핑장 운영진이 함께 마을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이야기가 있는 책마을 속 '동화 정원'을 꾸며 주민과 독서캠핑장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찾아오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별난독서캠핑장, 쇠꼴농원, 고고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위치해 있지만 그에 비해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마을정원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원을 중심으로 리마인드 웨딩, 포토존, 둘레길,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마을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9년 제1회 책마을 속 마을정원 오후 축제를 개최하였고 2020년 7월 제2회 책마을 속 마을정원 오후 축제를 개최하는 등 마을정원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법원읍 마을살리기가 나아가야할 방향

법원읍은 각 마을마다 간직한 고유의 역사유적, 천혜의 자연환경, 풍부한 생태자원에 최근 국지도 56호선 개통으로 접근성까지 더해져 잠재력이 있는 마을이다.

그동안 마을의 문제점과 마을의 자원 등을 잘 알고 있는 마을대표들이 마을살리기에 나설 수 있도록 협의하고 파주시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교육, 컨설



금곡2리 마을정원 가꾸기



금곡2리 마을정원 축제

팅, 자문 등을 통해 지역 내에 마을을 살리려는 의지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 내 기존 거주민들과 외부 이주민들이 서로 융합하여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자생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 할 예정이다.
나아가 마을 내 인적자원과 역사·자연·생태자원을 찾아내고 공유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가 외부인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마을소득을 창출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외부 주민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마을살리기의 최종 목적이 될 것이다.

부서명 법원읍 | 담당자 조경익 (940-8056)

파주읍

'함께 만들고 다 같이 누리는' 술이홀 행복발전소로 마을의 가치 살리기

- 파주시 공모사업과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 "읍면 1등"
  - 마을회관 공터와 쓰레기 투기 장소에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 20년 이상 방치된 마을회관을 활용한 아동 돌봄 공간 조성
  - 경기도 공모사업과 연계, 무허가 건물에서 안전한 공간으로 이전
- 파주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공모 선정(파주시 두 번째)
  - 파주2리~5리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 파주시 처음 경기도 마을정원공모 선정, 연풍3리 '거북정원' 조성
  - 정원디자인 컨설팅, 마을정원사 등 6개 과정 주민교육 및 정원 조성
- 경기도 마을자치 공모사업으로 마을의 가치 발굴 및 공유
  - 마을잡지 '주내 주민(Zoom In)' 창간호 발간
  - 파주읍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 파주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함께 가는 삶' 추진
  - 학부모연합회의 지역연계형 건강한 노후지원사업

행복발전소를 꿈꾸는 파주읍

파주의 중심에 있는 파주읍은 7개 리 32개 마을로 구성된 곳이다. 과거 파주목 겸 방어사를 두었던 군의 중심지였던 파주읍에는 파주향교 대성전, 성혼선생묘 등 역사 문화 자원과 파주시 최초의 초등학교인 파주초등학교 교육박물관, 국가기록원 제2호로 지정된 기록사랑마을 등이 있다.

'행복발전소'를 꿈꾸는 파주읍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마을 활동가 발굴과 주민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며 마을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경기도와 파주시 공모사업에 7개 사업이 선정되어 7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마을의 미활용 공간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주도형 마을 살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파주읍에는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파주리 술이홀 즐겨찾기와 학부모연합회, 연풍리 거북마을 공동체가 있고 주민이 하나 되어 마을살리기 성과를 내고 있는 파주5리 마을살리기협의체가 있다. 또한 연풍 1·4리 개발위원회와 파주목 관아복원 추진위원회는 파주읍 마을살리기 대형 프로젝트인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조성과 파주목 관아복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마을의 다양한 단체와 주민공동체가 연합하여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통해 마을의 가치를 살리고 공유하며"함께 만들고 다 같이 누리는 술이홀 행복발전소"를 꿈꾸는 파주읍을 소개한다.

파주5리, 마을의 미활용 공간을 활용한 마을살리기

파주리는 7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내 시가지를 중심으로 4개 마을인 파주2리에서 5리가 서로 인접한 생활권이다. 파주리는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6~70년대까지는 지역경제가 살아있던 오랜 역사를 가진 구도심이나 주한미군과 지역 업체가 이전하고 운정 신도시로 젊은 인구가 빠져 나가면서 인구가 감소했다.


파주5리 마을회관 전경


마을회관 1층(내부)


마을회관 2층(내부)

2019년 7월, 파주읍 마을살리기팀은 우선 침체된 파주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에 나섰다. 파주5리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제법 규모가 큰 2층 건물의 미활용 마을회관이 눈에 들어왔다. 2층 유리창에 흐리게 남아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예전에 그곳이 마을의 거점 역할을 했음을 짐작하게 했다.

파주5리 마을 이장님과 노인회장님을 만나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예전에 주민들이 직접 마을회관을 지은 사연과 1층은 마을예식장으로 2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했는데 20년 이상 방치된 마을회관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파주리 주민들과 역사


마을살리기사업 주민설명회


파주5리 마을살리기 협의체 회의


주민협의체와 마을공동체 상생 모색

를 함께해온 마을회관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마을살리기팀은 20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을 파주리 주민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마을회관 앞 공터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골목길은 주민들의 오랜 문제였기에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살리기를 시작했다.

2019. 11월에 퇴직 후 마을에 관심을 갖고 있던 노인회장과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50~70대 주민 15명이 참여한 '파주5리 마을살리기 협의체'를 구성했다. 우선 비어 있는 마을회관 활용방안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고 마을살리기팀은 파주리의 무허가 상가건물 2층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술이홀 즐겨찾기' 마을공동체를 경기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마을회관에 입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을공동체는 안전한 아동 돌봄 공간을 확보하고 파주5리는 젊은 학부모와의 협업으로 마을살리기 동력을 확보하는 상생 방안으로 파주5리 주민협의체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마을살리기 협업을 시작했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읍면 1등"으로 파주리 행복마을 만들기

파주5리는 주민협의체 단독 사업으로 2020. 3월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읍면 1등에 선정되어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

"술이홀 마을에서 놀고 배우고 나누는 우리"라는 주제 하에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방부목을 활용한 마을공동텃밭을 만들어 다양한 농작물을 심으며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골목길 날카로운 철망울타리는 안전한 방부목 울타리로 교체하고 노후된 골목길은 흙콘크리트로 재포장했다.



마을공동텃밭(조성 전)



마을공동텃밭(조성 중)



마을공동텃밭(조성 후)



골목놀이터(조성 전)



골목놀이터(정비 중)



골목놀이터(조성 후)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마을축제와 마을학교도 추진했다. 주민이 기획하고 진행한 "제1회 파주리 행복마을 축제"는 2020. 10. 31일부터 이틀간 파주5리 마을회관과 골목놀이터에서 진행됐다. 파주리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마을 어르신까지 주민들이 중심이 된 마을축제는 관내 파주초등학교 칼림바 공연, 파주중학교 학생들의 관현악과 합창, 마을강사가 참여한 체험 프로그램, 게임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파주리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공적인 첫 마을축제로 마무리되었다.

마을학교는 의주길을 걷고 마을의 역사 문화 자원을 둘러보는 마을투어를 시작으로



마을축제 준비



파주초교 칼림바 공연



마을강사 체험



마을축제의 밤



마을투어 특강



골목놀이 연수



학부모 아카데미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파주5리 골목벽화 조성 모습



세경고등학교 '꿈틀 봉사단'



아이들의 골목놀이터로 완성

아이들의 골목놀이를 지도할 연수과정을 진행했고, 아이들의 진로·인성 관련 학부모 아카데미와 '마을, 더불어 사는 삶터'를 주제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관내 세경고등학교(미디어콘텐츠디자인과) 학생 60여명이 이틀간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밋밋한 노후 담장을 어른들의 추억의 놀이를 담은 재미있는 벽화로 단장했고 이곳에서 파주리 아이들은 신나는 골목놀이를 하고 있다.

파주시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중간평가 우수마을 선정"

파주5리 마을살리기 협의체는 2020. 3월에 술이홀즐겨찾기 마을공동체와 연합하여 신청한 파주시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가꾸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개인 명의로 된 정원조성 부지를 파주5리 마을회로 매입하여 사업 준비를 완료했다. 마을회관 앞 공터에 70~80대 마을어르신과 술이홀즐겨찾기 마을공동체 학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해 돌을 고르고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무거운 판석을 나르고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길도 꾸미며 파주5리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했다.

또한, 20년 넘도록 음식물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던 골목은 화단을 만들고 돌을 골



커뮤니티정원(조성 전)



커뮤니티정원(조성 중)





커뮤니티정원(조성 후)



블록정원(조성 전)



블록정원(조성 중)





블록정원(조성 후)

라 샤스타데이지 꽃씨를 3차례 뿌려 산뜻한 블록정원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아이들의 놀이터와 어르신들이 쉼터로 탈바꿈했다.

꽃이 만개한 파주5리 마을정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마을텃밭과 어우러진 정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우리 손으로 만든 정원이라 그런지 더 예쁘고 정이 가. 특히 골목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서 싫었는데 꽃밭을 만들어서 동네가 너무 좋아졌어'라며 환하게 맞아주셨다. 주민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이룬 작은 마을의 변화로 파주리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파주5리는 2020. 5월, 파주시 마을정원 중간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1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장미정원을 꾸몄다. 2021년 봄에는 예쁜 장미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해질 파주5리 마을정원이 기대된다.

아동 돌봄에서 시작한 마을공동체 술이홀 즐겨찾기

파주읍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술이홀 즐겨찾기'는 아동 돌봄 공동체로 출발했다. 파주의 옛 지명 '술이홀'을 따서 지어진 '술이홀 즐겨찾기'는 30~40대 파주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다. 파주리에는 맞벌이 가정 아동




꿈의학교 프로그램(닥종이로 표현한 마을사람들)



파주5리 골목길 마을정원 조성 참여

과 청소년을 위한 돌봄 기관이 부재했고 지역 내 학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돌봄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도비와 시비 공모사업을 연계하며 다양한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햇수로 4년이 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교육청 공모사업인 '꿈의 학교' 프로그램에 선정돼 4개월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참여해 '닥종이 인형으로 만든 마을사람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마을의 이야기 할아버지부터 군인까지 다양한 마을 사람들을 표현한 닥종이인형 작품들은 파주읍 행정복지센터와 중앙도서관 등에 전시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고, 돌봄 공간이 조성되는 파주5리 골목길 마을정원 조성에도 참여했다.

경기도 아동 돌봄 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도담작은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술이홀 즐겨찾기'는 2020. 3월에 경기도 아동 돌봄 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돌봄 공간 리모델링 5천만 원과 3년간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5천만 원을 매년 나눠 지원받게 된다.
'술이홀 즐겨찾기' 마을공동체는 예산 지원 없이 주민들의 의지로 운영되는 여건상 그동안 무허가 상가건물 2층에서 아동 돌봄을 운영해 왔으나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 공모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파주5리 마을회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2020년 12월 12일 파주5리 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오전에는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파주읍을 대표하는 마을공동체로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공모 선정(파주시 두 번째)

파주리는 빈집과 폐가 비율이 25.5%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32%인 초고령 마을로 복

지수요가 많은 지역이며 주내 상점가를 중심으로 파주2리~5리가 연접한 생활권이다. 파주리 행복마을관리소는 문산읍 선유4리에 이어 파주시 두 번째로 선정되었으며 2020. 12월에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4명과 사무원 1명, 총 5명을 선발하여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된다. 행복마을관리소가 입주할 파주5리 마을회관(2층)은 2021. 1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월말에 입주할 예정이며 3월부터는 파주5리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파주리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풍3리, 파주시 처음 경기도 마을정원 공모 선정, '거북정원'조성

연풍3리 '거북마을공동체'는 2019. 10월 '2020. 경기도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파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조성하는 경기도 마을정원이다.
거북작은도서관이 있는 거북마을은 아늑하고 평화로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다. 예전에는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다육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와 아이들이 즐겨 찾던 힐링 공간이었다고 한다.

2019. 8월에 마을살리기팀이 마을자원 발굴을 위해 거북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오랜 기간 방치된 체험장과 문이 닫힌 작은도서관이 마을의 현 상황을 가늠케 했다. 하지




마을정원 디자인 컨설팅 워크숍




마을정원사 프로그램




꼬마정원사 프로그램




청소년정원사 프로그램

만 예전의 체험장 운영 경험은 마을살리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작은도서관 관장님과 공동체를 운영했던 주민을 만나 마을의 특성을 살린 마을정원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거북마을공동체를 재정비하고 연풍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파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거북마을 정원은 당초 다양한 꽃을 식재할 수 있는 2020년 봄에 조성할 계획이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정원 사업의 특성상 주민교육이 우선되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은 지연되었고 2020. 6월이 되어서야 거북작은도서관 야외에서 정원디자인 워크숍을 시작했다. 주민과 정원전문가, 설계업체가 함께 참여한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거북정원 디자인을 설계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내와 실외를 오가며 마을정원사 주민교육을 진행했고 관내 학교와 연계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꼬마정원사와 청소년정원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거북마을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담고 마을정원사 교육에 참여했던 꼬마부터 어른까지 주민 50여명이 정원식재에 참여해 2020. 10월말에 스토리가 있는 연풍리 마을정원 '거북정원'을 조성했다.
정원조성과 함께 시민들과 공유하고 나누는 작은 정원축제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취소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2021년 봄에 더욱 아름다울 거북정원을 기대한다.

연풍리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EBS길이 조성되는 마을로 2019. 12월에 조성한 대규모 주차장이 있고 2020. 6월에 개소한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2020. 8월에 개소한 청소년 휴카페가 위치하고 있어 향후 거북정원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을정원(조성 전)




마을정원(조성 후)

함께 만드는 마을기록 사업 '마을잡지 주내주민(Zoom In) 발간'

파주읍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 소개와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잡지 발간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등 5개 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파주목 행복연합회'는 2020. 3월에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주민총회와 주민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을기자단 12명과 청소년기자단 15명을 모집해 글쓰기와 사진 교육을 진행하여 2020. 11월에 파주읍 마을잡지 '주내주민(Zoom In)'창간호를 발간했다. 주내주민(Zoom In)은 1983년까지 '주내'였던 마을의 사라진 이름처럼 모르고 잊혀질 수 있는 주민들의 소소하지만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를 가까이 들여다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을잡지 이름과 표지(에그스톤)는 모두 마을기자단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마을기자단 교육


청소년기자단 교육


홍보 전단지 부착



마을잡지 발간

파주읍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의 과정으로 2020. 4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었고 파주목 행복연합회 회의를 통해 2020. 12. 10일에 파주읍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마을 의제는 2020년 파주읍 마을살리기팀에서 추진한 마을사업인 '마을잡지, 마을정원, 마을빈집, 마을축제'와 2021년 추진 예정인 '마을투어'까지 총 5개로 진행했다.

총회에 앞서 2020. 12. 7~ 12. 9일까지 3일간 농협하나로마트와 파주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현장투표를 진행했다. 온·오프라인 투표에 참여한 주민은 총 460명으로 그 중 177표을 얻은 '마을빈집'사업이 가장 많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향후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빈집을 활용한 마을살리기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의제 현장투표



마을의제 발표(주민)



의제 토론(패널)



온라인 주민총회를 마치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함께 가는 삶'

지역사회 연계형 사업인 학부모연합회의 '함께 가는 삶'은 2020. 3월 파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인 맞춤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2020. 7~8월에 파주초등학교와 파주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3명의 주민이 교육에 참여하여 민간자격증인 치매예방지도사 과정을 수료했고 18명의 주민이 인지발달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육 후 마을 경로당과 독거어르신 방문을 통한 상담과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봉사활동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19로 2020. 11월에 양말목 공예로 냄비받침 225개와 티매트 650개를 직접 만들어 관내 경로당에 기부하는 활동으로 대체했다.



학부모연합회 '함께 가는 삶' 주민교육



교육 수료식



경로당에 수제품 기부

함께 만들고 다 같이 누리는 '술이홀 행복발전소' 파주읍을 꿈꾸며

파주읍은 2020년 경기도와 파주시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다양한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각종 주민교육의 어려움으로

지연된 사업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로당이 휴관됨에 따라 고령의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재능나루터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로는 대규모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파주읍 마을살리기팀에도 술이홀 행복발전소와 마을환경정비 사업에 43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여 마을지도를 만들고 장기관 휴관으로 손길이 필요한 관내 경로당을 청소했다. 또한 골목길 등 마을 곳곳의 잡초를 제거하고 마을 속 작은 정원을 만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었다.

앞으로 파주읍 마을살리기 추진 방향은 마을별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과 2020년에 진행한 마을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고 골목길과 마을의 빈집·폐가를 정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빈 점포가 상당수인 파주리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또한 마을의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마을 자원을 연계한 마을투어 운영과 마을잡지 발간을 이어가며 마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며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마을 살리기에 집중하여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다 같이 누리는 술이홀 행복발전소' 파주읍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부서명 파주읍 | 담당자 한윤자 (940-8036)

광탄면

"내가 살고 싶은 광탄" 마을별 테마가 있는 파주형 마을살리기

-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의 쇠퇴로 침체되어 있는 마을을 활성화 하고자 주민 스스로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자 함
- 이등병마을 편지길(신산2리) "이등병 마을, 편지길" 테마거리 조성
- 양지마을(용미1리) "전통조청" 제조 및 판매로 마을 소득 창출
- 두레마을(마장3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사계절 농촌체험마을 조성"

마을살리기 사업 추진배경

"내가 살고 싶은 광탄"
파주시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 글자다. 청사 신축과 더불어 오랜 기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돌비석의 문구가 광탄면이 지향하는 마을살리기의 방향이다.

광탄면은 양주시 백석면과 광적면 양쪽에서 흘러내린 물이 문산천으로 합류하는데 이것이 넓은 여울로 형성되어 있어 한자말로 광탄(廣灘)이라 한다.

광탄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많은 곳으로 신라 진성여왕 때 도선국사가 창건한 보광사와 보물 마애이불입상, 윤관장군묘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많이 품고 있다.

또한,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2018년 3월 개장한 이래 누적방문객 500만명을 기록하고 있는 광탄면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관광객들이 수려한 자연을 느끼며 힐링하고 사진을 찍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와 달리 광탄면의 전반적인 상황은 미군 부대 이전 이후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젊은 세대가 도심지로 이탈하며 현재는 중·장년층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유출을 막고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 아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마을의 쇠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산리 마을을 부활시킬 "이등병 마을, 편지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신산리 마을은 광탄면의 중심지이지만 미군기지 이전을 시작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곳이다. 신산리 마을의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사업'이라는 테마로 2019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대표적인 입영 노래 '이등병의 편지' 작곡가 김현성 씨의 고향이기도 한 광탄면에 '이등병의 편지'를 주제로 파주만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부지는 광탄면 신산2리 일대, 약 4만㎡(1만2천여 평) 규모로 오는 2022년 말까지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이등병마을 계획도



해당 사업을 통해 광탄면 일대에 ▲이등병 우체국 ▲이등병 이발소 ▲김현성 스토리하우스 ▲라이브 카페 ▲입영열차 소공원 ▲야외 공연장 ▲이야기가 있는 벽화거리 ▲랜드마크(포토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산리 이등병 마을이 조성되면, 스토리하우스 등 마을 거점 공간 조성으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등병 테마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의 대표 관광지인 마장호수 출렁다리에 이어 지역 재생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등병 마을, 편지길'이 조성될 광탄면의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파주형 마을살리기를 소개한다.

광탄면 곳곳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파주형 마을 살리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27년째 가마솥 전통 방식으로 조청과 엿, 강정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용미1리 양지마을과 사계절 농촌체험활동을 운영하며 도시민을 사로잡는 마장3리 마장두레마을이 대표적이다.

1993년부터 가마솥 전통 조청을 만들어 온 마을 부녀회, '양지말전통조청 협동조합'



조청작업





조청 완제품

광탄면 용미1리 양지마을은 2005년 농촌건강장수마을, 2006년 전통조청 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이다.

양지마을 부녀회는 1993년부터 겨울 농한기가 되면 부뚜막에 가마솥을 걸어 전통 방식으로 조청을 만들었는데, 국내산 보리와 쌀 외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조청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개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현재는 마장호수 출렁다리 카페와 임진각 농산물 판매장, 지역 축제장, 지역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양지마을 전통 조청을 만날 수 있다.

양지마을 부녀회원 중 최고령 회원은 79세, 최연소 회원은 63세로 평균 60~70대의

회원들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부녀회원 수가 30여명 이었는데 세월이 지나 현재는 10명의 회원이 조청과 엿, 강정을 만드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수십 년간 조청을 만들다 보니 부녀회원들은 조청에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양지말 전통조청 협동조합은 2006년 용미1리 전통 조청 체험장을 준공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고 2019년 신규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신규마을기업 지정 후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마솥 3대와 강정기계를 구입하고 시설 개선비로 사용했다.
2020년에는 '지역 특화작물 연계 마을 공동체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제품을 보관할 저온저장고를 추가 구입하고 제품 스티커 등 포장재 지원, 리모델링을 통해 작업 환경을 한층 더 개선했다.

2019년 양지말 전통조청 협동조합의 판매 수익은 4천만 원 정도다. 양지마을 사람들은 판매수익으로 마을사람들끼리 다른 지역으로 관광을 가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면사무소에 기부도 한다. 양지마을 부녀회 사람들은 전통조청 명인으로서 자부심, 책임감과 함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올린 수익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

2020년 9월에는 마을 입구에 마을기업 간판을 설치하여 마을기업으로서 외관을 갖춰나갔다. 오랜 시간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양지말 전통조청 협동조합은 마을기업으로서 체계를 갖췄지만 공동체의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단절 및 지속성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마을 공동체에 젊은 세대가 유입되어 양지마을만의 마을 문화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마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계절별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장두레마을 협동조합

마장3리 마장두레마을 협동조합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다. 총 3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마장두레마을 협동조합은 지난 2016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사계절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민들의 발걸음을 마을로 이끌고 있다.

마장3리 마장두레마을은 봄에는 주말텃밭 가꾸기 활동을 진행한다. 가족당 연 회비를 내면 4~5평의 텃밭을 할당받아 1년간 가꿔 나갈 수 있다. 여름에는 ▲감자 캐기 ▲금붕어 생태체험 ▲파키라, 허브 등 나만의 식물화분 만들기 등 체험활동과 함께 수영장

과 캠핑장을 운영한다. 여름에는 수영장을 개장하고 겨울에는 송어축제를 진행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방문하고, 봄·가을에는 유치원 또는 단체 체험 방문이 많다.
가을이 되면 고구마 캐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장두레마을협동조합은 향후 김장 체험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겨울에는 송어축제를 운영해 파주시 인근 도시민들이 방문한다. 평균적으로 여름에는 월 1천200여 명이 방문하고, 연간 방문객은 평균 1만~1만 2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마장두레마을은 2020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에서 '마을생태하천 체험관 운영' 사업이 선정돼 수중생물과 식물을 함께 키우는 체험활동도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주민 참여형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며 봄부터 가을까지 자연과 어우러진 마을 정원을 조성해 자연을 만끽하기 좋은 곳이다.

광탄면 마을살리기의 발전 방향

인구감소와 도시 노후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서로를 아끼고 정을 나누는 마을 주민들이 있어 광탄면 마을살리기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광탄면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파주형 마을살리기를 통해 도시민을 마을로 이끌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사업'까지 완료되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광탄면만의 지역 특색으로 마을공동체와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유적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소득창출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마을 공동체 발전을 바탕으로 "내가 살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광탄"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마을기업간판


주말농장 가꾸기


야외물놀이장

부서명 광탄면 | 담당자 황순연 (940-8156)

탄현면

살고 싶은, 아름다운 고향 美故탄현 마을살리기

- 경계를 지우고 마을을 잇다(美故 : 아름다운 미래의 고향)
- 「주민 스스로 문화운동」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해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 가족·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한, 돌아오고 싶은 마을
  - 가족에서 친척, 지인에게 '쉼'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주의욕 고취
  - → (궁극적인 목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자원의 유기적인 관계시스템(공동체, 조합 등)을 구축하여 탄현면을 찾는 이들을 마을 속으로 끌어들여 정주의욕 제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성화 도모
- (대동단결 대동리) 유니크한 전시마을, 농촌형마을자치를 구현하다.
- (축현도심 활성화) 민통선 시절 호황기의 추억, 제4검문소_플리마켓으로 다시 찾다.
- (잭의 장단콩 거리) 장단콩 특화거리 파주맛고을, 맛과 볼거리로 승부한다.

탄현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읽다.

파주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면, 탄현면은 파주 속 파주로, 파주의 축소판이다. 자유로(1990)가 있기 전, 민통선이었던 곳으로 대동리 전시마을이 있는 최전방의 행정구역으로 자유로가 생기면서 성동 IC와 낙하 IC로 바로 진입 가능해졌다. 그리고 1996년에는 성동리과 법흥리 일대 통일동산이 안보관광지로 개발 준공되었다.

탄현면은 자유로를 끼고 남과 북의 공유물인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3개의 큰 물결(三濤)을 뜻하여 '삼도품'이라고도 한다. 통일동산 개발에 따라 신도시를 구가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또한 갈현·오금 벌판이 있는 농촌으로, 도농복합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오두산통일전망대는 남북대치의 역사적 증인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장릉과 경기무형문화재 금산민요전승관은 물론 헤이리와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 등 정신과 물질, 신구(新舊)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접경지라 해도 수도권에서는 40분 이내 진입이 가능하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도시민의 귀촌 내지는 세컨 하우스 개념의 유입 가구도 꽤 있다. 반면 십 수년 전만 해도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써 동화경모공원, 쓰레기 매립장 등 협오시설은 물론 40여 년 전 전시마을로 조성된 토착민의 주거여건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일산과 운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외곽으로 밀려난 재생자원센터(고물상)와 공장, 창

고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개발로 주거지역의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여건에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로 탄현면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터로 재생」이 제1 목표이다. 가족·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 친척, 지인에게 '쉼'을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고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6~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경제성장이라는 양적 성장과 8~90년대 민주화로 의식의 격변을 거쳐 IMF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엄의 3만불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에 걸맞는 민주시민의식의 보편적 함양을 통하여 우리만의 '격'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마을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공동체의식'은 곧 '관'주도가 아닌 순수한 '민'주도형이 되는 '주민 스스로 문화운동'이다.

미약한 시작 – '주민 스스로 문화운동'

「주민 스스로 문화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닌 성과나 실적보다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돌출해 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마을사업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 성장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 두 서넛이라도 만나, 한 방향을 만들고 많은 마을 주민들을 합류하게 해야 한다. 역할을 분담하고, 기획부터 실행까지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설득과 이해는 물론 주민총회라는 의결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오금2리에서는 2019년 10월 임진각에서 있었던 '경기도 정원 박람회'때 사용한 국화로 마을 진입로 국화길을 조성, 국화마을을 만들겠다는 계기가 되었다. 소위 10여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일탈회'는 장명등(보물 제1323호)이 있는 '박중손 묘'를 중심으로 한 국적인 담을 재구성하여 포토존을 만들고, 도로변엔 관상용 국화를 심는다면, 마을 안쪽에는 식용용 국화를 식재하여 향후 마을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동리마을에서는 2019년 5월에 파주시 관광두레(송영철)의 제안으로 청년회를 주축, 마을 공동수익 창출을 위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정작 회의를 시작하면서 수익창출보다는 선조들이 살아왔고 자신과 자식들이 살아갈 마을로 과거를 더듬어 나와 마을 알기부터가 먼저임을 깨닫고, 24~5년 전 사라진 마을행사로 '추석전야 대동리 주민노래자랑'을 개최, 100여명의 마을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마쳤다.


노래자랑 추진 회의


추석전야 주민 노래자랑


오금2리 일탈회


대동리 주민협의회 임원회의

'마을자치'를 알리는 대동리 마을 주민협의회 발대식

대동리마을은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왕자의 장미』이다. 수 천 송이의 장미와 같은 장미지만 관계 맺기를 통하여 '꼭 하나 뿐인 장미'가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또 결과는 같은 형태라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 마을만의 지문을 갖게 된다.

대동리 주민들이 '주민 노래자랑'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10월 마지막 밤에는 『별볼일 없는 밤, 대동굿~~밤』이란 콘셉으로 '대동리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귀촌하는 주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도 원주민의 텃새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의 실체가 될 '주민협의체' 구성까지 고민하게 되었다.

'마을 노래자랑'과 '작은음악회'를 통하여 자신감이 생긴 주민들은 본격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발대식을 도모, 마을 내 협의체에 함께 할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합류를 유도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토착민의 외지인에 대한 반감, 20여년을 살아도 동네사람에서의 소외는 물론 무엇보다 개인 간의 묵은 갈등이 마을 일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그 와중에 2020년 시장 초도순시 '시민에게 듣는다'에 읍면별 마을 버킷리스트 발표 대상마을로 물망에 오르다 보니, 주민협의체는 지난 연말부터 거론되었던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호불호의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마을 내 갈등은 고점을 찍었다.

마을을 다니면서 면대면한 결과 주민 자신과 마을을 염려하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모두는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마을을 사랑하며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조직도가 구성되기까지 4회의 주민총회에서 정관을 수정했다. '협의회'라는 명칭도 합의함

하는 마음은 같았다. 의견의 조율을 통하여 주민총회를 열고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한 갈등의 요인이었던 것부터 인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 공의에 대한 합의로 마을 주민들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동리마을은 2020년 1월 10일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을 비롯 도의원과 시의원, 관내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하고 많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한 '대동리마을 주민협의회' 발대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자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조직도가 구성되기까지 4회의 주민총회에서 정관을 수정했다. '협의회'라는 명칭도 합의함.

'대동리마을 주민협의회 발대식'이 시사하는 점

'파주형마을살리기',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생소한 행정문화였다.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이장들은 기존 행정시스템과 다른 접근방식의 행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끌어내는 형식, 주민참여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또, 농촌의 특수성 등 주민협의체는 주민스스로 구성되는 단체지만 지역 여건상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을 배제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해서 탄현면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자료를 만들어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찾아가 홍보를 하였다. 그럼에도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존의 관주도적인 행정에 익숙해져 있는 지역의 단체장들의 반응은 냉랭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동리마을에서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지역의 단체장을 초대하고 기사화하는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타 마을 이장들 사이에 별것 아닌 양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마을살리기에 의문을 던지는 이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마을살리기 해요 - 문지리 꿈틀

문지리는 경로당을 당장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리고 마을회관의 경운 구거와 도로 등 4필지를 깔고 있는 40여년이 된 건축물이다.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구거는 용도폐지를 하고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마을에서 분할 상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하는 등 마을의 작은 일이라도 수집하고 자료화해서 마을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연결하는 근터리로 삼았다.

'마을살리기팀'이라고 하면 먼저 되묻는 말이 "우리 마을에 무엇을 해 줄 것인데"에서 대동리 발대식 이후"우리 마을에도 관심을 가져줘..."로 많은 인식의 변화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동리 마을사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공고히

'대동리마을 주민협의회'는 발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마을만이 아닌 이웃 마을과 함께 상생하는 고민까지 하는 의식의 확장을 보여주었다. 먼저 마을의 구심점이 될 마을회관의 기능을 회복하여 문화공간 조성, 역사전시를 통해 '마을스토리'를 전개하고, '걷기 좋은 마을길'을 조성하여 마을 내 기업과 농업체험을 연계한 상생하는 구조를 짰다. 마을사업의 특징에 맞게 주민협의회 조직을 구성, 역할을 분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소수와 다수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면서 합목적성을 위한 합의를 해 나갔다. 또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세대를 잇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직 내 청년위원을 두고 20대 청년들을 발굴 참여시켰다.

본격적으로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마을사업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수립했다. 문제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고, 추진하고자 한 사업중 '주말농장'의 경우는 농사시기가 있어서, 분양하여 추진하기에 빠듯했다.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의 실망은 컷으나, 마을 내부의 갈등에 집중하면서 진중하니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로 마음을 다잡고 꽃 필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 둘씩 준비해 나갔다.

늦어진 '주말농장'은 반을 논으로 하여 수익을 확보 하되, 분양될 농장을 논 양쪽에 배치하는 등 나름 고민하면서 특색있게 62구좌를 조성하여 완판하였다. 또 40여년 만



대동리마을 주말농장과 손모내기, '20. 10월마지막밤 음악회 풍경(https://cafe.naver.com/daedongrifarmland1)

에 '손모내기'와 '우렁이방생' 체험을 진행했는데 사전신청 23팀(1팀/어른+아이)과 현장에서 3팀이 더 신청했다. 더불어 구경하던 동네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자신들의 젊은 날을 회상하며 체험을 하시겠다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유쾌한 행사가 되었다. 주말농장의 의외의 결과는 도시민들이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게 하고, 잃어버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를 가져다주었다.

더 괄목할 만한 것은 행사가 끝나고, 자체성과 보고회를 통해 행사를 추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행사 진행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내년도 행사진행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협의회의 아이디어 회의에서 가을행사로 '콩깍지와 허수아비 축제'를 계획하며 주말농장 논과 밭두렁에 콩을 심었다.

또 마을꽃밭 조성을 위해 꽃씨를 구하고, 모판을 만들어 포토존을 조성하고, 주말농장 포토존으로 버리는 하우스대를 재활용해서 넝쿨식물을 심었다. 주기적으로 풀베기를 통하여 주말농장을 관리하며 잦은 만남을 통하여 공동체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협의회는 가치로 자긍심과 지속성을 유지할 프라이드가 생겼다면, 마을일을 통해 '행복'하다는 것이다. 대동리마을 주민협의회는 꽃밭, 주말농장을 위시해 '걷기



대동리마을 주민협의회 주 1회 임원회의와 꽃밭 · 꽃길 조성

좋은 길'을 통하여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3월 '경기도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행사 사업도 마을만이 아닌 인근 마을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확장성까지 보였다.

대동리 마을살리기를 통하여 본바, 마을사업 추진시 공모사업이 갖는 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분홍빛 공모사업은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사업비로 대체하게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고도 할 수 있다. 시기가 있는 사업추진에 있어 공모사업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가 시기를 놓칠 경우 사업만을 위해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만약 공모에 선정되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서 멈춰야 하는 경우가 있다. 마을사업은 공모와 상관없이 마을에서 필요로,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을도 성장한다.

마을살리기는 어느 시기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마을을 돌아보고 계절에 맞게 마을을 가꾸고 함께하는 공동의 관심을 통하여 '함께하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동리 마을은 함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고 1천만원의 자부담을 들여 10여 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마을회관을 개보수와 증축을 했다.

코로나19, 언텍트시대 마을 안에서의 꼼지락은 더욱 가치를 발휘했다. 마을에서는 가을맞이 꽃길조성을 위해 관에서는 목재를 구입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잘라 나무화단을 만들어 국화를 심었다. 또 학생손님 맞이를 위해 공동체 교육을 받고,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영상 자료와 농촌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코로나19로 다중 밀폐·밀식을 피하기 위해 3파트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주민이 마을해설은 물론 프로그램별로 각자 역할 분담을 했다.

또한, 접경지역이며 전시마을(북에서 잘 보이는 마을을 형성하여 선전효과를 위한 마을)이였으며, 불과 3~40여년 전만해도 예통(사전 신원조회 행정절차)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마을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고 평화통일기행이라는 마을학교를 운영했다. 2020년 11월 6일 서울 강서·대일고 고교학점제 미래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1월 13일에는 청주 주성고등학교에서도 왔다갔다. 서울 증평중학교와 부산에서는 코로나19로 숙박시설이 미흡해서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했다.



고교학점제, 미래혁신교육 '평화통일기행'마을학교 운영

대동리 마을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한다. 『한반도 평화수도파주』 무형의 파주랜드마크 '평화'는 대동리 마을학교에서 구현되고 있다. 파주형마을살리기는 파주시 행정의 오케스트라이며 하모니다. 대동리 마을학교는 평화를 테마로, 통일과 혁신교육 그리고 관광까지 아우르며, 농촌이 갖는 강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총체적으로 접목됨을 보여준다.

지금을 사는 마을, 과거를 바탕으로 마을문화 살리기 – 축현도심

탄현면 소재지 축현 2리는 주요도로변인 축현도심을 비롯 7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보름이면 하는 마을행사 척사대회를 '문화가 있는 척사대회'로 색다르게 구성하여 마을축제로 승화시킬 만반의 준비를 하였는데 코로나19로 취소 되었다. 2019년 11월에 마을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공간으로 '탄현면 마을 살리기 생각발전소'를 개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삼삼오오 주민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중 공간조성에 선정,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마을공동체 기반이 되는 마을공동체 교육 등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다. 또한 마을 내에 있는 갈등관리를 위한 장소로의 역할도 할 것이다.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갈등 해결에 대한 모범답안은 없다. 다만 축현2리의 경우에도 개인 간의 감정이 쌓여 지역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슬럼화된 축현도심 내, 이색적이 카페가 들어섰고 그 카페를 중심으로 도로문제가 대두되면서 주차장 문제를 야기하였고 상가 간 토지문제로 오래된 개인의 갈등인데 주민 몇이 하소연을 하였다.

관(官)에서는 공사(公私)의 구분으로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사인들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서로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더욱 부담스럽다며 관


축현2리 마을 임원총회


제4검문소플리마켓답사


원주민과 공동체 상견례


축현도심 가로수화단 정비

에서의 개입을 요청했다. 어디까지 우리 역할의 영역(행정으로 한정하면 할 것이 없다)으로 두어야할지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 듣는 시간을 갖다보니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서, 소송 직전까지 갔던 주차장 문제는 서로 이해를 통해 정리되었다.

혜성처럼 나타난 축현도심 『제4검문소』, "나는 탄현살에 미친 사람이요! 탄현살(쌀 대구방언)을 어떻게 해 봅시다."

마음길이 눈길을 만들고, 눈길은 손길과 발길을 만든다

'축현도심', 분명 40여 년 전부터 도시계획 상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만약 마을의 늙음을 표현한다면, 한여름 더위 아래에서 모든 생물이 무료한 오후를 보내며 그저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을이리라. 그럼에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제4검문소 공동체 회의


지금도 있는 초소


카페빅테이블 전경



그리고 만날 때 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또 그 중심에는 '이게 도시재생이야!'할 수 있는 공간이 축현도심에 있다는 것이다. 외관은 오래된 타일벽돌, 군더더기 없는 채널형 간판, 실내는 노출 콘크리트와 벽돌, 세월이 흘러내리고 있는 벽

지, 그리고 각종 가구 인테리어. 그야말로 빈티지하고 앤틱해 아늑함과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공간, 카페 빅테이블이다.

발사믹 식초를 만들기 위한 포도농장주, 카페 빅테이블 매니저, 도예가, 종이공예가 그들이 주고받은 마을살리기에 대한 관심이 40여년 전만해도 호황기를 누렸다는 마을에 『제4검문소』 컨셉화를 위해 도시재생을 보여주는 건물 카페 빅테이블에 모였다. 그러다 4월에는 지지부진하던 제2자유로 연장선이 마을 뒤쪽으로 결정되었고, 6월에는 지난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탄현면복지관이 경기도 노후생활SOC 시설개보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다. 마을이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NOW STOP is NEW STEP』, 지금까지 충분히 달려 왔잖어? 검문을 하기 위해 '멈춰, STOP'이었다면, 이젠 멈춰 서서 자신과 주위를 둘러봐야 할 때란 의미와 새로운 출발이란 의미로 슬로건이 정해졌다. 축현도심이 갖고 있는 강점인 농촌을 살린 '마르쉐 농부시장'아이템으로 '핸드메이드인탄현'으로 플리마켓을 통하여 유니크한 장소의 명소화이다. 이를 위해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구상하며 매 회의 때마다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제4검문소



톤백푸대기념품



슬로건퍼포먼스



가로수의 크리스마스



축현2리 마을총회

제4검문소 :
도메인 checkpoint.co.kr,
인스타 계정 #checkpoint_market

이장들의 이구동성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그 향수를 리메이크, 젊은 사람들의 표현양식을 가감 없이 이용하여 갇혀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자원의 업싸이클링을 통한 가치는 물론 수익과도 연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생산이 쌀이니, 톤백푸대를 활용한 에코백 기념품, 슬로건퍼포먼스를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는 마을살리기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마을일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나무 뜨개옷 자원봉사로 가로수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기획 학생들도 마을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 축현도심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는 상당한 재능인이 있어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벽화팀'를 구성하여 가장 효과가 클 건물을 택해서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벽화는 단순히 벽에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벽화팀이 그림을 그리면 건물주들은 건물의 벽화에 어울리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정비하더라는 것이다.



가로등에 묶여 있던 낡은 자전거와 폐기물들이 없어졌다.



축현도심 2019년 7월 이후 오픈한 상가들과 저녁에 불켜진 상가

최근 가장 큰 변화로는 캄캄했던 축현도심에 2019년 7월 이후 카페와 꽈배기집 등 3개의 상가가 오픈했고, 10월과 11월 2개월 사이 김치찌개, 김밥집과 건강원 등 4개의 상가가 신장개업을 했고, 스튜디오는 오픈을 위해 리모델링중에 있다.

'희망일자리'가 희망이 되는 '벽화팀 마을활동가'

단편적으로 시작된 벽화가 온 마을에 필요한 부분의 미관을 정비하는 예술의 거리가 되고 있다. 관은 재료를 구입·공급 하고, 군은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민은 그림을 그렸다. 민·관·군의 협력으로 탄현면에 300m의 거대 벽화가 탄생 중에 있다. 이 벽화동물원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관계자 최소참여로 개장할 계획을 하고 있다. 단순한 벽화가 주민의 마음을 열고, 희망을 갖게 하였다. 혹자는 벽화투어 지도까지 주문하고 있다.



축현도심 첫 벽화



9사단, 제4검문소 벽화동물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 천혜자원 공릉천이 있는 장릉골

사적 제203호, 장릉을 기반으로 전통마을을 유지하고 있는 갈현3리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일 거리로 '주민 참여형 정원조성'을 기획하여 공모신청 했는데 300평이상의 규모에서 미달했다. 그렇지만 마을은 먼저 마을의 활용가능 자원을 리스트업하여 갈현벌판을 배경으로 공릉천 따라 걷는 길은 물론 하늘까지도 공유공간으로 자연을 기반으로 사람살이를 모색하는 포부를 갖고 있다.

또, 그간 자본 논리에 방치된 토종종자가 한 주민 지킴이(정순덕)의 국제슬로우푸드 NGO과 SNS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활동으로 주변 지지자를 확보하며, 2019년 11월에 KBS에 방영된 '한국인의 밥상'은 물 맑고 청정한 장릉골 자연이 주는 지역토산품으로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꾸러미로 재구성하여 웰빙상품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SNS를 통하여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갈현3리 협의체 구성회의



호박고추장 체험



장단콩향토음식



2019.11.28. 방영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인을 위한 상권활성화도 마을살리기다

성동맛고을은 매년 변화하는 관광객 패턴변화와 맛고을의 상권을 주도했던 '프로방스'의 경영악화는 물론 남북관계의 영향 등으로 주변 상가까지 경영난을 겪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상가번영회에서는 마을과 협심하여 마을과 함께 상생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황금오리알의 '잭과 콩나무'라는 동화와 장단콩의 '콩깍지 사랑'를 스토리화로 2021년 준공하는 웰빙마루에 발맞춰 장단콩 특화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잭의 장단콩 거리』로 컨셉을 잡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협의체 회의



텍스트 포토존



컨셉 조형물 설명회



컨셉 포토존

경계가 없는 자원, 사람 : 주민역량강화와 혼연일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고민이 우선이라며 고민부터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고장 답사가 2020년 6월부터 시작, 7월부턴 자발적으로 내고장 답사에 참여, 8월 답사를 두고 야당발 코로나19 확진자로 연기하였으나, 9월 행보에 이어 야외행사인 만큼 최소 인원으로 구석구석 누비고 있다. 또 무엇보다 국가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주민 면마스크 만들기 교육은 물론 도안을 제작, 배포하여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1회용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주시 및 경기케이블 영상제작)


두발로 탄협답사 정모


갈현벌판체험 프로그램


텃밭커뮤니티 태동회의


손마스크 제작 교육

또한, 존재는 앎으로부터, 알게 한다는 것은 홍보를 통한 대중화를 말하는데 탄현면마을살리기의 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자체 강사를 확보, 주민 눈높이에 맞게 맨투맨으로 블로그에서부터 페이스북을 비롯 유튜브까지 SNS교육을 실시하고, SNS마을활동가까지 등장 탄현의 곳곳을 알리고 있는 나팔수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역량강화교육


탄현면마을활동가


ZOOM 화상교육


금천구에서 밴치마킹 옴

(카페와 블로그 : 미고탄현, 대동리마을_주말농장, 제4검문소_플리마켓 / 인스타그램 : deadongrifarmland1, chedkpoint_market)

밴치마킹 오는 동네, 다음은 '스토리로 마을을 잇다'

11월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언·온텍트 마을공동체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 서울 금천구 도시재생센터에서 탄현면 대동리마을과 축현도심 제4검문소 공동체를 방문했다. 이번 기회에 대동리마을과 금천구가 자매결연으로 도시재생에서 도농교류의 모범사례를 만들자고 의기투합했다. 탄현면은 파주형마을살리기 의의에 부합하도록,

① 대동리마을에서는 강서양천 고교학점제 평화기행 필수코스를 시작으로 평화마을로
② 축현도심은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으로 머무는 마을로
③ 성동 맛고을은 『잭과 장단콩』을 테마로 장단콩 특화거리, '쉼'이 있는 마을로
④ 통일동산관광특구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중앙공원내 텃밭놀이터를 통한 텃밭커뮤니티로 이색 축제가 있는 곳으로 확장하면서 두 발로 길을 내고, 스토리로 마을과 마을을 이어 파주형마을살리기의 표본을 만들고자 한다.

누구나 '파주형마을살리기 프로젝트', '미고탄현'에 동참

무엇보다도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을마다 찾아가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파주형마을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 먼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유도, 자발적으로 마을별 유형에 맞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마을 특색에 맞는 각종 공모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참여 욕구를 증진토록 할 계획이다.



법흥2리 마을회의



오금2리 주민협의회 구성회의



축현2리 주민협의체 구성회의

이러한 마을사업 수행을 통하여 자기만족은 물론 인지도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력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정보화 교육 가능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주민 밀착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1마을 1홍보 채널'을 갖고 마을자치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특히, 탄현마을살리기 활동가, 벽화팀, SNS활동가등 조직화를 통하여 성장 지속가능한 마을살리기를 확립하고자 한다.

마을자치의 파라다이스, 힐링과 웰다이닝을 넘어 소울링(soul+ing, 영혼치유)

보험사의 상품으로 100세 보장이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우리는 백세시대를 살고 있다. 농촌의 인구절벽 그리고 고령화는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거부할 수 없는 사회·자연현상이 되었다.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자치를 통하여 고령화를 대비 정년 없이 세대를 넘나드는 마을살이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마을, 그리고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이 전원적인 삶과 농촌체험 프로그램들로, 일상 속에 축제가 있는 마을문화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 마을문화가 도시민에게 체류를 유도함으로써 '쉼'을 제공하여 '고향'을 품고 궁극적으로는 살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여 당면하고 있는 마을의 인구절벽까지 극복하고자 함이다.

부서명 탄현면 | 담당자 전송자 (940-8096)

월롱면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월롱면 마을살리기

- 민·관·군 협업을 통한 마을정원 및 명품 월롱산 만들기
-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유치 및 도시가스 공급 추진
- 마을안길 및 취약지역 등 경관개선 사업 추진

월롱면 마을살리기 추진배경

"월롱면"은 경의선 전철과 통일로가 관통하는 교통요충지로 파주시의 중앙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5개리 21개 마을로 구성된 곳이다. 월롱산, 월롱산성지, 용상사, 덕은리 지석묘 등 자연문화유산과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통적 농촌기반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공동체로는 용상골 사랑방(덕은1리), 내도감마을(도내1리), 꽃부리 큰마을(영태5리) 등 3곳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월롱면은 마을살리기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 컨설팅, 선진지 견학을 함께 하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월롱산 품에 안긴 덕은1리 "용상골 사랑방"

"월롱산", "용상사"와 "용상골이 좋아요"라는 노래가 있는 참 살기좋은 마을인 용상골은 2008년부터 주민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용상골 사랑방"이라는 소식란을 통해 마을행사, 활동사진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마을을 가꾸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9년 개최된 "제1회 월롱산 철쭉 한마당"은 지난 수년간 파주시와 지역주민의 힘으로 일궈온 월롱산 정상 철쭉동산에서 치러진 행사로, 주민자치 위원회와 용상골 사랑방 공동체 등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당초 예상인원을 크게 상회한 1천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올렸다. 매년 4~5월경에 개최되는 "월롱산 철쭉 한마당"은 만개한 철쭉의 향연과 축하공연,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새로운 철쭉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카페 "용상골 사랑방"



월롱산 철쭉 만개





제1회 월롱산 철쭉 한마당 개최 및 체험행사

용상골 사랑방 공동체는 월롱면, 군부대와 함께 군 작전용으로 설치되어 30여년간 방치된 폐타이어 제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관·군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2019년 6월부터 월롱산 정상부의 폐타이어 8천개를 제거하였고 향후 5년간 3만개 제거를 목표로 꾸준히 활동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주민들의 열정에 힘을 보태어 월롱산 정상부에 설치된 폐타이어를 제거하고 친환경 식생토낭과 야자매트 설치, 화관목을 식재하는 등 친환경 숲길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찾고 싶은 힐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폐타이어 제거 전



폐타이어 제거 후



철쭉 잡초관리



이야기가 있는 군부대 담장벽화

또한, 공동체에서는 2019년 주민참여형 정원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군 유휴지와 삽교천변을 활용한 꽃밭과 꽃길을 조성하고 마을 주민과 월롱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2020년 4월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꽃길을 따라 마을 정원을 추가 조성하고, 350미터에 이르는 군부대 담장에 파주의 풍경과 자연유산, 용상골 이야기, 용상사의 역사, 군장병 에피소드 등을 테마로 마을주민과 군장병, 현역 일러스트 작가가 참여하여 이야기를 담은 특색있는 벽화를 완성하였다.

"용상골 사랑방공동체"는 기존 마을주민과 새로 입주한 전원주택 주민들이 잘 어우러진 화합된 공동체로, 2009년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전국 대상 수상의 영광을 이어받아 꾸준히 노력하고 참여하는 공동체로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의 변화를 꿈꾸는 도내1리 "내도감 마을"

도내1리는 2018년 5월 파주시 치매안심 마을 1호로 선정, 고령의 주민이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건강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부터, 모두가" 참여하자는 마음으로 마을 대청소, 작은 꽃밭 만들기 등 주민들이 소소하게 마을을 가꾸어왔다. 또한 주민들은 점점 변화하는 마을과 주변 여건을 몸소 겪어내며 스스로 의식을 전환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9년 12월 "내도감마을" 공동체를 조직하였으며, 월롱면은 마을 주민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센터와 협력하여 마을 컨설팅, 벤치마킹 및 주민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을정원 조성



연료전지 전경



도시가스 공급 (완료)

내도감 마을 공동체는 2020년 주민참여형 정원만들기 사업에 참여, 도로변 유휴 부지를 활용한 마을정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주민들은 초화류 식재부터 관수 및 제초작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마을 경관개선은 물론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9년 8월 농촌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소 협약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인 "연료전지"를 파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유치하여 마을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료전지 설치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추후 지속적인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환경개선과 소득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옛 정취를 그리워하는 영태5리 "꽃부리 큰마을"

1980년경 마을에 주둔해 있던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영태5리 마을은 지역경제 침체와 함께 주민 유출, 고령화, 폐·공가 및 노후 건축물 급증 등 시대적 변화를 거스르지 못하고 점점 낙후되어 갔다. 이후 미군공여지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작은 마음들이 함께하여 쓰레기를 치우고, 취약계층의 주거시설을 돌보아 주고, 마을 곳곳에 꽃을 심는 등 2014년부터 7년째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오고 있다.

특히 2020년 들어 마을의 리더들이 파주시 2기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발적 의지로 "꽃부리 큰마을"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이어 "2020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에 참여, 방범 취약지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마을안길 경관 개선사업을 진행하여 공식적인 마을살리기에 첫발을 내딛였다.
또한 공모사업과 더불어 LG디스플레이와 연계한 방범취약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LED 등을 마을 안길에 설치하여 주민안전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영태주택 내 우범 구간을 일제 정비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가을식재 적기를 이용해 초화류 식재등 마을쉼터



마을안길 경관개선



취약지 환경개선



마을쉼터 대상지(완료)

조성을 완료하였다.

2020년 가을, 통일로변에 피어난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옛 정취를 느끼고, 그들의 순수한 가슴속에도 한들한들 예쁜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났다.

활기차고, 정(情)이 넘치는 월롱, 살기좋은 마을조성을 위한 노력

월롱면은 활기차고, 정(情)이 넘치는 월롱, 살기좋은 마을조성을 위해 기존 공동체의 특색있는 사업과 친환경 연료전지 정부지원금을 활용한 소득창출사업 발굴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마을 내 노후 공동화장실 철거 사업을 시범 실시한 결과 환경개선과 통행안전 확보 효과가 매우 높아 차후 전체 마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소득 증대를 위하여 마을별 특성있는 주민주도형 공동체와 마을살리기에 관심있는 마을활동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월롱면에 입지해 있는 LG디스플레이와 연계하여 LGD 봉사단 활동, 방범취약지 개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발굴 등 마을살리기에 협력하고 있으며 마을살리기 첫걸음은 "내 집 앞 가꾸기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주민 스스로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부서명 월롱면 | 담당자 김해원 (940-8076)

적성면

농촌 체험활동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개발 창업

- 마지교 난간, 도로변에 꽃 화분 및 희망꽃밭으로 아름다운 거리환경 개선
- 한배미 마을(주월리) : "녹색농촌 체험마을" 산머루 따기, 두부만들기 등 각종 체험
- DMZ Army Cafe(주민사업체) : "軍 테마 기념품 카페", 지역농산물 활용한 제빵 개발
- 객현1리 "함께 신나는 키우미" : 아동돌봄 공동체

적성면의 과거와 현재

파주의 북동쪽에 위치한 적성면은 23개리로 구성된 곳으로 파주시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삼국시대 때 임진강을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육계토성, 칠중성 등의 유적지가 있고 적성면의 긴 역사와 함께 가월리, 주월리 구석기 유적지가 남아있다.

한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인 감악산에 지난 2016년 출렁다리가 개통되며 많은 관광객이 적성면을 방문하고 있으며, 두지리 황포돛배도 운영을 재개하고 산머루 체험장, 치즈체험장과 캠핑장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DMZ Army Cafe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제빵개발 등 마을살리기 사업에 한층 열을 올리고 있는 지역이다.

마을 살리기 사업 추진 계기

여러 도시재생 교육과 타 지역의 소식을 들으며, 적성에도 마을살리기를 통해 마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샘솟게 되었다.

하지만 적성면은 인구의 50%가 50대 이상으로 농·축산업위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까닭에 주민들의 관심과 추진의지를 모으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몇몇 마을을 주축으로 하여 공동체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접경지역 특성을 살린 軍 카페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빵 개발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적성면 마을 살리기 추진 현황

적성면은 마을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
우선 마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성의 중심에 위치한 마지교에 늘어지는 사피이아 꽃 화단을 2020년 설치하여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다리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사진촬영 등 아름답게 변화해 가는 적성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많은 시민들이 아름답게 변화한 마지교에 대해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마지1교 화단

또한, 도로변에 위치한 적성면 마지리 80-5번지 일대에 2020년 '희망꽃밭'을 조성하였다.
이곳은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정차를 일삼던 곳으로 부녀회 및 사회단체에서 합동으로 직접 코스모스 씨앗을 파종하고 제초 등 관리를 실시하여 적성면 이미지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주황색 코스모스의 한들거림을 선사하며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적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유휴지 꽃밭조성

2020년 마을별 추진상황을 보면 주월리 한배미 마을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확대하여 농촌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있고 주월리 중심에 있는 마을쉼터 백옥봉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정원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설마리도 마을입구 양쪽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야생화, 철죽 등을 식재하고 장미터



마지1교 화단



유휴지 꽃밭조성

널을 조성하고 잡초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마을정원만들기를 통해 감악산 출렁다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마을 특성을 살려 관광객 및 군부대 면회객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한몫 하고 있다.

신생 주민사업체인 DMZ Army Cafe는 2020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를 개발하여 軍 테마로 하는 카페 창업을 목표로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객현1리에서는 2020년 경기도 공모사업인 아동돌봄 공동체에 선정되어 마을회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마지리 벽화마을 개선사업 등 퇴색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구상 중으로 적성면에서의 생활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마을을 향한 마을 살리기에 열중이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마을 살리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7년부터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 주민 소득 창출하는 한배미 마을

적성면 주월리에 위치한 한배미 마을은 원래 한야동(漢夜洞)이라고 불렀는데, 고려의 공민왕이 강선정(降仙亭)이란 정자를 짓고 궁녀들과 밤새워 뱃노래를 부르며 칠중하(임진강)에 비친 달과 은하수에 도취되어 붙여진 것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한야리, 한야미, 한배미라고도 불렀다.

주월리 한배미 마을 입구로 들어서면 한 폭의 그림 같은 메타세쿼이아 길을 만날 수 있다. 아름다운 한배미 마을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 주민들이 마을을 가꿔나가며 2019년에는 농협중앙회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분야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배미 마을 주민들이 마을 살리기를 일찍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내 주요 현안사항들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해결책을 강구했기 때문이다.

주월리의 한배미 마을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파주를 대표하는 농촌체험 마을로 자리 잡았다. 한배미 마을은 지난 2007년 녹색농촌 체험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산머루 체험을 시작했고 현재는 ▲배꽃 수정 ▲참게 방류 ▲산머루 따기·머루즙 만들기 ▲두부 만들기 ▲딸기 수확·딸기잼 만들기 ▲감자, 옥수수 농산물 수확 등 계절별로 다양한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배미 마을의 다양한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17년 1만여 명이 방문했고 2018년 8천400여 명, 2019년 9천200여 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한배미 마을은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며 적성면을 대표하는 최고의 농·어촌체험을 통해 자립마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다시 백옥봉을 우리품으로'를 추진하여 마을 야산으로 방치되어온 백옥봉에 방초매트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철쭉, 자산홍, 국화 등을 심고 포토존을 설치하여 주민 및 농촌체험 관광객에게 색다른 정원을 제공하고 있다.



머루주스 만들기 체험 및 마을 포토존 설치

걸음마를 시작한 신생 주민사업체 'DMZ Army Cafe'

적성면의 '디엠지 아미 카페(DMZ Army Cafe)'는 DMZ 청정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를 개발해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 주민사업체로 결성됐다.

디엠지 아미 카페(DMZ Army Cafe)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사업에 선정되며 파주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빵 제품을 개발해 군(軍) 테마의 기념품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품기획·개발부터 제품출시·판매까지 주민사업체가 직접 참여하며 적성면을 대표하는 먹거리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 품평회

㈜류재은 베이커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문가 개인 맞춤형 교육과 상품개발 멘토링을 받으며 20320년 3월과 6월, 11월, 3회에 걸쳐 소비자 품평회를 마쳤다. 적성면 에 있는 블루베리, 사과, 장단콩 농장주들이 본인의 농산물을 활용해 블루베리타르트, 사과타르트, 에그타르트, 초콜릿, 장단콩 마카롱 등 다양한 제과류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적성면을 대표하는 제빵을 출시할 예정이다.

2020년 파주형 마을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사업비로 적성면 감악산로 1311-35번지(구읍리)에 베이커리 연구/개발 및 체험 공간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와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오븐, 전자레인지 등 물품을 구비하였다.

'디엠지 아미 카페(DMZ Army Cafe)'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빵 사업을 통해 지역 농



아동돌봄 공간 조성

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상품 개발로 적성지역 만의 마을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당찬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있다.

객현1리 아동돌봄 공동체 '함께 신나는 키우미'

객현리는 마을 위치가 파주시 끝자락에 위치하여 근교 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져 초등학생이 문화 활동 및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접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암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아동돌봄 공동체 '함께 신나는 키우미'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공동체는 마을회관에서 농촌체험공간으로 사용하다 현재 창고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해 객현리를 비롯하여 인근 적암리, 어유지리, 율포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생활체육, 미술, 독서, 요리활동 등 아동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장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향후 적성면 마을살리기 나아가야 할 방향

적성면은 구석기 유적지, 육계토성, 칠중성 등 전략적 요충지 유산과 감악산 등 마을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여기에 파주치즈체험관, 산머루와인체험, 다양한 농촌체험은 연계하여 마을에 생기를 불어 넣을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체험마을 지원과 함께 DMZ Army Cafe 등 새로운 체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감악산 등산으로 몸을 단련하고 체험마을 네트워크 강화로 마음을 힐링하는 마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등 경기도 및 파주

시에서 공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신청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적극 노력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을공동체 마을살리기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향후 적성면은 마을 내 차별화된 벽화를 추진하고 교량난간, 설마천 제방 등에 꽃화분을 설치하여 마을의 거리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농촌체험 마을과 자연을 통한 힐링'으로 적성면 마을살리기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부서명 적성면 | 담당자 이수환(940-8196)

파평면

마을살리기 기준을 제시하는 '주민 주도형 파평형 마을살리기'

1. 파평이 최고다

- 주민의 의지와 참여가 만들어 낸 「공모사업 선정」 7개사업 6억3,600만원
  - 2020년 :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2천만원),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1.1천만원)
    파주시 (밤고지마을 정원만들기 등 4건 1억 5백만원)
  - 2019년 :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5억원)
- 전체주민 (3,946명) 5% (200명) 가 참여한 「파평 참사랑장학회」
  - 2020년 : 초·중학생 (6명), 대학생 (8명) 14명에게 장학금 3,032만원 지급
- 최근 6년간 파주시 농업인 대상 수상자 「파평면 8명 배출」
  - 20년(김*구), 19년(이*학, 김*길), 18년(이*규), 16년(이*엽, 장*철, 이*흥), 15년(김*호, 한*진)
- 지역경제를 살리고, 파평이 처음 인분들의 「생활지침서」 발간
  - 2020년 : 슬기로운 파평사용설명서 / 파평의 과거-현재-미래 「파평 마을백서」
  - 2019년 : 파평, 여기갈까? (음식점, 숙박업 소개) / 두포·마산리 지속가능한 미래

2. 소통이 길이다

- 자투리 공간을 주민 소통공간으로 재탄생 「고목나무 찻집」 운영 (2개소)
- 종합민원실 복도를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 「주민 갤러리」 운영
- 폐교 위기를 이겨내는 마을내 학교 연합 「파평마을 교육공동체」 최초 창립
  - 2020년 :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공모사업 (마을기자단 운영)
  - 2019년 : 파평면 4개학교 (파평초, 용연초, 장파초, 파평중) 학부모 40명으로 창립
- 파평 알쓸신잡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나는 잡job의 세계) 추진
-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첫 번째 마을 「밤고지 평화교육센터」 건립
  - 19년(공모/사업비 5억원확보) → 20년(설계) → 21년(준공) / 위치(두포2리 127-20)

3. 문화가 힘이다

- 주민 스스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기획하는 축제 「엔딩벚꽃축제」 (매년 봄/3회)
- 미활용 유수지를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파평 코스모스축제」 (매년 가을/7회)
- 버려진 공간을 주민 소통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주민참여 정원」 조성 (3개소)
  - 장소 : 두포2리 마을회관. 두포약수터, 두포리 148-37
- 집도 고치고 TV 출연도 하는 YTN 수선예능 프로그램 「고쳐듀오」 방영
  - 방영일 : 2020년 7.14일, 21일 (밤고지마을 4가구 집수리 및 마을 인터뷰)
- 마을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건물」 철거 (2020년 5개소)

⇨ 위와 같이 파평면은 "마을이 살아야 파주의 미래가 있다" 는 비전으로 「파평 최고다 소통이 길이다 문화가 힘이다」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살리기 실현

마을살리기 해법을 찾는 고민, 「파평형 마을살리기」 시작과 끝은 주민.

20년·30년 후가 되면 마을이 어떻게 될까? 계속 마을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비단 파평면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를 직면한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마을의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와도 같았다.

파평면은 2019년 12월 인구 3,946명으로 파주시 인구 465,648명의 0.8%의 작은 마을로 10년 전에 비해 인구는 18% 감소, 10세이하는 54% 감소, 65세이상 어르신은 6% 증가 하는 등 전형적인 인구 소멸지역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열악한 실정이다.

S (강점_활용)

- 문화자원 풍성 : 율곡이이, 우계성혼 기호학파의 정신적 고향
- 접근성 용이 : 자유로, 통일로, 3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서울 1시간)

W (약점_보완)

- 생활인프라 : 병원, 약국, 학원, 아파트, 목욕탕 등 생활인프라 부족
- 개발제한구역 : 6.25전쟁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or상수원보호구역 2중고)

O (기회_이용)

- 베이버부머 : 은퇴와 기대수명 증가로 장년층의 탈도시화 지속
- 탈도시화 : 코로나-19로 농촌생활에 대한 요구 증가(귀농)
- 2세들의 귀농 : 고용여건 악화로 가업 승계 2세 농·축산업인 급증

T (위협_회피)

- 인구감소 증가 : (05년)5,386명 → (15년)4,142명 → (19년)3,946명(27% 감소)
- 65세이상 증가 : (05년)1,104명 → (15년)1,231명 → (19년)1,384명(주민 3명중 1명)

이에 파평면만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실천 과제사업도 직접 수행해 나가는 파평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이 있는 파평을 만드는 꿈을 그리게 되었음.

▸1단계로 주민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파평이 최고다」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2단계로 주민들과 소통 · 적극행정을 위해「소통이 길이다」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3단계로 주민들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문화가 힘이다」로 공동체를 회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소득도 늘어나는 마을이 "파평형 마을살리기"의 모습이다.

파평이 최고다

주민의 의지와 참여가 만들어 낸「공모사업 선정」7개사업 6억3,600만원

파평면에는 있는 것 보다. 없는 게 많다. 주민들을 만나면 "~가 없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없어요! 그럼 만들면 되죠.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주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 하나씩 채워 나가고 있다.

▸2020년도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마을공동체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2천만원,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는「꿈의 학교 마을기자단 사업」이 선정되어 1천 1백만원, 파주시 공모사업으로는「밤고지마을 정원만들기」등 4건에 1억 5백만원을 받았고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밤고지 평화생태마을」이 선정되어 5억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마을에 ~ ~가 없어요?	⇨ (없다고 낙담 말고)	만들자. 사람 있으니까!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이 없어요?	▸ 마을공동체·활동가 중심거점을 만들면 되요! (19. 8. 19일) 행안부 특수지역사업 공모 선정 – 사업비 5억원, 밤고지평화생태마을 건립	
태풍으로 농산물 판로가 없어요?	▸ 자매도시에 팔아요 농산물 가지고 나오세요! (19. 9. 6일) 인천 계양 사랑나눔장터 참여 – 파평 농산물 판매(쌀, 사과, 꿀, 여주 등)	
풀과 산만 있지 정원이 없어요?	▸ 꽃, 함께 심으면 됩니다. 같이해요! (20. 3. 6일) 파주시 정원만들기 공모 선정 – 사업비 8천만원, 마을주민 30명 참여	
마을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 파평마을기자단 만들어 알아보자! (20. 3. 12일) 경기도 꿈의학교 공모 선정 – 사업비 1천만원, 학생기자단 20명 참여	
마을공동체 활동가가 없어요?	▸ 교육공동체, 마을의회, 귀농출판인 함께해요! (20. 4. 1일)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 선정 – 사업비 2천만원, 마을공동체 연합활동	
청년들 전용 공간이 없어요?	▸ 낙농카페 만들테니 모이고→얘기하고 하세요! (20.4.8일) 파주시 마을살리기 공모 선정 – 사업비 1천만원, 청년카페 6차산업 기지	
어르신 고독사 예방책 없어요?	▸ TV시청률집계프로그램으로 막을 수 있어요! (20. 4. 8일) 파주시 마을살리기 공모 선정 – 사업비 1천만원, ATAM 협의(기술가능)	
골목에 사람 · 추억이 없어요?	▸ '떳다 파평이모' 있어요. 골목으로 나오세요! (20. 6. 26일) 파주시 마을공동체 공모 선정 – 사업비 5백만원, 골목올림픽 추진	

전체주민 5%가 장학회원「파평 참사랑장학회」

파평참사랑장학회는 이갑열 前 이사장의 꿈에서부터 시작됐다. 30여년간 돼지를 키워 모은 돈 1억원을 내놓으며 장학사업의 꿈을 이야기하자 주민 20명이 동참해 50만원씩 내면서 2007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해 왔다. 그러던 중 장학회를 만들자는 데 뜻이 모아 지자 이 이사장은 대출까지 받아 1억원을 더 내놓았고 주민들도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씩을 선뜻 기부하면서 3억원이 모여 2009년 장학회를 설립했다.

경비 일을 하며 목돈을 내놓고도 매달 후원하는 이도 있고 농사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기부금을 내는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해 현재 200여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5억원의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회원들이 매달 입금하는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

파평참사랑장학회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대학생은 등록금의 50%를 4년 동안 지급하고 초등·중학생은 20~3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2020년 : 초·중학생(6명), 대학생(8명) 총 14명에게 장학금 3,032만원 지급.

▸그동안 : 초·중학생(76명), 대학생(39명) 총 115명에게 장학금 3억 4,000만원을 지급.

2020년	이*진(서울대)	안*섭 (서울과기대)	이*원(서강대)	경*윤(홍익대)	노*연(광운대)
	이*연(성신여대)	김*원(인하대)	곽*용(한양대)	김*렬 (한국산업대)	김*지(차의과대)
2019년	이*진(서울대)	안*섭 (서울과기대)	성*은(진주교대)	이*원(서강대)	김*연(경희대)
	경*윤(홍익대)	노*연(광운대)	박*재 (한국항공대)	이*연(성신여대)	김*원(인하대)

최근 6년간 파주시 농어민 대상「파평면 8명 배출」

농어민대상은 농어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한 농어민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파주시 농어민대상은 각 읍·면·동에서 고품질 쌀 생산 부분 등 총 5개 분야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의 재배기술 및 생산성 향상·지역 사회공헌 등을 현지 실사 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최종 결정된다.

2020년 파주시 농어민대상에서 파평면 ▶김*구님이 채소·특작부분에서, 2019년 ▶이*학님이 친환경 무농약 인증 ▶김*길님이 채소·특작부문의 감자 등 7개 품목의 친환경 인증 확대와 군납을 통한 유통망 확보 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간 2018년 쌀 생산부분(이*규님), 2016년 특작부분(이*엽님, 이*흥님) 축산분야(장*철님), 2015년 축산분야(김*호님)등 최근 6년간 파평면이 8명을 배출하여 귀농인이나 농·축산업 종사자에게 최신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파평이 처음 인 분들의「생활지침서」시리즈 발간

파평면에서는 2019년 10월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파평면 소재 음식점 65개소, 숙박업소 21개소를 소개하는 '파평, 여기 갈까?'책자를 제작해 관내 기업체와 군부대

에 제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 8월에는 파평면에 새로 이사를 오시거나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낯선 환경에 오게 되면 한동안 길을 헤매기도 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 이 분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파평 사용설명서」를 발간했다.

분야별 안내에서는 ▷우리 아이는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하나요?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자장면 등 뭘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감기 걸렸는데 근처에 약국은 어디 있나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서울은 어떻게 가나요? ▷농·축산업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동네 관광지나 문화재는 무엇이 있나요? ▷ 관공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파평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2020년 11월에는 도시화로 마을의 소중한 역사와 가치가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지역정체성 확립, 공동체 회복으로 마을가치를 확장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와 파평마을교육공동체, 떳다~파평이모, 두·마 마을의회 등과 논의하여 주민들의 글과 생각을 담아 「파평 마을백서」를 발간했다.

파평 마을백서는, ① 마을살리기 기준을 제시하는, 파평 ② 한반도 평화수도 첫 번째 마을, 파평 ③ 마을을 기록하다, 아카이브 파평 등 3단락으로 구성되어 파평면의 과거-현재-미래를 담고 있으며, 파평면행정복지센터, 북파주농협 파평지점, 파평농업인상담실에 비치되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관내 학교에 교육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파평, 여기 갈까? 2019년



파평 사용설명서 2020년



파평 마을백서 2020년

소통이 길이다

자투리 공간을 주민 소통공간으로 재탄생「고목나무 찻집」운영

과거 농촌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 이웃들의 노동력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아주는 교환노동으로 이웃과 얘기하며 서로 돕는 품앗이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농촌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추세로 점점 이웃과 소통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추억과 정서를 살리고 하루 일과를 마친 주민들이 마을 앞 고목나무에앉아 수박도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담소공간을 만들어 공동체를 회복하고자「고목나무 찻집」을 기획하게 되었다.



(율곡습지공원에 설치한 고목나무 찻집, 2019년)

「고목나무 찻집」은 마을을 장식하기도 하지만 사람과 자연을 돕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한다.

- 고목나무를 중심으로 주변에 벤치를 놓은 형태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 의자는 나무를 감싸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동이 가능해서 마을과 학교, 기업체를 찾아 다니며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찾아가는 고목나무 찻집」을 운영해 마을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주민들이 찾는 종합민원실 복도를 볼거리가 다양한 갤러리로 운영

파평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포근한 분위기와 소소한 즐거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다.



파평 희망나무(2019년 10월)



마을살리기 비전(2020년 1월)



동네사람 이야기(2020년 6월)

▸2019년에는 민원인과, 주민들의 소원이나 건의사항을 밤 모양 소망지에 적어 희망나무에 거는 행사

▸2020년에는 전국 최초로 설치된 파평면 마을살리기팀 비전 선포식, 동네사람 이야기 등 파평면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소소한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폐교 위기를 이겨내는 마을 내 학교 연합「파평마을 교육공동체」

학교 안 교육을 넘어 마을과 지역이 만나 아이들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해 왔던 학부모들이 2019. 11. 15. 파평면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파평마을교육공동체'를 창립했다.

파평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파평면 등이 협력해 만든 공동체로 2019. 10월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5차례에 걸친 준비 모임과 사전 논의를 진행한 결과 어느 한~두개 학교의 교육공동체가 아닌 파평면 모든 학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연합 공동체로 파주시 최초로 창립했다.

▸2020년에는 경기도 꿈의학교·마을자치공동체, 市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 3개 사업에 선정되어 3,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 마을과 학교가 하나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평면과 파평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드리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 무엇을 제공할건지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다.

파평 알 쓸 신 잡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나는 잡 job의 세계)

인구감소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애향심, 공동체의식 부재로 가속화 되고 있어 학교를 마을속으로 끌어들여 학생과 마을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파평면에 연고를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을 학교로 초청하여 학생들과 자유로운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습득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생각의 폭을 다양화하고 구체화 하는 파평 알쓸신잡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7월에는 파평도서관에서 전통음식을 주제로 심윤자님의 마을사람 이야기, 8


아이들의 미래 교육환경 구축 '첫 걸음'

파주시 파평면 '파평마을교육공동체' 창립총회 개최

파평마을교육공동체 창립총회



('19. 10월) 파평초교 알쓸신잡



('19. 12월) 파평중학교 알쓸신잡

월에는 향토음식을 주제로 임용석님의 마을사람 이야기, 10월에는 파평초등학교에서 「할아버지 졸업생이 들려주는 학교이야기」, 11월에는 시골살이를 주제로 윤상규님의 마을사람 이야기, 12월에는 파평중학교에서 권세용 파주양봉 영농조합 대표의 꿀벌이야기를 학생들과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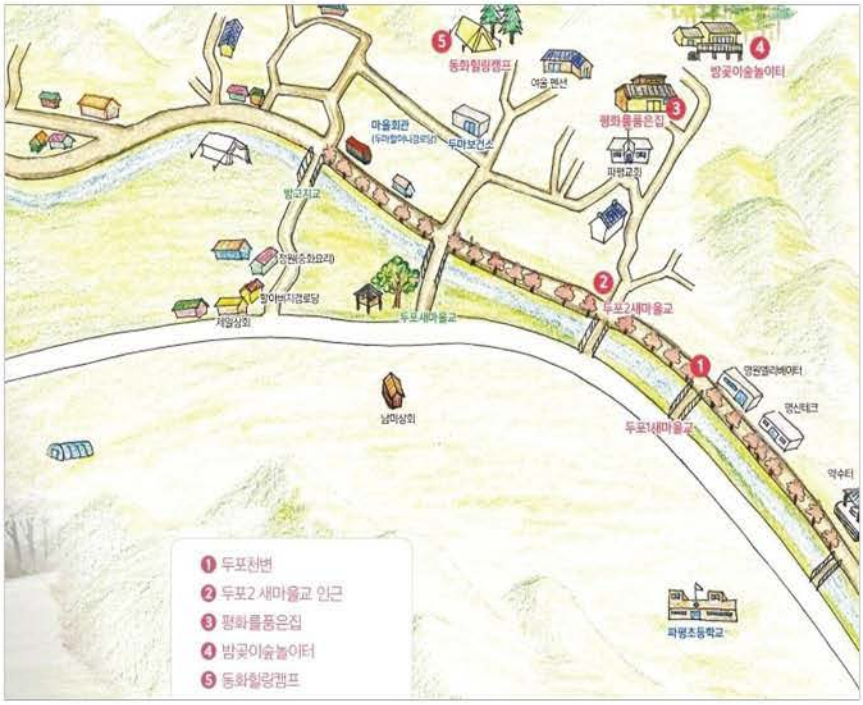
또한, 2020. 1월에는 파평면 주민총회에서 「파평 알쓸신잡」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첫 번째 사업 「밤고지 평화교육센터」 건립

파평면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0년 특수상황지역 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소외된 파평면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밤고지마을은 2013년도부터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밤고지 밤 벚꽃놀이' 평화교육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사업을 홍보하는 책자를 발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높이 평가됐다.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사업은 2019년 8월에 신규사업으로 선정 됐고 2020년 5월에 주민 설명회를 갖고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2021년 준공 예정으로 밤고지 평화교육센터 조성과 이정표 설치, 주민강화교육, 마을활성화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2020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총 4단계 사업으로 1단계는 2020년 주민역량강화 교육, 2단계는 2022년까지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평화교육센터 건립, 3단계는 2023~2025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2단계 사업을 충실히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다시 공모를 진행하고 마지막 4단계로 2026년 5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된다.



주민들이 그린 밤고지 마을, 2019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지원 신규사업은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돼 파주시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주민 스스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기획하는 축제「엔딩벚꽃축제」

매년 4월 중순에 밤고지마을에 오시면 지역주민이 개최하는 작은 축제를 만날 수 있다. "두포천의 아름다운 벚꽃 길을 마을 주민들만 보기엔 너무나 아까워 파주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작은 마을 축제를 열고 있다."

20여 년 전 깨끗한 마을로 선정되어 받았던 포상금으로 밤고지 마을 2㎞ 일대에 벚꽃나무를 심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고 2017년부터는 주민 스스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축제를 기획해 매년 4월 한반도 마지막 벚꽃축제인 '엔딩 벚꽃축제'를 추진하고 있다.

엔딩 벚꽃축제는 벚꽃 개화시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늦은 지역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반도에서 마지막으로 벚꽃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19년 개화일정 : 제주(3.24일)→진해(3.26일)→대구(3.31일)→서울(4.10일)→파평(4.18일)

축제에는 두포리, 마산리 주민을 비롯한 밤고지숲놀이터, 평화를 품은 집, 주변 기업체들이 합심해 준비하고 있다. 밤고지 마을은 낮에는 벚꽃이 피어있고 저녁에는 은은한 조명이 있어 아름다운 벚꽃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는 파주의 명소가 되고 있다.

미활용 유수지를 공원으로 재탄생시킨「파평 코스모스축제」

파평면 율곡리 191-3번지 127,000㎡, 38,417평의 면적이 2003년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로 지정되어 유수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이 2011년부터 집에 있는 트랙터와 포크레인을 가지고 나와 땅을 파고 돌을 고르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1년여 동안 고생 끝에 방치된 유수지를 공원으로 조성했다. 2012년 4월에는 유채꽃과 양귀비를 심고, 손모내기, 감자캐기 등의 체험농업을 진행했고 7월에는 농촌지도자회에서 29,000㎡에 땅에 코스모스를 파종해 조성하였고 10월에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제1회 코스모스음악회를 열었다. 2014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지원 사업에 선정돼 1천만원의 예산도 받았다.

이렇게 버려졌던 습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봄이면 황금보리, 가을이면 코스모스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매년 가을이면 시민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는 '파평 코스모스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밤고지 벚꽃축제(매년 봄/두포리)




파평코스모스축제(매년 가을/율곡습지공원)

버려진 공간을 주민 소통공간으로 재탄생 시킨「주민참여 정원」조성

파평면과 두·마의회는 파주시가 공모한 2020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에



'19. 11. 27. / 4회 '19. 12. 4. '19. 12. 18. / 3회 '20. 1. 6.

「밤고지마을에서 꽃길만 걸으세요」 프로젝트가 선정돼 정원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밤고지마을에서 꽃길만 걸으세요' 프로젝트는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로 지역 주민이 직접 가꾸는 마을정원을 매개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프로젝트다.
파평면은 주민 화합과 도시재생을 목표로 2019년 11월부터 10여차례의 주민회의와 현장확인, 전문가 토론(파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어반정글, 조경전문가) 등 협업을 통해 정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포2리 마을회관 옆 빈 공터, 두포약수터 빈 공터, 두포2리 새마을교 옆 버려진 공간을 주민 소통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정원만들기 사업이 단순히 정원 조성에 목적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과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식 회복에 중점을 두고 조성해 나가겠다.


두포2리 마을회관 조성 전(2019년)


두포2리 마을회관 조성 후(2020년)

집도 고치고 TV 출연도 하는 YTN 수선예능 프로그램「고쳐듀오」

팀장님? 마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 지붕이 샌다고 하는데 누가 고쳐줄 수 없나요?

YTN '고쳐듀오' 라는 방송이 있는데 주 내용이 어르신들 집 고쳐주는 수선예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문의해 보죠? 방송되면 어르신들 집도 고쳐주고 떨어져 사는 자식들한테 TV로 소식도 전할 수 있고, 마을 홍보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신청되어 YTN 고쳐듀오 방송 스텝 10여명이 2020년 6.21(일)~6.22(월) 이틀간 촬영하고 2020년 7.14일과 7.21일 2회에 걸쳐 어르신들의 웃는 모습을 TV에서 만날 수 있었다.



고쳐듀오 방송신청(2020년 6월)



2020년 7월 14일, 7월 21일 방영

노후 · 불량건축물 빈집 정비해 생활SOC로…주차장 등 활용

주요 도로변이나 도심지,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폐가축사·창고 등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생활 기반시설로 조성하고 있다. 파평면은 마을살리기 사업의 첫 번째는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인식아래 마을 내 노후 불량시설에 대해 소유주를 적극 설득해 2020년도에만 5채의 노후불량시설을 정비했다.


놀노리 정비 전(2019년)


놀노리 정비 후(2020년)

▸2020.5월 정비 : 소유주(수원,안양,서울 등), 용도(주택), 건축연도(1959년~1961년)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위험한 빈집을 정비하여 필요한 생활 SOC(주차장 등)로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민 · 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민선7기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마을살리기 추진

향후에도 주민역량 강화와 파평면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자연, 문화 등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주민중심 마을살리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2020. 8월	네바퀴 100인 홍보단	주민 100명의 차량으로 파평 먹·볼·놀거리 홍보
2020. 8월	파평 마을기자단	마을이 세상이다! 세상을 품은 마을기자단 운영
2020.11월	파평백서 발간	주민이 들려주는 파평의 과거-현재-미래 기록
2021. 5월	율곡 농산물 판매장	율곡수목원방문자센터내 파평농산물판매센터 활용
2021.12월	밤고지 평화교육센터	마을활성화 거점공간으로 운영



네바퀴 100인 홍보단 차량부착용 홍보물


파평 알쓸신잡


밤고지 정원축제



마을백서


율곡농산물판매장

파평면의 소득주도형 마을살리기 사업은 하드웨어(시설물) 가 아닌 소프트웨어(주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파평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특색 있게, 단기적으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소확행 사업으로 마을살리기 사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밤고지마을	(두포·마산)은	'두·마 의회'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장마루촌	(장파·금파)은	'리비교·라스트찬스'	중심으로	역사자원화 추진
– 샘내마을	(덕천·늘노)은	'파평산·샘내두부'	중심으로	신마을기업 육성
– 밤골마을	(율 곡 리)은	'율곡수목원·습지'	중심으로	신농촌으로 발전

「① 파평이 최고다 ②소통이 길이다 ③문화가 힘이다」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살리기 사업을 실현하고 있는 파평면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서명 파평면 | 담당자 정옥순 (940–8177)

6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

규제완화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 토대 마련

민선7기 전반기 2년간
약 20㎢ 면적 규제완화

2020. 12. 현재
38㎢ 면적에 대하여 규제 완화 신청하여 군부대 검토 중



2019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합리화 실무협의회 회의

접경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 작전상 중요지역이라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접경지역의 난제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결정 주체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하지만,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복잡한 행정절차는 주민 불편을 야기함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투자 환경을 낮추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지역발전의 주요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한 파주시의 의지와 노력

파주시는 관내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는 접경지역의 특성상 평소 군부대와의 상생을 위하여 군부대 애로 및 요청사항에 대하여 각종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 군부대로부터 대민활동 등의 지원도 받고 있다.



京仁毒B 2017년 09월 11일 월요일 006면 지역

행정절차 간소화 주민들 불편해소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실무협의회 개최

지난 8일 파주시 컨퍼런스룸에서 효율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처리와 군관 상생발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관내 6개 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및 대민지원 유공군인에 대한 표창전수와 효율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각 사단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 7월 25사단과 광탄면 일원 170만㎡, 8월에는 9사단과 연다산동 일원 68만㎡, 60사단과 상지석동 일원 114만㎡ 등 최근 3개 사단과 352만㎡에 대해 행정위탁을 체결해 군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보장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살고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정운기자

2017년 규제완화 실무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아시아타임즈 2020년 01월 28일 화요일 011면 사회

파주시 경제 활성화 '급물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문산읍 선유리 등 여의도 2.3배 면적 해제
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 규제개선 지속 추진

파주시가 6.75㎢(여의도 2.3배)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난 23일 발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산권 행사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해제지역은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 적성면 가월마지리이다.

군내면 백연리 일대 300㎡는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로 군부대 동의 시 건물신축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역, 일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 작전성 검토를 생략한 파주시 위탁 지역, 위탁지역의 고도를 확대하는 위탁완화 등이다.

이에 건축허가 신청 전 군부대 협의과정 생략은 토지개발 시 경제적 시간 비용 절감 및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수익창출 효과가 극대화 된다.

그동안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된 군사분계선 25㎞이내, 군사시설외곽 500m이내 등이 포함된 가운데 지역주민불편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지역 위주로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취지아래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정책을 펼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는 규제완화지역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파주시, 관할부대에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 불편 해소에 큰 힘이 됐다"며 "향후 신도시를 비롯해 주거, 공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kys2704049@daum.net

2019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보도자료

파주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정책에 발맞추어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민선 6기 91%에서 민선 7기 전반기 2년간 88%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되었다. 2020년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7㎢ 면적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심의 통과 후 고시를 예정하고 있다.

군부대와 협업을 통한 규제완화 효과

파주시를 관할하는 군부대는 1군단 예하 4개 사단과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2개 사단이며, 역동적이고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군부대와 긴밀한 협업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통하여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유재산 보호, 기업에는 보다 나은 투자환경 제공으로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부서명 평화협력과 | 담당자 김민수(940-5811)

7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 땅의 새 역사, '지적재조사'

지적불부합 토지 정리를 통한 경계분쟁 해소 및 디지털지적 구축

종이지적을 세계측지좌표계를 기준으로 새로이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지적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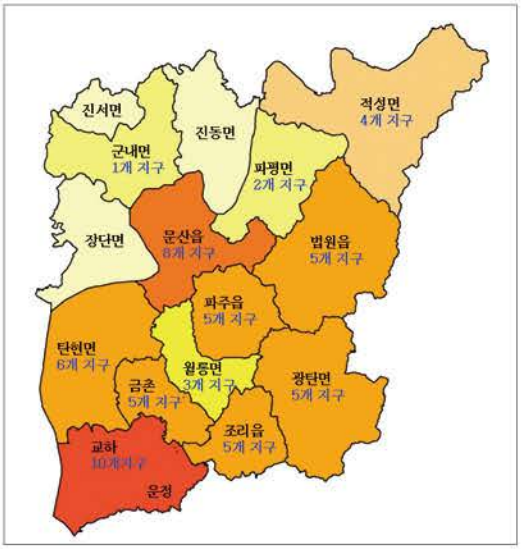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를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진입로가 없는 토지(맹지)에 도로를 확보하여 건축 등 토지활용 가능성 증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지적 주권의 회복과 부정확한 지적을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적제도는 1910년대 일제의 토지 수탈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가 국토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원인이 되어 경계분쟁 및 토지관련 소송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토지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러한 지적불부합 토지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2년 3월 17일]」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세계측지좌표계를 기준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파주시 전체 59개 사업지구에 대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30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추진으로 나머지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한 토지 경계분쟁 해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파주시는 2018년 9월 「갈현지구」, 2019년 9월 「마장 및 영장지구」, 2020년 12월 「백연지구」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지금까지는 연도별 1개 지구를 추진해 왔으나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인 만큼 2020년에는 국비 1억4,900만원을 확보해 3개 지구(능산·용미·운천)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비 3억 6,000만원을 확보해 5개 지구(선유·덕은·율포·당하·연다산)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의된 경계를 기준으로 측량하여 소유자간 갈등의 원인이 된 경계분쟁을 해소 하였으며,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하게 정형화 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는 도로를 확보하여 줌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가치 상승 등의 사업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현장민원실 운영, 온라인 카페 운영, 마을 이장 등 지역전문가와 협력 회의 등 다양한 특수시책 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현황을 제공하는 등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여 2020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 2020년 경기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장을 받았다.

도시재생사업과 협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우리 땅을 바르고 새롭게 디자인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취락지역은 지역적 특성 상 공공시설(주차장, 쌈지공원, 도로 등)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가 상존하여 공공시설의 수요를 파악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통해 국·공유지 유휴지를 활용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여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시민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서명 토지정보과 | 담당자 장수영(940-4876)

8 6차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연계로 특성화

6차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관, 소외 지역의 학생들의 체험교육 장이 되다.

2018. 12.
학교별 체험프로그램 참여수요조사
-기존「소규모학교 살리기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편성추진

2019. 3.
소규모중학교 6차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체험프로그램으로 참가비 지원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농복합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모색

파주시는 자연부락과 신도시 등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도시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발전시키고자 민선7기 '균형발전 상생도시' 시정전략 실현을 위한 교육 사업을 모색해 왔다.

이에 시는 소외지역 학생들의 폭넓은 학습기회 제공과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관내 6차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체험처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2019년부터 소규모 중학교6차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연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6차 산업(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1차 산업, 수확물을 가공하는 2차 산업, 1·2차와 연관된 체험, 관광 등 제3의 수익을 창출하는 3차 산업을 모두 연계하는 것으로 파주시에는 24개 인증기관이 있다.

소규모 중학교 학생, 6차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체험으로 진로탐색과 창의성 향상

파주시는 11개 소규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관내 6차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업 체험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표현 감각 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파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고 파주시의 산업이나 환경을 체험·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진로교육과도 연관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지역특색 프로그램으로 6차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체험처 인증기관은 물론 학생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다.

지역특색 교육사업이 가져오는 경제적·교육적 효과

6차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연계 특성화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함께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 안의 체험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중학교 학생들이 파주 안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자신의 삶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부서명 교육지원과 | 담당자 유선혜(940-5033)

9 행복주택 공급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희망의 빛이 된 법원 행복주택

2018. 1.11.
법원행복주택 공사착공

2019. 3. 29.
입주자모집공고(LH)

2019. 11. 14.
사용검사 완료



법원행복주택 조감도

산업단지 근로자 및 젊은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필요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임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슬로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문화, 공공활동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당초 법원읍은 인구유입이 정체되고 마땅한 임대주택이 전무한 실정이었고, 법원 제1·2산업단지 조성과 국지도 56번 도로 개통 등으로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으며, 산단 근로자의 설문조사 결과 행복주택 건설을 76%이상 희망하고 70%가 입주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조사되어 충분한 입주수요가 있었다.

행복주택 후보지로서 법원읍의 여건과 최종 선정에 대한 노력

2016년 1월 공모사업 초기에는 법원읍의 적은 인구와 낮은 수요로 공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제3차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에 직접 참여하여, 인구가 정체된 법원 소도읍의 균형발전과 법원 산업단지 조성, LG-파주시 업무협약 등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법원 행복주택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호소하여 2016년 4월 22일 심의위원 13명의 전원 찬성으로 후보지로서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또한, 원활할 사업추진과 조기 착공을 위해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으로 약 4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절감하였고, 국토교통부와 LH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1월 공사 착공, 2019년 3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2019년 11월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젊은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거점 역할 효과

파주시는 매년 1만5천명의 인구증가는 물론 4,300여개 기업 7만4천여명의 근로자로 구성되고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장 및 산업단지 근로자 등 젊은층의 입주수요와 주거복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준공된 법원 행복주택은 2020년 12월말 현재 전체 250가구 중 123가구가 입주하여 49%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입주가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젊은 층의 주거 복지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행복주택의 추가수요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향후 조성 가능한 토지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부서명 주택과 | 담당자 구자용(940-4752)

1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파주읍 연풍리,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

2018년부터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여 '20년 현재 3년차 프로그램 진행중

2019. 11.

파주시-EBS 업무협약 및 위·수탁협약에 따라 마스터플랜(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공간계획 구현 예정

2020. 7.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센터, 청소년 문화공간 등 거점시설의 준공으로 지역재생 기반마련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구역

죽어가던 도시, '재생'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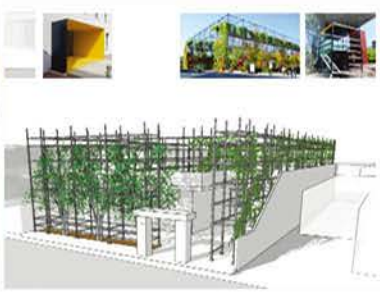
파주읍 연풍리 일원은 미군주둔 당시 파주에서 가장 번화했던 지역으로 군부대와 인근 집창촌의 소비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해왔던 곳이다. 1980년대 미군기지 이전과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에 따른 업소 종사자수 대폭감소 및 유동인구의 감소는 지속적 도시쇠퇴를 가져왔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상권의 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고령화 등으로 연풍리 일대는 전국 최대의 환락가라는 오명과 함께 도시 활력을 상실해 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주민과 함께 지역재생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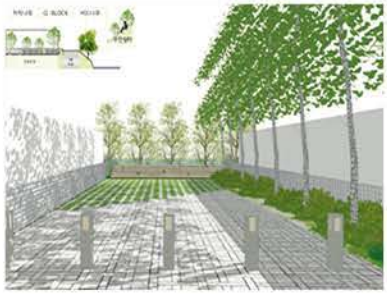
본 사업은 창작문화거리, 커뮤니티센터 및 상설문화공간,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데, 최근 파주시-EBS업무협약을 통해 연풍리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완



커뮤니티센터



거점공간1



거점공간2

성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특화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 중이다.

파주시-EBS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생모델 구축

파주시와 EBS는 2019년 11월 유비파크 공간 및 연풍리 일원의 도시재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을 2020년 1월 체결하고 12월 현재 마스터플랜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2020년 12월까지 진행된 마스터플랜 기본설계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지역재생모델 구축을 위해 '주민친화형 도시재생'과 새로운 테마인 'EBS콘텐츠' 도입을 화두로 '주거지로서의 환경구축, 빈집철거를 통한 거점공간 조성, 생존하고 있는 상점지원, EBS콘텐츠를 활용한 지역특화 사업모델 창출' 등의 수행전략 및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파주시와 EBS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가칭)연풍EBS길' 거점 공간 조성을 필두로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현해 나아갈 계획이다.

시는 가로환경 개선 및 공공영역의 편의시설 확보, 주민소통공간의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도시재생의 동력을 확보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EBS의 콘텐츠 도입으로 쇠퇴한 연풍리 일대에 문화·경제적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컬브랜딩, 연풍을 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지방 인구의 청장년층 공동화가 커지면서 지방 소멸과 지역 소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연풍리가 거주민,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즉, 아무도 방문하거나 투자하거나 살고 싶지 않게 된다면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사라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

공적인 브랜드 전략이 필수적이며, 그동안 용주골 집창촌, 환락가 등 여러 부정적 수식어에 시달려 온 연풍리는 새로운 지역브랜딩이 절실한 실정이다.

파주시는 EBS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의 도입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확장을 위한 연풍리만의 특색 있는 로컬브랜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간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생적 도시경쟁력을 갖춘 보다 견고한 재생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서명 도시재생과 | 담당자 유성철(940-5722)

11 종합적인 귀농 지원사업 추진

귀농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촌사회에 새로운 원동력 제공

농입인대학 신규농업인반 운영 : 93명 수료 ('18 ~ '20년)

귀농인 농가 창업 및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 35명 지원 ('18 ~ '20년)

다양한 귀농 지원사업 추진으로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신규 농업인구 유입
→ 농촌인구 감소를 막고 젊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사회로 변화 유도



고령화되는 농촌사회를 바꾸기 위한 방안. 신규 농업인구 유입

파주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다. 농촌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고, 부모·조부모세대들만 남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까지 겪고 있다.

지역별 인구 편차로 인해 현재 농촌지역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농촌뿐만 아니라 파주시 기간산업인 농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예측 가능한 사실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는 비단 파주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에 만연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시는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우선적으로 농촌지역의 신규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귀농인들의 농업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추진하게 되었다.

농촌 내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귀농 정책 추진

예비 귀농인 교육지원

귀농을 결심한 일반 도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바로 교육이다. 시는 생소한 농업분야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매년 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반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기초 영농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되는 교육은 기본적인 농업소양을 쌓아 실전 농사에 돌입할 수 있게끔 귀농인들을 농업지식으로 무장시키고 있다. 기초적인 농업 지식을 이미 습득한 귀농인을 위해서는 보다 향상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귀농창업 스타트업 교육을 제공한다. 전문강사와 선배 농업인들을 통해 1:1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하여 귀농인의 창업역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농가 창업 자금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 추진

교육으로 지식을 쌓았으나 자본금이 부족하여 고민하는 예비 농업인을 위해 정책자금도 지원 하고 있다.

파주시, 농협, 신용보증기금 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가 귀농인의 선발을 맡게 되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장기 저리 융자(이율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를 최대 3억까지 지원한다.

그 외에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등 예비 귀농인이 농업인이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 집중 지원



파주시 청년창업농 간담회

최근 국가적 화두는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더욱 크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계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매년 신규 청년 농업인을 선발하여 집중지원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3년간 월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받으며,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최대 3억원의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래 농장운영

을 위해 작성한 영농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경영진단과 분석 컨설팅을 받게 되며, 한국농어촌공사 매매 임대 물량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2020년 12월 현재 시에서는 총 31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에 정착한 청년 한명 한명이 파주시 농촌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신규 농업 인구 유입으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거듭나는 효과 기대

체계적인 지원사업들을 통해 파주시는 예비 귀농인들을 교육시켜 농업 지식을 향상시키고, 농업창업자금을 통해 농가 창업을 지원하며,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사회의 젊은 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교육 - 창업 - 정착」으로 이어지는 농촌사회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가능해졌다.

주목할 점은 지원사업의 중심에는 신규 농업인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주시는 급속도로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사회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파주시의 모든 농촌사회가 소득이 창출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파주시 청년 귀농인

부서명 농축산과 | 담당자 강희환(940-5204)

12

파주시 농업인의 물부족 문제 항구적 해소

물부족 걱정없는 안심 농경지 1,593ha 확보 및 농업경쟁력 강화

천수답이 대부분인 민북지역과 농업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파평, 광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 (파평, 광탄지역은 2021년에, 민북지역은 2025년완료예정)

물부족 걱정 없는 안심농경지 1,593ha를 확보함은 물론 파주시 농업인의 물부족 문제 항구적 해소 전망



상습 농업용수 공급부족 해결방안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동안 민북지역은 대부분 논농사 및 밭작물 재배 지역으로 임진강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밀물 시 염도가 증가하고, 가뭄 시 농업용수 확보가 매우 어려워 대부분이 천수답 형태로 영농여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또한 인근 파평지역의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은 노후화되어 농업용수 손실량이 증가하고, 농경지 재해 우려가 있었으며, 광탄지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족으로 농업용수 급수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주민간 분쟁이 잦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민북, 파평, 광탄지역에 양수장 및 송수관로 신설·개보수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효율적인 재편을 추진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였다.

파주시+한국농어촌공사의 협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선진화 추진

파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와 협업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선진화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8회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신청을 한 결과, 민북지역은 국비 총사업비 42,381백만원('20년~'25년), 파평지역은 국비 총 사업비 3,695백만원('18년~'21년), 광탄지역은 국비·시비 총 사업비 8,000백만원('18년~'21년)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3개 지역 총 사업비는 54,076백만원(국비 52,476백만원, 시비 1,600백만원)이다.

사업물량으로는 민북지역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21.6㎞이며, 수혜농경지 653ha이다. 파평지역은 파평 장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0.34k, 수혜농경지 328ha이며, 광탄지역은 양수장 2개소, 송수관로 6.4㎞, 수혜농경지 612ha이다.

물 부족 걱정 없는 안심 농경지 확보로 파주시 농업인의 물 부족 문제 항구적 해소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선진화 사업은 파주시 영농환경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21년에 파평, 광탄지구가 그리고 2025년에 민북지구 사업 완료에 따라 수혜를 받게 되는 농경지 수혜면적이 총 1,593ha이며, 체계적인 기본계획 승인 완료 및 세부설계 추진을 통한 전문적인 시공관리로 빠른 사업진행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효과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농업용수 확충사업은 물부족 지역의 농경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통해 열악했던 영농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영농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농업분야



민북지역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장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발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의 핵심사업이다.

이는 물부족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소하고, 파주시 수자원의 공급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어 서민경제가 살고,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농업지역으로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간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농축산과 | 담당자 오재호(940-8591)

13 과학 영농 실현의 시작, 농업용 드론

농업용 드론, 농촌의 새로운 일꾼이 되다

2020. 12. 현재

현재 관내 지역농협, 작목반 등 11개소에 농업용 드론 18대를 공급했으며, 농업용 드론의 운용은 병해충 적기 및 공동방제는 물론 농촌 일손부족 문제까지해결



농업용 방제드론

소형방제기를 이용한 농약살포는 옛말, 민북지역에도 농업용 드론이 뜬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은 어떤 분야보다 농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종자 파종, 농약 및 비료 살포 등 농업전반에 걸쳐 이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용 방제드론은 방제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 농촌의 새로운 일꾼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파주시의 민통선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NFL)이라는 규제로 드론을 이용하지 못하고 소형방제기를 이용하거나 농약통을 직접 등에 맨 채 농약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방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이 곳 이야말로 농업용 방제드론이 절실하였기에 시는 이러한 농촌의 염원을 이루고자 발 벗고 나섰다.

2017년 12월, 비행금지구역에서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유엔사 규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시는 농업용 방제드론 운영관련 세부지침을 요청하였으며, 3

월 ~ 6월에는 탄현면, 문산읍, 장단출장소와 해당 연대의 농업용 방제드론 운용협의(MOU)를 신속하게 체결하였다. 드디어 파주시 민북지역에도 농업용 방제드론이 뜰 수 있게 되었다.

농업용 드론의 보급 확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방안

민북지역에 농업용 방제드론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자 시는 적극적으로 농업용 드론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지역농협과 작목반 등 7개의 농업단체에 12억원을 보조하여 농업용 드론 10대를 공급하였으며, 2020년에는 농업용 드론 8대를 추가 공급하였다.

농가반응도 뜨겁다. 1ha의 면적에 농약을 살포하려면 3명이 투입되어도 5시간이나 소요되는데 드론은 10분이면 마칠 수 있고, 광역방제기가 들어갈 수 없어 그동안 공동방제에 포함되지 못한 곳까지 방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용 드론은 농업용 헬기와는 달리 낮은 고도에서 방제하기 때문에 목표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할 수 있어 방제효율도 높고, 방제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동안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 및 인건비 부담이 컸는데 이제 농업용 드론이 그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이에 시는 드론 공급뿐만 아니라 2019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하여 드론 이론 및 실습과 자격증 취득 교육 추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용 드론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의 4차산업혁명은 농업용 드론을 타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진 요즘 농업용 드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종자파종부터 비료와 농약살포,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3D지도 작성을 통한 토양분석까지 예전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였지만 이젠 드론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이 가져올 농업인구변화에도 주목해야한다. 그동안 농업은 고강도 신체노동이라는 이미지로 청년들에게 외면 받아왔다. 그러나 농업용 드론의 등장으로 여러 농작업이 훨씬 수월해져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정도의 신체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드론 조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과 노년층의 농업용 드론 운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드론)


드론 현장교육

드론은 이미 우리생활에 보편화되어있으며 감염병 관리 및 각종 재난 감시 등 활동 반경도 보다 넓어지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드론의 활용은 점차 확대될 전망으로 국제무인시스템협회는 상업용 드론의 80%가 농업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농업용 드론과 함께 우리 농촌에도 활력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해본다.

부서명 기술지원과 | 담당자 진보미(940-4502)

14 경기북부 최초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농업인의 맞춤형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실시

2019. 9.
운송차량이 없는 소규모 취약 농가(여성, 고령자, 귀농귀촌 농업인)에게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시행

전국 최고의 농업인 중심 복지형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시행으로 운송비 절감혜택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농업인 만족도 제고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농업도 복지다, 찾아가는 농기계 운송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 맞춤형 임대사업 추진

농촌 인구의 고령화 심화와 함께 여성, 귀농·귀촌 농업인의 증가로 농업에서 농기계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면서 농작물 생산량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여 많은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및 힘든 농사일로부터 해방을 도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농기계 운반용 운송차량이 없는 소규모 농가들은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임차하고도, 필요한 곳 까지 운반을 위해 별도의 차량 임차료와 운송비 등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파주시는 2019년 9월부터 여성, 고령자, 귀농·귀촌 농업인 등 운송차량이 없는 소규모 취약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아 농경지 인근까지 임대농기계를 배송 및 회수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현재까지 총131건의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등 농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임대농기계 배송 서비스 경기북부권 최초 시행으로 농민들의 호응 이어져

이러한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기계 임대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리적으로 넓은 파주시의 특성상 임대 후 운반이 또 다른 문제였음에 착안하여, 경기 북부 최초로 이루어진 수요맞춤형 농업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대농기계 배송 서비스, 일손 부족한 농촌에 큰 활력소 될 것

파주시가 시행하는 임대농기계 배송 서비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부담 완화는 물론, 농기계 임대 활성화로 이어져 향후 농업 생산량 증대 및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임대농기계 배송 서비스에 대한 농업인들의 건의와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부서명 스마트농업과 | 담당자 이창덕(940-5265)

15 명품 농산물축제 추진

농촌경제 및 도농교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법, 명품 농산물축제

파주장단콩축제와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농산물 브랜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민축제로 발전

파주장단콩축제
-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18, '19, '20)
-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선정 ('18, '19, '20)

파주개성인삼축제
- 경기관광특성화 축제 ('19, '20)
- 대한민국빅데이터축제 대상 선정 ('19)



파주장단콩

파주장단콩축제와 파주개성인삼축제는 파주의 역사적 전통에 기반한다.

예로부터 "장단삼백"이라 하여 임금님께 진상되던 파주 장단지역의 농산물 중 하나가 바로 장단콩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파주한수위 "쌀"이요, 또 다른 하나는 6년근 파주개성인삼이다. 19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인 "장단백목"은 파주 장단지역에서 수집한 토종콩으로 육성한 품종으로 1973년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과 함께 재배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파주장단콩축제가 1997년부터 개최되었다.

또한 예전부터 파주(개성)인삼은 개성을 중심으로 한 8개군에서 널리 재배되어 왔는데 이중 대부분은 북한쪽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파주시 장단면 일대가 개성인삼의 주 재배지로 인정받고 있다. 고종25년 개성의 증삼포에서 개성부근 장단지역의 인삼을 백삼, 홍삼으로 가공하여 국내 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는 구포건삼도록과 1908년 인삼의 규모와 소재지가 자세히 기록된 한국삼정요람에는 파주시 장단면 일대가 개성인삼의 본원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을 토대로 고려 개성인삼의 옛 명성을 되찾고, 6년근 인삼 최적재배지로서의 파주시 이미지를 제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고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파주개성인삼축제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파주장단콩축제와 파주개성인삼축제는 단순히 콩과 인삼을 판매하는 축제가 아니라 파주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시민 축제로 발전해 오고 있다.

2019 파주장단콩축제
2019. 11.22.-24. [3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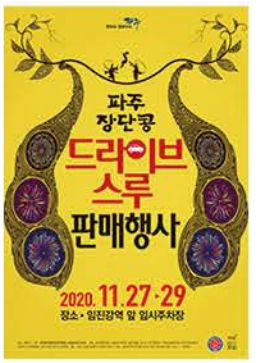
꼬마메주만들기, 도리깨 콩 타작, 한국전통놀이, 감자고구마 구워먹기, 전통혼례 체험, 파주장단콩 요리경연대회

2020 파주개성인삼
2020. 10 16.-18. [3일간]



파주개성인삼 수삼, 파주한수위쌀, 파주꿀 판매장, 유튜브 홍보방송

2020 파주장단콩축제
2020. 11.27.-29. [3일간]



파주장단콩, 파주한수위쌀, 파주개성인삼 판매장, 유튜브 공연행사

* 2019 파주개성인삼축제 및 장단콩 축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위하여 취소

최고급 우수농산물과 파주시민이 함께하는 도농교류 화합의 장으로 조성

민선7기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별 사전 프로그램 운영을 협의하여 시민·농업인단체가 주축이 되어 각종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파주장단콩 전국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장단콩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파주 장단콩의 소비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파주 농산물 브랜드 육성의 특징으로는 첫째 엄격한 품질관리로 믿을 수 있는 콩과 인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이력제 시행으로 예정지 관리에서 수확 및 선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정선과정 확인, 봉인하여 외부 농산물이 축제장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관리하였다.

둘째로 파주장단콩과 파주개성인삼 등 농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고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고 셋째로 교통, 주차 등 소비자 편의를 증대 하여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축제가 연중 판매로 이어지는 판매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0년 새로운 질병인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파주농산물축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되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취소·축소된 2019년 파주농산물축제에 이어 2년 동안 제대로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졌다.

이에 시에서는 농산물축제를 대신하여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비대면 농산물판매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지자체가 온라인 판매만으로 진행한데 반해 보다 적극적인 판매방식인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했다. 방문객이 좀 더 편안하고 빠르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행사장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파주개성인삼(10월) 및 파주장단콩(11월)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추진하여 파주개성인삼(6.3톤, 2.9억원), 파주장단콩(55.3톤, 6.6억원) 등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시에서 최초로 추진한 파주개성인삼 드라이브스루 행사는 임진강역 앞 임시주차장을 행사장으로 정하고 기존의 드라이브스루 방식과 달리 3갈래 길에 설치된 12개의 파주개성인삼 판매장을 설치하여 차량정체를 해소하였으며, 무료택시(10대)를 운영하여 차



파주 개성인삼축제 2019년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 선정

량이 없는 도보 방문객에 차량을 제공하였다. 다만 생소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으로 방문객이 예상보다 적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산물 판매를 위한 가능성을 보았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방식에 대한 사전홍보를 위해 KBS를 활용한 공중파 홍보, 파주시 유투브 등 SNS 홍보 등을 대폭 강화하여 파주장단콩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준비하였다. 아울러 지난 드라이브스루 행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철저한 방역 속에 셔틀버스 운영, 무료택시 증차(10대→20대)하여 행사장 접근성을 높이고 파주시 교통복지정책의 일환인 천원택시에서 착안한 '천원택배'를 준비해 무거운 콩을 자택까지 천원 한장에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파주장단콩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는 파주장단콩이 완판되는 성과를 기록하며,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성공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였다.

우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 새로운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지 모른다. 시에서는 이처럼 전염병이 일상화되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안전한 축제, 농산물 판매시스템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색중이다. 공중파 방송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새로운 시스템의 적용, 성과분석 등을 통해 축제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또한, 평화곤돌라 1층에 자리한 파주시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을 통한 우수 파주농산물을 연중 판매를 할 계획이며, 도시민을 초대하는 농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파주개성인삼 드라이스루 판매행사

파주 농산물을 생산 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소비자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팜, 경기사이버장터 등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하여 언제든지 소비 자가 원하는 때에 파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서명 농업진흥과 | 담당자 김진환(940-5282)

16 파주 미래농업을 여는 '스마트 농업' 추진

스마트농업과 신설, 신기술 연구를 위한 시험, 연구포장 조성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조성 운영 : 14.9ha
- 파주장단콩(늦서리태, 백태)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12.5ha)
- 허준 약초(천년초, 작약 등 10종) 종묘생산(2.1ha)
- 나라꽃무궁화 전시포장 조성(0.1ha)
- 벼 + 큰징거미새우 시범양식장 조성(0.2ha)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및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포장 운영 : 1.1ha
- 경기북부 최초 설치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운영 DB화 : 560㎡(방울토마토)
- 파주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농업인 양성 : 연중운영
- 콩 품종별 비교전시포 및 노지작물 시험재배 운영 : 31품종
- 소비자트렌드에 맞는 토종종자 선발 재배확대 : 목화 외 15종
- 기후 변화에 따른 새 소득작목 연구개발 : 단수수(양갱 개발)



허준 한방의료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기능성 천년초 재배

전국최초 스마트농업과 신설(2018. 10. 22.)로 4차산업혁명시대 농업의 선제적 대응

파주시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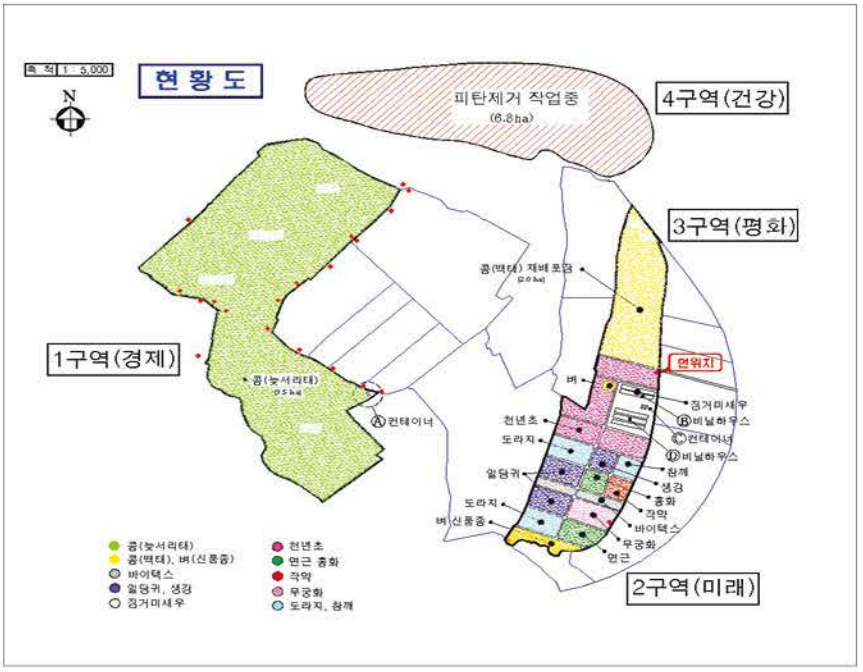
이런 목표에 따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과 기술 경쟁력이 높은 파주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2018. 10. 22. 전국최초로 스마트농업과를 신설하였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내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에 의한 토마토 시험재배로 기존 관행재배보다 1brix 향상, 병해충 발생 최소화로 농업 현장에서 재배작물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환경 계측에 의한 DB화로 전국 농촌진흥기관간 네트워크화 시스템이 가능해 졌으며 스마트팜 교육을 통한 파주시의 미래 스마트농업 전문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교육, 각 기관의 벤치마킹 안내,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스마트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기반조성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현황도

농업 협의체 구성 활동으로 전문능력기술을 배양하고 있다.

2020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2019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밭작물 스마트팜 사업으로 친환경기술과 ICT장비를 도입 기상과 토양환경계측, 병해충 예찰이 가능한 스마트농업의 선두 지자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

는 여건을 만들었다.

토종종자 연구를 통한 소비자 취향에 맞는 상품개발 가능성 확보, 전국 지자체중 유일의 31가지 콩 품종 비교전시포 조성으로 파주장단콩 홍보와 농업인의 재배기술 향상에 기여, 기후변화 대응 단수수 재배를 통한 양갱개발 및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사업 제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 기여 등의 성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파주장단콩 콩나물재배용기의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해 파주장단콩 홍보는 물론, 자라나는 유아,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도하고 독거노인에게는 반려식물로서 치유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평화와 미래 경제를 여는 풍요로운 복지농촌을 위하여

파주시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지역인 장단면 거곡리 6번지 일원 21.7ha에 새 소득작목개발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의 지역적응시험 및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은 지난 30여 년간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됐던 지역으로 파주시가 농지를 매입해 운영하며 전국 지자체의 농업시험연구포장 중 최대 규모다. 또 스마트농업 적용 시설하우스 5동을 설치해 2021년 부터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의 지역적응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주시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에서는 재래종인 늦서리태의 종자가 다양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늦서리태 채종포를 조성하고 최적의 종자를 선발해 희망농가에 자율교환해 파주장단콩축제시 선보일 계획이다.

또 '무궁화 유전자원 전시포'를 조성해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심고 특히 파주지역에서 수집돼 명명된 '임진홍' 품종을 특산화 할 계획이다.

더불어 태삼으로 알려진 천년초를 비롯해 작약, 도라지, 홍화, 생강, 연근 등을 재배해 경관조성은 물론 약초 단지화를 통해 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동양최고의 한의학서인 동의보감의 저자 구암 허준의 본고장으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파주시의 새로운 농업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지속적인 농업연구를 통해 소득에 기여하는 농업 추진과 함께 남북농업협력과 북방농업의 전초기지로써 최적지인 만큼 지속적으로 첨단농업기술과 생산성 증대 기술을 연마할 계획이다.

어려운 일 도와주는 파주시민의 힘! 남북농업협력과 허준 약초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마련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의 경계측량시 주민입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로 민원제로와 농업인 편에서 생각하는 시민행정 실천으로 파주시 선진행정 추진에 앞장섰다.

관정은 물론 관수시설 설치 전 극심했던 봄철 작물재배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였으나 인근 농업인의 적극적인 농업용수 제공으로 안전하게 새싹을 틔울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인근 논에 오일이 유입되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게 환경보전과의 방수포 지원으로 서로 협력하여 도와주는 선행으로 파주시 공무원의 친절서비스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지원이 올스톱 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인 NH농협파주시지부, 북파주농협 등 영농현장에서 2020년 7월 천년초 심기 일손 돕기 등 업무협업의 모범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자원봉사센터등록 시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파주시민의 한마음 되는 단합된 모습을 보았다.

반세기 동안 군 사격장의 황무지로 있었던 지역을 옥토화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의 땀 한방울이 모여 조금이나마 농지로서의 형상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스마트팜 교육장 내부



파주장단콩 품종 비교시험포장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새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종묘·종자 생산, 약용작물 육종, 한방 약초 기능성 소재류 발굴 등 약초단지 조성으로 2020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파주시의 경제 지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사업의 밑거름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놓았고, 남북농업협력 및 북방농업 전초기지를 확보해 언제기회가 오면 북한에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동의보감에 뿌리에서 인삼냄새가 난다 하여 태삼(太蔘)으로 알려진 천년초는 항염, 항암, 시력증진, 간 기능보호, 미백효과, 관절염 예방 등 1000가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토종 선인장인 천년초를 기반으로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과 국내외에 수출해 소득화 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파주농업의 평화 미래 경제를 위한 도약!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파주시는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한반도 평화경제도시이다.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에 들어서면 구역별로 평화와 미래, 경제의 푯말이 보인다. 파주시가 지향하는 시정목표와 우리농업이 지향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파주장단콩(늦서리태) 우량종자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구암 허준의 본고장으로서 가치실현과 허준 약초 단지조성 종묘생산이 가능해졌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남북농업협력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하는 접경지역중선도 지자체로서 높은 평가가 기대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스마트농업 및 첨단 신기술 보급과 파주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스마트 리더를 양성하고 있어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CT를 접목한 스마트 테스트 베드 교육장을 경기북부 최초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경기북부지방 최초 (통일)영농형 태양광사업 시범 4개소 설치 운영, 경기북부지방 최초 노지스마트팜 단지 1개소 설치 운영, 시설원예 스마트팜 사업 59개소 41억 9천만원 지원으로 파주시 스마트농업의 혁신을 가져왔다.

부서명 스마트농업과 | 담당자 조장현(940-4826)
정형수(940-5285)

17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배양시설 900톤 규모 확대

바른 먹거리,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미생물 공급

2019. 8.
미생물배양실 북부지소 개소로 연간 총 900톤 생산규모 확보, 시민과 농업인 대상공급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무인공급시스템 구축으로 타시군 벤치마킹 대상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작물 생육 증진 및 축산농가 악취 저감 효과를 통한 친환경 농업 실천



미생물 배양시설

바른먹거리와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확충

바른 먹거리, 환경 친화적 농업 실천을 위해 파주시에서는 2004년부터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다. 파주시민, 농·축산업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용미생물 사용 후 높은 만족도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미생물 생산량 증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파주 북부지역의 경우 농산물 생산 및 가축 사육농가의 비율이 높으나 시간, 거리상의 이유로 미생물제제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파주시는 농·축산업 종사자 대다수가 존재하는 파평, 적성 등 주민들의 미생물 사용의 편의를 위해 2019년 8월 23일 연 500톤 생산 규모의 미생물배양실 북부지소(파평면 청송로 503-13)를 개소하였다.

미생물배양실 현황

구 분		본 소	지 소	비고
면적		430㎡	498㎡	
배양기기	멸균기	100L(2기)	700L(1기) 100L(1기) 30L(1기)	
	살균기	1.0톤(5기) 0.5톤(6기)	1.0톤(6기)	
	저장소	1.5톤(1기)	1.5톤(4기)	



저장소 전경



실험실 전경



건물 외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공급중단에도 공급실적이 증가되는 고무적 성과 이뤄

2019년 미생물배양실을 이용한 농가수는 본소 2,808호, 북부지소 467호로 총 3,275호가 325톤을 공급받았다. 2019년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미생물 공급 중단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급 재개 이후 2020년 상반기 총 3,168농가에 305톤의 미생물을 공급하며 2019년 공급 실적을 상회했다.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전체 공급량의 1/3에 달하던 양돈 농가의 공급이 중단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맞춤형 미생물제제 공급을 위한 노력

파주시 미생물배양실에서 공급되는 미생물의 종류로는 농업용 3종(광합성균, BT제, 바실러스)과 축산용 3종(유산균, 광합성균, 효모)이 있다. 농업용 혼합균의 경우 작물의 생육 촉진, 병원균 억제, 토양 내 양분 효율증진 등의 작용에 도움이 되며, BT제의 경우 농작물 잎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소량 공급되고 있다. 축산용 유산균은 가축 면역력 증진, 퇴비부숙균은 악취 저감과 축분 부숙을 촉진하는 효과로 많은 축산업 종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동절기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모균을 공급하였다. 효모균의 경우 동절기에 부족할 수 있는 가축의 영양보충 역할과 비타민B원 공급, 사료 효율 향상 및 소화 촉진 등의 효과가 있다.

2020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퇴비부숙 효과에 탁월한 4종의 미생물을 혼합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했다. 이 혼합 미생물은 난분해, 고분자 유기물 가용화 능력이 우수하며 특히 축분에 많이 함유된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과가 우수하다.

2019년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매몰지 악취 민원해소를 위해 미생물 제제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공급 미생물은 유기물 분해효과가 탁월한 바실러스 3종 및 황화수소, 암모니아 악취저감의 효과가 있는 광합성균을 혼합한 액상제제이다. 2020년 2월부터 매주 1톤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반기 총 25톤의 미생물을 공급하여 매몰지 인근 주민의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 확충

기존의 호스를 이용하여 충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셀프주유소와 같은 시스템으로 공급라인을 직접 설계, 제작하였다. 이 시스템 도입은 실제 주유기로 농업인이 직접 충진이 가능하여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최대 4개 농가까지 동시에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터치 스크린을 제작하여 비대면 무인공급 시스템을 갖추어 타 시군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방역 지침 상 가축감염병 예방조치로 미생물을 공급 받는 농가의 경우 거점 소독시설에서 방역 소독 완료 후 방문이 가능했다. 북부지소의 경우, 왕복 10㎞가 소요되는 적성에 위치한 거점 방역시설까지 이동했다가 미생물을 공급 받아야 하는 고충이 있었으나, 지소 내 방역시설을 갖추고 선방역-후공급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충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했다.

친환경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파주 미생물배양실

파주시는 미생물배양실 북부지소 개소 이후 연 500톤(농업 200톤, 축산 300톤)을 추가로 생산 가능하게 되어 연간 총 900톤 생산 규모를 확립하였으며, 파주시민과 농·축산업인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유용미생물 사용 시 농업인의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절감에서 오는 생산비용 절감, 식물 생장촉진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농가의 소득 증대 효과로 이어진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미생물 사료제제를 공급하여 사료 효율성 증대, 면역력 증진뿐만 아니라, 퇴비부숙미생물을 공급하여 악취 민원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다.

현재 파주시 친환경 미생물배양실에서는 퇴비부숙을 위한 미생물시용 효능 규명과 엽채류 저장성 증대를 위한 클로렐라 시용 효과 검증을 위해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를 받은 고추탄저병 특허미생물의 실시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파주시에서 실증시험을 거쳐 일반 농가에 보급 될 예정이다.

앞으로 노후 기계장비 교체, 신규 미생물 도입 및 공급 등으로 파주시민과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미생물배양실 이용과 친환경 농업실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스마트농업과 | 담당자 남지영(940-4906)

18 파주쌀 품질 고급화 및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 추진 (한수위, 장단삼백)

파주 농산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품질 파주쌀 광고로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판매량 증가

장단삼백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박람회 및 직거래행사 ⇒ 1억원 판매

파주개성인삼·파주장단콩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 35억 4천만원 판매

설·추석맞이 직거래장터 ⇒ 4억 8천만원 판매



파주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조감도

파주시 농특산물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파주 농특산물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최대 쌀 생산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파주시통합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농업인이 제 값을 받고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파주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파주농산물 직거래 강화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2018년 10월 적성지역과 2019년 11월 금촌지역에 건립하는 등 파주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파주쌀 브랜드 '한수위'

파주시에서는 장단삼백 본래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계승하고자 쌀, 콩, 인삼과 더불어 파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아우르는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장단삼백」을 개발하게 되었다.

장단삼백 이미지



파주쌀 브랜드 '한수위' 홍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금촌농협)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버스, 택시, 경의중앙선, 대형마트 등 다채로운 대중매체 홍보와 파주개성인삼·파주장단콩축제, 지역행사에 쌀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방면으로 고품질 파주쌀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파주의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유기농 무역 박람회 등 대·내외적 파주 농특산물 홍보 강화와 파주 농특산물 쇼핑몰 "파주팜" 운영, 고품격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수출 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 소비자 기호에 걸맞는 고품질 신선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 시설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물류비 및 묘목·종자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고품질 한수위 파주쌀 대외적 이미지 구축

파주쌀의 건조·저장·가공·포장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파주시통합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관리비용절감, 미질향상 및 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2만톤 이상 한수위 파주쌀을 판매하고 있다.

파주시통합미곡종합처리장 현황

사업자	소재지	연간원료처리능력 (톤)			
		건 조	저 장	저온저장 능력	가공 (300일 기준)
파주시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411-35	33,000	24,500	1,000	24,000

고품질 한수위 파주쌀의 소비자 인식 증대를 위하여 2018년 3억원, 2019년 3억원에 이어 2020년 3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버스, 택시, 경의중앙선 등 움직이는



수도권 버스 광고



택시 광고



경의중앙선 광고



서울 전광판 광고



코스트코 와이드칼라 광고



G버스 내 LCD모니터



디지털 패널(KTX용산역)



디지털 패널(홍대입구)

교통수단 내·외부 광고와 파주쌀 입점 대형마트 와이드칼라 광고 등 기존 광고와 더불어 2020년에는 새롭게 구성한 G버스 내 LCD모니터, 서울 도심권역 옥외LED전광판, 서울·수도권 지하철역 디지털 패널 등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다.

파주시·농협·농업인·마케팅 전문가·소비자 등을 참여시킨 파주쌀산업발전협의체를 결성하고 파주쌀 소비촉진 캠페인, 파주쌀 발전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한수위 파주쌀 소비 진작 및 대외적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파주쌀 발전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장단삼백 브랜드 홍보강화 및 농산물 유통관리

파주시는 우수 농특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통한 장단삼백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박람회 등 대외적 주요행사에 참여하였다. 2019년에 경마공원 농특산물 직거래 오픈마켓(2019. 3. 23. ~ 3. 24.),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2019. 3. 28. ~ 3. 31.),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2019(2019. 6. 6. ~ 6. 9.), G Food Show(2019. 11. 20. ~ 11. 23.) 등 대외적 직거래 행사에 총 6회 참가하여 1억원의 판매 실적과 파주 우수 농특산물의 대외 소비자 신뢰 확보 등 장단삼백 브랜드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파주의 대표 축제(파주개성인삼·장단콩축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명절맞



경마공원 농특산물 직거래 오픈마켓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2019



2019 G Food Show

파주시의 대표 축제이자 국내 최대규모의 농산물 마켓인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는 매년 약 40만명 이상의 방문객과 약 6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파주장단콩과 파주개성인삼이라는 대표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며, 지역 농업인과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제를 드라이브스루 판매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며, 매출액은 약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축제에 비할 수는 없지만 포스트코로나



2018 파주개성인삼축제



2019 장단콩축제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판매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공적이라 할수 있다.

또한, 매년 설과 추석에 파주시청 주차장과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소에서 사과, 배, 홍삼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2018년에 3억 5천만원에 이어 2019년에는 1억 3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외에도 평일에는 운정행복센터 앞에서 소규모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파주시는 농특산물의 홍보 촉진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장단삼백" 사용권 부여 농업인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단삼백 브랜드 사용권이 부여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사업신청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단삼백"이 표기된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으로 파주농산물의 품위를 높여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현황

년 도	농가수 (개소)	사업비(천원)		
		계	보 조	자부담
합 계	238	740,000	370,000	370,000
2018년	79	220,000	110,000	110,000
2019년	78	220,000	110,000	110,000
2020년	81	300,000	150,000	150,000

2019년부터 새롭게 시행한 소규모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은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은 물론 홍수출하 방지 등 출하조절을 통해 적정가격 지지와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어 매년 농가의 호응도가 높다.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현황

년 도	농가수 (개소)	사업비(천원)			
		계	보 조	농 협	자부담
합 계	70	600,000	240,000	120,000	240,000
2019년	35	300,000	120,000	60,000	120,000
2020년	35	300,000	120,000	60,000	120,000

파주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직거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파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파주팜(www.pajufarm.co.kr)"을 운영하고 있다. 쇼핑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파주팜 메인 화면 디자인을 계절별, 시기별로 업그레이드하여 구매 욕구를 촉진하고, 소비자가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 카테고리 및 아이콘을 재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매출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팜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 인지도를 확보하고 농가에 새로운 고정 소득 판로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유통지원 강화

아울러, 파주시는 신선농산물 재배농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묘목·종자·영양제 등 수출 농자재 지원사업과 수출용 포장에 소요되는 박스, 패드, 라벨지 등을 지원하는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으로 일조부족, 고온 등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성 필름 교체, 제습기, CO_2 발생기, 양액 공급기 등의 수출현대화 시설지원을 통해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증대에 기여하였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에 소요되는 집하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힘썼다.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935,215	657,000	131,254	146,961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116,069	90,400	10,669	15,000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66,561	31,600	15,000	19,961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지원	636,000	456,000	90,000	90,000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116,585	79,000	15,585	22,000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길,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파주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파주쌀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다채로운 대중매체 광고와 대대적인 파주쌀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추진한 결과, 판매액이 2018년 468억원에서 2019년 490억원으로 22억원 증가하였으며, 한수위 파주쌀 브랜드 판매 비중도 280억원에서 282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에 5,363백만원의 파주쌀을 판매하였고, 파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파주팜" 파주쌀 판매실적이 2019년 18,094천원, 2020년 12월말 현재 62,564천원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농산물의 표준화 및 규격화가 가속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대폭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자의 구매형태도 여러 형태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재래·도매시장과는 차별화된 유통형태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장단콩축제·인삼축제와 대내외적 박람회,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파주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육성이 필요하므로 화훼, 배, 토마토 등 제한적인 농산물 수출에서 벗어나 품목을 다양화 시키고 전문적이고 조직화된 수출조직 육성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부서명 기술지원과 | 담당자 김태희(940-4601)
김보경(940-4602)
정동민(940-4603)
이진규(940-4606)

19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서비스·데이터 중심의 통합 플랫폼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추진

2019. 01.
유관기관 도시 안전망 구축 합의(경찰, 소방)

2019. 06.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착수

2019. 08.
국토교통부 도시 안전망 구축 공모사업 선정

2020. 02.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및 도시 안전망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스마트 도시 안전망(5대 연계 서비스)

파주 U-City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 시티로 변모, 그 첫발로 '스마트 시티 플랫폼' 구축

파주시는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교통·안전 등 서비스를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U-City(유비쿼터스 도시) 조성을 추진하였다. U-City 추진을 통해 스마트 인프라를 확대한 성과는 있으나,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으로 낮은 시민 체감도와 지속 가능한 스마트 서비스 발굴, 확산 부족이라는 한계를 노출했다.

파주시는 U-City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 시티로 변화하기 위해 2019년 '스마트 시티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별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첫 단계로 스마트 시티 운영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공동 운영·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운영기반 마련을 추진하였으며, 세월호 사고('14. 4.) 이후 개별 운용되고 있는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하여 재난구

호·범죄예방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스마트 시티 센터(CCTV 관제센터 포함) 중심으로 '스마트 도시 안전망(5대 연계 서비스)'을 추진하였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똑똑한 도시 운영, 도시 안전망으로 시민의 안전한 도시생활 확보!

파주시는 2019년 1월부터 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을 위해 경기 북부경찰청, 경기 소방재난본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2019년 6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하였고, 2019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국비 6억원 예산을 확보, 2020년 2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및 도시 안전망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방범·교통·재난·환경 등 분야별 정보를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하여 공동 활용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 안전망 구축으로 파주 관내 112·119 사건·사고 발생 시, 발생 지점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경찰서와 소방서의 종합상황실, 경찰 긴급 출동차량에 전송하여 시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출근길 사고 주의구간 실시간 집중감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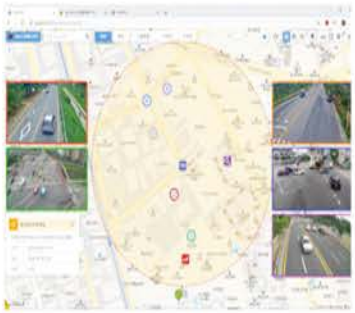
- 방범 CCTV, 교통정보, 재난·안전·환경 정보 등 연계하여 도시상황 관리
- 생활안전 데이터(출근길사고 주의구간, 무단횡단사고 주의구간 등)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 통합센터에서 도시상황 집중 관제 및 현장대응 지원
- 도시 현장시설물의 상태 관제 등

도시상황 실시간 관제대상(방범, 교통 등)

분야	내용	연계건수	실시간 관제
총계		47,686	
교통 시설물	주정차단속, 교통상황 CCTV, 버스정류장 안내단말, 신호제어기, KIOSK, RSE, VDS, VMS 등	1,130	• 교통소통정보 • 버스정류장 단말 실시간 상태
방범 CCTV 등	방범, 문화재, 쓰레기투기, 시설물관리, 비상벨	3,450	• 관내 CCTV 영상
재난 CCTV	재난 CCTV	202	• 재난 CCTV 영상
운정 현장시설물	BBS, 통신관로, 통신선로, 통신맨홀, 전송장비함체, 가로등, 가로등분전함, 지하지장물 표시판	42,901	• 실시간 현장 시설물 상태
환경 장비	미세먼지측정센서, 환경측정소	3	•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도시 안전망 구축

도시 안전망 투망감시 화면 (112·119 사건발생 지역)



- 파주시 관내 112·119 긴급사건 발생
- 경찰청·소방본부에서 사건 발생지점에 대한 긴급영상 제공 요청
- 사건 발생지점 인근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경찰청·소방본부 등으로 제공
- 스마트 시티 통합센터에서 사건 발생지점 집중관제 및 현장대응 지원

파주 관내 112·119 사건·사고 대응 실적

(기준일 : 2020년 1월~12월)

분 야	사건·사고 발생 건수	CCTV 영상제공 건수	비 고
112 긴급 영상·출동지원	962	11,585	경기북부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연계
119 긴급 영상지원	182	1,495	경기소방재난본부 119 종합상황실 연계

※ 112 긴급사건 : 교통사고 · 불편, 위험방지, 화재, 형사범, 폭력, 시비, 행패소란, 실종, 절도, 음주운전 등

※ 119 긴급사고 : 질병, 건물, 부상, 안전사고, 일반화재(주택), 구급, 교통사고, 기타화재, 동물구조 등

언론 보도 자료



시대일보 2019년 09월 06일 금요일 003면 종합

파주시,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공모 사업 선정

파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교통·재난·환경 등 분야별 도시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112, 119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관과의 연계 시비스를 구축해 재난·범죄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도시 생활을 지원하는 도시 안전망 기반구축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112, 119 등 재난안전 체계가 개별 운용돼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파주시와 112, 119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CCTV 영상연계가 되면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단축이 가능해 시민 안전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도시에 적용되면 방범·재난·교통·환경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도시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다 편리한 '스마트 도시'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긴급상황 발생시 파주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각종 범죄, 재난, 구조 등의 CCTV 영상을 112·119 재난상황실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긴급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안전한 도시 파주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6억 원에 시비를 더해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112센터 긴급영상', '112 긴급출동지령', '119 긴급출동 지령',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연계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도식기자 dskim@sidaeilbo.co.kr

기존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탈피, 효율/서비스 지향의 스마트 시티 추진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도시의 각종 데이터·분야별 서비스를 실시간 연계·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도시의 사건·사고에 스마트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112·119 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킨 스마트 도시 안전망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하는 등 시민 안전에 기여하며 효과를 내고 있다.

향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 시티 센터에서 현장 사진, 범인 도주 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범인 검거 및 사건 처리에 적극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관이 현장 영상, 위험시설물 설치 현황, 교통소통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작전을 세울 수 있게 지원하도록 도시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스마트 시티의 진정한 가치는 도시에서 생성된 데이터·서비스를 수집·활용하여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체감성을 높여, 시민 중심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

파주시는 사람과 정보기술이 하나 되는 체감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다.



(112 연계 효과) 범죄율 감소(6.2%) 및 검거율 증가(2.7%)

구분	15년	16년	17년	증감(율)	비고
발생(건)	18,990	16,835	15,785	1,050	전년 대비
발생(율)	-	88.6	93.7	6.2	
검거(건)	12,985	13,000	12,621	379	
검거(율)	68.3	77.2	79.9	2.7	

* 5대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만 집계('18.8 D지방경찰청)



(119 연계 효과) 평균 출동시간 1분28초 단축(7:26초->5:58초)

구분	2016	2017	'18.6	비고
출동 건수	974	1059	639	
평균 출동시간	7:26초	6:30초	5:58초	
7분내 도착율	63.1%	72.8%	78.5%	

* 119 긴급출동은 화재, 구조, 구급이나 화재만 집계('18.8 D소방본부)

부서명 정보통신과 | 담당자 이성호(940-8722)

20 파주 공공 와이파이 310개소 설치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정보통신 복지서비스 제공

버스정류장, 도서관, 행복센터,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공공 와이파이 존 구축(310개소)

파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여 시민의 데이터 통신 요금 절감 및 망 접속 시 표출되는 시정안내 홍보 효과



파주시 공공 와이파이 프리존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디지털격차 해소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에 일조할 목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도서관, 행복센터, 전통시장 등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통신 복지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파주시민에게 보편적인 정보통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설치

파주시는 시민들이 통신료 부담 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194개소, 2020년 116개소를 설치·개통하여 2020년 12월 현재 310개소에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에 구축한 공공 와이파이는 인증서버 도입으로 시민들이 와이파이 접속 시 시정홍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시정 인지도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와이파이 접속화면

를 향상시켰고, 사용자 접속 확인 및 장애감시시스템(NMS)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장애를 신고하기 전에 장애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지속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확충으로 시민편의 증진

공공 와이파이 설치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도서관 이용률 등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통신사에 상관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매월 부과되는 통신료는 파주시에서 부담한다.

현재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군 장병 등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공원, 체육시설 등에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정보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서명 정보통신과 | 담당자 김우현(940-4302)

21 노후관로 교체 및 수도공급 시설 확장

안전하고 깨끗한 용수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수도공급시설 확장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 ('18년) 영태리 등 4개소 ('19년) 법흥리 등 3개소 ('20년) 야당동 등 6개소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급 확대로 상수도보급률 99.1% 향상
- ('18년) 연다산동 등 6개소 ('19년) 법원리 등 8개소 ('20년) 주월리 등 5개소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수도공급시설 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

물은 사람이 생활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 발전과 시민만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물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주시는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에 따른 장기 수급전망에 대한 수량 및 수요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 확장계획을 수립하였고, 취수에서 정수시설과 급수시설을 거쳐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관로 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시설의 확장

파주시는 파주북부의 물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하여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인 장단배수지 및 파주배수지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 6월까지 완료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 취약지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연다산동 등 6개 지역, 2019년 법원읍 법원리



문산정수장, 월롱배수지, 교하배수지 파주시장 간급 시설점검

등 8개 지역에 상수도 확장공사를 완료하였다.2020년에는 적성면 주월리 등 5개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의 급수난을 해결하는 등 상수도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한강하류권(4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추진중이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수 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물 부족지역으로 급수체계를 전환하여 광역상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5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팔당댐에서 취수한 물의 273,000㎥/일이 파주, 김포 등 5개 시·군에 전환 공급되는데,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인구증가, LCD산단 등 개발사업에 대응해 광역상수 73,000㎥/일이 배분된다. 이로써 운정 등 파주남부는 안정적인 용수량을 확보하게 되고, 임진강을 원수(原水)로하는 파주북부는 팔당댐에서 취수한 물로 원수대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2019년 타당성조사를 거쳐 2020년 12월 말 현재, 환경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중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은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될 전망이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파주시는 상수도 보급률이 99%에 달하는 매우 높은 지역으로써 기존관의 유지관리, 그 중의 노후관의 교체는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누수다발, 수질민원, 유수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노후관 교체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으로 2018년 월롱면 영태리 등 4개 지역, 2019년 탄현면 법흥리 등 8개 지역에 노후 상수도관로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야당동 등 6개 지역에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완료하였다.

2020년 7월엔 인천 수돗물 유충(깔따구 류) 발생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파주시는 신속하게 시설물 자체점검을 실시해 유충 문제의 안전지대임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소독제 추가 투입이나 여과지 세척 주기 단축으로 정수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유충 의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이 고조돼가고 있기에 파주시는 파주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수돗물 유충 대응본부'를 구성·운영하였다. 본부에 접수된 유충 의심신고 총 42건 조사한 결과, 고인물에서 발생하기 쉬운 나방파리 유충을 비롯해 집파리나 단순 이물질이었고, 수돗물 염소 성분에 내성이 있는 깔따구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유충 조사결과는 홈페이지, SNS,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여 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으며 요금고지서, 전단지, 보도자료, 저수조 청소 안내 등 시민들의 대응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다. 더불어 정수장, 배수지 등의 노후된 외관을 정비하고 방충시설을 정비하는 등 환경개선활동을 하여 더욱 청결한 물 공급 환경을 조성하였다.


정수장 방충시설 정비


정수장 상황실 방역활동

파주시는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건강한 물공급을 통한 지방상수도 선도

파주시는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급수보급률 향상과 지역간 용수공급 균형을 실현하고 있으며, 생명과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로 교체 등 시설 확충 및 관리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부서명 상수도과 | 담당자 이성원(940-5483)

2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주거환경 및 수질 개선 지속추진

2019. 05.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용역 착수

적성 어유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착공 (2018.8월 착공, 2020.9월 준공예정)



적성 어유지리 하수처리시설 조감도

생활환경 및 하천수질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향상

파주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 등 기타 개발사업으로 하수발생량이 매년 증가하여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증설 수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자연취락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활환경 및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 착수

파주시는 지역 도시여건 변화에 맞추어 하수도 분야 최상의 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2019년 5월 착수했다. 이번 하수도 정비 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 확장 및 하수발생량 등을 종합 검토해 수립한 후 환경부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의 정비, 하수도사업의 우선순위, 하수 슬러지 계획 등에 관한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파주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파주시의 개발 잠재력을 감안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적성 어유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적성면 어유지1,2리 적암리, 장현1리의 주거환경 및 수질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153억원을 들여 추진한 어유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8년 8월 착수해 2020년 9월 시운전 완료 후 2020년 12월말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하루 480톤 하수처리가 가능하고, 관로 10.1km을 정비하여 249가구가 혜택을 본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서 오염물질 침전, 분해 등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과정을 거쳐 맑은물로 재탄생한 후 하천으로 방류됨에 따라 간파천 수질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하천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 비해 소외된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광탄하수처리장 증설, 군내면 조산리, 파평면 두포리 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하였고 지속적인 하수처리장 건설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건강하게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별 연차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생명력있는 물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지속

민선7기 상반기 파주시는 체계적이고 주민친화적인 하수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오수의 깨끗한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생명력 있는 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서명 하수도과 | 담당자 김동우(940-5522)

23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사업 추진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19. 4. 5.
파주시, 한국동서발전-서울도시가스 협업으로 「농촌 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시설」 시범사업 제안

2019. 8. 28.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시범사업 MOU 체결

2019. 10. 3.
도시가스 보급 시범사업에 적합한 마을 선정(도내1리)
- 주민설명회 및 인근 연료전지 발전시설 견학
- 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 100% 동의

2020. 2. 16.
발전시설 공사 착공

2020. 9. 23.
발전시설 시범사업 준공 및 도시가스 공급 개통



월롱면 도내1리 연료전지 발전소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시범사업 MOU 체결

파주시는 낙후된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 LPG배관망,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4월 한국동서발전과 서울도시가스에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시범사업을 제안하였고

2019년 8월 28일 파주시, 한국동서발전, 서울도시가스와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낙후된 농촌에 도시가스 보급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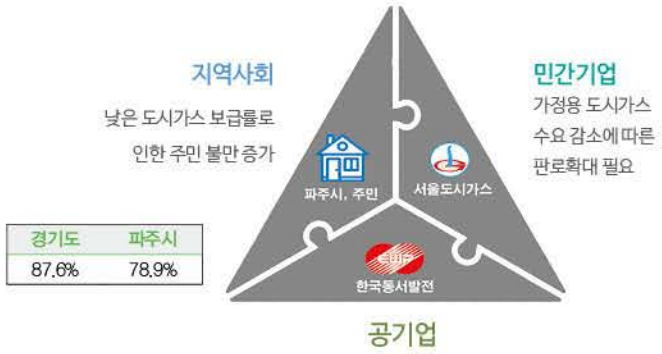
주민설명회 및 연료전지 발전소 견학

파주시-한국동서발전-
서울도시가스 간
협력방안

- **(파주시)** 낙후된 농촌의 도시가스, LPG배관망,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로 에너지 복지 실현 추진

- **(한국동서발전)** RPS 의무이행자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농촌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추진
  *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 국가 전체 에너지발전량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하는 제도

- **(서울도시가스社)** 도시가스 수요 감소에 대한 어려움 직면



경기도	파주시
87.6%	78.9%

- **(협력방안)**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은 농촌마을에 도시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소규모(8MW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면 연료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어 있는 도심 종점에서 신규 건설되는 발전소까지 배관망을 연장해 연결해야 하므로, 적은 비용으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가정용 배관망 설치 가능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은 낙후된 농촌마을 인근에 도시가스(LNG)를 원재료로 하는 소규모(8MW)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면 연료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어 있는 파주시 도심 종점에서 신규 건설되는 발전소까지 배관망을 연장 연결하여야 하므로 연료전지 발전소까지 연료공급 배관망이 연장되면 적은 비용으로 발전소 인근 농촌마을까지 가정용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할 수 있다.

파주시는 이점에 착안하여 2019년 10월 월롱면 도내1리 마을 주민들에게 연료전지 발전소 실제 운영현황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운영 중인 연료전지 발전소를 견학하여

발전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들이 원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농촌가정 내 도시가스 공급이 무료로 지원되도록 추진하였다.

파주시, 지역주민, 발전공기업, 민간기업 모두가 WIN – WIN

2020년 9월 23일 발전시설 시범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월롱면 도내1리 마을의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농촌지역 주택과 토지에 대한 가치상승이 기대된다.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시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어 화재 등의 사고 위험이 적고, 중유 보일러 대비 빠른 난방과 LPG 용기없는 편리한 취사를 할 수 있으며 도시 가스는 LPG 대비 43%, 지역난방의 90%로 사용료가 가장 경제적이다.

파주시는 도시가스 보급률 증가, 도·농간 극심한 격차를 개선할 수 있으며 발전사는 지역주민과 갈등없이 발전시설 건설하여 태양광 140MW급 RPS 확보하고, 도시가스사는 안정적인 대규모 도시가스 판로 확보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부서명 기업지원과 | 담당자 곽병도(940-8463)

6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

위기상황과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킵니다
촘촘한 돌봄과 사회안전망의 구현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은 커졌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지방정부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여러 위험과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일 것입니다.

파주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과 행복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대책과 촘촘한 돌봄,
배려 넘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 미래 신성장 동력,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3.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5. 파주 온돌(온종일 돌봄)사업 추진
6. "두부사려 똑!똑!똑!"
7. DMZ 파주 희망캠프
8. 노인, 장애인 일자리 확충
9. 노인, 장애인 복지관 확충
10. 지역주민 체감형 건강증진사업 확대
11. 치매 예방 인프라 구축
12. 전통시장 등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1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과 극복
14.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15. 미세먼지 대응 종합관리 대책 추진
16.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체계 운용 선도
17.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8.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추진
19. 폭염대비 그늘막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20.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21. 소규모 공동주택 설계기준 마련
22. 시민안전몰 확대 구축
23. 시민 생활밀착형 체육인프라 및 스포츠 문화조성

1 미래 신성장 동력,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대학병원 +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 의료·바이오 기업]

2020. 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파주 미래 신성장 산업 추진 방침 밝힘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고품격의료서비스 제공 및 명품자족도시 기반 구축

2020. 상반기
수도권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 등 12개 병원 집중유치활동 전개

2020. 6. 17.
파주시-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2020. 8. 28.
파주시- 아주대학교 병원건립 업무협약 체결

2020. 하반기
발전종합계획 확정 및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사업제안 및 행정절차이행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업무협약식

왜… 10여년동안 종합병원을 유치하지 못했을까?

파주시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의료인구 외부유출률이 53%에 달하는 등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는 파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10여년 전부터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종합병원 건립은 지자체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이용인구, 의료진(의사·간호사) 수급 등 의료환경과 의료기관의 확장의지, 막대한 건립비 및 초기 운영비 확보 등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시가 처한 입지적 환경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무엇보다 인근 고양시에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포함해 일산백병원,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차병원 등 6개의 대형병원이 입지하고 있어 웬만한 종합병원들은 들어설 엄두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병원 포화상태다.

또한, 끝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유입 의료인구가 부족하고, 500병상 대학병원을 건립하는데 약 2,500억원의 막대한 비용도 필요하다. 기존에 제시된 의료시설 용지는 고가의 토지비와 부지면적 협소 뿐 아니라 무엇보다 LH가 소유로 건립비 지원 등 병원의 참여를 유도할만한 인센티브 제공도 어려웠다.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조감도

아주대학교 병원과 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를 유치하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명품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민선 7기 핵심 역점사업이다.

기존의 형식적인 종합병원 유치 방식을 탈피하고 불리한 제반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클러스터'라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기획했다.

먼저, 광역교통 및 진료권 분석을 통해 파주의 거점병원이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전제로 사전 사업성분석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산했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관심을 유도할만한 개발이익 환원방식의 명확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파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산·학·연·병 공동연구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토지이용계획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그간의 모든 병원 유치활동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기존 유치활동이 해당 의료원(병원) 차원에서 검토만 하다 마는 현실을 직시해 우리시의 명확한 유치의사를 전달하고 유치기간 단축을 위해 의료원(병원)이 아닌 의사결정권자(대학재단 이사장)에 직접 유치의사를 전달했으며, 간결하고 효율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학교재단 및 의

료 관계자 등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한 대형로펌을 활용해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우수한 병원을 유치하면 인근 고양, 김포, 양주를 배후 의료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전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20년 6월 17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국립암센터와 혁신의료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8월 28일 아주대학교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 4차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 동력!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의료시설, 혁신의료연구센터 및 의료·바이오기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운정신도시 인접 서패동 일원에 46만㎡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시설로 종합의료시설 용지내 아주대학교 병원이 건립되어 파주의 거점병원으로써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물론 혁신의료연구센터와 더불어 의료 및 임상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는 1단계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여러 연구기관이 입주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기구인 국제암연구소와 입지방사선연구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들어설 예정이다. 향후 2단계인 항암신약R&D센터 등 다수의 연구시설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들어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주요 제약사와 약 200개 이상의 의료바이오 기업도 메디컬클러스터 내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용지에는 제약사 및 의료바이오 기업이 들어설 계획으로 운정신도시 자족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병 공동연구 협업체계를 구축해 차별화된 개방형 메디컬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와 국내 대표 금융기관 및 주요 건설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속히 사업에 착수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 협약식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업무협약식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미래 파주를 꿈꾼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단순히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 아닌 4차산업 중심의 파주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사업이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들어서는 아주대학교병원은 파주의 거점병원으로서 시민들에게 고품격 의료서비를 제공함과 동시에 통일을 대비한 남북평화의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수도권 서북부 최고의 병원으로 위상을 갖도록 상급종합병원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는 국립암센터가 보유한 암 연구 플랫폼을 기반으로 4차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인근 대학병원과 센터내 들어서는 제약사 연구소 및 바이오벤처기업 등과 산-학-연-병 공동연구 협업 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있는 의료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첨단산업용지는 제약사, 바이오벤처기업, 의료관련기업이 입주해 약 1만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도

파주시는 본 사업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조기 안착을 적극 지원해 차별화된 메디컬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방침으로, 풍부한 일자리와 자족기능이 완비된 명품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서명 통일기반조성과 | 담당자 김형욱(940-5362)

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참전특별위로금 신설 지급

2018. 9. 28.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018. 10. 22.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 (5만원 → 7만원)

2019. 10. 14.
조례 개정(85세이상 참전유공자 참전특별위로금 지급 신설)

2020. 6. 12.
조례 개정(80세이상으로 참전유공자 참전특별위로금 지급연령 조정)

2020. 6. 22.
참전특별위로금 지급 (902명)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수당 지급 확대 추진

파주시는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판문점, 임진각이 있으며, 현충시설물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3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5,000여명이 넘는 많은 국가유공자 분들이 거주하는 보훈과 호국의 중심지다. 이에 파주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로써 보훈명예수당 5만원을 지급해 왔다.

민선7기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라는 비전을 목표로 통일을 선도하는 파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수당 지급 정책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참전특별위로금 신설 지급

65세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2018년 9월 28일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18년 10월부터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는 2014년 1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후 4년

10개월만에 인상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를 위한 출발이 되었다.

또한, 2020년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6.25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을 되새겨 봐야 하는 한해로써 파주시는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정책으로 참전특별위로금을 신설하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80세이상 참전유공자 900여명에게 2020년 6월 처음으로 참전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였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교훈삼아 한반도 평화도시 추진

6.25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89세이다. 70년이 지났지만 6.25전쟁의 아픔을 아직 도 생생히 기억하며, 고통과 빈곤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 파주시는 국가보훈대상 자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2021년 부터는 65세 이하 5만원, 65세 이상 7만원 지급으로 연령제한 없이 관내에 거주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 5,000여명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희생정신이 초석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 실현을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이다.

부서명 복지정책과 | 담당자 김상진(940-4393)

3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특화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홍보강화를 통한 참여문화 확산

2018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장관표창 '파주시' 수상

2020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 확보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및 저변확대 추진



파주시 자원봉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의식강화와 참여문화 확산 노력

파주시는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사)파주시자원봉사센터와 손잡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특색을 고려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협력과 상생의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지역특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1)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육성을 위한 공모 사업 추진

파주시는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양성을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 봉사단

체, 기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 및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공모사업비 예산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참여단체의 적극적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단체의 자생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2) 유적지 탐방과 봉사활동을 연계한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추진

2018년부터는 파주의 숨은명소인 임진강과 민통선 지역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임진강과 민통선, 평화누리길 주변의 자연환경과 문화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려 지역사랑의 기초를 다짐은 물론 지역사회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은 유적지 탐방과 봉사활동을 연계한 참신한 기획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흥미유발과 접근성을 높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평화수도를 만드는 자원봉사 활동 "아! 대한민국~ 대한독립만세"

2019년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기념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파주 삼일운동의 숭고한 뜻을 알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파주의 독립운동가인 심상각 선생, 임명애 열사, 농민, 학생 주도로 일어난 파주의 3.1운동을 재현하였다.

이에 파주시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연극협회 회원 등 1,500여명이 참여하여, 봉일천 3.1운동 기념비를 시작으로 파주시청까지 '대한독립만세'거리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파주 독립운동을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하며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파주를 알리는데 일조하였다.

4) 재난발생 위기극복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파주시 자원봉사의 저력은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및 2020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였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초소 근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방역활동 및 인력 지원에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구슬땀을 흘리며 위기극복을 위하여 애썼으며 지금도 묵묵히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입장벽은 낮추고, 격려시책은 높여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



2018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내 자원봉사센터 거점캠프를 활성화하여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소속감 고취를 위해 자원봉사자 멤버십카드를 발행하고,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을 정비·확대하여 병원, 마트, 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63개소 가맹점으로 혜택을 넓혔으며 가맹점에는 명패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등 격려시책을 강화하였다. 한편, 매월 이달의 자원봉사상 표창 수여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높였다.

자원봉사 분야의 양적·질적 성과증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우수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다양한 수요처 및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연중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성인, 가족단위 등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양적성과를 거두었다.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한 전문봉사단 양성 및 운영,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이동세탁 활동, 깨끗한 파주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화활동,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2018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파주시가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참좋은 파주 만들기

파주시는 (사)파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자원봉사 홍보 및 교육을 확산하는 등 참여와 나눔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저변



대한독립만세 거리퍼포먼스 "야! 대한민국~ 대한독립만세"



재난발생 자원봉사자 운영

확대의 기반을 다지고 나눔과 정이 넘치는 지역 사회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특색을 고려한 차별화된 자원봉사 활동은 물론 전문봉사단 집중육성으로 고도화된 자원봉사 체계를 수립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자원봉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파주시와 (사)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파주시민이 자원봉사를 통해 1년 365일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수 자원봉사 시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연계 및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자원봉사자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참좋은 파주시가 되는데 앞장서겠다.

부서명 민원봉사과 | 담당자 선영선(940-4341)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강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 및 평가 지속 추진

제3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 16개 읍면동, 268명

민관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및 「복지 두드림데이」 운영으로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



두드림데이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노력

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화로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 변화 노력에도 복지사각지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사전 발굴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위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민관협력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민관협력 사업 추진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

여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복지 두드림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지역보호체계 강화

파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 평가 과정을 통하여 파주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에는 제3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68명이 새로이 위촉되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 자원망을 통해 마을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곤란 가구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2) 민관협력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 (월 2회) 2,227건 상담 / 596건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방문하여 파주병원, 보건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이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복지 두드림데이 운영 : (월 1회) 353명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농촌지역 등 복지취약지역을 방문하여 보건소, 파주병원, 희망나눔푸드마켓, 문산제일안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미용사연합회, LH주거복지센터, 무척조은병원, 가이드치과, 치매안심센터, LG디스플레이 사회봉사단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두드림데이」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조리읍)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문산읍)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

파주시는 넓은 면적에 비해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상자가 직접 기관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민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민관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노력으로 지역 보호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체감도·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민관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두드림 데이


복지두드림 데이


복지두드림 데이

부서명 복지정책과 | 담당자 박윤희(940-4391)

5 파주 온돌(온종일 돌봄)사업 추진

파주형 노인통합돌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지원

저소득 노인 생활 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파주형 노인 통합돌봄 추진
- 저소득 노인 3,907명에 대하여 생활 실태 조사 실시

2019년 '온돌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더 나은 돌봄'까지 확대
- 2019년 온돌사업(노령 친화 주거 환경 인프라 구축)
- 2020년 더 나은 돌봄(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서비스 실시)



2020 희망+ 온돌 어르신 동네복지사 사업 협약식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파주형 노인 통합돌봄

우리나라 노령화 인구 통계를 보면 2000년에는 7.1%, 2019년 15%, 204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37%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노인 빈곤율 45.7%를 간과할 수 없으며 조기 퇴직, 경기 침체에 따른 재취업의 어려움 등 노후 준비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2019년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주형 노인통합 돌봄서비스를 추진하였다.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3,907명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조사 결과 분석과정을 거쳐, 노인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파주형 노인통합돌봄서비스 '파주-온돌사업'을 시작하였다.

파주형 통합돌봄
복지모델 구축

1단계('19.1월~)	2단계('19.7월~12월)	3단계('20.1월~)	4단계('21년~)
사전조사	파주 온돌사업	희망플러스 온돌 "더 나은 돌봄"	파주시 통합돌봄 브랜드 창출

파주형 노인통합돌봄 '파주-온돌사업'(2019)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파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걸음으로 2019년에는 온돌(온종일 돌봄)사업 이라는 이름의 노령 친화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를 구축했다.

'온돌사업'은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 지원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지원, 일상생활 지원으로 나뉘어 추진되는데, 안전을 먼저 고려한 고령 친화 주거지원에는 화재경보기 설치, 가스차단기 보급, 안전 바 설치, 문턱 없애기, 창문 방충망 교체 설치, 낡은 세면대, 변기 보수, 태풍피해 집수리 등 2,363건 지원되었다.

또한,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으로는 의치(틀니) 지원, 인공관절 수술 등 714건을 지원했으며, 일상생활 및 계절성 지원으로 찾아가는 세탁과 연탄 지원, 보일러 수리, 보일러 교체, 실내용 난방텐트, 전기 매트, 이불세트, 미끄럼 방지용 양말, 난방용 등유 등 3,369건 제공되었다.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문턱 없애기


자원봉사자 교육

더 나은 돌봄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2020)

2020년에는 행복한 삶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돌봄 서비스로 보건·의료·영양 등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 퇴원환자 돌봄 (사업명 : 더 나은 돌봄)

노인 생활 실태조사에서 골절 등 관절염이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관절염 등 골절 수술로 인하여 거동 불편한 노인은 퇴원 후 가정에서의 간병서비스를 받을 곳이

마땅히 없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유예 군으로 재가서비스는 물론 노인 맞춤형서비스에도 간병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주시는 틈새 복지 지원으로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골절 등 관절 관련 수술 후 퇴원 시 가정에서의 간병서비스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 등 환자에게 맞는 노령 친화 주거 환경개선을 지역사회와 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지원하는 '더 나은 돌봄'을 시작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76명을 대상으로 10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퇴원돌봄 회의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해당병원(의뢰, 추천) ·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송내과 · 민들레병원, 보건소		· 지역자활센터 및 수행기관 · 보건소,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 협력기관(복지관 등)		· 수행기관 · 협력기관 · 읍·면·동 복지팀


케어회의


소독 · 방역 · 청소


돌봄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2) 저염·당뇨식 제공 (사업명 : 한 끼 건강)

2019년 실태조사서 유병률 2위로 파주시의 노인 중 많은 분이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보건소에서 당뇨 관련 검사를, 복지부서에서 당뇨식사를 제공하였다. 자문단으로 서영대학교의 임상심리학과와 두원공과대학교의 호텔조리학과 교수를 위촉하였으며 파주지역자활센터 외식 사업단을 수행기관으로 협약하여 2020년 74가구에 1,707의 당뇨 식사를 제공하였다. 또한 당뇨식 제공은 물론 자가관리 능력 향상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일대일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검사 (당화혈색소,체지방)	▶	교육 및 운동치료	▶	당뇨식 조리 및 배달
·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 송내과, 보건소		· 두원공과대학교, 보건소 ·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 파주지역자활센터 · 자원봉사센터







3)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명 : 어르신 동네복지사)

65세 이상 수급자 중 활동 가능한 대상을 '어르신 동네복지사'로 선정하여 거동 불편한 홀몸노인과 친구 맺음으로 대인관계 형성 및 점진적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어르신 동네복지사'로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는 지역화폐를 통한 활동 수당을 지급하여 함께 식사도 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이 사업은 2019년 노인 생활 실태조사에서 자존감 낮음과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과 나도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사회 참여 희망 의사를 반영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4) 스마트 인형 지원 (사업명 : 심부름 친구 효돌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인형(효돌이)을 활용하여 안부 확인, 투약, 정서 지원 등 모니터링을 통한 생활 지원 서비스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복지서비스가 요구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2020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0대를 제공하였으며, 2021년에는 66대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 동네복지사 사업 (2019년 실태조사 사회활동 참여 희망 60%)

- 65세 이상 생계 수급자 중 활동 가능한 대상을 "어르신 동네복지사"로 위촉, 홀몸 노인과 친구 맺음으로 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AI 심부름 친구 효돌이 사업

-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인형(효돌)을 활용하여 생활·정서·안전관리 등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을 통한 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더 나은 돌봄』 파주시 브랜드로 공공 가치 창출

점차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파주시의 노력은 지속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력기관,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과 이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에 노력하면서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모델로 더 나은 돌봄사업을 정착,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앙신문

2020년 05월 13일 수요일 00C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낼 수 있게 돌본다

[좋, 오늘 이 곳]

파주시 '더 나은 돌봄' 할아버지 맞춤요양·맞춤형복지서비스

파주시는 12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수행기관 '더 나은 돌봄'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 나은 돌봄'은 경기 유일 한 사 곳 돌봄 기관이 없거나 어려운 주거지가 정해 되면할 수 없는 사회적 입원취약자 수술·중병 치료 후 자립 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맞춤요양과 인정 입원 관리 등 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시가 작년부터 국비 예산을 투입해 심사한 파주-은을 시업에 노경 전화 주거개선을 주존으로 사업이 진행되 왔다.

올해는 태빈·동화·주이 등에 최 대 5개 지역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더 나은 돌봄은 지난 2월 진소시장' 공모에 시행지역으로 선정돼 사업비 14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파주시는 12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수행기관에 '더 나은 돌봄'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4가지 고통의 문제가 경제적 빈곤, 고독, 일이 없음과 질병의 문제라고 한다. 파주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노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더 나은 돌봄', '한 끼 건강', '어르신 동네복지사', '심부름 친구 효돌이'사업 활성화로 선제적 예방과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기대한다.

부서명 복지정책과 | 담당자 정복두(940-8584)

6 "두부사려 똑!똑!똑!"

장단콩두부를 이용한 고독사 및 자살사고 예방, 인적안전망 구축

2019년
- 국정목표 실천우수지자체경진대회 최우수상
-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 정부혁신 100대 사례 집수록

2020년
- 제11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안전자치부문 최우수상
- 2020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진대회 최우수상
-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시책 선정



두부사려 똑똑똑에사업에 활용되는 장단콩 두부

장단콩두부로 이웃 간 따뜻한 돌봄 실천

2020년 12월 현재 운정3동 인구는 8만 3천여명으로 95%이상의 주민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고독사 자살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현장 출장 때마다 방문가정의 냉장고에는 좋은 식품들이 없어 건강식품도 지원하고 마을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가 있을까 고민 끝에 따뜻한 장단콩두부를 이웃 간 나누면 건강도 챙기고 소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다.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은 장단콩두부에 사려 깊은 정을 담아 똑!똑!똑! 소통한다는 뜻이며 아파트 현관문을 두부를 가지고 똑!똑!똑! 두드려 이웃의 안전을 살피고 더불어 미래에 나의 안전도 이웃이 살필 수 있다는 목표를 삼았다.

장단콩두부 한모를 통한 소통, 정서적지지 및 인적안전망 구축

장애인, 한부모,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로 두부봉사대를 조직하여 이웃인 돌봄 대상자 서로에게 '장단콩두부'를 배달하는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은 공무원 인력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살,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대상 : 국민임대아파트 3개단지 4,198세대 9,576명
– 운영 : 당일 제조 따뜻한 '장단콩두부' 상호 배달(월 2회), 소통을 위한 마이너스두부장사 실시(격주 토요일), 공동체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자살·고독사 건수 줄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증가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의 우수성은 이웃연계와 주민 간 협력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였다는 점과 지역 공동체 소통·연계 강화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였다는 점에 있다. 사업 이전에 아파트 단지에 구급차나 순찰차가 왔다가도 무관심하던 주민은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 후 119나 112가 왔다간 이웃을 맞춤형복지팀에 연계로 위기가정을 방문 지원하는 건수가 증가 하다 보니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증가 했고, 고독사·자살 건수가 사업 전 3건에서 사업 후 1건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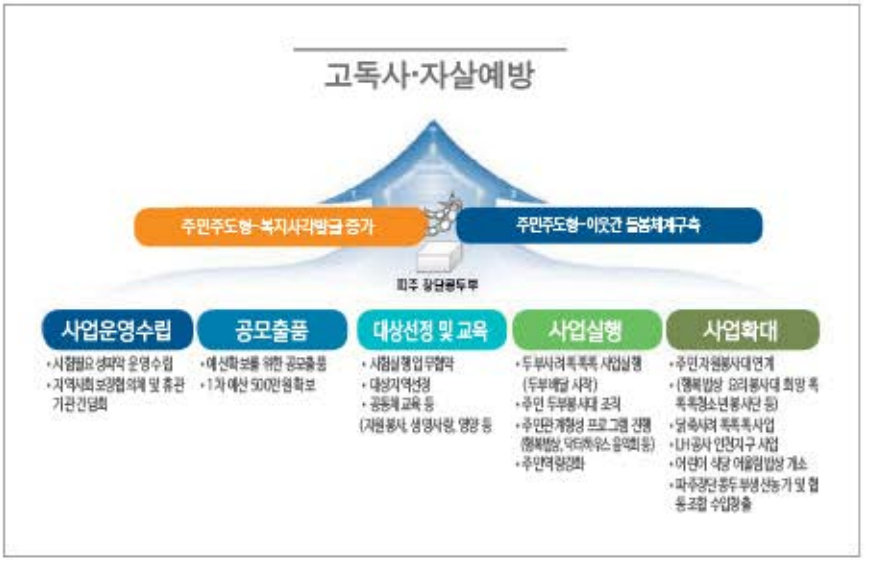
아파트에 8년 동안 살면서 알고 지낸 주민보다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주민 수가 훨씬 많다는 주민도 있었다. 또한 지역농산물인 장단콩두부 섭취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건강을 챙길 수 있었다.

장단콩 생산 농가 및 두부제조협동조합은 지속적인 두부 판매로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성과도 있었다. 그 간 두부 배달65회 3,594가구, 마이너스두부장사 52회 10,486모 판매, 복지사각지대 발굴 171건 지원 73가구 45백만원으로 두부 한 모가 이웃을 살피고 생명을 구하고 인적안전망을 구축했다.

추진 이전(As-Is)과 이후(To-Be) 체계 비교

이전 (As-Is)	이후 (To-Be)
	
官의 일방적 배분, 복지사각지대 발생	'장단콩두부'를 이용 주민간 상호 배달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관(官)주도의 일방적 물품 전달 시혜 (공급자 선택에 따른 복지 자원) • 사업량 부족으로 지속성 결여 • 신선식품은 배부 불가능 • 물품이 끊기면 다시 고립 • 수혜자에게 당일 즉시 전달이 어려우며, 대상자 간 소통 부재 • 2명의 공무원 30가구 전달 (공산품, 쌀 등의 가공품 위주)	• 주민리더와 주민 간 소통으로 주민주도 인적안전망 체계 구축 • '장단콩두부'가 매개체가 되어 이웃 간 소통으로 지속적 신선식품 배달 가능 • 물품이 끊겨도 돌봄체계 유지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건수증가 • 자살(고독사) 감소 : 3명 → 1명(감소) • 마을 내 두부봉사대의 활발한 활동으로 주민주도 인적안전망 확대

인적 안전망 구축



파주시는 앞으로도 주민주도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민을 지속하는 한편, 비대면 '두부사려 똑!똑!똑!' 전개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부서명 운정3동 맞춤형복지팀 | 담당자 신계숙(940-5895)

7 DMZ 파주 희망캠프

부적응병사 인성 교육 지원을 통한 군장병 돌봄



DMZ 파주 희망캠프

또 다른 파주시민, 파주시 군장병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DMZ 파주 희망캠프'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상 군인이 전체인구의 5%(인구 45만명 중 2만3천여명)를 차지하고 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군인도 영예로운 파주시민이다"라는 관점에서 파주시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DMZ 파주 희망캠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지원해 오고 있다.

파주시는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군부대의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접할 때 마다 군부대라는 특수집단의 문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군부대 내 부적응 병사 상담과 군장병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 등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제공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

군장병 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복지예산의 증가와 다양한 복지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군장병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파주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상담



서울매일

2019년 07월 15일 월요일 012면 사람

파주 복지정책과장과 지자체 최초 'DMZ 파주 희망캠프' 운영

육군 제1사단 감사장 및 표창장 받아

지정치 기자 / 파주시 복지정책과장과 'DMZ 파주희망캠프'사업 담당주무관이 지난 11일 제1보병사단(소장 강홍석)으로부터 군 장병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 및 표창장을 받았다.

현재 파주시 인구의 3%(약2만4천여 명)가 군인으로 휴전선과 인접한 경기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해 군 부적응 군인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돼 2014년 12월 제1보병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DMZ 파주희망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DMZ 파주희망캠프'는 병사 상담과 의사소통을 위한 멘토링 역할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사들의 경우 해당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안정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장병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2014년 10월부터 '군인도 파주시민이다'라는 방침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들레병원, 종육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연극개발원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병사 상담과 인성교육을 782회 운영해 12만1천686명이 참여했다. 또한 2017년 2월 관내도시입주기업협의회, 6개병원, 인성교육개발원, 행동조합문화사랑책임봉 등 6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1사단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인성함양과 출퇴도시 투어, 영화관람 등을 제공하는 '행복한 군인 프로젝트'를 추진해(60회-9천300명 참여) 의사소통의 긍정적 마인드 고취, 안전군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DMZ 파주희망캠프' 사업이 군 장병들의 군 생활에 활력소가 돼 건강한 군인, 안전한 파주의 미래 발전된 모습으로 지금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및 인성교육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군장병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발견된 자살우려 병사 등 고위험군 병사는 해당 군부대와 논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는 전국의 시군구와 협력하여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부적응 병사 상담 및 체험교육을 통한 좋은 인성 기르기

상담지원은 각 대대와 전문상담사 간 일대일 매칭으로 월 2회 군부대를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성 우울증, 우울장애, 정신질환 등 의료지원이 필요한 군장병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부대 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통능력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행복프로젝트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8년 311회 31,899명, 2019년 338회 7,330명이 참여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단했던 'DMZ 파주희망캠프'를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면서 참여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온라인 인성교육은 부대 내 대형 스크린 및 개인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교육 후

언제 든지 강사와 일대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기갑 여단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하여, 미술심리 치료와 리더쉽, 인문학 강의 등을 운영하였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행복한 파주

접경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군장병을 대상으로한 상담 및 인성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자칫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는 군장병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선제적 소통을 시도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DMZ 파주 희망캠프는」 앞으로도 軍장병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민·관·군이 함께하는 행복한 파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서명 복지정책과 | 담당자 정복두(940-8584)

8 노인, 장애인 일자리 확충

일하는 기쁨, 땀 흘리며 즐기는 노인·장애인 복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및 일자리 사업 발굴 확대
- 2017년 1,212명
- 2018년 1,603명
- 2019년 2,127명
- 2020년 2,469명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반영
(2019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도입, 지속추진)



노인일자리 활동(시니어카페)

궁극적 복지를 위한 방법,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파주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면서도 시민들의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은퇴 후 꿈꾸던 제2의 인생을 누리기도 하지만 나이와 건강문제 등으로 사회활동에서 밀려나 우울증을 겪기도 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건강문제나 타인의 선입견 등으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는 등 점차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상자가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활하고 자립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파주시는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다양성을 강화하다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읍면동의 거리환경지킴이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깨끗한 파주 만들기 사업에 동참하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가꾸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으며 좀 더 다양한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픈 어르신들에게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파주시에서는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를 늘리는게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2017년 1,212명에 불과했던 사업량을 2018년 1,603명, 2019년에는 2,127명, 2020년에는 2,469명으로 불과 3년새 2배 이상 늘려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파주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은빛사랑채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과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학교 급식실 도우미사업, 동화구연, 보육시설 지원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하여 2017년 4개 사업단에 불과했던 일자리사업이 2020년에는 20개 사업단으로 증가, 노인일자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민간취업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장애인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 6명의 장애인을 시작으로 2018년 79명, 2019년 105명이 참여하였고, 2020년에는 127명으로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사업초기, 장애인일자리는 길거리 환경정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등의 단순 업무가 주를 이루었으나 13년간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15개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도우미,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 사무보조, 복지프로그램 진행보조, 교통약자 승하차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개발·확대되었다.

특히, 지적·자폐성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인이 반복 업무에 적응력이 높다는 행동특성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 요양시설 내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보조 사업으로 치매어르신의 말벗, 식사보조, 프로그램 진행보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는 18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일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일하는 기쁨, 땀 흘리는 즐거움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는 우리

적당한 소일거리가 열 가지 복지혜택 안 부럽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파주시니어클럽 개소식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일자리가 단순한 근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회와의 단절에서 벗어나 소통하는 즐거움을 가져다주며, 적당한 움직임으로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많이 위축되는 듯하였으나, 일 할 수 있음에 감사해하며 스스로 엄격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의 건강한 열정에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

파주시는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2019년 9월 '파주시니어클럽' 설치를 계획했다. 2020년 4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 사용 업무 협약을 맺어 금촌역사내 1층과 2층 일부(연면적 183.3㎡)에 시니어클럽을 2020년 9월 설치했다.
시니어클럽은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금촌역을 중심으로 일하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더 좋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많은 어르 신들께 더 큰 즐거움을 드리고자 함이다.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애인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이영심(940-4405)
홍초희(940-8414)

9 노인, 장애인 복지관 확충

사회안전망 구축과 품질 높은 체계적 복지서비스 제공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 21년 상반기 착공, 22년상반기 준공예정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공간 마련,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질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



운정 다누림 노인 · 장애인 복지관 조감도

남부 권역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마련 필요

파주시는 현재 노인복지관 1개소(금촌)와 장애인복지관 1개소(법원읍)를 운영 하고 있으나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남부(운정)권역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부족하였다. 기존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시설수용의 한계와 거리 등의 문제로 이용이 쉽지 않았으며 꾸준한 인구 증가로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절실하였다.

이에 2018년 8월 파주시는 시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다양하고 품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운정지역 목동동 1086번지에 노인복지관 1개동과 장애인복지관 1개동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건실한 사업진행으로 우수하고 편안한 복지관 건립

파주시는 노인과 장애인이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건립을 위해 2018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건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였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 현재 토지 매입 후 지체없이 다음 단계인 설계 준비를 시작하였다. 복지관 설계에 필요한 사전검토부터 장애물 없는 복지관, 시민 친화적인 복지관 등 우수한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설계업체 선발 공고를 하였으며, 뛰어난 설계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12월에 노인·장애인복지관 설계 업체가 선정되었다.

주변의 장애인학교, 장애인 특화도서관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와 지역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지역커뮤니티 거점이 되기 위한 공간, 노인이 여가활동을 즐기며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2020년 12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남은 진행과정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공간 마련

노인복지관을 통하여 각종 여가활동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노인인력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를 도모해 가며, 장애인복지관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건강과 재활의지를 북돋우며 지역사회통합 인식의 저변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남부권역(운정) 지역에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기관의 지역분산 설치를 통한 노인 및 장애인의 서비스 기관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길 바라고 있다.

더불어 2020년 12월 현재 중부권역에 추진하고 있는 금촌동 내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가 2021년 상반기 완공예정으로 각 권역별 장애인복지서비스 거점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층 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파주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으며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파주시의 목표인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복지관 건립이 완공되면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정보배(940-4401)

10 지역주민 체감형 건강증진사업 확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함께 하는 체감형 건강증진 사업

2019. 1. 29.
비만관리 프로젝트 「비나이다」시범사업 추진

2019. 7. 2.
「경로당 여름피서학교」 시범사업 추진

2020. 6. 1.
코로나19 극복 「슬기로운 집콕생활 운동」 시범사업 추진



매년 증가하는 체중, 증가하는 만성질환, 보건소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

파주시 건강지표를 살펴보면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2015년 54.1%, 2016년 57.0%, 2017년 68.7%, 2018년 65.4%, 2019년 67.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비만 유병률은 35.5%로 경기도 33.6%보다 1.9% 높아 생애주기별 체계적 비만관리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비만은 운동이나 식단조절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므로 파주시는 어린이, 성인, 노인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영양사, 간호사, 생활체육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사업 방안을 모색하였다.
단순하게 살만 빼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적당량의 식사로 건강을 향상시키고, 대사증후군·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쉽고 즐겁게 함께 하는 운동으로 건강을 향상시키는 신체활동!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파주시만의 건강증진사업은 달라도 아주 남달랐다.



어린이 비만관리 교실


성인 맞춤형 비만관리 프로젝트

「비만을 부르는 나쁜 습관들 이참에 다 없애자」 비만관리 프로젝트

비만의 원인은 균형 잡히지 않은 영양의 과잉섭취, 기저질환, 그리고 신체활동의 감소가 대표적이다. 2019년 1월~11월 진행된 성인 맞춤형 『비만관리 프로젝트』와 2019년 8월 여름방학과 2020년 1월 겨울방학에 실시된 『파주아이 모여라』는 비만을 부르는 나쁜 습관들을 이참에 다 없애자는 취지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파주아이 모여라』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는 "키 쑥쑥! 몸 튼튼!"을 실현하기 위해, 평소에 자주 찾게 되는 가공식품들의 영양표시 교육을 실시하였다. 영양표시의 숨겨진 비밀? 표시되어진 영양표시는 한 봉지 기준인지? 1회 제공량인지? 아이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양표시의 비밀을 배우고, 무척 뿌듯해 하였다. 직접 바나나 우유도 만들어 보는 영양수업과 신나는 음악 줄넘기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지루할 틈도 없이 지나갔다.

늘어나는 체중 때문에 고민하는 성인들의 주관심사인 '허리둘레 줄이기' 연령별 신체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비만관리 프로젝트』는 성인들에게 다가오는 만성질환을 멀리하기 위한 방법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질환교육을 시작으로 키, 몸무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일 식사일지를 기록하여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하고 칼로리 계산을 통해 영양의 과잉 섭취를 예방하였다. 그리고 성인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통해 5개월 후 큰 변화가 생겼다. 체중감량은 평균 2.67kg, 혈압은 4.7mmHg 감소, 중성지방 평균 12.3mg/dL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만성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트륨 섭취량은 353.9mg으로 감소하였다.



경로당 여름피서 학교

「경로당 여름피서 학교」매일 매일 경로당에 꽃이 피었어요~

파주시 지역사회 보건의료 설문조사(2018.8.27~9.9) 결과,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우선 관심 연령층이 노인(38%)으로, 노인 중심 건강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조사(2019.2.20.)에 따르면, 노인 취미생활 등의 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취미생활 등 여가 활동도 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경로당 여름피서 학교」는 경로당을 매일매일 웃음꽃으로, 부채꽃으로, 꽃향기 비누로 물들였다. 일주일에 3번 신나는 운동과 함께 건강체조, 어르신 성교육, 화재예방교육, 마사지 봉사, 덜 짜게 덜 달게 먹는 영양교실로 경로당이 풍성해지고 어르신 웃음소리로 2019년 여름, 경로당이 건강하게 물들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집콕생활 운동」으로 파주시의 도전은 계속~

파주시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장기간 중단된 운동교실을 재개하여 지친 생활에 활력을 키우고 단계적 일상생활 복귀를 준비하고자 온라인 운동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건강운동반을 개설하여 1주차 '굳어 있던 몸을 깨워요!' 전신스트레칭 및 균형운동, 2주차 '면역력 증진을 위한 유산소운동' 집안에서 하는 만보걷기, 3주차 '하체 튼튼' 발목강화 대퇴부 운동, 4주차 '확~살 찐자에서 벗어나요' 수건을 활용한 복근운동, 5주차 '상체 튼튼' 물병을 활용한 아령 운동을 구성하여 누구나 손쉽고 즐겁게 따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19도 막지 못하는 파주시의 건강열정은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건강증진 사업이 축소됐지만, 파주시의 건강열정은 남다르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운동프로그램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업무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상담전화와 함께 '행복레시피'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수영프로그램도 중단되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질환, 영양, 신체활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들의 염원처럼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함께 다시 건강열정을 up! up!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부서명 건강증진과 | 담당자 노진숙(940-5562)

11 치매 예방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가족, 지역주민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시

2018.
치매안심센터(조리) 및 단기쉼터 2개소(파평, 월롱) 개소

2018.
치매 안심마을 지정 운영 : 3개 마을 (도내1리, 두포3리, 성동리)

2018. ~ 2019.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파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식개선 사업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건강도시 기틀 마련



파평 단기쉼터 현판식

파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64,915명으로 파주시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최근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노인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의료비지출 및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도 심각한 실정이다. 파주시보건소는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환자관리,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경감을 위해 2018년 7월 파주건강증진센터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파평단기쉼터와 2019년 10월 월롱단기쉼터를 개소하여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및 가족, 주민들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카페, 단기쉼터, 인지재활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매 치료관리비 및 다양한 조호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치매 친화적 안심공동체 실현 치매안심마을 3곳 지정

치매 친화적 안심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2018년 3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행복한 노후, 희망 한 걸음!'이란 구호아래 치매안심마을 3개소(도내1리, 두포3리, 성동리)를 하였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마을을 말하며,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치매인식개선 교육,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의 선별전수검사,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치매가족 자조모임,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탄현면 성동리 치매안심마을 월롱면 도내1리 치매안심마을 파평면 두포3리 치매안심마을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파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식개선 사업

2018년 9월 『행복 한 걸음! 치매극복 선포식 및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치매에 대

한 경각심을 널리 알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이날 행사는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극복 선포식과 함께 치매예방 홍보관, 치매무료상담, 치매예방 가상체험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과 함께 치매극복을 다짐하였다.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 치매인식개선의 일환으로 18회에 걸쳐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 1,600여명을 대상으로 인형극 '아기강아지 하양이와 검정 엄마고양이'를 진행하였으며 관람 후에는 동요와 함께하는 치매예방체조, 치매상식퀴즈 맞추기 등을 진행해 어린이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2019년 11월 치매인식개선「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마을포럼 '어느 날 내 기억에 가을이 왔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시민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문을 잊은 음식점' 다큐영상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마을포럼을 하였으며 치매예방 캠페인, 교구전시, 치매인식개선 표어포스터 당선작 작품전시회를 통해 치매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치매극복 선포식 및 건강걷기대회


치매인식개선 포럼


어린이 치매인식 개선 사업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교육 등을 통한 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치매검진 및 치매환자등록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한다.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부서명 건강증진과 | 담당자 이신영(940-3721)

12 전통시장 등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영업에 힘이 되는 위생행정 추진

전통시장 등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 2018년 금촌통일시장 내 위생업소 시설개선(27개소/51백만원)
- 2019년 문산자유시장 내 위생업소 시설개선(33개소/61백만원)
- 2020년 광탄·문산·조리전통시장 내 위생업소 23개소 / 66백만원 시설개선 추진, 노후환기시설 개선사업 33개소 / 15백만원 추진



전통시장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적으로 취약한 이미지 탈피 시도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음식점, 떡집, 기름집 등)의 노후화된 시설로 위생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벗어나고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파주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전통시장 깔끔음식업소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다.

노후환기시설 개선사업으로 이물혼입 걱정 제로

음식점에 방문하였을 때 깨끗하고 위생적인 후드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위생환경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오랜 영업을 이어 온 음식점의 경우 노후된 시설로 인해 후드 및 환기시설의 위생적 취약함이 있을 수 있어, 파주시는 장기간 운영업소 등을 대상으로 후드 및 환기시설의 수리·수선·교체비용에 대해 소요금액의 80%(50만원 한도)로 33개소에 대해 15백만원의 환기시설 개선 지원을 추진하였다.



경기도민일보

2020년 04월 02일 목요일 005면 사회

노후 업소 주방환경 개선사업

파주시, 24년↑ 영업신고 중 30곳 선정

파주시는 장기간 운영업소(24년 이상, 1995년 이전 영업신고) 중 30개소를 선정해 '노후 주방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업소는 오래된 환기시설을 정소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시설개량 소요금액의 80%(5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장기간 운영업소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개방형 주방 업소여부 △상시근로자 수 △장기근로자 여부 등을 심사해 대상자별로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월17일까지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해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동현 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상인들의 경영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방환경 개선사업 선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 운영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깔끔한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성훈기자

환기시설이 위생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업소용 후드 등은 조리기구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 시 설치 높이로 인해 청소가 쉽지 않고 유증기의 고착화가 되었을 경우 식품으로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조리환경으로 소비자와 음식점 간의 신뢰감 증진

전통시장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회로 구성된 단체와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업소, 파주시·경기도 간 사업설명회 및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식품위생업소는 최대 200만원의 위생 취약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며, 지난 2년간(2018~2019) 60개소 112백만원 규모의 지원을 한 바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업소당 최대 300만원의 시설개선지원으로 광탄, 문산, 조리전통시장에 대해 23개소 66백만원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 추진하였다.

당초 사업설명회 및 사업 추진 시 중도 포기업소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회의적이였던 업소들이 있었으나, 시설개선 후 위생적인 조리환경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얻고, 변화되는 업소 환경에 위생적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었다.

깨끗하다는 믿음에 안심을 더하는 시너지효과

각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현대적인 전통시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생업소의 조리환경 개선 없이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시설개선 전



시설개선 후



시설개선 전



시설개선 후



시설개선 전



시설개선 후

정기매일

2019년 11월 07일 목요일 007면 지방

파주 문산자유시장 깔끔 음식업소로 대변신



개선 전



개선 후

6.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위생적인 조리환경을 만드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상인회 등과 접촉하면서 많은 업소가 위생적인 환경 조성 분위기에 동참하고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외식환경에 좀 더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세 상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시기에 전통시장 및 장기운영 업소 등의 시설개선 지원으로 위생적인 환경에 대해 영업주의 자발적인 위생적 조리환경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좀 더 나은 식품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깔끔한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서명 위생과 | 담당자 이남철(940-4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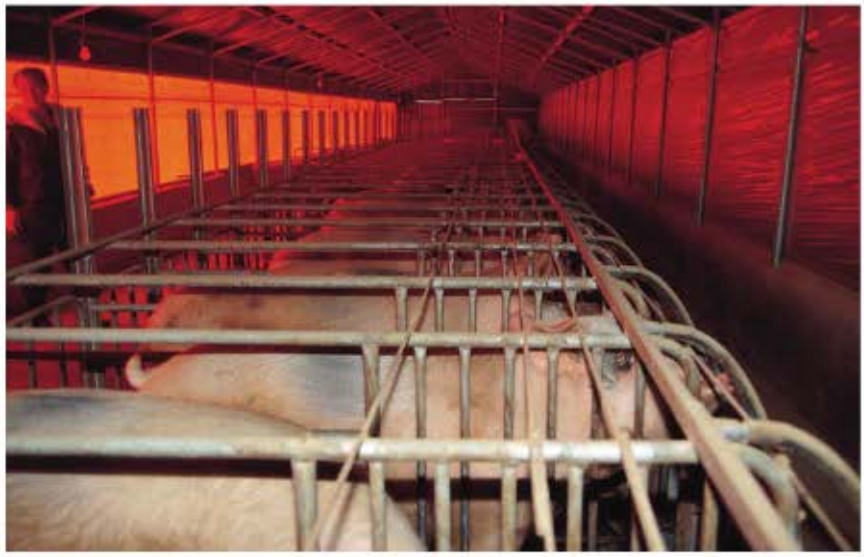
1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과 극복

파주시 축산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파주시 축산기반 붕괴, 관내 사육돼지 전체 살처분 (111농가 125,878두 수매및살처분)

민관군 방역장비를 총동원한 방역추진, 발생농장 초소 24시간 차단방역, 파주시 모든 사육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시행 등 특단의 조치로 확산 저지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시행 등 양돈농가 피해지원



양돈농가

예견 할 수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파주시 축산업에 큰 피해 남겨…

가축전염병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자기 발병하고 항상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혀왔다. 2019년 9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관내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하게 되어 111농가 125,878두의 돼지를 살처분 및 수매도태하였다.

파주시 사육돼지 전체가 살처분 됨으로써 이에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812억을 상회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주시 발생현황

구 분		농가수	대상(두수)	비 고
총계		111	125,878	
발생농가 조치	소 계	34	61,804	
	발생농가	5	9,589	
	발생농가 가족농장 및 3㎞이내	29	52,215	
先 수매 後 살처분	소 계	63	63,994	
	수매농가	45	15,340	※농가수 중복있음
	(수매후) 살처분	61	48,654	
소규모농가		14	80	

2020. 1월 기준 추산액 (단위:억원)

합계	살처분 처리비용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 자금	통제초소 등 운영	ASF 긴급대응	매몰지 소멸화	경영안정 자금
812	169	369	9	13	48	66	138











ASF 확산 방지를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변화와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최초 구성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조직과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사투를 벌였다.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 ASF 상황실을 마련하고, 협업지원반, 실무반이 유기적으로 공조해 방역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1) 2019년 9월 17일,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파주시는 2019년 9월 17일 06:30, 연다산동 축산농가의 ASF 확진 판정 이후 확산방지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빠르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초기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치운영 기준에 맞추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부시장을 차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통제관, 농축산과장을 담당관으로 하는 지휘부 아래에 7개의 실무반을 편성하였다.

2) 2019년 9월 21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반 조정 및 실무반 국장급 격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90여 개소 초소 근무 등 현장 투입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책본부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비반과 인체감염대책반을 임시 운영중단하고, 1

차 발생농가가 위치한 연다산동 및 가족농장인 동문리, 마산리 살처분 대상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잔존물처리반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직원투입과 추진력 확보를 위해 실무반을 국장체제로 격상하였다.

3) 2019년 9월 26일, 사태 심화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강화

2019년 9월 24일 적성면 자장리 농가 2차 확진판정과 ASF 확산 사태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지원반이 참여하였고 파주시는 상황반을 기존 5개 반에서 9개 반으로 확대하여 보다 세분화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성 변경하였다. 증가되는 살처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살처분반'과 자재수급 현장 관리와 수불현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자재수급반', 막대한 방역예산 소요에 따른 국도비 지원 및 집행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반', 구역별 책임관리를 통한 빈틈없는 근무태세 확립을 위한 '점검반' 등이 신설 되었다.

(2019년 9월 26일 기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체계



4) 2019년 10월 1일,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살처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후관리 및 매몰지 관리에 집중하기 위하여 10월 1일자로 대책본부 구성 체계를 기존9개 반에서 5개 반으로 조정 운영하였다.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 소독실시

파주시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민·관·군 방역장비를 총 동원, 파주시 전역과 주요 도로, 민통선 일대 및 하천 주변에 대한 방역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발생농장 초소에서는 24시간 차단방역, 전화예찰 등 모든 농가를 집중 관리하였다. 아울러, DMZ 포함 민통선 이북의 모든 접경지역에 헬기를 동원한 항공방역 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을 저지했다.

방역장비 동원현황

계	방역차량	광역방제기	제독차량	헬기
29대	13대	1대	14대	1대

기관별 방역대상 지역

방역기관	방역장비	방역지역
파주시청	• 방역차량 10대 – 농업기술센터 3대 – 산불방제차량 7대	읍·면·동 전지역
파주연천축협	• 방역차량 3대 – 공동방제단 2대 – 축협방역차량 1대 • 광역방제기 1대	읍·면·동 전지역
군부대	• 제독차량 14대	37국도, 77국도 및 파주시 관내 주요 도로
산림청	• 산불방제헬기 1대	한강 하구 및 임진강 민통선 이북지역 및 DMZ

(단위: 회)

방역활동 실적

방역기 보유 대수	방역활동 내역				비고
	계	축산농가 주변	도로·하천	민통선이북지역	
29대	77,418	74,250	3,150	18	

발생농가 및 반경 3㎞ 이내 모든 돼지에 대한 예방적살처분이라는 특단의 조치

2019년 10월 3일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 농가의 돼지 전량에 대하여 「先 수매, 後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정하고, 63농가 63,994두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였다.

선 수매 후 살처분 처리 현황 (종합)

합계	수매 내역	살처분 내역	비 고
63농가 63,994두	45농가 15,340두	61농가 48,654두	FRP 42농가 36,238두 랜더링 19농가 12,416두

살처분 투입인원 및 장비현황

투입인원 (명)	장비현황(대)			
	총계	굴삭기 (포크레인)	이동장비 (덤프트럭)	기 타 (로다·집게 등)
2,169	219	99	89	31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보상

파주시는 양돈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차단방역뿐만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 등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전력을 다하였다. 특히 양돈농가에 현실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살처분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예상보상금의 일부(추정액의 50%)인 163억원을 2019년 11월 8일 지급하고, 순차적으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가축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0년 2월 5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돈거래시세와 번식돈 가격 및 산출방법을 결정하였으며, 살처분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으로 피해를 받은 양돈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보상 및 피해농가 지원

- ASF 축산 피해농가 2020년 재산세 감면 (100여 농가, 2천 2백여만 원)
- 살처분 보상금 지급 (369억원)
- 생계안정자금 지원 (월 최대 337만원, 9억원 지원)
- 양돈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시행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63개 농가 / 138억원 지원)
- 농업발전기금 지원 (농가 3억원, 법인 5억원 한도)

파주시 축산업에 남긴 과제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파주시 전체가 하나가 되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전국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인한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DMZ관광산업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는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그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양돈농가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각종 보상금 지급 및 빠른 재입식을 위해 농식품부에 신속한 재입식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 매몰지 47개소에 대한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순회점검을 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방역을 위한 혼신의 노력, 영면에 든 故 정승재 주무관

전국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방역업무에 혼신을 다하던 故정승재 주무관이 과로사로 순직하였다. 4월 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영결식이 진행되었고, 비통해하는 유족들과 고인을 그리워하는 동료직원들뿐만 아니라 파주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망인의 순직을 슬퍼하였다.

전국최초로 파주ASF 백서 제작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파주시에 큰 아픔을 남기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아픔을 상처로 끝내지 않고,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전국 최로로 파주ASF 백서를 제작하였다. 백서를 통해 똑같은 위기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를 되새기고 온전한 회복과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였다



정승재 주무관 영결식



ASF백서

부서명 농축산과 | 담당자 하찬욱(940-4592)

14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지역 내 전파차단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지침보다 한 단계 강화된 감시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감염병 관리로 지역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

2020. 1. 29.
24시간 코로나19 신고센터 설치·운영

2020. 2. 03.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2020. 2. 29.
자가격리시설(문산 가상대) 운영

2020. 3. 25. ~ 4. 30.
생활치료센터(파주 NFC) 운영지원

2020. 3. 30.
임시생활시설(홍원연수원/현대자동차 인재개발센터) 운영



파주시 선별 진료소

주요 상황

상황일자	주요 상황
2020. 1. 20.	국내 첫 확진·감염병 위기단계 (관심→주의)
2020. 1. 27.	감염병 위기단계 (주의→경계)
2020. 2. 23.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
2020. 3. 22. ~ 4. 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020. 4. 20. ~ 5. 5.	완화된 거리두기
2020. 5. 6. ~	생활속 거리두기
2020. 5. 29.	수도권 강도 높은 거리두기
2020. 8. 16.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020. 8. 30.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2020. 9. 14.	거리두기 2단계 조정
2020. 9. 28.	추석 특별방역 기간
2020. 10. 12.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 조정
2020. 11. 7.	거리두기 5단계 개편
2020. 11. 7.	생활방역 1단계
2020. 11. 19.	지역유행 1.5단계
2020. 11. 24.	지역유행 2단계
2020. 12. 8.	전국유행 2.5단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정책추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와 자가격리자 관리로 지역 내 전파 차단 총력 대응

- 24시간 상담 신고센터, 선별진료소 내 이동식 채담부스, 음압텐트 및 이동형 X-RAY 설치로 선별검사 시행, 신속한 검체 채취를 위한 야간 및 방문 검체채취반, 드라이브스루 및 워크스루 운영
  ※경기도 최초 보건소 내 음압텐트 설치
-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생활방역 준수 홍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물품 지원

파주시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말부터 보건소 내 24시간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 내 이동식 채담부스, 음압텐트 및 이동형 X-ray 등을 설치하여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체 채취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및 워크스루(도보이동진료소)도 운영 중에 있다.

파주시는 경기도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텐트를 설치하고 우한입국자, 신천지교인, 이태원클럽 방문자, 해외입국자 등 코로나 유행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위험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했다.



파주시 선별 진료소 개소 (보건소 주차장)



검체 채취



역학 조사서 작성



요양원 등 전수검사



임시선별검사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자료


수도일보

파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단' 긴급회의


중앙일보

파주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 추가 운영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발생에 따라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고 고위험 시설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2회 실시하였다.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161개소 4,335명을 1차 검사하였으며 4,335명 모두 음성이었다. 2차 검사는 12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전체 4,470명 중 4명이 양성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간호사와 행정인력 16명 투입한 보건소 방문검체채취반을 운영하여 검사하였으며,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야간 및 방문 검체채취반을 운영하여 상황 발생 시 즉시 검체채취를 하고 있으며, 휴일 없는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검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유행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12월 4일부터 설치 운영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파주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외에 인구가 많은 신도시인 운정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1일 300~500여명의 무료검사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보건소인력뿐만 아니라 경찰과 군부대에서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조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1:1 전담공무원 지정, 자가격리앱 설치안내, 현장점검반 운영 등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전담공무원을 통한 일일 건강체크, 생필품 지급 및 심리적 지원 등 이탈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가족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 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2020년 3월 22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초 시행된 이후 2020년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2020년 5월 29일 수도권 강도 높은 방역 조치 등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대 가림막 설치, 유연근무제,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마스크 쓰기, 손씻기 생활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준수를 홍보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 마스

크 등 예방물품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 관계부서와 감염병 전담병원인 파주병원, 파주소방서, 파주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이송 및 자가격리자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상시 논의하였다.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체계 강화

2020년 1월 28일 국내 확진자 발생으로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코로나19 대응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구분	상황관리반	감염병대응반	환자 및 접촉자 관리반	취약계층 관리반	인력지원반	비상경제대책반	감염예방관리반	방역지원반	대외협력지원반
정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평화기반국장	복지정책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발전국장	환경수도사업단장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평화협력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도시개발과	환경보전과
지원부서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예산팀)		통일기반조성과 건강증진과 운정·문산 보건지소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체육과 위생과장 농업진흥과 남북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재생과 지역발전과 산림농지과 토지정보과 (의약관리팀)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임무	• 상황실(상황총괄) • 일일상황 보고 • 재난상황 상시모니터링 • 재난상황 파악 접수 • 물품구매 • 예산지원	• 역학조사 및 검체채취 검사 지원 • 환자, 발생현황 및 동향파악 • 상담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 • 감염병 예방홍보 • 환자이송	• 통제협력 1:1 관리 • 능동감시자 관리	• 취약계층 대책지원(노인, 장애인, 여성이동) • 복지시설 관리대책 • 생활안정 지원 관리 • 피해주민 긴급대책 • 사망자 1:1 관리(유족대책) • 다문화가정 감염대책	• 인력수급지원 현황 관리(공무원, 협력기관, 민간) • 자원봉사자 관리	• 전통시장 관리 • 외국인근로자 및 근로자 지원 • 근로자 감염 대책 • 자가격리 근로자 지원 및 기업 협의 • 작업소개소(외국인)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감염대책홍보(교통, 숙박, 음식점 등) • 관광지, 축제장 등 • 농어촌민박(펜션) • 유치원, 학교	• 방역대상수요조사 • 방역 홍보활동	• 대외협력 • 유관기관 예방대응 협력 • 파주경찰서(사회질서유지) • 파주소방서(환자수송) • 교육지원청(학교·유치원문의) • 재정행정(병원료식

따라, 9개 실무반, 45개과를 중심으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파주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보고회를 2020년 12월 현재까지 지속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9개 실무반은 업무 총괄, 물품·예산 지원, 임시생활시설의 준비 등을 추진한 ① 상황관리반을 중심으로, ② 감염병 대응반은 환자, 자가격리자, 검체채취 등 감염증 대응 업무, ③ 환자 및 접촉자 관리반은 자체 모니터링 관리,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④ 취약계층 관리반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물품 지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⑤ 인력지원반은 휴일 약국마스크 판매지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등 인력지원, 자원봉사관리와 읍면동 동향 파악, ⑥ 비상경제 대책반은 기존 외국인·근로자 관리반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 21.에 비상경제 대책반으로 변경하여 마스크 특별판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담당, ⑦ 감염예방 관리반은 문화·관광·음식점·숙박업소·교육기관 등에 대한 예방관리, ⑧ 방역 지원반은 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확진자 이동동선 방역, ⑨ 대외협력 지원반은 임시생활시설 운영,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군 부대·시설관리공단 등 대외기관의 마스크 공장 봉사와 방역을 담당하여 운영하여 왔다. 각 실무반은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코로나19 대응 일일보고회에는 파주경찰서와 파주소방서,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도 참여하여 파주시 방역체계 구축에 일조하였다. 시는 유관기관에서 현장 출동 시 필요한 마스크, 장갑 등 물품들을 지원하였고, 특히 소방서 119에서 환자 이송에 필요한 음압형 들것을 확보·지원하여 확진자 병원 이송에 큰 기여를 하도록 했다.

해외입국자 관리를 통한 지역내 감염 확산 원천 차단

- 급증하는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 확진자 격리 및 치료,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 문산기상대 「임시격리시설」 설치 (2. 29.)
  - NFC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3. 25.)
  - 무증상 해외입국자 수송을 위한 특별버스 운행 (3. 29.)
  - 홍원연수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대차 인재개발센터 이전 (4. 1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상부족 문제해결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입국 확진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증환자들을 위해 탄현면 소재 파주 NFC(축구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였고, 파주시는 4월 30일 종료 시까지 환자 이송차량 지원 및 시설 주변 방역소독 등 적극적인 운영지원을 하였다.

또한, 수도권 기상청과 협조를 통해 문산읍 운천리에 소재한 방치된 숙소를 긴급하게 보수하고 확진자와 접촉자 중 음성이 나온 자가격리자 중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시 격리시설 운영을 통해 2020년 12월 현재까지 50명이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 얻었다. 조리읍의 기업인 단체에서는 이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기위해 임시격리시설에 전자레인지 5대를 기부하기도 하였다.


임시격리시설 (문산기상대 직원 관사)

시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 관찰도 강화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입국자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였지만, 파주시에서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확진자를 미리 발견하여 최대한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2020년 4월 1일 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가 시작되어, 자가격리자의 수가 폭증하면서 지원 물품수량이 많아지게 되어 직원들의 정리·전달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기존 직원들에 의해 정리해서 지원하던 자가격리자 지원 물품을 유통업체(주)위너스무역)와 파주시의 협약을 통해 직접 유통업체에서 바로 지원 물품을 정리 자가격리자에게 배송해주는 것으로 개선하여 2020년 12월 현재까지 7,051세트(18종 – 햇반, 라면, 간식, 생수 및 음료 등)의 물품을 전달하여 직원 업무와 피로도를 대폭 감소시켜 주고 빠른 배송으로 격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덕분에 챌린지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홍원연수원)


현대자동차 임시생활시설

해외 입국 시부터 접촉자를 최대한 줄이고자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공항 → 임시생활시설까지 입소토록 하는 파주특별버스를 운영 하였으며, 고양 킨텍스 → 임시생활시설까지 파주특별버스를 운영 2020년 12월말 현재 1,310명을 이송 조치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선제적 역할을 하였다. 검사 후 음성 판정 시에는 자택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파주특별버스를 운영하여 입소자 등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파주시 직원 모두는 본인도 감염될 수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시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선제적 대응을 하였다.

해외입국자중 무증상자가 자가로 이동하는 과정, 자가격리 중 가족 등 접촉자 발생을 사전에 최대한 차단하고자 조리읍 소재 흥원연수원에서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운영하였고,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센터에서는 2020년 4월 19일 부터해외입국자가 음성 판정 시까지 거주토록 하는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말 현재 2,308명 입소토록 하여 검사를 실시 2,286명이 음성이었고 16명의 양성 확진자를 찾아 긴급 병원으로 입원 조치하여 가족 등 접촉자 없이 지역감염 확산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었고, 자칫 지역사회에 감염 전파될 수 상황을 미연에 방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파주시 시민들은 문산읍 소재 임시격리시설(기상청 숙소), 조리읍 소재 임시생활시설(흥원연수원,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센터), 탄현면 소재 생활치료센터(NFC) 설치에 반발하지 않고, 쾌유를 비는 현수막을 거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시민단체인 자율방재단에서 는 코로나19 확산되었던 시기에 10회에 걸쳐 152명이 참여하여 임진각, 지하철 역사, 전통시장, 관광지 등 방역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시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파주시 자체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정책 추진

- 파주시 자체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정책 시행 (2. 27. ~ 3. 6.)
  - 파주시가 정부 공적판매와 별개로 농협 파주시지부-제조업체 간 연결로 추진
  - 53만 900매 파주시 물량 자체 공급
- 임산부에게 마스크 9,177매 긴급 전달 (3. 5.)
- 정부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에 공무원 인력 지원 시작 (3. 6.)
- 경력단정 여성 채용을 통한 순수 마스크 제작 (3만개 제작 및 배부)

지역농협, 마스크제조 공장 협약을 통한 특별판매

시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 구매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할 때 시민을 위해 파주지역 농협, 마스크 제조 공장 협약을 통해 특별판매를 실시 530,900매을 판매토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공적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이후에도 마스크가 부족한 운정 지역에 식약처 직원의 도움을 통해 안성 소재 공장을 섭외하여 마스크 5,000매를 공적판매외 별도 판매토록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파주시 공적 마스크 판매현황을 분석하여 판매 개선을 3차례 하는 등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채용을 통한 순면 수제 마스크 제작



순면 수제 마스크 제작

또한 파주시에서는 위축된 고용 현황에도 보탬이 되면서 마스크 공급에도 도움이 되며,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순면 수제 마스크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1달간 63명의 재봉틀 재능이 있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채용하여 약3만개의 필터교체형 수제 마스크를 제작하였다.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현장 작업자를 최소화 하였으며, 재택근무를 유도하여 육아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재능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3만개의 수제 마스크는 특수학교학생, 노인, 교통취약계층, 교육공무직, 택시운전사,전통시장 등에 배포되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파주시는 마스크 제작을 통해 공공 일자리 창출뿐 만 아니라, 질이 좋으면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계층으로 보급, 마스크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파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순면수제 마스크를 자체 제작하였으며, 이과정에서 재능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하여 일자리 제공과 마스크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채용된 시민들 역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일 하셨다고 뿌듯해 하였다.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중이다. 이는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당사자 10만원,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지도 점검 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대상시설별 처리부서를 두어 마스크 착용 및 방역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처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는 노력 지속

감염병의 현장에서 헌신하며 대응하신 의료진, 관계자, 직원 모두는 본인도 감염될 수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시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선제적 대응에 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를 위해 노력은 지속될 예정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시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파주시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등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담팀 없이 감염병관리팀에서 소규모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코로나19 방역대응에 장기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2020년 10월 12일 '감염병 대응팀'(인원 13명)을 코로나19 대응 전담으로 구성하여 시민의 안



도민일보

2020년 07월 10일 목요일 010면 경기

파주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지역 확산 차단

해외입국 12명, 국내 감염 8명 확진… 집단 감염사례 없어

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파주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2월 24일 발생한 이래, 12월 31일 24시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 487명, 해외입국자 36명 등 총 5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자가격리자는 총 10,842명으로 현재 관리중인 자가격리자는 645명, 격리해제자는 10,197명으로 집계되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파주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부서명 보건행정과 | 담당자 이희수(940-9701)
안전총괄과 김호영(940-4118)
일자리경제과 한태훈(940-4692)
한주연(940-4524)

15 미세먼지 대응 종합관리 대책 추진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총력 대응



2018. 10. 22.
미세먼지 전담 대응팀(대기관리팀) 신설

2019. 12.
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현장 실행력 강화와 파주시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연간 미세먼지 대응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12~3월)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조치와 건강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현장 실행력 강화와 파주시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미세먼지 전담 대응팀 신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되며, 미세먼지(PM10)는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이며, 초미세먼지(PM2.5)는 약 1/20~1/3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크기로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미세먼지는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파주시의 대응만으로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파주시는 미세먼지 대응 대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건강 보호와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미세먼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였다.

파주시 미세먼지 대응 종합관리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점차 개선 중

파주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피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농도 완화에 총력, ②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 ③ 현장 실행력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연간 미세먼지 대응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매연저감장치



미세먼지 신호등



친환경자동차



대기오염측정소



도로 살수



차량 2부제



배출가스 단속



비상저감조치 안내

파주시 미세먼지 대응 종합관리 대책 기본체계

구분		배출 감축		시민건강 보호	
평상시	사업장 및 공사장	• 대기 배출사업장 점검 및 단속 •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 및 단속, 노후건설기계 제한 • 대형사업장(공사장) 추가 감축 유도 •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사업 •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민간 14명)	취약시설	•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
	소각장	• 소각장 가동율 조정 및 감축	취약계층	•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수송분야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친환경자동차 보급	안심장소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 미세먼지 쉼터 지정 및 운영 •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
	생활분야	• 불법소각 단속 강화 •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 도로 지정 및 운영	홍보	•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 대기오염전광판, 미세먼지 신호등 확충 •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고농도 시기 (12~3월)		• 공공2부제 시행(행정·공공기관) •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시행(민간) • 사업장, 공사장, 불법소각 등 평상시보다 단속 강화 • 대국민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고농도 발생 시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관리 실시(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별 강화된 저감조치 시행		

▼▲

이행실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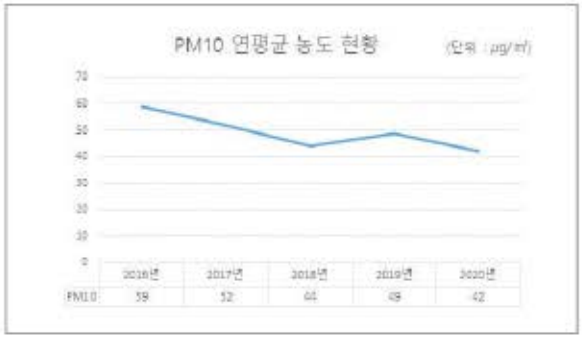
점검 체계 및 방안	• 미세먼지 대응 **TF팀 구성** • 현장이행 사항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평상시에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하여 ▶ 사업장 및 공사장 ▶소각장 ▶ 수송분야 ▶ 생활분야로, 시민건강 보호 측면에서는 ▶ 취약시설 ▶ 취약계층 ▶ 안심장소 ▶ 홍보로 구분하여 대책을 담았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12~3월)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에는 평상시 보다 더욱 강력한 배출 감축과 시민건강 보호 조치를 실시하며, 미세먼지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이행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파주시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2016년 59㎍/㎥이었으나, ▶2018년 44㎍/㎥ ▶ 2019년 49㎍/㎥ ▶ 2020년 42㎍/㎥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역시 2016년 29㎍/㎥이었으나, ▶ 2018년 26㎍/㎥ ▶ 2019년 27㎍/㎥ ▶ 2020년 25㎍/㎥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파주시 미세먼지 대응 대책 보완·발전 기대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 원인 외에 기상 영향으로 인한 국외 유입이 주요한 원인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초기에는 국외 유입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만 국내 원인으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악화 및 지속되어 피해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국내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대책(▶조기폐차, ▶ 배출가스 저감사업,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사업장 및 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파주시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다.

파주시는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된 장소 외 지역의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1등급) 설치를 제안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8대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2021년 이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를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지역별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행정 업무(도로청소, 지도점검 업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파주시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꾸준히 보완·발전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부서명 환경보전과 | 담당자 현동호(940-3791)

16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체계 운용 선도

폐열·폐수·하수 재이용으로 폐기물 및 오염원의 효율적 처리

공공폐수·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소수력 발전

소각 폐열 재활용사업

2020년 한국환경정보센터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친환경 지방자치단체장상과 '자원순환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에코시티로 선정



파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폐열을 재활용하고 있는 낙하리 소각장 전경

소각 폐열 재활용사업

파주시는 폐기물 소각 시설인 파주환경관리센터와 운정환경관리센터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산업체와 지역난방에 필요한 열에너지로 사용. LG 디스플레이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온수(스팀)을 공급하여 오고 있다.

파주시는 소각 폐열 재활용사업을 통해 89만8천톤 생산하여 262억 원의 세수 효과를 거뒀고, 이는 원유 5만8천톤 수입대체 효과, 온실가스(CO_2) 18만톤 저감, 나무 190만 그루 식수 효과에 해당 하며, 폐열 판매로 얻은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주민복지 실현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도 거양했다.

공공폐수·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파주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파주LCD, 월롱, 문산)을 운영하면서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방류함은 물론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LCD 200KW, 월롱 274KW, 문산 36KW)과 방류수를 이용한 소수력

(410KW)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1,030KW, 9.9백만 원의 전력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3,380톤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속하여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장 12만톤 증설, 파평산업단지 2천톤 설치, 법원산업단지 4천톤 문산공공폐수처리장 연계 처리를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 증설에 따른 부지 공간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소수력 발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향후로도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절감은 물론 화석연료 사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개선을 선도해 갈 것이다.


폐수처리장 태양광시설


폐수처리장 소수력발전기

수도권 최대 규모 하수재이용시설운영으로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오염 저감

파주시는 2018년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하수재이용시설을 준공하여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재처리(40,000㎥/일) 후, LG디스플레이에 공업용수로 공급하여 하천오염부하를 줄이고, 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으로 LCD산업단지는 공업용수 부족 문제 및 저렴한 가격으로 연간 18억원을 절감하였고, 연간 240KG의 하천 오염 부하량을 저감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국249개 공기업(지자체 포함)을 대상으로 2019년 경영실적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 20여개 세부지표를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평

가에서 수질관리, 시설이용률, 분류식 관거 비율, 하수도보급률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높은 성과평가를 받아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9년 국·도비사업으로 17개 280억 원, 2020년에는 18개 332억 원, 2021년에는 24개 사업으로 845억 원을 확보하여 도시개발에 맞추어 도·농간의 균형적인 하수서비스를 구현 및 맑은 물 도시 파주로 수생태계 보호에 전력하고 있다.



부서명 환경보전과 | 담당자 장혜현(4458)

17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적기 설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인프라 조성

2020. 4. 15.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단계) 준공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내 생산설비 증대에 대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계획 수립 및 적기 설치로 입주 업체의 폐수처리 부담 경감 및 수생태계 보전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요구

파주시는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입주 기업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수중생태계를 보전하고 입주 업체의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LCD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LCD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 1단계 70,000㎥/일, 2012년 2단계 70,000㎥/일, 2017년 3단계 90,000㎥/일 총 230,000㎥/일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LCD 일반업단지 내 입주 기업은 물론 인근 주거지역(월롱 처리분구) 및 탄현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등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연계 처리하고 있다.

LCD 일반산업단지 내 LG Display의 생산시설 증설 계획에 따른 폐수 증가가 예상되어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는 적정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생산시설 가동 시기에 맞

추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및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LCD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 운영 현황 및 증설계획

(톤/일, 백만원)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금회)	비 고
용 량	70,000	70,000	90,000	50,000	(계 280,000)
준공일	2006.11.30	2012.08.31	2017.08.31	2020.04.15	
사업비	48,175	36,314	90,333	86,666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보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

LCD 일반산업단지 내 LG Display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규라인 증설에 따른 원활한 사업 지원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었다.

이후, 파주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2015년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 한국환경공단, LG Display 3자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공사 착공 및 2020년 4월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하여 2020년 5월부터 시설 운영을 시작하였다.

사업명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기간	2014. 3 ~ 2020. 4.
처리용량	50,000㎥/일
처리공법	A2O + MBR
사업비	86,666 백만원 (국 59,711/ 시 26,955)



공공폐수처리시설 적기 설치로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과 인력이 요구됨에 따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초기,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폐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는 관련된 행정절차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국비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하여 생산시설 가동(증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산업단지 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입주 기업 및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등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서명 환경보전과 | 담당자 조용훈(940-4463)

18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추진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파주형 그린뉴딜 사업 첫걸음

2020. 4. 7
가축분뇨처리시설 타당성 적정 통보(한강유역환경청)

2020. 5. 12.
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체결

2020. 6. 30.
2021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확보(4억원)

2020. 7. 1.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통과(행정안전부)

2020. 8.
한국환경공단과 업무위·수탁협약 체결

2020. 10.
파주환경순환센터 착수보고회

2022. 3. 착공
지역주민과 상생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파주형 그린뉴딜' 실현



환경기초시설 신 · 증설 추진 업무협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추진

1991년부터 운영 중인 파주환경순환센터는 파주읍 봉암리에 위치하여 일일 610톤(음식물 130톤, 가축분뇨260톤, 분뇨220톤)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로 장기간 운영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인근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파주시는 2019년 1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악취발생 유발시설을 중심으로 현대화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신속 추진 노력

2020년 4월 총 사업비 485억원, 일일 160톤 규모의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로 환경부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4억원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5월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추진 업무협약 및 8월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3월 착공, 2024년 12월



파주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등 성공추진 박차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파주시는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파주시는 음식물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내구 연한이 초과된 노후 환경기초시설이 많고, 유입인구 증가로 음식물을 포함한 일반쓰레기가 증가해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2018년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앞일 3R 규모의 통합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환경부의 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는 인구증가에 따른 일반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장 신·증설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한국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3R의 규모의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파주시민의 실제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남 계획이다.

최종위 파주시장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통합처리 해 바이오가스와 질적 유입성을 높이고 악취를 저감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행복한 도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주=홍연식기자 ysh@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위한 '파주형 그린뉴딜'의 첫걸음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위해 음식물과 가축분뇨를 통합처리하는 시설로 설치비 및 운영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시키는 '파주형 그린뉴딜'사업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자원순환과 | 담당자 이용성(940-4771)

19 폭염대비 그늘막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그늘막 설치, 공약사항 실천의 신호탄

2018. 7. 4.
파주시 최초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2020.
- 폭염저감 시설 그늘막 137개소 설치
- 물안개분사장치 8개소 설치
- 송풍기(에어쿨 링)4개 설치로 '폭염피해 없는 파주' 실현



폭염대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그늘막 설치, 공약사항 실천의 신호탄

파주시는 매년 반복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고자 2018년도부터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주요관내 횡단보도 인근에 그늘막은 민선7기 들어 최초로 파주시에 설치되었으며, 2020년 7월말 기준으로 137개를 설치 완료 하였다.


횡단보도 그늘막

이 외에도 관광환경에도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해 관광객 편의 증진을 꾀하였다. 파주시 주요 관광지인 마장호수 관광지, 임진각 관광지, 도라산 전망대, 공릉관광지, 율곡수목원과 야당역 앞, 목동동 홈플러스 상가 등에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제3땅굴, 감악산 출렁다리, 법륜사 등 송풍기(에어쿨링) 4개를 설치하는 등 폭염저감시설 적극 설치를 통해 폭염관련 인명피해 예방은 물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안개분사장치(옥동동 홈플러스 상가)



안개분사장치(아당역 앞)



야외무더위쉼터



에어쿨링



폭염대비 선제적 예방이 그 해법

폭염대책기간(5월 20일 ~ 9월 30일)동안 열탈진, 열손상, 열피로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폭염 대응 T/F팀을 주축으로 취약계층 관리, 옥외사업장 근로자 관리, 농수산물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파주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쾌적한 도로 유지를 위해 재난대비 2종의 임차장비 4대를 이용해 매년 도로 살수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무더위 쉼터 325곳이 지정되었으나,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따라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실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야외 무더위쉼터 197개소를 지정하여 폭염재난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폭염대책사업을 실현하였다.

부서명 안전총괄과 | 담당자 문채혁(940-5713)

20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한 파주시민의 생활 안전 및 복지 향상

2019. 7. 19.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 12. 23.
파주시-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을 통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파주시민이 별도 등록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상해사망 등 13종의 재난피해에 대해 최대 1,500만원 한도에서 보장
-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한반도평화 수도 파주 실현에 기여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또 하나의 장치,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발생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재난과 사고이다.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수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도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과 사고는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아무리 과하여도 과하지 않은 것이 안전대책의 마련이다.

파주시는 시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대비책뿐만 아니라 발생 후의 대책 또한 고려하여 시민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였다.

재난과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더라도, 시민들이 그 피해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나은 회복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까다로운 절차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이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고 2019년 12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하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자동적으로 가입이 된다. 보험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기간 중 파주시에 전입·전출자가 존재할 경우 역시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지가 이루어져 시민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보상범위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등 13종의 재난피해에 대해 최대 1,500만원의 한도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파주시의 실정에 맞도록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이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활안전속에 시민안전으로 거듭나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보호장치가 강화될 수 있고,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대책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의 생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하여 시의 상징인 '평화도시'의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1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시 파주시민이 더욱 폭 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가지 보상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부서명 안전총괄과 | 담당자 권혁규(940-4686)

21 소규모 공동주택 설계기준 마련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자 중심의 소규모 공동주택 설계 반영

2019. 8.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계획마련

2019. 10.
이후부터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하여 설계반영검토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획일적 설계 방지

건축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획일적인 설계안과 개발업자들의 사업논리에 맞추어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계획되곤 한다. 무리한 옹벽 설계, 사생활 침해, 주차 불편 등 입주자의 편의는 둘째고 최대한 적은 비용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고, 법령 상 기준에만 맞춘 주거공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설계 기준 마련

소규모 공동주택에 입주자가 들어오고 나서 발생하는 설계상 문제점으로 인한 민원발생, 입주자간 불화, 안전조치 미흡 등 각종 사례에서 인·허가 단계에서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최소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9년 8월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계획을 마련하였다.

공동주택 디자인 계획을 적용받는 대상은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공동주택)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 건축허가 접수 건부터 적용하고자 2019년 9월

▣옹벽설계 (아파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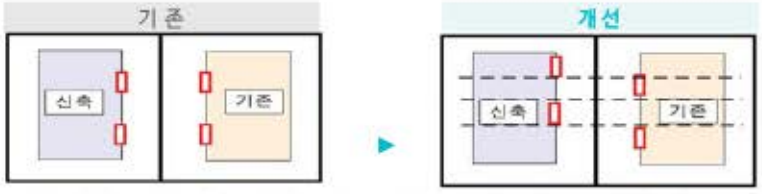
- 원칙적으로 옹벽설치 금지
- 부지확보 및 지형적인 요인으로 부득이 옹벽설치가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한 옹벽설계**



▣거주자 편의증진 (사생활간섭 / 주차불편 / 피난통로)

- 신·구 건축물 간 사생활 침해 방지 건축설계

▶ 인접 대지 건물 창문 방향 고려한 창문 배치 계획도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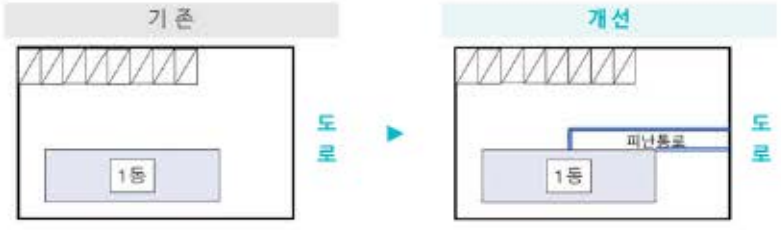


※ 대지 형태, 채광 방향 등을 고려해 창문 마주봄 설계가 부득이한 경우 차면시설 설치 의무화

- 보행자 안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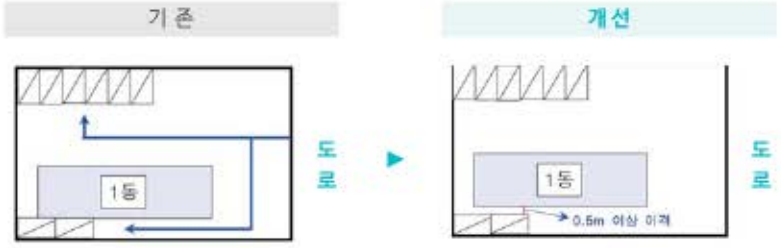
▶ 대지 출입구로부터 건물 출입구까지 최단거리 설계

▶ 보차도 경계에 경계석 또는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보행 동선 명확히 구분



- 부설주차장 계획 시 이용자 편의 고려하여 주차구역 배치

▶ 운전자 승하차 공간 확보 : 0.5m 이상



부터 관내와 인근 지역 건축사협회에도 설계 시 적용토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세부내용으로 과도한 옹벽계획을 지양하고, 신축 건물로 인한 기존 건물의 사생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창문배치 계획을 조정토록 하고, 부득이 한 경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다. 또한 주차공간은 운전자가 내릴 여유공간을 두도록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 동선 표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우기 등 지하층 침수, 습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토록 지하층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였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증진 기대

소규모 공동주택은 개발자의 논리에 따라 최소한의 거주 요건만 충족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용자인 입주자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고 계획 상 불합리한 부분은 건물이 지어진 후는 바꾸기도 어렵다.

세대수가 작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아파트와 달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획 단계부터 입주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용이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이 조성된다면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주택과 | 담당자 구자용(940-4752)

22 시민안전콜 확대 구축

위급할 때 도움을 주는 시민안전콜 확대로 여성, 사회적 약자 보호

2019. 10.
시민안전콜 640대 설치

2020.12. 현재
1,226대의 시민안전콜을 운영



파주시 도시정보센터

기존 CCTV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지킴이 시민안전콜 확대

그동안 방범용 CCTV 등 각종 목적별 CCTV 설치 사업은 계속되어 왔으며, 방범용 CCTV에 함께 설치하는 비상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2018년도부터 비상벨과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안심비상벨을 모두 동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장~센터 간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평상시 호우, 폭설 등 재난특보 및 교통안전 방송 등을 송출하는 양방향 대시민 안전서비스로 '시민안전콜'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 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 2019년 한 해에만 640대 시민안전콜 대폭 확대

2019년 한 해 동안 기존 방범용 및 주정차 CCTV 폴대 등에 640대의 IP 비상벨을 시 전역에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 아이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 위협을 해소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시민안전콜)을 설치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외부 경보음이 울리고 동시에 파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상황실로 자동 연결되어 경찰 도착 전까지 관제요원이 위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구축한 것이다. 파주시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은 단순 경찰 출동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위험에 처한 사람과 양방향 대화는 물론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처 방안을 안심비상벨로 송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2020년에는 시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신규 설치한 방범용 CCTV 120개소 전체에 시민안전콜을 설치했다. 시민안전콜은 누군가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운영이 될 전망이다.

파주시 CCTV, 시민안전콜 연중 운영으로 공백 없는 안전행정 구현

파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과 경찰이 시민과 도시의 안전을 위하여 2,613대의 CCTV를 365일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최근 파주시에서 발생한 7대 강력범죄 범인 검거 대부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재난, 사고, 범죄 등을 한 곳의 통합 공간(도시정보센터)에서 하나의 관제 프로그램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구축했으며, 안심비상벨인 시민안전콜을 통하여 다양한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앞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이상 상황을 판별하고 스마트 관제를 수행하는 지능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화장실에 설치된 시민안전콜


CCTV 폴대에 설치된 시민안전콜

부서명 정보통신과 | 담당자 김성진(940-8791)

23 시민 생활밀착형 체육인프라 및 스포츠 문화조성

수요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체육시설 조성

2018. 12.
운정 다목적체육관 건립

2019. 6.
운정, 적성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

2019. 12.
법원실내게이트볼장 건립

2020. 12. 현재
금촌 다목적체육관, 조리실내배드민턴장, 교하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스포츠 문화 형성 요구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과 100세 시대의 도래는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욕구를 증대시켰으며, 늘어난 여가시간은 체육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활체육이 체력증진은 물론 정신건강 유지 및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의 건강개선과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로서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수요 및 참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스포츠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스포츠복지 관점으로 전환하여 공공체육시설을 공공인프라로 인식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누구나 생활 주변 가까이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힐링+운동 복합 공유공간 조성과 노후체육시설 개선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시의 특성상 인구밀도가 낮은 읍·면 지역은 체육시설이 지역주민의 단합의 장이며 지역의 거점시설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동안 '1읍면 1체육공원'을

목표로 공공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하여 순차적으로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탄현면의 오랜숙원인 탄현체육공원을 2019년 7월 주민간 협의를 통해 '내포리 체육공원'을 '탄현체육공원'으로 변경 완료하여 "1읍면 1체육공원"을 완성하였다.

파주시는 실외체육시설에 그치지 않고 다양화·고급화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수요에 대응하고자,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5,528㎡ 규모로 수영장 25m 6레인, 18m 4레인을 비롯해 총사업비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드민턴, 농구, 배구, 체력단련장등과 각종 체육행사 및 무대공연 등이 가능한 운정 다목적체육관을 2018년 12월 건립,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아울러 법원체육공원 잔여부지에 연면적 600㎡, 지상1층 규모로 인조잔디구장 1면과 휴게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갖춘 실내 게이트볼장을 설치 완료했다.

생활체육 인프라 부족에 따른 도심형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권역별 균형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촌생활권에는 연면적 7,015㎡, 지상3층, 수영장, 탁구장 등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을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리생활권에도 조리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조리 실내배드민턴장을 202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운정3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한 교하생활권내에는 연면적 11,000㎡, 지상3층, 관람석 3000석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교하 다목적체육관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 개보수 및 보완 등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탄현체육공원


금촌 다목적체육관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적성체육공원



파주스타디움

2018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금촌체육공원과 파평체육공원의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노후 및 고장으로 각종 체육경기의 원활한 행사진행이 불가능했던 파주스타디움 주경기장 트랙 부분교체 등 시민수요가 많은 체육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는 운정체육공원과 적성체육공원의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와 교하체육공원의 족구장 조명을 정비하고 운정건강공원내 엑스게임장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은 월롱체육공원과 통일공원 및 교하체육공원의 테니스장, 두지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를 신규 설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였다.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확정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육상 경기 등 각종 경기가 개최되는 파주스타디움의 테니스장, 궁도장, 관중석 등 미비한 시설 개보수 및 육상트랙을 교체하고, 축구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등의 조명, 관중석, 인조잔디 교체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개보수공사를 추진하여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와 시민들에게 경기장 규격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대회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배드민턴 동호인의 수요와 요구를 감안하여 운정체육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증축공사와 금촌체육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 복지 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체육활동에 대한 주민 선호도와 미래 수요, 지역 간 균형배치 등을 고려하여 남녀노소,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체육시설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개선 및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적의 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서명 체육과 | 담당자 이정훈(940-5231)
박성훈(940-5232)

7
대중교통 혁신도시 파주

수도권 최고의 교통도시로 도약합니다

철도와 도로망 확충을 통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사통팔달 파주'는 현실이 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교통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광역교통망을 잇고,
편리한 환승시스템을 구현해 나갑니다.

구석구석 빠르고 편리한 이동,
파주는 불편과 막힘없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1. GTX-A노선 착공
2.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추진
3. 문산역~도라산역 전철화사업 및 운천역 신설
4. 대곡소사선 운정연장 추진
5. 광역교통 노선 신설 추진
6.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7. 사통팔달 편리한 도로망 확충
8. 더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9.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10. 겨울철 버스정류장 내 한파저감시설 설치

1 GTX-A노선 착공

파주 운정에서 삼성까지 20분대,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 삶 실현

2018. 1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착공식 개최

2019. 6.
사업 착공계 제출(사업시행자→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파주 운정-삼성)노선이 2023년 말 개통 목표로 현재 본격적으로 공사중으로 혁신적인 철도교통 개선으로 시민 삶에 여유와 편의 제공 가능



GTX-A 공사 현장 (입출고선 환기구)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고속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의 도심 고속전철(표정속도 100km/h, 최고속도 180km/h)로, 노선 직선화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철도 교통수단이다.

GTX-A노선(파주 운정-삼성)은 건설연장 46km로 정거장은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 삼성역이며, 차량기지는 파주 연다산동에 입지한다.



노선도

향후 철도 운영은 현재 재정사업으로 건설 중인 수도권고속철도(삼성–동탄)와 연결되어 총 83㎞(정거장 10개소)가 운행된다.

획기적인 통행시간 절감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GTX–A노선 개통 시 운정~서울역(20분), 운정~동탄(48분) 등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약 70~8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됨으로써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GTX 서막을 알리는 착공식 개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연장선은 2017년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12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2018년 4월 26일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 선정을 시작으로 12월 12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에 대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사업시행법인인 '에스지레일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후 12월 3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

2018년 12월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토교통부장관, 파주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착공식이 개최되어 공식적으로 GTX의 서막을 알렸다.



GTX–A노선 착공식('18. 12. 27.)


GTX (가칭) 운정역사 건립 주민설명회('19.4.5.)

주민들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공사 추진

착공식 개최 이후,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6월 30일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갔다.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추진 현황을 알리고자 GTX (가칭) 운정역사 건립 주민 설명회(2019년 4월 5일)와 연다산동 차량기지 설명회(2019년 9월 3일)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철도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사 현장 발파시 주민 참관, 교하8단지 설명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관 열병합발전소 안전진단용역,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안전이 최우선시 되도록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추진하고 있다.

공사 전체(운정-삼성)구간 6공구 중 파주시는 1공구로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며, 주요 시설물은 연다산동 차량기지부터 운정정거장, 본선 환기구(2개소), 입출고선 환기구(1개소)이다. 2019년부터 용지 보상과 주요 시설물 수직구 굴착이 착수되어 5년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GTX-A노선 개통으로 빠르고 편리한 철도교통서비스 제공



공사현장(운정정거장)

경기 서북부에 입지한 파주시는 신도시 조성과 산업단지 입지로 인구 및 수도권간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철도교통 인프라는 경의중앙선 1개 노선에만 의존하고 있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교통여건 개선을 향한 시민 열망은 갈수록 커져만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GTX 건설 전·후로 크게 달라 질 것이다.
상당한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이로인해 시민들의 생활패턴 역시 크게 변화 할 것이다.

파주시는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광역급행철도가 하루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부서명 남북철도교통과 | 담당자 강민구(940-5462)

2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추진

국토부에서 운정신도시에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 추진

2019. 5.
국토부 장관,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

2019. 10.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비전 2030'에 반영

2019. 11.
국토교통부, 3호선 파주연장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용역 추진

2020. 6.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철도분야 민간제안 활성화방안' 발표

2020. 9.
현대건설(주)이 국토부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사업, 국토부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추진 중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되어 있으며, 대화역에서 운정신도시까지 7.6㎞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경기도,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한 바 있다.

아쉽게도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2018년 발표된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계획'에 포함시키고, 2019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을 조기추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에서 수립한 '광역교통비전 2030'에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예·타 조사를 위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직접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말 도출되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건의하여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6월 국토부는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이로써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방식과 더불어 민간이 제안하여 예·타 없이 민자 적격성 조사로 빠르게 넘어가는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20년 9월에 현대건설(주)에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함에 따라 2020년 12월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 격성조사가 추진 되는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울러, 금촌에서 삼송을 연결하는 통일로선 전철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파주시와 고양시는 통일로선의 국가망 반영을 위해 2020년 11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



3호선 파주연장은 경기서북부의 균형발전과 획기적인 교통접근성 개선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파주시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모두가 원하는 사업이다.
파주, 고양은 160만이 거주하는 동일 생활권으로 3호선이 파주까지 연장이 되면 경기 서북부의 경제발전 시너지 효과는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SRT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SRT 파주연장 사업' 역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와 공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에 있어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남북철도교통과 | 담당자 안용성(940-5461)

3 문산역~도라산역 전철화사업 및 운천역 신설

경기북부 주민들의 교통복지 실현과 남북철도를 통한 통일중심도시 역할 선도

2020. 3.
- 문산역~도라산역 전철화사업 1단계(문산역-임진강역) 개통
- 경의선 운천역 신설 국토교통부 승인

2020. 5.
문산역~도라산역 전철화사업 2단계(임진강역-도라산역) 착공



주민들과 운천역 현장 방문(2020. 4. 7.)

남북철도의 출발인 "문산역 - 도라산역 전철화 사업"추진

도라산역과 임진강역 일대는 대한민국 대표 안보 관광지로 통일을 염원하는 각종 시설과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추진됨에도 관광단지로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산역~도라산역은 관광코스로 디젤 기관차인 DMZ-train(평화열차)이 평일/주말 왕복 1회만 운영 중이고 문산역에서 1시간 배차간격인 마을버스가 유일한 실정으로 문산역까지 운영 중인 경의중앙선의 확대 운영이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다.

2016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이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 중 하나로 일반철도사업(국가시행)으로 확정·고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주관), 국가철도공단(舊한국철도시설공단)(시행)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문산역-임진강역 전철 운행 시작, 임진강역-도라산역 착공

남북철도의 주요 축인 경의선 구간 중 문산-도라산 구간에만 전력선이 미설치되어 전철 운행이 불가한 사항으로 금번 사업 시행에 따라 전철이 문산역이 아닌 임진강역에 이어 도라산역까지 연장 운행될 계획이다.

문산역-도라산역 전철화사업 중 1단계 사업인 문산역-임진강 구간은 2018년 9월에 착공하여 임진강역을 증축하고 2020년 3월 28일에 우선 개통하여 평일 4회, 주말(공휴일) 8회가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사업인 임진강-도라산 구간도 2020년 국비가 정상적으로 확보되어 조기 추진에 탄력을 받았고 2020년 5월 22일 착공되어 2021년 준공 목표를 하고 있다.



노선도(문산-도라산전철화)



경의선 문산역-임진강역 시험운행 점검('20.3.10.)

경의선 운천역 신설

문산역과 임진강역 중간에 위치한 운천역은 경기 북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004년 10월 27일 임시승강장으로 설치되어 디젤열차가 정차하고 있는 역사이다. 하지만,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추진으로 폐쇄(무정차) 위기에 있어 그동안 소외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고조되었다.

2018년도 남북화해분위기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증가는 물론 군부대 장병 평일 외출 및 위수지역 제한 해제 등으로 열차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이고 보편적인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전철이 정차할 수 있도록 역무자동화 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 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기일보

2020년 03월 11일 수요일 002면 종합

파주 '경의선 운천역' 건립 확정

국토부, 신설안 최종 승인
市·박정 의원 노력 '결실'
내년 개통 주민 숙원 해결

운천역 건립 확정 보도자료

파주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2019년 10월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여 역사 신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관계기관을 설득한 결과, 2020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역사 신설을 승인받았다.

국토부 승인이후 후속조치로 본격적인 역사 신설 추진을 위해 파주시는 2020년 6월 2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건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철도공단주관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고 2021년 말에 개통할 계획이다.

운천역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선제적이고 보편적인 교통복지 실현

운천역 건립은 그동안 지리적·교통적으로 소외받았던 접경 지역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한 선제적이고 보편적인 교통복지 실현 차원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군장병,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동시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운천역 신설로 통일 중심도시 역할을 선도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주변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남북철도 상징성 확보 및 안보관광지 활성화 기대

남북철도의 주요 축인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중 북한과의 철도인프라 연결성이 가장 좋은 곳이 경의선이고 실제로도 경의선 개성~신의주 약 400㎞ 구간에 대한 2018년 11월 30일 남북 철도 현지 공동조사가 시작되었고, 2018년 12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한 바 있다.

파주시는 남과 북을 열차로 바로 운행할 수 있는 남북철도 연결에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대륙으로 진출하는 철도의 출발지로서, 문산–도라산역 전 구간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수도의 비전에 걸맞은 통일 대비 철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남북철도의 시작, 평화의 첫 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부서명 남북철도교통과 | 담당자 강민구(940-5462)

4 대곡소사선 운정연장 추진

파주에서 충남홍성까지 지역간 철도 연결 서비스 제공

2019. 5.
국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추진 발표

2019. 11.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

고양(대곡)~부천(소사)~안산(원시)~충남(홍성)을 연결하는 대곡소사선을 경의선 운정역에서 출발하도록 파주시에서 용역 추진 중 향후 3호선(대곡역), 5호선·9호선·공항철도·김포경전철(김포공항역), 7호선(부천종합 운동장) 등 대부분의 수도권 전철과 환승되며, 서해선과 연결하여 충남 홍성, 목포까지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 기대



수도권 서북부, 남부, 충남, 전남을 연결하는 간선철도의 파주연장 추진

대곡소사선은 고양시에서 부천시 18.4㎞를 연결하는 민자사업으로 2021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파주시에서 김포 및 경기서남부 지역을 이동하는 교통량은 하루 약 9만4천통행으로 그 중 승용차 분담률이 82%를 차지해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파주시에서 경기서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대곡소사선을 파주까지 연장하여 김포 및 경기서남부 지역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로 정체 해소와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

대곡소사선의 경의선 운정역 출발을 위해 타당성 용역 추진 중

대곡소사선 파주연장은 2019년 5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2020년 6월 고양시는 국가철도공단 (舊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서부광역철도와 협약하여 대곡소사선을 경의선 일산역까지 연장을 확정 지은 바 있다.

파주시는 경의선 일산역까지 연장되는 대곡소사선을 고양시 탄현역, 파주시 야당역을 거쳐 운정역까지 5.3㎞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현재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대곡소사선이 경의선 운정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조속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사업은 기존의 경의선을 공용하여 일산역에서 운정역까지 5.3㎞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추진의사가 있고 타 철도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적으며 공사기간도 짧은 만큼 사업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노선도

대곡소사선은 현재 운영 중인 소사원시선과 복선전철화 사업 중인 서해선과 연결하여 경기서북부에서 충남을 거쳐 전남까지 연결하는 간선철도축의 한 부분인 만큼 향후 경의선 운정역에서 대곡소사선이 출발한다면 3호선(대곡역), 5호선·9호선·공항철도·김포경전철(김포공항역), 7호선(부천종합운동장) 등 대부분의 수도권 전철과 환승되며, 서해선과 연결하여 충남 홍성, 목포까지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부서명 남북철도교통과 | 담당자 안용성(940-5461)

5 광역교통 노선 신설 추진

광역버스노선 신설 추진으로 시민의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권 보장

증가하는 광역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버스노선 신설 추진으로 시민의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권 보장

2020. 4.
경기도 공공버스 3100 번 직행좌석버스 운송개시

2020. 11.
경기도 공공버스 3400 번 직행좌석버스 운송개시

2021. 상반기
광역급행(M)버스 노선 운송개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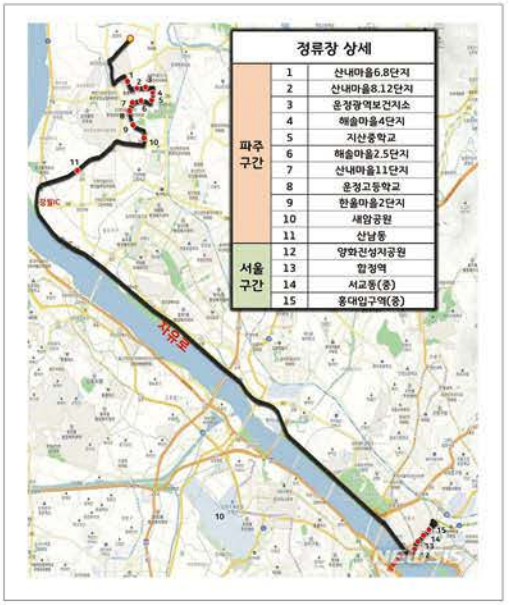
직행좌석 3400번 개통식

광역교통수요에 대응하는 편리하고 신속한 광역버스노선 신설 추진

고양시와 서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파주시는 시민의 상당수가 고양시(일산) 및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파주시 대부분의 광역교통노선은 고양시 도심지역을 경유함에 따라 파주에서 서울간 이동 승객들은 장거리운행과 우회운행으로 소요 시간이 증가하여 고양시 도심을 거치지 않고 서울도심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신설이 절실하였다.

특히, 운정1,2지구 아파트 대부분 준공되어 주민 입주가 완료되고 운정3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현재 유일한 광역급행버스 M7111번이나 기존 좌석버스만으로는 출퇴근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당하는데 충분치 못하여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빈번하였다.

또한, 신도시 입주민의 서울방면 광역통행 승용차 이용의 증가로 인한 교통여건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파주~서울방면 주요지점을 연계, 시민들이 서울 주요역까지 편리하고 신



3100번 버스 노선도

속하게 이동하기 위한 광역버스 노선신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경기도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에 운정~홍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3100번이 2019년 선정되어 2020년 4월 개통하였다. 이는 파주시에서 7년만에 개통한 광역버스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시내버스 노선들이 이용승객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용승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노선이다.

노선 번호	기점	주요 경유지	종점	거리	대수	횟수	배차 간격
3100	운정	자유로, 합정역	홍대 입구역	40.9㎞	12	72	10~20

이와 더불어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으로 운정~공덕역까지 운행하는 3400번 노선도 선정되어 3100번이 개통된 후 또 다시 7개월 만인 2020년 11월부터 운행 중에 있다.

노선 번호	기점	주요 경유지	종점	거리	대수	횟수	배차 간격
3400	운정	제2자유로, DMC역, 신촌역	공덕역	40.0㎞	12	72	10~20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

현재 유일한 광역급행버스인 M7111노선은 운정에서 서울 도심의 출·퇴근 이용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2자유로를 통해 빠르게 연결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운행대수 18대를 출근시간대 7분, 그 외 시간 10~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면서 기·종점 7.5㎞ 이내에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한다. 하지만, 운정지역 인구가 점차 늘면서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하더라도 하류정류장 이용승객들은 몇 십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었다.

이에 파주시는 2019년 적극적으로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급행버스



'20. 04월 개통한 3100번 버스



'20. 11월 개통한 3400번 버스

신설을 요청하여 드디어 교하와 운정을 경유하여 서울역과 광화문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가 선정되어 2021년 상반기 운송개시를 앞두고 있다.

시민이 편리한 파주시 대중교통을 위하여

운정에 신설되는 광역버스 노선은 고양시를 경유하지 않고 자유로와 제2자유로를 통하여 서울도심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촌택지지구 시민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금촌을 기점지로 운정을 경유하여 서울 도심지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신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비록 서울시에서는 서울도심의 교통 혼잡 가중을 이유로 일관되게 광역버스 노선확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파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부각시켜 반드시 노선신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교통에 대한 효율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국토교통부(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광역버스를 정부주도 준공영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파주시 광역교통 노선들에 대해 시급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또한, 2021년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시 GTX 준공에 맞춰 파주시 대중교통 노선들에 대한 효율적인 노선 조정과 출판도시–운정신도시–GTX에서 중앙 경의선을 연결하고 내부 순환노선 신설을 통해 시민이 편리한 파주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부서명 대중교통과 | 담당자 김병훈(940–5761)

6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2019. 3. 20.
택시업체-파주시-이통장협의회 천원택시 운행 협약 체결

2019. 3. 29.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4. 1.
천원택시 운행 개시 (6개 읍 면, 14개 마을)

2019. 9. 2.
천원택시 확대 운행 (9개 읍 면, 30개 마을)

2020. 11. 1.
천원택시 확대 운행 (9개 읍면, 46개 마을)



천원택시 운행 개시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천원택시를 도입하다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면적이 넓고 농촌에는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어 노선버스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의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서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을 위한 '천원택시'를 추진하게 되었다.

파주시 천원택시는 국토교통부의 수요응답형 공공형 택시다. 파주시가 천원택시를 도입하기 전 이미 전국적으로 4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3월 29일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행·재정적인 사전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주민, 운행 주체인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마을별 사전 설명회, 간

담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할 주민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택시업체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었다.

여기에 파주시는 2006년부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하나로 통합된 1577-2030의 단일 브랜드콜 기반으로 택시가 운영되고 있었기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은 것을 고려해 콜 방식으로 천원택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자원인 브랜드콜과 연계해 천원택시 운영 전용 프로그램을 사전에 자체 개발하고, 택시업체-이통장협의회-파주시간 운행협약을 체결하여 파주시 전체 택시 771대가 모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의 실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주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천원택시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현재 파주시 천원택시는 이용주민이 사전에 등록한 본인의 전화번호로 콜센터에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배차돼 1천원(이용자 부담)으로 이동할 수 있고, 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운행실적이 전산 기록돼 운전자가 별도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않아도 정산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용자인 주민과 서비스 제공자인 택시기사 모두에게 편의성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초기부터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기에 천원택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다.

천원택시를 통해 정기적 병원진료와 복지·문화혜택도 누릴 수 있어, 이용자의 95%가 만족감 표시

2019년 4월 1일 교통불편 지역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개시한 천원택시는 이용



이용마을 사전 설명회 개최



천원택시 운행 협약 체결



천원택시 전용 프로그램 개발

자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 2019년 9월 2일부터 30개 마을, 2020년 11월 1일부터 46개 마을로 확대하여 운행하고 있다.
천원택시는 사업 시작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101,587명의 주민이 이용했다. 이에 따 라 천원택시 운행비 관련 택시업계에는 8억5천2백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운행지역의 마을 주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천원택시를 하루 2회, 오전 9시~오후 5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주시 전체 771대(개인 526대·법인 245대)의 택시가 천원택시 운행에 참여하며 이뤄낸 성과다.

천원택시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말 기준 접수된 총 96,878건 중 94,695건이 배차되며 97.7%라는 높은 배차 성공률을 보였다. 하루 평균 이용자도 2019년 4월 33.3명에서 9월 64.4명, 12월 185.1명, 2020년 5월에는 228.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천원택시 운행을 개시한 2019년 4월엔 기존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천원택시가 운행됐으나 9월부터 3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며 하루 평균 이용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시는 이용자가 더 편안하고 즐거운 수요자 중심의 천원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2019년 12월 천원택시 이용자 5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 40%, 만족 39%, 보통 16%, 불만족 5%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원택시를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병원 진료(44%), 장보기(22%), 환승(15%), 모임 참석(11%), 행정복지센터 방문(8%) 순으로 나타났으며, 천원택시를 이용하고 나서 달라진 점으론 정기적인 병원 진료 가능(41%), 생활 편리(32%), 환승 용이(20%), 복지·문화

천원택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혜택(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원택시가 도입되고부터 이용 주민들이 주기적 병원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와 생활 편리, 이동권 확장, 복지 및 문화생활 향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천원택시가 교통불편 해소를 넘어 지역주민의 건강, 생활, 복지, 문화혜택 등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19년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및 2020년 고객만족 브랜드 평가에서 '파주시 천원택시'가 대상을 수상하며 파주시 상황에 맞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증을 받았다.



천원택시 운행개시



천원택시 OBS 뉴스보도

이용주민 특성을 반영한 천원택시 운영으로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파주시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천원택시가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제안된 요구사항은 일부 택시들의 편법운행 예방 및 이용에티켓 홍보,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탈 때 도움 필요 등이었으며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개선해 천원택시 이용자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1년에는 마을버스 미 운행지역 을 대상으로 천원택시를 확대 검토 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안 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이용 주민에게 더 큰 만족감을 드리도록 하겠다.



일간경기

2020년 03월 26일 목요일 020면 특집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4월 개업한 '파주시 천원택시'가 운행 1주년을 맞았다.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로 면적이 넓고 농촌에는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속된 파주시민의 불편 누구나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천원택시'를 공약사항으로 추진했고, 지난해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파주 천원택시'가 대상을 수상하며 파주시 상생에 맞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았다. '파주시 천원택시' 운행 1주년을 맞이 그간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살펴봤다.

천원택시 이용하세요!

TAXI

국토부 수요응답형 공공형 택시
지난해 12월 기준 2만7천명 이용
지역 맞춤형 교통 복지 서비스

'천원택시'로 구석구석 바뀐 시민 일상

○ 파주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천원택시 도입

파주시 천원택시는 국토교통부의 수요응답형 공공형 택시다. 파주시가 천원택시를 도입하기 전 이미 전국적으로 4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파주시는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택신 확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했으며 실제 이용할 지역 주민, 운행 주체인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다음별 사전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파주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천원택시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여기에 파주는 지난 2008년부터 개인택시 · 법인택시가 하나씩 통합된 브랜드를 기반으로 운행보고 있지만 최근 노령 자와 주민들의 이동편리가 높은 것을 고려해 통 방식으로 천원택시를 운영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지역 자원인 브랜드명과 현재 천원택시 운영 전용 콜센터 번을 사용해 사업 개시했다.

파주시 천원택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만8 마을 35개

하루 2회, 오전 8시~오후 5시 이용
주민의 건강 · 생활 · 복지 · 문화 혜택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원40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이용했다. 이에 따라 천원택시 운행비 관련 택시업계에는 2015천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운행자역은 파을 주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천원택시를 하루 2회, 오전 9~오후 5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방식을 정했고 파주시 전체 7711대(개인 5353대 · 법인 2457대)의 택시가 천원택시 운행에 참여하며 이뤄낸 성과다.

파주 천원택시 운행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누적 총 2만8천4830건 중 2만7천3호건이 예약되며 96.3%라는 높은 예약 성공률을 보였다.

하루 평균 이용자도 4월 83.3명에서 시작해 6월 64.4명 스8월 119.2명 스11월 170.5명 스12월 191.3명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천원택시 운행을 개시한 상황에 기존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천원택시가 운행됐으나 8월부터 3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며 하루 평균 이용자도 또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파주시 천원택시는 이용주민이 사전에 등록한 휴인이 전화번호로 콜센터에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배차돼 1분음이용자 부담으로 이동할 수 있고, 콘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관련 상하기 없신 기록과 운전자가 별도 현주증 첨부를 하지 않아도 정산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파주시 천원택시는 이용자인 주민과 서비스 제공자인 택시기사 모두에게 편의성이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며 천원택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다.

파주시 천원택시 운행식.

○ 이용자의 95%가 만족한 파주 천원택시, 올해 만족도 100% 위해 준비 중

파주시는 이용자가 더 편안하고 즐거운 수요자 중심의 천원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천원택시 이용자 2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매우 만족 40% 스만족 30% 스보통 16% 스불만족 5%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원택시를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스병원 진료(44%) 스장보기(22%) 스출근(13%) 스모임 공석(11%) 스생활복지센터 방문 9%) 순으로 나타났으며, 천원택시를 이용해 달라진 점으로 스정기적인 병원 진료 가능(43%) 스생활 편리(32%) 스복지 · 문화 혜택(19%), 스출근 용이(5%) 스장보기 용이(1%) 났다. 이는 천원택시가 도입되며 이용 주민들이 주거지로 병원 방문을 통한 건강검진의 편할 변화, "이동권 확보, 복지 및 문화생활 접유 등 다방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

음을 시사한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천원택시가 고품질의 혜스를 넘어 지역주민의 건강 · 생활 · 복지 · 문화혜택 등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파주시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천원택시가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지만, 현지 설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원도화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제안된 요구사항은 이용시간 연장, 출발지 변경,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탈 때 도움 필요 등이었으며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개선해 천원택시 이용자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다음달 천원택시 라합마을 1사 평가을 실시하고 5월에 천원택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천원택시 추가 운행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기홍 기자 ekh0807@kyan.co.kr

부서명 대중교통과 | 담당자 정찬세(940-5783)

7

고속도로 시대 개막!
사통팔달 편리한 도로망 확충

교통수요 중심의 보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으로 시민편의 증진

민선7기 파주 고속도로 시대 개막파주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 서울문산 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및 조기개통
- 국지도56, 국지도78, 지방도358, 지방도359, 지방도360, 지방도371, 시도1호선

교통수요 중심 보다 편리한 거미줄 도로망 확충
- 운정역~능안리, 마지~구읍, 신도시~설문간, 선유4리, 자유로 나들목 추가 설치



민선7기 고속도로 시대 개막

파주시는 최근 LCD클러스터의 입지와 각종 산업단지 및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과 함께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도로 교통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역 내 간선도로망은 일부 확충되고 있으나, 고속도로와 같은 광역도로망이 없어 신도시 입주민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절실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수차에 걸친 건의와 협의를 통해 자유로 내포IC와 서울 가양대교 북단까지 연결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2020년 11월 7일 전면 개통되어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30여분 단축되었다. 또한, 김포에서 파주, 파주에서 양주로 이어지는 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가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으며, 남북 물류의 중심이 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추진 중에 있다. 명실상부 민선7기 파주, 고속도로 시대가 개막되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월롱JCT 조감도


서울문산고속도로 내포IC 조감도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및 조기개통



파주시는 수도권에 속하여 있지만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군사보호지역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의 원동력인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도시와 외곽에 위치한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도로망 확충이라는 과제가 대두되었다.

파주시는 장기적 안목으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요 예산을 산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오가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상수(7.8km) 구간이 2018년 12월 개통하면서 사업 착수한 지 20년만에 이르러 왕복 4차선으로 전구간 개통하였다. 또한,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으로 선정된 지방도371호선 설마~구읍간 8㎞가 2018년 7월 왕복4차선으로 확장 개통되었고, 적성~두일간 6.3㎞ 구간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국지도78호선(선유리 상습정체구간), 지방도360호선(월롱~광탄간), 지방도359호선(문산~내포간), 지방도359호선(갈현~축현간), 지방도363호선(제2엘지로) 등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통식(2020.6.10.)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통식(2020.6.29.)

보다 편리한 거미줄 도로망 확충

전국 최대 교통량인 국도77호선 자유로가 있음에도 이를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파주시민이 있다. 탄현면 지역 주민들은 바로 옆 자유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성동IC까지 우회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이러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시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가 2020년 9월 28일 개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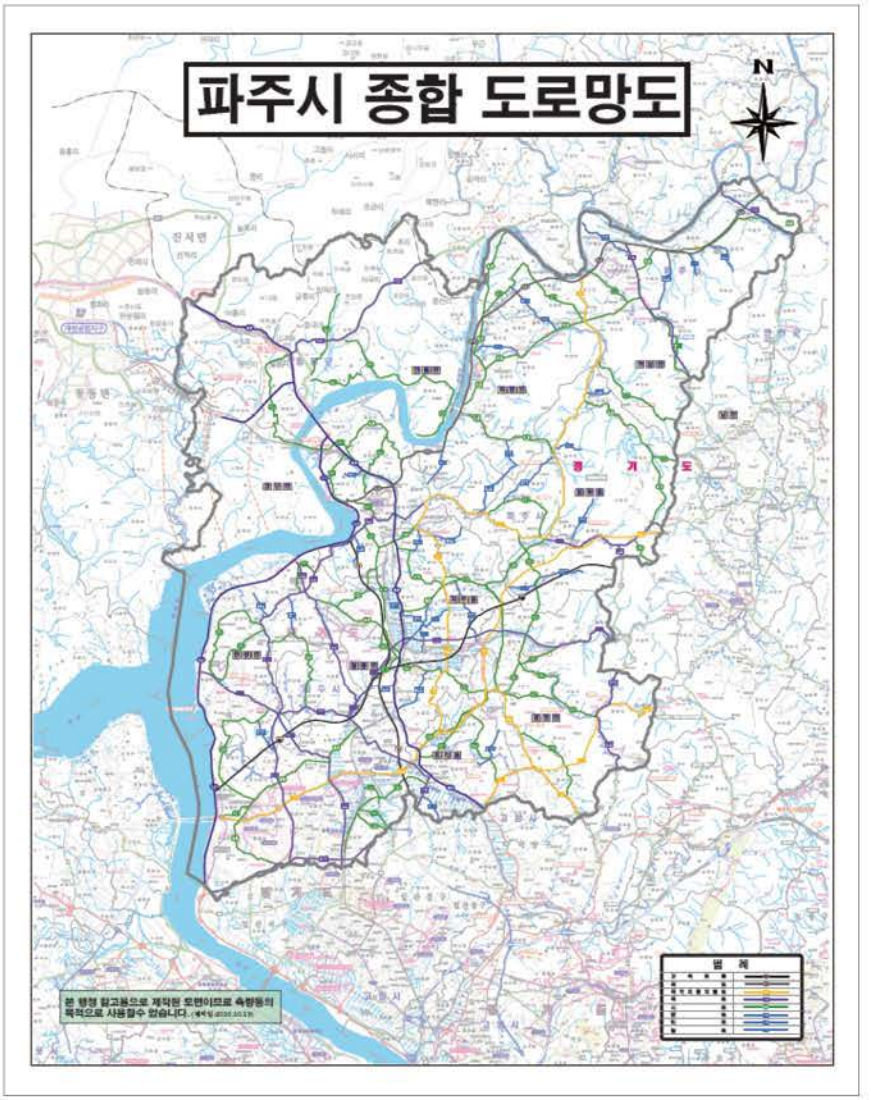
낙후된 파주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IC와 당동산업단지간 도로 확포장공사(0.7㎞, 왕복4차로)는 93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12월 착공하여 본격적인 공사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임시 개통하였다. 또한 적성면 마지~구읍간 우회도로(0.6㎞)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으로 95억원을 확보하여 2019년 7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문산읍 선유4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 2020년 6월말 조기개통 하였다.

운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설문IC와 연결되는 신도시~설문간 도로 1.9㎞를 2019년 11월 공사착공 하였으며, 운정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운정역~능안리간 도로는 전체 2.9㎞ 중 1.7㎞를 2018년 12월 완료하고 파주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잔여 1.2㎞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에 대해서는 2021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보상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야당~상지석 동측도로, 시도1호선, 김포~관산간 도로, 파주~부곡간 도로 등 교통수요를 기반으로 한 보다 편리한 거미줄 도로망 확충을 추진 중에 있다.

체계적인 도로 교통망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

고속도로 시대 개막과 함께 지역간 간선 도로망 및 보조간선 도로의 개통으로 시민들

파주시 종합 도로망도



의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운정신도시, 산업단지, 외 곽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연계로 남북 경제협력의 교두보 및 교통 요충지로서 파주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파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을 앞당겨 나갈 것이다.

파주시 도로사업 추진현황

노선	사업명	사업량	위치	사업기간
국도 77	서울문산 고속도로 [준공]	35.6㎞ (파주13㎞)	강서구 가양동~문산읍 내포리	'07.~'20.
국지도 78	선유4리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0.48㎞ (4차선)	문산읍 선유리 일원	'18.~'21.
국지도 78	분수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0.35㎞ (대기차선)	광탄면 분수리 일원	'18.~'20.
지방도 358	김포~관산간 도로개설	1.2㎞ (4차선)	파주시 야당동~고양시 문봉동	'09.~'24.
지방도 359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	4.5㎞ (4차선)	탄현면 갈현리~탄현면 축현리	'19.~'23.
지방도 359	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	1.98㎞ (4차로)	문산읍 문산리~내포리	'15.~'22.
지방도 360	월롱~광탄(1) 도로확·포장공사	4.6㎞ (2차선)	파주읍 백석리~광탄면 방축리	'18.~'25.
지방도 360	월롱~광탄(2) 도로확·포장공사 [준공]	1.14㎞ (4차선)	광탄면 방축리 일원	'19.~'20.
지방도 371	적성~두일 도로확·포장공사	6.34㎞ (4차선)	적성면 가월리~연천군 백학면	'18.~'22.
시도 1	시도1호선 도로 확장공사	8.08㎞ (4차선)	교하동~동패동	'13.~'22.
시도 22	신도시-설문간 연결도로	1.6㎞ (4차선)	파주시 상지석동~고양시 설문동	'16.~'21.
시도 23	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확·포장공사	0.7㎞ (4차선)	문산읍 당동리 일원 (한양수자인~국도37호선)	'18.~'21.
시도 24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1.35㎞ (2차선)	파주시 야당동 일원	'18.~'22.
시도 55	운정-능안 외곽 도로확·포장공사	1.3㎞ (2차선)	(신창철강-변전소)	'19.~'21.
-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진출입로 1개소	탄현면 대동리 일원	'18.~'20.
도시계획 도로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0.5㎞ (2차선)	적성면 구읍리 일원	'18.~'21.
도시계획 도로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1.4㎞ (2차선)	조리읍 대원리 일원	'19.~'22.
산업단지 진입도로	센트럴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0.9㎞ (4차선)	파주읍 봉암리 일원	'19.~'22.
-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1.2㎞ (2차선)	야당동 및 상지석동 일원	'19.~'22.

부서명 건설과 | 담당자 김태양(940-4652)

8 더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도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 만들기

2019. 10.
(국지도56호선) 금촌 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완료

2020. 3.
(국도77호선) 자유로 재포장사업 완료자유로휴게소~문발IC(L=2.3㎞)

2020. 4.
(국지도56호선) 도로 재포장사업 완료문발IC~금촌방면(L=0.5㎞)
겨울철 도로제설평가 '우수'

2020. 6.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사업 착수
성동사거리 배수시설 개선사업착수9월완료
도로정비평가 '최우수'(2년 연속)



산업물류·관광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파주시의 혈관, '도로관리'의 중요성

파주시의 행정구역상 면적은 흔히 '서울시+안양시'의 면적과도 같다고들 말한다.
약672.78㎢에 달하는 큰 면적에 무수히 많은 도로가 흡사 사람의 혈관처럼 길게 연결되어 퍼져있다.
시의 주요노선을 보면 국도 3개노선 113.1㎞, 지방도 13개노선 236.8㎞, 시도 37개노선 241.6㎞, 그 밖에 도시계획도로와 비법정도로까지 합하면 파주시가 관리해야 할 도로는 1천㎞를 훌쩍 넘는다. 그 구간 사이에는 도로 뿐만 아니라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와 같은 구조시설, 배수시설, 도로표지판, 안전시설, 보도·자전거도로, 맨홀 등 무수히도 많은 시설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도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혈류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원활히 순환하고 신체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심근경색과 같은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도 각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맞춰 제때 보수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시민이 항시 편리

하게 이동하고 교통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시민과 기업이 24시간, 365일 통행하는 도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야지만 파주시에 인구도 증가하고 기업도 유치되며 수많은 관광객도 늘어나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저예산으로 최대의 효과, '금촌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주요도로 중 국지도56호선(자유로 문발 IC ~ 양주 상수)은 운정신도시, 산업단지와 접해있어 파주시의 척추에 해당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금촌교차로'의 출퇴근시간대 교통서비스 수준은 'FFF(극도지체)'의 상습 정체구간이었다.

운정, 교하에서 조리, 광탄 방향 차량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0월, 양방향 1개 차로씩 확장하고 우회전차로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금촌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을 통해 그동안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다.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연장830m의 차로를 개선하여 교통서비스등급이 'C(원활)'까지 높아지니 시민의 반응과 만족도는 그 이상인 A등급도 모자를 만큼 폭발적이었다.

통상 고가도로를 설치할 경우, 수백억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1/10 이하의 저비용으로 고질적인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유지·개선으로, 시민행복지수 더 높게!

도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도로확포장 등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예로 들면 2020년 6월 착공한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사업」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급격히 늘어난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확장이 시급해졌지만 접경지역인 파주시에 6.25 전쟁이후 1970~80년대 설치된 많은 방호벽들이 도로구조 개선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문산제일고 앞 사거리는 일 통행량이 3만5천대에 육박하는 구간으로 파주시의 대표적 기업인 LG디스플레이 등 출퇴근길로 정체가 극심한 구간이었다.

공사기간 중 교통차단 또는 우회도로를 만들어 공사 시행 하여야 하나 군 방호벽 외에도 군사 저지선으로 인해 우회도로 가설이 불가해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공사 시행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콘크리트 방호벽을 두부모 자르듯 크게 잘라 현장에서 잘게 파쇄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철거를 완료해 이제는 긴 세월동안 금촌 도심지를 양분하고 있던 방호벽으로 인해 꽉 막혀 답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모두 사라지고 시민들의 기억 속 사진 한 장면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미관 및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상습 정체를 격고 있는 군 상징물처럼 보이는 방호벽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2021년도에도 '아동사거리 교차로 개선', '갈현사거리 교차로 개선', '운정힐스테이트 앞 교통환경 개선', '대원사거리 차로 개선' 등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4개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을 지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렇듯 시는 교통 상습정체 구간해소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한 지역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도로개선 적극행정 사례를 통해 파주시민의 행복지수는 날로 향상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더욱 살기 좋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 전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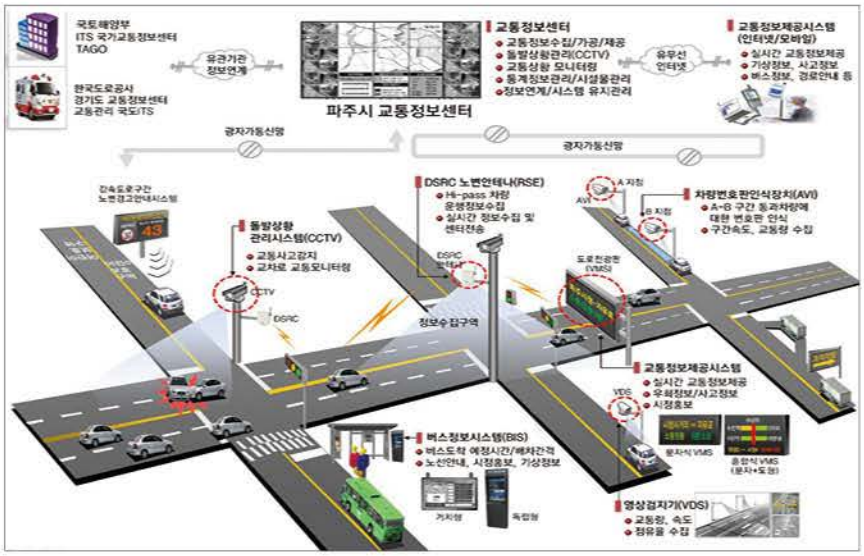
부서명 도로관리사업소 | 담당자 도성환(940-4662)

9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도로에 인공지능을 더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 도모

2019. 9. 6.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

2020년 교통정책반영의 적정성 검토 및 착수를 시작하여 '21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파주시만의 특화된 ITS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기존 교통정보 제공으로는 교통운영 효율성 한계점에 부딪혀… 도로 위 AI 신기술을 통해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구간 돌파구 마련

파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도로의 확장과 도로 건설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도로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식하여, 도로에 I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모색했다.

그러나,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은 가중되는 교통정체 구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10여년 전에 구축된 노후된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역부족 이었으며, 많은 예산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해법을 모색하는 중 국토교통부 ITS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60억을 확보하고 시비 32억을 매칭,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보행자 스마트 횡단시스템 등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20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2019년 9월 6일 선정되어 국비 60억을 확보했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 6월 사업자를 선정, 7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방향 및 시민중심의 교통서비스 기본 컨셉을 구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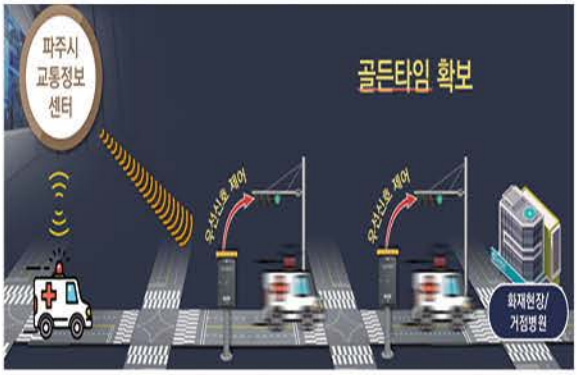
2020년 12월 현재까지 구상 된 추진방향은 시민중심의 통합교통체계 구축으로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 보행자의 횡단시간을 보장하는 스마트 횡단시스템, 혼잡지역 교차로에 실시간 교통량 분석 기술을 탑재해 최적의 교통신호를 적용하는 스마트 교차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감응신호 시스템 등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신개념 스마트 교통,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틀이 될 것

스마트 교통 구축을 통해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시너지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파주시는 이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구축 후에는 긴급차량의 도착시간을 40~56% 단축, 시민안전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횡단보도는 보편적인 성인 기준으로 횡단시간이 정해져 있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어린이가 횡단 할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시스템이 구축되며, AI 기능을 활용한 주요교차로 실시간 교통 분석은 주도로의 교통패턴을 예측하여 해당 도로에 최적의 신호현시를 적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다.

파주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은 교통정체 완화와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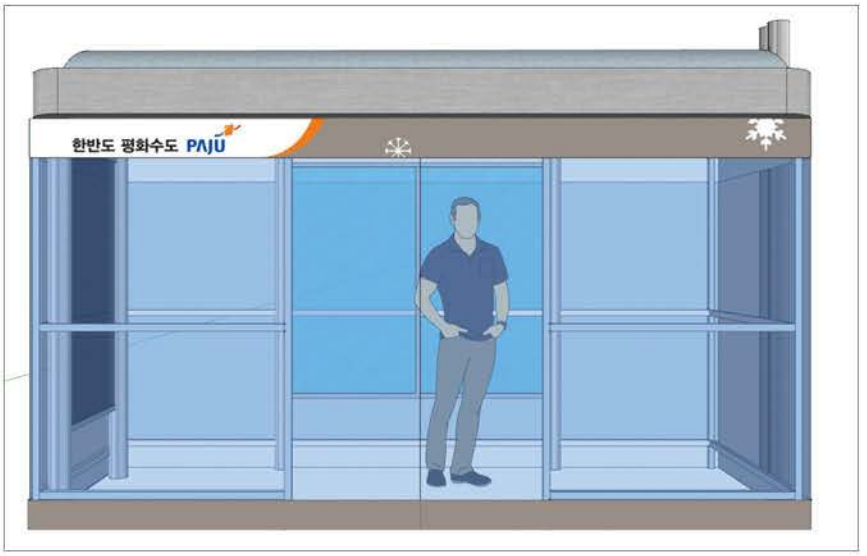
스마트 교통체계 언론보도(SR타임즈)

부서명 남북철도교통과 | 담당자 문호성(940-5255)

10 겨울철 버스정류장 내 한파저감시설 설치

동절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제공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위한 버스정류장 내 한파저감시설 설치
- 발열의자 : 239개소
- 보온텐트 : 100개소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파주시는 겨울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 버스정류장의 틀을 벗어나 버스정류장을 대폭 개선해나가고 있다. 추운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잠시라도 추위를 피해갈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발열의자, 보온텐트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관내 쉘터형 버스정류장 882개소를 대상으로 발열의자 및 보온텐트를 설차운영하고 있다. 보온텐트는 기존 버스정류장에 투명 비닐로 제작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발열의자는 온도 18도 이하에서 자동 작동하며 의자 온도는 38도까지 조절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기료 절감 및 버스 운영시간을 고려해 6~23시까지 운영하였다.

시민들의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정책 추진

발열의자는 2018년 13개, 2019년 96개, 2020년 130개를 확대 설치하여 총 239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온텐트는 2018년 30개, 2019년 70개를 설치하여 총 100개를 운영하였다.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려야 했던 시민들은 한파저감시설을 통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시민을 위하는 교통행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 밀집시설인 버스정류장의 보온텐트를 조기철거하고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산세 심화에 따라 감염병 전파에 취약한 보온텐트는 미설치하였으며, 이를 대체하고자 발열의자를 130곳으로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대중교통 편의 시설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발열의자


보온텐트

부서명 대중교통과 | 담당자 정운지(940-5792)

8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파주'에서 모든 아이들, 모든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부모는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 나갑니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우리의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교육환경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 모두의 행복이 커가는 파주입니다.

1. (가칭)운정EBS파크(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추진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전액 지원
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육아나눔터 확대
5.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수준 서비스 향상 지원
6.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7. 공동주택 주변 어린이 안전승강장 조성
8. 아이가 더 편안한 공동주택 디자인 계획
9. 파주시 최초 청소년수련관 건립
10.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11. '전국 최초' 청소년 안전망팀 조직 신설
12.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추진
13.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및 교육 프로그램
14. 북부권역 대학수능시험장 유치
15.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16.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반 조성
17. 에어바운스 풀장 등 물놀이장 설치 운영
18.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1 (가칭)운정EBS파크(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추진

유비파크, EBS와의 협업을 통해 아이와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2019. 11. 18.
파주시-EBS 업무협약 체결

2020.12월 현재
EBS 기본컨셉 설계 및 부속동 기획전시 뚝딱이 하우스 구축 완료

교육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EBS와의 협업으로 어린이 체험형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있는 공간,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를 실현



(가칭)운정EBS파크 부속동 뚝딱이하우스 운영

유비파크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 그 해법은 EBS콘텐츠

그동안 유비파크 활용문제는 파주시에게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와도 같았다.
과거 LH의 신도시 홍보관으로 지어졌으나 기능을 다한 후에는 임대공간 명도소송과 하자보수 등 내부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 될 수 없었고, 호수공원과 잔디광장을 품은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건물임에도 미활용,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시민들에게 실로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시는 2012년 5월 도시정보센터 개관 이후 2019년 1월 LH로부터 최종 시설물 인수를 마친 유비파크를 다수의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 하겠다는 목표 아래 민간사업 제안 등 최적의 사업방안을 모색하는데 몰두해 왔다.
다양한 사업방향 중 '젊은 도시 운정, 어린 아이가 많은 파주'의 도시 특성에 걸맞고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해법으로 찾아 낸 것이 바로 "EBS 콘텐츠"였다.
TV에서만 보던 EBS 인기캐릭터 펭수와 번개맨, 공룡 점박이를 직접 만나고 함께 소통하며

상상이 실현되는 다양한 체험이 있는 곳. 미세먼지 등으로 외부 활동에 제약을 겪는 요즘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맘껏 뛰놀며, EBS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로 성장해 나가는 곳. 이것이 바로 파주시와 EBS가 꿈꾸는 '(가칭)운정EBS파크'의 모습이다.

파주시+EBS의 협업으로 파급력 강한 어린이와 가족 문화공간 조성

파주시와 EBS는 2019년 11월 18일 (가칭)운정EBS파크 조성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실시설계 예산 반영, 2020년 1월 파주시 EBS 공기관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을 거쳐 2020년 12월 현재 기본 컨셉설계를 완료하고 본관동 및 부속동 리모델링에 착수하였다.

기본컨셉 설계에 따르면 (가칭)운정EBS파크는 미취학 아동들의 천국, 아이들과 부모가 각종 EBS콘텐츠들이 제공하는 환상의 세계에서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기본컨셉 설계에 따르면 (가칭)운정EBS파크는 미취학 아동들의 천국, 아이들과 부모가 각종 EBS콘텐츠들이 제공하는 환상의 세계에서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파주시 자체 수요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가족들까지 끌어 모으는 명실상부한 파주시의 대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연합회, 맘카페 등 다양한 수요층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특별한 공간에 더해지는 맞춤형 콘텐츠가 가져올 시너지 효과

EBS콘텐츠가 지닌 매력과 방문객 집객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놀이형 교육 분야에 독보적인 파워를 지닌 대한민국 대표 공영교육방송인 EBS의 콘텐츠는 어린아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인할 매력이 충분함은 이미 오랜시간 다져온 탄탄한 커리큘럼과 전문가들에게 검증된 프로그램 신뢰도 등이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인기캐릭터 '펭수'를 통해 유아, 청소년을 넘어 성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방송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파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보여 줄 사업 효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칭)운정 EBS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 구상(안)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은 운정호수, 소리천, 공릉천으로 이어지는 우수한 수변 환경에 시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더불어, 파주시가 시민들의 삶에 여유를 드리고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으로, 교육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EBS와의 협업으로 어린이 체험형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를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회계과 | 담당자 조재헌(940-3703)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보육 확대를 통한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개원



시립운정행복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보육의 공공성 강화

각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보육부담은 저출산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어린이집의 안전성과 보육환경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저출산 해결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를 중점과제로 추진중이다.

과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으로 아동수, 접근성, 저소득층 비율 및 어린이집 공급현황 등을 고려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및 산업단지 지역이 중점 설치 지역이었으나,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2019년 9월 25일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대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며 일하며 아이 키우는 행복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유형별로 볼 때, 공공청사 내 1개소,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신규 500세대 공동주택 내 17개소, 일반지역 5개소, 행복주택 내 3개소로 2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연도별 실적으로는 2017년까지 17개소, 2019년 3개소, 2020년 6개소 등 총 26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21년 신규 7개소가 추가 설치 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선정현황

행정동	총계	기존	2019	2020	국공립설치장소
총계	26	17	3	6	
문산읍	3	3			일반1, 국민임대2
법원읍	1			1	행복주택1
파주읍	1	1			국민임대1
탄현면	1	1			일반
적성면	1	1			일반
교하동	4	3		1	일반2, 국민임대, 신규1
운정1동	3	2		1	국민임대2, 행복주택1
운정2동	8	3	2	3	국민임대2, 행복주택1, 민간2, 신규 3
운정3동	3	2	1		국민임대2, 민간1
금촌1동	1	1			평생학습관 내

아이키우기 편한 보육서비스 제공

국공립어린이집은 늦은 시간까지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민간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급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12월 기준 파주시의 어린이집은 총 408개소이며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6

개소, 공공형어린이집은 15개소로 공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0.04%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공보육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파주시는 의무 설치가 요구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에 그치지 않고,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형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보육시설 및 서비스 제공으로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 공공형어린이집 : 일정한 기준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 열린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


국공립어린이집 유희실


현관


부모대기실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 담당자 윤소라(940-4412)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전액 지원

우리 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

2019. 2.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단체가입 체결

2020년도 보상비지급건수 : 176건

파주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피해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어린이집 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으로 보육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구축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뜻하지 않게 다친다면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다친 것에 아픈 마음과 동시에 치료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파주시는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7기 비전에 맞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단체가입을 체결하여 관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피해 등의 보육 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치료비 걱정 없는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

2020년 파주시 어린이집 공제회를 통하여 접수된 사고 건수는 총 178건으로 그중 치

료 및 보상금 지급은 176건 총 22,383천원이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양육비 경감과 실제 현장에서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육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성이 강화된 공보육 기반 강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 담당자 이혜연(4484)

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육아나눔터 확대

육아공백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육아공백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2018년 : 428가구, 671명
- 2019년 : 430가구, 683명
- 2020년 : 335가구, 560명

2018. 10.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가람마을 5단지)



공동육아나눔터 현판식

돌봄, 더 이상 개인·가족의 돌봄이 아닌 사회적 돌봄

'돌봄'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중요 이슈이다. 독립 가구 수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점점 개인화되어 가는 사회적 분위기 상황에서 돌봄의 문제는 사회의 안전망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부합하여 파주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관련 요구 사항들은 보다 구체성을 갖추며 현실화되었다. 파주시와 정부 또한 '복지 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돌봄 문제를 국가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정착과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는데 몰두해 왔으며 육아공백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용부담이 적고 믿을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육아나눔터"를 추진하고 있다.

육아공백 발생 시, 이용부담 적고 믿을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파주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개별 가정의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다. 그리고 주간·야간 등 틈새 시간 '시간제 돌봄' 및 '영아 종일돌봄' 등 가정에서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는 교육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의 서비스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의 85% ~ 15%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다니고 있는 질병에 감염된 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 돌봄공동체, 다양한 돌봄 유형을 지원하는 「육아나눔터」

현대일보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010면 지방종합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5단지 內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

부모 육아경험 공유·자녀 놀이공간 제공

파주시는 12일 와동동 가람마을5단지 공동주택 내에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의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동시에 자녀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이에 더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안전한 돌봄의 제공을 위해 파주시에서 여성가족부 사업에 신청해 설치됐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5단지 관리동 2층(59.69㎡)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놀이 및 돌봄공간인 활동공간과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 오픈형 사무실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번에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의 돌봄 품앗이 공간 제공에서 나아가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숙제 및 생활지도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파주시가 여성가족부의 2018년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신청해 선정됐으며, 공간 리모델링 및 기자재 설치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지원했다.

여성가족부와 파주시가 운영 지원하며 직접적인 운영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게 된다.

이미경 파주시 복지국장은 "공동육아나눔터가 여성의 독박육아를 해소하고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안성기 기자
asg@hyundailbo.com

지역 주민들에게 소통·안전한 돌봄·놀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다. 운정 1동 가람마을 5단지에 2018년 10월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과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담당자가 매일 꼼꼼하게 소독하고 관리하는 우리 지역 육아나눔터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혼자' 하면 힘든 육아를 '다른 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파주시가 지원하고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자녀 돌봄 네트워크 공간이다.

부모와 아이들이 부담 없이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이곳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과 상시프로그램 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소소한 정보를 나누며 고민을 공유하고, 아이들은 또래와 어울리며 사회·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육아' '함께' '공유'를 키워드로 하여 지역공동체가 공동육아를 실천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학과 방과 후에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

- 2018년 : 공간이용 457명 / 품앗이 3그룹, 28명 / 프로그램 운영 20회기, 256명 / 초등돌봄 12명
- 2019년 : 공간이용 5,955명 / 품앗이 6그룹, 35명 / 프로그램 운영 46회기, 750명 / 초등돌봄 30명
- 2020년 : 공간이용 392명 / 품앗이 3그룹, 18명 / 프로그램 운영 65회기, 419명 / 초등돌봄 24명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양육부담 해결

파주시는 육아는 더 이상 한 가정의 일이 아닌 지역사회와 이웃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아이돌봄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모바일 앱을 2020년 11월부터 전국 운영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일시 연계서비스 도입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육아나눔터의 운영 시간 연장(야간) 및 육아나눔터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부서명 여성가족과 | 담당자 김현주(4492)

5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수준 서비스 향상 지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민간 보육시설 고품질특성화 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 및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지원

민간 보육시설 양육부담 경감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 보육시설 운영 지원
- 코로나19대응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기관보육료, 어린이집 냉난방비, 조리원인건비 지원



파주시,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박차를 가하다.

2020년 12월 기준 파주시 보육시설은 총 408개소로 이중 민간보육시설은 89.9&인 367개소이며, 파주시 관내 영유아는 9,831명으로 그중 약 62.3%인 6,128명이 민간이 설치 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다르게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 받는 등 어린이집 재정 및 운영의 차이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수준의 안정적인 운영비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내역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 1,082백만원 지원
-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193백만원 지원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3,589백만원 지원
-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 831백만원 지원
-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 2백만원 지원
-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 21백만원 지원
-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648백만원 지원
- 어린이집 운영 지원 : 841백만원 지원

2020년 민간보육시설 지원 총 7개 사업 300억원 지원

(민간 보육시설 고품질특성화 지원)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16개소 1,087백만원 지원 하였으며 0세아 보육의 특수성 및 부모의 보육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지원을 12개소 1,072백만원 지원하고 있다.

(민간 보육시설 양육부담 경감)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내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을 367개소 4,208백만원 지원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기관보육료 10,218명 대상 22,000백만원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367개소 57백만원지원,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민간보육 시설 조리원 인건비를 367개소 대상으로 64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긴급운영비를 2달간 299개소에 1,0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로 더욱 발전

파주시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한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가 되도록 공보육 강화와 민간보육시설 보육품질향상을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며, 다양한 보육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 담당자 이유희(4485)

6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초등학교 주변 옐로신호등, 횡단보도 옐로카펫 및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58개 초등학교)

초등학교 주변 차량 정차대 설치 (7개교)

학부모와 함께하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안전을 최우선하는 파주시의 차별화된 등하굣길 만들기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CCTV), 교통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및 위반사항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전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주통학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구간이다.

파주시는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확보를 위한 옐로신호등 및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대 발생되는 통학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등하교 시간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차량 정차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시설 개선과 캠페인 등 안전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파주시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로 이루어진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파주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주 교통안전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캠페인 활동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학교별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6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 역내 옐로신호등, 옐로카펫,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 5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등하 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차량정차대를 와석초등학교 등 운정지역 7개 초등학교 주변에 조성 하였다.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차량정차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차량정차대

파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없는 청정구역으로 변화

파주시는 차별화된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원천 차단을 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엄격히 준수하게 하면서도,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 발생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본인 과실 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더 이상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파주시는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부서명 대중교통과 | 담당자 이지형(5791)
한성수(5792)

7 공동주택 주변 어린이 안전승강장 조성

통학차량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공간 제공

공동주택 주변 안전승강장 설치 시범사업 추진(2개소)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해솔마을 5단지 어린이 안전승강장

대규모 주택단지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최근 건설되는 운정신도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는 통학차량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는 단지내 통학차량용 어린이 안전승강장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법령 개정 전 건설된 아파트단지의 경우 통학차량에 대한 단지내 승하차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로 위 무분별한 승하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존재한다.

아파트 주출입구 주변 도로, 보도 상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등·하원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눈, 비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 없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승강장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눈, 비,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걱정 없이 통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제공

운정지역 2개 아파트단지(해솔마을 5단지, 한빛마을 5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아파트단지와 안전승강장 운영방식 등을 협의하여 2020년 10월 어린이 안전승강장을 설치하였다.

아파트 앞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간으로 변화하는 도시교통 환경 기대

최근 심화되어 가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적인 변화들이 쌓여 갈 때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의 실현이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파주시는 공동주택 주변 어린이 안전승강장 조성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하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부서명 대중교통과 | 담당자 이지형(940-5791)

8 아이가 더 편안한 공동주택 디자인 계획

아이와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아파트 생활로 변화

2019. 10.
아이가 더 편안한 공동주택 디자인 계획 마련

2019. 11.
이후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아파트(300세대)에 대하여 건축계획 및 설계안 반영 중



아이가 더 편안한 공동주택 디자인 계획

아파트 주거문화의 보편화 및 안전한 주거공간의 기능 요구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아이들 교통사고 소식도 빈번하다. 아파트가 놀이공간이자 생활공간이 되어버린 아이들에게는 더욱 더 안전한 장소가 될 필요성이 있으며, 더 이상 법적 기준만 충족한 아파트 설계보다는 입주민을 위한 안전한 설계기준이 적용된 주거공간이 필요하였다.

아이들이 안전한 아파트 설계기준 마련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한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단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인 세이프존(맘스 스테이션)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2019년 11월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하여 2020년 12월말 현재까지 9개단지 8,846세대에 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고려하도록 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첫째, 단지 내 출입구 주변 아이 및 학부모 대기공간인 세이프존을 설치하여 통학차량 승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소방 등 비상차량 이동을 제외한 지상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토록 하여 지상주차장 통행으로 인한 보행사고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셋째로는 단지 내 놀이터 등 휴게공간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세대 내 시청을 가능토록 하여 보호자 동반 없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에 대해 낯선 외부인 접근 및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단지와 인접한 초등학교가 위치 할 경우 단지와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통학로를 만들어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 **단지 내 세이프존(맘스스테이션) 설치 의무화**
  - 단지 내 유치원 등 통학차량에 대한 승하차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로 위 무분별한 승하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단지 내 출입구 로터리 주변에 아이 및 학부모 대기공간 등 세이프존 설치를 의무화 하여 승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 **단지 내 지상주차장 설치 금지**
  - 택배차량 등 지상 통행차량으로 인한 보행사고 발생
  - 지상 통행차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안전사고 예방(소방 등 비상차량 제외)

- **단지 내 놀이터 등 휴게공간 CCTV 세대 내 시청 가능 설계**
  - 놀이터 등 휴게공간에 대한 세대 내 실시간 확인을 가능케 하여 보호자 동반 없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

- **단지와 인접한 초등학교 위치 시 단지 내 통학로 연결**
  - 단지와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통학로를 만들어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사고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



세이프존(맘스스테이션)



조경시설 등 녹지공간 조성

아이와 가족의 편안한 주거공간 조성 노력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아파트 공간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었다.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를 실현하기 위해선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의 역할에 대하여 아파트 설계부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아파트에 대한 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법령에만 맞춘 아파트가 아닌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안전한 아파트가 되길 기대한다.

부서명 주택과 | 담당자 송창준(940-4752)

9 파주시 최초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들이 신체적, 지적인 탐구와 자극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소통과 만남,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장 마련

청소년수련관이 전무한 파주시에 청소년 건전육성과 다양한 수련활동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법정의무시설)

2020년 경기도 內 유일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으로 도비 196.8억확보



문산청소년수련관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파주시, 청소년 미래를 준비하다.

파주시는 인구의 18%가 청소년이나 청소년 활동·이용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적성면, 법원읍 등 13개 지역에는 청소년 전용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운정신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파주 북부 지역은 청소년 범죄율 또한 도심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 체험, 복지, 교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 육성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문산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문산청소년수련관 총 사업비의 80% 197억 도비 확보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부지 內 건립되는 문산청소년 수련관은 연면적 7,916㎡이며 총 사업비는 246억원이다. 2018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19년 4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총사업비의 80%인 197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였다.



문산청소년수련관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2020년 6월 설계공모를 통하여 파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활동시설의 세밀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동아리실, 강의장, 체육관, 방과후아카데미 및 수영장 등의 시설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수련관 지하 1층에 설치될 수영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수영 의무화 추진으로 학생의 수상안전 교육을 위해 인근 고양시까지 이동하는 등 수영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항상 제기되어 온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파주시 최초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

문산청소년수련관의 건립으로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오전 공실을 이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양·취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를 제공할 예정으로 인근지역 성인 약 5만여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는 청소년들의 자율참여 열린 공간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통하여 자기계발 및 다양한 수련활동 지원과 소통과 공감을 추구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도일보

2020년 06월 26일 금요일 015면 종합

파주 문산청소년수련관,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청소년 활동·문화공간 조성의 시작

파주시는 문산청소년수련관의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이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선작은 이진욱건축사사무소의 '이야기가 있는 플랫폼'으로 기존 습지조경을 살리고 문산읍의 평활한 농경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됐다. 1, 2층의 열린공간을 통해 청소년에게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를 담아내는 등 기능적·공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파주시 문산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건립될 문산청소년수련관은 연면적 7,91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층에는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 1층~5층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1년 착공해 2022년 개관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지난 3월 설계공모를 시작해 23개의 작품을 접수했으며 7명의 전문 심사위원들의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입상작은 공동응모한 ㈜제이유건축사사무소와 ㈜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더블유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허서구건축사사무소, 가작은 ㈜디아건축사사무소, 공동응모한 ㈜조진만건축사사무소와 이경재건축설계가 선정됐다.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에는 설계권과 설계의도구현권이 부여되며 입상작에는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 최초로 건립되는 문산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주도적 참여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연우 기자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신축 설계공모



중부일보

2020년 03월 13일 금요일 009면 사회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신축 설계 공모

문산행정센터 내 7천975㎡ 규모
246억 투입- 2022년 완공 목표
시민 문예·교육 공간 활용 계획도

파주시에 최초로 건립될 문산 청소년수련관 신축 설계공모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군 1개소이상 의무설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관내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4개소만 운영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파주시는 문산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2018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건립비 246억 원(도비 197억 시비 49억)을 확보했다.

파주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은 문산행정복지센터 내 연면적 7천97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과 수영장을 포함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설계공모는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시설 및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뿐 아니라 생존수영 체험을 위한 수영장 조성도 포함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오전 시간대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체 인구의 약 18%, 8만명이 넘는 파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및 이용시설 등을 확충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산청소년수련관 신축 설계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www.pa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상돈기자

파주시 문산 청소년수련관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 담당자 이종은(940-5221)

10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금빛로,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을
접목한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2019. 3.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및 문화거리 조성 추진

2019. 12.
청소년 문화거리 행사 개최 3,000여명 청소년 참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참여형 문화거리 조성



금빛로, 청소년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 필요

금릉역 ~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약 1㎞에 이르는 금빛로 일원은 5개의 학교와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매일 5,000여명의 청소년 및 시민들이 등하교 및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파주시의 소중한 미래자원인 많은 청소년들이 오고가는 곳임에도 청소년들이 교류하며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의 배려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파주시는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참여형 문화거리 조성을 추진하였다.

시설정비, 콘텐츠의 접목으로 시민 참여형 문화공간 조성

파주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금릉역과 중앙광장, 금빛로를 연계해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거리 특화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민 및 학생 1000여명의 설문조사와 시·도의원, 관련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토대로 특화된

거리조성을 위한 다각적 구상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50여개의 로고라이트 및 레이저 조명을 설치하여 꽃길, 은하수길, 응원길 등 대상지역의 특성을 살린 테마거리를 조성하였으며, 12월 20일 약 3,000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참여한 제1회 청소년 문화거리 행사를 개최하였다. 1㎞에 달하는 문화거리 구간에 진로체험, 공방, 먹거리 등 총 42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버스킹 공연, 예술작품 거리전시회와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 문화거리에 걸맞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를 위해 2020년 5월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8월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2020년 12월에 10개 건물 117개 돌출간판을 철거 및 제작·설치 완료하여 청소년 문화거리를 새 단장 하였다. 또한, 개수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협의체


문화거리 전경




로고라이트 설치





문화거리 행사



경기도민일보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014면 사람들

2019년 청소년 문화거리 행사

파주시, 20일 또래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

파주시는 20일 추어탕거리(금촌동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19년 청소년 문화거리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파주시가 주최하고 (재)파주시청소년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2019년 청소년 문화거리 행사'는 인성함양 진로지원으로 청소년 단체 거리 무대 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기획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청소년지도자들과 함께 진로체험 및 각종 캠페인 등에 고민을 공유하고 또래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에 가질 예정이다.

김아임(19세) 대표와 관련 관내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재능기부로 다양한 예술적인 거리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특히 인솔을 맡아줄 멘토단 · 인형 · 디퓨저 · 코니스마스크넷 만들기, 보드게임, 쿠폰, 페이스페인팅 등 청소년들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부스도 설치된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상점들이 문화거리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관내 각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이성훈기자



초과 불법 무허가 간판 44개를 자진철거 하였고 주인 없는 간판 18개를 정비하여 총 179개 간판정비를 완료하였다. 경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청소년 문화거리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양한 세대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거리로 발전

파주시는 청소년 문화거리의 시설물 및 보행로 정비뿐만 아니라 세대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거리문화 콘텐츠 기획으로 보행자를 위한 문화와 예술로 즐거운 특화거리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은 물론 세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시민의 문화거리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파주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활동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청소년 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전)



청소년 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후)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 담당자 김윤진(940-5222)
도시경관과 송현수(940-5941)

11 '전국 최초' 청소년 안전망팀 조직 신설

파주시 주축의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

2019. 12.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공모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2020. 1.
보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 조직 신설

2020. 4.
청소년 전문 사례관리사 3명 채용 및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발족

2020. 6.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실행위원회 개최

2020. 7.
「파주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착수보고회 개최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위기 청소년 증가에 따른 파주시의 고민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개발로 파주 남부 지역과 북부지역의 거주 환경 및 교육 격차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2020년 파주시 인구의 17.1%인 80,149명이 청소년이며, 학업스트레스, 교우관계, 가정폭력 및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등 위기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날로 심화되어가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파주시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육청소년과 산하에 전국 최초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위기 청소년의 다각적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파주시는 2019년 12월 여성가족부 주관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 파주시 보육청소년과 내 전국 최초 청소년안전망

팀 조직을 신설하였다. 위기 청소년의 다각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안전망팀을 중심으로 산하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두어 안전망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개편하여 파주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청소년의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 및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위기 청소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드림스타트팀을 통해 초등학교(13세) 까지의 위기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나 중학교 진학 후부터는 지자체의 관리가 종료되어 사례관리가 단절되거나, 민간 청소년 보호 기관과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인 청소년 중심의 통합 서비스 지원이 어려웠다. 파주시는 2020년 1월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여 전담공무원 3명을 배치하였고, 4월에는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전담을 위한 청소년 사례관리사 3명을 채용하여 파주시 청소년 안전망팀 조직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강화된 조직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 및 자원 다각화를 통한 위기 청소년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재택 원격수업 상황에도 파주시 청소년안전망팀으로 경찰서, 관내 중·고등학교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드림스타트 등으로부터 위기 청소년 사례의뢰가 2020년 상반기에만 100여건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의 분기별 개최, 월2회 통합사례회의, 동반자 회의, 1388지원단 회의 개최를 통해 위기 사례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다각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년 7월 파주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파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기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개발하고 위기 청소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의 안전망 역할 강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파주시는 위기 청소년 전담 조직 구성으로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자인 청소년 중심의 욕구 및 위기도 조사를 바탕으로 고위기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며, 위기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청소년 보호망의 역할을 견고히 할 계획이다.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청소년안전망 통합사례회의

아시아타임즈

2020년 01월 14일 화요일 016면 사회

파주시 전국최초 '청소년안전망팀' 조직 신설

지자체 중심 위기청소년 지원시스템
유관기관 협업 강화·사회안전망 확충

파주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 공모 선정에 이어 지난 8일 전국 최초로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파주시 청소년의 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 435건, 2017년 502건, 2018년 664건으로 2017년 15%에 이어 2018년 32%가량 증가했다. 이외에도 대인 학업 스트레스 교우관계,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위기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재학년 청소년층에서도 발생빈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경찰·법원·학교 등과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조기 발굴·대응하므로써 위기 청소년들이 치기에 서비스를 지원받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은정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은 "파주시의 청소년안전망팀이 컨트롤타워가 돼 보호·지원 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업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선 기자 ks2764@kbsm.net

[보도자료] 청소년안전망팀 조직 신설

중부일보

2020년 05월 28일 목요일 007면 사회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 17명 위촉

파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안전망의 공공성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파주시 보육청소년계로 운영 주체를 전환에 지자체 중심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위촉 인원은 총 17명으로 이미경 복지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등 담당직 5명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청소년복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2명을 위촉했다. 위촉식과 함께 열린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방안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경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와중에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운영위원의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의 상황에 맞는 지역자원 연계와 실제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기자

[보도자료]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개최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 담당자 김지혜(940-4494)

12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추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교급식비) 2019년 9월 고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

(신입생 교복비) 2019년 중학생 교복비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고등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확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의 기틀 마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비, 교복비 지원

2018년 11월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 계획이 발표된 후, 경기도교육청·경기도·각 시군의 협의를 통해 2019년 9월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중심의 지원을 위해 2019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비 지원을 확대 추진하였다.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파주시는 그동안 유·초·중학교에 지원했던 급식비 지원을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관내 모든 학교가 지원받게 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가정에서의 학부모 부담이 커졌는데, 152억원에 달하는 학교급식비 중 1분기 예산은 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바일 쿠폰과 식재료 꾸

러미를 지원 받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2019년 처음 시행된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관내 중학교 신입생 4천6백명에게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되었으며, 2020년에는 교복비 지원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 중·고등학교 신입생 9천5백명에게 7억원이 지원되었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에게도 동일하게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서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2019년 파주시는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지원을 늘려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을 확대해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2020년 파주시의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와 교복비 지원 예산은 약 160억원이다. 학교급식비와 교복비 지원은 아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첫 단계로, 파주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공교육 내실화로 이어지는 한편,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는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실현에도 함께 하고 있다.



무상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부서명 교육지원과 | 담당자 김지선(940-5251)

13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및 교육 프로그램

집중을 통한 교육환경 격차 해소,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학교 교육환경개선 대응 지원 (경기도교육청 - 파주시)
- 2019년~교육환경개선 집중지원(노후화장실 및냉난방기교체) 2019년 45억원 2020년 60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자체 지원 (파주시)
- 2019년 격차 해소 위한 접경지역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 7억원)
- 2020년 접경지역 → 읍 면지역 교육환경개선 지원 확대 (사업비 11억 2천만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 2019년 학생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12개/4,261백만원)
- 2020년 원격교육 환경조성, 학교 감염예방, 긴급돌봄교실 지원 등 확대 지원 9개 / 4,281백만원→확대 전환) 4개/490백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파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2019년 학교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교육환경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과 가장 밀접한 노후 화장실 개선 및 냉·난방기 교체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2020년부터 노후 화장실 개선 및 냉·난방기 교체를 집중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2019년 처음으로 접경지역 학생들을 위해 파주시 자체적으로 접경지역 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시작했다.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은 학교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보수뿐만 아니라 낡은 책걸상 등 교육기자재 교체까지 포함되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도 교육의 중심은 학생

파주시는 매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학교를 비롯



아시아타임즈

2020년 01월 31일 금요일 012면 사회

파주시 '아이 키우기 편한 교육도시' 만들기

교육 예산 346억… 전년比 76억 증액
접경지역 교육인프라 개선사업 확대

파주시는 2020년도 분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초·중·고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대폭 늘리며 전년 대비 약 76억원 증액된 346억원을 교육 예산으로 편성했다.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접경지역 교육인프라 개선' 사업은 기존 부처공여 40개교에서 읍·면지역 57개교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면서 4억3000만원이 증액된 11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학교별 7000만원 이하의 교육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관장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16개 학교를 선정해 5월 중 사업에 착수한다.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은 300억원 증액해 총사업비 420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총사업비 3000만원 이상 120억원 이하의 대규모 환경개선 사업이며 올해부터 최근 5년간 남은 넓·난방기와 화장실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004년 사업 대상교는 30일 열리는 교육발전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파주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이외에도 학교급식비 및 교복비 지원, 혁신교육지구 지원, 학교 계절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전반적인 교육 분야의 지원을 확대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민기 내 교육예산 3% 달성 목표로 올해 2,870억원 편성했다"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편한 교육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진 기자 kyj7894@itsurv.net



아시아일보

2020년 04월 13일 월요일 007면 지방

파주, 온라인 원격교육시행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범위 확대

기자재·열화상카메라 등 지원

파주시는 기존 교육경비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온라인 원격교육을 지원하고 각 급 학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필요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교육부가 초·중·고 및 특수학교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발표함에 따라 9일 전국 중학교 및 고등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했다.

파주시는 온라인 개학 발표 이후 신속히 각 급 학교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85개 학교에서 온라인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을 희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관내 초·중·고 학교의 특화교육을 지원하는 희망교육플러스 프로그램 사업을 온라인 원격교육 및 콘텐츠와 예산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자료제출을 통보했다. 지원 내용은 학교별 수요에 따른 교육 플랫폼 제작 기자재, 태블릿PC, 인터넷 기기 등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지원과 급식실 안전이 설치,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등 코로나19 학교 감염 예방 사업이다. 또한 파주시는 개학연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의 긴급 돌봄 이용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교사용 마스크 5천매, 특수학교 학생용 면마스크 1천매, 보건실 및 급식실 관계자를 위한 면마스크 3천매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변화하는 교육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 889개소에 시설 방역, 손소독제·살균제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합동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 점검 시점적 개학연기가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이를 중심한 지역을 것을 통지하고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도 안내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당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원격교육이 자칫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파주교육지원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교육현장 변화에 관심을 모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목 기자



수도일보

2020년 05월 19일 화요일 015면 종합

파주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자체지원사업확대

IT장비, SW교육 기자재, 학생중심 교육공간 조성등

파주시는 지난 15일 파주시 교육발전 소위원회와 신청심의를 통해 '2020년 교육환경개선 자체지원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별 7천만 원 이하로 사업비 전액을 파주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민선7기 접경지역 교육인프라 확충' 공약과 연계해 계급한 지 오래되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읍·면지역 학교(57개교)를 중점 지원한다.

파주시는 심심적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금을 1개교 당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후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을 대비하는 IT장비, SW교육 관련 기자재, 학생 중심 교육공간 조성 등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는 지원사업을 통해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읍·면 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1차 부서 협의·2차 2차 교육발전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월롱초등학교 등 19개교가 선정돼 총 11억 1천4백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문정 파주시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신도시와 읍·면의 균형적인 지원과 다양한 부분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를 해소해 학생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 기자

한 전 세계를 위협했고, 그 위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학교가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원격교육 환경조성, 학교 감염예방, 긴급돌봄교실 지원까지 확대·전환 했다.

이렇게 확대·전환하여 지원된 예산이 원격수업 환경조성으로 169백만원, 코로나19 감염예방으로 149백만원, 학교 자체 긴급돌봄으로 173백만원을 지원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방향 전환의 시기

파주시는 앞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노후 화장실 개선 및 냉·난방기 교체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도 학생들에게 동일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 스마트 교실 조성에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학교의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부서명 교육지원과 | 담당자 이재원(940-5031)

14 북부권역 대학수능시험장 유치

수능 시행 27년 만에 북부권역에서 첫 수능시험 실시

2018. 12.
북부권역 수능시험장 지정 대상 학교 협의(市, 교육지원청)

2019. 6~10.
북부권역 수능시험장 환경개선(방송시설, 책걸상 등)

2019. 11. 14.
북부권역 2개교(문산고, 문산수억고)에서 대학수능시험 실시

2020학년도 수능시험에 617명의 수험생이 신설 시험장 이용으로 편의를 누림으로써 남부와 북부 권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북부권역 최초 수능시험 실시 (2019. 11. 14.)

북부권역 수험생들은 수능한파에도 남부권역 시험장으로 가야만 했다.

파주시에는 고등학교가 총 18개 학교가 있고, 그 중 운정·금촌·조리를 제외한 북부권역의 고등학교는 10개교이다. 그러나 파주시의 수능시험장은 모두 남부권역인 운정, 교하, 금촌 등에 위치하여 문산, 파평, 적성 등 북부권역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일 아침 일찍 남부권의 수능시험장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북부권역의 학교들은 평균 개교년수가 40년 이상 된 오래 된 학교로 수능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파주시는 북부권역 수험생을 위한 수능시험장을 유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최적의 수능시험장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파주시는 우선 수능시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북부권역 학교 중 문산고, 문산수억고 2개교를 수능시험을 위한 예정시험장으로 선정했다. 최적의 수능시험장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수능시험을 원활하게 치를


경기도민일보

파주북부권역 수능시험장 유치

아침 일찍 가야 하는 수험생 불편 해소


수능시험장 깜짝 방문… 한명 한명에 따뜻한 '하이파이브'


수능시험장 방문 및 응원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환경개선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듣기평가와 안내방송을 위한 방송시설 개선과 수험생 수능 성적과 직결되는 책걸상, 교탁, 블라인드 등 수험장 환경조성, 시험지 보관 캐비닛 등 보안관리 강화 등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 전 파주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현장 점검을 통해 문산고와 문산수억고를 수능시험장으로 최종 선정하여 2019년 11월 14일 북부권역에서 처음으로 수능시험이 실시되었다. 2020학년도 수능시험에 파주시는 4,825명의 수험생이 응시했으며, 이 중 617명의 수험생이 신설된 북부권역 시험장에 배치되어 시험을 치렀다.

북부권역 수능시험장 조성,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의 좋은 선례가 되다.

1994학년도 첫 수능이 시행된 이래로 27년 만에 파주시 북부권역에 대학수능시험장을 유치하였다. 이로써 수능한파라는 말처럼 몸도 마음도 추운 수능시험일에 북부권역 수험생들이 멀리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능시험장 유치로 북부권과 남부권의 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꼼꼼한 교육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편한 교육도시 파주'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서명 교육지원과 | 담당자 안지연(940-5032)

15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2018년
학교 체육관 실태조사 및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수요 급증
- 미세먼지 등 기상악화로 학생들의 체육 수업 및 활동 어려움
- 생활체육시설 등 부족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필요

2019년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7개교)

2020년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10개교)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미세먼지로 인한 학교 야외 체육수업의 어려움 해소

지속되는 미세먼지 등 기상악화로 학생들의 야외 체육수업 및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는 많은 학교에서 체육관 건립을 희망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학교 체육관이나 실내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파주시는 발 벗고 나섰다.

학교 체육관을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의 공간으로

학교 개방형 체육관 건립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9년 7개교가 추진되고, 2020년에는 10개교가 건립 중에 있다. 또한 2019년 12월 파주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체육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식

을 체결하고 파주시는 지역주민에게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2020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업무협약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학교 감염예방을 위해 현재까지 지역주민에게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총17개교 지원)

- 2019년 (7) 임진초, 금촌고, 석곶초, 신산초, 문발초, 청석초, 금촌중
- 2020년 (10) 천현초,문산동초,새금초,교하중,두일중,금릉중,검산초,통일초,파주고, 연풍초

〈파주시 학교 실내체육관 확보율〉

- 2019년 : 확보율 60% (총 104개교 중 62개교 보유, 42개교 미보유)
- 2020년 : 확보율 69% (총 104개교 중 72개교 보유, 32개교 미보유)

* 보유는 예산 확보하여 건립이 시작 된 학교 포함

** 미보유 학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교, 병설학교 등 건립 제외학교 18개교 포함 된 수치로, 향후 건립 지원 대상교는 건립 제외학교를 뺀 14개교

어떤 기상상황에도 체육수업과 체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어떤 기상상황에서도 체육수업과 활발한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언제든지 가까운 학교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더 많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체육생활을 위해 연차적으로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서명 교육지원과 | 담당자 이재원(940-5031)

16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반 조성

학교와 마을, 파주시가 함께하는 지역특색 혁신교육지구 사업 출발

2019. 9. 26.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파주시-도교육청)

2019. 12. 24.
혁신교육지구 마을강사 위촉

2020. 4월~
초·중·고·특수104개교 학사일정 ⇒ 마을강사 112명 연계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파주꿈나루」버스 지원

2020. 5월~
혁신교육지구 1기 마을강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민·관·학의 적극적인 협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녹여낸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역별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사업 운영이 절실 하였다. 이에 학교와 마을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아이 키우기 편한도시 파주" 실현을 위한 민선7기 핵심교육공약으로 2018년 10월 24일 교육지원과 내 혁신교육팀을 신설해 본격적 준비에 돌입하였다.

2019년 1월 17일 파주시·파주시의회·파주교육지원청이 혁신교육지구 추진합의서를 체결하고, 지역별·학교급별 대표성을 가진 34명의 실무추진단을 결성하여 민·관·학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녹여낸 사업 추진을 위해 세 차례의 학부모 설명회와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실시, 매월 실무추진단 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혁신교육지구 추진 합의서 체결 (2019. 1. 17.)



파주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식 (2019. 9. 26.)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파주시는 2019년 7월 16일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 개최된 혁신교육포럼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 브리핑 후, 2019년 9월 26일 드디어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학교와 마을, 파주시가 함께하는 지역특색 혁신교육지구 사업 출발



파주혁신교육지구 마을강사 위촉식 (2019. 12. 24.)



마을강사 연계 프로그램

파주시는 2019년 하반기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평화·생태·역사 분야별 1기 마을강사 112명을 위촉하였고, 2020년 부터 초·중·고·특수 104개교 연간 학사 일정에 따른 마을강사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드넓은 파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문화·생태·역사 등 다양한 체험처에 접근성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파주꿈나루」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파주꿈나루」는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조선시대 운송수단 중 하나였던 임진강 두지나루터 황포돛배가 한강 이북지방을 드나드는 배였던 것처럼 체험버스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생들의 꿈을 향해 이동시켜 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마을강사에게 온라인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온 마을의 힘으로 일궈낸 마을교육공동체 문화가 가져올 효과

파주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특색 교육사업 및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실현하고 있다. 마을강사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파주꿈나루」 버스를 타고 파주 곳곳에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역 내 우수 인적자원을 마을강사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체험처 활용 및 운수업체와 전세버스 연간지원 계약 추진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파주시 혁신교육지구로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협력의 가치 아래 학교와 마을, 파주시가 함께 협력하는 지역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교육지원과 | 담당자 유선혜(940-5033)

17 에어바운스 풀장 등 물놀이장 설치 운영

공원 내 물놀이장,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건강한 여름나기

여름 철 물 놀 이 형 수경 시설 8개소, 에어바 운스 5개소 설치 운영

2018년

연인원 10,832명 이용 (운정지역 9,632명, 운정외지역 1,200명) ※에어바운스

2019년

연인원 10,467명 이용 (운정지역 7,071명, 운정외지역 3,396명) ※에어바운스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여름철 더위를 식힐 물놀이장 확대 설치 필요성 대두

파주시는 여름철 운정건강공원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바닥분수, 안개분수, 꽃게물놀이터) 3개소를 포함하여 총 8개소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여름방학 기간 중 급증하는 가족단위 공원 이용객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엔 물놀이형 수경시설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이었다.

이에 시는 가족단위 공원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과 더불어 수영장 형식의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나기를 위한 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파주시는 가까운 공원 내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맞추어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한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같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 맞춰 가동하며 곳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주1회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2019년도 기준 총 5개소 (운정2, 교하1, 금촌1, 문산1)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연인원 10,832명, 2019년도에는 연인원 10,467명이 이용할 만큼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또한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명실상부한 파주시 여름철 랜드마크가 되었다.

운영기간이 끝난 후에는 운영 시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개선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며 매년 더 나은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인기 있는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은 연이용 인원이 10,000명을 넘을 만큼 어린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매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하절기 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친화적인 공원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모든 물놀이시설 가동 계획을 전면 취소했지만 2021년 부터는 다시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나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멀리 떠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하천변 물놀이장 조성

관내 어린이 물놀이시설의 부족으로 타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공릉천 광장 주변 둔치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2,760㎡규모의 물놀이장을 조성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물놀이장 개장을 하지 못했지만, 2020년 10월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야외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놀이장 야간경관조명 임시운영을 실시했다. 공릉천 물놀이장은 매년 6월~8월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장을 이용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관리에 노력할 것이다.

부서명 공원관리사업소 | 담당자 이소연(940-5386)

18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치과주치의, 무료 예방치과진료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의 디딤돌 역할

2019. 06. 04.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역사회협의체 개최

2019
국가 구강검진기관 98개소 중 45개소 참여
→초등 4학년생의 96.4% 치과진료 성과 달성 (4,820명 중 4,649명 참여)

2020.
치과병의원 50개소 참여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만 10세 전후의 아동에게 예방진료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민·관·학 갈등 속에 소통과 설득만이 답이었다

학생들의 치아건강은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은 1.9개로 세계 평균인 1.86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치과는 예방보다 치료중심의 의료행위에 집중되어 있어 예방중심의 구강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며, 의료비 부담 또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구강질환 예방으로 아이들의 평생구강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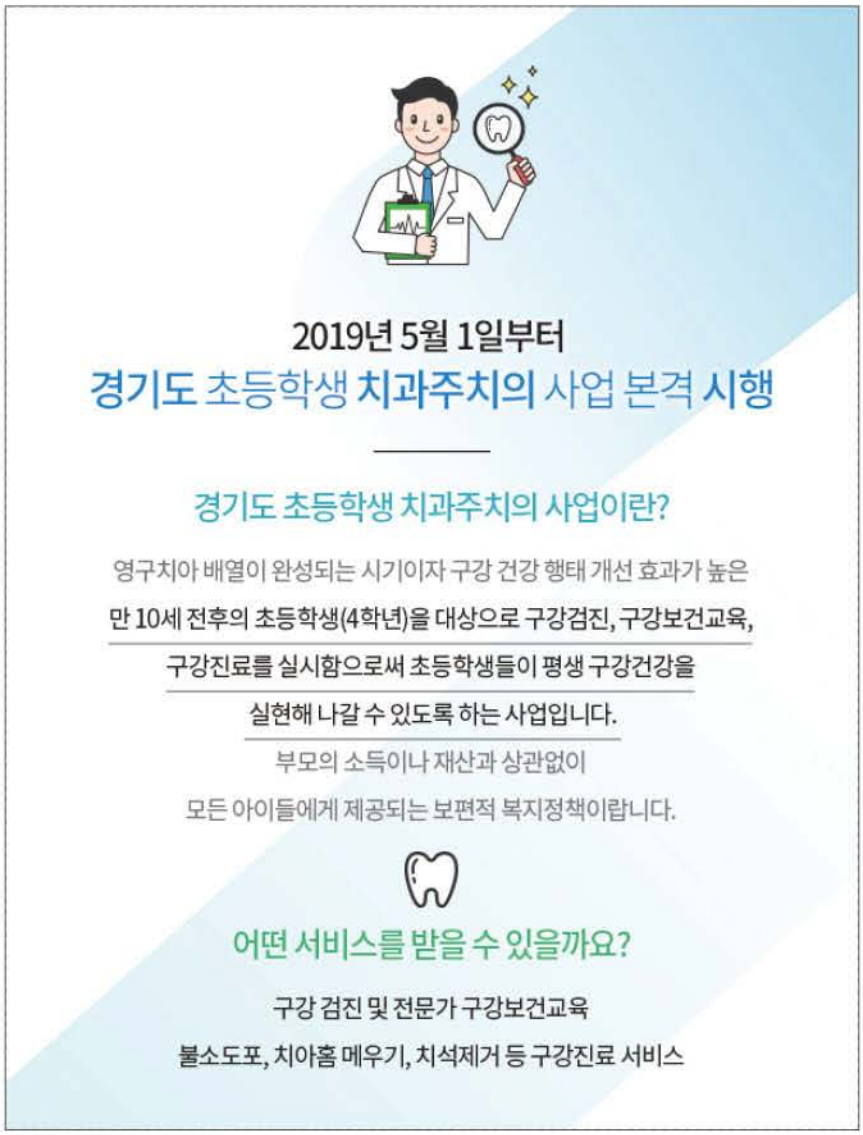
하지만 부족한 인력, 치과와 학교의 소극적인 참여 등 난항이 예상되었다.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부모, 치과의사, 보건교사 대표가 모여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하고 관련기관에 공문, 유선전화, 직접 방문 등 소통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9년 5월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업무 기관의 협력으로 성황리에 사업 진행

치과주치의 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가 함께 참여해 영구 치아 배

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만 10세 전후의 아동에게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의 예방진료 서비스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2019년 관내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98개소 중 45개소 치과와 계약,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특수학교를 포함한 59개소였다. 2020년에는 치과병의원 50개소가 사업에 참여하였다.



2019년에는 초등 4학년생 4,820명 중 96.4%가 참여하여 성황리 마무리하였으며,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이 92%에 달했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아주 높은 사업으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구강보건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중심의 치과주치의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들의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아동의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예방 중심의 대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협의체, 치과의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고 있다.

구강건강증진의 열쇠는 치료가 아닌 예방

2019년에는 학교와 보건교사, 학부모, 치과의사 등 각 분야가 주체별로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면서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치과주치의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생건강검진이 잠정 연기되어 순탄치만은 않다.

이에, 대안으로 학교 방학기간동안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학생들의 구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었던 치료 중심의 치아관리가 치과주치의사업을 통해 예방중심으로 변모해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통한 자기 구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평생 구강건강증진 기반 마련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건강증진과 | 담당자 정혜린(940-5525)

9
여성행복도시 파주

여성친화도시 파주는 여성이 행복하고, 가족과 도시가 행복한 진정한 평화도시를 지향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고,
여성이 안전하고 삶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돌봄, 소통, 배려에 가치를 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꿈꿉니다.

파주가 그려가는 여성친화도시란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입니다.

1. 여성정책전문위원 임용
2.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4. 문산보건지소 공공 외래산부인과 설치
5.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6.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추진
7.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운영
8. 안심귀가 마을버스 사업 시행
9. 성인지 예산의 양적·질적 확대

1 여성정책전문위원 임용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으로 참여와 소통의 가치 실현

2019. 10.
여성정책전문위원 임용 계획 수립
※ 명칭변경 : 젠더정책 담당관 → 여성정책 전문위원

2020. 1.
여성정책전문위원 임용

민·관 거버넌스 운영, 성인지 통계 구축,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 실행 등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과 시민참여단 위촉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차 교육

성 평등한 파주시 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 전문가 임용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빠르게 유입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과 동시에 그동안 묵과되었던 젠더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파주시에서도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파주시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차별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모든 정책을 성평등의 관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소수의 특별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별에 따라 일상생활의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모든 부서의 모든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걸음으로 파주시는 2020년 1월 여성정책전문가 임용을 선택했다.

여성정책전문위원 임용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여성, 남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비장애인 등 파주시의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시정 참여 활성화

파주시는 시민의 성별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2020년 12월말 현재 조례와 규칙, 중장기계획, 사업, 홍보물, 총 160건에 대해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안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실행으로 정책 수혜에서의 성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성별분리통계 구축, 성별 경제적 격차를 고려한 정책 대상자 범위 확대,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 여성 대표성 증진 등이 주요하게 개선되어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근간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다.

더불어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여섯 번의 교육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30명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구성됨으로써 향후 성 평등한 파주시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파주시만의 특색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성평등 실현 기대

파주시는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막 시작했다.
통계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파주시의 성별 현황을 파악하고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인터뷰에서 개진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성별 현실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정책, 파주시만의 특색 있는 10개 정책을 발굴하였다.

파주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참여와 소통의 가치가 공유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이 어울려 사는 즐거운 공존을 꿈꾼다.

여성친화도시는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와 사업, 공간 및 의사결정 과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과 돌봄이 공존하는 여성의 일상을 지원하는데 유의한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지역을 의미함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여성친화도시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 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위촉식

부서명 여성가족과 | 담당자 권문영(940-8684)

2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원스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019. 3. 19.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국립암센터 직업교육훈련 업무 협약 체결

2020. 2. 14.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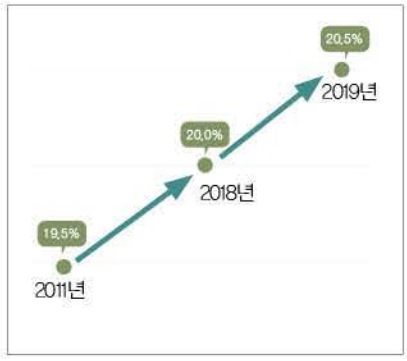
2018. 7. ~ 2020. 12.
1,857명 취업 / 직업교육훈련 210명 이수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국립암센터 MOU체결

기혼여성 5명중 1명은 경력단절여성

15~54세 기혼 여성 중 혼인, 임신·출산·육아와 자녀교육, 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20%에 달한다.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단절여성'인 것이다.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 파주시에서 경력단절여성 중 직장을 다닐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여성이 78%로 경기도 평균인 75.5%보다 높다. 시에서는 이처럼 취직을 희망하는 여성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상담에서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강화와 기업수요에 맞는 취업지원

구체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새일센터에 등록된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거나 취업

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 외에 가사 및 자녀양육부담 완화, 여성친화적 기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취·창업 컨설팅,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구인 2,090명, 구직 2,529명, 취업연계 745명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직업교육훈련은 국립암센터와 협약을 맺어 병원실무자 양성과정 Ⅰ~Ⅲ 등 5개 과정 운영을 통해 106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병·의원 등에 93명(87%)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으로 매월 1회 여성들의 접근성이 높은 대형마트 등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취업안내, 구직상담 등을 실시하고 7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 행사와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 등 각종 행사에 여성들의 참여확대를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

취업 후 고용안정 유지를 위한 일자리 연계강화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에도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선택 시 근로시간 및 업무량, 적성·능력·전공에 맞는 업무, 가정유지를 위한 근무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후 프로그램 운영 및 파주시 지역특성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자아 실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부서명 여성가족과 | 담당자 박지영(940-8683)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임신출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확대 추진

2019. 1월
예비·신혼부부 무료 검사 첫 시행

2019. 3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파주형 대상자 확대 시행

2019. 4월
산후조리비 지원 첫 시행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선제적 지원 사업 시행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출산, 육아, 보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고 기피하는지 '3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요즘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 지출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 단순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에게 지원해 나가고 있지만 계속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가 저출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파주시는 그 첫걸음으로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예비·신혼부부검사는 임신 전 난임, 태아의 성장지연이나 선천성이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지원사업이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가정에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모두 2019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건강한 임신 출산과 부담 최소화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확대

파주시는 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 중이다. 결혼 초기부터 출산 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신을 준비하는 3개월 동안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를 무료 지급하고, 예비·신혼부부의 건강교실 운영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임신이 힘든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을 최대 17회,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임신 중에는 임신 초기와 막달에 시행하는 28종의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임신 중에 필요한 영양제를 출산 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출산교실과 임산부 요가교실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한 출산 후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유축기 무료대여 사업, 19종의 고위험 임산부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후 우울증 예방을 위해 정신 상담을 연계·지원 중이다.

더 나아가 시행중인 모자보건사업에 파주시만의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7종) 지원을 시작하였다. 신혼부부 남녀 모두에게 난임과 태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 즉 풍진, 간염, 성병 등 7종의 검사를 신혼부부 1,000명에게 시행하여 임신 전부터 철저한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에 이에 2019년 경기도 저출산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파주시, 2019년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신모·신생아 건강증진과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한국일보

2019년 01월 07일 월요일 00면 종합

파주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신모·신생아 건강증진…경제적 부담 완화



경인종합일보

2019년 01월 07일 월요일 010면 지방

파주시, 예비·신혼부부 임신 전 무료검사

파주시는 예비·신혼부부의 난임 및 감염병 예방을 통해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고 행복한 결혼생활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전 무료 검사를 올해 1월부터 실시한다.

임신 전 무료검사는 파주시보건소,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에서 실시하며 검사를 위해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료 검사 항목은 풍진, 톡소플라즈마(남성 제외), A형간염, B형간염, 감상선기능, 매독, 에이즈 등 총 7종으로 예비·신혼부부 중 한쪽이 파주시 주소지일 경우 부부 모두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풍진과 톡소플라즈마증은 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된 정도로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성 기형을 유발시키는 감염병으로 임신 전 확인을 통해 치료 후 임신을 고려해야 한다. 매독, 에이즈, B형간염은 출산 시 산도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염되는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면역글로빈 주사로 신생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갑상선 기능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난임의 원인이 되며 임신이 되더라도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유산할 가능성이 높지만 조기 진단 시 약물복용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A형간염은 개인 위생이 좋아지면서 어릴 때 앓는 경우가 줄어들어 20~30대 청장년층 성인환자가 넘쳐나고 있다. 소아에서는 가벼게 앓고 지나가지만 성인이 돼 감염될 경우 피로, 구토, 발열, 황달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 사회 활동이 활발한 젊은 남성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031-940-5571~2), 운정보건지소(031-940-5601), 문산보건지소(031-940-5500)로 문의하면 된다.

윤상영 기자jonghapnews.com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시행, 출산 후에 출생아 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산후조리비용을 파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 또한 2019년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한해 출생아 3,160명 중 2,800명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염병에 비교적 안전한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소득 100% 이하 가정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 보다 선제적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소득기준을 없애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여 "파주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19년 한해 정부형 926명과 파주형 462명을 지원하여 1,388명을 지원하였다.

파주시는 2019년부터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파주시 조성을 위한 저출산 극복의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구상 중이다.

'아이낳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할 저출산 맞춤형 지원사업


임산부 요가교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부부의 탄생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예식장의 첫걸음부 터, 미래 시민의 탄생의 역사적 순간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것은 단순 비용 지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 극복 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출산율 높 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파주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는 미래 설계 를 위한 지원, 열달 간 고생한 산모에게는 휴식, 신생아에게는 안전한 환경 제공 등 임 신 준비부터 출산 후 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지급되었던 출산축하금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첫째아 이상 자녀에게 확대 지급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파주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해 나가길 기대한다.

부서명 건강증진과 | 담당자 이희수(940-5731)

4 문산보건지소 공공 외래산부인과 설치

산부인과 설치·운영으로 여성건강 증진 실현 호응·만점

2019. 5. 27.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진료개시

2019. 6. 4.
경기도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상 입상

2019. 6. 19.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암검진(자궁경부암) 기관 지정

2020. 12월말
누적진료인원 5,090명 (임산부 783명, 부인과 4,307명)



문산보건지소 공공 외래산부인과

문산권역 거점 산부인과 개설로 산모·아이 튼튼 건강파주 만들기

그동안 문산권역 임산부들은 산부인과 부재로 임산부 관리 및 부인과 질환 진료를 위해 장거리인 금촌지역 및 인근 시·군으로 내원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시는 분만취약지역의 산부인과 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회 등 지역 관계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산부인과 개설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임기 여성의 감소, 저출산 등의 문제로 개설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파주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산부인과를 문산권역에 개설하고자 문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최신식 초음파 장비 등 5종을 설치하고 임신, 출산, 부인과 질환 경력이 많은 우수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2019년 5월 27일부터 문산보건지소 내 외래산부인과 진료를 개시함으로써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부인과 진료내용으로는 산전·산후 진료, 기형아 검사, 정밀초음파 등 임산부 진료와 함께 월경장애, 질염, 갱년기 질환 등 부인과 진료와 자궁근종, 난소종양 등 진단을 위

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설치·운영으로 여성건강 증진 실현 호응·만점

파주시는 2018년 7월 26일 산부인과 개설 간담회를 열고 분만취약지역인 문산권역의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를 도입함으로써 임신, 출산, 부인과 질환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8년 10월 공공 외래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문산보건지소 내 외래산부인과 개설 운영 계획을 세우는 등 외래산부인과 설치· 운영에 박차를 가했다.

2019년 3월 산부인과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진료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리모델링 및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5월 27일 문산보건지소 내 산부인과가 진료를 개시했다.

2019년 6월 19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암검진(자궁경부암) 기관으로 지정되어 만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산보건지소 전경

개소 이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5,09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북파주 여성 뿐만 아니라 운정, 금촌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파주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100% 재방문 의사 표현

2020년 12월 산부인과 방문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중 100%(100명)가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재방문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선택한 이유로는 가까운 거리(52%),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41%), 저렴한 진료비(5%),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시민에게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갱년기 건강관리, 월경 장애 등 여성 건강 증진 교육 실시 할 방침이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는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파주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19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여성과 산모, 아이 모두 행복한 파주'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명 문산보건지소 | 담당자 서형주(940-5212)

5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시민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통하여 성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

2019.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및 성인지 교육 추진 (695회 22,078명)

2019 .9.~2020 . 12.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채용을 통한 상시점검체계 구축(292개소, 2,008회)



파주시-파주경찰서 합동점검 및 캠페인 실시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여성범죄의 뿌리 근절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여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물 온라인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까지 여성범죄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주민들이 인식개선이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을 접할 기회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회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등 성적 괴롭힘 또는 폭력을 예방하고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전달하는 데 관점을 두었다.

또한 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보호, 심리 치료 등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군인을 넘어 전 지역주민이 성인지감수성 넘치는 곳, 파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희망하는 지역주민·기관·단체가 파주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인권센터에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현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주로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대상인 관내 초·중·고교생과 군부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됐다. 2019년부터는 사업 예산 증액과 홍보를 통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리더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지원 단체 등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역할수행과 잠재능력 및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8년 교육 246회 실시, 6,542명 이수'에서 '2019년 교육 695회 실시, 22,078명 이수'로 증가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의 횟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내용면에서 예방과 발생 시 대처사항 및 연락체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비대면 교육 방법도 병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교육 에 대한 강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불법촬영의 경우 2019년 9월 점검 전담인력을 채용한 이후 292개소, 총 2,008회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불법촬영관련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관련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과 민간단체,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과 협력해 점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성에 기반을 둔 폭력, 근절을 위한 선제적 노력 강화



찾아가는 폭력예방 · 성인지 교육

파주시는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 근절을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성생활시설 지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과 이를 통한 심리적 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피해여성 지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과 대처방안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점검하며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은 사회, 서로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부서명 여성가족과 | 담당자 박지영(940-8683)

6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추진

파주시, 파주경찰서와 협업으로 범죄취약지역에 안전시설물 설치

2018. 8. 7.
파주시·파주경찰서 여성·아동 범죄예방 업무협약 체결

2018~2020
다세대주택·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파주시-파주경찰서 업무협약식 (2018. 8. 7.)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의 시작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시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절도, 성범죄 등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이란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공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범죄 유발 심리를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의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에 시는 2018년 8월 7일 파주경찰서와 여성·아동 범죄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사업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라 파주경찰서는 범죄예방진단 등 치안정보 공유 및 불안요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파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일명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8월 21일 파주시청 여성가족과와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생활안전과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안전 실무협의체」의 협의를 통하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을 반영하여 2018년 10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했다.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총 331개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2018년에는 1인 거주 여성이 많은 다세대주택·밀집 지역 등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어두운 골목길에는 로고라이트 10개소 설치를 통해 "골목길 안심하세요 이곳은 집중순찰구역"같은 안전문구를 LED등으로 투사하여 야간통행길 조도를 개선하였다.

2019년에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어두운 도로의 조도개선으로 범죄심리 차단 효과가 있는 솔라표지병 10개소 설치와, 범죄취약지역 28개소 도로 노면에 안심귀갓길 노면표시 및 안내판을 부착하고, 단독·다세대 주택·오피스텔 등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 문열림 센서 설치, 안심거울 시트 설치를 완료하였다.

2020년에는 기존 안전시설물 설치에 추가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경광등인 CS라이트 15개를 설치하여 공원 내 청소년들의 음주 및 음란행위 등 범죄를 예방하고, 가로등이 없는 좁은 골목길을 밝히기 위해 솔라안심등을 19개 설치했다. 이울러,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예방과 신고를 위하여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 국어로 표기된 스마트미러를 4개 설치했다.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단위 : 천원)

연도별 / 항목별	설치실적			설치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소	10	267	54	10	10
소요예산	12,000	86,000	50,000	35,000	35,000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설치·관리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사업내용								
	합계	로고라이트	솔라표지병	노면표시	문열림센서	안심거울	CS라이트	솔라안심등	스마트미러
2018년	10	10							
2019년	267	4	10	28	115	110			
2020년	54	13	3				15	19	4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파주시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로고라이트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 있다'는 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여성행복도시 파주' 구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안전시설물 설치 사례



로고라이트


솔라표지병



노면표시



문열림센서


안심거울


CS라이트


솔라안심등


스마트미러

부서명 여성가족과 | 담당자 한예원(940-8681)

7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운영

안심하고 받으세요.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으로~

2019년 12월
여성안심무인택배보관함
설치·운영: 4개소
* 설치장소 : 문산역, 금촌역, 운정역, 야당역



야당역 무인택배보관함

이제 이름 바꾸지 말고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이용하자

2019년 여름, 온라인에서 여성들이 택배 수령인에 '곽두팔, 서필광'처럼 억양이 센 남성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이슈화 되었다. 이러한 인기는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혼자 사는 여성가구 수도 늘어나면서 개인 정보, 거주지 노출 및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다.

일반주택에는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여성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성범죄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1인 가구,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 문산역, 금촌역, 운정역, 야당역 등 4곳을 여성안심무인택배보관함 설치장소로 선정하였다.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어렵게 설치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9년 12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안심하고 받으세요.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운영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우면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문산역, 금촌역, 운정역 야당역 4곳에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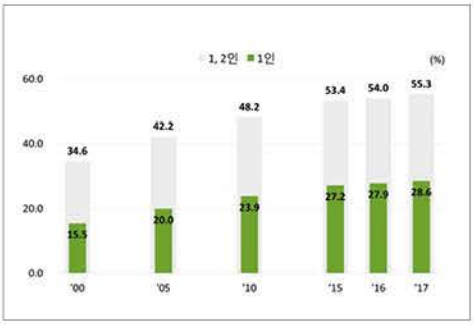
여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했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의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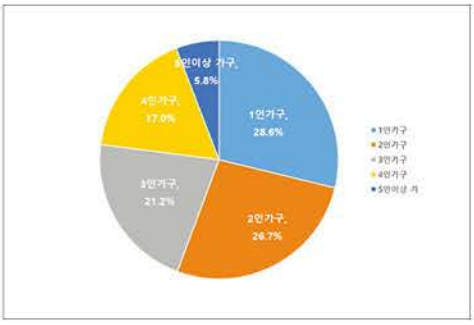
사용자가 물품을 주문할 때 수령주소를 무인택배보관함으로 기재하면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로 배송한다. 택배도착 시 문자 및 인증번호가 사용자에게 발송되고 무인택배보관함에서 인증번호를 입력 후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이용료는 택배업체의 물품 보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찾아가면 무료이며, 시간이 초과 될 경우 24시간마다 1천원의 요금을 카드로 결제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다.

성범죄 안심에서 시민의 편의성 증대까지, 파주시민안심 무인택배보관함으로

1 · 2인 가구 비율



2017년 일반가구
가구원수 현황



[데이터출처: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의 초기 설치 배경이었던 여성범죄 예방 효과에서 더 나아가 파주시민이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비대면으로 수령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편의성 증대 역할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는 무인택배보관함 서비스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등 파주 전체 시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여성안심도시 파주'실현과 더불어 파주시민의 행복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산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94 1번출구 1층 내부

금촌역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93 승차권 자동발매기 옆

운정역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길 368 2번 출구 방향 내부

야당역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0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옆 외부

부서명 여성가족과 | 담당자 한예원(940-8681)

8 안심귀가 마을버스 사업 시행

파주시 마을버스, 심야시간 안전한 귀갓길을 만든다

2018. 12. 18.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협약 체결

2019. 1. 2.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개시



안심귀가 마을버스

안전한 귀갓길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늦은 밤에는 인적이 드물어지기 마련이고 그런 곳은 범죄에 취약하다. 때문에 사람들은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런 곳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늦은 시간 인적 드문 곳이 불안하다고 집에 안 들어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아이디어를 냈다.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할 때 정류소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집 가까운 곳에서 내리면 인적 드문 곳을 덜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심야시간대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로 중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 하차시켜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인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 지게 됐다.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지역 선정과 시행

버스 노선 모든 구간을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류소

아닌 곳에서의 잦은 정차는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이용 승객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파주경찰서 및 파주시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함께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24개 지역을 파악하고 이중 마을버스가 미운행하는 15곳을 제외하고 9곳을 시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후 시는 「안심귀가 마을버스」 시행을 위해 2018년 12월 18일 선정된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수업체 5곳과 운행협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1월 2일 부터 운행을 개시했다. 대상 노선은 082번 마을버스 등 8개 노선이며 운영시간은 22시부터 막차시간까지이다.(일부지역은 21시부터)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구간

업체명	노선번호	운행대수	운영시간	전체 운행지역	안심귀가 운행구간
한일운수	082	3	22시~막차	운정역 ↔ 동패중고	운정가구타운 ~ 도시농부
	088	1	21시~막차	금촌 ↔ 팔학골	운정역 ~ 신교하농협
					봉일천4리(삼태기말길)
	064	2	22시~막차	금촌 ↔ 장곡리	송촌토파즈
신대운여객	022	3	21시~막차	용상골 ↔ 영태리	영태5리 ~ 영태1리
	068	6	22시~막차	팜스프링A ↔ 봉일천	봉일천 푸르지오 주변
우리교통	033	4	21시~막차	유승앙브와즈 ↔ 금촌	통일초사거리 ~ 법흥1리
문산여객	058	4	22시~막차	문산 ↔ 마정리	운천리 ~ 마정리
한전운수	053	2	21시~막차	문산 ↔ 마정리	마정리 ~ 당동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큰 걸음


경인종합일보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009면 지방

파주시,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협약 체결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협약식

「안심귀가 마을버스」 시행 하나로 지역 내 모든 치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우리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 모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안심귀가 마을버스 서비스도 현재 운행 지역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지역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부서명 대중교통과 | 담당자 정승진(940-5296)

9 성인지 예산의 양적·질적 확대

성인지 예산 확대를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확충

성인지예산대상사업확대 편성 연간목표 초과 달성 (목표:5%→현재:9%)

성인지예산 교육을 통하여 대상사업을 적절하게 발굴·선정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를 도모



예산에 성인지감수성을 더하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나 지방 재원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재분배하자는 취지로 도입·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지만 성인지 예산의 도입목적과는 다르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시민들과 공무원의 낮은 인지도, 개선의지 없는 관례적인 지표 운영 등의 문제가 나타나 성인지예산 제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금까지의 형식적 성인지예산 적용의 한계를 타파하고, 성인지예산의 양적확대는 물론 다각적 협력체계를 통한 질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성평등을 고려한 예산의 배분 및 운용 확대

파주시는 성인지 예산을 통한 재정배분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2

년까지 매년 사업발굴을 통해 성인지예산을 매년 5%씩 확대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도 당초 목표치는 87건이지만 95건의 실적을 달성하여 당초보다 9% 초과 달성을 이루었으며 예산액도 2019년에 비해 25% 증가한 40,943백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반영액			사업별					
	목표	건수	예산액	양성평등정책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치단체특화사업	
2020년	87	95	40,943	42	13,701	48	20,587	5	6,655
2019년	79	91	32,555	40	11,785	44	15,728	7	5,042
증감	4	4	8,388	2	1,916	4	4,859	△2	1,613



경기도민일보 2019년 10월 07일 월요일 011면 지역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

파주시, 소속 공무원 100여명 대상으로

파주시는 지난 2일과 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한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강사 8명을 초빙해 진행됐다.

주된 내용은 사업별 성별수혜 분석을 통해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 평등 기대효과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성인지와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업무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2020년도 성인지예산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무원 대상 성인지정책 교육이 지역 성 평등 수준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다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 편성을 통해 성차별 개선과 양성평등 실효성을 거두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각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예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파주=이성훈기자

파주시가 본관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 인지적 관점을 구현하는 역량을 키워 성인지 예산 내실화에 기여

또한, 파주시는 양적확대에 그치지 않고 질적 향상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본질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성인지적 관점을 구현하여 대상 사업을 적절하게 발굴·선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강사를 초빙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여성정책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파주시 성별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여 보다 성 평등한 방향으로 사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2020 파주시 성인지 통계」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시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담당자의 성인지적 관점을 제고하여 업무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성인지예산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남녀간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정책 대상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파주시는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하여 성인지예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파주' 구현은 물론, '공평'과 '공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증진하고, 포용적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가고자 한다.

부서명 기획예산과 | 담당자 오민지(940-4064)

10
행정혁신 분야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불편함 없이 편안함을 느끼는, 평화로운 파주로 나아갑니다

남들 다하는 틀에 박힌 정책이 아니라,
파주시 특성에 맞는 수요응답형 정책을 마련하고,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행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시민에게 만족스러운 도시,
파주는 시민행복지수가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믿습니다.

1. 재정집행평가 4관왕 달성
2. 공모사업 대응전략 강화로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동력 확보
3. 전문성 강화를 통한 디자인 고도화 및 시민만족 공공건축 개선
4. 드론 활용 스마트 행정 구현
5. 시민 공감대 형성! 함께하는 좋은 조례 추진
6.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7. 소송수행 업무의 전문성 강화
8. 공공 와이파이 확충
9. 공무원 경제활성화 해법 찾는 체험교육 운영
10. 파주시 민관협치 추진
11. 파주시 갈등관리 추진
12. 맞춤형 체납실태조사 사업 추진
13.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선제적 도입

1 재정집행평가 4관왕 달성

전국 최초 4회 연속 '최우수기관'선정, 적극적·전략적 재정운용능력 입증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평가 전국 1위, 특별교부세 6,100만원 확보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평가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 확보

2019년 최종
신속집행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최초 4관왕 달성



적극적 예산운용에 효율적 예산운용을 더해 민생의 질을 높이다.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쓰이고 있는지에 큰 관심이 있을 것이다.

파주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상반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적·선제적 재정운용으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무후무, 재정집행평가 4관왕을 달성하여 월등한 재정운용 능력을 인정받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는 이러한 적극적·효율적 예산운용이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평가이다. 파주시는 2019년 상·하반기평가, 2019년 최종평가, 2020년 상반기 평가에서 전국243개 지자체 중 1위를 달성하여 특별교부세 인센티

브를 확보하고, 전국 최초로 4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재정사업 사전협의제를 실시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제고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재정집행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전년도 11~12월부터 공사설계에 착수해 당해연도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 파주시만의 재정집행 특화정책인 '클로징 10제도'를 실시하여 연말에 공사집행이 집중되던 관행을 혁파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돌파의 해결법은 선제적 재정정책

코로나19의 타격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지금, 파주시민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적극적인 재정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을 것이다. 파주시는 전 공직자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소비감소, 투자위축, 일자리감소 등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부서명 기획예산과 | 담당자 김서린(940-4066)

2 공모사업 대응전략 강화로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동력 확보

경기 FIRST 220억 등 121건 992억원 확보

2019년 상반기, 공모사업 협업시스템 구축(창구 일원화)

사전행정절차 이행완료하여 공모사업 경쟁력 강화



2018 경기FIRST 정책공모 대상 수상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

파주시의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민선7기 역점사업을 모두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市 재정상황에 매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재정 여건에 도움이 되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市의 역점 사업에 부합하는 상급기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공모사업 협업시스템 구축 및 공모사업 경쟁력 강화로 사업비 992억 확보

공모사업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 외에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부서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원활한 공모사업의 대응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공모사업 선람제 실시, PT 및 동영상 자료 제작비용 지원 등 총괄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에 부합하는 상급기관 공모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경기매일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016면 기획

▲ 최종환 파주시장

민선7기 파주의 성공 시나리오는 계속된다
파주시 2020년 성과 '대박'

■ 민선7기 3년차, 공모사업 54건 국도비 614억 원 확보

파주시는 민선7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3년째인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5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61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특히 대규모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면서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해 내년도 파주시 사업들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주요 선정사업으로는 ▲교하 연속 2021년 지자체 ITS 및 국도·지방도 준공 신호 사업 ▲2021국지도로확장 ▲3000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2021국지도로확장 ▲3년 연속 300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2021행정타운(가칭) ▲3년 연속 2000 도시주변지역 연결국지 도로사업 ▲2021국지도로확장 ▲상업단지 배정된 환영의 건립사업 ▲2021산업단지 확장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2021경기도 등이 있다.

이 같은 성과는 공모사업을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파주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민선7기에 들어 새롭게 시행 중인 '공모사업 대응전략'이 거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성공률을 높이는 파주시만의 특별한 '공모사업 대응전략'

파주시의 공모사업 대응은 철저한 업무 속에 이루어진다. 공모사업 종합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정부 및 경기도의 공모사업 일정을 꼬박꼬박 모니터링해 신규사업 시행별로 파주시만 사업을 발굴해 사업부서와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사업부서와 업무협의은 물론부서는 유형한 공모 대응의 기법에도 나가 및 분야별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제안 사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파주시, 올해 공모사업 54건 선정돼 614억 확보

코로나19 상황 속 전년보 2배 이상 국도비 확보

보다 많은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파주시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태문화도시' 파주

올해 주목할 만한 공모 성과로는 지난 10월, 경기도 주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에서 '시민과 자연이 행복한 GREEN 경기 수변생태유역 재생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번 수상은 민선7기가 시민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정책이 이뤄 낸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최종본 파주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3000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두 대상을 수상하며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시민과 자연이 행복한 GREEN 경기 수변생태유역 재생사업'은 파주시만의 특화된 공모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운정호수공원 일대는 '습지생태원, 생태문화도시 파주' 상징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대한민국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 중, 대통령상 '6년 수상'

파주시는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대외평가에서도 이런 성과를 뛰어나는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 도시 파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주관의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며 명실상부 생태수도 위상에 걸맞은 도시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 성과진행 4개 연속 최우수라는 성과들은 상징할 만하다.

그 덕택 주요 수상현황으로는 ▲2020년 대한민국 지자체만족상(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혁신대상(뉴데일) ▲혁신형 전국 기초단체장 1등 ▲베스트 주수시에 전년대비 최우수상(한국 매 베스트 상(한국일보) ▲3년 연속 2020년 백만 주 경기행복기 평가 최우수(경기도) ▲3년 연속 2020년 자치가는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한국교통연구원) ▲2년 연속 공공도서관 평가 최우수(경기도) ▲3000년 최적정보 종합평가 최우수(경기도) ▲3000년일본수도시업자 순응관리 심화업종 평가 최우수(한경협) ▲3년 연속 300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행정안전부) ▲3000년 시상평행평가 우수(경기도) 한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전이부터 우수한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공모사업 및 대외평가 성과를 보면 파주시는 목표 기능할수록 높게 최적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민선7기' 파주가 가장 고르 였다. 특히 국토교통부 주관의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며 명실상부 생태수도 위상에 걸맞은 도시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 성과진행 4개 연속 최우수라는 성과들은 상징할 만하다.

그 덕택 주요 수상현황으로는 ▲2020년 대한민국 지자체만족상(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혁신대상(뉴데일) ▲혁신형 전국 기초단체장 1등 ▲베스트 주수시에 전년대비 최우수상(한국 매 베스트 상(한국일보) ▲3년 연속 2020년 백만 주 경기행복기 평가 최우수(경기도) ▲3년 연속 2020년 자치가는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한국교통연구원) ▲2년 연속 공공도서관 평가 최우수(경기도) ▲3000년 최적정보 종합평가 최우수(경기도) ▲3000년일본수도시업자 순응관리 심화업종 평가 최우수(한경협) ▲3년 연속 300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행정안전부) ▲3000년 시상평행평가 우수(경기도) 한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전이부터 우수한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공모사업 및 대외평가 성과를 보면 파주시는 목표 기능할수록 높게 최적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민선7기' 파주가 가장

▲ 경기first 정책공모 파주시 대상수상

▲ '경기 수변생태유역 재생사업' 대상

▲ 파주시, 경기first 공모 대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협의체 구성, 소유권 확보,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 완료하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였다.

파주시만의 '공모사업 대응전략' 강화로 민선7기 역점사업 성공적 추진!!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민선7기 1년차에 46건에 191억, 2년차 52건에 417억, 3년차 현



2020 경기 FIRST 정책공모 대상 수상

재 23건에 383억 확보로 해가 거듭할수록 공모사업 성과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점차 공모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확대되고,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여건을 감안할 때,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 강화는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선7기 후반기에도 파주시 전 공직자가 힘을 합쳐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열정과, 공모 선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더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구분	민선7기 1년차 (2018.7.1.~2019.6.30.)	민선7기 2년차 (2019.7.1.~2020.6.30.)	민선7기 3년차 (2020.7.1.~2020.12.현재)
선정건수	46건	52건	23건
확보액수	191억원	417억원	383억

부서명 기획예산과 | 담당자 이준(940-5631)

3 전문성 강화를 통한 디자인 고도화 및 시민만족 공공건축 개선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건립

2019. 4. 3.
공공건축 디자인 고도화 추진 방안 수립

2019. 7. 19.
파주시 총괄 및 공공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5. 30.
2019년, 2020년 「국토교통부 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사업」 연속 선정

2020. 6. 3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정책 발표회 모범적인 市로 평가



공공건축 패러다임 변화 필요

그간 파주시 공공건축물은 획일적, 권위적 디자인과 건축설계 공모시 지역가점에 따른 지역위주 공모방식, 부정확한 근거에 따른 기획과 예산에 맞춘 설계로 건축하려는 특성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양산위주에서 민관협업에 의한 품격위주의 공공건축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공공건축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참여,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공건축 3대 혁신과제 선정 등 정책적으로 공공건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공공건축 디자인 고도화 및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파주시는 공공건축 고도화 실현을 위하여 영주시, 부산시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공공건축 고도화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공공건축 전담 T/F를 구성, 파



민간전문가 위촉



직원교육



언론보도 활용

주시 총괄 및 공공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 총괄·공공건축가를 공개모집하여 자문위원 위촉, 정책에 대한 조직 내외 공감대 형성 위한 교육실시 등 적극 추진하였다.

파주시는 공공건축 건립시 사업기획, 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부터 타당성, 경제성,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활용 및 자문지원으로 공공건축 건립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도입, 심사위원 pool 구성방식 변경, 전문회사를 통한 공모관리용역으로 설계공모 홍보를 다각화 하였다.



운영위원회



기술심사



실시설계 회의

또한 공공건축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기존 청사건립팀에서 공공건축 청사건립 T/F, 공공건축건립팀으로 단계적으로 팀을 구성하였으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공공건축기획,



전담팀 구성



전용 사무실 조성



별도 회의실 마련

원활한 예산편성·지출을 위하여 기획경제국 내 회계과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용사무실과 회의실을 조성하였다.

공공건축 고도화 1단계 성과



전략계획 수립



중점추진권역 설정

파주시는 공공건축 고도화 추진으로 국토교통부 2019 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55백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국토교통부 2020 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으로 연속 선정되어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국비 60백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축설계공모 방식 개선에 따른 설계공모 참여도가 기존 1건당 3.2개에서 35개 참여로 10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총괄·공공건축가 업무지원으로 주요 정책회의, 보고회, 심의참여, 디자인 자문 등 총 140여회 넘게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공공건축 고도화 이후 공공건축물은 정형화된 디자인에서 출판단지, 헤이리에서 볼 수 있는 민간건축물의 디자인으로 공공건축물의 패턴 변화도 일어났다.



주요 정책회의



부서 자문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 파주

공공건축 고도화 사업은 시장의 특별지시와 기획경제국 회계과에 공공건축건립 전담팀을 구성하고, 조직 확충과 조례제정, 민간전문가의 긍정적 참여, 벤치마킹, 언론홍보 적극 활용, 조직내외 공감대형성 등으로 파주시 공공건축 고도화를 단기간에 밀도 있게 추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우수 市로 평가받았다.

또한 공공건축 건립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기존 사업추진 중 문제점을 분석·개선하였으며, 사업초기 기획단계부터 총괄·공공건축가 자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주요정책과 회의, 부서자문 요청에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파주시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용역은 제한된 사업비, 용역기간, 사업지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공간환경에 대한 중점권역 설정과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으며, 확대간부회의시 전 직원을 상대로 총괄건축가가 발표하여 관련부서의 사업 발굴 및 모든 계획수립의 베이스맵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시되는 등 공간환경 전략계획 용역에 대한 유용성·확장성이 확보 되었다.

파주시는 공공건축 고도화 2단계 추진으로 공공건축가 인원을 보강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공공건축가 참여로 공공디자인을 제안하여 공공·민간 건축물 고도화 시너지 효과로 도시품격을 높여 건축이 아름다운 파주로 문화자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부서명 회계과 | 담당자 김윤성 940-3701

4 드론 활용 스마트 행정 구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혁신행정 구현

2019. 9. 9.
드론운영 전담인력 배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동영상을 업무보고에 접목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등 스마트 혁신행정 구현

자체 보유 드론을 행정업무에 도입하여 현장 밀착형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 기여



시민들의 행정욕구에 즉각 대응하는 '시민체감 신속행정' 구현을 위한 드론 도입

파주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 욕구에 즉각 대응하고 보다 시민들이 만족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대전제 아래 보다 빠른 현장 확인을 위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에 시는 보다 빠른 현장 확인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을 행정에 도입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도면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의 항공영상을 확보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밀착형 스마트 혁신행정 구현으로 시민들의 욕구 해소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파주시 전역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드론 비행, 그리고 항공촬영

파주시는 지역 특성상 휴전선 인근 지역으로 산남동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P-518)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행 및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

부, 각 사단 및 예하부대의 승인절차와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행금지구역(P-518) 내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항공 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촬영 건별로 ① 비행승인신청 ② 항공촬영신청 ③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 비행인가 ④ 각 사단 예하부대 통제관 입회 등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시는 각 사단별 책임부대 정보보안담당관 연락망을 구축하여 첫 관문인 비행승인은 대상(건)별 신청에서 기간(월별)별 신청으로 절차 개선을 이끌어 냈다. 다만 항공촬영은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사항으로 아직까지 대상(건)별 신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장 밀착형 혁신행정 구현,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한 예산절감

파주시는 2019년 9월 드론운영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드론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항공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신속한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생동감 있는 현장 밀착형 혁신행정을 구현 중에 있다.

또한, 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하여 드론운용 전담직원이 직접 촬영하고 영상편집을 통해 2020년 12월 현재까지 소리천 등 107개소를 직접 촬영하여 214백만원의 예산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 까지 이루었다.

보다 시민 지향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 기반 마련

민선7기 전반기 도입한 드론행정은 정책회의, 용역보고회, 각종 심의회, 공모사업 등 107개소에 대한 스마트 혁신행정을 통해 유비파크 활용방안 결정과 운정호수, 소리천, 공릉천 친수공간 조성계획, 상습교차로 교통개선 검토 등에 활용되어 현장 중심의 스마트 보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에 기여하였다.

시는 앞으로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시민 지향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드론 항공촬영 사례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 검토



소리천 및 운정호수공원 친수공간 조성



금촌구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



애룡호수 활성화 방안 검토



국지도56호선 산내교차로 교통량 분석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방안 검토



문산도서관 건립 검토(당동근린공원內)



서울문산고속도로 개통(금촌IC)

경인종합일보

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010면 지방

파주시, 드론 활용한 혁신행정 서비스 구현

드론 운용 전담인원 배치, 회전익 드론 2대 도입

파주시가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행정업무에 활용해 생동감 있고 보다 빠른 혁신행정 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3개 공공분야에 드론 기술을 접목한 혁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론 운용이 가능한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회전익 드론 2대를 도입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드론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조사, 재해재난, 환경감시, 관광홍보, 문화재, 공유재산, 건설현장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드론을 활용해 각종 중요 정책결정 및 인허가 등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하고 각 부서에서 현장 접근이 힘든 지형·지물이나 직접 조사가 어려운 험지 등의 신청을 받아 영상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드론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수호 파주시 기획재정국장은 "다양한 시정 분야에 드론을 활용한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드론을 적극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경기자lionghaonews.com

경기신문

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008면 지역

파주, '드론' 활용 혁신행정 박차

파주시가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행정업무에 활용해 생동감 있고 보다 빠른 혁신행정 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최근 공공분야에 드론 기술을 접목한 혁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론 운용이 가능한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회전익 드론 2대를 도입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드론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조사, 재해재난, 환경감시, 관광홍보, 문화재, 공유재산, 건설현장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드론을 활용해 각종 중요 정책결정 및 인허가 등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하고 각 부서에서 현장 접근이 힘든 지형·지물이나 직접 조사가 어려운 험지 등의 신청을 받아 영상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드론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현대일보

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010면 지방종합

파주시, 드론활용 혁신행정 서비스 구현

파주시가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행정업무에 활용해 생동감 있고 보다 빠른 혁신행정 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3개 공공분야에 드론 기술을 접목한 혁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론 운용이 가능한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회전익 드론 2대를 도입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드론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조사, 재해재난, 환경감시, 관광홍보, 문화재, 공유재산, 건설현장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드론을 활용해 각종 중요 정책결정 및 인허가 등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하고 각 부서에서 현장 접근이 힘든 지형·지물이나 직접 조사가 어려운 험지 등의 신청을 받아 영상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드론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수호 파주시 기획재정국장은 "다양한 시정 분야에 드론을 활용한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드론을 적극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안성기 기자 asg@hyundailbo.com

전국매일신문

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014면 사회

파주시 '드론 활용' 혁신행정 서비스 구현 박차

경기 파주시가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행정업무에 활용해 생동감 있고 보다 빠른 혁신행정 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공공분야에 드론 기술을 접목한 혁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론 운용이 가능한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회전익 드론 2대를 도입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드론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조사, 재해재난, 환경감시, 관광홍보, 문화재, 공유재산, 건설현장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드론을 활용해 각종 중요 정책결정 및 인허가 등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하고 각 부서에서 현장 접근이 힘든 지형·지물이나 직접 조사가 어려운 험지 등의 신청을 받아 영상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드론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파주/ 김은기기자 <ekgkim@kyonnae.co.kr>

경기매일

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001면 종합

파주시, 드론 활용한 혁신행정 서비스 박차

정책조사, 재해재난, 환경감시, 관광홍보 등 구현

파주시가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행정업무에 활용해 생동감 있고 보다 빠른 혁신행정 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3개 공공분야에 드론 기술을 접목한 혁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론 운용이 가능한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회전익 드론 2대를 도입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드론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조사, 재해재난, 환경감시, 관광홍보, 문화재, 공유재산, 건설현장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드론을 활용해 각종 중요 정책결정 및 인허가 등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하고 각 부서에서 현장 접근이 힘든 지형·지물이나 직접 조사가 어려운 험지 등의 신청을 받아 영상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드론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수호 파주시 기획재정국장은 "다양한 시정 분야에 드론을 활용한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드론을 적극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 권희태 기자

경기도민일보

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001면 종합

드론활용 혁신행정서비스 구현

파주시, 회전익 2대 도입 전담인원 배치

파주시가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행정업무에 활용해 생동감 있고 보다 빠른 혁신행정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3개 공공분야에 드론 기술을 접목한 혁신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론 운용이 가능한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회전익 드론 2대를 도입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드론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조사, 재해재난, 환경감시, 관광홍보, 문화재, 공유재산, 건설현장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드론을 활용해 각종 중요 정책결정 및 인허가 등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하고 각 부서에서 현장 접근이 힘든 지형·지물이나 직접 조사가 어려운 험지 등의 신청을 받아 영상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드론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수호 시 기획재정국장은 "다양한 시정 분야에 드론을 활용한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드론을 적극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성훈기자

부서명 기획예산과 | 담당자 김경준(940-4951)

5 시민 공감대 형성! 함께하는 좋은 조례 추진

파주가 선도하는「좋은 조례」15건 제정

2019. 9월
'좋은조례' 제정계획 수립

2020. 2. 14.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제정 공포

2020. 4. 10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제정 공포

2020. 6. 12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 공포

2020. 9. 25.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 제정공포

2020. 12. 28.
파주시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시 공약사항 등 주요정책에 대한 자체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파주시는 시대 흐름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 할 수 있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서민경제 활성화, 남북교류 협력을 선도하는 남북 평화협력 등 파주시만의 여건 및 주요시책을 연계한 조례를 발굴하여 회기별 추진 중이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좋은 조례」제정 체계 구축·운영

2019년 9월 공약 및 정책과 연계한 신규 발굴 31건, 타지자체 우수조례 18건 총 49개 대상 조례를 선정하여, 소관부서 자치법규 담당자를 지정, 의회법무과 ·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제정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중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5건의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제정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갈등관리 조례」 ▲「국어진흥 조례」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좋은조례」 추진으로 정책안정성 확보 및 시민만족 행정구현

「좋은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등의 제정으로 공약사항 등 주요정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정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만족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취약계층의 안전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과의 정책공감대 형성을 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서 협업을 통한 「좋은 조례」 제정의 지속적 추진으로 파주시 자치법규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부서명 의회법무과 | 담당자 손호윤(940-4092)

6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파주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 혁신의 결실을 맺다

2018~2019년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누구에게나 어려운 혁신, 혁신을 시도하는 파주!

누구에게나 변화는 어렵다. 특히, 공직사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파주시 공무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파주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하는 고민들이 파주를 바꾸고자 하는 혁신의 노력으로 이어졌다.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노력을 인정받다

파주의 혁신은 몇몇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파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마을살리기 사업 등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리더십을 보여준 파주시장을 비롯하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354건의 혁신아이디어를 제시한 모든 공무원들의 힘이 모아져 '파주혁신'을 만들어냈다. 또한 업무 각 분야별로 혁신동아리를 구성하여 머리를 맞대었으며, 타 기관의 우수사례의 다각적 검토를 통해 파주시정에 접목시키는 등 변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주민자치 공모사업, 국민신문고·공모전을 통한 시민제안, 시민디자인단 구성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가 '파주혁신'의 가

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두부사려 똑!똑!똑![1]」 사업을 통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 천원택시·도시형 마을버스·교통약자 맞춤형 셔틀버스 등 파주시만의 교통수단을 탄생시켰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공산부인과[2]」 개설, 주민 주도 법원읍·파주읍 도시재생 「새뜰마을」 사업[3] 등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재생을 실현하였으며, 이 밖에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파주-고양, 파주-양주 공동제설체계 구축사업」,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절차 간소화[4]」 등도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노력으로 인정받았다.



파주 천원택시 운영



공공산부인과 개설



도지재생 새뜰마을 사업



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주민자치 공모사업 실시



시민디자인단 운영

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이웃간 두부를 배달하며 이웃을 돌보는 인적안전망 구축 사업

2) 산부인과가 전무한 파주시 북부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산보건지소 공공산부인과 개설

3) 미군부대 철수 후 노후화 된 대능리, 법원리, 연풍리에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사업

4) 개발행위허가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절차 간소화(지적측량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필증 첨부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로 갈음)

내일을 준비하며, 끝나지 않을 '혁신파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활을 이롭게 바꾸자'는 일념으로 추진했던 '파주혁신',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 속 작은 혁신부터 파주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혁신까지 멈추지 않을 모두의 노력이 파주의 내일을 기대하게 한다.

부서명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준병(940-4054)

7 소송수행 업무의 전문성 강화

법률전문가 채용 및 민사소송 전담조직 편제

2019. 10. 28.
법률전문가(변호사) 채용

2020. 1. 8.
업무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던 민사소송을 의회법무과로 이관

신규채용된 법률전문가의 신속한 법률자문으로 소송대응능력 강화

민사소송 전담조직 편제로 기존 소송수행부서의 업무경감 및 소송수행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소송수행 전문성을 위한 법률전문가(변호사) 채용

소송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고 끝 내린 결론은 소송수행 업무의 일원화

그 동안 파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업무는 특정사건을 제외하고 소관업무 담당 직원이 소송대리를 해왔다. 그러나 전문적인 법적지식을 필요로하는 민사소송업무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이 담당하기에는 생소한 절차진행과 부족한 법률지식 등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적절한 대응을 하기엔 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법률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하여도 시청내에 상주하지 않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했고, 자문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소송 이외에 본연의 업무가 따로 있는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여러 절차들은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소송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송

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였다.

그렇게 하여 찾은 해결책, 첫 번째는 민사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법률자문을 위한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이었다.

소송업무 전담조직 편제 및 법률전문가 채용으로 소송수행의 전문성 강화

현재 의회법무과 소송지원팀은 파주시 민사소송업무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다. 팀원은 소송총괄팀장을 비롯하여 총 5명으로 권역별로 소송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사건 진행 내역과 법적 대응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부족한 법률 전문성을 메우고, 법적 사고력을 키워 소송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시청내 상주하는 법률전문가(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다 쉽게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송의 전문성 강화로 승소율 제고를 위한 기틀마련

민사소송업무를 일원화하여 전담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면 담당자가 소송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소송수행을 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소송의 전문성 향상을 가져와 결국 승소율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승소율의 제고는 바로 시의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다.

부서명 의회법무과 | 담당자 백진현(940-5191)

8 공공 와이파이 확충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정보통신 복지서비스 제공

버스정류장, 도서관, 행복센터,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공공 와이파이 존 구축(310개소)

파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여 시민의 데이터 통신 요금 절감 및 망 접속 시 표출되는 시정안내 홍보 효과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디지털격차 해소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에 일조할 목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도서관, 행복센터, 전통시장 등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통신 복지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파주시민에게 보편적인 정보통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설치

파주시는 시민들이 통신료 부담 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194개소, 2020년 116개소를 설치·개통하여 현재 310개소에 운영 중이다. 또한 이번에 구축한 공공 와이파이는 인증서버 도입으로 시민들이 와이파이 접속 시 시정홍보 화면에 접속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사용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와이파이 접속화면

자 접속 확인 및 장애감시시스템(NMS)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장애를 신고하기 전에 장애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사업 대상지는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도서관 이용률 등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매월 부과되는 통신료는 파주시에서 부담한다.

지속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확충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시민과 군 장병 등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원, 체육시설 등에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정보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부서명 정보통신과 | 담당자 이상준(940-4302)

9 공무원 경제활성화 해법 찾는 체험교육 운영

가치있는 소비촉진과 SNS 홍보로 지역상권 살리는데 앞장

2020년 5월
경제활성화 해법 찾는 체험교육 시행

2020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81개팀 1,099명을 대상으로 교육 운영

관내 문화·예술·관광자원 및 지역상권을 직접 체험하고 개인SNS에 1인 1건 이상 게시하여 '소비'와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결과보고 시 제출된 제안을 시정에 즉시 반영하였으며, 착한소비의 확산에 앞장 서 경제활력의 마중물역할 수행



ASF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코로나19로 모든 경제 활동이 급속도로 침체되고,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시민들은 외식도 취미도 여행도 문화도 전면적으로 멈춰 서 버리면서 소상공인들은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어둠속에서 시름하고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상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동과 사업소의 구내식당을 한 달간 강제휴무하고 2천여명의 직원들이 주변 상가를 이용하여 점심을 해결했다.
또한, 손님이 뜸해진 체험공간, 음식점, 문화·예술이 있는 곳곳을 찾아다니며, 먹고 체험한 활동들을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하면서 착한 소비운동에 앞장서고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1천여 건의 SNS 홍보와 1억원 이상의 지역경제살리는 착한 소비운동

'경제활성화 해법찾는 체험교육'은 1인 이상 ~ 8인 이하가 한 팀이 되어 '파주시' 지역 안에서 각 팀별로 체험활동을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였다. 직원들은 체험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들을 연구해서 파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건 이상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였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착한 소비를 이끈 금액은 대략 1억원이 넘는 금액이며, 내부전산망에 '소상공인 SNS 홍보릴레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홍보할 수 있게 하여 서로서로 홍보를 통한 착한소비를 응원하고 있다.

경제암흑기에 펼친 공무원들의 작은 실천은 시민들을 향한 감성행정의 시작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4월부터 계획했던 체험교육을 5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진행하면서 맛집, 체험공간, 휴식여가공간, 문화공간 등 다양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공간들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섰으며, 전직원이 홍보에 동참하 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로써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했다.

공무원들은 4월말부터 시작된 각종 재난지원금 배부에 주말도 쉬지 못하고 물 마실 틈도 없이 없이 고군분투하면서 어느 시군보다 앞선 행정을 펼치고 빠른 교부를 통해 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면서도 체험교육으로 1일 현장을 돌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임진각 곤돌라 관광
활성화 방안 제안



곤돌라 탑승시 조망되는 임진강변 논에 벼로 글씨를 써 파주시 홍보(한반도평화수도 파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제활성화 해법 찾는 체험교육'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여 하반기에도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운영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지역상생 방안을 고민하면서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공무원 역량강화와 함께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 담당자 박경선(940-4197)

10 파주시 민관협치 추진

파주형 협치, '시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내일'

2020. 2. 14.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공포

2020. 4. 17.
파주시민관협치추진계획 수립

2020. 12월 현재
파주시 민관협치협의회 구성 중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기구를 마련하여 협치에 기반한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실질적 시민참 여형 파주'를 실현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와 수평적 협력관계의 방안, 파주형 협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일방적인 시의 노력과 정책 추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였다.

과거 시민의 의견을 경청한 것에서 만족했던 행정에서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에 참여하는 실질적 시민참여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에 충실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파주형 협치 체계 구축, '시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내일'

이에 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2월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인식개선과 소통을 강조한 민관협치 추진계획을 2020년 4월 수립하였다.

파주시 협치 기반 조성 및 민관협치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0년 12월 현재 민관협치협의회 구성을 진행 중이다. 민관협치협의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외에도 관심있는 시민, 시민단체 등 전문성, 대표성, 다양성을 고려하여 시민, 시민단체 등 전

문성, 대표성,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민과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민관공동으로 집행·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의성 있는 현안, 공공의제, 신규 추진사업, 토론회 요청사항에 따른 토론회 개최 시 시민토론단을 모집하여 공론장을 통한 지역사회의 비전을 수립하고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운영을 통하여 더 많은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하고 더 많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협치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 위하여 협치의 파트너인 시민을 위한 교육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절차

토론단 의제발굴 ▶ 사업부서 검토 ▶ 분과위원회 의제 검토 및 선정 ▶ 협치위원회 의제 의결 ▶ 사업진행

예시) 시민토론단 모집



- 토론의제분야 : 건강, 환경, 문화, 교육, 복지 등
- 토 론 방 식
  특정계층 및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테이블 당 10여 명을 균형 배치해 심도 있는 결과 도출 방식
- 테이블 별로 퍼실리테이터(토론)촉진자를 배치해 협치의제들이 원활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무선투표와 웹토론 시스템 도입해 실시간으로 테이블별 의견을 공유
- 토론회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향후 관련부서와 민관협치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세부논의를 거쳐 민관협치사업으로 추진여부 검토

제안	시민 공감	부서 검토	숙의과정	결과공개
온라인시민제안 〈단순 민원성 건의는 이동〉 ※사전 동의 및 안내	20일 이내 공감 20명 이상 제안에 대하여 제안 성립	실무부서 적정 검토	분과위원회 및 민관협치협의회 심의 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공론장 : 파주시청 홈페이지 – 소통 · 참여

부서명 자치행정과 | 담당자 배진영(940-4965)

11 파주시 갈등관리 추진

파주형 갈등관리, '사전예방과 참여적 해결'

2020. 2. 14.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 공포

2020. 4. 17.
파주시갈등관리추진계획 수립

2020. 12월 현재
파주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중으로 시의 주요정책에 대 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구를 마련함으 로써 갈등업무의 효율 성 및 전문성을 제고 하 여 '파주시 종합적 갈등 관리' 기반 구축



갈등의 사전 예방과 참여적 해결의 필요성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정하고 완화하기 위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갈등해결 과정에 시민의 의사가 반 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파주시 종합적 갈등관리 기반 마련

이를 위해 시는 2020년 2월 파주시 갈등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파주시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2020년 4월 수립하였다.

2020년 12월 현재, 파주시 갈등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진행 중에 있다. 파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예방, 조정 및 해결에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 하반기 회의를 통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추진 방식이 행정중심 방식에서 시민 참여적이고 수용적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정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갈등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 담당자 배진영(940-4965)

12 맞춤형 체납실태조사 사업 추진

체납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 지원 및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

2019. 3. 4.
파주시 체납실태조사단 출범

2019. 3. ~ 2020. 12.
체납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150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여 387건의 복지 연계를 하였으며,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57억원을 징수함.



체납실태조사단 발대식 (2019. 3. 4.)

강제적인 세금징수보다는 맞춤형 징수 등 유연한 징수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그동안은 체납자의 체납사유나 납부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산 압류나 공매 등 강압적인 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징수 위주의 체납정책은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반면 고질 체납자는 감소하지 않아 오히려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이러한 획일적인 체납처분을 지양하고 납세자의 경제상활을 조사한 후 고의적 납세기피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는 복지 지원이나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보다 유연한 세금징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또한 파주시의 체납액은 820억원으로 체납자수는 10만명이며, 이중 인력부족으로 고액체납자 대비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비한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수만명에 달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파주시는 2019년부터 일반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납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납세자의 경제력 확인, 애로사항 청취,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는 체납실태조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납실태조사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웃 이웃들을 돕다!

체납실태조사단은 소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된 이유와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체납자의 집에 방문한다. 상습·고액 체납자인 경우 탈세목적이 많기 때문에 강제로 징수하지만 소액 체납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파주시 체납실태조사단은 모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데 모집 당시 은퇴한 고위직, 고학력자도 지원하였지만 경력단절여성, 청년·실버 구직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을 우대하여 선발하였다. 체납실태조사단에 필요한 사람은 어려운 이웃의 말에 함께 귀 기울여주고, 따뜻하게 공감해 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체납실태조사원이 방문한 가정 중에 모녀 가정이 있었는데 체납세금을 안내하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힘든 형편에 대해 털어놓았다. 모녀는 장애가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웠지만 복지상담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체납실태조사단은 이 가정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에 연계하였다.

물론 "이렇게 적은 돈까지 받아내러 왔냐"며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 친절하려고 노력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체납한 사실을 안내하면 깜빡했다며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체납실태조사원들은 말한다.



체납실태조사단

일자리 창출부터 복지수요자 발굴, 지방세수 증대까지, 1석3조의 효과!

체납실태조사단은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체납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청년·실버 구직자, 취업취약계층에게 150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 6만여명의 체납자들을 만나 57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잘못 부과된 세금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앞장섰다.

그리고 가장 의미 깊었던 일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수요자를 발굴하여 387건을 복지부서에 연계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방세수 증대까지, 한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체납실태조사단은 파주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 할 계획이다.

부서명 징수과 | 담당자 김민환(940-4265)

13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선제적 도입

스마트폰을 활용한 효과적인 송달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및 세수증대

2019. 5.
공공알림문자서비스 시행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 지방세 환급금 안내

2020. 1.
민방위 통지서

2020. 5.
환경개선부담금

2020. 6.
자동차세 사전납부 안내



고지서 송달방법의 변화 필요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는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2019년 5월 도입하여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로 나홀로가족, 맞벌이부부, 1인가족 증가에 따라 우편물 송달체계의 변화 필요와 바쁜 일상에서 깜박 잊고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체납내역과 납부방법 등을 전달하고자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는 우리나라 성인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현재의 생활환경에 착안하여 종전에 우편으로 보냈던 것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코로나19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비접촉으로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언택(untact)행정 시스템이다.

지방세 환급금, 체납안내 스마트폰으로 한다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는 통신사와(KT, LG, SKT) 협약을 통해 휴대폰 가입자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며, 종전의 우편발송을 대체하여 납세자의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므로 주소불명, 배달오류 등 우편물 미수신 민원을 해소하고, 분실위험이 없어 수시로 내용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확인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수신동의 및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흐름도



공공알림문자 서비스의 이용 분야로는 두가지 인데 그 중 첫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안내와 지방세 환급금 신청·안내다. 체납안내는 체납자 내역을 통신사로 전송하면 통신사 보유 전화번호와 맵핑을 통해 이미지화된 메시지가 납세자 핸드폰으로 전송되고, 납세자가 파주시에 체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지방세 환급금 안내이다. 종전에는 환급당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한 환급신청이 대부분이었으나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인이 스마트폰에서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있어 모바일로 응답을 보내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우편제작 및 발송 절차가 생략되므로 환급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우편 발송대비 약3~4일 단축되었다. 환급금의 경우 2019년 5월 이후 공공알림문자 시행결과 총 21,500여건의 환급금 지급건 중 72%가 인터넷 신청 및 ARS 신청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금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 납세자가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납세편의 개선, 징수율 향상

[기간 : 2019. 5월~12월]

구 분	2018년	2019년	비고
징 수 액	1,674백만원	2,204백만원	징수액 530백만원↑
징수건수	10,022건	20,652건	징수건수 10,630건↑
체납자수	76,821명(2018년말)	70,843명(2019년말)	체납자수 5,978명↓

⇒ 신속·정확한 송달로 징수액 530백만원, 징수건수 10,630건 증가

⇒ 공공알림문자 서비스 도입 후 2018년말 대비 체납자 수 "5,978명" 감소

※ 스마트폰시대에 부합하는 신속성, 간편성, 편리성 추구의 결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환급 안내 · 환급금 신청

구분	환급건수	환급금 지급액	미지급건수	미지급액
2019년 12월	52,205	12,737백만원	3,837건	121백만원
2018년 12월	43,374	28,625백만원	5,170건	172백만원

- (시민만족) 전화, 방문신청 없이 문자로 내용확인 후 계좌번호 직접입력
- (민원처리일수 단축) 우편발송대비 민원처리 일수 단축 : 7일 → 2일
- (업무량 감소) 안내문제작, 인쇄, 우편발송 절차 생략

⇒ 환급관련 2018년 대비 미지급건 1,333건, 미지급액 51백만원 감소

예산절감, 신속한 환급안내, 징수액 증가

공공알림문자 서비스의 발송요금(182원)은 일반우편(410원) 대비 건당 228원이 절감되어 2019년의 경우 우편요금 예산 약 5천만원이 절감되었다. 공공알림문자 발송실적은 지방세 체납안내문의 경우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17만2천여건을 발송한 결과 2018년 대비 징수액이 5억여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대비 미지급액이 5천여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종이고지서의 우편송달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실하고 효과적인 송달로 세수증대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양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납세편의와 재정확충 도모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는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로 코로나19 시대의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 서비스도 점차 비대면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70여년간 송달체계의 변화가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어온 가운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는 타 행정분야로 확대되었다. 2020년 1월 민방위통지서 발송, 2020년 5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2020년 6월 자동차세 사전납부 안내문 등 현재 3개 분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비대면 행정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비접촉 방식의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는 시민에게 신속함과 편리함을 제공하여

세무행정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파주시는 앞으로 다양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편의와 함께 시 재정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부서명 징수과 | 담당자 이종내(940-4263)

1. 수상 및 공모현황

연번	평가명	수상시기	수상등급	시상금 (백만원)	주최(주관)
125	2020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20년 11월	우수(2위)	200	경기도
126	2020년 경기도 위기 청소년 지원 유공	'20년 11월	도지사		경기도
127	2020년 제2회 국회자살예방대상	'20년 11월	국회자살 예방포럼상		국회자살예방포럼
128	2020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시군 평가	'20년 11월	장려		경기도
129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우수사례	'20년 11월	도지사		경기도
130	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	'20년 11월	우수 (장관상)	20	행정안전부
131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 선정	'20년 11월	인증	100	행정안전부
132	제20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20년 11월	입상		(사)한국생태복원협회
133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례발표회	'20년 11월	최우수		경기도
134	2020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위기이웃발굴·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두부사려 똑!똑!똑!)	'20년 11월	최우수 (도지사)		경기도
135	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CBR) 우수기관	'20년 12월	우수 (장관상)		보건복지부
136	2020년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	'20년 12월	우수	15	경기도
137	2020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시군 평가	'20년 12월	우수(3위)		경기도
138	2020년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	'20년 12월	최우수	25	환경부
139	2020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시군평가	'20년 12월	최우수	150	경기도
140	제14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20년 12월	장려상 (국립중앙 도서관장상)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141	2020년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우수 도서관	'20년 12월	우수 (1위/장관상)		한국도서관협회 (문화체육관광부)
142	2020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20년 12월	최우수 (한국교통 연구원장상)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143	2020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20년 12월	최우수	60	경기도
144	2020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	'20년 12월	최우수		경기도
145	2020년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20년 12월	우수(선정)		교육부
146	2020년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평가	'20년 12월	장려		경기도
147	2020년 경기도 토지정보 종합평가	'20년 12월	최우수		경기도

III

부 록

1. 수상 및 공모현황
2. 공약이행 추진사항
3. 파주시 주요통계
4. 파주시의 발자취
5. 언론에 비친 파주

수상 및 공모 성과

■ 대외 수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등 총 165건]

- 2019년('18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2018~2019년 2년 연속 지방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상(전국1위) 3관왕(상, 중, 하반기)
- 2019~2020년 4회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상 수상
- 2018~2020년 5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대통령상, 장관상)
- 2018~2020년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 2019~2020년 2년 연속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수상(대상, 최우수상)
- 2020년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선정
-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 경기관광특성화축제 선정

총계	2018.하반기	2019년	2020년
165건	33건	61건	71건

■ 공모성과 [경기 FIRST 220억 등 총 121건 992억원 공모사업비 확보]

- 2018년 경기 First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평평한마을」 100억
- 2019년 경기 First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임진」 20억
- 2019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35억
- 2020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 20억
- 2020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 등) 25억
- 2020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7억
- 2020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5억
-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민군 복합커뮤니티건립) 80억
- 2021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120억
- 2020년 경기 First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100억

총계	2018.하반기	2019년	2020년
121건	13건	52건	56건
99,285백만원	11,978백만원	25,773백만원	61,533백만원

■ 대외수상

2018. 7. 1 ~ 2020. 12.

연번	평가명	수상시기	수상등급	시상금 (백만원)	주최(주관)
1	2017 경기도 도로제설평가	'18년 7월	최우수	40	경기도
2	2018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18년 7월	장려상	105	행정안전부
3	2018년('17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	'18년 8월	우수 (나 등급)		행정안전부
4	2018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18년 8월	최우수	50	행정안전부
5	2018년 경기도 식품위생분야 추진사업 평가	'18년 9월	우수	20	경기도
6	2017년 경기도 기업SOS대상 평가	'18년 9월	최우수	7	경기도
7	2018 대한민국 도시대상	'18년 10월	대통령상		국토교통부
8	2018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평생학습도시 선정)	'18년 10월	선정		교육부
9	2018년 경기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18년 10월	우수	450	경기도
10	2018년 도서관 우수 독서프로그램 사업	'18년 11월	우수	0.5	한국도서관협회
11	2018년 경기도 농정업무평가	'18년 11월	우수	15	경기도
12	2018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18년 11월	선정		행정안전부
13	2018년 감염병관리 유공	'18년 11월	장관		질병관리본부
14	2017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18년 11월	최우수		환경부
15	행복e음 핵심요원 활동 유공	'18년 11월	장관		보건복지부
16	2018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18년 12월	장관		행정안전부
17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사외보부문 기획대상)	'18년 12월	기획대상 (한국사보협회장상)		(사)한국사보협회
18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블로그 및 카페부문 최우수 이벤트 블로그상)	'18년 12월	최우수상 (한국사보협회장상)		(사)한국사보협회
19	2018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18년 12월	우수	40	경기도
20	2018 위반건축물 정비	'18년 12월	우수		경기도
21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18년 12월	장관	150	행정안전부
22	2018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우수기관 평가	'18년 12월	최우수		경기도
23	201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평가	'18년 12월	우수	15	경기도
24	2018 경기도 건축물품질 무한돌봄 사업	'18년 12월	최우수		경기도

1. 수상 및 공모현황

연번	평가명	수상시기	수상등급	시상금 (백만원)	주최(주관)
25	제8회 대한민국 한류대상	'18년 12월	문화관광 대상		(사)한류문화산업포럼
26	2018 지역복지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18년 12월	우수	20	보건복지부
27	웹어워드코리아 2018 (홈페이지 지방자치기관분야)	'18년 12월	최우수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28	2018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	'18년 12월	우수	10	환경부
29	2018년 우수농업기술센터	'18년 12월	장려	1	농촌진흥청
30	2018년 경기도 산림보호분야 유공	'18년 12월	장려		경기도
31	2018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18년 12월	장려	50	행정안전부
32	2019 경기관광대표 축제	'18년 12월	선정		경기도
33	2018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18년 12월	장관	8.5	보건복지부
34	2018 후반기 우수행정 정책사례 (엄마품 동산 조성 / 심폐소생술 체험자 등본 무료 발급)	'19년 1월	우수		(사)한국행정학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5	201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19년 1월	양호		행정안전부
36	2019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대상	'19년 2월	선정		한국축제콘텐츠협회
37	2019 문화관광축제	'19년 2월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38	2019 대한민국 기자가 뽑은 지자체장 대상 (지방자치평화 부문)	'19년 2월	대상		한국지역언론인클럽
39	2018 경기도 농촌지도사업평가(기술보급 분야)	'19년 3월	우수	3	경기도
40	2019 경기도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평가	'19년 3월	최우수		경기도
41	2019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19년 4월	노력	25	경기도
42	2019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19년 4월	장려	7	경기도
43	2018 경기도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19년 4월	최우수		경기도
44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	'19년 4월	우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45	2018년 도서관 상주작가지원사업	'19년 5월	최우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6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19년 5월	입선	3	경기도
47	2018년도 교통문화 우수도시	'19년 6월	우수	1	한국교통안전공단
48	2018 경기도 도로제설 종합평가	'19년 6월	장려	10	경기도
49	2018년 경기도 겨울철 사전대비 시군포상	'19년 6월	우수		경기도
50	2019 경기도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	'19년 6월	우수	2	경기도

연번	평가명	수상시기	수상등급	시상금 (백만원)	주최(주관)
51	2019년 경기도 기업SOS 대상 평가	'19년 7월	노력상	2	경기도
52	2019년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대상	'19년 7월	최우수상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조직위원회
53	제8회 경기도 청렴대상 평가	'19년 7월	장려상	5	경기도
54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19년 7월	최우수상	61	행정안전부
55	2019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휴먼 in PAJU 시민채록단)	'19년 7월	우수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56	2019년 경기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시군 평가	'19년 7월	우수상	8	경기도
57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	'19년 7월	가등급	70	행정안전부
58	2019년 비상대비 확립 우수기관	'19년 8월	국무총리상	1.1	행정안전부
59	소셜아이어워드 2019 Finalist	'19년 9월	최우수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60	2019년 경기도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19년 9월	도지사		경기도
61	2019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시군	'19년 9월	장려상	4	경기도
62	2019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19년 10월	우수상		행정안전부
63	2019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19년 10월	장관상		국토교통부
64	2019년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19년 10월	동상	0.5	행정안전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65	2019 우수브랜드만족 대상	'19년 10월	수상		중부일보
66	2019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두부사려 똑!똑!똑!)	'19년 11월	장관상	1	행정안전부
67	2019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두부사려 똑!똑!똑!)	'19년 11월	최우수상	1.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68	2019년 경기도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19년 11월	최우수상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69	2019년 경인히트상품(교통복지분야)	'19년 11월	선정		경인일보
70	2019년 명상숲 우수사례	'19년 11월	우수상	1	산림청
71	2019년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우수 도서관	'19년 11월	우수상 (협회장상)		한국도서관협회 (문화체육관광부)
72	2019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사업 표창	'19년 11월	대표상		국회 자살예방포럼
73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중간평가	'19년 11월	우수	150	행정안전부
74	2019 경기도 정책기획 발굴 우수기관 (휴먼 in PAJU 시민채록단/안전경계석)	'19년 12월	우수상		경기도
75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재정사업 체질개선, 효율 UP!, 낭비 DOWN!)	'19년 12월	우수상 (장관상)	150	행정안전부

1. 수상 및 공모현황

연번	평가명	수상시기	수상등급	시상금 (백만원)	주최(주관)
76	2018 기금운영 성과 평가	'19년 12월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77	2019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19년 12월	장려상	150	경기도
78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19년 12월	장려상	50	행정안전부
79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기관협업을 통한 토지분할 허가 절차 간소화)	'19년 12월	장관상	1	행정안전부
80	2019년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평가	'19년 12월	장관상		행정안전부
81	2019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19년 12월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100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82	2019년 경기도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19년 12월	최우수상		경기도
83	2019년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19년 12월	우수		경기도
84	2019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시군평가	'19년 12월	최우수상	15	경기도
85	2019년 제7회 등산트레킹문화 개선 경진대회	'19년 12월	최우수상	1.5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86	2019년 경기도 옥외광고업무 평가	'19년 12월	장관상		행정안전부
87	2019년 경기도 공공도서관평가	'19년 12월	특별상		경기도
88	2019년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19년 12월	우수상	40	경기도
89	「2019년 산림보호분야 유공 산림청장 표창」	'19년 12월	우수기관	1	산림청
90	「2019년 경기도 산림정책 우수 시·군」	'19년 12월	모범		경기도
91	2019 경기도 자전거 활성화 정책평가	'19년 12월	우수	15	경기도
92	2020 경기관광 대표축제	'19년 12월	선정		경기도
93	2019년 경기도 정원문화발전 유공	'19년 12월	도지사		경기도
94	2019년 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사업	'19년 12월	우수상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95	2019년 민원서비스 평가	'20년 1월	가등급	50	행정안전부
96	201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20년 1월	양호		행정안전부
97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20년 2월	최우수상	400	행정안전부
98	2020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20년 2월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99	2020 경기관광특성화축제	'20년 2월	선정		경기도
100	2019 경기도 하천불법 근절대책 추진평가	'20년 2월	우수	10	경기도

연번	평가명	수상시기	수상등급	시상금 (백만원)	주최(주관)
101	2020년(2019실적) 경기도 지방세정운영 평가	'20년 3월	노력상	25	경기도
102	2019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추진	'20년 5월	장관상		행정안전부
103	제2회 한국문화가치대상	'20년 5월	최우수상		한국문화가치 연구협회
104	경기도 환경대상	'20년 5월	최우수		경기도
105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20년 5월	우수		행정안전부
106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20년 5월	우수(A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 본부
107	'19년~'20년 경기도 겨울철 도로제설 평가	'20년 7월	우수	30	경기도
108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20년 7월	최우수	80	행정안전부
109	2020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시군	'20년 7월	장려상	3	경기도
110	2020년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20년 8월	도지사		경기도
111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20년 8월	대상		한국자치발전연구원
112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유공	'20년 8월	선정		행정안전부
113	제11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두부사려 똑!똑!똑!)	'20년 9월	최우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 본부
114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정책 선정 (두부사려 똑!똑!똑!)	'20년 9월	선정		경기도
115	2020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20년 9월	도지사		경기도
116	2019년도 교통문화 우수도시	'20년 9월	2위 (이사장상)		한국교통안전공단
117	2020년('19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	'20년 10월	우수 (나 등급)		행정안전부
118	2020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20년 10월	특별상 (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국토교통부
119	2020 고객만족브랜드대상 (천원택시)	'20년 10월	수상		중부일보
120	2020년 제9회 에코시티 친환경도시대상	'20년 11월	수상 (자원순환 도시)		(사)한국환경정보연구 센터
121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20년 11월	최우수상		머니투데이
122	2020 경인 히트상품 (급변하는 관광산업시대를 선도하는 파주 관광)	'20년 11월	수상		경인일보
123	2020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20년 11월	우수(장관상)	50	행정안전부
124	2020년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	'20년 11월	장려	7.5	경기도

연번	평가명	수상시기	수상등급	시상금 (백만원)	주최(주관)
148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20년 12월	우수 (장관상)		국토교통부
149	2020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20년 12월	장려		경기도
150	2020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통계조사 부문)	'20년 12월	장관상		통계청
151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유공	20년 12월	장관상		보건복지부
152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우수 지자체	20년 12월	도지사		경기도
153	2020년 경기도 민관협력 우수시군 평가	'20년 12월	우수	10	경기도
154	2020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평가	'20년 12월	우수		경기도
155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20년 12월	장관상	1	보건복지부
156	2020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20년 12월	장관상	1	보건복지부
157	2020년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유공	'20년 12월	우수 (유공기관 선정)		경기도
158	2020년 경기도 독서문화진흥 유공	'20년 12월	우수 (유공기관 선정)		경기도
159	2020년 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수행	'20년 12월	우수 (원장상)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160	2020년 건축사 재능기부(무한돌봄) 사업 평가	'20년 12월	우수		경기도
161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0년 12월	우수	50	행정안전부
162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 행정부문)	'20년 12월	대상		(사)한국신문방송인 클럽
163	2020년 위기관리 업무 유공	'20년 12월	유공	0	행정안전부
164	2020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20년 12월	우수	20	행정안전부
165	2020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20년 12월	대통령 기관표창		행정안전부

1. 수상 및 공모현황

■ 공모성과

2018. 7. 1. ~ 2020. 12.

연번	공모사업명	선정시기	국도비확보액 (백만원)	주최(주관)
1	국민디지인단 특교세 지원과제 선정	'18년 7월	30	행정안전부
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문화관광형 육성사업)	'18년 7월	430	중소벤처기업부
3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지원	'18년 7월	4.7	문화체육관광부
4	생생문화재 사업	'18년 9월	35	문화재청
5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8년 9월	38	문화재청
6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18년 9월	22	문화재청
7	인문독서아카데미 상반기 우수기관 특강비 지원	'18년 9월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8	도서관 상주작가지원사업	'18년 10월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2018년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18년 11월	700	환경부
10	2019년 제7회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18년 11월	600	경기도
11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	'18년 12월	20	문화재청
12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18년 12월	10,000	경기도
13	2019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18년 12월	80	경기도
14	2019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보조사업	'19년 1월	4.4	국립장애인도서관
15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2060 브랜드숍 매니저 양성과정)	'19년 1월	100	고용노동부
16	2019 공영버스 확대사업	'19년 1월	31.1	경기도
17	2019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공모사업	'19년 2월	500	환경부
18	2019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시범사업 운영도서관 선정	'19년 2월	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9	2019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19년 2월	2.2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20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	'19년 2월	60	경기도
21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2019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19년 2월	35.5	고용노동부
22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 기숙사 임차료 지원)	'19년 2월	861	고용노동부

연번	공모사업명	선정시기	국도비확보액 (백만원)	주최(주관)
23	2019 평생학습관 지정기관 공모사업	'19년 2월	6	경기도 교육청
24	2019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19년 2월	2.9	문화체육관광부
25	2019 경기은빛독서나눔이	'19년 3월	13.9	경기도
26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19년 3월	62.2	경기도
27	2019 진로독서문화 프로그램	'19년 3월	7.7	경기도
28	2019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 공모 (파주시스포츠센터)	'19년 3월	170	문화체육관광부
29	2019 인문독서아카데미	'19년 4월	19.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0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19년 4월	4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1	2019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19년 4월	3,500	국토교통부
32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19년 4월	300	문화체육관광부
33	2019년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19년 4월	50	행정안전부
34	2019 아동 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안전시설 개선사업	'19년 4월	24	경기도
35	2019년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만들기'	'19년 4월	68	경기도
36	2019 길 위의 인문학	'19년 4월	20	한국도서관협회
37	2019년 시군 지역특화사업	'19년 4월	14	경기도
38	2019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19년 4월	90	경기도
39	2019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모	'19년 4월	11.1	경기도
40	2019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	'19년 5월	175	경기도
41	2019 신나는 예술여행	'19년 5월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2	2019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19년 5월	300	행정안전부
43	2019 총괄·공공건축가와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지원 사업	'19년 5월	255	국토교통부
44	2019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	'19년 6월	400	문화체육관광부

1. 수상 및 공모현황

연번	공모사업명	선정시기	국도비확보액 (백만원)	주최(주관)
45	2019년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지원	'19년 6월	12	문화체육관광부
46	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19년 6월	22.8	행정안전부
47	2019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	'19년 7월	20	경기도
48	2020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이등병마을 / 편지길 조성 /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19년 8월	2,500	행정안전부
49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9년 8월	600	국토교통부
50	「내생애첫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도서관 선정	'19년 9월		경기도
51	2020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19년 9월	86	문화재청
52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	'19년 9월	60	문화재청
53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	'19년 9월	2,000	경기도
54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19년 9월	176	중소벤처기업부
55	2020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 (청석스포츠센터)	'19년 9월	175	문화체육관광부
56	2020년 지자체 ITS 국고 보조사업	'19년 9월	3,932	국토교통부
57	2020년 국도 감응신호 국고 보조사업	'19년 9월	1,451	국토교통부
58	2020년 지방도 감응신호 국고 보조사업	'19년 9월	576	국토교통부
59	2020년 경기도 마을정원사업	'19년 10월	75	경기도
60	논 타작물 단지화 시범지역	'19년 11월	265	농림축산식품부
61	노지스마트영농모델 개발	'19년 10월	300	농림축산식품부
62	2020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수행기관 공모	'19년 12월	50	여성가족부
63	2020년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수행기관 공모	'19년 12월	25	여성가족부
64	2020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규 수행기관 선정	'19년 12월	13.1	보건복지부
65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19년 12월	6,300	경기도
66	2020년 경기도 시군 지역특화사업	'20년 1월	48.3	경기도

연번	공모사업명	선정시기	국도비확보액 (백만원)	주최(주관)
67	2020 진로독서문화 프로그램	'20년 2월	9.3	경기도
68	2020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0년 2월	206	고용노동부
69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20년 2월	191	고용노동부
70	2020년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조성	'20년 2월	10	경기도
71	2020년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20년 2월	1,800	산림청
72	2020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20년 2월	3	문화체육관광부
73	2020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20년 2월	2.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74	2020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20년 2월	35	보건복지부
75	2020년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	'20년 2월	105	농림축산식품부
76	2020년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공모	'20년 3월	5	교육부
77	2020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20년 3월	13.9	경기도
78	2020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운영도서관 선정(강사지원)	'20년 3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79	2020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20년 3월	105	경기도
80	2020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년 3월	2,710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81	2020년 경기도형 YES산단 육성사업	'20년 3월	300	경기도
82	2020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0년 4월	24.5	교육부
83	2020 인문독서아카데미	'20년 4월	9.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84	2020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20년 4월	4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85	2020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시군 공모	'20년 4월	30	경기도
86	2020년 공공체육시설 內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	'20년 4월	15	경기도
87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사업	'20년 4월	2,000	경기도
88	2020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20년 4월	60	국토교통부

1. 수상 및 공모현황

연번	공모사업명	선정시기	국도비확보액 (백만원)	주최(주관)
89	2020 길위의 인문학	'20년 5월	36	한국도서관협회
90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 공모	'20년 5월	100	행정안전부
91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	'20년 5월	400	행정안전부
92	2020년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사업 공모	'20년 5월	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93	2020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20년 5월	2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4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0년 5월	2500	산업통상자원부
95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	'20년 5월	100	경기도
96	2020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공모	'20년 5월	10,850	국토교통부
97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20년 6월	795.6	경기도
98	2020년 도서관 지혜학교	'20년 6월	14.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99	2020년 시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0년 7월	78	보건복지부
10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20년 7월	79	행정안전부
101	2020년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지원 사업	'20년 8월	78	경기도
102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민군 복합커뮤니티 건립)	'20년 8월	8,000	행정안전부
103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눈 내리는 초리골)	'20년 8월	400	행정안전부
104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0년 9월	266	국토교통부
105	2021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20년 9월	12,000	국토교통부
106	2021년 국도 감응신호 국고보조사업	'20년 9월	654	국토교통부
107	2021년 광역BIS 국고보조사업	'20년 9월	300	국토교통부
108	2021년 농산물안전분석실 신규사업	'20년 9월	500	농촌진흥청
109	2020년 공공도서관 비대면 메이커 프로그램 공모	'20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110	2021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	'20년 9월	750	문화체육관광부

연번	공모사업명	선정시기	국도비확보액 (백만원)	주최(주관)
111	2021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20년 9월	103	문화재청
112	2021년 생생문화재 사업	'20년 9월	48	문화재청
113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	'20년 10월	10,000	경기도
114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0년 10월	241.5	고용노동부
115	2021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0년 10월	45	보건복지부
116	2021년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20년 10월	120	산림청
117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20년 11월	123	산림청
118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20년 1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119	2020년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20년 12월	500	경기도
120	2021년 문화시설 확충사업(문산중앙도서관 건립)	'20년 12월	4,000	문화체육관광부
121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20년 12월	104	국토교통부

2. 공약이행 추진사항

민선7기 공약이행

2020. 12. 30.기준

■주요경과

'18.12월 공약 확정 심의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 170개 공약 확정

'19.04월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우수

'19.07월 제10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우수

'20.05월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우수

'20.09월 제11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최우수

'20. 11월 공약 이행 심의 (파주시 공약이행 평가단)

'20. 12월 공약이행 현황 점검 (파주시 주민배심원 회의)



■ 완료사업 현황

'18년 완료 (5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일 채움공제 추진	마장호수 주차장 등 콘텐츠 추가시설 도입
	지역 고유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강화
	운정호수공원 평화 불꽃축제 개최	
'19년 완료 (44건)	뮤지컬 '도보다리'공연 추진	탄현면 체육공원(시설) 설치 추진
	북한군, 중국군 묘지 활용한 관광밸트화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 겨울철 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지역청년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인하
	상생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GTX-A노선 연내 착공 및 차질 없는 완공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	조리읍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따복버스 증설 및 천원택시 신설
	월롱 도심상권 활성화(젊음의 디지털문화 거리 조성)	(월롱면)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주차환경 개선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공론화 통한 재추진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
	지식기반산업벤처기업 창업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추진
	적성일반산업단지 확장 추진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신석기유적지 공원화 추진	접경지역 교육인프라 확대
	통일동산지구 활성화 추진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급식, 통학버스 지원
	학교,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	초등학교 1학년 투명우산 보급
	읍·면사무소 소재지 중심 지역생활권 육성	공기청정기 확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군내면)마을 단위 소형 LPG저장탱크 사업 추진	학교시설 개선 전수조사 및 4개년 계획 수립
	소규모 학교, 6차 산업 연계로 특성화	(문산읍)대학수능시험장 유치
	행복주택 조기 추진	(금촌동)금릉 로데오거리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센터 설치	에어바운스 풀장 등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학교 앞 교통지도 어르신 일자리 마련	경력단절 여성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파주읍)문화체육센터 추진	여성폭력 근절, 성평등 의식 확산
	(법원읍)게이트볼 구장 설치	(문산읍)산부인과 개설 추진
'20년 완료 (43건)	통일경제특구 대비 스마트시티 추진	여성정책 전문위원 임용
	(금촌동)통일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환경친화적R&D단지, IT·BT중심 첨단기업 유치
	문화로, 명동로 전주 지중화사업 조기 추진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추진
	ICT·VR 활용 가상동화체험관 설치	(법원읍)부대 이전 및 군인아파트 추진
	문화역사관광벨트 조성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조리읍)체류형 공릉관광지 조성 추진	종합병원 유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성화	의료취약지역 의료시설 확충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자유로 IC~당동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추진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파크 인프라 확충	도서관 건립 추진
	낙원공원 공동묘지 등 경관 개선	군 방호벽 선별 철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립 추진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생태 친수 공간 조성
	농업용 드론 운영 과학영농 실현	탄현지구 공적임대아파트 건설 추진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이동 세탁)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소외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상대적 낙후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추진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고도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강화
	문산역~도라산역 2단계 조기 추진 및 운천역 신설	여성안전귀가(로고라이트/안심귀가버스) 시스템 조성
	교하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용미리 주민불편해소 서울시 상생협약 체결
	맥금동 버스차고지 이전	성인지 예산·정책 확대 시행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수준 서비스 향상 지원
	자우로 탄현면 진출입로 추가 설치	(광탄면)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운정동·교하동)도시계획순환도로 조기 착공	실내체육관 미설치교 건립 추진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2. 공약이행 추진사항

■ 공약지표 및 세부 추진상황

○ 총건수 : 170건 (완료 92건, 추진 중 76건, 일몰 2건)

관리번호	공 약 명	완료지표	추진실적	추진상황	추진부서
1.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8건)					
1-1	UN 제5사무국 유치	UN 제5사무국 유치 (활동)	유치활동	추진중	평화협력과
1-2	DMZ지원청 유치 추진	DMZ지원청 유치(활동)	유치활동	추진중	평화협력과
1-3	남북한 어린이·청소년 문화교류 추진	교류추진	기초자치단체 최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추진중	평화협력과
1-4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유치	면회소 유치	사업건의	추진중	평화협력과
1-5	뮤지컬 '도보다리 공연' 추진	뮤지컬 '도보다리' 공연	공연 완료	완료	문화예술과
1-6	애룡호수 주변 특수사황지역개발사업 추진	공모사업 신청	예산 반영	추진중	도시재생과
1-7	판문점을 국제평화컨벤션 센터로 조성	판문점 투어 운영	기본계획 및 관광콘텐츠 개발 완료	추진중	관광과
1-8	북한군, 중국군 묘지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념공원 준공	준공	완료	관광과
2. 통일경제도시 파주(7건)					
2-1	남북교류의 중심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법률제정 및 특구지정	법안 촉구 건의 및 의견 제출	추진중	평화협력과
2-2	군 방호벽 선별 철거	방호벽(3개소)철거	방호벽(3개소) 철거 완료	완료	평화협력과
2-3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시범프로젝트센터 설치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검토	검토중	기업지원과
2-4-①	면세점 유치 등 임진각 관광지 개발	종합관광 안내센터 준공	공사중	추진중	관광과
2-4-②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추진	곤돌라 준공	준공 및 운영	완료	관광과
2-5	리비교 주변 관광 활성화 추진	리비교 준공	용역중	추진중	관광과
2-6	남북철도 연결대비 KTX/SRT 문산 연장	국가계획 반영	용역추진	추진중	남북철도 교통과
2-7	통일 경제 특구 스마트시티 추진	1단계 구축 완료 (5대 연계서비스)	1단계 구축	완료	정보통신과

관리번호	공 약 명	완료지표	추진실적	추진상황	추진부서
3. 서민경제도시 파주(18건)					
3-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내일채움공제 추진	참여율 50%달성	113%달성	완료 (계속)	일자리경제과
3-2	지역청년일자리 확대정책 추진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조성·운영	조성완료 및 운영	완료 (계속)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 창출(60명)	일자리창출 (60명)		
3-3	상생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상생협약 및 운영자금 지원확대	협약체결 및 운전자금지원확대	완료 (계속)	일자리경제과
3-4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	지역화폐 도입 및 사용	도입 및 발행완료(확대)	완료 (계속)	일자리경제과
3-5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30% 증대	경제기업 증대 (112개→204개)	완료 (계속)	도시재생과
3-6	월롱 도심상권 활성화 (젊음의 디지털문화거리 조성)	상생협의체 구성 디지털문화거리 조성	협의체 구성 및 거리조성 완료	완료 (계속)	일자리경제과
3-7	금촌통일시장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금촌문화 난장 어울림장터 운영	장터운영	완료	도시재생과
3-8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공론화 통한 재추진	공론화 추진 및 사업 재개	공사중	완료	농업진흥과
3-9	지식기반산업벤처기업 창업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완료	기업지원과
3-10	문화로, 명동로 전주 지중화 사업 조기 추진	지중화 사업 완료	명동로 완료, 문화로 공사완료	완료	기업지원과
3-11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	지중화 사업 완료	공사중	추진중	기업지원과
3-12	운정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유치	첨단산업단지신청	산단물량 배정	추진중	통일기반 조성과
3-13	파평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파평산업단지준공	산업단지 계획승인	추진중	통일기반 조성과
3-14	적성일반산업단지 확장 추진	적성단지 확장 준공	준공	완료	통일기반 조성과
3-15	법원산업단지 조기 조성	법원산단 준공	1지구: 변경신청 2지구: 보상완료	추진중	통일기반 조성과
3-16	환경친화적 R&D단지, IT, BT중심 첨단기업 유치	R&D단지, 첨단기업 유치	투자유치	완료	통일기반 조성과
3-17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2,3단계 시행	2,3단계 행정지원	추진중	통일기반 조성과
3-18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도시전략계획 수립	추진중	도시재생과

2. 공약이행 추진사항

관리번호	공 약 명	완료지표	추진실적	추진상황	추진부서
4. 생태문화도시 파주(22건)					
4-1	지역 고유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마을문화 조성사업 추진	마을문화 조성사업 완료	완료 (계속)	문화예술과
4-2	운정호수공원 평화 불꽃축제 개최	불꽃축제 개최	불꽃축제 개최 완료	완료 (계속)	문화예술과
4-3	GTX 운정역 주변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	민간투자 유치	관련기관 협의	추진중	문화예술과
4-4	대형복합문화 공연장 및 전시장 건립	공연장 및 전시장 착공	사전절차 중	추진중	문화예술과
4-5	ICT·VR활용 가상동화체험관 설치	가상동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체험관2개소 설치 및 운영	완료	문화예술과
4-6	스토리텔링과 증강현실 기술 접목	역사·문화콘텐츠 디지털프로그램 개발	학술고증연구	추진중	문화예술과
4-7	오두산성 복원 추진	군협의 후 발굴조사 및 발굴지 정비	군협의 완료 및 시굴	추진중	문화예술과
4-8	임진강 거북선 훈련장 (임진나루,임진진터)복원 추진	거북선 훈련장 복원사업 착공	용역 중	추진중	문화예술과
4-9	율곡 이이 생가 및 화석정 정상 복원	화석정 복원 및 종가재현	학술고증 및 복원설계 중	추진중	문화예술과
4-10	신석기 유적지 공원화 추진	신석기유적 공원 조성	공원조성 완료	완료	문화예술과
4-11	소령원 개방 추진	문화재청 개방	문화재청 개방요청	추진중	문화예술과
4-12	문화역사 관광벨트 조성	문화역사 관광벨트 조성계획 수립	용역 완료 및 관광벨트 조성완료	완료	관광과
4-13	통일동산지구 활성화 추진	관광특구 지정	관광특구 지정완료	완료 (계속)	관광과
4-14	마장호수 주차장 등 콘텐츠 추가시설 도입	사업 준공	주차관리 및 시설 이용료 시스템 준공	완료	관광사업소
4—15	체류형 공릉관광지 조성 추진	사업준공	탐방로 조성완료	완료	관광과
4-16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 완료	완료	통일기반 조성과
4-17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완료	조성 완료	완료	건설과

관리번호	공 약 명	완료지표	추진실적	추진상황	추진부서
4-18 -①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환경기초시설확충(3개소) 및 생태계 복원(3개소)	3개소 확충완료 3개소 복원완료	완료	환경보전과
4-18 -②	생태 친수 공간 조성	금촌천 생태복원 준공	준공	완료	건설과
		문산천 하천정비 준공	준공	완료	
4-19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파크 인프라 확충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파크 준공	야간경관 조명공사 완료 및 개장	완료	관광사업소
4-20	청룡두천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공원조성 완료	조경설계 협의중	검토중	공원관리 사업소
4-22	유비파크 가족친화형 문화체험공간 확충	어린이 문화 체험시설 개관	사업비 확보 및 착공	공사중	회계과
5.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22건)					
5-1	교하동 주민센터 신축	주민센터 착공	부지검토중	추진중	회계과
5-2	운정3지구 성공적 개발	1·2단계 사업준공	1단계 조경공사 추진중	추진중	통일기반 조성과
5-3	커뮤니티센터 부지 조기 개발	커뮤니티센터건립 (1개소)	건립계획 검토중	검토중	회계과
5-4	학교,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확충	운정1·2지구 공공시설 토지매입	토지매입 완료	완료	통일기반 조성과
5-5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추진	특성화마을 조성	특성화마을 공모선정	완료	도시재생과
5-6	읍·면사무소 소재지 중심 지역생활권 육성	발전계획 수립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읍면별 발굴용역 수립	완료	도시재생과
5-7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개발계획 수립	계획수립중	검토중	통일기반 조성과
5-8	부대 이전 및 군인아파트 추진	부대 이전 및 군인아파트 추진	부대 이전 및 군인아파트 확정	완료	평화협력과
5-9 -①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LPG배관망 사업 추진	도시가스 보급률 80% 보급	보급률 79.52%	추진중	기업지원과
5-9 -②	신재생 에너지 공급확대 추진 (민북지역)	민북지역 신재생 에너지 보급(50가구)	민북지역 신재생 에너지 보급 (70가구)	완료	기업지원과
5-10	마을단위 소형 LPG저장탱크 사업 추진	군내면(109세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군내면 LPG 소형저장탱크보급 (124세대)	완료	기업지원과

2. 공약이행 추진사항

관리번호	공 약 명	완료지표	추진실적	추진상황	추진부서
5-11	영농형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사업 보급 지원	영농형 태양광 500kW 허가 및 연료전지 시설 확대	영농형 태양광 300kW 허가 연료전지 8,100kW 설치	추진중	기업지원과
5-12	낙원공원 공동묘지 등 경관 개선	경관식재 및 보완	경관식재	완료	노인장애인과
5-13	용미리 주민불편해소 서울시 상생협약 체결	실무협의체 구성	구성완료	완료	노인장애인과
5-14	소규모 학교, 6차 산업 연계로 특성화	6차사업연계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학교연계완료	완료 (계속)	교육지원과
5-15	탄현지구 공적임대아파트 건설 추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완료	주택과 도시개발과
5-16	행복주택 조기 추진	행복주택 준공	행복주택 준공 (법원읍)	완료	주택과
5-17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조성	상설문화공간 공사 추진	추진중	도시재생과
5-18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돌다리문화마을 조성	등거리 및 법원6리 거점 조성	추진중	도시재생과
5-19	(법원읍) 개발부담금 50%감면 추진	지방의회 승인 또는 법률개정	법률개정안 재건의	추진중	토지정보과
5-20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귀농가구유치 (연 70가구이상)	귀농가구유치 (73가구)	완료	농축산과
5-21	농업용수 확충 (민북지역, 파평, 광탄)	농업용수 확충 (2개소 준공, 1개소 착공)	1개소:기본조사 2개소:착공 및 공사	검토중	농축산과
5-22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립추진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구축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구축	완료	농업진흥과
5-23	농업용 드론 운영 과학영농실현	드론 도입 (15대)	드론 도입 (18대)	완료	기술지원과
5-25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센터 설치	사업완료 (4개소)	사업완료 (4개소)	완료	스마트농업과
5-26	LG디스플레이 방류수 자원화 추진	사업완료	사업추진 협의	추진중	농축산과
5-27	상대적 낙후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추진	규제개선 실적(10건)	11건 개선	완료	의회법무과
5-28	법원 희망 빛 축제 특화 추진	율곡문화제 연계 특화된 축제	축제추진	추진중	법원읍

관리번호	공 약 명	완료지표	추진실적	추진상황	추진부서
6.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31건)					
6-1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수당 인상 완료 및 대상확대 완료	완료	복지정책과
6-2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이동 세탁)	이동세탁서비스 확대('18년 대비 2배)	1,595가구 서비스 완료	완료	복지지원과
6-3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지원	전액지원완료	완료 (계속)	노인장애인과
6-4	학교 앞 교통지도 어르신일자리 마련	노인일자리 확대 ('18년 대비 3배)	노인일자리 확대 (96명→294명)	완료 (계속)	노인장애인과
6-5	노인복지관 편의시설 확충	복지관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	추진중	노인장애인과
6-6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리모델링 설계	계획검토	추진중	노인장애인과
6-7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복지관 준공	설계 완료	추진중	노인장애인과
6-8	장애인복지회관 환경개선	장애인무료급식소 및 재활자립장 환경개선	공사중	추진중	노인장애인과
6-9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설치 및 운영	사전절차 이행	추진중	노인장애인과
6-10	소외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장애인일자리 확대(120명)	일자리확대완료 (122명)	완료	노인장애인과
6-11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 시스템 강화	전통시장(5개소) 식품취급업소 시설개선	전통시장(3개소) 추진중	추진중	위생과
6-12	(파주읍)문화체육센터 추진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준공	준공	완료	기업지원과
6-13 -①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추진중	회계과
6-13 -②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다목적 체육관 건립	착공	추진중	체육과
6-14	교하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다목적 체육관 착공	행정절차 진행중	추진중	체육과
6-15	법원읍 게이트볼 구장 설치	게이트볼장 건립	건립 완료	완료	체육관
6-16	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배드민턴 구장 건립	공사중	추진중	체육과
6-17	탄현면 체육공원(시설) 설치 추진	탄현체육공원 설치	명칭변경	완료	체육과
6-18	야구 전용구장 건립	야구 전용구장 건립	인가 승인중	추진중	체육과
6-19	실내 족구장 설치	실내 족구장 설치	부지 선정 검토	추진중	체육과
6-20	문산 제2체육공원 추진	문산 제2체육공원 조성	부지 선정 검토	추진중	체육과 기업지원과
6-21 -①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	그늘막 설치	그늘막 설치 (137개소)	완료	안전총괄과

2. 공약이행 추진사항

관리번호	공 약 명	완료지표	추진실적	추진상황	추진부서
6-21 -②	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바람막이 설치	바람막이 설치 (280개소)	완료	안전총괄과
6-22	특정관리대상시설물(3종)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강화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관리	지정완료 및 지속점검	완료 (계속)	안전총괄과
6-23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인하	관리비 확대 지원	조례개정 및 대상 확대	완료	주택과
6-24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고도화	대기오염측정망(1), 전광판(2),신호등(32)설치	대기오염측정망(1), 전광판(2),신호등 (35)설치 완료	완료	환경보전과
6-25 -①	SRF(고형폐기물)발전소 중단	SRF(고형폐기물)발전소 중단	동향 파악	추진중	기업지원과
6-25 -②	거주지 주변 동물화장장 중단	행정소송 승소 또는 제척기간 경과	행정소송 대응	추진중	농축산과
6-26	종합병원 유치	종합병원 유치	종합병원 유치	완료	통일기반 조성과
6-27	의료취약지역 의료시설 확충	의료취약지역 의료시설 확충	시설확충완료	완료	보건행정과
6-28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운정 광역보건지소 건립	기본설계	추진중	보건행정과
6-29	파주북부 주민에게 안전한수돗물 제공	원수대체 급수체계 조성공사 착공	설계착수	추진중	상수도과
6-30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광탄면)	환경부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고보조사업반영 및 공사추진	완료	하수도과
6-31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시설공사 착공	국비신청 및 타당성 조사서 제출	추진중	자원순환과
7. 대중교통 혁신도시 파주(25건)					
7-1	GTX-A 노선 연내 착공 및 차질없는 완공	GTX 착공	GTX 공사중	완료	남북철도 교통과
7-2	GTX-A노선과 SRT연계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용역 검토중	검토중	남북철도 교통과
7-3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추진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민자적격성 조사 신청	추진중	남북철도 교통과
7-4	통일로선(금촌~삼송)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가계획 반영	계획 반영 건의	추진중	남북철도 교통과
7-5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차 및 야당역 급행열차 정차	급행열차 운행개선	관계기관 협의	추진중	남북철도 교통과
7-6	문산역~도라산역 2단계 조기 추진 및 운천역 신설	1단계 준공, 2단계 착공	1단계 준공, 2단계 착공	완료	남북철도 교통과

관리번호	공 약 명	완료지표	추진실적	추진상황	추진부서
7-7	제2자유로 법곳·강매IC 도로정체 개선	도로정체 개선	법곳:개선착공 강매:개선준공	추진중	남북철도교통과
7-8	종합적인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완료(2회) 및 교통계획 수립	1차용역 완료	추진중	대중교통과
7-9	교하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완료	대중교통과
7-10	조리읍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	운송 개시	운송개시 및 운행	완료 (계속)	대중교통과
7-11	맥금동 버스차고지 이전	운송개시	운송개시 및 지속협의	완료	대중교통과
7-12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준공영제 시행	준공영제 시행	완료	대중교통과
7-13	맞춤형버스 증설 및 천원택시 신설	운송개시	운송개시	완료	대중교통과
7-14	문산~법원(78호선) 4차선 확장	선유리구간 착공	보상진행	추진중	건설과
7-15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조기 개통	파주~양주구간 조기 개통(임기후)	공정률 11%	추진중	건설과
7-16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추가 설치	진출입로 설치 완료	진출입로 설치 완료	완료	건설과
7-17	갈현~축현 간 359번 지방도 확포장 조기추진	갈현~축현 준공	실시설계	추진중	건설과
7-18	야당역~운정역 간 순환도로 개설	야당역~운정역 순환도로 준공	보상진행	추진중	건설과
7-19	도시계획순환도로 조기 착공	야당동~상지석간 연결도로 준공	준공	완료	건설과
7-20	문산천 정비 및 문산~내포 도로 확포장	문산천 정비 준공	공사 준공	추진중	건설과
		문산~내포 준공	공사중		
7-21	자유로IC~당동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추진	시도23호선 개설	공사준공	완료	건설과
7-22	월롱~광탄 360번 도로 신설 추진	2단계 공사 착공	실시설계 (2단계)	추진중	건설과
7-23	야당역 환승주차장 확충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착공	추진중	도시경관과
7-24	운정신도시 상업부지 내 주차공간 확충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착공	추진중	도시경관과

2. 공약이행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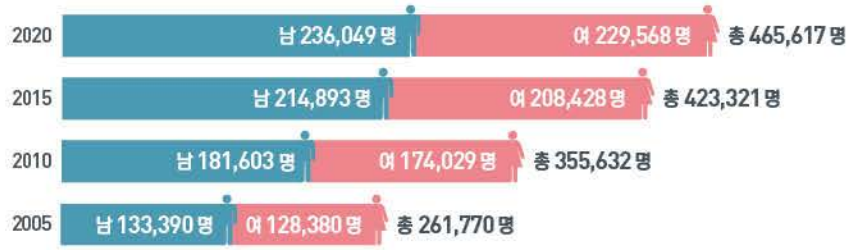
관리번호	공 약 명	완료지표	추진실적	추진상황	추진부서
7-25	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주차환경 개선	주차환경 개선	주차환경 개선	완료	도시경관과
8.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 (24건)					
8-1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강화	돌봄시설 확충 (4개소)	돌봄시설 확충 (4개소)	완료	여성가족과
8-2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수준 서비스 향상 지원	민간보육시설 고품질 보육을 위한 자원 강화	신규사업(3개) 지원	완료	보육청소년과
8-3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부모부담 경감	부모부담경감을 위한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3,722백만원)	완료 (계속)	보육청소년과
8-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추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협약 체결 지급	협약체결 지급 (112백만원)	완료 (계속)	보육청소년과
8-5	파주교육예산 단계적 증액	교육예산 3%이상 달성 및 유지	교육예산 2.86%달성	추진중	교육지원과
8-6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혁신교육지구 지정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사업운영	완료	교육지원과
8-7	접경지역 교육인프라 확대	접경지역 교육 인프라확대 지원	사업확대지원	완료 (계속)	교육지원과
8-8	야당동, 상지석동 학교설립 추진	학교 설립	행정적지원 추진	검토중	교육지원과
8-9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급식, 통학버스 지원	교복비·무상급식,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교복비·무상급식,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완료 (계속)	교육지원과
8-10	초등학교 1학년 투명우산 보급	투명우산 보급지원	투명우산(초1) 보급 완료	완료 (계속)	교육지원과
8-11	실내체육관 미설치교 건립 추진	실내체육관 건립 (12개교)	건립비 지원 (17개교)	완료	교육지원과
8-12	공기청정기 확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초등학교 전체 설치 완료	초등학교 전체 설치 완료	완료	교육지원과
8-13	학교시설 개선 전수조사 및 4개년 계획 수립	4개년 계획 수립	전수조사 및 계획 수립 완료	완료	교육지원과
8-14	대학수능시험장 유치(문산읍)	대학수능 시험장 유치	유치완료	완료	교육지원과
8-15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정상 개교	폴리텍대학 정상개교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중	교육지원과
8-17	도서관 건립 추진	도서관건립 (4개소)	4개소 건립완료	완료	교육지원과

관리번호	공 약 명	완료지표	추진실적	추진상황	추진부서
8-18	파주북부 거점도서관 건립 (문산읍)	도서관 착공	행정절차중	추진중	교육지원과
8-19	광탄도서관 건립	도서관 건립 및 개관	건축협의	추진중	교육지원과
8-20	금릉 로데오거리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문화거리 조성	문화거리 조성	완료	보육청소년과
8-21	파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수련관 준공	디자인 및 설계 공모	추진중	보육청소년과
8-22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옐로카펫 등 3개 사업 설치완료(164개소)	옐로카펫 등 3개 사업 설치완료 (165개소)	완료	대중교통과
8-23	에어바운스 풀장 등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물놀이터 확대 설치	설치 완료 (2개소)	완료 (계속)	공원관리 사업소
8-2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치과주치의제 시행	치과주치의제 시행('19. 5. 1.)	완료 (계속)	보건행정과
9. 여성행복도시 파주 (7건)					
9-1	여성정책 전문위원 임용	여성정책 전문위원 임용	임용(1명)	완료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9-2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취업률 55%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취업률 89%	완료 (계속)	여성가족과
9-3	영유아 보육 공공성 확보로 경력단절 방지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평가인증합동 컨설팅(53개소)	추진중	보육청소년과
		부모모니터링단운영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확대(193명)		
		보육교직원보수 교육확대(240명)	보육교직원보수 교육(65명)		
9-4	여성폭력 근절, 성평등의식 확산	시민대상 성인지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완료 (계속)	여성가족과
9-5 -①	여성안전귀가 시스템 조성	환경개선 22개소	환경개선 완료 331개소	완료	여성가족과
9-5 -②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완료	대중교통과
9-6	산부인과 개설 추진(문산읍)	산부인과 개설	산부인과 개설	완료 (계속)	문산보건지소
9-7	성인지 예산·정책 확대 시행	성인지예산25%확대 ('18년 75건 대비)	대상사업 95건 확대 시행	완료	기획예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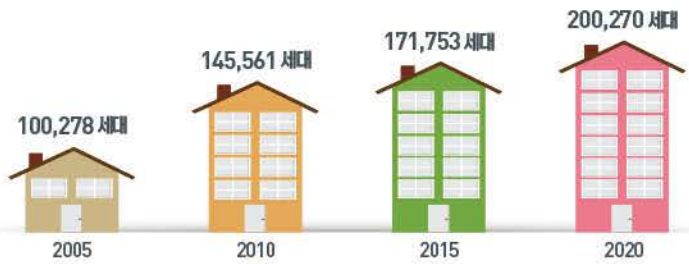
1. 인 구

(2020. 12. 31.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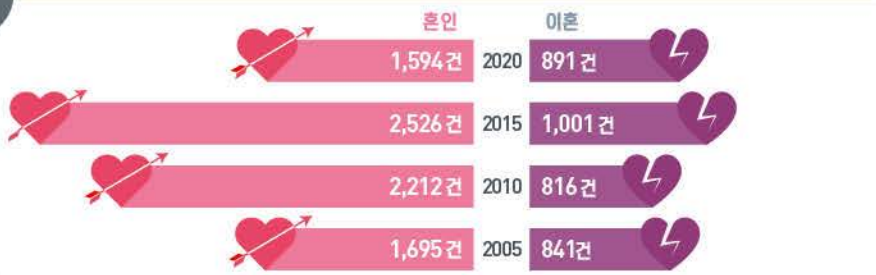
연별 인구



세대



혼인 이혼



출생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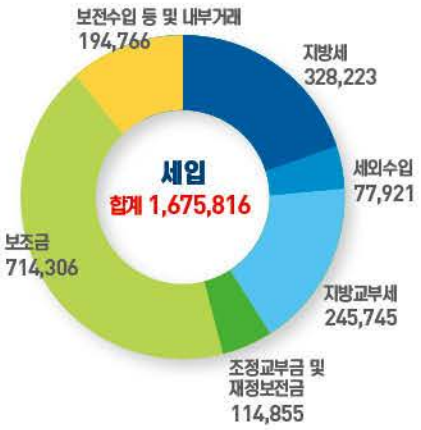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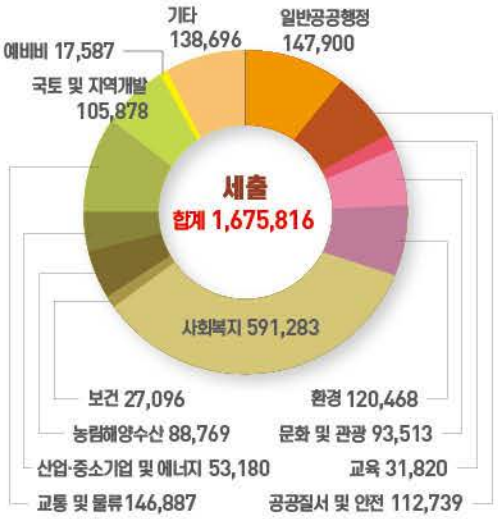
2. 재 정

(2020. 12. 31. 기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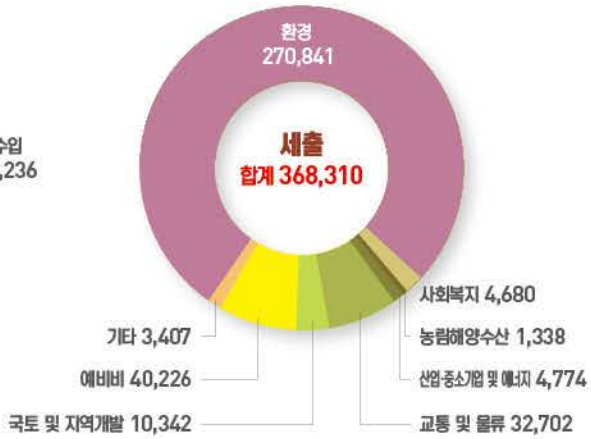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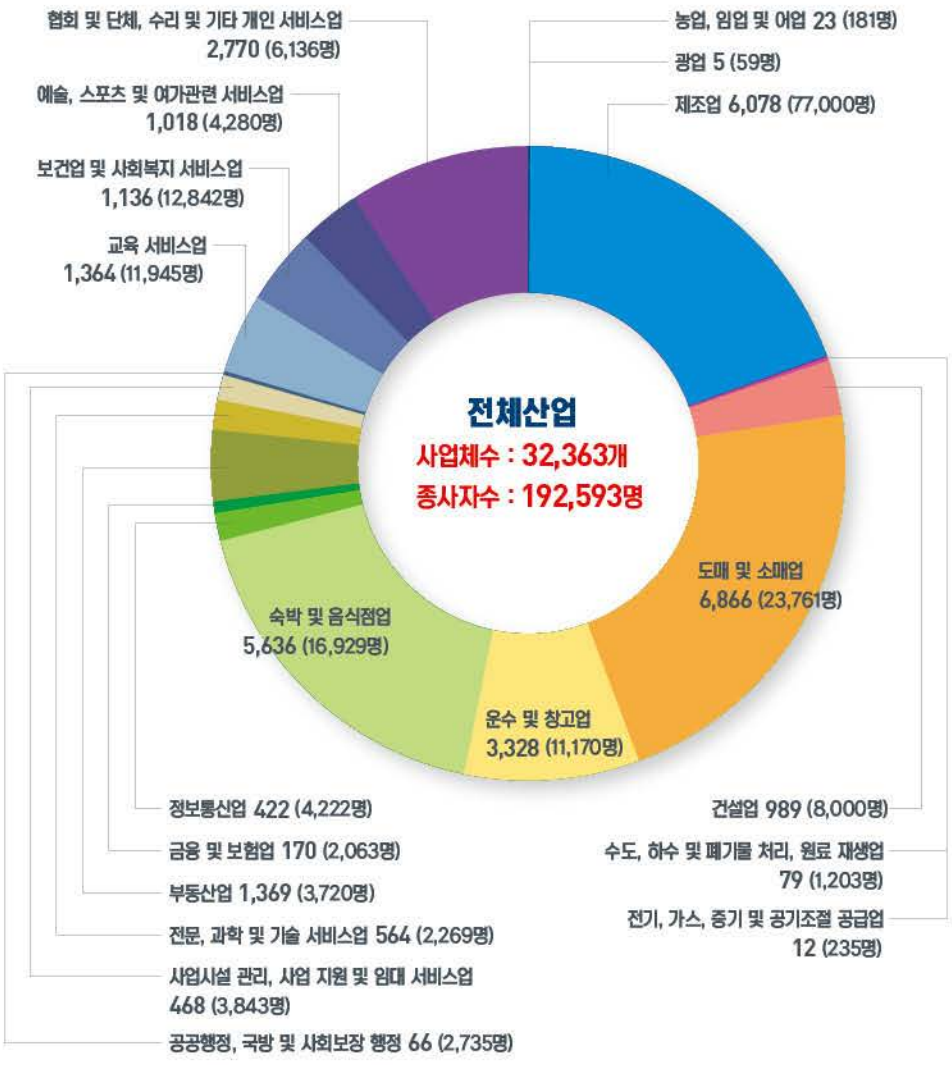


3. 산 업

(2020. 12. 31. 기준)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4. 교 육

(2020. 12. 31. 기준)

교육기관



총계 학교(원)수 : 199개
학생수 : 62,195명

사설학원



총계 학 원 수 : 659개
수강자수 : 81,454명
강 사 수 : 2,216명

5. 복 지

(2020. 12. 31.기준)

사회복지시설

(단위 : 개소)

노인복지종합관	1
장애인복지시설	28
주거복지시설(유료)	5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포함)	32
종합사회복지관	1
여성복지시설	4
장기요양기관	235
가족시설	1
경로당	407
합계	**714**

의료기관

병원수 (병상수)


합계 445 (8,172)
종합병원 1 (200)
병원 36 (4,383)
의원 184 (278)
요양병원 21 (3,215)
치과병(의)원 118
한의원 85 (96)

4. 파주시의 발자취

2018

7월



2일
제8대 파주시장 취임선서



5일~13일
읍면동 시민과의 만남



8월

27일
한국 정전 협정 65주년 행사



30일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 위촉식



8일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기공식



9월

6일
파주시새마을회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



8일
치매극복 선포 식 및 건강걷기대회



파주 포크페스티벌



금촌거리문화축제



13일
2018 파주 일자리 박람회



15일
2018 시민화합 체육대회



2018 파주북소리축제 개막식



19일
농업인대학 수료식



8일

제2회 파주시장배 배드민턴대회



제36회 파주시협회장기 궁도대회

11일

파주시치매안심센터 개소식



18일

여성농업인 경영능력향상 화합마당



11일

2018 DMZ 평화콘서트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24일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 현장 안전점검



31일

야당과선교 차로개선 사업 현장방문



10일

파주시 농업리더 합동 워크숍



12일

엄마 품 동산 준공기념식



어린이 민속놀이 한마당



파주시-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MOU체결



22일

제7회 파평코스모스 축제



29일

LG 행복나눔 페스티벌



30일

제3회 방촌문화제



4. 파주시의 발자취

2018

10월

4일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5일
2018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11일
2018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



11월

27일
제9회 파주 평생학습박람회



3일
제6회 파주목 봉황축제



7일
운정다목적체육관 개관행사



12월

23일
제22회 파주장단콩 축제 (11.23~25)



30일
DMZ 평화관광 활성화 국회 토론회



2018 파주시 자원봉사대회



4일
파평면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개청식



18일
안심귀가 마을버스 협약식



19일
리비교 안전건설기원 비전 선포식



20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철도망 국회 토론회



2019 '파주사랑 희망나눔' 특별생방송 모금행사



12일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착공식



13일
제31회 율곡문화제



20일
제14회 파주개성인삼축제



22일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개관식



9일
파주시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



16일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21일
2018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6일
버스 정류장 보온텐트 현장확인



7일
제8회 대한민국 한류대상 사상식



11일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회의



13일
한울도서관 개관식



21일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및 회의



24일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



31일
국민행복 민원실 현판식



2018 임진각 제야행사



4. 파주시의 발자취

2019

1월



1일
2019년 해맞이 및 평화기원제



2일
2019 시무식



21일~ 31일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22일
2019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DMZ의 평화적 이용 학술대회



31일
2018 파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



19일
평일 장병 외출 일일체험



21일
파주시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



22일
파주장단콩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3월

4일
체납실태조사단 발대식



5일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활동



8일
명예감사관 위촉식



10일
개발행위허가 워크숍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 지원 협약식



16일
신년 기자회견



18일
파주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 개소식



2월

1일
통일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추진 업무협약



13일
2019 제1회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정기총회



전기초자코리아 방문



25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민자문단 회의



26일
파주시 지속가능협의회 위촉식 및 총회



28일
꿈의 직업체험학교 졸업식 및 입학식



14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18일
통일로 교통 포럼 발족식 및 3호선 연장 국회토론회



20일
파주 천원택시 운행 협약식



21일
2019 풍년기원 시산제



4. 파주시의 발자취

2019 3월

27일
임진강 거북선 복원 추진 위원회 개최



28일
파주시 항일독립투쟁 애국 선열 합동추모제



29일
파주희망농장 개장식



4일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5일
제74회 식목행사



GTX 운정역사 건립 주민설명회



8일
평화통일 염원 가족 걷기 대회



22일
지방법원 승격 파주·고양 공동성명 발표



24일
남북경협 기반조성 및 선도기업 업무협약



25일
2019 파주 일자리 정보시장 박람회



26일
임진강(설마리) 전투 상기행사



3일
파주시 지체장애인돕기 대바자회



11일
금촌 문화난장 어울림장터



13일
파주참드림쌀 모내기 시연회



4월

1일
천원택시 운행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협약식



3일
DMZ 평화둘레길 개방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18일
개발행위 무장애설계 MOU 협약체결



19일
파주시 새마을회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준공,개청식



5월

27일
통일로 가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DMZ 평화손잡기 행사



2일
감악산 농산물 판매장 개장식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방 협약 체결



15일
파주시-민화협 남북교류 협력 업무협약식



16일
민간어린이집 안전체험 및 기부활동 행사



17일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축하행사



21일
운정3동 출장민원실 개청식



4. 파주시의 발자취

2019

5월

24일
파주예술제 미술작품 전시회 개막식



31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창립20주년 기념식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민추진단 발대식



20일
한반도 가상현실 여행체험관 공동조성 업무협약식



24일
해외입양인 대상 팸투어



25일
6.25전쟁 제69주년 행사



26일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및 관광SNS서포터즈 위촉식



7월

1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



2일
탄현체육공원 현판 제막식



3일
내고장 바로알기 전직원 교육



8월

29일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업무협약식



5일
파주시 교통약자 셔틀버스 운행 시승식



10일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행사



19일
장준하선생 44주기 추모식



6월

12일
평화를 심는 통일 모내기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 상생 협약 체결



14일
도시재생전략계획 사전 설명회



아동학대 시민 감시단 발대식



27일
문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준공식 및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2019년 스마트 정보 통신망 구축사업 협약식



29일
2019 DMZ 평화대축제



8일
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2일
산림병해충 방제 현장점검



16일
파주혁신교육포럼



17일~24일
취임1주년 소통과 공감이 있는 읍면 방문



21일
헤이리 노을숲길 준공식



22일
감악산 힐링파크 먹거리 촌 착공식



23일
경기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업무협약식



26일
파주시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4. 파주시의 발자취

2019

8월

28일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 시범사업 업무협약



29일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31일
제4회 방촌문화제



10일
파주시&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업무협약식



11일
이산가족 찾기 방송 유네스코 등재 4주년 기념식



17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방안 국회토론회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안전대책 긴급회의



11월

28일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기회의



31일
저소득층 어르신 인공 관절수술 지원 협약식



2일
파주시 자원봉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13일
파주시 아이디어 팡팡 오디션



15일
보육교직원 힐링 세미나



18일
파주시-EBS 업무협약식



22일
기록을 만나는 파주 디지털 기록관 개관식



9월

4일
남북산림협력센터 착공식



7일
제4회 파주시 행복 장학회 장학퀴즈대회



8일
태풍피해 현장점검



9일
파주시 버스노선체계 개선 토론회



10월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항공방제



16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 민통선 지역 멧돼지 포획제



25일
관광서비스 아카데미



4일
마을버스 신설노선 승차 체험



7일
파주시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2019 파주시 농업인대학 수료식



12일
외국인 유학생 대상 관광 활성화 팸투어



제23회 파주장단콩 축제



25일
마을살리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6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이웃나눔 기부계단 기념식



국방부 · 경기도 접경지역 간담회



4. 파주시의 발자취

2019

12월

1일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개소식



2일
교과서 속 인문학 기행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개소식



13일
금촌로터리 경관조명(대형트리) 점등식



2019 파주시 보육정책포럼



18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협약식



19일
2020 파주사랑! 희망나눔! 특별생방송



13일
파주 관광두레 성과공유회



16일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현판식



17일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파주재정 ALL-IN ONE 발표)



20일
설맞이 홀몸 어르신 위문



2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 설치 현장 점검



10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대책회의



11일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



4일
파주시 아너스데이



5일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10일
야당~상지 연결도로 개통식



법원읍 전통등거리 점등식



2020

1월



9일
2020년 신년 기자회견



10일
대동리 마을공동체 발대식



22일
파주시 청년위원회 위촉식 개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단 긴급회의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역경제활성화 홍보



31일
코로나19 유관기관 대책회의



12일
파주시-파주시의회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식



파주시 경제인 간담회



13일
파주시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 동아리 발대식



18일
파주시 축제자문위원회 위촉식



4. 파주시의 발자취

2020 3월

1일
3.1절 기념 헌화분양



6일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소 현장방문



9일
코로나19 확산방지 면 마스크 제작 현장 방문



9일
테마모금 "꽃보다 아름다운 드림씨앗" 사업 협약식



20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개시



23일
여성친화형 농기계 시연회



25일
드라이브스루 파주 농산물 판매



13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착공식



19일
문산 선유3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시연회



20일
파주시-철원군-고성군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력회의



25일
미국 해리스대사 미국군 참전기념비 방문



6일
제65주년 현충일 추념식



10일
캠프스탠턴 우선협상대상자 협약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 개통식



15일
파주학 연구방향 및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4월

19일
고양-파주-김포 감염병 공동대응 협약식



31일
파주문화체육센터 현장점검



3일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점검



8일
파주시민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급 업무협약



5월

27일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개시



7일
파주시 민간기록위원회 회의



12일
파주시-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식



6월

2일
마을버스 준공영제 협약식



3일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



4일
2020 희망+온돌 어르신 동네복지사 사업 협약식



17일
파주시-국립암센터 혁신의료 연구센터 조성 협약식



20일
평화의 숲 비전선포식



29일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통식



30일
조리금촌선 정책토론회



4. 파주시의 발자취

2020

7월

3일
민선7기 3년차 취약계층 민생현장 방문



7일
취임 2주년 (비대면) 기자회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위촉식



8월

21일
파주시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출범식



31일
야외 무더위 쉼터 방제 및 산림정화캠페인



5일
파주문화체육센터 개관식



파주시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개관식



9월

20일
경기도 디지털 SOC-공공배달앱 사업 협약식



28일
파주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업무 협약식



15일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정식 개통



10월

24일
임진강 전망대 정자 현판식



25일
3호선 파주연장 및 역세권 개발사업 업무협약식



5일
6·25 희생자 시민 추모제



8일
질오목 쉼터 준공식 및 현판식



17일
파주시 도시재생 시민기획단 창단식



허준 한방의료 관광자원화 사업 시민자문단 발대식



20일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호우경보 및 홍수경보 비룡대교 현장점검



6일
문재인 대통령, 홍수경보 관련 임시주거시설 방문



14일
광복 75주년기념 평화토크쇼



15일
제75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



16일
통일부장관 DMZ판문점 견학센터 방문



22일
치매인식개선 광고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



23일
제1회 파주기록물 공모전 수상작 전시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준공식



9일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 위촉식



11일
윤이상 평화 음악상 시상식



12일
감악산 신비의 숲 야간경관조명 점등식



13일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4. 파주시의 발자취

2020

10월

15일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국 최초 시행



17일
파주개성인삼 드라이스루 판매행사



문산천 행복꽃밭 조성지 현지확인



11월

2일
SRT 파주 연장 정책 토론회



5일
파주 도시관광공사 비전 선포식



6일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식



13일
경기건축문화제 추진 업무협약



19일
파주시 아너스데이



22일
파주시민축구단 K4리그 우승



12월

2일
희망2021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4일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공사 개통식



11일
2021 파주사랑! 희망나눔! 온택트 모금방송



22일
파주파발빵 핵심점포
1호점 개점식



27일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대상 수상



29일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
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



30일
파주~공덕 직행좌석
3400번 개통식



10일
통일로선 철도사업 상생
업무 협약식



12일
혁신교육지구 마을강사 위촉



파주시니어클럽 개소식



23일
2020 평화통일기원 걷기대회



24일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준공·개통식



27일
파주 장단콩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



14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16일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과보고회



18일
율곡수목원 구도장원길
장원종 설치



경인일보

2018년 07월 03일 화요일
005면 종합

"한반도 평화수도 조성" 중국투자협회와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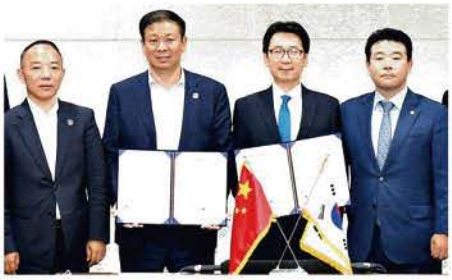
최종환 파주시장

민선 7기 최종환 파주시장의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조성을 위한 야심찬 행보가 시작됐다.

최 시장은 2일 오전 운정신도시 자택에서 마을버스와 전철을 이용, 금촌역 인근의 현충탑에 도착했다.

태풍 '쁘라삐룬'에 대비해 이날 취임식을 취소한 최 시장은 현충탑 참배 후 파주시의회로 이동, 시장 취임선서 후 폭우 및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위험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통일경제특구 설치에 대비해 중국투자협회와의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에 6급 팀장을 주축으로 한 '남북평화협력' TF팀을 설치했다. 최 시장은 "민선6기까지 이뤄온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겠다"며 "파주를 사람살기 좋은 상생 도시로, 미래 통일시대의 중심 경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1

한국일보

2018년 07월 26일 목요일 A10면 사회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파주를 국제평화협력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파주시 제공

"통일경제특구 준비 TF 가동 동북아 최대 평화공단 만들 것"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

"파주를 '통일경제특구'로 만들어 동북아 최대의 국제평화협력단지로 조성하겠다."

'평화 1번지' 경기 파주시의 새 선장을 맡은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이 내건 1호 공약이다.

휴전선 최 근접 도시인 파주는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통일도시'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시장은 이런 맥락에서 파주가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도록 전방위로 뛰고 있다. 그는 정전협정과 4·27 판문점 선언의 중심인 판문점이 있고, 비무장지대(DMZ) 내 남측 첫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 개성공단, 경의선·통일로·자유로 등 남북 간 물류 동맥이 위치한 지역특성을 특구의 이유로 꼽았다.

최 시장은 "파주는 이제 분단의 아픔이 서린 도시가 아닌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여는 첫 도시가 될 것"이라며 "파주 민통선 일대에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면 동북아·유라시아 상생경제의 축이자 안보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경제특구를 향한 첫걸음도 뗐다. 최 시장의 지시로 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전담할 '남북평화협력 TF'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특구법 제정이 가시화할 것에 대비해 사업 부지 등을 물색하기 위한 자체 용역도 진행 중이다.

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북한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자본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첨단산업단지, 남북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남북 교류협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남북의 교통인프라 확대를 위해 남북 경의선 철도를 개보수하고 고속철도와 GTX 연장,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도1호선 연장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우선 과제로 파주 북부지역에 국제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남북 경의선 철도 개·보수 파주 북부지역엔 국제역 민통선 관광벨트도 추진

이와 함께 "천혜의 자연보고인 임진강, DMZ 민통선 지역의 자연생태 지역을 잘 보존하고 자원화 해 스토리가 있는 파주 문화역사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선7기 시정 방향은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파주는 이제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안정된 경제활동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편한 환경조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시민소통실을 운영하는 등 소통을 활성화해 시민들이 변화된 시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구 기자

2

1 "한반도 평화수도 조성" 중국투자협회와 MOU [경인일보 2018. 07. 03.]
2 "통일경제특구 준비TF 가동, 동북아 최대 평화공단 만들 것" [한국일보 2018. 07. 26.]

중부일보

2018년 07월 10일 화요일 012면 사회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재추진

시민의견 반영~ 사업계획 조정
수리부엉이 서식지 보호책 마련
오는 7~8월 중 시민토론회 개최

수리부엉이 서식지 발견으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졌던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진행해 재추진 된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8월 중 시민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으로 조정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장단콩이라는 파주의 대표 브랜드를 테마로 생산가공, 유통, 판매뿐 아니라 체험,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파주시 역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시민 의견을 반영한 장단콩웰빙마루 사업계획으로 조정되면 행정절차 진행 후 2019년 상반기 중 사업을 재착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추진 부적절 의견을 통보 받은 이후 환경분야에 대한 협의기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 하에 수리부엉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사업 계획으로 축소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난 1~2월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3~6월에는 지역 내 환경단체와 각각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파주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최고의 품질인 장단콩 브랜드 가치 제고 ▶농가 소득 구조 다양화로 농업 정책 활성화 ▶장단콩 생산 농가, 장류 생산 업체 등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6년 2월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자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설립했다.

파주시는 도비와 시비, 민간투자금 등 총 21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탄현면 법흥리 시유지(약 13만8천㎡)에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은 장단콩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체험형 사업이 될 것이며 실질적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과 함께하는 공유적 사업으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 공감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3

경기일보

2018년 08월 30일 목요일 005면 종합

경기북부 중심도시 우뚝
속도내는 '파주희망프로젝트'

토지보상협의회 개최

최종환 파주시장의 주요 공약인 '파주희망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는 지난달 31일 보상계획공고를 마치고 총 5단계 중 1단계 49만1천㎡에 대해 시행사와 주민측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본보 8월13일 12면)하면서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중이다.

시는 29일 시행사인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이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에 시행하는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대직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자 등 9명이 참여했으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중점 논의했다. 파주센트럴밸리 산단은 49만1천㎡ 규모에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을 비롯한 첨단업종을 주로 입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사업 승인 전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토지 보상 대상은 435필지, 48만6천㎡로 소유자는 178명이다.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산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다음달 13일 예정됐으며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2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토지보상이 진행된다.

한편 파주희망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돼 파주읍을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파주=김요섭기자

4

3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사업' 공론화 통해 재추진할 것 [중부일보 2018. 07. 10.]
4 경기북부 중심도시 우뚝, 속도내는 '파주희망 프로젝트' [경기일보 2018. 08. 30.]

5. 언론에 비친 파주

중부일보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013면 사회

올해 파주북소리축제 테마 '평화' 선정

14일부터 3일간 출판도시

대한민국 대표 도서축제인 파주북소리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파주출판도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파주시와 출판도시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파주북소리 축제는 시민과 출판인, 작가가 함께하는 지식축제로 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제공하고 출판과 영상을 비롯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8회째를 맞는 파주북소리 축제는 4·27판문점 선언과 남북정상회담, 남북화해의 국민적 열망을 반영해 평화의 북소리를 테마로 정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서 평화의 북소리를 울린다는 의미의 타악기(채향순 중앙무용단)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북한 문화예술 출판물 전시와 북한을 사유하고 이미지화한 테마전시(한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 여성과 평화에 관한 문학포럼(여성, 평화를 말하다), 평화영화 상영전(공동경비구역 JSA, 웰컴 투 동막골) 등이 운영된다.

또한 국내 최대의 지식축제에 걸맞게 김탁환, 은희경, 김용택, 김애란, 서민, 장석주, 박준, 김중혁 작가가 함께하는 낭독공연과 작가와의 만남이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파주출판도시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유재건 출판상담소, 출판사 오픈하우스, 지혜의숲 심야책방은 선착순 사전접수를 받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축제는 평화문화 확산과 지역 내 기관의 참여도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파주문인협회, 헤이리예술마을, 도서관 등 지역사회와 함께 남북 평화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5

한국일보

2018년 09월 28일 금요일 A16면 기획

지역경제 르네상스

(50) 파주 장단콩축제

민통선 북쪽에 위치한 장단면
일교차 크고 모양 물 빠짐 좋아
콩 재배지로 최적의 조건 갖춰

알 굵고 윤기 베어나고 맛 고소
일전강쌀·개성인삼과 함께
'장단삼백'이라 불리던 진상품

시골장터 파란저잡 시작한 축제
한해 80만명 찾아 70억대 매출
"남북 협력시대, 더욱 커질 나갈 것"



지난해 9월24~26일 경기 파주 임진각 광장과 평화누리에서 개최됐던 '제7회 파주장단콩축제' 개막식 등 전국에서 몰려든 많은 인파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파주시 제공

임금님 진상 콩 맛 좀 봅시다… 사흘간 서리태 120톤 동나

처음에는 낯익은 풍경의 시골장터에 지나지 않았다. 경기 파주 민통선(민간인통제선) 농민 300명이 모이고 합쳐 3천만 원 고작 몇 만 인심 좋은 대가 2억 원 경기 양파장터 그대로.

파주시는 어떤 생산한 장단콩 판매를 돕고 축제에는 배를 띄웠다. 농민들도 판매를 늘리고 특산품들의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는 등 힘을 보탰다. 수년간 노력을 펼친 결과 가을 수확기에 한 번 열리는 장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파주장단콩축제가 한국 대표 농산물 큰 장터로 우뚝 서기까지의 이야기다.

파주 장단콩(검은콩 서리태)은 개성인삼, 임진강쌀과 함께 '장단삼백'이라 불린다. 흰 껍질 은빛으로 찬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단삼백'은 예로부터 임금에게 진상하던 귀한 식품인데, 이 중에서도 장단콩을 파주의 대표 명물로 친다.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인 '장단백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다른 지역의 콩에 비해 타 기질 함량은 두 배, 아스파라긴산은 50% 이상 함량이 높아 영양이 뛰어나다. 아스파라긴산은 장단백질 중 하나로 우울증, 갱년기증상 등 여성들의 건년기 증세를 완화시켜 준다. 알려 굵고 윤기가 흐르며 맛이 고소한 것도 특징이다.

장단콩의 품질이 뛰어난 건 재배지의 영향이 크다. 주 재배지인 민통선 북쪽 장단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물 빠짐이 좋은 모양 조건을 갖춰 장단콩 재배에 적격지로 꼽기 때문. 행정구역상으로 파주 장단면에 속한다. 경우가 3개(초등민통선에서만을 만들어 민간인에 거주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허가해주어 콩 재배가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1997년부터 매년 임진각 광장에서 장단콩 축제를 열고 있다.

체험객과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서리태, 백태, 흰눈서리태, 밤콩 등 6종류 장단콩을 시중가보다 10% 싸게 팔고 묵두부, 청국장 등 콩 가공식품과 임진강쌀과 참깔, 조 등 콘텐콘텐츠를 다양화한 것이 주효했다.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까지 접목, 축제의 내실까지 꾀 새롭다. 2006년 11월에 3일간 열린 장단콩 축제에는 8만 명이 찾았다. 축제 첫해 10만여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일이다. 최근 5년간 연 해 평균 방문객 수도 77만명에 달한다.

축제 때마다 구름인파가 몰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다. 파주시에 따르면 2014년 장단콩 축제에서 콩 판매액 33억원을 포함해 다른 농산물까지 총 75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기록했다. 당시 축제 참여인으로 준비한 서리태콩 120톤이 축제가 끝나기 하루 전에 이미 동이 날 정도로 대박이 났다.





2012년 79억원, 2013년 109억, 2014년69억원, 2015년 72억원 등 최근 5년간 매해 70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다소 줄어든 66억원이었다. 농민들은 "생산량과 지난 농산물까지 10억원이상 판매가 줄었다"며 "올해는 20억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파주시가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두 축제로만 한 해 120억원의 매출을 기두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는 올해 개최된 축제에는 10월 20~21일 임진각 광장과 경의선 문화예술촌 일원.

장단콩 축제를 매개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목소리도 나온다. 신동일 경희대 국제관광학과 교수는 "봄축수, 꽃축 등과 같은 건강식품과 대접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4곳과 함께 축제를 연다면 관객 확보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장단콩 축제는 2017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과 농식품 과학브랜드 대통령상을 등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농산물 축제로 우뚝 섰다"며 "평화통일 시대를 맞이 북한과 농산물 교류를 추진하고, 장단콩과 인삼 등 장단삼백의 대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 대책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6

5 올해 파주북소리축제 테마 '평화' 선정 [중부일보 2018. 09. 12.]

6 임금님 진상 콩 맛 좀 봅시다…사흘간 서리태 120톤 동나 [한국일보 2018. 09. 28.]

경기일보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013면 사람들

파주시, 경기북부 최초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시민안전콜 도입 분야 등 최고점
3년 연속 도시대상 수상 '영예'



최종환 파주시장이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후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도시분야의 최고 영예인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인정받았다. 시의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경기북부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시는 11일 의왕시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열린 '제12회 도시의 날' 시상식에서 2018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민경 시 도시개발과 주무관은 유공자로 선정돼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로써 시는 지난 2016~2017년 도시대상에서 국토부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3회 연속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국토부는 도시대상 선정을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 등으로 도시대상 평가단을 구성,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등 4개 분야 72개 지표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시는 전국 최초 시민안전콜 도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확보, 경의중앙선 구간 내 독서바람열차 운행,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수립·실천 등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또 사회적 경제희망센터 개소와 마을재생 사업인 법원문화창조빌리지, 전기자동차 대량 보급,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성장관리위한 난개발 방지 실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도시대상은 인구절벽과 도시쇠퇴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도시에 대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해마다 도시분야 최고도시를 선정해 지자체의 건전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 결과 파주시의 도시성장 모습은 이런 정부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도시였다"고 설명했다. 최종환 시장은 "한반도 평화수도인 파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가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받음에 따라 내년 '제13회 도시의 날'은 파주에서 개최한다.

파주=김요섭기자

7

한겨레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014면 종합

송악산 아래 개성 시내가 손에 잡힐 듯…

북녘땅 한발 더 다가선 도라산전망대



경기도 파주시가 22일 육군 1사단과 통일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 안 유일한 전망대인 도라전망대 개장식을 열었다(위). 경기도 파주시가 총 사업비 90억원을 들여 도라산 정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2143㎡ 규모로 새로 조성한 도라전망대 모습(아래)

새로 조성된 도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바라본 남북의 경계선에는 배틀린 장벽 같은 거대한 벽도, 흔하디흔한 철조망도 없었다. 마치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를 가르는 경계처럼 '안녕히 가십시오'란 문구가 적힌 작은 표지판만이 달랑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북쪽에서 바라보는 반대편에는 '어서 오십시오'란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

22일 오전, 새 건물을 지어 북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선 도라전망대에 올랐다. 도라산은 높이가 167m에 불과하지만 아트막한 구릉과 평야 지대에 우뚝 솟아 분단 현장을 둘러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망원경이 20여개 설치된 새 도라전망대에서는 왼쪽으로 임진각과 파주 운정새도시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합해북도 개풍군 일대 농촌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개성공단과 북 기정동 마을은 물론 송악산 아래 개성 시내가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펼쳐졌다. 북한 주체사상연구소가 있다는 금안골 마을 앞 협동농장 주변 들녘에는 노랗게 벼가 여물어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멀리 개성공단 오른쪽에는 송악산을 가운데에 두고 왼쪽에는 덕물산, 오른쪽에는 대덕산 국락봉이 병풍처럼 펼쳐졌다.

파주시는 이날 육군 1사단과 통일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파주지역 비무장지대(DMZ) 안 유일한 전망대인 도라전망대 개장식을 열었다. 새 도라전망대는 옛 전망대에서 동북쪽으로 160m 떨어진 도라산 정상(해발 167m)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2143㎡ 규모로 조성됐다. 새 전망대에는 관광객들이 자동 마시거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

파주시, 기존 시설 낡고 좁아 신축
북동쪽 160m 이동…도라산 정상에
카페 등 관광객 편의시설도 갖춰
"DMZ 안 최대 생태관광지 될 것"



도록 카페·매점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파주시는 1989년 군사시설로 지어진 기존 전망대가 낡고 비좁아 연간 60만명에 이르는 방문객을 맞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2011년부터 육군 1사단과 협의를 거쳐 2016년 공사에 착수했다. 사업비는 92억원이 들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기념사에서 "전망대 북쪽으로 개성공단과 송악산, 판문점, 기정동·대성동 마을이 보이고, 남쪽으로 임진각, 헤이리스플레이 산업단지, 북한산까지 바라볼 수 있다. 도라전망대는 앞으로 서쪽 지역 비무장지대 안 최대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해 홋날 도래할 평화와 통일 시대에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도라산역과 개성공단을 오가기 위해 반든 경의선 도로를 임진각과 통일대교를 지나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기존의 1번 국도와 구별해 '신1번 국도'라고 부르고 있었다. 1사단 도라산에서 3년간 군복무를 했다는 박상현 씨(49)는 "개성공단이 가동될 때는 신1번 국도가 물품을 실어나르는 트럭들로 붐볐는데 지금은 한산하다. 남북관계가 개선돼 왕래가 다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 박경한 기자 mania@hani.co.kr

8

7 파주시, 경기북부 최초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경기일보 2018. 10. 12.]
8 북녘땅 한발 더 다가선 도라산전망대 [한겨레신문 2018. 10. 23.]

5. 언론에 비친 파주



중부일보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017면 오피니언

1천원 택시에 거는 기대

〈파주시 내년 운행의 경우〉

택시를 1천 원에 탈 수 있겠는가. 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1천 원 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지자체에서 고스란히 보전하는 사례다. 파주시가 오지마을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 3월부터 1천 원만 내고 타는 '천 원 택시'를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고 도내 다른 지자체도 이에 따른 호기심을 지니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단 파주의 경우는 버스가 마을에 진입할 수 없거나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8개 마을이 대상이지만 다른 지자체라 해도 그 실례는 여기서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은 1천원을 내면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또는 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천 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에 체감을 곧 느낄 수 있게 된다.

물론 그 대상을 넓히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파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행한 후 반응이 좋으면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계획은 기대할 만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1천 원 택시가 노인, 학생, 임산부, 장애인 등 오지마을 주민들의 비용 절감과 교통 편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자가용 소지가 드문 경우에서다. 당연한 실정이라도 지자체의 결단에 따라 얼마든지 주민복지가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는 모범사례다. 실제로 이러한 1천 원 택시는 그 지역이 시 단위 지역이라 해도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어쩔 수 없는 공공운행의 부재에 따른다. 버스가 매일 운행하기 곤란한 곳이나 다닌다 해도 수지 타산이 어려운 장소는 차라리 수요가 있을 때마다 부르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에서다.

지자체가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역복지는 이런 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 괜한 복지에 수십 수백억을 들이보는 것보다 이러한 1천 원 택시처럼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에서다. 택시라는 운행 방법을 생각해 볼 때 도심에서는 여유가 있다가도 저녁시간에는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어지간해서 부르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작은 발상 전환으로 모두가 행복한 상상이 현실로 이어지는 것은 다행스럽다기 보다 행정력의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물론 이런 1천 원 택시는 예전에도 여타의 지자체에서 이뤄져 왔다. 다만 지자체의 부담이 관건이었다. 그럼에도 1천 원 택시의 해당 지역이 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교통약자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꼭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일은 아닐 일이다. 한집에 한 대 이상 자가용이 있는 집들이 늘고 있지만 이런 교통오지의 경우에는 마을버스조차 구경하기 힘들고 운행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번 파주시의 경우가 꼭 특별한 경우만은 아니다. 단지 또 하나의 지자체가 어려운 결단을 했고 앞으로 정책처럼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주민 충족을 위해 1천 원 택시가 다닐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9



경인일보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010면 사회

'사회적 약자' 배려 나선 파주시 복지국 신설 '맞춤형 행정' 깃발

민선7기 최종환 시장 공약사항

여성가족과등 5과 16개팀 구성

내년 관련 예산 상당부문 증액

파주시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복지로 가족이 행복한 파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복지국을 신설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등 5과 16개 팀으로 구성됐다.

올해 파주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 1조148억원 중 3천666억원으로 36.1%에 달하며, 내년에는 포용적 복지와 맞물려 상당 부분 증액될 예정이다.

복지국 신설은 민선 7기 최종환 시장의 공약사항이며 시는 전 계층 고른 혜택과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을 수립했다. 제4기 보장계획은 '함께 누리는 평화복지 파주'를 비전으로, 안전도시(Safety), 포용적 복지도시(Inclusive), 장수와 건강도시(Life), 지식과 평생교육도시(Knowledge), 평화복지도시(Peace), 일자리도시(Job) 등 6개 추진 전략인 'SILK-P.J. City(실크파주)'를 중심으로 향후 4년간 4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시는 또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던 보훈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뜻을 후세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애국선열 107위 합동추모제 등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맞춤형 급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아동상담센터 운영,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등도 전개해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구축·확장할 계획이다.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확충해 장애인 가족의 사회·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하며, 가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목동동 1086 소재)은 내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착공에 들어가 2021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동의집 보육지원 특화사업을 발굴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의 성장 동력인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최종환 시장은 "복지국이 새롭게 신설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따뜻한 복지, 맞춤형 복지로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7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isaem@kyeongin.com

10

9 1천원 택시에 거는 기대 [중부일보 2018. 11. 23.]

10 '사회적 약자' 배려 나선 파주시, 복지국 신설 '맞춤형 행정' 깃발 [경인일보 2018. 11. 22.]

경기신문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009면 지역

파주시 접경지 균형발전 현장순회 간담회

통일경제특구 지정·지하철 3호선 연장 등 10가지 건의
최종환 시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폭적 지지 부탁"
송재호 위원장 "경기도와 협력 지원 방안 찾겠다"



파주시는 지난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주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지난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주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윤후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 및 의원과 8명의 시민대표 등이 참석해 파주시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주시의 주요 현안인 △통일경제특구 지정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리금촌선 국가 계획 반영 △접경지역 가스 공급 지원 △반환공여지 국가개발 △사격장 주변 피해대책 △방호벽과 철책선 제거 △금촌시장 주변 도시재생 추진 △애용저수지 공연장 건립 및 남북공연 추진 △운정 다누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0가지 사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시민대표들도 △자유로 문화예술벨트 조성 △DMZ 테크파크 제안 등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최 시장은 "통일의 관문이자 평화수도 파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크고 작은 규제를 받아 발전이 더뎠으나 남북화해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지금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준비가 돼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창구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이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접경지역인 파주시민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활발한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해 파주시의 관광자원과 고구려 문화 등 문화유산을 활용, 관광의 배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경기도와 함께 협력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후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파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파주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조속추진을 위한 예타조사 면제' 서명부를 파주시민의 희망을 담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11

중부일보

2018년 12월 25일 화요일 007면 사회

평화롭고 평등한 파주 '평평한 마을' 大賞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옛 미군기지 건물 리모델링
서북부 평화 랜드마크로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지원



옛 미군기지의 변신, 기대하세요 24일경기도청에서 열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 심사에서 대상을 차지한 파주시 최종환 시장이 이재명 도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청

파주시는 경기도가 24일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의 본 심사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정책공모에서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을 신청, 대상을 차지해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경기도 핵심 가치인 공정·평화·복지실현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는 대규모 사업과 일반사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파주시는 대규모 사업 부문에서 지난달 1차 현장 심사를 통과하고 이날 본심사를 치렀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뤄진 심사에는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은 미군반환 공여지인 조리읍 캠프 하우즈에 미군이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예술, 문화, 교육, 숙박 활동이 가능한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올해 조성한 '엄마 품 동산'과 연계,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205억 원을 들여 경기 서북부를 대표하는 평화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미군기지로 사용됐던 캠프 하우즈 내 방치된 건물 6개 동을 리모델링해 활용할 예정이다. 체육관은 공연장으로, 생필품 판매장은 박물관 및 갤러리, 장교 숙소는 엄마 품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연회장은 커뮤니티센터, 중대본부는 예술가 레지던시로 바꾸고, 55대의 차량이 한 번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평화 동산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입양인의 한국 방문 시 모국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휴머니즘 공원인 '엄마 품 동산'과 연계한 게스트 하우스도 조성할 방침이다.

최종환 시장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파주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이 늘 것"이라며 "전쟁의 아픈 역사로 인해 주민 희생이 컸던 미군기지 주변 지역이 화해, 치유, 평화가 있는 문화기지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돈기자

12

11 파주시 접경지 균형발전 현장순회 간담회 [경기신문 2018. 11. 30.]
12 평화롭고 평등한 파주 '평평한 마을' 경기first 대상 [중부일보 2018. 12. 25.]

5. 언론에 비친 파주

경기신문

2019년 01월 02일 수요일 012면 지역

파주, 공모사업·평가서 161억 확보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 '탄력'

파주시는 올해 정부와 경기도의 각종 공모사업·평가에서 16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파주시는 올해 4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6억7천만원, 도비 110억원 등 총 136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보다 30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출판도시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 '2060 브랜드숍 매니저 양성과정'이 각각 선정돼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5억원, 9천7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희망사업 프로젝트'에 공모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국비 4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환경부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에 '임꺽정봉 산자락 식생복원을 통한 생태문화 숲 조성사업'을 신청해 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 24일 경기도에서 진행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에서 대상에 선정돼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파주시는 대외평가에서 총 43건의 수상실적을 내며 시상금 25억2천850만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2017년 재난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며 5억원의 시상금과 행정안전부 '2018 재난관리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1억원의 특별조정금을 받았다.

시는 올해 각종 공모사업과 평가에서 성과를 냄에 따라 내년도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새해에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13

경기일보

2019년 01월 15일 화요일 013면 사회

'노후' 파주환경순환센터 979억 투입 현대화

재정사업으로 진행 2024년 말 준공… 주민 악취고통 등 해결

파주환경순환센터가 심한 악취발생과 과도한 운영비용으로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본보 2018년 10월2일 19면)에 대해 파주시가 시 재정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분뇨, 가축분뇨·음식물 처리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발전소 등지에 연료로 판매하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인 현대화사업이 이달 중 타당성 용역을 거쳐 오는 2021년 착공, 2024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종환 시장 환경공약인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당초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됐으나 파주시의 정책 및 재정건전성, 공공성 확보 등을 검토한 결과 민자추진 대신 시 재정사업으로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시는 총 사업비 약 979억 원(국비436억 원·도비 88억 원·시비4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이달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시설별 적정 용량, 처리공법 등을 결정한 후 내년 3월 국비신청과 투자사업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021년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4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1년부터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위치한 파주환경순환센터는 총 용량 1일 580t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로 분뇨 220t, 음식물 80t, 가축분뇨 200t, 축분혼합(축분+음식물) 80t의 처리용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노후화로 악취발생과 함께 운영비가 2015년 85억 원가량이던 것이 2016년에는 10억여 원이 늘어난 99억 원, 지난해는 100억 원이 넘는 등 해마다 크게 늘어나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환경기초시설로 인식돼 현대화가 시급했다.

최 시장은 "파주환경순환센터는 현대화사업으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자원화시설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순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14

13 파주, 공모사업·평가서 161억 확보 [경기신문 2019. 01. 02.]
14 '노후' 파주환경순환센터 979억 투입 현대화 [경기일보 2019. 01. 15.]

경기신문

2019년 01월 28일 월요일 009면 지역

파주시 GTX 운정역 환승센터 타당성 용역 발주

하루 약 5만명 이상 이용 예측
교통수요 집중 도로 혼잡 예상

에스지레일 A노선 시행자
택지개발 시행자 동시 협의도

파주시는 2023년 준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운정역의 편리한 환승 체계 구축을 위해 'GTX 운정역(가칭)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한다고 27일 밝혔다.

GTX 운정역은 1일 약 5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역세권 개발 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교통수요 집중으로 극심한 주차문제와 도로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수립 예정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년)에 운정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

용역에서는 파주시 여건에 맞는 환승센터 유형 및 규모 산정, 개발 방향 설정과 교통개선대책,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다.

시는 GTX 환승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GTX A노선 사업시행자(에스지레일 주식회사) 간 협의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해당 용역을 통해 환승센터 추진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GTX 철도사업 준공 이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환승센터를 건립할 것"이라며 "편리한 환승시설을 넘어서 운정 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상징성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GTX는 지하 40m 깊이에 터널을 뚫어 최고 시속 180km로 서울과 신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다.

A노선인 운정~삼성 구간(46.1km)은 지난달 27일 착공식을 했으며 2조 9천억원이 투입돼 2023년 개통 예정이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15

한국일보

2019년 02월 14일 목요일 A27면 사람들

'파주 유관순' 임명애, 뮤지컬로 부활한다

파주에서 3·1운동 주도
市 뮤지컬 공모사업에 선정



경기 파주의 유관순이라 불리는 임명애(1886~1938·**사진**) 독립운동가의 삶을 다룬 창작 뮤지컬이 제작된다. 파주시는 임명애 지사의 뮤지컬 공연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창작 뮤지컬로 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임명애 지사는 1886년 파주 교하동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 당시 파주에서 학생들을 모아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파주의 첫 여성 독립운동가라는 상징성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시는 임 지사의 일생을 재조명하기 위해 창작뮤지컬 제작을 기획, 경기도 문화·예술 분야 기념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됐다. 사업비로 도비 6,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임신한 몸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서대문형무소 8호 감방에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 수감 중 출산을 위해 잠시 출소했다가 아기와 같이 다시 옥살이를 한 임 지사의 치열했던 삶을 뮤지컬에 담을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는 임 지사가 독립운동 당시 구세군 사령으로 활동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임 지사 창작뮤지컬은 시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 문화·역사·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것"이라며 "파주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16

15 파주시 GTX 운정역 환승센터 타당성 용역 발주 [경기신문 2019. 01. 28.]
16 '파주 유관순' 임명애, 뮤지컬로 부활한다 [한국일보 2019. 02. 14.]

5. 언론에 비친 파주

시민일보

2019년 02월 15일 금요일 009면 사회

파주시, 올해 지역화폐 86억 발행

카드식 화폐… 이용 활성화 위해 6% 할인

4월부터 청년배당·산후조리비 74억 지급

경기 파주시가 올해 총 86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키로 하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라고 14일 밝혔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내의 소비 증대와 함께 대규모 점포 대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류(종이상품권), 카드, 모바일 등 3가지 중 시는 카드식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카드단말기가 있으면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해 이용이 편리하고 전연령층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수당 지급이 용이하고 관리·운영 비용이 낮다는 장점도 있다.

오는 4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지급을 위한 정책수당을 시작으로 9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발행으로 확대된다. 청년배당은 약 5700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산후조리비는 약 3500명에게 50만원씩 연간 74억여원이 지급되며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12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시는 대형마트, 백화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및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을 제한해 도입 취지를 살릴 예정이다.

또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6%의 할인판매와 함께 파주시와 상인의 공동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시민 대상 공모를 거친 명칭을 선정하는 한편 디자인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월에는 관련 조례도 제정된다.

파주=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17

한국일보

2019년 02월 22일 금요일 A27면 사람들

"DMZ, 베를린장벽처럼 세계 명소 될 수 있다"

알라비 이스트사이드갤러리 회장



독일 베를린장벽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 이스트사이드갤러리협회 카니 알라비(64·**사진**) 협회장이 DMZ에 들러 관광자원화 가능성을 밝혔다.

알라비 협회장은 20, 21일 경기도 초청으로 일행과 함께 파주 평화누리, 독개다리, 대성동마을, 도라산전망대와 연천 태풍전망대, 백마고지 등 DMZ 일원을 둘러보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스트사이드갤러리는 독일 베를린 뮐렌 슈트라세에 있는 베를린 장벽 1.3㎞ 구간에 세계 21개국 118명의 화가가 그린 105개의 그림으로 구성된 야외 벽화로 베를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알라비 협회장은 "독일도 통독이라는 대단한 사건을 겪었는데 한국의 DMZ도 인상 깊다. 평화로운 통일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DMZ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과거 이스트사이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가들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환경이라도 그에 맞는 예술작품을 만들 능력이 있다"면서 "이스트사이드에서도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DMZ에서도 훌륭한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머리 속에 많은 구상이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보면서 떠오른 많은 영감을 돌아가서 정리해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는 몰랐지만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는 매년 400만명이 찾아오고 있다"면서 "DMZ는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장소여서 작업과정 홍보만으로도 흥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사항으로 분명 성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18

17 파주시, 올해 지역화폐 86억원 발행 [시민일보 2019. 02. 15.]

18 "DMZ, 베를린장벽처럼 세계 명소 될 수 있다" [한국일보 2019. 02. 22.]

19 최종환 파주시장 "군장병 할인혜택 늘릴 것" [경기일보 2019. 02. 21.]

20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파주 초등 교과서 수록 [경기일보 2019. 02. 26.]

경기일보

2019년 02월 21일 목요일 005면 종합



최종환 파주시장이 평일 외출나온 장병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파주시 제공

최종환 파주시장 "군장병 할인혜택 늘릴 것"

외출 장병들과 일일체험

최종환 파주시장이 20일 외출나온 장병들과 함께하는 일일체험을 했다. 군 장병 외출 확대 심시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최 시장은 이날 직접 군부대 앞 버스정류장에서 외출 나온 장병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금촌역에 내리 장병들과 자녀를 함께 하며 평일 외출이 허용된 이후 장병들의 반응과 고충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금촌역 일대는 주말에 외출과 외박을 나온 장병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외출 나온 장병들끼리 삼삼오오 다니며 새로 시행된 평일 외출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목격됐다. 병사들은 "사병들이 외출 나오는데 시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데 감사하다"며 "열악한 파주시 교통여건에 대한 시급한 개선과 월급이 많지 않은 사병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군 장병 할인업소를 더욱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어 최 시장은 PC방, 영화관, 패스트푸드점, 화장품 가게 등 병사들이 외출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상점들을 돌러보며 군 장병 외출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나 영업하는데 여러움 등 소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최 시장은 "평일 군 장병 외출 확대 실시에 따른 일일 외출 인원이 대략 800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관내 주둔 군부대 협조를 받아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평일 군 장병 외출과 관련한 파주시와 군 부대 간 소통창구 일원화, 파주 전자지도를 활용한 군 할인업소 홍보, 장병 외출시간에 맞춰 영화관 평일 영화시간 조정, 숙박업소, 음식점 등 군 장병 할인업소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19

경기일보

2019년 02월 26일 화요일 001면 종합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파주 초등 교과서 수록

파주삼락회 등 요구 1년만에 현실화

파주시가 복원을 추진 중인 조선 최초 거북선 '임진강 거북선'이 지역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됐다. 파주삼락회 등이 이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해 달라는 요구에 파주교육지원청이 검토(본보 2018년 2월 22일자 14면)한 이후 1년만에 현실화된 것이다.

파주시는 파주교육지원청이 자체 발행하는 사회과 교과과정 교과서 '우리고장파주'에 임진강 거북선 기록이 조선왕조실록(태종 1413년)을 근거로 수록됐다고 25일 밝혔다.

임진강 거북선은 조선 선조(1592년)때 이순신 거북선보다 180년이나 앞선 조선 최초 거북선이다. 태종실록 25권에는 태종이 세자와 함께 임진나루에서 거북선과 왜선의 모의 전투훈련 장면을 구경했다고 기록돼 있다.

앞서 파주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법 제23조 및 교육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김금숙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총괄로 '우리고장파주 집필위원회'를 구성, 임진강 거북선 등 파주 관련 내용에 대한 집필과 검토 및 역사전문 장학사 최종 점검 등 총 3단계의 엄격한 집필기준과 검토를 통해 우리고장파주를 제작했다. 이번에 발간된 총 96쪽의 우리고장파주는 다음 달 새학기부터 관내 대성초교를 비롯해 관내 57개 초교 5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배포된다.



이 가운데 임진강 거북선 관련 내용은 이 교과서 2단원 우리고장 문화유산편 62~63쪽에 걸쳐 '임진강에 거북선이?'라는 읽기자료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와 함께 제공된다. 특히 임진강 거북선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보는 코너를 마련, 창의력을 발휘토록 유도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우리고장파주'에 수록된 임진강 거북선 내용이 알려지도록 파주시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알릴 것"이라며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임진강 거북선을 파주 평화문화관광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임진강 거북선 복원 등을 위해 2억 4천만 원을 들여 문산읍 임진리 2913일원 임진나루(옛 임진도)의 정밀 발굴조사에 나선다. 임진리는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된 임진강 거북선 훈련장이다. 파주=김요섭기자

20

경기도민일보

2019년 03월 07일 목요일 005면 사회

시민 체감 대중교통 정책 추진

파주시, 새 경기 준공영제 사업 참여 등



파주시가 온수업체들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공영버스를 확충하고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공영버스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새 경기 준공영제 사업에 참여하고 국토교통부 광역급행(M)버스 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경기도 새 경기 준공영제 사업'은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광역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출퇴근구간 운행하는 노선의 선정돼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 광역급행(M)버스는 서울역행 노선으로 3월 중 공모할 예정이다.

5월 중에는 서울 강남을 운행하는 G7409번 노선에 2층 버스 2대를 추가 투입해 출퇴근시간대 이용편의를 높인다.

교통소외지역에 대중교통서비스도 확대한다. 법·오지지역 등 교통소외지역은 이용수요가 적어 운송업체에서 운영을 기피하고 있어 최소한의 교통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버스 도입, 공영버스 확대,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는 운행적자로 운송업체가 기피하는 지역에 운행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운행하는 버스로 시는 올해 1개 노선 3대의 맞춤형 버스가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돼 4월 중 탄현면 교통소외지역을 운행하게 된다.

'공영버스'는 파주시가 운송업체에 위탁해 운행하는 노선으로 총 3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 올해 경기도 공영버스 확대사업 공모를 통해 2대가 추가돼 월롱면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9번 1대를 증차하고 문산시내를 운행하는 29번 노선에 6월 중 도입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도시지역 내 교통사각지역에 수요응답형으로 운행되는 노선이다. 도입지역은 상지석동, 야당동 압데이비 출퇴근과 정하교시간 이용수요에 맞춰 운행하고 야당동에 설치되는 운정중앙빈원실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심야시간대는 운정이, 야당에과 연계해 운정신도시를 운행하는 49번버스가 7월 중 도입된다.

시는 현재택시 사업도 벌이고 있다. 현재택시 사업은 만선7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1000원의 요금으로 대중교통이 관리한 지역까지 이동을 도와 도심지역의 복지·문화서비스를 누리게끔 하는 것이다. 월평면 능산리 외 7개 지역에 시범운영하고 올해 상반기 결산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 마을 선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대중교통 이용승객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과 마을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한다.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이면도로 등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하차할 수 있는 제도다. 늦은 저녁 귀갓길에 여성·노약자·청소년 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올해 1월2일부터 9개 구간에서 시범운행 중이다.

'마을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 버스 운행률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시는 마을버스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역을 7월까지 마치고 시스템 구축 등(준)공영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택시 분야에서는 택시총량제를 통한 택시 증차를 추진한다. 이번 제4차 택시총량제는 5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되는 조사결과에 따라 택시 증·감차가 결정되는데, 제3차 총량제 시점보다 도시가 발전했고 인구유입도 계속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현재 파주시 택시는 772대로 대당 586명이 넘는 시민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다.

파주=이상훈기자

21

신아일보

2019년 03월 12일 화요일 012면 메트로 / 수도권



경기도 파주시는 '파주 교하 3·1독립운동 기념비'를 건립하고 11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파주, 교하 3·1독립운동 기념비 준공식

임명애 지사 등 독립유공자 숭고한 정신 기려

경기도 파주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 일대에서 펼쳐진 만세운동들의 도화선이 됐던 교하초등학교(옛 교하공립보통학교)에 '파주 교하 3·1독립운동 기념비'를 건립하고 11일 준공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종환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파주시 3·1운동1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부준효 광복회파주시지회장 및 유관기관·단체장, 교하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로 준공기념식, 제막식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파주의 유관순'으로 청송받는 임명애 지사 배역을 맡은 파주시립예술단원의 독립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정석자 전원이 참여해 '3·10 교하공립보통학교 만세시위'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 최초의 만세시위로서 파주지역 대대적 3.1만세운동에 불씨를 지폈던 임명애 지사와 부군인 염규호 지사, 이에 뜻을 함께한 파주시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하게 됐다"며 "오늘을 계기로 애국선열의 정신을 함께 되새기고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이상길 기자 sglee@shinailbo.co.kr

22

21 시민 체감 대중교통 정책 추진
[경기도민일보 2019. 03. 06.]

22 파주, 교하 3·1독립운동 기념비 준공
[신아일보 2019. 03. 12.]

23

중부일보

2019년 03월 15일 금요일 003면 사회

파주시 취업 취약층 자립 돕는다

올해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7억6천만원 투입 3단계 진행
2단계 18일부터 60명 선발

파주시가 2019년 취업 취약계층의 실질적 일자리 연계를 돕기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팔관을 마련한다.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저소득 실업자, 청년 미취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일자리센터 직업 상담을 연계해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한 민간 일자리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 파주시는 공공근로사업에 7억6천2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했다.

이는 지난 해 6억9천7000만원 원 대비 6천1550만 원 증액된 것이다.

공공근로 선발인원 또한 지난 해 128명에서 42명 증원돼 올해 총 17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크게 2가지의 차별점을 뒀다. 첫 번째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자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다.

두 번째는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사업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올해 공공근로 참여 근로자에게 2시간 한도로 일자리센터 개별 상담을 지원한다.

취업상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공공근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연계를 돕는다. 파주시의 공공근로 사업은 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등 총 3개 분야 29개 사업이며 올해 최저임금을 반영해 시급 8천350원(전년대비 10.9%인상) 부대비 5천원(전년대비 2천원 인상)이 지급되고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지급된다.

연간 총 3단계로 나눠 사업이 진행되고 단계별 참여인원은 사업에 따라 예산 한도 내에서 선발된다.

2019년 공공근로사업 2단계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아 5월 2일부터 8월 21일 사업이 진행되며 총 60명을 선발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공공근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게 됐다"며 "과거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던 공공근로 형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간 일자리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24

京仁每日

2019년 03월 19일 화요일 007면 지역

파주시, 2019년 관광두레 지역 선정

관광주민공동체 육성에 5년간 국비 6억원 지원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 관광두레'공모에 선정됐고 18일 밝혔다.

관광두레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 식음, 기념품, 주민여행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지역 지역활동가(관광두레 피디)에게는 다양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활동비 및 관련 교육비가 지원되며 주민사업체에는 창업멘토링, 상품 판로개척 및 홍보비를 최대 5년간, 국비 6억 원이 지원된다.

파주시 지역활동가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면접과 워크숍 평가를 통해 '파주로1박2일 협동조합' 송영철 이사장이 선정됐다.

송영철 이사장은 매년 지역 농가와 협업해 체험활동이 나눔과 기부로 이어지는 재능-기부형 팜파티를 운영하는 농촌체험관광 전문가며 지난해는 농촌진흥청의 강소농 경진대회에서 농촌관광활성화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파주시는 이번 공모심사과정에서 한반도 평화-공정여행, 파주관광두레-공유버스 및 DMZ세계평화-체험프로그램, DMZ관광기념품 육성사업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파주시 관광과장은 "의욕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주민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역활동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관광두레사업이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정운기자

25

현대일보

2019년 03월 26일 화요일 016면 종합

파주시 구석구석…다양한 관광지 즐겨요

파주시 '오감만족 시티투어 휴(休)' 4월 1일부터 운행



파주시의 매력적인 역사·문화 관광지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파주시티투어 휴(休)' 가 4월 1일부터 본격 운행된다. 파주시티투어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되는 테마형 당일 코스, 매주 주말 운행되는 체류형 1박2일 코스, 화려한 밤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1박2일 별빛투어 코스 등 다양한 코스를 마련해 파주의 구석구석 다양한 관광지를 즐길 수 있다.

임진각 및 책쉼공글, 마장호수, 파주이이 유적 등 주요 관광지를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테마형 당일 코스는 △월요일 '경기유형 관광1일 여행' △화요일 'DMZ&평화통일 여행' △수요일 '봄음, 소확행 여행' △목요일 '맥력힐링 여행' △금요일 '동물과의 교감 여행' △토요일 '자연 속 힐링 여행' △일요일 '추억소환 파주여행' 등 매주 운일제다 취향에 맞게 파주의 주요 관광지와 자유롭게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파주출판도시의 나만의 책만들기, 고구려작장의 건강유산균 만들기, DMZ천년꽃차의 꽃차 시음 및 꽃화, 꽃차 체험농원의 염색스카프 만들기, 우농타조농장·모신목장의 농장 체험, 산머루농원의 와이너리 관람, 명화의 숫대문등기, 프로방스 카페정원의 교환빵 만들기 등 파주만의 특별한 체험이 각 코스마다 진행된다. 매주 토·일요일 운행되는 1박2일 여행은 △첫째주 '명화의 감 여행' △둘째주 '감성체험 힐링투어' △셋째주 '역사의 발자취 여행' △넷째주 '예술의 향연, 파주만나기 여행' 으로 특색 있는 숙박지와 함께 파주의 숨은 명소를 경험할 수 있는 체류·체험형 여행이며 DMZ장단콩초콜릿 만들기, 공공예술투입력 만들기, 치즈클락의 치즈만들기가 진행된다.

지난 2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1박2일 파주시티 별빛투어는 △매월 둘째주 금·토요일 '우아한 힐링 여행' △매월 넷째주 금·토요일 'DMZ 별빛 여행' 으로 화이리 예술마을의 형사초봉 만들기, 힐링 합주마니 댄들기와 음의보감 차 시음 등 이색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시티투어 버스는 서울 합정역과 경의선 파주 운정역, 금촌역, 문산역 등에서 탑승이 가능해 수도권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 탑승해 관광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진행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운행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이용요금은 당일코스는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체험비 별도), 1일코스 · 1박2일 코스는 1인 표준이며 파주시민 및 경로 등 할인대상자는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1박2일 코스는 5만1500원에서 2만2천원(각종 체험비, 숙박 및 조식 1식 포함으로 이용가능하다.

일정 및 예약은 파주시 관광과(031-940-4516)나 타선으로부터(031-949-8888로 문의하거나 파주시티투어 홈페이지(www.jjcitytour.co.kr)또는 티몬(www.ticketmonster.co.kr)에서 '파주시티투어' 를 검색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관광객과 파주시민들이 편안하게 파주시티투어를 이용해 역사·문화와 예술, 명품와 명배로 도시, 파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 것" 이라며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파주인생기자 jsg@hyundailbo.com
편집=조홍주 기자 jhj@

23 파주시 취업 취약층 자립 돕는다 [중부일보 2019. 03. 15.]
24 파주시 2019년 관광두레 지역 선정 [경인매일 2019. 03. 19.]
25 파주시 구석구석 다양한 관광지 즐겨요 [현대일보 2019. 03. 26.]

5. 언론에 비친 파주

한겨레

2019년 04월 02일 화요일 013면 종합

외출 장병 모셔라…접경지역 평일도 '들썩'

연천 3천~5천명, 파주 2천명 외출
버스노선 조정·음식점·목욕 등 할인
파주시장 "불편 해결" 외출 체험도
강원 홍천·양양·양구 '맞춤 마케팅'

군 장병 평일 외출제 확대 시행에 따라 경기북부와 강원도 군부대 밀집지역 지방정부와 소상공인들이 '외출 장병 모시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출 장병의 소비를 이끌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1일 각 지방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기도 파주시는 장병들의 외출과 복귀시간에 맞춰 적성·장단·파평면 등 교통이 불편한 전방 지역에 3개 버스노선과 정류소를 새로 만들고 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했다. 또한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 숙박업 등의 이용요금을 5~10%가량 깎아주는 군 장병 할인업소를 기존 33개에서 108개로 늘렸다. 시는 이런 업소를 15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특히 스마트전자지도에 장병 할인업소를 업종·지역별 이용순으로 게시해 장병들이 휴대전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이 많은 적성면 등은 청사를 외출 장병들의 쉼터로 활용하거나 부대 차량의 대기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파주시가 육군 1군단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결과, 평일에 외출 나오는 군 장병은 2천명 안팎이며, 금요일 저녁은 다른 날보다 500~1천명가량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달 22일 문산지역에서 외출 나온 군 장병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는 평일 외출 체험을 했다. 최 시장은 "평일인데도 장병들이 외출 나와 저녁을 먹거나 물건을 사는 등 활기가 넘쳤다. 장병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도 외출 장병들을 위해 미용·숙박·목욕업소 99곳에서 요금의 10%를 깎아주고, 36개 요식업소는 음식값의 5%를, 부대 찌개 거리 식당은 1인당 1천원씩 할인해주기로 했다.

부대와 상권의 거리가 다소 먼 연천군과 포천시, 양주시 등도 외출 장병을 위해 교통수단 확대, 강좌 개설, 요금 할인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천군은 평일 3천~5천여 명의 군 장병이 외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원도의 지방정부들도 "장병 맞춤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홍천군은 버스 시간이 잘 맞지 않아 홍천시내 상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외출 장병을 위해 택시 요금을 20%가량 지원해준다. 속초시는 현재 160개곳인 군 장병 할인업소를 늘리고, 야간진료 확대와 시정 누리집에 맞춤정보 제공 코너 신설, 대중교통 운행시간 조정 등에 나섰다. 양구군은 15억원을 들여 시내 중심에 스크린야구장과 가상현실 체험장, 휴게실을 갖춘 '만남의 쉼터'를 짓고 있다. 화천군도 12억원을 들여 사내·상서면에 만화·개임방, 휴게시설 등을 갖춘 군 장병 편의시설을 짓는다. 양양군은 군 장병 서핑 무료체험으로 장병을 유혹하고 있다. 김용환 강원도 평화지역총괄담당은 "불진절 업소 지도점검과 다양한 문화시설, 즐길 거리 등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 복지증진을 위해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제도'를 지난 2월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 있다. 평일 외출은 월 2회 이내, 일과 뒤 4시간 동안 가능하며 범위는 부대 병력의 35% 수준 안에서 실시된다. 박경만 박수혁 기자 mania@hani.co.kr

26

중부일보

2019년 04월 02일 화요일 009면 사회

파주시 "단돈 1천원으로 택시 이용하세요"

주민 맞춤형 교통 복지 서비스
마을회관서 천원택시 운행식 개최

파주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 복지 서비스인 파주시 천원택시 운행식을 1일 적성면 자장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운행식에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박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천원택시 운행의 빠른 추진을 위해 지난 해 7월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해 1억원(국비50%)을 확보했고, 파주시 브랜드콜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완료했다.

원금 지급을 위한 '파주시 천원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적정 지원 금액 책정을 위한 시범마을별 거리측정도 완료했다.



최종환파주시장과 박 정 국회의원 등은 1일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천원택시 운행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파주시청

또한 파주시는 지난 3월 20일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연합, 이·통장 연합과 천원택시 운행 협약식을 가졌고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배부했으며 시범마을별로 순회설명회도 개최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발이 되어줄 천원택시는 적성면 자장리 등 총 12개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된다.

현재까지 총 810명이 사용자 등록을 완료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 천원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선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은 시범마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해당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의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 후 천원택시 시스템에 등록된다.

시스템에 등록된 이용자는 휴대폰 번호 또는 집전화로 브랜드콜에 전화해 정해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현금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종환 파주시장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도심 외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교통대책인 천원택시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27

26 외출 장병 모셔라… 접경지역 평일도 '들썩' [한겨레신문 2019. 04. 02.]
27 파주시 "단돈 1천원으로 택시 이용하세요" [중부일보 2019. 04. 02.]

경인종합일보

2019년 04월 29일 월요일 010면 지방

파주시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8억원),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8억원) 2개 사업

파주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8억원),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8억원) 2개 사업이다.

야당역 주변은 역사 신설과 인근 공동주택 입주, 대형상가 운영 등으로 유동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출퇴근시간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며 주차공간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최종환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을 통해 3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산읍 선유4리 주거 밀집지역과 선유일반산업단지를 잇는 현행 도로는 폭 협소와 보행로 부재로 주민, 차량 모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이다.

산업단지로 진출입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잦은 데 비해 보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보행로 개설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쾌적한 차량 통행환경을, 주민에게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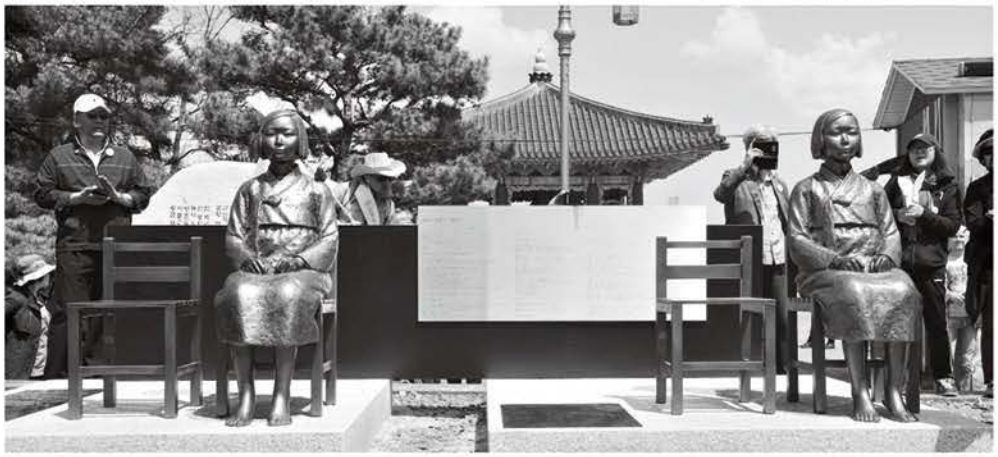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의원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으로 사업비를 적기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상영 기자
/jonghapnews.com

28

한겨레

2019년 04월 29일 월요일 008면 종합



통일 염원하는 소녀상 통일로 가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렸다. 경기도 파주시와 '통일로 가는 평화의 소녀상 세움 파주 시민 추진위원회'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민족의 아픔을 공유하고 평화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이 소녀상을 만들었다. 파주/연합뉴스

29

28 파주시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 [경인종합일보 2019. 04. 29.]
29 임진각에 통일 염원하는 소녀상 [한겨레신문 2019. 04. 29.]

5. 언론에 비친 파주

중부일보

2019년 05월 08일 수요일 010면 사회

파주시 공약 부진사업 현장점검 강화

최종환 시장, 공약이행 추진보고
"국도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공약이행 제고 적극 나설 것"



최종환(사진) 파주시장이 7일 "공약은 시민과의 공적인 약속인 만큼 파주시는 공약 이행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진사업 해소 및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환 시장은 이날 국·과장 및 읍면동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약이행 추진상황 보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도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공약이행율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공약이행 추진상황 보고회는 그동안 부진한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사업 추진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파주시는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 ▶통일경제도시 파주 ▶서민경제도시 파주 ▶생태문화도시 파주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 ▶대중교통 혁신도시 파주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 ▶여성행복도시 파주 등 9개 분야 170개 공약을 담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4월 발표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이 공표한 공약이행 로드맵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중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파주시는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공약사항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민선7기가 본격 시작되며 하나둘 공약이행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한다.

파주시는 지역화폐 도입,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장단콩웰빙마루 재추진, 1천원 택시, 통일동산지구 활성화 등 19개 공약이 이미 완료됐으며 91.2%에 달하는 공약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다.

박상돈기자

30

産經日報

2019년 05월 02일 목요일 012면 경기

파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착수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 제시

파주시가 도시경쟁력 제고와 침체된 노후 시가지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이번 용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과 정부의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는 지자체별 '도시재생 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파주시의 이번 용역은 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028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용역을 통해 먼저 도시의 성장과 쇠퇴 원인, 배경을 명확히 진단하고 도시 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와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이 필요한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실행방향과 각종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수호 파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파주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파주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 경쟁력 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삼기자jss2@skibo.com

31

30 파주시 공약 부진사업 현장점검 강화 [중부일보 2019. 05. 08.]
31 파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착수 [산경일보 2019. 05. 02.]

경기신문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008면 지역



김홍점 문화협대표상임의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이 15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민화협 '남북교류협력사업' 공조

상호간 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농업·유적지 문화·영양식 지원 등

지역 특색 교류 범위 점진적 확대

파주시는 15일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김홍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날 파주시청 접견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협조키로 했다.

특히 파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측과의 교류를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남북 관계가 답보상태에 있긴 하지만 남북교류 경험이 풍부한 민화협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대북제재 등 내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 사업과 사회문화 교류사업이 물꼬를 터 한발 앞선 남북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파주시는 △'파주-개성'간 농업협력사업 △'파주-해주'간 어이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 △사천일대 농경지 피해 남북합동조사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 등 지역적·역사적 특성이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소원해지긴 했지만, 어떤 때 일수록 한발도 뒤와 분위기를 지속 시키고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관계이 부침에 관계없이 파주시가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홍점 대표상임의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 파주시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파주시와 민화협 간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이뤄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화협은 보수와 진보, 종도를 망라해 민족화해와 통일준비를 위해 1986년 출범한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협의체로 문화교류사업, 북한산림녹화협력사업, 인도적지원 및 개발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32

한겨레

2019년 05월 22일 수요일 020면 문화

DMZ에 솟아오른 평화의 그네



2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 설치된 슈퍼플렉스의 그네 설치작품 〈하나 둘 셋 스윙〉의 모습. 북녘 산하를 바라보며 기획자 김선정(왼쪽부터)씨와 작가 아코브 펭에르, 조경진 리얼다큐지 대표가 그네를 타고 있다.

덴마크 아티스트 그룹 슈퍼플렉스
도라산 전망대에 예술작품 설치
협업 에너지·열정의 메시지 담아
"남북한 경계에 지리…기적같이"

"하나, 둘, 셋… 출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세 사람이 탄 그네가 땅에서 치솟아 올랐다. 지면에서 떨어져 하늘로 셋의 발끝이 움직이는 방향 저 멀리 북한의 산하가 들어왔다. 개성공단이 자리 잡은 개풍군 들녘과 송악산 연봉이다.

21일 낮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안 도라산 전망대에서는 그네를 타며 북한을 조망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덴마크의 3인조 아티스트 그룹인 슈퍼플렉스가 지난 몇달간 공들여 설치한 대형 그네를 모양의 공공예술작품 〈하나 둘 셋 스윙〉이 무대가 됐다. 작가 중 한명인 아코브 펭에르와 이 작품 설치를 준비한 리얼다큐지 프로젝트의 기획자 김선정씨, 그리고 취재기자들이 차례로 그네에 올라 땅을 박차고 하늘과 남북한 사이 공간을 떠다녔다.

〈하나 둘 셋 스윙〉은 땅에서 솟아나 이리저리 구부러지며 뻗어나가는 주홍빛 철제선 구조물과 여기에 매달린 2개의 3인용 그네로 구성되어 있다. 슈퍼플렉스는 2017년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미술관에 처음 〈하나 둘 셋 스윙〉을 놓은 이래 세계 곳곳의 특정 장소에 이 구조물을 놓는 프로젝트를 벌여왔다. 각지의 그네 탄 사람들이 중력을 거슬러 함께 박자를 맞추며 움직이는 협업의 에너지를 각각 다른 맥락에서 드러내려 한 작품이다. 열정을 상징하는 주황색 철제선이 각지의 땅을 돌고 솟아올라 그네들을 만들었다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다른 데서 솟아오른다는 상상을 하며 작업한다는 작가의 설명이 흥미롭다.

도라산 전망대의 〈하나 둘 셋 스윙〉은 런던, 덴마크, 독일, 스위스에 이어 다섯번째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상징하는 곳에서 통일과 화해를 향한 또다른 힘의 열망을 조명하는 작업이 됐다. 작가 아코브 펭에르는 "그네타기라는 놀이 행위를 통해 함께하는 협업의 힘을 스스로 경험하게끔 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하면서 "오랜 시간 준비 끝에 남북한 경계 외 한 지점에 설치됐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슈퍼플렉스는 비외른스티에르네 크리스티안센, 아코브 펭에르, 라스무스 닐센이 1993년 구성한 공공예술가그룹이다. 대체에너지, 사회정치적 참여, 도시화, 이주 등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안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조형적 작업을 세계 각지에서 벌여왔다. 2013년 광주비엔날레의 '도심 재생을 위한 소형 건축물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유네스코 화장실'을 만들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국-덴마크 수교 60돌을 맞아 리얼다큐지프로젝트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주관한 이들의 〈하나 둘 셋 스윙〉의 그네타기 퍼포먼스는 앞으로 2년간 도라산 전망대에서 누구든 방문객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도라산 전망대/글·사진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33

32 파주시-민화협 '남북교류협력사업' 공조 [경기신문 2019. 05. 16.]

33 DMZ에 솟아오른 평화의 그네 [한겨레신문 2019. 05. 22.]

경기신문

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009면 지역



파주시 탄현면 살래길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임진강 모습. /파주시 제공

임진강 한 눈에 담는 파주 살래길 새단장 완료

전망대·난간·목계단 등 설치

남북분단의 계선을 끼고 흐르는 한선린 임진강의 물줄기를 한눈으로 내려다보며 통일의 바람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파주시의 '살래길'이 약 3개월 간의 보수 끝에 완성됐다.

파주시는 탄현면 성동리와 법흥리의 통일동산 중앙공원에 위치한 살래길이 새단장을 완료하고 시민들을 맞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착공한 살래길 정비는 시설이 오래되고 곳곳이 급경사지에 노출돼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낀 곳을 중점적으로 보강했다.

또 전망대 설치, 위험구간 난간 및 목계단 설치, 등의자 등 편의시설 정비, 야자매트 설치 등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한 전망대는 임진강과 자유로, 오두산, 헤이리예술마을, 맛고을, 통일동산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가까운 도심에서 건강한 휴식과 함께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할 수 있는 파주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병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통일동산 관광특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망안내판 설치와 이정표 보완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34

경인종합일보

2019년 05월 31일 금요일 009면 지방

파주시, 전국 교통문화 최우수도시 선정

교통문화지수 78.05점 전국대비 2.80점 높아

파주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으로 선정됐다.

교통문화지수는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를 현장, 설문 및 문헌조사를 평가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파주시는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무단횡단 빈도,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지역교통안전정책 이행 등이 우수하게 나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교통문화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교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요약

【표 요약-17】 인구 30만 이상 시 - 교통문화 항상 우수도시

개선 순위	지자체 명	순위 변화
개선도 1위	경기도 파주시	'17년 25위 → '18년 3위(22단계↑)
개선도 2위	충청남도 천안시	'17년 26위 → '18년 8위(18단계↑)
개선도 3위	경상남도 진주시	'17년 28위 → '18년 11위(17단계↑)

■ 인구 30만 이상 시의 교통문화지수는 78.05점으로 전국대비 2.80점 높았음

■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운전행태 45.93점, 교통안전 15.43점, 보행행태 16.69점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안전 항목이 전국대비 2.33점 높았음

윤상명 기자 /jonghapnews.com

35

34 임진강 한 눈에 담는 파주 살래길 새단장 완료 [경기신문 2019. 05. 21.]
35 파주시, 전국 교통문화 최우수도시 선정 [경인종합일보 2019. 05. 31.]

경기도민일보 2019년 05월 27일 월요일 005면 사회

‘DMZ 관광투어’ 4만명 돌파

파주 문산자유시장, 서비스 시행 4년만

파주시는 문산자유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DMZ 관광투어’가 4만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DMZ 관광투어는 경의중앙선 개통을 계기로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문산자유시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통일촌을 무료로 투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산자유시장은 그동안 KBS, MBC, SBS 등 다수의 공중파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되면서 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임없이 늘어났다.

특히 남북한 관계 개선으로 민북지역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DMZ 관광투어에 대한 문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서비스 시행 4년 만에 4만명을 돌파하게 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문산자유시장에서는 3만9999번째와 4만명, 4만1번째 이용 고객에게 선풍기를 준비해 4만명 돌파를 기념했다.

올해부터는 문화관광형 사업 일환으로 DMZ 관광투어 문화해설사 사업을 시작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관광이 아닌 파주의 역사와 분화에 대한 설명도 함께 곁들여 이용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하 문산자유시장 상인회장은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행복하고 더불어 시장 상인들도 행복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성훈기자

36

일간경기 2019년 06월 10일 월요일 015면 지역

“파주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파주시는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파주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파주시청)

파주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관광 종합계획인 ‘파주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7일 개최했다.

‘파주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은 문화·역사·예술·자연 등 파주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주요 거점 관광지를 발굴하고 그동안 파주의 주요 관광자원인 ‘안보관광도시’에서 ‘평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관련 부서 국·과장을 비롯해 목진혁, 최창호, 이효숙 파주시의원과 두원공과대학, 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 등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용역의 주요 과제는 ▲관광 인프라 확대 ▲대표 관광상품 개발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 ▲스토리텔링 기반의 문화콘텐츠 개발 ▲농촌 체험관광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30일 탄현면 일대가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됐는데 임진각·파주출판도시·마장호수 흔들다리·감악산 출렁다리 등 주요 관광자원과의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해 파주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성기홍 기자 sgh@1gan.co.kr

37

36 DMZ 관광투어 4만명 돌파 [경기도민일보 2019. 05. 27.]
37 “파주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 [일간경기 2019. 06. 10.]

38

경인일보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010면 사회



파주시와 CJ ENM은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 통일동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방송콘텐츠' 시설인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 제공

CJ ENM-파주시 '통일동산 콘텐츠 월드' 맞손

2023년 6월까지 조성 협약… 2만여명 일자리·2조2600억 파급 효과 기대

CJ ENM이 파주 통일동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방송콘텐츠 월드' 조성(6월 11일자 10면 보도)을 위해 12일 파주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에는 최종환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허민회 CJ ENM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CJ ENM은 오는 2023년 6월까지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 특별계획구역(경기체인지업캠퍼스 왕) 21만㎡ 부지에 방송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방송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한다. 콘텐츠 월드는 '웰컴 플라자 존(WELCOME PLAZA ZONE)', '드리마 빌리지 존(DRAMA VILLAGE ZONE)', '테마 로드 존(THEME ROAD ZONE)', '원더풀 포레스트 존(WONDERFUL FOREST ZONE)' 등 4개 존으로 구성된다. 웰컴 플라자 존은 콘텐츠와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공장, 방문객 편의시설, 휴게공간, 전시·체험 스튜디오, 상생 업무공간, 주차장으로 조성된다. 드리마 빌리지 존은 참여형 제작 스튜디오 공간으로 지상 3층 규모의 스튜디오 47동과 휴게공간, 방문객 편의시설, 오픈형 스튜디오, 주차장으로 구성된다. 테마 로드 존은 현대극 오픈세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스튜디오, 상설 스튜디오, 시각적 특수효과(VFX) 스튜디오, 특수효과(SFX) 스튜디오, 방문객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원더풀 포레스트 존은 숲속에서 즐기는 테마형 오픈세트로, 사극 오픈세트, 시대극 오픈세트, K-POP 오픈세트, 방문객 편의시설로 꾸며질 예정이다. 여기에 미술센터, 후반 작업공간, 전시체험시설, 관광편의시설, 지상 4층 규모의 주차장 등도 마련된다.

파주시와 CJ ENM 측은 콘텐츠 월드 건설 기간과 콘텐츠 제작·운영(10년)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총 2만1천700명, 생산증가 파급 효과는 총 2조2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isaem@kyeongin.com

39

아시아일보

2019년 06월 20일 목요일 007면 지방

탄현 성동리 주변 교통 확 바뀐다

파주, 자유로 진출로 신설 및 맛고을 진출입로 개설로 교통정체 개선 추진

파주시가 탄현 성동리 주변의 획기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통해 그동안 심한 교통정체로 어려웠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번 교통개선 대책은 기존 성동사거리 주변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현재 준비 중인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사업과 연계해 물류 및 상류시설에서 발생하게 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류단지에서 프로방스 방면으로 진출입 가능한 왕복 3차로 도로와 군시설인 검단교를 활용해 자유로에서 서울방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신설 계획 등이 담겼다.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사업은 성동IC 인근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류기지 역할을 할 복합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다. 사업 주체인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후 경기도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교통개선 대책을 준비해 왔다.

파주시는 교통개선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말 교통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실시했고 6월 초 군시설인 검단교 활용을 위해 9사단의 작전성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 13일에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 사전 협의를 통해 검단교에서 자유로와 연결하는 도로 신설계획에 대해 추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통일동산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최근 CJ ENM과 콘텐츠 월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통일동산 일대는 연간 25만명의 유동인구와 12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파주 중심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파주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관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준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성동사거리 주변의 교통정체 해소와 향후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객의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통개선 방안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승인 과정에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이만희 기자

40

신아일보

2019년 06월 28일 금요일
013면 메트로 / 수도권

파주, 20년 만에 문산천 제방도로 확장

차량 정체·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등 해소 기대

경기도 파주시는 27일 좁은 도로 폭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문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문산천 제방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문산 도심지 침수방지를 위해 설치한 홍수 방어벽으로 인해 도로 확장이 어려워 차량 정체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산천 하천종합정비사업 공사시기에 맞춰 총 사업비 9억5000만원을 투입해 문산배수펌프장에서 임월교 구간 L=0.6㎞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파주/이상길 기자 sglee@shinailbo.co.kr

38 CJ ENM-파주시 '통일동산 콘텐츠 월드' 맞손
[경인일보 2019. 06. 13.]

39 탄현 성동리 주변 교통 확 바뀐다
[아시아일보 2019. 06. 20.]

40 파주, 20년 만에 문산천 제방도로 확장
[신아일보 2019. 06. 28.]

41 파주시 교통소외지역에 맞춤형버스 노선 운행 개시 [전국매일 2019. 07. 01.]

42 파주개성인삼축제 경기관광특화축제 선정 [경인일보 2019. 07. 10.]

전국매일신문 2019년 07월 01일 월요일 016면 사회

파주시, 교통소외지역에 맞춤형버스 노선 운행 개시

경기도와 파주시는 교통소외지역인 탄현면을 운행하는 맞춤형버스를 1일부터 운행 개시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는 이용수요가 적어 운송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는 2015년에 경기도 최초로 도입했으며, 도에서 가장 많은 16대가 운행 중이다.

맞춤형버스가 운행될 탄현지역은 이용수요가 적고 자연부락 마을이 넓게 산재돼 노선버스 운영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역주민 및 학생통학 등 대중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맞춤형버스 도입이 절실한 지역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맞춤형버스는 지역주민 이동편의와 학생통학 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최근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주요 관광지를 운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탄현면 교통소외지역주민 및 관광객 이용 편의를 도입하는 맞춤형버스 75번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교통소외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41

경인일보 2019년 07월 10일 수요일 011면 사회



파주개성인삼축제가 2019 경기관광특화축제에 선정됐다. 파주장단콩축제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열린 파주개성인삼축제 개회식 모습. /파주시 제공

파주개성인삼축제 '경기관광특화축제' 선정

작년 '장단콩…' 이어 두번째 경사

10월19~20일 임진각 일대서 개막

'파주개성인삼축제'가 경기도 대표축제에 선정됐다.

시는 9일 파주개성인삼축제가 '2019 경기관광특화축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파주장단콩축제'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관광특화축제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축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축제를 대상으로 기획·콘텐츠, 운영, 발전역량, 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경기관광특화축제는 도내 11개 축제가 선정됐으며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사업비 3천300만원을 확보했다.

오는 10월 19~20일 파주 임진각 주차장과 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릴 제15회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즐거운삼·맛있는삼·함께인삼·통일인삼'을 테마로,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착한 축제로 개최된다.

시는 성공적 축제 개최를 위해 방문객 만족도 평가를 통해 축제 운영 및 서비스 체계 개선은 물론 적극적인 안전·위생관리로 믿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시장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거리를 비롯해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적극 보완해 만족도 높은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축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파주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031-940-5282)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42

5. 언론에 비친 파주

경기신문

2019년 07월 03일 수요일 008면 지역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 2022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市 조례 제정·연구용역 착수 등 7가지 공인조건 충족 목표 밝혀

파주시가 오는 2022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을 목표로 앞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모델인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자 지속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가 주관해 인증하며 전세계 406개 도시, 국내에는 서울 송파구, 세종시 등 19개 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상호 협력기반 구축, 모든 성·연령·환경·상황별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 그룹 손상예방 프로그램 운영,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프로그램 운영, 손상의 빈도 및 원인규명 프로그램 운영, 손상예방 프로그램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속적 참여 등 7가지 공인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 '파주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착수, 안전도시협의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구성, 안전도시 프로그램개발 및 안전증진사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안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아 접경도시라는 파주이미지를 벗어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43

한겨레

2019년 07월 10일 수요일
T03면 기획/특집



한반도 평화관광 중심지로 거듭난다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를 시정 목표로 '평화·상생·분권'을 통해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 7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통일동산이 지난 4월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시는 한반도 평화관광 중심의 날개를 달았다.

파주시는 지난 2015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관광특구 지정 용역 등을 거쳐 2017년 경기도에 특구지정을 신청했고 마침내 통일동산을 관광특구로 지정받았다. 성동리와 법흥리 일대 약 300만㎡ 규모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헤이리마을, 맛고을, 프로방스, 프리미엄 아울렛, 카트랜드 등 주요시설이 있다. 여러 관광 콘텐츠가 마련돼 연간 20만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이 찾는다.

파주시는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별 활성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왼쪽**)은 "통일동산과 인접한 한강 지역에 오두산 평화·생태 철책 탐방로 조성, 반석나루터 옛 포구 및 뱃길 복원, 한강 하구와 공릉천변 생태습지 체험장 개발 등 관광자원화도 준비하고 있어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콘텐츠 월드도 국내 최초로 파주시에 들어선다. 파주시와 CJ ENM은 지난 6월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콘텐츠 제작과 체험, 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 시설로 축구장 32개 크기인 21만3000㎡ 규모에 이르는 콘텐츠 월드를 구상 중이다. 올해 공사에 들어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2만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2조 2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44

43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 2022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경기신문 2019. 07. 03.]

44 파주시 한반도 평화관광 중심지로 거듭난다 [한겨레신문 2019. 07. 10.]

45 파주시 민생 현안 해결 위한 특조금 54억4천만원 확보
[내외일보 2019. 07. 12.]
46 리비교 일원 'DMZ평화의 길' 거점센터 조성
[경기일보 2019. 07. 19.]

내외일보

2019년 07월 12일 금요일 004면 지역

파주시, 민생 현안 해결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4억4천만원 확보

파주시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과 민생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4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사업은 ▲자유로 도로 정비 및 주변환경 개선(10억원)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10억원) ▲혜이리문화지구 보차도 개선(10억원)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10억원) ▲교하체육공원 및 통일공원 노후시설 개선(7억원) ▲소외지역 생활방범 CCTV 설치(4.4억원) ▲문발·달맞이공원 시설 개선(3억원) 총 7건이다.

자유로 도로 정비와 주변환경 개선과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은 최종환 파주시장이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자유로는 4.27 남북정상회담 시 대통령 이동 경로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바 있으며 파주시와 DMZ 관광을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파손, 중앙분리대 훼손, 주변 잡초 등으로 인한 안전상, 미관상 문제가 있어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 자유로 재포장과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서 대한민국과 파주시 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종환 시장은 취임 이후 수요 등을 고려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해당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혜이리문화지구 보차도 정비, 교하체육공원 및 통일공원 노후시설 정비, 소외지역 생활방범 CCTV 설치, 문발·달맞이공원 시설 정비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안전·여가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환 시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닌 결과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만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산구 기자
sin9lee@naewoeilbo.com

45

경기일보

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009면 사회

리비교 일원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조성

〈파주 장파리〉

軍막사 리모델링·건물 신축
내년까지 휴식공간 등 들어서
체류형관광 활성화 역할 기대

가왕 조용필이 젊은 시절 노래를 부르던 미군클럽 '라스트찬스' 등과 함께 근대등록문화재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 일원에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10곳 중 1곳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거점센터는 리비교 주변 군막사를 리모델링하고 일부 건물을 신축해 카페, 전망대, 휴식공간 등을 갖춰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수십만 년 전에 용암분출로 발생돼 형성된 임진강 주상절리를 볼 수 있어 향후 거점센터를 통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DMZ 평화의 길은 강화~파주~고성까지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동서횡단구간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구간 총 501㎞ 중 파주시 구간은 67㎞에 해당되고 총사업비는 약 28억 원이 소요된다.

본선 외에 민간인통제구역을 경유하는 지선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초부터 운행되는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타고 캠프그리브스와 덕진산성을 거쳐 리비교로 연결되는 민통선 도보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하고 현장답사까지 마친 상태다.

안승면 시 관광과장은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를 통한 체류형관광을 유도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상생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비교는 6·25전쟁시기인 1950년 초 미군이 임진강에 건설한 교량 중 현존하는 유일한 교량으로, 시가 근대등록문화재 등재 추진과 함께 총 96억원(국비 및 시비)을 투자하는 리비교 문화공원으로 조성 중이어서 DMZ 평화의 길거점센터와 연계관광의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46

5. 언론에 비친 파주

서울일보

2019년 07월 25일 목요일 011면 지역

파주, 지역공동체 사업 시민들 삶 윤택해진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역화폐 발행-소상공인 대출 등



▲파주시는 시민들의 삶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가 한·일 무역 갈등 심화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파주 시민들의 삶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가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화폐 발행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 등이 있다.

우선 파주시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 정비 사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파주시는 노후시설개선과 현대화 사업에 올해 5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7년 전통시장으로 인정 등록된 봉일천시장은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으며 금촌전통시장은 무더위 해소를 위한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색 사업으로 문산자유시장은 DMZ 무료투어(1만원이상 구매시), 금촌통일시장은 둘째 주 토·일요일 '금촌 문화난장어울림 장터' 등을 개최하며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6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파주지역화폐 '파주페이'의 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근 지자체로의 소비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파주지역화폐는 파주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점포나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파주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 중 최초로 온라인카페 대표와 육군 1군단 관계자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이달 말까지 파주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파주페이는 당초 올해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발행에 67억 원, 일반발행 22억원 등 총 89억 원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파주페이를 발행한지 2개월여 만에 7월 현재 발행실적이 20억 원을 돌파하며 발행액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2012년부터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적경제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해 35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SK와 '사회적가치 측정' 협약을 체결하며 사회적기업의 재정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 중이다.

현재 파주시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19곳, 예비사회적기업 11곳 등 3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1천3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 중 72%(934명)가 취약계층 근로자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공헌하고 있다.

이밖에도 파주시는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4억 원의 특례보증과 1억6천300만 원의 이자 차액 보전 지원 등 운전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기택기자

47

産經日報

2019년 08월 07일 수요일 011면 경기

파주시, 교통약자 맞춤형 셔틀버스 도입



▲ 교통약자 맞춤형 셔틀버스 운행개시 기념 촬영.

파주시가 지난 5일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셔틀버스를 경기도 최초로 도입하고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맞춤형 셔틀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3명과 가족 및 보호자 등 일반인 6명이 동승 가능하도록 특별 제작한 리프트형 9인승으로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동일한 2인 이상의 교통약자가 1일전 사전 예약하면 희망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파주시는 셔틀버스 운행에 앞서 최종환 파주시장, 이성형, 최창호, 조인연,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파주시의원, 손혁재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순우 파주시 장애인연합회장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휠체어를 이용한 셔틀버스 탑승과 도우미 체험 등의 시승식을 가졌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교통약자 맞춤형 셔틀버스는 지난 2013년부터 파주시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모니터링한 결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 늘어난 만큼 내년부터는 파주시도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더 많은 분들께 다양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34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올해 중 차고지를 파주, 금촌, 운정의 3개 권역으로 분산하고 예약제 불편사항을 보완해 즉시콜 비율을 7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4시간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콜센터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성삼기자jss2@sbbc.com

48

47 파주, 지역공동체 사업 시민들 삶 윤택해진다 [서울일보 2019. 07. 25.]

48 파주시, 교통약자 맞춤형 셔틀버스 도입 [산경일보 2019. 08. 07.]

49 파주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2021년 준공 [경기신문 2019. 08. 09.]

50 'DMZ평화의 길' 파주구간 활짝 [인천일보 2019. 08. 12.]

경기신문

2019년 08월 09일 금요일 009면 지역



파주시가 오는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조감도. /파주시 제공

파주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2021년 준공

시,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파주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오는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안)가 지난달 18일 건축계획, 구조시공, 방재토목, 환경설비, 디자인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당선작은 철새 도래지이자 남북평화의 출발점인 평화수도 파주시의 비상을 형상화한 ㈜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신우 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출품한 설계안이다.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체육 기반시설이 부족한 금촌, 조리, 월롱, 광탄 등 금촌생활권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도시재생을 위해 체육활동에 대한 주민 선호도와 미래수요, 지역 간 균형배치 등을 반영해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건립예정지는 파주시 중앙로 160, 금릉동 파주스타디움 주차장 부지이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25m 10레인 △전용탁구장, 가상스포츠 체험실 및 필라테스, 스피닝, 헬스, GX, 요가 등 주민공감형 체육시설 △핸드볼·농구·배구·배드민턴 등 운동경기와 각종 공연, 강의, 다양한 행사 진행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으로 구성된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49

인천일보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K01면 종합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활짝

도라전망대·철거 GP 등 20.6㎞ 둘레길 코스

남북 분단 이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됐던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이 지난 10일부터 개방됐다.

파주구간은 도라전망대, GOP 통문, 516 철거GP 등 민통선 이북지역과 철거 GP를 넘나드는 20.6㎞ 길이의 둘레길 코스다.

지난 4월 '고성구간'과 지난 6월 '철원구간'에 이어 마지막으로 파주구간이 개방됨에 따라 남북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발길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지난해 열린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시작됐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GOP 이북 DMZ'를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에서 추진됐다.

군은 'DMZ 평화의 길'에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철저한 경호를 지원하는 한편,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선제적 정찰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에 사용 중인 길과 도로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래종 유입, 야생동물 이동 저해 등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방문을 원하는 이들은 'DMZ 평화의 길' 사이트(http://www.dmzwalk.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문대상자를 선정하며,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주 5일(월·목 휴무) 개방한다.

/최남춘 기자 baik@incheonilbo.com

50

5. 언론에 비친 파주

도민일보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012면 경기

파주시, 천원택시 추가마을 선정 완료

8개읍·면16개마을추가확대운영



파주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천원택시의 하반기 추가마을 선정을 위한 '천원택시 위원회'를 지난 2일 개최해 8개 읍·면 16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했다.

파주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가 마을 선정을 위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을 중심지와 정류장간의 이격거리, 최근거리 노선들의 배차간격, 인구대비 노령인구수를 기준으로 1차 대상마을을 선정했다.

2차는 개인·법인택시 종사자, 대중교통 종사자, 이통장연합회장, 시민·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천원택시 운영위원들이 해당지역 마을 대표가 천원택시의 필요성과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해 최종 대상마을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행정리 기준으로 문산읍 3곳, 법원읍 1곳, 파주읍 2곳, 탄현면 1곳, 광탄면 1곳, 적성면 4곳, 파평면 3곳, 진동면 1곳 등 총 16개 마을이다.

파주시는 천원택시 추가이용지역으로 선정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출발·도착지 거리실측 및 요금 산정 수 9월 중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천원택시 추가마을로 선정된 진동면 동파리 등 총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천원택시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천원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선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은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의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 후 천원택시 시스템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게 된다.

시스템에 등록된 이용자가 핸드폰으로 브랜드콜(1577-2030)에 전화하면 정해진 출발지와 도착지를 현금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천원택시 이용 시에는 요금을 반드시 현금 1천원으로 준비해야 하고 정해진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사전에 등록된 핸드폰번호로 브랜드콜(1577-2030)에 전화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천원택시는 이동경로를 각 마을별 마을중심지에서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까지 사전 논의·결정한 후 운행되며 천원의 요금으로 1일 2회(왕복 1회) 365일 이용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선정된 마을주민이면 이용가능하다.

이안조 기자

51

51 파주시 천원택시 추가마을 선정 완료 [도민일보 2019. 08. 12.]

52 파주시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 등 국비 25억 확보 [중부일보 2019. 08. 21.]

중부일보

2019년 08월 21일 수요일 010면 사회

파주시,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 등 국비25억 확보

파주시가 특수상황지역 지원 신규사업으로 국비 25억 원의 2020년 정부예산안을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으로 파주시 전체가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된다.

현재 추진 중인 특수상황지역 지원 계속사업은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파주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 사업, 지표수 보강개발(발랑 탄현지구) 등이며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파주시가 2020년 특수상황지역 지원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사업과 예산은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21억 원)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4억 원) 등 총 국비 25억 원이다.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사업은 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광탄면 신산리 일원의 빈집을 활용해 이등병의 편지 작사 작곡가인 김현성씨의 고향을 테마로 김현성스토리하우스, 이등병우체국, 이발소, 라이브카페, 야외공연장,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상돈기자

52

漢城日報

2019년 09월 02일 월요일 006면 지역

파주시 추석 대비 '천원택시' 추가마을 운행 시작

9월 2일부터 30개 마을로 확대 운행

파주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 복지 서비스인 '파주시 천원택시'를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일부터 3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 4월 1일 시범마을 운행을 시작한 파주시 천원택시는 시범운행 이후 교통이 불편한 마을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추가마을 신청을 받아 지난 8월 2일 천원택시위원회에서 적성면 적암리 등 16개 추가마을을 선정했다.

파주시는 추가마을의 천원택시 운행을 위해 8월 추경예산을 신청해 1억원(국비50%)의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 지원 금액 책정을 위한 시범마을별 거리측정을 완료하는 한편 천원택시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배부했다. 마을별로 순회설명회도 개최해 현재까지 총 2천여 명이 사용자 등록을 완료했다.

천원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선 사용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은 주민등록이 돼있는 마을의 해당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의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 후 천원택시 시스템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게 된다. 시스템에 등록된 이용자는 핸드폰 번호 또는 집전화로 브랜드콜(1577-2030)에 전화해 정해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현금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명달 기자

53

내외일보

2019년 09월 05일 목요일 004면 지역

파주시,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장려상 수상

20억원 확보…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



파주시가 지난 3일 킨텍스에서 열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공모사업에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으로 장려상을 차지해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정·평화·복지' 등 민선7기 핵심가치실현을 주제로 600억 원 규모의 특조금을 내걸고 실시하는 공모대회다.

이번 공모대회에는 경기도 30개 시·군이 참가했고 대규모 및 일반사업 2개 분야로 나눠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심사 14개 시·군이 선발됐다.

지난 3일 열린 본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과 도민평가단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PT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파주시는 지난 해 대규모 분야 대상에 이어 올해는 일반사업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은 경기도 천년정사에 존재했던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이라는 실증적 역사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풀어내 기존 안보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신구 기자 sin9lee@naewoeilbo.com

54

53 파주시 추석 대비 '천원택시' 추가마을 운행 시작 [한성일보 2019. 09. 02.]

54 파주시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장려상 수상! 20억원 확보! [내외일보 2019. 09. 04.]

5. 언론에 비친 파주



시대일보 2019년 09월 06일 금요일 003면 종합

5대 연계서비스
112/119/재난, 이동통신사
스마트시티 도시정보센터
방범·교통·재난·환경 연계장비
CCTV영상
CCTV영상
CCTV영상

경기일보

2019년 09월 27일 금요일 009면 사회

'53억 투자' 파주시-道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시동

8개 과제·23개 사업 업무협약
'창의·꿈·평화' 교육도시 구축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은 26일 파주교육혁신지구 추진을 위해 총 53억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8개 과제 23개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

앞서 지난 1월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파주교육지원청은 파주만의 특색있는 교육컨텐츠 마련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추진합의서 체결과 실무추진단을 발족했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손배찬 시의회 의장과주교육혁신지구, 이행수 파주교육장, 이진·조성환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업무협약에는 '창의·꿈·평화 교육도시 파주'의 비전아래 △창의·꿈·평화로 함께 만드는 교육도시 파주 모델 구축△지속 가능한 행복 파주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파주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파주시의 지역적 특색인 DMZ 생태, 파주3현, 오두산전망대 등 지역 내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역량 있는 마을 강사를 발굴해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한 마을의 인적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강사 모집 및 파주마을대학 운영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파주 안의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학습위주 교육에서 체험과 탐색 등의 교육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며 "파주시의 지역적·환경적 특색을 살린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평화의 도시 파주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DMZ를 활용한 평화교육과 마을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파주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혁신교육지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파주= 김요섭기자

57

경기신문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009면 지역



'2019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파주시가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한 가운데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 감악산 힐링파크화장실 행안부장관상

파주시는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조선일보사,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2019년 제21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감악산 힐링파크 화장실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이 응모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총 27곳이 '아름다운 화장실'의 영광을 얻었다.

감악산 힐링파크 화장실은 자연을 연상케 하는 식물, 빛, 돌, 물을 재연해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상징적 조경공간으로 자연 속에 있는 착각에 빠지도록 조성됐다.

현대적 감각의 인테리어는 물론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서 청결도를 높였고 특히 장애인용 및 어린이용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보수해 장애인 및 어린이들의 사용 편의를 높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준태 시 관광사업소장은 "화장실에서도 파주시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격이 있고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감악산 힐링파크 화장실의 수상을 계기로 파주시 대표 관광지인 DMZ관광지와 마장호수 출렁다리에도 특색 있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58

57 '53억 투자' 파주시-도 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시동 [경기일보 2019. 09. 26.]
58 파주 감악산 힐링파크화장실 행안부장관상 [경기신문 2019. 10. 21.]

漢城日報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011면 사회

파주시, ASF 사후관리 총력

긴급행동지침과 별도로 市는 거점 및 대인소독시설 지속 운영

파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월 19일자로 관내 모든 돼지의 수매 및 살처분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관내 총 110개 농가, 11만499두를 총 56개 매몰지(FRP 47곳, 랜더링 9곳)에 매몰했다.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5개 농가와 주변 3㎞이내 농가 등 45개 농가, 6만1천840두는 살처분을 진행했으며 추가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65개 농가의 1만5천340두는 수매하고 4만8천659두는 살처분을 완료했다.

그간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시사항에 따라 발생농장 및 방역대 통제초소 10곳과 거점소독시설 3곳, 양돈농가 주요 진입로의 농가초소 79곳까지 운영해왔다.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발생농장 및 통제초소 10곳과 거점소독시설 3곳, 농가초소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파주시는 발생농장 초소와 통제(방역대) 초소의 경우 SOP에 의거해 이동제한 해제 시 철수가 가능하나 농림축산식품부 별도 의견에 따라 연장 운영하고, 농가초소는 살처분 및 매몰지 정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농장입구 차단 및 생석회 도포,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 부착 후 오는 10월 25일까지 순차적으로 철수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행동지침과 별도로 거점소독시설 3곳과 대인소독시설 19곳은 지속 운영할 계획" 이라며 "현재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파주 관내에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정명달 기자

59

인천일보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K01면 종합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해야"

시민 150만명 청원문, 법원행정처 전달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요구하는 고양·파주시 150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공동 청원문이 법원행정처에 전달됐다.

27일 고양·파주시에 따르면 최종환 파주시장과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공동 청원문을 전달했다.

공동 청원문에는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에 대비, 낙후된 고양·파주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양 시는 공동청원문에서 고양지원이 설립된지 16년이 지난 지금 고양·파주 인구는 36% 증가했고 지역총생산은 두 배로 성장하는 등 도시 규모가 커져 소송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지원 1심 본안사건 수는 전국 지원 평균의 3배인 2만3000여건으로 장흥지원에 비해 무려 23배나 많은 건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주·울산·창원 등 지방법원 보다도 많은 소송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고양·파주지방법원의 승격 타당성을 제기했다.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와 관련, 고양시는 지난 8월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두 달 만에 5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올 12월 국회와 대법원에 전달한다는 계획이고, 파주시는 낙후된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양·파주=김재영·김은섭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60

59 파주시, ASF 사후관리 총력 [한성일보 2019. 10. 23.]

60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해야" 청원문 전달 [인천일보 2019. 10. 28.]

경인일보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010면 사회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8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내년도 4개 중점 추진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 이이 선생 유적지교류등 남북협력 펼친다

내년도 중점사업 4건 의결

파주시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종환 시장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파주·개성 농업협력사업' 등 내년도 4개 중점 추진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한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파주~개성'간 농업 협력사업 ▲'파주~해주'간 이이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 ▲남북체육교류협력사업 ▲북한 아동이 영양지원사업 등이다.

남북협력위는 이 밖에도 ▲파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모 ▲문화·경제교류 관련 남북공동학술포럼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을 구상하기로 했다.

최 시장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5일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의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류 추진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흐름을 살리고 이어 나가기 위해 남북교류의 관문이자 동일 전진기지인 파주시의 선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issem@kyeongin.com

61

경기신문

2019년 11월 07일 목요일
009면 지역

23년 이어온 파주 장단콩축제 22일부터 직거래중심 펼친다

파주 임진각·평화누리 일원 개최

파주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파주 임진각 광장 및 평화누리 일원에서 제23회 파주장단콩축제를 개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근 시군에서 방역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개막식 등 의전행사, 무대공연 행사는 취소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중심으로 축제를 추진한다.

특히 시는 축제장 진·출입로 소독시설 설치 및 개인 소독기 비치 등 빈틈없는 ASF 방역 대책을 기본으로 파주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중심으로 행사를 개편했다.

올해 취소되는 프로그램은 개막식, 기념행사(장단콩인증식, 장단콩 장담그기, 명사메주만들기), 금산리 민요, 경기 민요, 남사당 줄타기 공연, 임진강예술단, 창작 마당극, 윤관 장군 재연극, 공연 행사(작한 콘서트, 고향 페스티벌, 폐막공연), 주민자치 한마당 공연, 불꽃놀이 등이다.

축제의 무대공연은 취소됐지만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꼬마메주 만들기, 가족사진 무료 인화, 도리깨 콩 타작,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고구마 구워먹기, 와글와글 놀이터, 장단콩 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축제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화장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도 방문객 동선에 맞게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태풍피해와 파주개성인삼축제 취소로 이중고를 겪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특산물 판매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파주장단콩과 파주개성인삼, 한수위 파주쌀, 사과, 배, 버섯 등 농특산물과 된장 등 장류 가공품, 시골 장터를 재연한 재래장터를 통해 도시에서 접하지 못한 다양한 품목이 구비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진흥과(☎031-940-5281~3)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돼지열병 철저한 방역 대책일환 개막 의전행사·무대공연 취소

민요·남사당 줄타기 등 공연 방문객 메주만들기 체험 이벤트 시, 축제장 무료 셔틀버스 운행

62

61 파주시, 이이 선생 유적지교류 등 남북협력 펼친다
[경인일보 2019. 10. 29.]

62 23년 이어온 파주 장단콩축제 직거래중심 펼쳐진다
[경기신문 2019. 11. 04.]

경인일보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011면 사회

파주시, 내년 예산 1조4913억 편성 '역대 최대'

일자리 창출·지역별 균형 발전 '역점' 지난해보다 '16.2%' 늘어나

일반·특별회계 각각 16.1·16.6%↑… 사회복지 '39.9%' 최대 배정

파주시의 2020년도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인 1조4천913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시민생활 안정 및 균형적 도시발전' 기조 아래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의 소득기반 확충 및 지역별 균형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재난해보다 2천77억원(16.2%)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며 "20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천680억원(16.1%) 증가한 1조2천117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397억원(16.6%) 증가한 2천795억원 규모다.

주택·건물 등 과세 대상 증가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과 정부의 확장재정 운영에 따른 국비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4천836억원(39.9%), 환경 1천157억원(9.6%), 교통 및 물류 1천150억원(9.5%), 국토 및 지역개발 791억원(6.5%)을 편성했다.

특히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20년도 예산편성 주민설문 결과 수요가 가장 많았던 분야로 국·도비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 및 고정수요가 큰 환경 분야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선 7기 역점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전년 대비 320억원이 늘어난 1천207억원을 편성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단행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신도시~성석 간 연결도로 개설 236억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60억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 60억원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45억원 ▲파주~부곡 도로 확·포장 18억원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개설 14억원 등이다. 또 미군반환공여지 및 구도심의 활력을 위해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 160억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26억원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17억5천만원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최종환 시장은 "경기 악화, 고령화 및 저출산,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긴전 재경 운영의 원칙 하에 시민 편익 증대 및 속도감 있는 공약 추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63

신아일보

2019년 11월 05일 화요일 009면 지방 네트워크

파주, 도시형 교통 모델 마을버스 등 개통

5개 노선 26대… 대중 교통망 대폭 확충

경기도 파주시가 4일 대중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시형 교통 모델 마을버스 등 5개 노선 26대를 개통했다.

시는 운정 신도시 중심으로 빠르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노선의 변경은 어려움이 많아 노선을 신설하게 됐다. 이에 도시형 교통 모델 3개 노선과 일반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신설했다.

023번 노선은 그간 인구가 적어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웠으나 용상골과 도내리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와 월롱역을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084번 노선은 출퇴근과 등하교가 불편했던 야당동 지역을 중심으로 15분 간격으로 3대 마을버스가 운행한다.

086번 노선은 출판도시 2단계 지역의 근로자와 인근 행복주택 입주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은 교하지구와 운정 신도시를 40분 간격으로 2대 운행된다.

085노선은 파주시 최초로 전기차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금촌역~운정신도시~야당역을 운행하는 해당 노선은 10~20분 간격으로 10대를 운행한다.

조리읍과 운정신도시를 최단거리로 연계하는 089번 마을버스는 대형버스로 운행한다. 조리읍 동문그린시티아파트~운정역~교하지구를 10분 간격으로 10대가 운행한다.

최종환 시장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우선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 광역버스와 천원 택시를 확대하고 마을버스 공공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중 교통 정책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상길 기자 sglee@shinailbo.co.kr

64

63 파주시, 내년 예산 1조4913억 편성 '역대 최대' [경인일보 2019. 11. 20.]

64 파주, 도시형 교통 모델 마을버스 등 개통 [신아일보 2019. 11. 05.]

신아일보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013면 메트로 / 수도권

파주, 경기도 사회적경제 제도평가 '최우수상' 수상

내달 전국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道대표로 출전

경기도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지자체 사회적경제 제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사회적경제 분야 도내 최고 도시임을 입증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기반 정비, 지원수준, 정책성과, 거버넌스 수준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적을 평가했다.

그동안 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성장에 치중하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내실화와 사회적가치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지난해 SK사회공헌위원회와 '파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는 전국 최초로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담당 부서와 파주시 사회적경제 희망센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교육 및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 농업인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등의 교육과정을 추진해 2012년부터 총 42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12월 예정된 고용노동부 주관 제1회 전국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 경기도를 넘어 전국 최고의 사회적경제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사회적경제 분야는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상길 기자 sglee@shinailbo.co.kr

65

한겨레

2019년 12월 05일 목요일 013면 종합

경의중앙선 문산역~임진강역, 내년 3월 개통

경기도 양평군 지평역에서 파주시 문산역까지만 운행하던 경의중앙선 전철이 내년 3월 말부터 임진강역까지 연장 운행된다.

4일 파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6㎞를 단선 전철로 연장하는 사업 공사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모두 388억원이 투입된 이 구간의 전철화 공정률은 현재 90%를 넘어섰으며, 내년 1월부터 석 달간 시험 운행을 거친 뒤 3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경의중앙선 전철을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단선으로 철도가 놓여 있으나, 전력선이 설치되지 않아 하루 한 차례 평화열차(디엠제트 트레인)만 운행해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애초 도라산역까지 9.7㎞ 구간 전철화를 추진했으나 임진강역까지만 예산이 반영돼 임진강역까지만 연장하게 됐다. 공단 쪽은 임진강역~도라산역 3.7㎞ 추가 연장을 위한 사업비 178억원을 내년 예산에 신청한 상태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1년 3월 도라산역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임진강역까지 전철이 연장되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등 북파주 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돼 주민 교통 편의와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66

65 파주, 경기도 사회적경제 제도평가 '최우수상' 수상 [신아일보 2019. 11. 20.]
66 경의중앙선 문산역~임진강역, 내년 3월 개통 [한겨레신문 2019. 12. 05.]

5. 언론에 비친 파주

신아일보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013면 메트로 / 수도권

파주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3관왕

종합대상·발전상·최우수 정책상 수상… 시책사업비 1억원 확보

경기도 파주시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19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해 인센티브로 시책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년도 대비 개선율이 높은 시에 수여 하는 '발전상'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파주형 교통복지'(경기도 최초 맞춤형 셔틀버스, 천원택시, 도시형 교통모델 마을버스)가 최우수 정책상을 수상하는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휩쓸었다.

국토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거해 매년 인구 10만명 이상 75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 부문의 현황과 시행정책을 진단·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조성해 교통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교통문화지수 향상, 교통사고 사망 건수 감소 등 현황 평가와 교통약자를 위한 노력, 회전로터리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 정책평가 부문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종환 시장은 "지금까지 지속가능 교통도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속가능한 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상길 기자 sglee@shinailbo.co.kr

67

인천일보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K02면 종합



23일 라마다 수원 호텔 토파즈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제24차 이사회에서 파주시가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 2021년 경기체전 … 처음으로 연다

도체육회, 개최지 최종 확정

파주시가 오는 2021년 개최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파주시는 23일 라마다 수원 호텔 토파즈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제24차 이사회에서 3개 시·군 유치브리핑 및 이사회 투표를 통해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돼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축전은 물론 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생활체육대회까지 경기도 4대 종합체육대회를 한 해에 모두 개최하게 된다.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가평군, 용인시와 경쟁한 파주시는 이날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유치브리핑을 한 가운데 경기도체육회 이사들의 투표에서 참석 이사 과반수의 표를 얻어 가평군과 용인시를 제치고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투표에는 경기도체육회 이사회 총 42명 중 36명이 참여해 1차 투표에서는 파주 13표, 가평 13표로 동점이 나와 2차 투표를 진행해 파주 15표, 가평 11표를 얻으며 파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파주시는 전 종목 경기장을 보유하는 등 충분한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사상 최초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개회식, 북한 선수의 도체육대회 참가 추진, 민통선 내 경기장 운영, DMZ마라톤 코스 등 남북 교류 확대와 평화를 향한 체육대회 개최를 제안해 많은 이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평화, 문화, 화합의 체전을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체육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숙박, 경기장,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원활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68

67 파주,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3관왕 [신아일보 2019. 12. 24.]
68 파주, 2021년 경기체전 처음으로 연다 [인천일보 2019. 12. 24.]

69 파주장단콩축제, 2020경기관광 대표축제 선정
[경기신문 2020. 01. 06.]
70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인기'
[일간경기 2020. 01. 17.]

경기신문

2020년 01월 06일 월요일 009면 지역



파주장단콩축제가 2020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파주장단콩축제. /파주시 제공

파주장단콩축제, 2020경기관광 대표축제 선정

1997년부터 개최… 농민수익 기여

파주시 대표축제인 파주장단콩축제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2020 경기관광대표축제'에 선정됐다.

5일 파주시에 따르면 '2020 경기관광대표축제'는 관광 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내 축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안전평가, 서류·발표 심사를 실시해 선정된다.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되면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도비가 지원될 뿐 아니라 경기도 후원명칭 사용, 축제장 방문객의 휴대전화 및 카드 사용을 통한 매출 분석 등이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홍보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이번에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된 파주장단콩축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인 장단콩을 주제로 지난 1997년부터 개최돼 축제를 참여하는 농업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2~24일 임진각광장에서 개최된 제23회 파주장단콩축제는 방문객 수 19만 명을 기록했으며, 파주장단콩을 비롯한 농특산물 판매, 주변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14억 원의 직접 경제 효과를 거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매년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 거리와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보완해 만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69

일간경기

2020년 01월 17일 금요일 015면 지역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인기'

파주시, 이용자 설문조사… 98% 재방문 의사

파주시가 지난해 5월 개소한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료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 중 98%가 재방문 의사를 나타냈다.

파주시는 지난해 5월 27일 산부인과 부재로 임신부 관리와 부인과 질환 경사를 위해 타 지역으로 내원해야 했던 문산 권역 시민들을 위해 문산보건지소 내 산부인과를 개소했다.

산부인과 설치를 위해 문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고 최신식 초음파 장비 등 5종을 설치했으며 임신·출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경력이 많고 우수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해 정기적인 어△10월 348명 △11월 346명 △12월 438명으로 5월 27일 개소해 5일간 운영했던 5월을 제외하고 월평균 35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이용자 중 20~30대가 1천185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 731명(30%), 60대 이상 409명(16.7%), 10대 이하 117명(4.8%)으로 나타났다.

진료 항목별로는 부인과 질환(61.5%)가 가장 많았고 자궁경부암 검진(22.9%), 임산부(15.6%)가 뒤를 이었다.

파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시민에게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알리기 위해 항후 경년기 건강관리·월경 장애 등 여성 건강 증진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는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톡소플라즈마·풍진·매독·에이즈와 같은 선병부터 A형 간염, B형 간염, 갑상성 기능 검사 등 기초 예방 무료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검진은 파주시민 중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인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신분증과 결혼예정증명서(청첩장·예식장 계약서)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여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방문해 검진을 받으며 여성과 산모·아이 모두 행복한 파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가 지난해 5월 개소한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료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 중 98%가 재방문 의사를 나타냈다. /시민제보사진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진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성기홍 기자 skh680427@ggn.co.kr

70

중부일보

2020년 01월 29일 수요일 010면 사회

파주시설관리공단 연내 공사 전환 추진

市, 세부계획 위한 타당성조사 착수

파주시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형 사업과 시설관리형 사업이 모두 가능한 혼합형 공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 시설관리공단은 1999년 설립돼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환경기초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시설관리 중심으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파주시가 점차 발전하면서 기존 위탁대행사무 뿐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로 전환키로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기업의 신규 설립보다는 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권고하는 '1자치단체 1공기업'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 내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공단에서 공사로 통합(전환)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연내 공사 출범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추진계획 수립 및 시의회 사전설명을 거친 후 분야별 TF팀 구성을 완료했다. 또 올 1월에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 공사 전환에 필요한 사업, 기구, 자본금 규모, 운영 관리방안 검토를 통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전략 구축과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71

인천일보

2020년 02월 04일 화요일 008면 메트로

파주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최우수'

행안부 평가…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19년 지방재정 신속 집행 하반기 평가에서 일반분야 88.39%, 소비·투자 분야 81.95%의 높은 집행률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와 '하반기 중간평가'에서도 전국 최상위의 집행실적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재정 집행 3차례 평가에서 3관왕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

시는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한 'GRDP(지역 내 총생산)' 개선 효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연초부터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부서별 주요 사업을 분석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했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선 제고 대책회의 개최 등 적극적인 재정 집행 대책을 강구해왔다.

또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 활용지침'을 전 분야에 걸쳐 다각도로 적용하고 주기적인 집행 점검체계를 마련해 집행률 관리를 강화해왔다.

최종환 시장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이월액, 불용액 감소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신속집행을 추진해 온 결과"라며 "2020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클로징10제도'를 적극 활용해 SOC사업의 조기착공, 완공으로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72

71 파주시설관리공단 연내 공사 전환 추진 [중부일보 2020. 01. 29.]
72 파주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최우수' [인천일보 2020. 02. 04.]

중앙신문

2020년 02월 20일 목요일 001면 종합

파주시, 내년 국비 6854억 확보 레이스 돌입

최종환 시장, 확대간부회의 주재
민선7기 공약사항·신규사업 중점

파주시는 '시민과 함께, 평화와 상생으로 도약하는 파주'를 만들기 위해 2021년 국비 확보 레이스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 18일 최종환 파주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2021년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7개의 주요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총 6854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 목표를 달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특히 민선7기 공약사항과 신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약사항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김포-파주 고속도로 ▲파주-포천 고속도로 등 교통기반시설과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광탄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파주형 마을살리기 분야 총 5238억 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교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등 총 219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정부예산안 심의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4월 1단계는 주요사업을 발굴·정리해 누락 없이 신청하고 4~8월 2단계로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방문설명을 통해 정부예산안 반영에 노력하고 9~12월 3단계로 국회 심의에 집중 대응해 나아갈 북안이다.

최종환 시장은 "2021년은 민선7기 3년차로 각종 정책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과 함께 평화와 상생으로 도약하는 파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2021년 목표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동시에 내년도 국비 지원 요건에 충족키 위해 올 상반기 중 주요 국비 사업예산을 조기에 최대 집행할 계획이다.

박남주기자

73

경기일보

2020년 02월 28일 금요일 011면 사회

코로나 확산차단·지역경제 회복 '선제적 대응'

파주시, 원포인트 추경 편성 추진

파주시가 코로나19 확산차단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다음달 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나선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및 사망자가 발생으로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 시민 소비둔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 운영 강화, 경의중앙선 역사 및 전통시장 등 대중밀집시설의 열감지 인력 배치 및 소독 실시, 화상감지카메라 및 방역소독기 등 예방·방역물품 확보,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계비 및 상담·치료 지원, 아동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이자지원 확대, 대 중국 수출입 피해기업에 3억원 이내 경영 안정자금 지원, 피해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지원,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자금 대상을 당초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피해업종 상담센터 운영, 중소기업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감소 및 인력난으로 인한 피해가 큰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생산품 판로 개척, 축산농가 확진자 발생 방지 지원, 임대 농기계 추가 구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 30억원을 신속 집행,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정적 노선운행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74

73 파주시, 내년 국비 6854억 확보 레이스 돌입 [중앙신문 2020. 02. 20.]
74 파주시, 원포인트 추경 편성 추진 [경기일보 2020. 02. 28.]

5. 언론에 비친 파주

경기신문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008면 지역

파주 운정신도시 교통개선 안전성 강화 교통흐름 원활

파주시와 파주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운정신도시 내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직진과 좌회전 및 보행시간 신호를 연장하고, 보행과 차량신호 사이에 3초간의 완충시간을 부여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 민원지점과 주요 거점 교차로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지점별 최적의 신호체계를 만들어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횡단하고 차량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통신호체계 개선은 오는 6일부터 운정신도시 130개 교차로 중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73개 교차로에 우선 적용되며, 20일부터는 운정신도시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이후 시와 경찰서는 적용 전·후의 효과를 분석한 뒤 순차적으로 파주시 전역의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현 시 남북철도교통과장은 "교통신호체계 개선만으로도 큰 비용 없이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으로의 개선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75

중부일보

2020년 03월 11일 수요일 010면 사회

파주 경제 살리기 '올인 프로젝트' 추진

5개 핵심 분야별 세부사업 발굴
긴급자금·착한임대인 캠페인 전개

파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신음하는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모든 행·재정 자원을 전력 투입하는 '파주 살리기 All-i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파주시는 10일 사전 설명회의를 열고 5개의 핵심 분야별 세부 사업 발굴 계획을 공유했다. 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가용 자원을 올인(All-in)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반적 재정 확대가 아니라 파주만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경제 안정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6월 말까지 당초 예산의 70%(4천500억 원 이상)를 신속히 집행해 유동성 공급을 가속화하고 경영 안정 등에 대한 각종 긴급 자금 수혈과 착한 임대인 캠페인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기업살리기 ▶일자리 살리기 ▶관광 살리기 ▶마을 살리기 ▶기타 분야 등 5개 핵심 분야별로 진행된다. 또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업, 해묵은 난제 해결, 재난위기 대비, 새로운 기회 확보를 위한 사업 등 지역 문제해결과 경기부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기준으로 재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오는 17일 예정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부서별로 발굴한 올인(All-in) 지역발전 사업을 발표 및 공유하고 추가 보완 등을 거쳐 세부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중 추가경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최종환 시장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파주만의 특성화된 재정 확대 및 경제 안정화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침체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돈기자

76

경인일보

2020년 03월 20일 금요일 016면 사람들

고양·파주·김포시 '감염병 공동대응' 핫라인 구축

동일생활권 확진자 정보·지원시설 공유
이재준·최종환·정하영 시장 협약체결



고양·파주·김포시 서북부 3개 시장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동선, 중요 정보를 즉각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은 19일 오전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감염병은 도시와 도시의 경계를 가리지 않아 각 지자체가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서로 앞뒤지가 나면 소용없다"면서 "이제 각자도생의 방역을 넘어 중앙-지방 수직적 협력은 물론 지방 도시 간 수평적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포에 거주하며 고양시에 직장을 두거나 파주에 거주하며 고양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3개 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협약을 통해 3개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동선, 중요 정보를 즉각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 진료·격리시설과 보건인력, 방역물품을 서로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원은 신뢰"라며 "서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코로나19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가장 큰 목적이자 의의"라고 덧붙였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은 "오늘 협약식이 공감대를 모으는 자리라면 다음 회의는 실질 자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고양·파주·김포가 협조를 넘어 보다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77

75 파주 운정신도시 교통개선 안전성 강화 교통흐름 원활 [경기신문 2020. 03. 04.]
76 파주 경제 살리기 '올인 프로젝트' 추진 [중부일보 2020. 03. 11.]
77 고양·파주·김포시 '감염병 공동대응' 핫라인 구축 [경인일보 2020. 03. 20.]

중앙신문

2020년 03월 20일 금요일 004면 종합

고양·파주시, 기초자치단체 최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고양시 평화경제중심도시 발판 마련
남북보건의료협력·인도적 지원등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 구축전망
이재준"새로운 시도 이어나갈 것"
최종환"체계적 평화협력 정책추진"

고양시와 파주시는 19일 기초자치체 전국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광역자치단체 일부만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아 기초자치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남북협력기금 80억원 적립, ▲북한 아동기관 영양식 및 필요물자 지원, ▲자전거 평화대장정 등 스포츠·문화교류 추진, ▲대형병원 의료인프라를 활용한 남북보건의료협력기반 구축 등 기초자치체로서는 드물게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선도하며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지금까지 최접경 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서 시민감을 갖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남북협력을 광한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는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존 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부,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평화경제특별시 실현을 위한 기초단계이며, 그 위에 탄탄한 기둥을 세우고 남북평화라는 보금자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평화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주시도 이번 지정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파주시의 대북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지원 사업의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됐다.

기존 규정에선 시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 했지만 통일부가 작년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정대상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면서 파주시가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개성시와 농업협력 사업 ▲매주와 문화교류 ▲남북공동 학술포럼 ▲인도적 지원사업 등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차분히 준비해왔다.

최종환 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경색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국 여학관계에 따라 부침이 많은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회복에 대비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한편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으로 시가 안정적으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추진이 가능한 만큼 새로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화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 기초 자치단체중 최초로 전담 부서인 평화협력과를 신설했으며, 지난 1월엔 남북간 평화조성 관련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추진키 위해 평화기반국을 설치했다.

현재 지방정부 중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등 광역 자치체 4곳이며, 이번에 기초자치체 최초로 파주시와 고양시가 지정됐다.

이종훈기자·박남주기자

78

인천일보

2020년 03월 30일 월요일
009면 메트로

파주 공공건축물 조기 착공

시, 경제 활성화 방안…지역 자재·장비도 권고

파주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공건축물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착공 예정인 공공건축물 사업은 13개 현장으로 사업비는 1494억원에 이른다.

내용별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개소 신·증축 283억원, 운정보건지소 신축 317억원, 운정다누리복지관 등 복지시설 2개소 신·증축 463억원, 운정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 42억원 등이다.

시는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 시 허가조건에 자재·장비를 파주지역 자원으로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역 장비와 자재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도급계약 조건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

현재 철근, 레미콘 공사에 필요한 주요 공통 자재는 관급자재다. 조달청을 통해 공급받는다.

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중장비는 장비 사용료 등 거래 조건이 적정하면 대부분 파주시 장비를 사용한다.

김은숙 시 회계과장은 "1500억원에 가까운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가 조기 착공되면 인근 지역은 물론 파주 전 지역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급업체와 지역의 원활한 협업을 통한 합리적인 공사 진행으로 품격있는 공공건축 건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os@incheonilbo.com

79

78 파주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중앙신문 2020. 03. 20.]
79 파주 공공건축물 조기 착공 [인천일보 2020. 03. 30.]

5. 언론에 비친 파주

중부일보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10면 사회

파주 운정~홍대입구역 버스 운행

파주시는 운정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3100번 버스가 오는 4월 1일부터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파주시에서 7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버스로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진입하기를 원했던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광역 대중교통 갈증을 해소해 줄 전망이다. 총 12대의 버스가 13~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산내마을 6, 8단지에서 출발해 운정신도시와 산남동 등 파주구간 11개 정류소에 정차 후 자유로를 통해 양화진성지공원, 합정역, 서교동 등을 경유한다. 신설된 3100번 노선은 민간업체가 아닌 파주시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선정된 노선이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모델로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한정면허)을 주는 방식이다.

최종환 시장은 "직행좌석 3100번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더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고양시 등을 연계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금촌권 광역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제3차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급행버스(M버스) 공모사업에 참여해 금촌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박상돈기자

80

한국일보

2020년 04월 22일 수요일
A12면 사회

파주 금촌통일시장 등 9곳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선정

경기도가 파주 금촌통일시장과 수원 남문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9곳을 선정해 자생력 강화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21일 시장상인 등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고 침체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대상 9곳을 선정했다. 사업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경기우수시장 육성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상권진흥구역 사업에는 동두천 생연동 도심 상권과 파주 금촌통일시장 등 2곳이 선정됐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묶어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1곳당 올해부터 4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해 시설 개선,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상권진흥센터 설치, 자치 협의체인 상권진흥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을 한다.

경기공유마켓은 전통시장·골목상권·5일장 등이 연계된 장소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수원 남문시장·북문시장·북수원시장·화서시장, 안산 한양대 앞 상점가, 가평 잣고을시장 등 6곳이 사업 대상으로 꼽혔다.

이들 6곳에는 1곳당 최대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우수시장 육성 정책은 관광코스 등 지역의 특화요소를 발굴하고 연계해 지역 중심의 대표 브랜드 시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종구 기자

81

80 파주 운정~홍대입구역 버스 운행 [중부일보 2020. 04. 01.]
81 파주 금촌통일시장 등 9곳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선정 [한국일보 2020. 04. 22.]

경기일보

2020년 04월 09일 목요일 013면 사회

'파주 파평산단' 수도권정비실무위 심의 통과

59만㎡ 규모 2022년까지 조성

파주시는 파평면 장파리 일원에 추진 중인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파평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으로 지난 3월 말 부터 지난 3일까지 시행됐는데 파평산단 건은 조건부 가결, 지난 7일 최종 통보받았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는 성장관리권역에 30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 시 수도권 정비 및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시행된다.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이행이 필요했던 절차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앞둔 파평일반산업단지는 59만3천325㎡ 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이는 3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7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평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파주북부 파평면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82

경기일보

2020년 05월 11일 월요일 011면 사회

이순신보다 180년 앞선 '조선 최초'

파주시, 임진강 거북선 복원 본격화

조선 선조(1592) 임진왜란 때 왜선을 괴멸시켰던 이순신 장군 거북선보다 180여년 앞선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의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 사업이 본격화 됐다.

파주시는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학술연구 및 기초설계 용역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용역에서 ▲조선 초기 군선의 종류, 형태 및 조선기술을 고찰 ▲임진강 거북선의 구조 분석에 적용할 조선 초기 군선을 특정 및 구조 연구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의 기초설계 ▲전통 한선(韓船)의 노(櫓) 연구▲국내외 고선박 및 군선 복원사례 조사 및 활용실태 등 5개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주시는 복원사례 검토, 고증에 관한 타당성 검증 및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토대로 임진강 거북선에 관한 기록을 파주교육지원청 지역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했는가 하면 지난해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서 임진강 거북선복원 등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600여 년 전 임진강을 힘차게 누볐을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에 관한 실질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앞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학술 세미나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실시설계와 문화관광자원화 기본계획 등을 촘촘하게 수립, 차별화된 임진강거북선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진강 거북선은 조선왕조실록 태종편(태종 13년(1413)2월)에는 '태종과 세자가 임진도(현 파주임진나루)를 지나다 거북선과 가상의 왜선이 훈련하는 상황을 구경했다'라고 기술돼 있는데 이는 거북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임진강거북선 복원 및 평화관광사업 추진을 시장공약으로 내세웠다. 파주=김요섭기자

83

82 '파주 파평산단' 수도권정비실무위 심의 통과 [경기일보 2020. 04. 09.]

83 이순신보다 180년 앞선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본격화 [경기일보 2020. 05. 11.]

5. 언론에 비친 파주



아시아타임즈

2020년 05월 11일 월요일 015면 사회

파주시 3560억 추경안 편성… 역대 최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행사·교육비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

최종환 시장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기폭제 역할할 것"

파주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560억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1조9602억원이다. 일반회계 1조6030억원, 특별회계 357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60억원이 증가한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주요 재원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등 국·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잉여금,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및 행사·교육비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해△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87억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56억원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억40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9억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5억5000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4억원 등 총 15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8억5000만원 △체납 실태조사단 운영 3억9000만원 △YES산단 육성 7억5000만원 △중소기업 인프라 및 환경 개선 2억원 △취약계층 농업인 영농대행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문화·생활 편의증대를 위한 생활SOC 확충으로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52억원 △공공체육시설 토지 매입 78억원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34억원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31억원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조성 30억원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조성 22억원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21억원 △시설관리공단 청사 증축 11억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체육시설 개선 6억3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운정역-야당역-영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30억원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25억원 △운정역-능안리 도로 확포장 20억원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18억6000만원 △캠프하우즈 공원 진입도로 개설 13억원 △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 확포장 7억원 △하령산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7000만원 △폼앙을 여는 길 기점센터 조성 12억8000만원 △문산시내 전주지중화 사업 10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연풍 새롭마을) 6억원 △운정 호수·소리천 친수공간조성 4억6000만원 △운정 호수·소리천 오염물질 제거 4억원 △마을회관 유지관리 3억7000만원 △민통선 임진강 탐방로 및 제2전망대 조성 2.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추경 편성 사업은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폭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선 기자 kys2759408@daum.net

84



도민일보

2020년 05월 26일 화요일 010면 경기

파주시, 2020년 공동체 사업 본격 추진

공동체활동, 공간조성, 아동돌봄 등 총 22개사업

파주시는 지난 2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각종 공동체 활동을 위한 '2020년 공동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읍면동별 신청을 받아 경기도 및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가 최종 선정 됐으며 이번 추경확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본격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제안 공동체 활동으로 분산 이주민모임 '다모아놀자'의 '다가치 살기 프로젝트' 등 13개 사업과 공동체 공간조성 분야에 탄현면 '마을살리기 생각발전소' 등 2개 사업,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에 파주읍 '도담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등 2개 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공동체 사업에 운정2동 '내가 트는 마을 영화관 운영팀' 등 2개 사업이 진행되며 마을 내 3개 단체 이상이 연합해 마을자치 실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사업에 조리읍 '봉일천 근대문화거리축제'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총 22개 사업에 3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들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 많은 공동체가 지원 사업에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 읍면동에 마을살리기팀 및 마을공동체팀 신설 등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한 결과며 지난 2019년 12개 사업 대비 83% 증가한 22개 사업이 진행돼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각종 경기가 어려운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참여가 제한된 기 선정 공동체와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한 공동체도 참여 가능한 파주시 자체 '마을공동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오는 28일까지 공모하며 6월 중 대상 공동체를 선정하고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만조 기자

85

84 파주시 3560억 추경안 편성 역대 최대 [아시아타임즈 2020. 05. 11.]

85 파주시, 2020년 공동체사업 본격 추진 [도민일보 2020. 05. 26.]

경기신문

2020년 05월 29일 금요일 008면 지역

파주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신호'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 선정
2021년 착공·2022년 완공 박차

파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파주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내 부족한 행정업무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자들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했고,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복합문화센터는 문발동 516-1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천10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64억8천만원(국비 25억, 지방비 39억8천만원)을 투입해 2021년 착공,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와 우편업무서비스 등 행정지원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활용한 푸드 코트, 소극장, 체력단련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시설은 출판도시 내 기업과 근로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산업단지의 핵심 가치가 과거 생산환경 중심에서 문화·복지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조성은 의미가 크다"라며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그간 부족했던 시설들의 입주로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86

인천일보

2020년 06월 01일 월요일 012면 사람들



파주역사 담아 구운 '파발빵' 맛보세요

이달중순부터 푸드트럭 등 활용 판매 예정
청년창업가 육성·대표먹거리 조성 MOU

파주시는 '파주파발빵'을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9일 청년 창업가 교육 수료식과 함께 파주대표 먹거리 조성 관계자와 MOU를 체결했다.

파주파발빵 청년 창업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돼 일정 교육을 수료했으며 6월 중순부터 푸드트럭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또 이날 지속적인 파주파발빵 개발과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류재은베이커리, 약식동원㈜, ㈜타임커뮤니케이션, ㈜종이예술과의 MOU 체결도 함께 진행됐다.

파주는 서울과 개성, 의주로 가는 길목(의주길)에 있어 예로부터 파발이 도달하는 역이 있었으며 파주에는 '말 마(馬)'가 들어가는 지명(적성면에 설마리와 마지리, 문산읍 마정리, 광탄면 마장리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역사·지리적 특성과 함께 청렴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렴 마패의 약자인 '청마'와 조선 시대 파발이 달렸던 역사적 상징성을 담은 '파발' 두 가지를 상표출원해 파주시 대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준비해 왔다.

2020년에 '파주파발빵'이란 명칭으로 상표출원 및 제품생산을 완료해 파주 특산물인 장단삼백을 활용한 파주시 대표 먹거리 조성에 첫발을 딛게 됐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파발빵은 파주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고 청년 창업가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파주파발빵이 시의 대표먹거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87

86 파주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신호' [경기신문 2020. 05. 29.]
87 파주역사 담아 구운 '파발빵' 맛보세요 [인천일보 2020. 06. 01.]

5. 언론에 비친 파주

경기신문

2020년 06월 02일 화요일 008면 지역

"파주가 최적지"…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 전력

2곳 신설·3곳 이전 검토 대응
市, 태스크포스 구성 본격 가동

통일시대 유라시아 진출의 관문
물류·교통 핵심도시 입지 강조

파주시가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경기도의 2개 기관 신설 및 3개 산하기관 이전 검토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 신설이 예정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의 경우 유치 시 기대 및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를 유치하는 데 전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기교통공사가 통일경제시대를 대비해 향후 남북한을 아우르는 경기도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파주시야말로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에 남북을 이어주는 물류와 교통의 핵심 도시로서 경기교통공사 입지의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또 파주시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농복합도시이므로 경기도가 각종 교통사업을 추진할 때 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경기도만의 교통모델을 확립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는 주장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그동안 접경지역 각종규제로 인해 희생을 감수해야했던 파주시민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는 통일시대 유라시아 진출의 관문으로서 철도교통과를 직제에 두고 광역철도행정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복합형 교통의 선도도시로서 천원택시 성공, 마을버스준공영제 시행 등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다"며 "기관의 입지에 적합한 접근성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추진단 태스크포스(TF)의 본격 가동을 통해 가용한 모든 자원과 인력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88

경기매일

2020년 06월 30일 화요일 006면 지방

파주형 희망일자리 참여자 1783명 모집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주형 희망일자리' 참여자 1,783명을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5월 말부터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환경개선, 공공업무 지원,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총 150개 사업 총 1,783명을 모집한다.

희망일자리 모집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파주시민으로 취업취약계층(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포함),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다. 단,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등을 수급 중인 자는 이번 사업 참여 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일 최대 3시간~8시간까지 근무하며 2020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해 1일 3시간 근무시 25,770원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4대보험에 가입된다.

파주 = 신민하 기자

89

신아일보

2020년 06월 23일 화요일
009면 지방 네트워크

파주 관광경쟁력지수, 경기도 시·군 👍

한국관광공사 전국 관광경쟁력 평가서 최고점 획득

경기도 파주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19년 전국 지자체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중 관광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매년 광역 및 기초지자체 243곳 전부를 대상으로 관광경쟁력을 진단하고 분석해 지자체별 관광경쟁력 수준을 수치화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관광경쟁력 지수는 관광정책, 관광자원집적, 관광성과 등 5개 항목에 49개 세부지표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지자체별 관광경쟁력 종합지수를 부여하는 평가다.

시는 200점 만점에 112.8점을 획득했으며 이는 경기도내 시·군중 가장 높은 점수다. 2018년에 비해서도 6.84점이 상승한 수치다.

5개 모든 항목이 전년에 비해 상승했으며 특히, 관광행정력을 평가하는 '관광정책 항목'과 관광만족도와 재방문 의사를 평가하는 '관광성과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시정비전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 정하고 모든 관광자원에 '평화'를 접목시켜 '안보관광도시'에서 '평화관광도시'로의 이미지 변모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군 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도라전망대를 평화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해 12m 높은 곳으로 이전, 신축했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국민에게 최초로 개방한 DMZ 평화의 길 조성, 민간인통제지역을 곤돌라로 이용해 관광하는 임진각 평화곤돌라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평화관광자원을 개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헤이리마을과 오두산통일전망대가 위치한 통일동산 일원은 관광특구로 지정 받았으며 감악산과 마장호수를 200만 명이 찾는 자연휴양 관광지로 조성했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보듯이 시가 경기도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더 나아가 DMZ 기억의 박물관 유치,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시를 1000만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상길 기자 sglee@shinailbo.co.kr

90

88 "파주가 최적지"…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 전력
[경기신문 2020. 06. 02.]

89 파주형 희망일자리 참여자 1783명 모집
[경기매일신문 2020. 06. 30.]

90 파주 관광경쟁력지수, 경기도 시·군 좋아요
[신아일보 2020. 06. 23.]

경인일보

2020년 06월 24일 수요일 008면 사회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자에 '교보증권 컨소시엄'

파주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4576가구 단독·공동주택등 제시

공공환원 등 협의거쳐 본격 추진



캠프하우즈주변지역 도시개발 조감도. /파주시 제공

파주시 봉일천 반환 미군공여지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파주시는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에서 교보증권컨소시엄(교보증권·호반건설·호반산업·중흥토건·유승종합건설·하우즈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앞서 토목,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부동산, 환경, 금융·회계 등 7개 분야 10명의 전문가로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오후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비롯해 남광토건 컨소시엄(남광토건 외 5개사), 그랜드 케이시티 컨소시엄(하나은행 외 3개사)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통해 총 3천9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천576세대의 단독·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하고, 캠프 하우즈 공원 토지매입 분담금 납부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시는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공공환원 계획 등 관련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6월 사업자 선정 후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중인 2018년 9월 파주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파주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돼 1심에서 파주시가 승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시는 이에 따라 2심 판결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해 협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오는 9월까지도 2심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협약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캠프 하우즈는 지난 1953년 미군에 공여되고 2004년 미군이 철수한 후 환경정화를 거쳐 2007년 한국군에 반환된 지역으로, 공여구역은 파주시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91

중부일보

2020년 07월 01일 수요일 006면 사회

파주시, 금촌새말·문산1-5 주택재개발 본격 추진



파주시는 30일 금촌새말지구(조합장 윤명자)와 문산 1-5구역(조합장 김진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고시했다. <조감도>

지난 3월과 4월에는 금촌율목지구 금촌2동와 제2지구에서 각각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었다. 먼저 2009년에 조합이 설립된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건설 경기 침체와 수도권 대비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표류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 롯데건설㈜와 중흥토건㈜이 컨소시엄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약 14만8천㎡에 지하 3층~지상 28층의 공동주택 5개 단지로 총 2천583세대가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7년에 조합이 설립됐고 2018년 극동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사업규모는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1-1번지 일원 2만5천㎡에 지하 3층~지상 29층의 공동주택 5개 동이다. 이는 총 668세대로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박상돈기자

92

91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자에 교보증권 컨소시엄 [경인일보 2020. 06. 24.]

92 파주시, 금촌새말 문산1-5 주택재개발 본격 추진 [중부일보 2020. 07. 01.]

5. 언론에 비친 파주

아시아타임즈

2020년 07월 06일 월요일 016면 사회

"파주시 지역현안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

기존 주민자치위 대비 권한 대폭 강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리읍 등 11곳 시범지역 선정… 마을계획 수립·집행 등 권한

파주시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권한이 대폭 늘어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한다.

지난 3월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적성면 △파평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금촌1동 △금촌2동 등이 행정안전부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수요 신청을 했고, 지난달 30일 이들 11개 읍·면·동 전체를 '2020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최종 선정해 통보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의 협의·심의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로서 주민의견을 수렴, 마을계획을 수립·집행하고 회비 등 자체 재원 외에 사업 수익이나 운영보조금, 후원금, 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또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주민총회를 연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인 힘을 얻는 등 권한이 강화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30~50명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원 신청은 18세 이상으로 시범지역인 11개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학교·기관·단체 등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위원 신청 후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인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공개추첨 자격이 주어진다.

주민자치학교는 위원 공개모집 기간인 8월 중순부터 개설될 예정이며 신청한 주민은 누구나 쉽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오전, 오후, 야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로 편성하고 온라인 교육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위원 선정을 완료하고, 10월 중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위촉·출범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출범과 함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 폐지된다.

또한 올해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등 조직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본격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해 2022년까지 관내 17개 읍·면·동 전역에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시 파주시가 적극·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생활자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kys2709404@daum.net

93

경인일보

2020년 07월 21일 화요일 009면 사회

'명의 허준 도시' 파주, 치유·의료관광 '한방' 키운다

〈韓方〉

市, 민봉선내 허준 묘역 연계 추진

제약·한의사등 전문가 추진협 구성

약초마을·전시관·맞춤 의료타운…

"검토·용역 거쳐 새 관광자원으로"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의성(醫聖) 허준 묘. /파주시 제공

조선시대 명의(名醫) 허준(1539~1615)의 도시인 파주시가 한방(韓方)의료산업의 관광 자원화를 추진한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허준 선생의 묘역과 연계해 '한방치유(韓方治癒)+의료관광'을 우리나라 특색있는 의료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허준 동의보감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파주 진동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DMZ) 지역에는 조선시대 명의(名醫) 허준 선생의 묘역이 있으며, 그의 저서 동의보감(東醫寶鑑·국보)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제약업계와 한의사협회, 약초재배조합, 홍보·마케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비롯해 국제 콘퍼런스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사업화 실효성과 지역경제효과를 규명, 전략적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또 한방의료 관광시설에 한방 진료실 등 한의학 관련 시설과 명노화 체험 교육관·약초 스파시설 등 휴양시설, 맞춤식 한방약초 조제실·약초 가공판매장 등을 구상하고 있다. 단, 일반인 출입이 쉽지 않은 민통선 내 특수상황 감안, 허준 선생 묘역은 상징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광자원은 민통선 밖으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따라 묘역이 있는 진동면 하포리 일원에는 고려인삼 약초원과 허준 약초동네길, 스마트 약초원, 사상의학 체험랜드 등 한방 약초마을을 조성한다. 민통선 밖 파평면 두포리 음곡수목원에는 허준 한의학 전시관, 맞춤형 한방의료다운, 허준 약초학교, 한방 클러닉센터 등 한방 의료건강산업단지를 만든다.

또 법원읍 삼방리에는 자연치유명상공원과 내장금·동의보감코스 치료원 등 한방약초 자연치유센터, 한방체품 연구단지, 한약재 재배단지, 한방 바이오뱅크, 천연연구센터, 한방기술응용센터 등 신물질 개발연구소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동양 의학의 중심인 허준 선생의 한방치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기존 의료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기술적인 검토와 용역을 거쳐 파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준 선생의 묘역은 지난 19년 9월 30일 제미 고문헌연구가 양승채씨가 '양천 허씨' 족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처음 발견했다. 발견 당시 묘역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문인석과 상석, 망료석 등이 묘 주변에 흩어져 있고 묘비도 두 쪽으로 잘려 있었다.

하지만 묘비에 '영평군 호성공신 허준'이라는 문구가 발견돼 확인 작업을 거쳐 경기도 기념물 126호로 지정됐다.

파주/이홍재기자 doisam@kyeongin.com

94

93 "파주시 지역현안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 [아시아타임즈 2020. 07. 06.]

94 명의 허준 도시 파주, 치유 의료관광 한방 키운다 [경인일보 2020. 07. 21.]

경기신문

2020년 07월 30일 목요일 011면 사람들



파주 통일촌 마을에 울려퍼진 평화의 음악

獨 헤텐슬레벤 마을과 음악교류 파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첫 공연

파주의 민간인통제구역 내 장단지역 주민들이 최근 장단출장소 앞 광장에서 독일 헤텐슬레벤 마을과 'DMZ, 미래평화 100년 Untact 음악교류'를 위한 첫 공연을 진행했다.

통일촌 마을에서는 지난해부터 통일 전 독일의 접경마을이었던 헤텐슬레벤 마을과 서로의 아픔을 다독이고 미래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서신과 영상을 교류해왔다.

파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진행한 이번 공연은 독일 주민들에게도 친숙한 베토벤 영웅교향곡 등의 클래식 연주와 우리의 대표적인 음악인 아리랑 공연 등으로 펼쳐졌다. 특히 공연은 마을 주민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드는 음악 메시지의 형태로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통일촌 마을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이 공연과 지역주민의 영상을 편집해 독일 헤텐슬레벤 마을로 보내 미래평화 100년을 기대하는 두 마을의 우정을 나눠 갈 예정이다.

이후 독일 헤텐슬레벤 마을에서 제작 중인 답가 영상이 도착하면 이번 비대면 공연을 공동 URL에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지속·확대해 민관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완배 통일촌 마을 이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한해지만 지구 반대편의 두 마을이 평화와 통일이라는 같은 마음으로 모인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두 마을의 염원대로 서로 마을을 방문해 접경마을의 아픔과 통일마을의 희망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주 = 최연식 기자

95

수도권일보

2020년 08월 07일 금요일 007면 경기

건강증진 · 복지향상 '파주문화체육센터' 개관

복합 문화체육 공간
연면적 3,625㎡ 규모
주민의견 최대 반영



파주시는 지난 5일 최종환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과 도·시의회의원 및 기관단체장과 파주시 주민 등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주문화체육센터(파주읍 파주리 121-1)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은 그 동안 파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기여한 파주에너지서비스(주) 등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및 표창 수여와 기부물품 전달, 테이프컷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개관식은 코로나19에 대비해 마스크착용, 발열검사, 객석 2m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 후 진행됐다.

파주문화체육센터는 파주읍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난 2018년 8월 공사를 시작해 2019년 12월 공사가 완료됐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625㎡ 규모로 지어졌으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1층에는 수영장, 샤워시설, 사우나, 장애인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2층은 헬스장, GX룸, PT룸 3층에는 다목적 문화 공간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옥상에는 자체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파주읍을 중심으로 한 파주시민의 염원이었던 파주문화체육센터가 개관해 기쁘다"라며 "체육활동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파주시 북부권역의 문화체육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문화체육센터는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으로 파주에너지서비스(주)가 2015년 10월 파주시와 체결한 약속을 이행해 건립 및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파주/허윤기자 hu103@sudokwon.com

96

95 파주 통일촌 마을에 울려퍼진 평화의 음악 [경기신문 2020. 07. 30.]
96 건강증진·복지향상 '파주문화체육센터' 개관 [수도권일보 2020. 08. 07.]

5. 언론에 비친 파주



경기신문

2020년 08월 10일 월요일 010면 사람들

쓸모없던 공간, 청소년들 아지트로 변신

파주시 최초 '휴카페' 설립 개관
오래된 2층 건물 리모델링 조성

파주시 최초 청소년이용공간시설인 "청소년자유공간 쉼표(청소년 휴카페)"는 지난 9일 지역주민, 파주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 청소년자유공간 쉼표는 청소년이용시설이 없던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481번지(용주골 창조밸리 내)에 지상 2층의 오래된 건물(연면적 208.78㎡)을 리모델링 해 조성됐다.

시설에는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보드게임 공간, 플레이스테이션 공간, PC 공간, 코인노래방, 스터디룸, 영화상영관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다.

청소년자유공간 쉼표는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로 생활불균형을 해소 할 휴식공간과 다양한 놀이거리와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청소년자유공간 쉼표 1호점을 기점으로 청소년협동 공간이 없는 13개 읍면동에 확대 설치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파주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 최연식 기자

97



한국일보

2020년 08월 14일 금요일
A12면 사회

파주시, 동남아 시장개척단 모집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오는 21일까지 유망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 판로 개척 등을 위해 '파주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화상상담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상담 대상 지역은 미얀마 양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으로, 상담은 10월 19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파주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5곳이다. 참가기업에 선정되면 상담장 임차비, 화상장치 임차비, 시장조사비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98

도민일보

2020년 08월 21일 금요일 010면 경기

파주시,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 업무협약 체결

공정한 시정질서 확립…공공배달앱 성공 발판 마련

파주시는 2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최종환 파주시장, 서철모 화성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 및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박성제 MBC 사장,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번협약은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시정질서 확립을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 공공배달앱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파주시는 지난 22일 경기도 '(가칭)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서비스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공배달앱 가맹점 입점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요식업 중 배달을 이용하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가맹점들은 광고비 0%, 중개수수료2%,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최대 1.2%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민간배달앱의 수수료가 최대 15%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4배 가량 비용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공배달앱의 가맹점들은 파주페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게 돼 매출이 증대되고, 사용자들은 파주페이를 이용해 공공배달앱으로 결재하면 선할인 10%, 캐시백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8일, 파주시청 일자리 경제과로 신청하면(031-940-4537), 가맹점주가 URL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에게 가중됐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만조 기자

99

97 쓸모없던 공간, 청소년들 아지트로 변신 [경기신문 2020. 08. 10.]
98 파주시, 동남아 시장개척단 모집 [한국일보 2020. 08. 14.]
99 파주시,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도민일보 2020. 08. 21.]

신아일보

2020년 08월 27일 목요일 009면 지방 네트워크

최종환 파주시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한국자치발전硏 주최… 10월13일 백범김구기념관서 시상식

경기도 파주시는 최종환 시장이 지난 24일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후원하는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의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독창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공무원 및 민간단체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최 시장은 4회 연속 신속집행 전국 1위, 경기 First 등 각종 공모 선정, 매니페스토 공약평가 우수 및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등 탁월한 행정력으로 파주시정을 이끌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자체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정책 시행 등 발 빠른 대처와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교부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노력도에서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파주형 도시재생 마을살리기, DMZ 평화·생태 관광 콘텐츠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 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정책을 발굴, 추진해 특색 있는 지역정책 추진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최 시장은 "시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로 뜻깊은 상을 받아 기쁘지만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아주대 병원 유치 등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더욱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13일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파주/이상길 기자 sglee@shinailbo.co.kr

100

인천일보

2020년 08월 31일 월요일 010면 메트로



28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아주대 관계자들이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내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아주대 대학병원 건립 업무협약

운정신도시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파주시에 최초로 대학병원이 유치되고 유치에 따른 건립수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일보 8월25일자 1면>

28일 파주시와 아주대학교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병원을 건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박형주 아주대 총장을 비롯해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박해심 아주대의료원장, 박재호 법인사무처장,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인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예정부지 내 아주대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파주시는 조속히 메디컬클러스터 사업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으며, 아주대는 최고 수준의 병원을 적기에 건립해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대학병원 건립과 국립암센터 중심 혁신의료연구센터 및 의료바이오기업 유치를 통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4차 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 역점사업이다.

운정신도시 인근 약 46만㎡ 규모로 민간과 공공이 결합한 개방형 메디컬클러스터로 조성된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들어서는 아주대병원은 수도권서북부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해 남북보건의료 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혁신의료연구센터 내 공동연구 협업체계를 구축해 의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인천 7기 핵심 역점사업인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또 기존의 형식적인 병원 유치방식을 탈피하고 불리한 제반여건을 과감하게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메디컬클러스터라는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을 기획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냈다.

최종환 시장은 "인구 50만명을 눈앞에 둔 시점에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을 유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기에 아주대병원이 건립되도록 지원해 풍부한 일자리와 자족 기능이 완비된 명품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주 아주대 총장은 "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대학병원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시설·장비를 구축해 파주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아주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3회 연속)이며 2019년 기준 국가고객만족도(NCSI) 병원부문 4위, 美뉴스위크 세계 100대 병원(국내 6위)에 선정됐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국내 최상위권 대학병원으로서 경기 서북부 의료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수길 기자 kimss@incheonilbo.com

101

100 최종환 파주시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신아일보 2020. 08. 27.]
101 파주시-아주대 대학병원 건립 업무협약 [인천일보 2020. 08. 31.]

5. 언론에 비친 파주

경기신문

2020년 09월 01일 화요일 011면 지역

정전 67년 만에 판문점 '주소' 찾는다

파주시, 지적복구 프로젝트 가동
연내 미등록 토지 50만여㎡ 등록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용역 발주

한반도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에 대해 정전 67년 만에 주소가 부여된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적복구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정전협정 이후 67년째 미등록 토지로 남아있는 판문점을 포함한 DMZ일원 미등록 토지 135필지, 99만 2000㎡가 올해 안에 파주시로 행정구역 등록 후 복구될 전망이다.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로 남북 적십자 회담 등 남북 교류의 대표적인 장소며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장소이기도 하다.

파주시는 올해 초부터 지적복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통일부, 경기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행정구역 결정 및 조례개정만을 남겨놓고 있어 사실상 지적복구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그동안 파주시민참여연대와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는 '평화가 시작되는 땅, 판문점의 주소를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파주시의회도 6월 22일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을 1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켜 힘을 더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관심 하에 민·관이 협력해 판문점을 포함한 DMZ일원 지적복구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지적복구에 필요한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전협정 67주년인 2020년 복구 등록을 완료하고 파주시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써 위상을 높여 통일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을 위한 평화도시 조성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단계별 중장기 전략을 세워 시 차원의 평화도시조성 정책 추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3일 '파주시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에는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을 예정으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재)세종연구소가 용역을 수행한다.

파주시는 올해 2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으며, 파주평화 아카데미, 6·15 공동선언 20주년 평화통일 문화제, 평화통일 토크 콘서트 등 평화공존 분위기 확산사업을 펼치고 있다.

/파주 = 최연식 기자

102

경인일보

2020년 09월 04일 금요일 007면 사회

'주민 줄어들던' 파주시 파평면 50년만의 기적… "인구 늘었다"

1970년부터 年평균 170명 감소
올해 조사서 2명 증가한 3948명
面, 마을살리기에 행정력 집중

"5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늘었어요."

파주시 파평면이 1970년 통계청 인구조사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늘었다. 매년 평균 170명씩 감소일로이던 인구가 실로 5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파주시 파평면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연이은 악재 속에도 5년 만에 인구가 2명 늘었다고 3일 밝혔다.

파평면은 통계청 인구조사(1970년) 당시 1면2천695명(확인 개수 인구가 1975년 1만202명으로 2천293명(-18.4%)이 준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인구가 줄어 1980년 9천600명(-702명), 1985년 7천780명(-1천720명), 1990년 7천258명(-222명), 1995년 6천377명(-1천381명), 2000년 5천897명(-480명), 2005년 4천860명(-1천37명), 2010년 4천774명(-66명), 2015년 4천412명(-652명), 2019년 3천946명(-196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파평면 인구가 올해 8월 조사에서 3천948명으로 2명(+0.1%)이 늘었다. ⊙그래프 참조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매년 평균 170명씩 인구가 줄어들자 '마을이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있다가 적지만 올해 8월 숫자상으로 2명이 늘어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 파평면은 올해를 인구 증가 원년으로 정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마을 살리기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해 파주시 파평면장은 "농촌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한국적 현상이지만, '마을이 살아야 파평의 미래가 있다'는 비전으로 '마을 살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파평면만의 자생화된 마을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행복한 파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락기자 donsem@kyeongin.com



103

경기신문

2020년 09월 14일 월요일 008면 지역



파주시 마장호수의 주차 정보서비스 모습 /파주시 제공

파주시 교통흐름 자동조정 ITS 구축 청신호

(지능형교통체계)

정부 공모사업 선정·국비 126억 확보

파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자체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1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확보한 국비는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정부가 2021년부터 추진하는 SOC(사회간접자본)에 첨단 기술을 입히는 디지털화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 공모사업 예산이다.

시는 확보된 국비 126억 원과 시비 80억 원 등 총 207억 원을 투입해 교통체계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교통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하고 자동화해 차량의 소통 흐름을 원활시키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하차도에서 사고발생시 2차 사고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발상황 감시시스템, 교통약자 도로 횡단시설과 교통정보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교통정보 수집장치와 제공장치도 대폭 확충된다.

또한, 마장호수를 찾는 관광객이 주차 할 곳을 찾지 못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줄이고 친환경차·소형차 등 차종에 따른 실시간 요금적용과 언택트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주차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도 함께 구축한다.

한편, 파주시는 2019년에도 2020년 ITS 관련 사업비로 국비 60억 원을 확보해 현재 시스템 성능향상 등 ITS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다.

기존 지능형교통체계(ITS)가 교통정보 수집과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21년부터 추진되는 ITS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차량흐름이 빨라지고 주차가 편해지는 등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 최연식 기자

104

102 정전 67년 만에 판문점 '주소' 찾는다 [경기신문 2020. 09. 01.]
103 주민 줄어들던 파주시 파평면 50년만의 기적… 인구늘었다 [경인일보 2020. 09. 04.]
104 파주시 교통흐름 자동조정 ITS 구축 청신호 [경기신문 2020. 09. 14.]

도민일보

2020년 09월 14일 월요일 010면 경기

파주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지역특산물활용 인적자원망 구축 높이 평가받아

파주시는 10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최 '2020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전자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인적자원망을 구축하는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의 고독사 및 자살사고 예방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이날 최우수를 수상했다.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은 지역 특산물인 파주 장단콩 두부를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배달을 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소통을 통한 정서적 지지기반 구축을 통해 자살,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은 주민·민간기관·공무원 간의 참여와 협력으로 구성된 두부봉사대가 두부를 매개체로 이웃 간 소통과 관심을 증가시켜 171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해 올해 4월부터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이 전국 최우수 사례로 평가받게 돼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수한 시책 발굴과 공약의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의 공약 등 우수 정책사례를 한자리에 소개하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모의 장이다.

코로나19로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올해 대회에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144곳에서 353개의 사례를 공모했으며 이중 172개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치른 경연에서, 파주시는 최우수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완조 기자

105

경인종합일보

2020년 09월 16일 수요일 010면 지방

파주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8억원 확보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전문경력관 2명 채용

파주시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2021년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320종) 분석을 통해 안전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사업으로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전국 10개소가 선정됐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파주시가 유일하게 선정돼 국·도비 8억 원을 확보했다.

파주시는 사업비 약 16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안전분석실 150㎡를 설치하고 전문경력관 2명을 채용해 2021년 하반기부터 농산물, 토양, 수질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PLS제도 시행으로 품목별 미등록농약 0.01ppm 검출 시 농산물폐기, 출하정지, 과태료 등 막대한 농가피해가 발생하고 최근 농산물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정밀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잔류농약 분석 지원이 필요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친환경·GAP인증, 학교급식·군납 등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3,000점의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당 30여 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연간 약 9억원의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상명 기자/jonghapnews.com

106

105 파주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도민일보 2020. 09. 14.]
106 파주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공모사업 선정 [경인종합일보 2020. 0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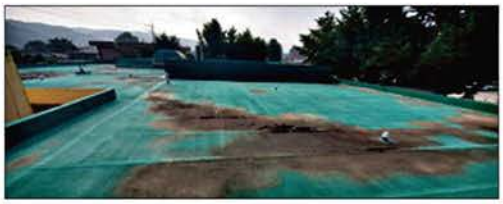
5. 언론에 비친 파주

漢城日報

2020년 09월 16일 수요일 002면 종합

파주시, 시립적성어린이집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공모 선정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한국판 뉴딜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적성시립어린이집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단열저하, 결로·곰팡이 발생 및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실내 환경이 열악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립적성어린이집은 1997년 준공된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3억 8천만 원 중 국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 받아 ▲고성능단열 ▲창호 ▲고효율 냉난방 ▲태양광 ▲석면제거 등을 시행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립적성어린이집 관계자는 "그동안 기능보강사업비로 LED 조명 교체, 보일러 교체 등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으나 건축 후 20년 이상 지나 벽체 균열, 옥상 누수 등 개선이 시급했는데 소외지역에 지원돼 감사하다" 라고 말했다.

우은정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등을 저감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신성장 동력인 그린뉴딜을 통한 에너지 성능개선,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정명달 기자

107

중부일보

2020년 09월 22일 화요일 006면 사회

파주 북부 거점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국비 40억원 확보

총 194억 투입 2023년 개관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지원해 (가칭)문산중앙도서관 건립비로 총 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까지 연간 20억 원씩 2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문산중앙도서관의 2021년도 1년 차 국비 20억 원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반영됐고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 사업비 8억5천만 원도 반영됐다.

문산중앙도서관은 연면적 5천㎡, 대지면적1만1천535㎡의 거점도서관으로 국비 40억 원, 시비 154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3년 개관될 예정이다. 북부지역 분관을 총괄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은 연면적 2천80㎡, 대지면적 1천630㎡의 분관으로 국비 27억 원 시비 48억 원,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개관 예정이다.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착공해 내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문산중앙도서관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중이며 23일 건립 자문위원회를 열어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초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완료 후 설계공모와 도서관 명칭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상돈기자

108

107 파주시, 시립적성어린이집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공모 선정 [한성일보 2020. 09. 16.]
108 파주 북부 거점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국비 40억원 확보 [중부일보 2020. 09. 22.]

경인일보

2020년 09월 24일 목요일 009면 사회

'낙후 낙인' 파주 탄현면, 젊은 마을로 되살린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승인 고시

1057가구 규모로 2023년 준공

시세 대비 75% 저렴한 임대료

청년·신혼가구 100% 특별공급

대한민국 최북방 파주시 탄현면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나 마을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최근 탄현면 축현리 868의 5번지 일원 6만1천920㎡ 부지에 들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탄현 임대주택)을 승인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탄현 임대주택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5층, 8개 동 1천57가구 규모로, LG디스플레이와 1㎞ 가량 떨어져 있으며 동·북측으로는 20m 도로가 접하고 남·북측에는 소공원이 조성된다.

총 사업비 3천512억원(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1천408억원 포함)이 투입돼 올해 말 착공, 2023년 준공 예정이다.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는 탄현면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600명 이상이던 탄현초등학교가 현재 50명대로 감소하는 등 파주 낙후지역 중 한 곳으로 민선7기 파주시장이 주거환경 개선을 공약하기도 했다.

탄현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금호산업 컨소시엄(사업주체·제영산업개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19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진행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 연 임대료 5% 인상 제한, 한국감정원 시세대비 75%의 저렴한 임대료, 청년·신혼가구에게 100% 특별 공급된다.

의무사항 이외 청년세대 근로자를 위한 풀옵션 빌트인 셰어하우스, 맞벌이 신혼세대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특화된 지원 시설이 제공된다.

또 소득수준에 맞는 선택형 임대계약 조건으로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임대관리 전문시스템을 도입해 임대관리의 전문성·효율성을 크게 향상했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낙후된 탄현면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산업단지의 수요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109

경인일보

2020년 09월 24일 목요일 015면 스포츠

파주시, 경기장 시설개선비 확보 <60억> 내년 도종합체육대회 준비 '속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9억 챙겨

체육공원 주변도로 정비 등 총 8건

파주시가 종합경기장 시설 개선비 60억원을 추가 확보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하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46억원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경기장 시설개선비 60억원 등 총 129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예산)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조예산 확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느 해보다 어려워진 재정여건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확보 예산은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개선 60억원 ▲체육공원 주변 도로 정비 15억5천만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 10억원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10억원 ▲중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시설 개선 3억원 ▲금촌체육공원~금촌교차로 보행환경 개선 10억원 ▲문산천 수변공간 편의시설 조성 39억5천만원 ▲고령산 등산로 진입구간 정비 17억원 등 8건이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조예산으로 2021년 5월 개최 예정인 도민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 등 시민 행정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금촌체육공원~금촌교차로 보행환경 개선, 문산천 수변공간 편의시설 조성 및 고령산 등산로 진입구간 정비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최종환 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뛰어 다녔던 결과를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시민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110

수도권일보

2020년 09월 25일 금요일 009면 경기



파주시, 임진강 전망대 평화정 현판식 개최

최종환 시장, "찾아오는 관광객 · 시민 위해 작은 음악회 열것"

파주시는 24일 군내면 노상리 민통선 내에서 평화정 현판식을 열었다.

임진강 전망대에서 열린 이날 정자 현판식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을 비롯한 장단지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방역이 강화된 상태에서 간소하게 진행됐다.

평화정이 설치된 임진강 전망대는 민통선 내 임진각 평화 곤돌라 북측 탑승장에서 내려 약 300m 올라가면 있는 곳으로 DMZ와 민통선 내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고자하는 염원을 담아 만든 전망대다.

전망대에 오르면 임진강과 장단반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강바람을, 겨울에는 눈 덮인 임진강의 운치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전망대에는 평화정을 비롯한 임진강을 바라보는 평화등대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이용했던 도보다리를 재현해 놔 그 때의 감동을 다시 느끼도록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망대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허윤기자 hui103@sudokwon.com

111

109 낙후 낙인 파주 탄현면, 젊은 마을로 되살린다 [경인일보 2020. 09. 24.]

110 파주시, 경기장 시설개선비 확보 내년 도종합체육대회 준비 속도 [경인일보 2020. 09. 24.]

111 파주시, 임진강 전망대 평화정 현판식 개최 [수도권일보 2020. 09. 25.]

5. 언론에 비친 파주

중앙신문

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007면 메트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민자 추진

市-현대건설, 업무협약 체결
오는 2023년 착공 목표 추진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수도권 북부 최대 규모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이 민자(SOC)사업으로 추진된다.

파주시는 지난 25일 현대건설과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및 역세권 개발사업'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식엔 최종환 시장과 현대건설 정진행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정 의원,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 경기도의회 조성환·손희정·김경일·이진·오지혜 의원이 참석해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및 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지부진하다 올 7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 18일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간제안사업자에 따르면 국토부 검토가 조속히 추진될 경우 내달 중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가 가능하며,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인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주기자



파주시는 '지하철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을 민자(SOC)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난 25일 현대건설과 '3호선 파주연장 및 역세권 개발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112

경기신문

2020년 10월 06일 화요일 009면 지역

파주 운정지구 초교 주변 '안전 차량정차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

파주시는 운정지역 7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차량정차대'를 설치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안전 차량정차대는 파주시가 파주경찰서, 파주시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지난 몇 년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주 참여했던 등하굣길 교통캠페인에서 학부모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설치했다.

지금껏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통학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은 학교 주출입구 주변 도로변에서 승·하차하는 등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였다.

시는 어린이 안전 차량정차대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차량에 대한 승하차 공간이 별도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 출퇴근시간대 교통정체, 불법주정차 위반 등 다양한 교통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주운정 와석초교 인근에 설치된 안전차량 안전정차대 모습. /파주시 제공

장문규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차량정차대를 파주경찰서,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설치했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 최연식 기자

113

112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민자 추진 [중앙신문 2020. 09. 28.]

113 파주 운정지구 초교 주변 '안전 차량정차대' 설치 [경기신문 2020. 10. 06.]

아시아타임즈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016면 사회



파주시가 경기5악 감악산 등산로에 경관조명 설치 후 오는 13일 야간개장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초 감악산 힐링파크 등산로 입구 LED램프 문주를 설치한 시는 출렁다리, 운계폭포를 잇는 1㎞구간 등산로에 다양한 야간경관조명공사를 진행해 왔다.

야간경관은 다양한 동물들을 LED 투광등으로 형상을 나타내 밤하늘의 자연과 어우러진 조형 설치를 통해 영상, 음향과 함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화려한 야간경관조명은 전설의 빛을 주제로 신비의 숲, 달빛풍류, 금빛출렁다리, 힐링의 숲, 전설의 비룡폭포 등 5가지 존으로 구성됐다.

감악산 야간경관조명은 하절기(4월~10월)에는 19시~22시, 동절기(11월~3월)에는 18시~21시까지 운영된다. 관람료는 5,000원으로 관람권 구매 시 적성면 할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권(2,000원)을 지급한다. 가맹점 현황은 파주시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요일을 제외한 연중무휴로,방문객들에게 감악산 힐링파크 내 먹거리 촌 및 적성전통시장 방문 시 입장권을 제시하면 할인해주는 안도 검토 중인다.

시 관계자는 "힐링파크 기반시설구축과 함께 야간개장은 또 다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라며 "체류형 관광 유도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kys2709404@daum.net

114

한국일보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A13면 사회

내달부터 '천원택시' 운행 46개 마을로 확대

경기파주시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내달 1일부터 '천원택시' 운행지역을 30개 마을에서 46개 마을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문산읍 3곳, 법원읍 2곳, 파주읍 4곳 등 5개 읍·면, 16개 마을이다.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가 제공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다. 작년 4월 시범운영에 들어가 지난달까지8만 964명이 이용했다. 배차성공률도 97.7%로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대상지 마을 주민이 휴대폰이나 집 전화로 브랜드 콜에 전화하면 정해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115

114 파주시 감악산서 야간 등산해요 [아시아타임즈 2020. 10. 12.]

115 내달부터 '천원택시' 운행 46개 마을로 확대 [한국일보 2020. 10. 16.]

중부일보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016면 사람들

최종환 파주시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주인공



최종환 파주시장이 13일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의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독창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공무원 및 민간단체 등을 선정해 수여한다.
최종환 시장은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자체 마스크 수급 안정화 시책' 시행,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교부, '파주형 ALL-IN 프로젝트' 추진 등 발빠른 방역 및 지역경제 회복 노력과 함께, GTX-A노선 착공, 광역버스 노선 신설, 파주천원택시 운행, 전국 최초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종환 시장은 수상소감에서 "시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로 뜻깊은 상을 받아 더욱 기쁘다"며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116

경기신문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009면 지역



파주 파발빵 1호점 개점 후 최종환 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 금촌시장에 파발빵 청년점포 1호점 개점

장단삼백 활용한 대표먹거리
최종환 시장 "전통시장 활력"

파주시는 지난 22일 지역 특산품 파발빵의 핵심점포 1호점을 금촌시장 문화로에 개점했다고 23일 밝혔다.
파발빵은 우수성이 널리 알려진 장단삼백을 활용한 마패모양의 파주시 대표 먹거리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청년창업가 5명을 모집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창업 및 제품생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들의 대표먹거리 조성 관련 창업을 지원해 왔다.
파발빵은 요리연구가 유은희(어가행렬) 대표와 류재은(류재은베이커리)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해 개발한 상품으로, 지역 특산품인 장단삼백의 명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간편식인 빵으로 소비자의 선호까지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발빵 청년점포 1호점 개점식에 참가한 김모(문산읍)씨는 "즉석에서 만든 파발빵은 찹쌀의 쫀득한 식감과 단팥과 치즈의 풍미가 느껴져 자꾸 손이 가는 맛이다"라고 호평했다.
금촌동에 거주하는 유 모씨도 "포장용 파발빵은 가성비도 좋고 포장도 훌륭해 파주를 방문하는 지인들에게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어서 좋다"고 평가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발빵 청년점포 개점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소비자층 유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침체와 청년 일자리 악화라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첫 판매를 시작한 파발빵은 푸드트럭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류재은 베이커리 직영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홍보를 더욱 다각화하고 수요에 맞춰 점포를 늘리는 등 판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파주 = 최연식 기자

117

116 최종환 파주시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주인공 [중부일보 2020. 10. 14.]
117 파주 금촌시장에 파발빵 청년점포 1호점 개점 [경기신문 2020. 10. 26.]

경기매일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003면 종합

파주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파주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를 통한 '2020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에서 특별상 수상으로 5년 연속 도시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 전문가들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수상도시를 선정한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현장실사를 온라인 발표심사로 대신했으며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및 지원체계 4개 분야 78개 지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전반적인 도시행정을 평가했다.

파주시는 지역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이등병마을 편지길 및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사라져 가는 소중한 기록을 보존하는 파주 아카이브 추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도시 안전망 구축,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등 도시사회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5년 연속 도시대상을 받은 것은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 며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서 건강하고 따뜻한 파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파주 = 신민하 기자

118

産經日報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010면 인천

파주시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10개 종목 수상 '영예'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특별상 등 '쾌거'

파주시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경기도 주최, 한국청소년진흥재단이 주관한 '제28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 10개 종목에서 파주시 청소년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경연대회로 개최한 종합예술제에서 4개 부문 17개 종목,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 장려상 4건, 특별상 4건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최우수상에는 대중음악 개인 고등부 '최보경', 우수상에는 한국무용 군무 '춤담무용단(초등부/중등부)', 댄스 중등부 'COW CREW', 댄스 고등부 'SHO', 대중음악 개인 중등부 '박은영'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현대무용 독무 초등부 '박시은', 발레군무 초등부 '소희발레트리', 서양음악 성악합창 중등부 '그린나래', 한국음악 기악독주 고등부 '방지예', 특별상은 한국음악 기악합주 초등부 '노보람 가야금 병창단', 한국무용 독무 초등부 '최유담', 한국무용 독무 중등부 '이제이', 농악 선반 중등부 '범원여중 풍물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파주시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팀들이 참가할 수 있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우은정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파주시 청소년들의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을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성삼기자jss2@sidbo.com

119

경기신문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009면 지역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최종 선정된 지자체 정책은?

파주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 대상 영예… 특교금 100억 확보

최종환 시장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



파주시는 지난 27일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최종 본선에서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해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의 실현을 위해 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대규모사업 4개소(60~100억 원), 일반규모 7개소(40~60억 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최종환 시장이 직접 PT 발표에 참여해 사업에 대한 열정을 내보였으며 대규모사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2018년 '평화한 마을조성사업'(대규모, 대상), 2019년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일반규모, 장려상)에 이어 3년 연속 경기도 정책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가 제안한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은 개발 당시 휴일작이고 특색 없는 공간으로 조성된 운정호수공원에 대해, 지역주민의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다.

시는 운정호수공원이 자연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숨터'가 되고,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예술인에게는 경제기반이 되는 '일터'가 되다는 주제 아래 ▲진환경적 수질개선 방안 마련 ▲발물놀이터 ▲구름광장놀이터 ▲선상카페 ▲라이더스테이션 ▲물빔포그 ▲보행환경 개선 ▲교량하부 경관개선 등 20여 개의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운정호수공원을 주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예술을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문화와 예술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에 시비 등을 합쳐 2022년 6월까지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야외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을 통해 운정호수공원, 소리천의 친수공간을 파주시민을 위한 도심 속 힐링 공간뿐 아니라 누구나 찾고 싶은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 = 최연식 기자

120

118 파주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경기매일신문 2020. 10. 27.]

119 파주시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10개 종목 수상 '영예'
[산경일보 2020. 10. 28.]

120 파주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 대상 영예… 특교금 100억 확보
[경기신문 2020. 10. 29.]

중앙신문

2020년 11월 02일 월요일 007면 메트로



파주시는 지난 30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마포 공덕역 1번 출구까지 오가는 광역버스(직행좌석) 3400번 노선(왕복)의 개통식을 갖고 1일부터 정상 운행에 돌입했다.

운정신도시-서울 공덕역 광역버스 개통

파주시, '3400번' 노선 신설
1일 10~20분 간격 72회 운행

파주시는 1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마포 공덕역까지 오가는 광역버스(직행좌석) 3400번 노선(왕복)을 개통했다.

이는 지난 4월, 7년 만에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마포 홍익대학교 입구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3100번을 개통한 이후 7개월 만에 추가로 개통된 광역버스 노선이다.

3400번 노선은 운정 가람마을 5단지를 기점으로 한빛마을 5단지, 산내마을 10단지 등 운정신도시를 경유하고 제2자유로를 통해 DMC첨단산업센터, DMC역, 동교동삼거리, 대흥역 등을 거쳐 공덕역 1번출구까지 운행된다.

왕복 80㎞ 거리를 평일 5시 첫 차부터 저녁 11시 30분 막차까지 10~20분 간격으로 1일 총 72회 운행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이다.

그 동안 운정신도시가 조성된 후 고속화 도로를 이용해 빠르게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한 해 2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잇달아 개통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엔 교하에서 운정을 경유해 광화문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M)버스 개통도 준비 중이다.

올해 개통한 3100번과 3400번 버스엔 광역버스 최초로 우등버스 모델이 적용됐으며, 기존 버스 보다 차량 길이가 1m 이상 길고 좌석수가 적어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가 증대되는 등 새로운 모델 도입으로 대중교통 고급화를 이끌어내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광역급행(M)버스와 현재 운행되고 있는 M7111번 버스에도 전국 최초로 전기버스를 도입해 교체할 계획이다.

일반 시내버스도 전기버스로 교체해 자가용보다 편한 대중교통으로 탈바꿈 시켜 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등 지원을 강화할 복안이다.

시는 민선7기 이후 확 달라진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는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7년 만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했다.

이 밖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택시 사업도 당초 30개 마을에서 46개 마을로 확대해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성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시는 서울보다 넓은 면적에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로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환경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님주기자

121

121 운정신도시-서울 공덕역 광역버스 개통 [중앙신문 2020. 11. 02.]

경기일보

2020년 11월 03일 화요일 005면 종합

"남북철도 연결축 'SRT 파주연장' 정부, 의지 갖고 조속히 추진해야"

파주시 정책 토론회 유튜브 중계
경제성 높은 현실적인 사업 강조

SRT(수서발 고속철도) 파주연장사업은 경제성 분석결과 B/C 1이상 확보되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은 2일 파주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SRT 파주연장 사업' 정책 토론회에 참석, '효율적인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SRT 파주연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그는 특히 "SRT파주연장 사업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남북연결 철도 사업의 가장 현실적인 사업이다"며 " GTX - A 노선을 이용해 화성동탄에서 일산까지 연결되는 SRT 노선을 파주운정신도시까지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 SRT 파주연장을 내년 6월께 결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반영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단지 경기북부의 고속철도 연장사업이 아니라 통일한국의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사업이다"며 "경의중앙선을 중심으로 SRT, GTX, 3호선(일산선)간 연결망을 구축해 고속철도를 유라시아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오동익 티랩 대표, 김양수 경기도 철도정책과장, 이주현 파주시 평화기반국장 등이 참석했다. 파주=김요섭기자

122

중앙신문

2020년 11월 06일 금요일 009면 사람들

관광 도시개발 추진 '자족도시' 실현 앞장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식 출범
3본부 2부 9개팀으로 조직 정비
손혁재 사장 "최고 공기업 육성"
최종환 시장 "지역 발전 주춧돌"

파주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케 될 '파주도시관광공사'가 5일 비전 선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 1월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7월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조례를 공포했다.

기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사업에 개발 사업을 주도할 도시관광개발본부를 추가해 3본부 2부 9개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도시관광공사 업무를 본격화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시 개발사업의 실행조직으로 개발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또 시 지방재정 확충과 개발이익 공공 환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고용창출로 자족도시 파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DMZ관광, 마장호수, 감악산 등 파주 대표 관광시설 운영과 함께 파주 역사, 문화, 생태자원 활용한 관광개발 및 마케팅 전략으로 파주 평화도시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파주메디컬 조성사업 등 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도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 내 공공건축, 기반시설 등 건설사업 대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간소하게 치러진 이날 행사에서 손혁재 사장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힘찬 도전에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앞장서는 최고 공기업이 되겠다는 공사의 발전방향과 운영방침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파주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케 될 '파주도시관광공사'가 5일 비전 선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최종환 시장은 "시 주요 사업에 공사가 참여해 파주 개발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사의 행보가 파주시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주기자

123

122 남북철도 연결축 'SRT 파주연장' 정부, 의지 갖고 조속히 추진해야 [경기일보 2020. 11. 03.]
123 파주도시관광공사 출범, 관광도시개발 추진 '자족도시' 실현 앞장 [중앙신문 2020. 11. 06.]

5. 언론에 비친 파주

경기일보

2020년 11월 05일 목요일 010면 사회



파주시 군내면 주암로 사적 제537호인 덕진산성에서 통일신라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성문터(외성문이 있었던 자리)와 성벽 등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북쪽 성벽(왼쪽)과 외성문터. 파주시 제공

통일신라시대 축조 추정 '외성문터·성벽' 발굴

파주시-(재)중부고고학연구소
사적 제537호 덕진산성 발굴 결과

파주시와 (재)중부고고학연구소(원장 김권중)는 사적 제537호인 파주 덕진산성 발굴 결과 통일신라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성문터(외성문이 있었던 자리)와 성벽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외성문은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통일신라시대 처음 축조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용됐음이 확인됐다.

파주시는 이번 발굴조사에서 성문의 구조와 외성의 변천과정을 비롯해 덕진산성의 경관변화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를 축적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진강 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덕진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뤄져 있다. 내성은 지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 발굴조사 결과, 고구려가 처음 성을 쌓은 이후 통일신라시대 대대적으로 보수해 사용했으며 조선시대까지 오랜 기간 주요 성곽기능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외성에 대해선 조선시대 광해군 때 처음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성의 구조나 변화과정 등에 대해선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외성문터와 성벽을 정밀 발굴했고 이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내년에는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124

시민일보

2020년 11월 09일 월요일 007면 종합

35분이면 OK!…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파주시, 지역발전 견인 기대
30년 운영 통행료 2900원



지난 7일 개통한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차량이 시원하게 달리고 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35.2㎞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 도로다. /연합뉴스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지난 7일 전면 개통돼 우리나라 서부를 관통하는 한 축으로서 나후된 서북부 교통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에 착공한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2조1100억원, 보상비 1조837억원과 건설보조금 1576억원은 국비보조하고 나머지 8767억원을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됐다.

운영기간은 30년이고 사업시행자는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다.

편구간 이용시 통행료는 2900원으로 도로공사 대비 1.1배다.

총 연장 35.2㎞로 주요시설로는 IC 8곳(파주 4곳), JTC 3곳, 영업소 9곳(파주 3곳), 휴게소 1곳(상·하행)이 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서부내륙 주요거점 연결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노선으로 이산부터 문산을 연결하는 최북측 구간이며 인천공항, 강원북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기 서·북부 지역의 새로운 고속 도로망이다.

국도1호선 우회기능을 하게 되며 분산에서 서울까지 통행시간이 약 35분 감도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서울~광명 구간과 광명~부여 구간의 준공을 통해 분산에서 이산까지 17번 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서부를 관통하는 한 축으로서 나후된 서북부 교통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분산 고속도로의 연계사업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은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핵심사업의 일환이며 현재 설계 및 사공 일괄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도라산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파주시는 통일시대 관문역할 수행이라는 상징성과 지별성이 부여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관문정신도시에서 고속도로 북고양(설분)IC까지 연결되는 '신도시~설분간 연결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파주=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125

124 파주 덕진산성, 통일신라시대 축조 추정 '외성문터·성벽' 발굴 [경기일보 2020. 11. 05.]
125 35분이면 OK! …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시민일보 2020. 11. 09.]

126

경인일보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009면 사회



파주시 최종환 시장과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10일 파주시청에서 윤후덕, 박정, 심상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로선 철도사업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 제공

파주·고양 숙원사업 '통일로선 전철' 본격 추진

<금촌~삼송>

최종환·이재준 시장, 상생협약

국가철도망 반영 위해 '한마음'

내달 국회토론서 다시 건의키로

파주·고양 시민의 숙원사업인 '통일로선(금촌~삼송) 전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통일로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 국회의원, 파주시의회 및 고양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통일로선 전철사업은 지난해 '국회 통일로 포럼 발족 및 3호선 연장 국회 토론회' 개최 당시 파주시, 고양시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의견을 모아 추진되기 시작했다. 올 6월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통일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종환 시장은 "통일로선 전철은 신분당선 서북부선(용산~삼송)과 연계해 파주, 고양, 서울 종로·서초·강남구 등 270여만 시민이 이용하고 경기남부 판교(성남), 호매실(수원)까지 이어지는 지역 간 철도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고양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와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통일로선 전철사업(舊 조리금촌선)의 반영을 건의했으며, 다음달 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통일로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127

중앙신문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007면 메트로

'파주여행안내 챗봇' 전국 전파 '인기 짱'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맛집' 선정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정보 안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행정서비스

질문만 입력하면 그에 대한 답변

'파주여행안내 챗봇'이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행정 사례 '적극행정 맛집'에 뽑혔다.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맛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례 중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전국에 전파하는 사업으로 파주여행안내 챗봇은 9월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파주여행안내 챗봇'은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관광정보를 안내하는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파주여행안내 챗봇은 카카오 채널과 파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웹, 모바일)에서 접속해 관광코스 추천, 관광홍보물 신청은 물론 관광지 운영시간이나, 가는 방법 등 간단한 질문을 채팅창에 입력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까지 약 4개월간 1128명(카카오 채널 712명, 홈페이지 416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면 관광과장은 "파주관광은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와 '코로나19'로 1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파주여행안내 챗봇 같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충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여행안내 챗봇은 선택형 관광안내 105개, 자연어 상담을 위한 기본질문 120개, 관련 질문 약 600여 개에 대한 답변이 탑재돼 있다.

박남주기자

126 파주 고양 숙원사업 통일로선 전철 본격 추진 [경인일보 2020. 11. 11.]

127 파주여행안내 챗봇 전국 전파 인기 짱 [중앙신문 2020. 11. 18.]

5. 언론에 비친 파주

경인일보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016면 스포츠



파주시민축구단이 지난 22일 한국축구협회 디비전 시리즈 'K4리그'에서 초대 우승을 차지하며 'K3리그'로 승격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민축구단, K3리그 승격 '샴페인'

고양과 최종전 3-0 K4 정상 기쁨

시즌 13골 곽래승 MVP 수상 '쾌거'

창단 9년 차인 파주시민축구단이 처음으로 'K4 리그' 초대 우승을 확정 짓고 내년 'K3리그'로 승격했다.

이은노 감독이 이끄는 파주는 지난 22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리그 26라운드 고양시민축구단과의 최종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이에 파주는 올 시즌 16승5무3패(승점 53)를 기록하며 대한축구협회에서 올해부터 적용한 디비전(1~7부 리그) 시리즈 'K4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고양과의 경기 전까지 파주는 1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2위 포천시민축구단부터 4위 진주시민축구단까지 승점 1이라는 근소한 차이여서 부담스러운 경기였다. 그러나 이날 승리로 진주 및 울산시민축구단 승패와는 무관하게 우승을 확정지었다. 지난 2012년 창단 후 2017년 '베이직 리그' 강등이라는 위기를 겪었던 파주는 2018년 리그 2위 성적으로 다시 '어드밴스리그'로 승격했으며 17년 만에 경기도체육대회 우승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김상국 단장은 사령탑으로 이 감독을 전격 기용하며 팀워크를 정비하는 등 우승을 향한 담금질을 진행했다.

K4 리그 우승과 함께 올 시즌 13골을 터트리며 파주의 우승을 견인한 곽래승이 대회 최우수상(MVP)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려 대한축구협회로부터 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K3 리그로 승격해 새로운 팀들과의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3일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파주시민들에게 이번 우승이 자그마한 위로가 되길 바라고 파주시민축구단의 K4리그 초대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2021년에도 K3 리그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128

중부일보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007면 사회

파주 통일공원 시민 품으로… 소유권 문제 해결

市, 국방부와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파주시는 지난 17일 국방부와 76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국·공유재산 교환은 국가가 점유한 시유지와 시가 점유한 국유지를 실제 점유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1973년에 조성된 파주 '통일공원'이 50년 만에 온전하게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통일공원은 육군 1사단 장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됐다. 1953년 휴전회담 당시에 유엔종군기자센터가 있던 곳으로 현재는 6·25전쟁 기념비·육탄용사충용탑·개마고원 반공유격대 위령탑 등의 기념물과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이번 교환사업에는 위령탑 등 국방부 시설은 제외됐다.

그동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문제로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교환사업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족구장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교환사업과 같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교환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129

128 파주시민축구단, K3리그 승격 샴페인 [경인일보 2020. 11. 24.]

129 파주 통일공원 시민 품으로… 소유권 문제 해결 [중부일보 2020. 11. 24.]

수도일보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003면 종합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주민 중심으로 마을살리기 정책 추진 높은 평가

파주시의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가 지난 20일 '202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주민들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우수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인 김순은 위원장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면밀한 1·2차 심사가 진행됐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로 읍면동 단위의 마을살리기팀을 구성해 시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체계를 구축한 점과 마을별 주민간담회,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주민 중심으로 마을살리기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구도심이 슬럼화 되는 성장통을 겪으며 마을살리기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파주시는, 북부 구도심에는 마을자생력 강화, 남부 신도심에는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마을살리기를 추진했다. 지역특색을 담은 마을사업 23건을 발굴해 '술이홀 마을에서 놀고 배우고 나누는 우리(파주읍)', '우리동네 공동육아 함께 키움(교하동) 등 우수사업 16개에 사업비 총 2억 8천 5백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일회성 사업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마을 간 우수사업을 확산하고 다양한 마을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해 마을살리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마을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해 자생력을 갖춘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파주형 마을살리기의 목표이자 파주가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이연우 기자

130

현대일보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004면 종합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조감도 (사진 - 파주시제공)

파주 가람마을, 지하주차장 건설 첫삽

깨끗한 주차 공간 제공
불법 주정차 민원 해소

파주시는 운정 가람마을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중 '가람마을 공원(근린공원 11호, 와동동 1591번지)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7,785.9㎡, 지하 2층~지상 1층에 주차면 235면 규모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며 2021년 11월 중 준공할 계획이다.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 작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했으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운정 가람마을 상가와 인근 주택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으로, 시는 공원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운정 가람마을의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상권 이용객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안숙희 기자 ash@hyundaibo.com

131

130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수도일보 2020. 11. 24.]
131 파주 가람마을, 지하주차장 건설 첫삽 [현대일보 2020. 11. 26.]

5. 언론에 비친 파주

경인일보

2020년 12월 01일 화요일 009면 사회

파주 운정호수공원 '차별화'

설계공모 동일기술공사 선정

보행환경 개선·선상카페 눈길



파주시는 최근 '운정호수' 친수공간 조성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 운정 호수공원과 소리천을 '체험과 휴식'이 있는 친환경 문화예술 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파주시는 30일 '운정 호수공원과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주)동일기술공사에서 제출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설계 공모에 앞서 환경디자인과 조경, 구조,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등 심사 위원을 공개모집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모를 진행했다.

시는 시민 설문결과, 개선 요구가 많았던 운정호수의 황조롱이 대체 조형물과 벤치, 그늘 공간, 소리천 발 물놀이터, 자유제안 등 4가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위는 당선작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과 발 물놀이터, 선상 카페, 교량 하부경관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심사위는 반면 유지관리를 고려해 과한 디자인과 색감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소재를 활용하는 한편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이 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공모 당선업체와 다음 달 초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간 본격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설계 공모를 통해 다른 수변공원과 차별화된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휴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132

중부일보

2020년 12월 01일 화요일
006면 사회

파주시·현대ENG 컨소시엄, 캠프에드워즈 개발 협약

파주시는 11월 30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캠프에드워즈에 66만6천㎡의 면적에 약 6천 세대, 1만4천 명이 거주하는 단독·공동주택용지와 상업·업무시설 및 학교·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공공환원계획으로 캠프에드워즈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시와 합의해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파주시는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을 적극 협조하고, 민간사업자는 재원조달, 보상, 공사, 공공환원 등 사업이 조기 조성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최종환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133

132 파주 운정호수공원 '차별화' 본격 추진 [경인일보 2020. 12. 01.]
133 파주시 현대ENG 컨소시엄, 캠프에드워즈 개발 협약 [중부일보 2020. 12. 01.]

경기신문

2020년 12월 01일 화요일 009면 지역

파주시중앙도서관 '풀뿌리 기록사업' 주목… 전국서 벤치마킹 늘어

파주시는 평범한 파주사람의 삶과 기억을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로 기록하는 파주시중앙도서관의 '풀뿌리 기록사업'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파주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서관에 기록관리팀을 신설하고, 경기도 최초로 민간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사라져가는 파주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아카이브 강좌 개설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서관 내에 시민채록단을 꾸려 40년 이상 파주에서 삶을 일군 사람들의 기록을 엮어낸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를 발간했다. 그 결과, '전국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시민기록네트워크, 시민채록단, 기록물관리위원회, 기록활동가 양성,



파주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이 발굴되어 전시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기록물 공모전 등 기록물 수집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시민이 기록의 주체로 참여하며 기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주DMZ국외자료, 장단지역 기록, 대성동 자유의 마을 이야기, 교하·운정 신도시, 금촌재개발 지역 등 파주의 다양한 상징적 주제들을 발굴해 기록하는 '주제별 기록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수집된 일련의 기록물들은 파주중앙도서관 디지털기록관에서 전시와 함께 기록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이 사업이 언론, 연구, 정책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타 기관과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늘고 있다.

파주시 기록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록하는 도서관'이라는 기능과 시민들의 일상 공간인 도서관을 활용한 점을 들 수 있다.

시는 향후,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기관인 라키비움(Larchiveum)을 건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기록을 주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파주 = 최연식 기자

134

현대일보

2020년 12월 03일 목요일 012면 경제

파주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설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파주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가 내년 1월 4일 설립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북서센터는 파주시 운정 법조타운 5층에 약 135평 규모로 관할지역은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지역이다.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육성,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 성장지원, 지역화폐의 지속적 확대 발행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북서센터 파주시 설립에 따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해 별도의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북서센터의 파주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파주시는 북서센터 사용 건물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서센터의 파주시 설립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서센터가 소상공인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안숙희기자ash@hyundailbo.com

135

134 파주시중앙도서관 '풀뿌리 기록사업' 주목… 전국서 벤치마킹 늘어 [경기신문 2020. 12. 01.]

135 파주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설립 [현대일보 2020. 12. 03.]

5. 언론에 비친 파주

도민일보

2020년 12월 04일 금요일 012면 경기

파주시,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우수상 수상

파주시가 경기도가 주관하고 도내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는 주택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매년 주택 관련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며, 주요 평가 사항은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이다.

특히 파주시는 주거복지 향상 평가 사항 중 위기가구의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거복지 관련 상담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기관과 연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맞춤형 상담센터 운영'이 우수 특수시책으로 선정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토교통부 제7회 규제혁신 심의회에서 개선과제로 채택된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K-apt) 입찰공고문 표준안 데이터베이스 구축(안)'을 활용해 관계법령을 위반되지 않는 입찰 공고를 유도해 입주민 간의 갈등 및 분쟁이 해소될 수 있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찰공고문의 표준안 운영 사항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주택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복지사각에 있는 시민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조 기자

136

인천일보

2020년 12월 04일 금요일 004면 메트로

파주시 학교급식비 152억 지원 의결

파주시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1년 파주시 학교급식비로 전년 대비 6000만원이 증가된 152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균형 잡힌 식습관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비는 파주 내 105개 유치원과 학교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 학교급식에 제공될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으로 23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하면 가격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쌀, 부식류, 축산물, 우유가 해당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제한된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진행돼 학교급식이 다수 변경되는 등 급식비 지원뿐 아니라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도 감소했다.

이에 시는 각 가정에 파주 쌀, 장단콩, 친환경 농산물 등 학교별 여건에 맞춘 식재료 꾸러미를 지원하는 등 학부모 부담과 생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해왔다.

김윤정 시 교육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지원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137

경기신문

2020년 12월 04일 금요일 008면 지역

파주시, 수도시설 운영관리 잘했다… 환경부 평가 '전국 1위'

파주시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2020년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수도시설 관리실태 평가는 환경부에서 경쟁력 있는 상수도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161개소와 광역 상수도를 운영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역권역 6개소 등 총 167개소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상수도 인력의 전문성 확보,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능력, 정수시설 운영관리 등 상수도 운영·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파주 = 최연식 기자

138

136 파주시,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우수상 수상 [도민일보 2020. 12. 04.]
137 파주시 학교급식비 152억 지원 의결 [인천일보 2020. 12. 04.]
138 파주시, 수도시설 운영관리 잘했다… 환경부 평가 '전국 1위' [경기신문 2020. 12. 04.]

수도일보 2020년 12월 07일 월요일 010면 경기

파주시,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장관상 수상

중앙도서관 '모두를 위한 도서관으로 Step Up'

파주시가 2020년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성과 평가에서 중앙도서관 '모두를 위한 도서관으로 Step Up!' 과제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수요자인 시민·전문가와 정책공급자인 공무원이 함께 공공서비스를 개발·개선해 나가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참여형 정책모델이다.

이번 포상은 2020년 운영된 국민디자인단 과제 110개 중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 및 전문가 온라인 발표심사를 통과한 상위 우수과제 23개 기관에 수여됐다.

중앙도서관 국민디자인단은 낡은 도서관 시설 공간을 재구성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파주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아홉 차례의 회의와 찾아가는 시민설문조사, 고객여정맵 작성, 계층별 인터뷰 등의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중앙도서관은 디자인단의 의견을 반영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통합이미지 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리모델링 후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연우 기자

139

중앙신문 2020년 12월 07일 월요일 007면 메트로

파주시, 내년도 국비 5072억 확보

국회서 계획보다 181억원 더 증액

최종환 시장, 예산 확보 위해 진력

교통, 문화·체육·관광분야등 '탄력'

"재원,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되게 준비"

파주시가 2021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 5072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6일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시의 주요 현안 사업비가 당초 정부가 제출한 4892억 원보다 181억 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환 시장은 이같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를 돌며 국비 지원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체계를 구축, 주요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력해왔다.

우선 교통분야 주요 사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건설 1233억 ▲김포-파주, 파주-포천고속도로(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2387억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341억 ▲문산-도라산 전철화 70억 ▲파주-부곡 연결도로 개설 35억 ▲운정역-야당역-앵곡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30억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30억 등 4247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도 파주시의 숙원사업인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 143억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DMZ 실감미디어 체험관 운영, 평화 테마 ICT공연) 53억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20억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17억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6억 등 278억 원을 확보해 시민들의 문화·여가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14억 ▲범원을 새뜰마을 9억 ▲광탄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9억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6억 등 47억 원을 따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 환경·농업 등 기타분야 사업으로 ▲운정 하수관로 정비 74억 ▲장곡리 하수관로 정비 64억 ▲어유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44억 ▲용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26억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 40억 ▲금촌(조리·월롱)하수관로 정비 30억 ▲지표수보강개발(발랑·탄현지구) 21억 ▲스마트가든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2억 등 500억원을 확보했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점에 지역국회의원들의 협력으로 정부 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힘들게 확보한 재원인 만큼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해 발전하는 파주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확보한 재원을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박남주기자

140

139 파주시,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장관상 수상 [수도일보 2020. 12. 07.]
140 파주시, 내년도 국비 5072억 확보 [중앙신문 2020. 12. 07.]

5. 언론에 비친 파주

141 황포돛배의 '낭만 항해'
[한국일보 2020. 12. 07.]
142 파주,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기관'
[신아일보 2020. 12. 08.]

한국일보

2020년 12월 07일 월요일 A25면 오피니언

포토에세이 황포돛배의 '낭만 항해'



노란 황포돛을 단 유람선이 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강을 유유히 거슬러 오르고 있다. 서해를 거쳐 임진강변을 드나들던 조선시대 보부상들의 주된 운송수단 '황포돛배'가 최근 관광 유람선으로 복원돼 추억과 낭만을 실어나르고 있다. 힘겨운 시기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는 법. 황포돛배를 따라 이는 찬란한 물결을 바라보며 코로나19의 시름을 잠시 잊는다.

파주=배우한 기자

141

신아일보

2020년 12월 08일 화요일 009면 지방 네트워크

파주,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기관'

2년 연속 선정… 상사업비 1억5000만원 확보

경기도 파주시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깨끗한 경기 만들기'는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가 2019년도부터 시행한 시·군 평가 제도다. 불법행위 단속·홍보 강화 및 무단투기 예방인프라 구축, 주민참여 감시체계 마련 등 총 4개 분야 9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1월부터 10월까지의 각 시·군 실적을 종합평가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시는 올해 초부터 '깨끗하고 건강한 파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무단투기 단속강화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하고 거점배출시설 설치와 이동식CCTV를 도입하는 등 각 분야별 중점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올해는 상사업비를 활용해 묵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 수거함을 확대보급 하는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을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깨끗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와 파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상길 기자 sglee@shinailbo.co.kr

142

수도일보

2020년 12월 08일 화요일 005면 사회

파주시 건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 수용

체납자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와 본세 분납허가

파주시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0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을 경기도가 받아들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일정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후 재 창업한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와 본세의 분납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해 체납자 재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감면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제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가 없다. 이점에 착안해 징수과 혁신동아리(Dry Port팀)가 아이디어를 발굴해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제안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형평성 차원 및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이 필요하다"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 기자

143

경기신문

2020년 12월 08일 화요일 009면 지역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조성공사 순조… 내년 7월 준공

6차 산업 지역특화 관광사업
연내 40% 공정률 목표 박차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공사가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착공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공사가 지난달 30일 기준 공정률 35%를 보였다고 7일 밝혔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콩 수요 촉진,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도모 등을 위한 6차 산업 지역특화 관광 사업으로 도비 100억 원, 시비 40억 6000만 원, 농협 및 기업 67억 1000만 원 등 총 207억7000만 원을 출자해 추진한다.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지구내 4만9000㎡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40% 공정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준공 이후 9월부터 파주장단콩을 재료로 하는 장류 생산·분양·판매하는 농산물 가공사업과,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콩을 이용한 전문음식점 및 카페 등 웰빙사업, 내방객 체험 및 교육관련 사업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2015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 탄현면 법흥리 부지에 착공했으나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서식지 발견으로 공사가 중지됐다가 2018년 시민 공론화를 통한 사업 재추진 및 부지 이전 확정으로 올해 4월 성동리 부지에 새롭게 착공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내년 준공까지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파주 농업인, 시민과 상생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 = 최연식 기자

144

143 파주시 건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 수용 [수도일보 2020. 12. 08.]
144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조성공사 순조… 내년 7월 준공 [경기신문 2020. 12. 08.]

현대일보

2020년 12월 09일 수요일 010면 지방종합

파주시,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 첫 삽…내년 8월 준공



파주시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감도. (사진 ·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경의중앙선 이용객과 야당역 주변 상가 이용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야당역환승주차장(야당동 1087번지 일원) 확충 공사'가 8일부터 진행된다.

파주시는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9,535㎡, 지상5층 6단 주차장 305대 규모의 건물식 주차장을 조성하며 2021년 8월 중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야당역환승주차장 확충공사를 위해 작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과 국가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수립, 체계적인 주차 정책의 수립을 위해 2019년 5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착수했으며 2022년까지 지역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7개소, 579억 원을 투자해 총 1,596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착공에 이어 야당역환승주차장 확충공사도 시작돼 지역의 부족한 주차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 불편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안숙희 기자 ash@hyundailbo.com

145

중부일보

2020년 12월 09일 수요일 006면 사회

파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최우수' 쾌거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전국 222곳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여성가족부 종합평가에서 상위 5% 최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2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위기 청소년 지원 기반조성 ▶센터의 사업 인프라 ▶센터 운영성과 ▶운영사례 등 4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 영역에서 골고루 높은 성적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또한 2020년부터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운영하는 등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와 협력해 다양한 상담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파주시 청소년 및 학부모는 누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940-002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상돈기자

146

145 파주시,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 첫 삽…내년 8월 준공 [현대일보 2020. 12. 09.]

146 파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최우수 쾌거 [중부일보 2020. 12. 09.]

경기도민일보

2020년 12월 09일 수요일 008면 지역

파주시 운정보건지소 우수기관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 기관표창

파주시 운정보건지소는 올해 새롭게 시작한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 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2020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2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표(3개 영역, 8개 항목)의 정량평가에 따라 아토피 · 천식 예방사업 중 자체 특화사업을 개발 · 보급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서구식 주거형태, 대기오염 심화 등 생활환경의 변화와 소화면역체계 약화로 아토피 ·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과학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에는 안심학교 운영이 현재 23개소에서 59개소로 확대되며 취약계층 대상 진단비와 보습제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은 만성적으로 재발하기 쉬워 아동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라며 "이번 기관표창을 계기로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이 조기 정착돼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식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성훈기자

147

중부일보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007면 사회

파주중앙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 장관상 수상

파주시중앙도서관이 지난 9월부터 두 달 간 진행한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나랏말씀과 파주 말모이학자 정태진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는 올해 총 354개 도서관이 참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3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20개관이 선정됐는데, 우수도서관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등 사업실적과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파주시중앙도서관은 지역문화 발굴 및 연계, 비대면 소통 활성화,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문화의 발굴과 인문정신 고양을 위해 7년간 인문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의 올해 주제는 '한글'이었다. 파주의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정태진 선생을 조명하며 파주출판도시의 책박물관, 활판공방 등 지역 자원과 연계했으며 총 10회의 강연과 온라인 탐방에는 72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윤명희 관장은 "작년 협회장상에 이어 올해 장관상을 받게 된 것은 파주시민의 지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문학을 매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148

147 파주시운정보건지소우수기관 [경기도민일보 2020. 12. 09.]

148 파주중앙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 장관상 수상 [중부일보 2020. 12. 11.]

5. 언론에 비친 파주

수도일보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011면 교육/문화

파주 가람도서관, 도서관 혁신 우수 현장사례 장려상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파주시 위탁도서관(가람·조리·금촌3동솔빛·물푸레·금촌무지개작은도서관) 사서들이 협력해 만든 온라인 정보 활용 교육 이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제14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분야는 매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최로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의 공모주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다.

이번에 장려상을 수상한 〈L시리즈〉는 도서관에 올 수 없는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서관과 방탈출 게임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정보 활용 교육이다.

시즌1은 도서관이용방법과 정보활용을 접목한 '전설의 시작', 시즌2는 미술과 체험을 접목한 '사라진 그림을 찾아라', 시즌3은 책과 출판주제를 접목한 '사라진 사람들의 비밀', 시즌4는 여행과 지리주제를 접목한 '여행을 떠나야겠습니다'로 사서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해 도서관 온라인 방탈출을 기획·운영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파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시즌4까지 선보였으며 12월 중 시즌5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L시리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파주시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aju.go.kr/grlib) 및 가람도서관 블로그(https://blog.naver.com/garam_lib)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연우 기자

149

경기매일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007면 지방

파주시,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파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기관표창, 인센티브 6천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지난 겨울철 지속된 한파와 제설로 인해 파손된 각종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한파피해 도로정비' 계획과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춘 '춘·추계 도로정비' 계획을 각각 수립해 병행 정비를 추진해왔다.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 위임국도, 지방도 등 356개 구간, 72km에 대해 재포장·퇴색 차선도색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및 물고임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을 개선했으며 보행약자를 배려한 노후 보도정비 등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 초점을 두고 정비를 실시했다.

특히 지방도363호선 내 문산제일고 앞 군 방호벽을 지난 11월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상습정체와 지역 간 단절문제를 말끔히 해소하며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습정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정비 우수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춘계(30%)와 추계(70%) 정비실적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며 파주시는 지난해에도 도로정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4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파주 = 신민하 기자

150

149 파주 가람도서관, 도서관 혁신 우수 현장사례 장려상 [수도일보 2020. 12. 14.]
150 파주시,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경기매일신문 2020. 12. 15.]



수도일보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009면 경기

파주시, 지속가능 교통도시 '최우수상' 수상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등 정책평가 부문

파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의거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 75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과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 부문 현황과 시행정책을 진단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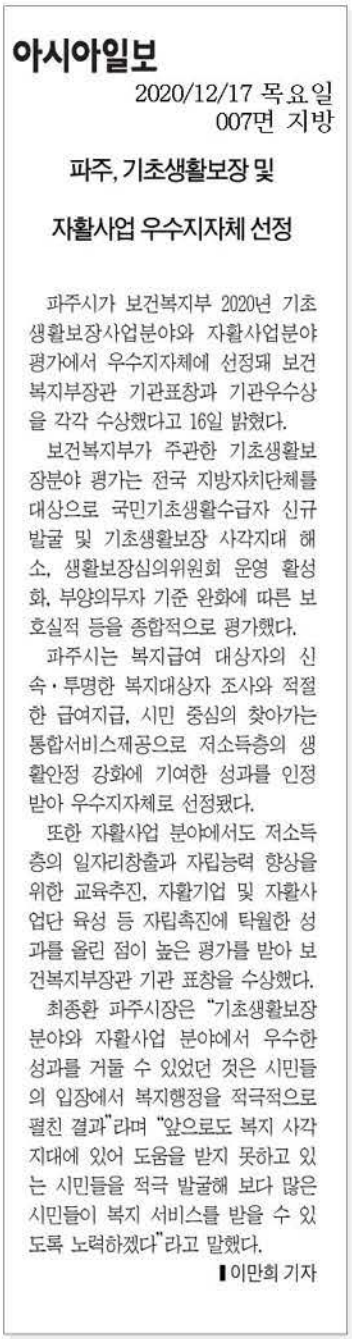
파주시는 교통문화지수,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등 현황평가 부문과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정책,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등 정책평가 부문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2019년 '종합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결과는 파주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통안전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진 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 기자

151



아시아일보

2020/12/17 목요일
007면 지방

파주,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파주시가 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생활보장사업분야와 자활사업분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과 기관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발굴 및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보호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파주시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신속·투명한 복지대상자 조사와 적절한 급여지급,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서비스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자활사업 분야에서도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추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육성 등 자립촉진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기초생활보장분야와 자활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적극 발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 기자

152

151 파주시, 지속가능 교통도시 '최우수상' 수상 [수도일보 2020. 12. 17.]
152 파주,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아시아일보 2020. 12. 17.]

수도일보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002면 종합

파주, 공평과세 투명세정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방세정 운영평가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입증'

파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0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세정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구제민원 처리, 납세편의시책 추진 등 총 15개 지표를 근거로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파주시의 재정건전성 운용에 대한 대외평가로 읽힌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증폭됐으나 파주시는 지방세 징수액 증·감 추세를 세목별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징수목표달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ASF 피해 축산농가 및 코로나19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지원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지방세 마을세무사 확대와 선정대리인 도입을 통한 세정지원으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파주시의 2020년 지방세 징수 전망액은 시세 3,284억 원, 도세 3,853억 원으로 목표액 6,780억 원 보다 357억 원 증가한 7,137억 원이 예상된다.

이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징수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시 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 원 초과 2억 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 5000원, '2억 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7만 5000원~15만 원, '5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이 각각 감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별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감면 금액 자체는 적지만 최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또한, 기존 5개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과세체계가 간소화되고 주민세 납기 기간도 현행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된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1년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사전 홍보하는 등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연우 기자

153

경기신문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008면 지역

파주시,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4건 선정

황희 '반구정' 등 문화유산 활용
비대면 프로그램 다양하게 마련

파주시는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2021년 문화재 활용사업'의 공모결과 4건의 문화유산이 선정돼 활용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과 결합해 인문정신 함양, 교육, 공연, 체험 등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조선 대표 황백리인 방촌 황희의 '반구정', 고려의 행궁유적인 '혜음원지', 율곡이이를 만날 수 있는 '자운서원', 평화와 화합의 우계성혼의 '파산서원' 등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 2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2건 등 총 4건이다.

특히, 내년도 프로그램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참여에 제약이 많은 부분을 고려해 ▲밀키트(Meal-KIT)를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요리체험 프로그램 ▲온택트 파주 역사문화 기행 ▲온라인으로 누리는 문화유산 문화공연 등 비대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권예자 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유산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해 파주시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할 것"이라며 "국민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다채로워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 = 최연식 기자

154

153 파주, 공평과세 투명세정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수도일보 2020. 12. 17.]
154 파주시,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4건 선정 [경기신문 2020. 12. 17.]

경기도민일보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004면 사회

파주스타디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용자 방문 시설 접근성 향상

파주시는 파주스타디움을 방문하는 장애인 이용자의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총 사업비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파주스타디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11개소를 설치했으며 장애인 화장실 2개소에 자동문을 설치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의 경계턱을 정비하는 등 장애인 이용자가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파주스타디움을 방문하는 장애인 이용객이 보다 용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추가적인 부분은 보완해 향후 2021년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성훈기자



파주스타디움 내 장애인 편의시설.

155

경인종합일보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011면 지방

파주시, 방범CCTV '네트워크 신기술(SDN)' 이용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파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방범CCTV시스템에 네트워크 신기술인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Software Defined Network)'를 적용한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5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원 확보했으며 총 1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방범CCTV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최신 정보통신 신기술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적용 결과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방범CCTV의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사람, 차량 등 객체를 식별하고 배회, 침입, 쓰러짐 등 탐지된 객체의 이상행동을 분석해 관제 효율을 향상하는 기능을 갖춘 지능형(AI) 선별영상관제 기술과 에지컴퓨팅(Edge Computoing) 기술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현장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분석으로 전송망 대역폭 감소로 인한 추가적인 통신망 구축관련 예산의 절감 효과도 거뒀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방범CCTV에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을 접목, 구축해 육안에만 의존하던 기존 영상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로 범죄예방 및 관제업무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윤상명 기자/jonghapnews.com

156

155 파주스타디움 이용자 방문 시설 접근성 향상 [경기도민일보 2020. 12. 17.]
156 파주시, 방범CCTV '네트워크 신기술(SDN)' 이용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경인종합일보 2020. 12. 17.]

인천일보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002면 종합

파주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 탄력

조리·문산 등 4읍 9면 7개동
접경지 균형 발전·경제 활성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추가
974가구 단독·공동 주택도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이하 종합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종합계획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의 발전 및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확정하는 계획으로 파주시는 조리읍, 문산읍 등 4읍 9면 7동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에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중 캠프스탠턴은 기존 교육시설, 도시개발 외에 산업단지개발까지 추가됐고, 캠프하우즈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의 국비가 27억 원 증액돼 반영됐다.

'지자체사업 및 민자사업'으로는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1958억원 규모의 운정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지자체 및 민자사업이 신규로 확정됐다.

특히 캠프스탠턴은 지난 6월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파주시·GS건설간 기본협약을 체결해 이곳에 제조·물류시설, 방송 제작 시설, 974가구의 단독·공동주택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6월 국립암센터 혁신의료 연구단지 조성 협약과 8월에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해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파주시민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정테크노밸리는 최적의 교통여건 및 신도시, 택지 등 배후 도시 정주환경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종합계획 반영을 통해 민자사업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행안부가 확정한 종합계획 변경에 시 주요사업이 반영된 것은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라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157

경기도민일보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004면 사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우수상

파주시, 임꺽정봉 산자락 식생복원 나서

파주시는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관하고 환경부에서 후원한 제20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파주시 임꺽정봉 산자락 식생복원을 통한 생태문화숲 조성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인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 9-14번지 일원(조성 면적 6220㎡)은 생태계보전협력금 5억원을 투입, 감악산 힐링문화와 연계해 환경친화적인 쉼터와 생태학습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과거 불법 음식점이 있었으나 2011년 수해로 각종 건축폐자재, 생활폐기물 등이 방치됐던 곳으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감악산 힐링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경기5악인 감악산은 출렁다리 설치 이후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향후 관광객들의 쉼터공간 등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대두되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변 생태계와 연계한 자연생태계로 복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감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치유의 장소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성훈기자

158

157 파주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 탄력 [인천일보 2020. 12. 18.]
158 자연환경대상공모전우수상 [경기도민일보 2020. 12. 18.]

현대일보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002면 종합

파주시,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 고득점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1차 평가에서 37점 만점에 36.5점을 획득했다. 정량평가 부분을 평가하는 이번 1차 평가에서 관리체계, 개방, 활용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디지털 뉴딜정책(청년인턴) 이행 부분에서 가점을 받은 것이 돋보였다.

파주시는 지난 9월 정부의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배정받은 청년인턴 17명을 활용해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진단, 실측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방통행도로, 횡단보도 등 5종의 공공데이터를 신규로 개방했고 6개 DB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했다.

한편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파주/안숙희기자ash@hyundailbo.com

159

일간경기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017면 스포츠

파주시, 금촌 실내배드민턴장 리모델링

문체부 공모사업선정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2007년 설립된 금촌 실내배드민턴장의 오래된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1억원을 들여 기존 실내배드민턴장 전면 개 · 보수와 코트 1면을 추가로 증설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안전한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파주시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시설 이용 간 개선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체육시설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기홍 기자

160

159 파주시,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 고득점 [현대일보 2020. 12. 18.]
160 파주시, 금촌 실내배드민턴장 리모델링 [일간경기 2020. 12. 21.]

시민일보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009면 사회

파주시, 내년 본예산 1조5398억 확정

문산 중앙도서관·경의선 운천역 신설 본격화

일자리 창출·소상공인 지원등 경제 활성화도

경기 파주시의 2021년도 본예산이 제22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최종환 시장의 핵심 공약과 시정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본예산 총 규모는 1조539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92억원(0.8%)이 증가한 1조2210억원, 특별회계는 393억원(14.1%)이 증가한 3188억원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운정보건지소 건립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금촌 다목적 체육관 및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교하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개선 등 공공시설 조성에 342억원과 ▲가람마을 지하주차장 조성 ▲금촌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에 71억원을 투입해 복지·보건·문화·행정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 ▲경의선 운천역 신설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및 율곡수목원 연계관광로 개설 ▲천원택시 확대(문산·법원·파주·광탄·적성) ▲공공형 버스 노선 신설(월롱·운정 등)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과 LED전광판 설치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 시민이 편한 사통팔달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올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희망일자리 사업을 자체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 고용 위축에 적극 대응한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위해 직·간접 일자리 창출, 창업자 임대료 지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골목상권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자금(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등)을 확대 지원하고, 금촌통일상권 환경개선과 문화거리 조성 및 스마트 상권 구축, 적성전통시장버스킹단 및 팸투어 운영 등 차별화된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161

경기신문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009면 지역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탄력'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소송 2심도 승소… 사업 정상화 청신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협약 추진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파주시의 승소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가 지난 18일 A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A사와 소송을 진행중이던 파주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앞서 2019년 12월 3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피고가 제시한 4가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공원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2018년 12월 파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동안 시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됐음에도 주민 토지보상 지연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 수행능력의 부재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파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조속한 시일 안에 협약을 체결하고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 할 계획이다.

한편,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47만 6000㎡(약14만평)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8년 3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경기도 의제협의까지 모든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나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후 기존 사업시행자인 A사와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파주 = 최연식 기자

162

161 파주시, 내년 본예산 1조5398억 확정 [시민일보 2020. 12. 21.]

162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탄력' [경기신문 2020. 12. 21.]

현대일보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011면 문화

파주 장단콩축제, 경제부문 '콘텐츠 대상' 수상

축제콘텐츠협회 주최, 파주장단콩 우수성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

파주장단콩축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파주장단콩축제는 농산물축제로 시작해 문화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매해 새롭고 다양한 축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2020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전국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심사해 △콘텐츠부문 △관광부문 △경제부문 △예술/전통부문의 각 분야별 우수한 축제를 선정하는 상으로 (사)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한다. 분야별 별점 5개 축제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20선에 선정됐고 파주장단콩축제는 경제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장단콩축제는 지역명품 파주장단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2020 경기관광 대표축제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축제임이 증명됐다.

올해 파주장단콩축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임진강역 임시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로 전환해 개최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방식의 농특산물 판매방식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현철 파주시 농업진흥과장은 "2021년에는 즐기고, 맛보고, 체험하고, 구매하는 축제의 본연의 요소들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안숙희 기자 ash@hyundailbo.com

163

수도일보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010면 경기

파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분야 우수기관 선정

친환경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 지속 노력

파주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2013~2018년 이어 2020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는 하수도 지방공기업 및 전국 공사·공단·직영기업 249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파주시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물순환 도시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3개 분야 24개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성면 어유지리 일대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하천수질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를 정비했다. 또한 2018년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하수재이용시설을 준공해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과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친환경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급속히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안정적 하수처리를 도모하고 친환경 수질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 기자

164

경인종합일보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011면 지방

◈ 파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가 경기도 주관 '2020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시·군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및 이용 활성화정책 추진을 위해 자전거 사고예방 안전대책, 자전거길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우수시책 등 3개 부문 19개 지표로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이뤄졌다.

파주시는 올해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개설'(임월교~반구정 구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전거 라이딩 행동수칙 홍보 및 이용시설 관리 등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다.

이병준 파주시 건설과장은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성 증진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상명 기자/jonghapnews.com

165

163 파주 장단콩축제, 경제부문 '콘텐츠 대상' 수상 [현대일보 2020. 12. 21.]
164 파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분야 우수기관 선정 [수도일보 2020. 12. 21.]
165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인종합일보 2020. 12. 23.]

경기도민일보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010면 지역



율곡수목원 구도장원길 장원종.

율곡수목원 구도장원길 조성

파주시, 총 2700m 산책로에 5개 테마로

파주시는 21일 율곡수목원에 구도장원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율곡수목원이 위치한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는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의 본가가 있던 곳으로 그의 생애와 관련이 깊은 곳이다.

율곡 이이는 13세로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을 차지해 '아홉 번 장원급제한 분'이라는 뜻의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율곡수목원 구도장원길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충효의 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총 2700m 거리의 율곡수목원 산책로에 율곡 이이의 생애와 사상 등을 5개 테마로 △나도밤나무길(800m) △자경문길(400m) △격몽요결길(400m) △십만양병길(400m) △삼현수간길(700m)로 조성한 이야기길이다.

특히 사방이 트여 임진강 물줄기를 볼 수 있는 전망대에는 장원종을 설치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특별한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율곡 이이의 스토리텔링과 함께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생과 수험생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1년 새해에 율곡수목원 구도장원길을 거닐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도 치유하고 구도장원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일을 모두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성훈기자

166

경기도민일보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011면 지역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두각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부 장관상 수상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인 내일상상 프로젝트 지원전략팀을 구성하고 '오늘의 청소년들이 만드는 내(來)일의 나의 직업(業) 이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교육부가 주최한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에서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가 교육부 장관상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시상식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대체해 진행된다.

시는 올해 파주시,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학교 밖 체험처, 교육지원청,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인 내일상상 프로젝트 지원전략팀을 구성하고 '오늘의 청소년들이 만드는 내(來)일의 나의 직업(業) 이야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체험처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미래사회의 변화된 직업의 정보를 전달해 파주학생들의 진로설계를 도왔다.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동영상 제작 및 개별 체험키트 개발에 적극 노력했으며 파주시 지역 내 아동·복지센터 및 학교 9곳에서 16회를 운영, 총 691명의 파주 학생들에게 지원됐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체험처는 4곳으로 DMZ생태분야에 ㈜몽솔레, 인문학 분야에 ㈜활판공방, 독서진로 분야에 ㈜김영사, 스마트농업 분야에 ㈜DMZ드림푸드가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는 등 적극 참여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진로체험처인 출판단지, DMZ 등 대표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움의 장이 학교에서 지역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파주의 모든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성훈기자

167

166 율곡수목원 구도장원길 조성 [경기도민일보 2020. 12. 22.]
167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부 장관 수상 [경기도민일보 2020. 12. 23.]

경기매일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007면 지방

파주시, 2020년 통합정신건강증진 공모사업 선정

2020년 예산 약 7800여만원·2021년 예산 1억7000만원 확보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2020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0년 예산 약 7800여만원과 2021년 예산 1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향서를 제출받아 진행됐다.

파주시보건소는 이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보건-복지 정신과적 통합사례관리), '우리동네 마음이음'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연계체계 강화)사업을 수행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고 위험군을 발굴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는 접근성 취약 지역 등에서 이동심리상담소를 운영해 지역주민의 심리적 지지체계를 구축, 보건-복지 정신과적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는 등 초기 대상자 발굴과 수해자의 욕구를 초기에 파악해 해소시키고 있다. 현재 마음건강심리상담소는 313명이 방문 및 상담을 진행했으며 마음이음 사업으로 40명이 연계돼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있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정신질환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책임지기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 신민하 기자

168

경기신문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008면 지역

파주시, 아동사거리 등 교차로 4개소 상습정체 해소 소매 걷고 나서

대기차로 용량 포화 통행불편 극심
교차로 개선사업 예산 10억원 확보

파주시가 아동사거리, 책향기 교차로, 갈현사거리, 대원사거리 등 교차로 4개소의 출·퇴근시간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시는 운정신도시와 산업단지조성 등 급격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구유입으로 인한 교통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요 교차로의 좌·우회전 등 대기차로의 용량 포화로 극심한 통행불편이 발생했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욱이 기업의 물류비용 소모 현상도 극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2021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 상습정체로 발생하는 시민불만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호교차로는 방향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교통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지점이다.

이번 사업 대상 교차로 4개소(아동사거리, 책향기 교차로, 갈현사거리, 대원사거리)는 운전자 욕구불만, 불쾌감 및 통행시간의 손실 등을 나타내는 서비스 수준 평가 기준을 분석했을 때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 상태로, 과포화 상태인 'F'등급 또는 심각한 포화상태인 'FF'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준의 기준은 분석기간(첨두 5분) 동안의 차량 당 평균 지체의 크기에 따라 'A'에서 'FFF'까지 8개 등급으로 나뉜다.

시는 앞서 교차로 교통개선을 위해 2019년 금촌교차로 상습정체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말에는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을 철거하고 좌·우회전 추가차로 교통흐름을 개선 후 개통했다. 그 결과, 당초 서비스수준이 7등급인 FF수준에서 5등급이나 대폭 상향한 차량의 연속 진행상태가 좋은 2등급인 B수준까지 개선해 상습정체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차로 상습정체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 최연식 기자

169

168 파주시, 2020년 통합정신건강증진 공모사업 선정 [경기매일신문 2020. 12. 23.]
169 파주시, 아동사거리 등 교차로 4개소 상습정체 해소 소매 걷고 나서 [경기신문 2020. 12. 24.]

5. 언론에 비친 파주

도민일보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010면 경기

파주시,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사업홍보, 사업물량·추진실적등 18개지표 높은점수

파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표창 수여식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간소하게 진행됐다.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16개 광역시·도와 2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사업홍보, 사업물량 및 추진실적, 바른땅시스템 현행화 및 활용도, 특수시책, 정책지원 등 9개 분야 18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계분쟁과 토지거래 관련 쟁송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토지거래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바른 땅으로 만드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조리읍 삼릉·전나무골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 지구 3,779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 하고 현재는 3개 지구 821필지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신속한 지적불부합 토지 정리를 위해 국비 3억 6,000만원을 확보해 문산읍 선유지구 등 5개 지구 1,59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안조 기자

170

한겨레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012면 지방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판문점 67년 만에 주소 생겨

시, DMZ 일원 59만㎡ 지적복구
전쟁 이후 측량 못해 미등록 상태
'평화의 집'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공시가 결정 등 체계적 관리 가능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67년 만에 부여된 판문점의 새 주소다. 파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적(토지위치)복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년 만인 2020년 12월23일 판문점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 일대 미등록 토지 135필지, 59만2천㎡를 파주시 토지로 회복했다고 24일 밝혔다.

판문점 남쪽 지역은 옛 장단군 지역이었다. 한국전쟁 이전에 '장단군 진서면 선적리'로 불리다가 1972년 파주시로 편입됐다. 판문점 북쪽 지역은 북에서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리'로 부르고 있다.

판문점 남쪽 지역은 비무장지대인데다 미확인 지뢰 지역과 군사분계선 탓에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워 측량을 못 해 그동안 미등록 토지로 남았다. 지적복구 전까지 통일된 주소가 없어 정부기관과 포털사이트 등에서 위치를 제각각 표시해 혼란이 있었다.

판문점이 있는 진서면 선적리와 장단면 덕산리가 파주시로 편입되면서 남북 정상이 만났던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됐다. 또 개별공시지가 결정, 국유재산 권리보전 절차 이행 등 체계적인 관리도 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는 "내년 초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5월31일 소유자 미복구로 공시할 예정"이라며 "6·25 전 토지주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하면 등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판문점 일원의 지적복구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 위상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171

170 파주시,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도민일보 2020. 12. 24.]
171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판문점 67년 만에 주소 생겨 [한겨레신문 2020. 12. 25.]

PAJU
파주시

민선 7기
전반기 시정백서

발 행 처 파주시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간등록번호 71-4060000-000044-14
기획·편집 파주시청 기획예산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031-940-4053
http://www.paju.go.kr

편집·디자인 경인M&B㈜
인 쇄 경인M&B㈜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Tel. 031-940-4053 | www.paju.go.kr